2019

문화 예술 정책 백서

CULTURE & ARTS POLICY WHITE PAPER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추구,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문화환경의 변화에 따라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려는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문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문화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아갈수록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역할과 책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를 목표로 제시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공정한 문화 일터 조성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을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술인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 등 우리 문화의 해외 확장성을 높이고 한 · 중 · 일 문화관광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문화를 통한 평화와 안정, 번영의 공감대를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모두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로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코로나 우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연결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맞이해 문화융합 등 새로운 문화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백서'는 이처럼 문체부가 추진한 문화예술 부문의 정책 기조와 현황, 그리고 주요성과를 정리한 기록입니다. 이번 백서가 지난 문화예술정책을 복기하고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문화예술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백서 발간을 도와주시고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문화예술정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 양 우**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01장 2019년 문화예술정책 주요성과

1) 국민 문화향유 기반 확대 및 문화가치 확산 32
2) 예술 지원정책의 공정성 · 투명성 강화 및 예술인 창작권 보장 35
3) 지역주민 문화향유 확대 여건 조성 및 지역문화역량 강화 39

02장 문화체육관광부 현황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52
1. 연혁 및 역할 52
2. 조직 및 기능 54
1) 장차관 직속기관 59
2) 기획조정실 59
3) 문화예술정책실 60
4) 종무실 62
5) 콘텐츠정책국 62
6) 저작권국 63
7) 미디어정책국 64
8) 국민소통실 65
9) 체육국 66
10) 관광정책국 67
11)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68

제2절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단체 70
1. 국립문화예술기관 70
1) 한국예술종합학교 70
2) 국립국악중학교 · 국립국악고등학교 70
3) 국립전통예술중학교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70
4) 국립중앙박물관 70
5) 국립국어원 71
6) 국립중앙도서관 71
7) 해외문화홍보원 71
8) 국립중앙극장 72
9) 국립현대미술관 72

10) 국립국악원 72
11) 국립민속박물관 72
1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72
13) 국립한글박물관 73
14) 예술원사무국 73
15) 한국정책방송원 73
1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73
2. 특수법인 형식의 문화예술기관 74
1) 예술의전당 74
2) 한국문학번역원 74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74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5
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75
6) 세종학당재단 75
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75
8)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76
9)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76
10) 아시아 문화원 76
3. 민법상 법인형식의 정부재정지원 문화예술기관 77
1) 국립극단 77
2) 국립발레단 77
3) 국립오페라단 77
4) 국립합창단 77
5) 국립현대무용단 78
6) 정동극장 78
7) 서울예술단 78
8) 예술경영지원센터 79
9)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79
10) 국악방송 79
11)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79
12)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80
13) 국립박물관문화재단 80
14) 한국문화정보원 81
15)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81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제3절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부문 법령 82
1. 법령체계 82
1) 문화기본법 82
2) 문화예술 관련 법제 82
2. 2019년도 주요 법령정비 성과 84
1) 예술인 복지법 84
3. 법령별 주요내용 85
1) 공연법 85
2) 문화예술진흥법 85
3) 대한민국예술원법 86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86
5) 지방문화원진흥법 87
6) 도서관법 87
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88
8) 국어기본법 88
9) 문화예술교육지원법 89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89
11) 독서문화진흥법 90
12) 예술인복지법 90
13) 작은도서관진흥법 91
14) 지역문화진흥법 91
15)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91
16)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92
17)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92
18) 공예문화산업진흥법 93
19)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93
20) 한국수화언어법 94
21) 점자법 94
22)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94
2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94

제4절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96
1. 문화분야 국가재정 운용계획 및 방향(2019~2022년) 96
2. 2019년 중앙정부 문화재정 96
1)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정 96
2) 2019년 국립문화예술기관 재정 97
3. 문화예술진흥기금 98
1) 설치근거 및 배경 98
2) 기금개요 99
3) 기금조성 99
4) 적립 및 지원 현황 101

03장 문화정책

제1절 문화정책일반 104
1. 기본 방향 및 정책목표 104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05
1)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105
2) 문화다양성 정책 114
3)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 132
4) 문화영향평가 142
5)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149
6)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151
7)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154
8) 남북 문화교류 추진 157
9) 문화비 소득공제 158
3. 주요기관 162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62

제2절 국어정책 166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166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68
1) 국어정책 수립 및 편리한 언어생활 환경 조성 168
2)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 175

3) 해외 한국어 보급 176
4) 한글문화큰잔치 181
5) 국가 언어 자원의 수집 및 통합 정보 서비스 강화184
6)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사용 환경 개선 185
3. 주요기관 192
1) 국립국어원 192
2) 국립한글박물관 197
3) 국립세계문자박물관 203

제3절 전통문화정책 206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206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206
1) 전통 생활문화 육성지원 206
3. 주요기관 229
1) 한국국학진흥원 229
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32

제4절 국제문화정책 239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239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239
1) 국제문화교류 지원체계 정비 239
2) 주요 국제문화교류 241
3) 문화분야 ODA 사업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259
4) 국제기구 활동 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265

04장 예술정책

제1절 예술정책 일반 268
1.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268
2. 정책현황 및 추진성과 270
1) 예술인 복지증진 체계 마련 270
2) 문화예술 기부문화 확산 지원 273
3) 공연 예술창작 및 유통 지원체계 강화 279
4) 일상 공간 속 문화가치 확산 281
5)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강화 283
6)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286
3. 주요 기관 288
1) 한국예술종합학교 288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94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98

제2절 문학정책 303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303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303
1) 문학창작 활성화 사업 303
2) 온라인 기반 문학진흥 306
3) 문학관 건립 308
3. 주요 기관 310
1) 한국문학번역원 310

제3절 공연예술정책 320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320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321
1) 창조적 예술 활동 여건 확충 321
2) 예술의 유통 · 소비구조 선진화 추진 329
3. 주요기관 334
1) 국립극단 334
2) 국립발레단 341
3) 국립오페라단 346
4) 국립중앙극장 350
5) 국립합창단 354
6) 국립현대무용단 358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7) 정동극장 364
8) 서울예술단 372
9) 예술경영지원센터 375
10) 예술의전당 383
11)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388
12)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390

제4절 전통예술정책 393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393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393
1) 전통예술의 원형보존 및 창작활성화 393
2) 전통예술의 대중화, 산업화 및 세계화 402
3. 주요기관 422
1) 국립국악원 422
2) 국립국악학교 · 국립국악고등학교 428
3) 국립전통예술학교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432
4)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437
5) 국악방송 440

제5절 시각예술디자인정책 448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448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451
1) 시각예술 정책 451
2) 디자인공간문화 정책 478
3. 주요 기관 502
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502

제6절 문화예술교육정책 506
1. 기본 방향 및 정책목표 506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508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508
2)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519
3)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533
4) 문화예술교육의 글로벌 확대 534
5)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 539
6)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551

3. 주요 기관 562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62

05장 지역문화정책

제1절 지역문화정책 일반 568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568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568
1) 지역문화 자생력 제고 및 역량 강화 569
2)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591
3) 문화도시 지정 597
4) 여가문화 활성화 601

제2절 도서관정책 607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607
2. 일반현황 610
1) 주요 국가별 도서관수, 1관 당 인구수 및 장서(인쇄) 수 610
2) 전국 도서관 수 610
3) 공공도서관 일반현황 611
3.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612
1) 도서관 법제도 정비 612
2)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활성화 614
3)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강화 618
4) 도서관 운영 평가 및 통계조사 내실화 620
4. 주요 기관 623
1) 국립중앙도서관 623

제3절 박물관 · 미술관 정책 644
1. 기본 방향 및 박물관 현황 644
1) 기본 방향 644
2) 박물관 현황 644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645
1) 국립 박물관 · 미술관 운영 645
2) 공립 박물관 · 미술관 건립 지원 및 운영 내실화 645
3) 사립 · 대학 박물관 · 미술관 운영활성화 지원 646
4)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647
3. 주요 기관 648
1) 국립중앙박물관 648
2) 국립민속박물관 680
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92
4) 국립현대미술관 731

제4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정책 741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741
2. 일반현황 및 추진체계 743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743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744
3)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744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745
5) 아시아문화원 747
6) 광주광역시 749
3. 주요 정책 및 성과 750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751
2)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759
3)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 · 산업 육성 761
4)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764

표차례

표 2-4-1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부문별 재정추이	96
표 2-4-2	정부재정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점유율 변화	97
표 2-4-3	국립 문화예술기관 재정 현황	98
표 2-4-4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별 조성실적	100
표 2-4-5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실적	100
표 2-4-6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실적	101
표 3-1-1	문화 나눔 사업 개요	106
표 3-1-2	소득 계층별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2018~2019)	106
표 3-1-3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개요(2018~2019)	109
표 3-1-4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확대 현황(2019)	110
표 3-1-5	문화누리카드 연령별 발급 이용 현황(2019)	110
표 3-1-6	통합문화이용권: 나눔티켓 이용 현황(2019)	110
표 3-1-7	통합문화이용권: 나눔티켓 분야별 이용 현황(2019)	111
표 3-1-8	문화누리카드 홍보 내역(2019)	111
표 3-1-9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사업 유형별 실적(2019)	112
표 3-1-10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지역별 프로그램 수 및 관객 수(2019)	113
표 3-1-11	2019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지역별 프로그램	117
표 3-1-12	2019 유치원 및 초등 교원 대상 문화다양성 직무연수 운영 내용	126
표 3-1-13	2019 문화다양성 집합연수 운영 내용	126
표 3-1-14	무지개다리 사업 개요	127
표 3-1-15	무지개다리 사업 연도별 추이	128
표 3-1-16	2019년 무지개다리 사업 참여지역 및 사업명	129
표 3-1-17	문화다양성 조례제정 현황	130
표 3-1-18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연도별 사업 현황	134
표 3-1-19	2019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기본 프로그램 유형별 내용	135
표 3-1-20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특별 프로그램(2019)	136
표 3-1-21	인생나눔교실 멘토링 추진 경과(2015~2019)	139
표 3-1-22	문화영향평가 수행 건수(2016~2019)	143
표 3-1-23	문화영향평가: 연도별 문화영향평가 시행 내역	144
표 3-1-24	'문화비전 2030 더하기 포럼' 개최 일시 및 주제	157
표 3-1-25	통일문화 교육: 교육과정 분류	157
표 3-1-26	'신한반도 체제를 위한 한반도 문화 포럼' 개최 일자 및 주제	158
표 3-1-27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법 조항	159
표 3-1-28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 추진 과정	159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표 3-1-29	도서 · 공연비 · 박물관 · 미술관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160
표 3-1-3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 분야 기본과제 목록(2019)	163
표 3-2-1	국어정책의 기본 방향	167
표 3-2-2	특수언어(한국수어, 점자) 관련 사업 추진 현황(2008~2019)	173
표 3-2-3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	175
표 3-2-4	국어문화원 지정 현황	176
표 3-2-5	한국어 국외 보급	176
표 3-2-6	국외 한국어 보급 기관(2019년 기준)	177
표 3-2-7	세종학당 현황	177
표 3-2-8	역대 한글 주간 개요	181
표 3-2-9	역대 한글 주간 개요	183
표 3-2-10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구축 사업 추진 실적	192
표 3-2-11	국립한글박물관 2019년도 예산현황	197
표 3-2-12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전시	198
표 3-2-13	국립한글박물관 소장품	199
표 3-2-14	국립한글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9)	202
표 3-2-15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 추진 현황(2019)	205
표 3-3-1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교재 발간 현황	214
표 3-3-2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만족도 조사 결과(2017~2019년)	216
표 3-3-3	국학자료 소장 현황(~2019년 누계)	221
표 3-3-4	기념대회 및 기념식 개최 현황	235
표 3-3-5	국역총서 발간 현황	236
표 3-4-1	수교계기 문화행사 주요 추진실적 총괄 표(2019)	241
표 3-4-2	분야별 세부 협력(안)	250
표 3-4-3	분야별 세부 협력(안)	253
표 3-4-4	민간협업 문화교류 –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 · 지원 사업(2018~2019)	255
표 3-4-5	해외전통문화예술단 사업성과(2012~2019)	257
표 3-4-6	문화동반자 직접사업 내역(2019)	262
표 3-4-7	문화동반자 소속기관사업 내역(2019)	263
표 4-1-1	창작산실 추진내역	279
표 4-1-2	문화소외지역 지원 사업 및 성과	280
표 4-1-3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혁	289
표 4-1-4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직원 수(2019년 12월 31일 기준)	290
표 4-1-5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수(2019년 12월 31일 기준)	290

표 4-1-6	한국예술종합학교 2019년도 세부 추진 성과	292
표 4-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요연혁	294
표 4-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출예산(2013~2019)	297
표 4-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혁	300
표 4-2-1	연도별 문학관 건립 지원 실적	308
표 4-2-2	한국문학번역원: 연도별 번역지원 현황(2001~2019)	312
표 4-2-3	한국문학번역원: 연도별 출판지원 현황(2001~2019)	312
표 4-2-4	한국문학번역원: 장르별 출간지원 현황(2001~2019)	313
표 4-2-5	한국문학번역원: '해외독자대상 독후감대회'(2019)	315
표 4-2-6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수료생 현황(2008~2019)	318
표 4-2-7	한국문학번역원: 해외 한국학대학 번역실습 워크숍 개최 현황(2014~2019)	318
표 4-3-1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 추진 효과	322
표 4-3-2	지역대표공연예술제(문예기금)	322
표 4-3-3	대한민국공연예술제(문예기금)	325
표 4-3-4	지역별 문예회관 운영 현황(2019)	327
표 4-3-5	전국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현황(2005~2019)	328
표 4-3-6	국립예술단체 공연 연습장 개요	329
표 4-3-7	창작산실 추진내역	330
표 4-3-8	문화소외지역 지원 사업 및 성과	331
표 4-3-9	공연예술 창작기반 지원현황	332
표 4-3-10	국립극단 예산집행 현황	335
표 4-3-11	국립극단 공연사업 실적	338
표 4-3-12	국립극단 작품개발 · 교육사업 실적	340
표 4-3-13	국립발레단 작품개발 · 교육사업 실적	342
표 4-3-14	국립현대무용단 공연사업 실적(2019)	362
표 4-3-15	국립현대무용단 관객개발 프로그램 현황(2019)	363
표 4-3-16	정동극장 예산집행 현황	365
표 4-3-17	정동극장 관객 현황	371
표 4-3-18	정동극장 경주사업소 관객 현황	372
표 4-3-19	서울예술단 주요 추진 성과	375
표 4-3-20	2006~2019년 예술경영 컨설팅 건수	377
표 4-3-21	2007~2019년 예술경영아카데미 수강자 수	378
표 4-3-22	2016~2019년 예술 해커톤 성과	378
표 4-3-23	2015~2019년 예술경영 취업교육 · 취업컨설팅 성과	378
표 4-3-24	국내 공연시장 규모 추이(2008~2018)	379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표 4-3-25	국내 미술시장 규모 추이(2009~2018)	379
표 4-3-26	예술경영 및 국제교류 콘텐츠 생산 · 제공	379
표 4-3-27	공연예술 국제 유통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380
표 4-3-28	2011~2019년 센터스테이지코리아 수혜단체 외화 수입	381
표 4-3-29	2019년 예술의전당 예산 실적	384
표 4-3-30	예술의전당 공간 개요	385
표 4-3-31	예술의전당 기획행사 총괄(2010~2019)	385
표 4-4-1	연도별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지원 사업 실적	394
표 4-4-2	연도별 〈국악창작곡 개발-21c 한국음악프로젝트〉 경연 결과	398
표 4-4-3	신진국악 실험무대 공연 실적	399
표 4-4-4	연도별 전통연희 활성화 사업 운영 실적	400
표 4-4-5	연도별 한국민속예술축제/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대통령상(대상) 수상작	402
표 4-4-6	연도별 문화공간 활용 전통공연사업 실적	403
표 4-4-7	연도별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 실적	408
표 4-4-8	세계무형유산 등재종목 관련 상설공연 실적	409
표 4-4-9	연도별 세계무형유산 등재종목 관련 행사공모지원 공연 실적(2011~2019)	410
표 4-4-10	세계무형유산 등재종목 관련 상설공연 실적(2016~2019)	412
표 4-4-11	연도별 해외국악문화학교 사업 실적	413
표 4-4-12	사업개요	414
표 4-4-13	2019 전통예술 해외 아트마켓 및 해외진출 지원 실적	414
표 4-4-14	국립국악원 인원 현황(2019)	422
표 4-4-15	국립국악중학교 · 국립국악고등학교 추진 성과(2019)	431
표 4-4-16	국립전통예술중학교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추진 성과(2019)	436
표 4-4-17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추진 성과(2019)	439
표 4-4-18	국악방송 운영 현황	440
표 4-4-19	국악방송 주간 편성표(2019년 11월)	443
표 4-4-20	광주국악방송 주간 편성표(2019년 11월)	444
표 4-4-21	대전국악방송 주간 편성표(2019년 11월)	445
표 4-4-22	방송프로그램 외부기관 수상실적	446
표 4-5-1	미술주간 프로그램 구성 현황	452
표 4-5-2	2019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현황	455
표 4-5-3	지역별 전시공간 지원 현황	456
표 4-5-4	한국미술 해외출판 지원사업 성과	458
표 4-5-5	한국미술담론창출 2019 성과	459
표 4-5-6	한국미술 담론 활성화 공개 세미나 〈다시, 바로, 함께, 한국미술〉 세미나 운영 현황	459

표 4-5-7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현황(2019)	462
표 4-5-8	미술품 감정 및 유통 기반 구축사업 성과	463
표 4-5-9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 미술작품 거래 데이터 보유 현황 및 시장 분석 리포트	464
표 4-5-10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현황	465
표 4-5-11	해외기관 초청 · 협력 전시 지원 현황(2018~2021)	467
표 4-5-12	시각예술 매개인력 양성 지원성과	470
표 4-5-13	미술공유서비스 등록 정보	470
표 4-5-14	아트페어 신진작가 특별전 지원 현황	471
표 4-5-15	2019 아트페어 활성화 지원 현황	472
표 4-5-16	2019 비엔날레 평가대상 개요	473
표 4-5-17	2019 아트페어 평가대상 개요	473
표 4-5-18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성과 (2019년 기준)	475
표 4-5-19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선정단체 대상 강의 프로그램 현황	476
표 4-5-20	전시해설 인력 지원 2019년 성과	477
표 4-5-21	지역별 지원 현황(2019년 기준)	477
표 4-5-22	2019년 전시해설 인력 지원 전문교육	477
표 4-5-23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	478
표 4-5-24	2019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483
표 4-5-25	2019 공예주간	499
표 4-5-26	2019 공예트렌드페어	499
표 4-5-27	2019 우수문화상품 지정 현황	500
표 4-5-28	2019 지역공예 기반조성 사업	500
표 4-5-29	2019 전통공예의 세계화	501
표 4-6-1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공동 T/F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	506
표 4-6-2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연도별 주요현황(~2019)	509
표 4-6-3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추진실적(2005~2019)	511
표 4-6-4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현황-교육과정 수(2003~2019)	511
표 4-6-5	예술꽃 씨앗학교 주요성과	512
표 4-6-6	예술꽃 씨앗학교 지도, 수혜자수, 지원현황표	513
표 4-6-7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실적(2014~2019)	518
표 4-6-8	사회분야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현황(2005~2019)	520
표 4-6-9	분야별 예술 강사 현황 (2019)	520
표 4-6-10	군 · 교정시설 ·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현황(2011~2019)	521
표 4-6-11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원현황(2015~2019)	522
표 4-6-1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현황(2013~2019)	525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표 4-6-13	'문화파출소 운영사업' 현황(2016~2019)	527
표 4-6-14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현황(2009~2018)	528
표 4-6-15	문화예술 명예교사 아카이브 콘텐츠 제작 목록(2019)	529
표 4-6-16	지역거점형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 현황(2011~2019)	532
표 4-6-17	지역거점형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분포도(2019)	532
표 4-6-18	2019년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 프로그램 및 일정	535
표 4-6-19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주요 대상 구조	539
표 4-6-20	문화예술교육 대상별 역량강화 연수(2019)	540
표 4-6-21	문화예술교육 주제특화 연수(2019)	540
표 4-6-22	지역센터 및 유관기관 협력 연수(2019)	541
표 4-6-23	온라인 및 온 · 오프 연계 연수(2019)	541
표 4-6-2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교부 현황(2019)	542
표 4-6-25	2019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적합여부 심의	542
표 4-6-26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기관 지정 현황	542
표 4-6-27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실적	543
표 4-6-28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2019)	546
표 4-6-29	아시아 문화예술교육 시리즈 포럼(2019)	548
표 4-6-30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2019)	549
표 4-6-31	문화예술교육 국제 심포지엄(2019)	550
표 4-6-32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국제포럼(2019)	550
표 4-6-3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제행사 및 애드보커시 활동 전개(2019)	550
표 4-6-34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해외탐방조사 사업(2019)	551
표 4-6-35	2019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한 정책 및 조사 연구	553
표 4-6-36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현황(2019)	554
표 4-6-37	생애전환기 대상 모델개발 및 연구(2019)	554
표 4-6-38	지역별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추진 현황(2019)	555
표 4-6-39	사회적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실행과제	555
표 4-6-40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발표 및 후속 추진 현황(2018~2019)	556
표 4-6-41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 구성 · 운영 현황(2019)	557
표 4-6-42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세미나 지원현황(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연계)	558
표 4-6-43	문화예술교육 콜로퀴엄 개최 현황(2019)	559
표 4-6-44	문화예술교육 포럼(2019)	560
표 4-6-45	문화예술교육 총서 발간 현황(2019)	561
표 4-6-46	문화예술교육 연구 인포그래픽(2019)	562
표 4-6-4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혁	563

표 4-6-4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추진 성과(2019)	564
표 5-1-1	전국 문화기반시설 시설 현황	570
표 5-1-2	'2017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 주요 지표 내용	572
표 5-1-3	연도별 지역문화 양성 및 배치 지원현황(2015~2019)	573
표 5-1-4	연도별 문화이모작 지원현황(2010~2019)	574
표 5-1-5	연도별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지원현황(2005~2019)	575
표 5-1-6	지방문화원 설립현황	575
표 5-1-7	지방문화원 시설 지원 현황(2008~2019)	576
표 5-1-8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2005~2019)	578
표 5-1-9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분류(2019)	578
표 5-1-10	인구 100만 명 당 문화시설 수	579
표 5-1-11	2019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내역	580
표 5-1-12	BTL 방식에 의한 문화기반시설 추진 결과(2005~2019)	581
표 5-1-13	연도별 문화의 달 행사 개최현황(2003~2019)	582
표 5-1-14	연도별 지역문화행사 지원현황(2017~2019)	583
표 5-1-15	연도별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사업 지원현황(2012~2019)	583
표 5-1-16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주요내용	588
표 5-1-17	제1차 문화도시 지정 현황	589
표 5-1-18	2019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현황	590
표 5-1-19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주요 성과	592
표 5-1-20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주요 성과	593
표 5-1-21	2019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현황	595
표 5-1-22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성과(최근 2년간)	596
표 5-1-23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지역별 지원현황 및 수혜자수(2019)	597
표 5-1-24	사업개요	597
표 5-1-25	문화도시 조성계획 법정 필수 포함사항	598
표 5-1-26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심의기준(안)	599
표 5-1-27	문화도시 지정 심의 기준(안)	600
표 5-1-28	제1차 문화도시 지정 현황	601
표 5-1-29	'여가친화기업 선정' 현황	606
표 5-2-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구성	609
표 5-2-2	주요 국가별 도서관 수 · 1관 당 인구 및 장서(인쇄)수	610
표 5-2-3	전국 도서관 수	610
표 5-2-4	공공도서관 현황	611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표 5-2-5	시도별 공공도서관 수	612
표 5-2-6	2019년 도서관법 개정 추진 현황	613
표 5-2-7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주요 정책과제	613
표 5-2-8	공공도서관 연도별 지원실적 및 예산액	615
표 5-2-9	작은도서관 연도별 지원실적 및 예산액	615
표 5-2-10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현황	615
표 5-2-11	지역대표도서관 현황	616
표 5-2-12	'특화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19) 현황	617
표 5-2-13	2019년 U-도서관 서비스 운영 현황	618
표 5-2-14	다문화 자료실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현황	618
표 5-2-15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현황	619
표 5-2-16	2019년도 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 선정결과	620
표 5-2-17	'전국도서관통계' 조사대상 및 협력기관(2019)	622
표 5-2-18	국립중앙도서관 장서 현황(2019. 12.)	625
표 5-2-19	온라인자료 수집 현황(2019. 12)	627
표 5-2-20	온라인자료 서비스 현황(2019. 12)	628
표 5-2-21	2019년 사서교육훈련 운영실적	633
표 5-2-22	2019년 인문열차, 삶을 달리다 일정표	635
표 5-2-23	2019년 국립중앙도서관 전시 및 문화행사 개최 현황	635
표 5-3-1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내역(2017~2019)	646
표 5-3-2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내역(2017~2019)	646
표 5-3-3	등록사립박물관 · 미술관 전문인력 지원 추진 실적(2017~2019)	647
표 5-3-4	길 위의 인문학 추진 실적(2017~2019)	647
표 5-3-5	작은미술관 운영지원 현황(2016~2019)	648
표 5-3-6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현황(2019)	649
표 5-3-7	소속박물관 관람객 현황(2019)	650
표 5-3-8	보존처리 현황(2019)	654
표 5-3-9	분석조사연구 현황(2019)	655
표 5-3-10	환경조사 현황(2019)	655
표 5-3-11	유적 발굴 · 학술조사 현황(2019)	658
표 5-3-12	학술심포지엄 및 강연회 개최 현황(2019)	659
표 5-3-13	특별전 개최현황(2019)	663
표 5-3-14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2019)	666
표 5-3-15	문화행사 현황(2019)	668
표 5-3-16	도서발간 현황(2019)	668

표 5-3-17	국립중앙박물관도서관 소장 자료 현황(2019)	670
표 5-3-18	국외 전문가 초청사업(2019)	671
표 5-3-19	한 · 중 학술인적교류사업 교류내용(2019)	674
표 5-3-20	한 · 일 학술인적교류사업(2019년)	675
표 5-3-21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 초청자 명단(2019년)	677
표 5-3-22	지방 박물관 특성화 육성사업 실적(2019)	679
표 5-3-23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 현황	680
표 5-3-24	2019년 지정문화재 소장 현황	681
표 5-3-25	2019년 등록 문화재 소장 현황	682
표 5-3-26	2019년도 기획 및 특별전시 개최 현황	683
표 5-3-27	2019년도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686
표 5-3-28	2019년도 세시행사 운영 현황	688
표 5-3-29	2019년도 우리민속한마당 주요 현황	688
표 5-3-30	국립민속박물관 발간 도서 현황(2019)	690
표 5-3-31	2019년도 민속아카이브 소장자료 현황	692
표 5-3-32	2019년도 민속아카이브 수증 현황	692
표 5-3-3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 현황	693
표 5-3-34	연도별 소장자료 수집 현황	694
표 5-3-35	연도별 소장자료 등록 현황	695
표 5-3-36	소장자료 e뮤지엄 공개 현황	696
표 5-3-37	보존처리 및 복제 현황	697
표 5-3-38	수장고 및 격납현황	698
표 5-3-39	소장자료 실사 현황	698
표 5-3-40	2013~2019년 아카이브 자료 현황	699
표 5-3-4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전시 개편 3개년 계획 (표)	701
표 5-3-42	역사관의 주제 구성	701
표 5-3-43	주요 특별전 및 기획전(2019)	703
표 5-3-44	분야별 전시주제 목록	707
표 5-3-45	범주별 나의 독립 영웅 100편	708
표 5-3-46	2019 토크콘서트 개최 현황	710
표 5-3-47	콜롬비아 소재 6.25전쟁 관련 자료조사 및 수집	711
표 5-3-48	6.25전쟁 관련 기수집 해외자료 정리 및 번역	711
표 5-3-49	〈세계 역사박물관의 현대사 기점 논쟁〉 프로그램 및 일정	712
표 5-3-50	2019년 현대사 박물관 포럼 개최 현황	713
표 5-3-51	2019년도 해외 학자 특강 개최 현황	714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표 5-3-52	2019년 국문 정기간행물 『현대사와 박물관』 제2권 본문 구성	715
표 5-3-53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2019)	720
표 5-3-54	정기 문화공연 개최 현황	723
표 5-3-55	역사기념일 문화공연 개최 현황	723
표 5-3-56	특별행사 및 이벤트 개최 현황	723
표 5-3-57	2019년 근현대사 박물관 협력망 가입 현황	724
표 5-3-58	2019년 앰버서더 렉처 추진 현황	727
표 5-3-59	2019년 MOU 체결 현황	728
표 5-3-60	2019년 홍보 실적	729
표 5-3-61	2019년 전시해설 현황	731
표 5-3-62	연도별 미술은행 미술작품 구입 내역(2010~2019)	737
표 5-3-63	연도별 미술은행 장르별 작품 구입 및 구입액 내역(2010~2019)	738
표 5-3-64	연도별 정부미술품 장르별 작품 구입 및 구입액 내역(2012~2019)	738
표 5-3-65	현행 미술은행 작품 대여 요율	739
표 5-3-66	연도별 미술은행 작품 대여 실적(2010~2019)	739
표 5-4-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주요 업무	744
표 5-4-2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주요업무	744
표 5-4-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요 업무	745
표 5-4-4	아시아문화원 주요 업무	747
표 5-4-5	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	764

그림차례

그림 2-1-1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조직도	58
그림 3-1-1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 및 수혜인원 현황	107
그림 3-1-2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체계도	108
그림 3-1-3	공연 나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개념	114
그림 3-1-4	문화다양성주간 포스터	116
그림 3-1-5	2019년 충북 문화다양성 연구학교-금왕유치원(좌), 문화다양성 집합연수(우)	126
그림 3-1-6	공연 나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개념	127
그림 3-1-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 전략	133
그림 3-1-8	2019년 충북 문화다양성 연구학교-금왕유치원(좌), 문화다양성 집합연수(우)	135
그림 3-1-9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2019)	136
그림 3-1-10	2019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홍보자료	137
그림 3-1-11	2019년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사례	137
그림 3-1-12	2019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 우수사례	138
그림 3-1-13	인생나눔교실 운영(2019)	139
그림 3-1-14	인문360도 연간 방문자수 및 콘텐츠 발행 건수	140
그림 3-1-15	대한민국 독서대전(2019)	140
그림 3-1-16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141
그림 3-1-17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141
그림 3-1-18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목표	142
그림 3-1-19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변화 추이	149
그림 3-1-20	지역 규모별 관람률	150
그림 3-1-21	월평균 가구소득별 관람률	150
그림 3-1-22	양성평등문화상 관련 기사	152
그림 3-1-23	문화체육예술계 양성평등 공모전 수상작	152
그림 3-1-24	문화분야 성희롱 · 성폭력 예방 행동강령	153
그림 3-1-25	도서 · 공연비 · 박물관 · 미술관입장료 확인 및 소득공제 처리 흐름도	161
그림 3-1-26	문화비 소득공제 홍보 포스터 및 안내서	161
그림 3-1-2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직도(2019.12)	162
그림 3-2-1	한국수어사전 수형으로 찾기 화면	171
그림 3-2-2	국립중앙박물관 '반가사유상'의 수어 해설 영상	172
그림 3-2-3	누리-세종학당, 모바일 학습 앱	178
그림 3-2-4	한국어 교원자격제도 심사 체계	180
그림 3-2-5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배경 및 추진 방향	184
그림 3-2-6	'우리말샘(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의 특징	185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그림 3-2-7	'공공언어 통합 지원'의 누리집 첫 화면	187
그림 3-2-8	다듬은 말 홍보 영상물 중 한 장면	188
그림 3-2-9	국립국어원 조직도	193
그림 3-2-10	국립국어원 전경	196
그림 3-2-11	국립한글박물관 조직도	197
그림 3-2-12	국립한글박물관 전경	203
그림 3-2-13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조감도	204
그림 3-3-1	2019찾아가는한복문화교육	208
그림 3-3-2	2019 한복 해외교류	208
그림 3-3-3	2019 한복전문교육지원 (결과전시)	208
그림 3-3-4	2019 한복문화주간 (부산)	209
그림 3-3-5	2019 한복문화주간 (북촌)	209
그림 3-3-6	2019 한복문화주간 (전주)	209
그림 3-3-7	2019 한복상점	209
그림 3-3-8	2019 한복디자인프로젝트	210
그림 3-3-9	2019 한복상점	211
그림 3-3-10	2019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교육현장 및 현장 활동	213
그림 3-3-11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결과물	218
그림 3-3-12	지역 전통문화를 활용한 창조명품 육성사업	219
그림 3-3-13	전통문화를 활용한 창조명품 육성사업	219
그림 3-3-14	전통문화 향유 콘텐츠 발굴 및 육성사업	220
그림 3-3-15	세시풍속 맥 잇기 지원사업 행사 모습	220
그림 3-3-16	국학자료 언론보도	221
그림 3-3-17	2019년도 어린이고전암송대회 및 청년선비포럼	222
그림 3-3-18	민간소장 기록자료 사이트	223
그림 3-3-19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조감도	227
그림 3-3-20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개최	235
그림 3-3-21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교육체험 주요사례	237
그림 3-4-1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241
그림 3-4-2	한 · 덴마크 상호문화의 해 문화행사	243
그림 3-4-3	한 · 덴마크 상호문화의 해/한-헝가리 수교 30주년 문화행사 〈묵향〉	243
그림 3-4-4	한 · 브라질 수교 60주년 문화예술 행사	244
그림 3-4-5	한-필리핀 상호교류의 해	245
그림 3-4-6	쿠웨이트 수교 40주년 / UAE 연계 문화행사	246
그림 3-4-7	한 · 폴란드 수교 30주년 문화행사	246

그림 3-4-8	제11회 한 · 중 · 일 문화장관회의	248
그림 3-4-9	동아시아문화도시 인천(2019)	249
그림 3-4-10	한일문화교류회의 행사(2019)	250
그림 3-4-11	2019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	251
그림 3-4-12	우수 프로그램 권역별 순회(트래블링 코리안 아츠) 사업(2019)	252
그림 3-4-13	2019 제1회 국제문화교류 합동 워크숍	254
그림 3-4-14	2019 제2회 주한외교단 및 국내 문화예술 국제교류 담당자 워크숍	254
그림 3-4-15	민간협업 문화교류 -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 · 지원 사업(2019)	255
그림 3-4-16	해외전통문화예술단 활동(2019)	257
그림 4-1-1	한국예술종합학교 비전	288
그림 4-1-2	한국예술종합학교 조직도	289
그림 4-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전 2030	295
그림 4-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296
그림 4-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미션 · 비전 · 전략방향	300
그림 4-1-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조직도(2019년 12월 말 기준)	301
그림 4-2-1	사이버문학광장 개요도	307
그림 4-2-2	사이버문학광장 '문장'	307
그림 4-2-3	한국문학번역원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311
그림 4-2-4	한국문학번역원 조직도	311
그림 4-2-5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 교류행사	314
그림 4-2-6	한국문학번역원: 국내외 한국문학 홍보 행사	317
그림 4-3-1	공연장과 상주단체 상관도	321
그림 4-3-2	국립예술단체 공연 연습장	329
그림 4-3-3	국립극단 조직도	334
그림 4-3-4	국립극단 전경	334
그림 4-3-5	국립극단 공연	338
그림 4-3-6	국립극단 작품개발 · 교육사업	340
그림 4-3-7	국립발레단 조직도	342
그림 4-3-8	국립발레단 정기공연	344
그림 4-3-9	국립발레단 해외공연	344
그림 4-3-10	국립발레단 공익공연	345
그림 4-3-11	국립오페라단 조직도	346
그림 4-3-12	정기공연 〈호프만의 이야기〉, 창작오페라 〈1945〉	349
그림 4-3-13	학교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350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그림 4-3-14	국립중앙극장 조직도	351
그림 4-3-15	국립합창단 조직도	355
그림 4-3-16	국립합창단 정기연주회	357
그림 4-3-17	국립합창단 기획공연	357
그림 4-3-18	국립현대무용단 조직도	359
그림 4-3-19	국립현대무용단 2019년 주요 작품	361
그림 4-3-20	국립현대무용단 2019년 〈오픈-업 프로젝트〉	364
그림 4-3-21	정동극장 전경	364
그림 4-3-22	정동극장 조직도	365
그림 4-3-23	정동극장 상설공연	367
그림 4-3-24	정동극장 전통레퍼토리 공연	367
그림 4-3-25	정동극장 창작ing 공연	369
그림 4-3-26	예술가의 작업실 공연	370
그림 4-3-27	정동극장 공연사업	371
그림 4-3-28	서울예술단 조직도	373
그림 4-3-29	한국 창작 가무극 제작	375
그림 4-3-30	예술경영지원센터 조직도	376
그림 4-3-31	예술의전당 조직도	384
그림 4-3-32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조직도	389
그림 4-3-33	주요공연	390
그림 4-3-34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조직도	391
그림 4-4-1	국립국악원 조직도	423
그림 4-4-2	국립국악원 전경	427
그림 4-4-3	국립국악중학교 · 국립국악고등학교 조직도	429
그림 4-4-4	국립국악중학교 · 국립국악고등학교	432
그림 4-4-5	국립전통예술중학교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조직도	433
그림 4-4-6	국립전통예술중학교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437
그림 4-4-7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조직도	437
그림 4-4-8	국악방송 조직도	441
그림 4-5-1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 통계 자료 및 미술시장 분석 강연회	465
그림 4-5-2	해외기관 초청 · 협력 전시 지원 사업	468
그림 4-5-3	2019년 공공디자인대상 수상작-사업 부문 대상: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	487
그림 4-5-4	타이포잔치 2019	488
그림 4-5-5	2019 공공디자인 토론회	488
그림 4-5-6	공공디자인 교육	489

그림 4-5-7	2019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포스터, 일정표, 행사사진	490
그림 4-5-8	2019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 및 수상작	493
그림 4-5-9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미션 및 비전	503
그림 4-5-10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조직도	503
그림 4-5-11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주요업무 및 추진 성과	504
그림 4-6-1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	508
그림 4-6-2	2019년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현장 사진	536
그림 5-1-1	2019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579
그림 5-1-2	인구 100만 명 당 공공문화시설 수	579
그림 5-1-3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585
그림 5-1-4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585
그림 5-1-5	전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586
그림 5-1-6	공주 · 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587
그림 5-1-7	문화도시 정책 비전과 목표	589
그림 5-1-8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절차	589
그림 5-1-9	'2019년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및 참여율	594
그림 5-1-10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홍보 리플릿	596
그림 5-1-11	정책비전 및 목표	598
그림 5-1-12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절차	599
그림 5-1-13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전략	602
그림 5-1-14	2019년 국민여가활동 조사 주요 결과	604
그림 5-3-1	박물관 · 미술관 2005~2019 증가추이	645
그림 5-3-2	신규 구입 문화재(2019)	651
그림 5-3-3	신규 수증문화재(2019)	652
그림 5-3-4	〈유리제배〉의 보존처리 전 · 후	653
그림 5-3-5	〈미국 포틀랜드박물관 소장 자수백수백복자도〉의 보존처리 전 · 후	654
그림 5-3-6	국외 유적발굴(2019)	656
그림 5-3-7	아시아불상 연구 베트남 조사(2019)	656
그림 5-3-8	한일 교류 자료 조사(2019)	657
그림 5-3-9	세계문화관 조성(이집트실 신설)	661
그림 5-3-10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665
그림 5-3-11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및 자료집	665
그림 5-3-12	국립중앙박물관 교육프로그램(2019)	667
그림 5-3-13	대외기관 간 협력사업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시리즈" (2019)	668

그림 5-3-14	국제 기구 · 협의체 참가(2019)	671
그림 5-3-15	국외 전문가 초청사업(2019)	672
그림 5-3-16	제7회 아시아국립박물관협의회 집행위원회 및 정기대회(2019)	673
그림 5-3-17	한 · 중 학술인적교류사업 사진자료(2019)	674
그림 5-3-18	한 · 일 학술인적교류(2019년)	676
그림 5-3-19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 프로그램(2019년)	677
그림 5-3-20	박물관 협력망 사업	679
그림 5-3-21	지방 박물관 특성화 육성사업 현장사진	679
그림 5-3-22	국립민속박물관 조직도	680
그림 5-3-23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	684
그림 5-3-24	어린이박물관	685
그림 5-3-2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조직도	693
그림 5-3-26	2019년 주요 수집자료	695
그림 5-3-27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소장자료 특별전 '1950년대 한국영화, 새로운 시대를 열다'	696
그림 5-3-28	중외일보 보존처리	697
그림 5-3-29	2019 현대사 디지털아카이브 기록 사진	699
그림 5-3-30	5층 상설전시실 전시장 철거 모습	702
그림 5-3-31	3 · 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전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	704
그림 5-3-32	특별전 〈소리, 역사를 담다〉	705
그림 5-3-33	〈전시 맞춤형 구술영상 제작〉	706
그림 5-3-34	사업 추진 프로세스	708
그림 5-3-35	나의 독립 영웅 영상 예시	709
그림 5-3-36	국제학술대회 발표자	713
그림 5-3-37	2019년 국문 정기간행물 『현대사와 박물관』 제2권	715
그림 5-3-38	2019년 영문 정기간행물 *Public History & Museum Vol.2*	715
그림 5-3-39	2019년 한국현대사 교양총서	716
그림 5-3-40	어린이 · 청소년 교육	717
그림 5-3-41	성인 교육	718
그림 5-3-42	외국인 교육	719
그림 5-3-43	문화나눔 프로그램	719
그림 5-3-44	어린이박물관	722
그림 5-3-45	정기 문화공연	723
그림 5-3-46	앰버서더 렉처 개최	728
그림 5-3-47	초대 홍보대사 위촉식	729
그림 5-3-48	박물관 소식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역사공감』 통권 제23~26호	729

그림 5-3-49	2019 한걸음 기자단	730
그림 5-3-50	2019년 현대사 길라잡이	730
그림 5-3-51	2019년 전시해설사 활동사진	731
그림 5-3-52	국립현대미술관 조직도(1단 · 1실 · 7과 · 6팀)	733
그림 5-4-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책목표 및 방향	751
그림 5-4-2	아시아예술커뮤니티 성과물(음악, 무용, 스토리)	752
그림 5-4-3	어린이교육, 시민아카데미 등	754
그림 5-4-4	연구 · 조사 · 아카이브 관련 결과물 및 라이브러리파크 운영	755
그림 5-4-5	2019년 창제작 공연 대표 사진 등	756
그림 5-4-6	2019년 문화전당 축제 프로그램 대표 사진 등	758
그림 5-4-7	고객 편의시설 사진 등	758
그림 5-4-8	7대 문화권 → 5대 문화권 개편	760
그림 5-4-9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운영(문화전당교류권)	761
그림 5-4-10	전일빌딩 조감도	761
그림 5-4-11	2019년도 제27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 행사 모습 등	762
그림 5-4-12	2019년도 국제문화창의산업전 전시장 및 홍보관	762
그림 5-4-13	광주실감콘텐츠큐브 단지 배치도 및 조감도	763

2019 Culture & Arts Policy White Paper

1 장

2019년
문화예술정책 주요성과

01 2019년 문화예술정책 주요성과

1) 국민 문화향유 기반 확대 및 문화가치 확산

국민소득수준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 중시 등 경제적 환경 및 사회문화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취향에 바탕을 둔 문화활동 참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 계층 ·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문화정책 분야는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를 이행하고 국민의 문화적 권리 확보 및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문화정책 과제들을 추진하였다.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기초적 문화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상향('18년 7만원→ '19년 8만원)하고 가맹점 확대 등 이용 분야를 확대하여 폭넓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들의 문화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산층의 문화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도서구입, 공연관람비 소득공제를 시행한데 이어 2019년 7월 1일부터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까지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생활 향유에 대해 더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019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 문화예술 관람률이 2016년 78.3%에서 2019년 81.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와 읍면지역 격차는 '16년 15.5% 포인트(p), '18년 13.5% 포인트(p), '19년 12.7% 포인트(p)로 점차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행사 개최, 무지개다리 사업('18년 27개 지역 → '19년 26개 지역) 등을 추진하였으며 부처 및 지자체 협업을 통해 문화영향평가('18년 35개 → '19년 35개)를 실시하여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하였다.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제1차 인문정신문화진흥 5개년('17~'21)기본계획에 따라 2019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서관 · 박물관 등 길 위의 인문학 운영,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 공모전, 인생나눔교실 등 인문친화적 환경 조성과 인문진흥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어 정책에서는 특수언어의 종합적인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18~'22)'에 따른 '2019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19~'23)' 실행을 위한 '2019년 점자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정부기관 발표(브리핑) 시 현장 수어통역 및 사후 수어통역 영상제작을 지원하였다('19.12.).

국어책임관 지정 확대('18년 1,828명 → '19년 1,830명), 국어진흥조례 제정 확대 등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공공언어 통합 지원시'에 정책용어 상담창구 개설, 정책명 ·

보도자료 평가 등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류 확산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한국어 수요에 대비하여 60개국 180개소의 세종학당을 지원하고 한국어 교원도 140명을 파견하였으며, 동남아 지역에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연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문화아카데미를 19개국 35개소를 운영하며 문화인턴 41명 및 문화전문가 132명을 파견하였다. 또한 2018년 추진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공사를 착공하였다('19. 11.).

전통 문화의 가치를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한복문화주간', '한복상점' 개최, 전통한지의 국내외 홍보 및 전통한지 수요 진작, 한지문화산업센터 조성, 한식문화 공모전과 지역별 콘텐츠 제작 등 전통 생활문화 육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유아대상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사업 11년째는 맞이하며 지난 10년간의 사업성과에 대해 발간했다.

국제문화협력 관계를 증진하며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19. 8.)및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19. 10.)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국제문화협력 관계 증진을 위하여 수교기념 행사 및 '상호 문화교류의 해' 지정을 통한 문화교류 활성화를 이루었다.

〈문화분야 주요 추진사업〉

○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및 수혜자 증가(1인당 지원금: '16년 연 5만원 → '19년 연 8만 원 / 수혜자: '16년 145만명 → '19년 162만명)
-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수혜 관객 수 988,311명. 2019년에는 사업 유형을 세 가지 방식으로 추진. 매칭형(시설과 예술단체를 매칭), 발굴형(예술단체가 직접 수혜대상과 장소를 발굴), 청년예술형(만 39세 이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설)

○ 문화다양성 확산
- 지역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26개 지역) 지원, 문화다양성 콘텐츠 및 우수사례 공모전 추진

○ 도서 · 공연비 소득공제('18. 7. 1.)에 이어 박물관 · 미술관 소득공제 시행('19. 7. 1.)

○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
- 도서관 ·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추진(도서관 409개관, 박물관 122개관, 10,808개 프로그램). 도서관 및 대학 연계 '도서관 지혜학교' 시범운영(9개 도서관)
- 도서관 · 박물관 이외 생활문화시설에서 인문전공자가 협업하는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인문활동가 양성 · 파견 사업)' 사업 지원 대상 확대(생활문화시설 45개소, 인문전공자 113명 협업)
- 인생나눔 교실의 자유기획 사업을 확대하여 은퇴세대의 인생나눔 활동을 위한 소모임 210개 1,111명을 지원. '인생식탁' 프로그램 10회 운영

○ 새로운 문화비전 수립

–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의 개방형 · 진행형 문화비전 수립 원칙 실현을 위한 '문화비전 2030 더하기 포럼' 총 5회 개최('19. 10. ~ 11.)

○ 남북 통일문화 교류

– 남북 통일문화교육 추진(1,263명 참여), 통일문화 정책포럼 4회 개최

○ 국어정책 수립 및 편리한 언어생활 환경 조성

– 인공지능 기술을 위한 대규모 말뭉치 구축(7.7억 어절, 북한어 말뭉치 130만 어절)

–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18 ~ '22)' 실행을 위한 '2019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수립 및 '제 1차 점자발전기본계획('19 ~ '23)' 실행을 위한 '2019년 점자발전시행계획' 수립('19. 3.)

– 정부기관 발표(브리핑) 시 현장 수어통역 및 사후 수어통역 영상제작 지원('19. 12.)

– '수한–한수 사전' 시범 편찬. '한국수어 용례 구축기' 기능 개선

○ 해외 한국어 보급

– 세종학당 60개국 180개소 운영. 세종학당 중 40개국 83개소에 140명의 한국어 교원 파견(교원 파견 확대: '16년 90명 → '19년 140명)

– 2009년 한글날을 기점으로 운영을 시작한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은 한국어 · 한국문화 관련 허브 사이트로 2019년 말 기준 누적 회원 수 200,916명, 연간 접속자 971,684건

– 모바일 학습 환경 확산에 대응하여 '16년 출시된 한국어 어휘학습 앱의 개발이 지속되었으며, 초급 학습 앱에 대한 다국어 번역을 기존 4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에서 '19년에 베트남어와 인도네시아어를 추가하여 총 6개 언어를 지원

○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사용 환경 개선

– 공공언어 작성 지침서인 '개정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 발간(6,000부) 및 전국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

– 17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도자료 4,080건 점검

– 민관합동 전문용어표준화지원단 설치 · 운영('19. 6. ~)

– 중앙정부 외에 지자체 보도자료 평가 추가('19. 1. ~ 12.)

– 대외 기관들과의 협력으로 일본식 용어 개선('한국토지주택공사'와 건설현장의 용어 개선, '법제처', '법제실'과 법령 속 용어 개선)

–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개정('19. 10., 방통위). '자연 재난방송 지침 연구'를 실시하여 2020년에 개발 예정인 '재난방송 언어사용 지침서'의 토대 마련

○ 전통 생활문화 육성지원

– '한복문화주간' 개최 장소를 전국 단위로 확대(전국 10여개 지역, 5개 민간단체 참여). 지자체와 연계하여 한복문화 콘텐츠 개발

– 교육부와 협업을 맺고 '한복교복 시범사업' 시작

–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 (전국 유치원, 초중고 등 총 168개 교육기관, 약 7,000명 교육), '해외 한복문화 보급 활성화'(4개국 2,120명 참여) 등 일상 속 한복 문화 확산
– '한지문화산업센터' 서울 북촌에 조성
– 카카오 브런치와 한식문화 이야기 · 일러스트 공모전 「우리家한식」개최. 「지역 한식문화 콘텐츠 기획 · 제작」을 추진하여 8개 지역의 콘텐츠 제작. '한식문화 구술 · 채록 종합계획 수립 및 시범운영'으로 한식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들 조사, 기록하는 기초 마련

○ 국제문화교류 지원체계 정비
–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문화로(영문명 K-Culture Road, www.kcultureroad.kr)' 구축 및 서비스 시행('19. 4. 3.)

○ 주요 장관회의 개최
– 제 11차 한 · 중 · 일 문화장관회의 개최, 3국의 문화교류 협력을 확대 ·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합의문인 '인천 선언문' 채택('19. 8. 29. ~ 30.)
– 한 ·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신남방 협력 강화에 발맞추어 한-아세안 문화예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9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 개최('19. 10. 23. ~ 10. 24.,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추진
– 제 40회 유네스코 총회 계기 문화장관회의 참석('19. 11.19.)
– 필리핀 상호 문화 교류의 해 기념행사('19. 3., 11.)
– 덴마크 수교 60주년 상호 문화교류의 해 지정 및 기념 문화행사('19. 3., 12.)
– 헝가리 수교 30주년 기념 문화행사('19. 4.)
– 브라질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행사('19. 9.)
– 쿠웨이트 수교 40주년(UAE 포함)(2019. 10.)
–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행사(2019. 12.)

2) 예술 지원정책의 공정성 · 투명성 강화 및 예술인 창작권 보장

예술 분야의 국정과제는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및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이다. 국정과제와 예술정책 비전의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술정책 과제들을 추진하였다.

예술분야 지원 사업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제도를 고도화하였다. 지원심의 위원회에 평가, 법무, 감사, 기획 등 공정성 평가가 가능한 유관기관 및 전문관을 위촉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공정심의평가관제' 도입과 다양성 · 장르별 특색을 반영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심의제도'를 운영하였다. 심의위원 후보단의 모집부터 검증, 선정까지 통합하여 손쉽게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심의 전문가 시스템인 '심의전문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의위원 후보단의 선정과 위촉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전체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심의결과의 수용도를 높였다.

또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예술인력육성 등 11개 사업에 최소보장제를 적용하였다. 수도권과 지역에 대하여, 신청 대비 선정비율을 최소보장비율인 25%를 상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해 열악한 창작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창작준비금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2.2% 증가한 5,50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일반 금융제도와 서민정책 금융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을 도입하여 1,497명의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 및 전 · 월세주택자금(창작공간 포함)을 지원하였다.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행위와 구두 계약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하였다. 서면계약 체결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하여 예술인이 신고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고시('19. 3. 12./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11호)로 제정하여 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미술관 관계자 등 미술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표준계약서의 해설서인 『알기 쉬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발간하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함께 제공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정한 예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 수행시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서 활용을 의무화하였으며, 미투(Me Too)운동으로 대변되는 문화예술계 성희롱 ·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더불어 성폭력 관련 유죄판결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술분야 자생력 제고를 위해 간접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노후화된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예술인 · 예술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연예술연습공간을 조성 · 운영하는 등 예술 창작 및 발표, 향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예술분야 유통 선진화를 위해 정확한 공연통계를 제공하고자 공연법을 개정(공연법 제4조, 제43조)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의 운영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연계기관을 확대하고 정보 수집을 증대하였다. 또한 미술 거래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K-ARTMARKET)'의 본격적 운영을 통해 작품거래 DB도 확대하였다.

개인과 기업의 문화예술 소비 및 후원을 활성화하고 기업 · 민간재단의 후원금 매칭펀드 지원, 크라우드펀딩 지원 등 기업의 문화예술 수요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문화접대비 제도도 연장하였다.

또한 국민의 예술 감수성 증진과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였다. 특히 전주 팔복예술공장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인 '꿈꾸는 예술터' 1호를 개관('19. 11.)하여 창작기반의 창의력 교육, 기술-장르 융합형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등 환경에 대응하는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 지원을 위해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였다.

예술적 가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였다. '예술치유' 등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교육으로 소통 · 공감 및 치유를 통한 사회통합, 사회 문제 해결 역할을 강화하였고, 마을미술 프로젝트 등을 통해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창작하는 과정으로서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였다.

〈예술 분야 주요 추진 사업〉

○ 공연 예술창작 및 유통 지원체계 강화
- 지역 민간공연예술단체의 공연제작 여건 개선을 위해 약 64억원 지원 (118개 공연장, 145개 단체)

○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문화환경 조성
- 예술인복지법을 개정('19.12.3.)하여 매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실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서면계약서 보존의무 신설,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체결조사권 및 시정명령권 신설.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 장애인 예술단체의 창작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 장애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원사업, 장애예술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해외교류 사업 등 추진
-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확대('18년 14개 시도 16개소 → '19년 15개 시도 18개소)

○ 문학창작 활성화를 위한 문학나눔도서보급 사업 착수
- 국고 51억 원 투입, 500종의 도서 선정 및 2,603개소 배포

○ 문학관 건립 지원
- 경북 향사박귀희명창기념관, 충남 신동엽 시인의 길 조성, 제주문학관 건립 3개 시설 건립 지원

○ 지역의 창조적 예술활동 여건 확충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확대(2018년 112개 공연장, 148개 단체 → 2019년 118개 공연장, 145개 단체)
-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사업 확대(14개 광역자치단체, 71개 예술단체, 93억 9천5백만원 지원)
- 지역 문예회관 운영 개선 및 활성화(2017년 119억 → 2018년 144억원 지원, 52개 문예회관 현황 진단 및 컨설팅 지원)

○ 예술의 유통 · 소비구조 선진화 추진
- 공연법 개정안 시행('19. 6. 25.)으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근거 마련, 공연 입장권 예매 · 취소 정보를 수집하고,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공연 정보와 통계 서비스 제공(2019년도 수집DB 총 11,871,948건)

- 미술작품 정보 수집 및 거래정보 통계, 시장 동향 분석 등을 제공하는 '한국미술 시장정보 시스템(K-ARTMARKET)' 시스템을 운영(2019년 수집 DB 작품 23,547건)

○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 대중화 및 세계화

- 전통예술의 복원 및 재현을 위한 총 10건의 사업 공모 및 지원 추진
- 〈국악창작곡 개발-21c 한국음악프로젝트〉 주홍콩한국문화원과 연계를 통한 해외공연 추진 및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 내 수상곡 음원 유통

○ 전통예술 신진 · 실험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활동기반 마련

- 2019년도 발굴한 17개 신진 · 실험단체의 28회 공연 및 우수3개 단체 음원/음반(기악1/성악1), 홍보영상(무용1) 제작 지원

○ 시각예술디자인 분야 창작 환경 개선 및 정책 방향 정립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 개발, 고시('19. 3. 12.)
- 서예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시행('19. 6. 12.)

○ 공공디자인 진흥기반 구축

-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전문인력 양성,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등) 전담기관으로 '한국공예 · 디자인 문화진흥원' 지정

○ 미술문화의 일상화 및 시장 확대

- 〈2019 미술주간〉 개최. 전국 국 · 공 · 사립미술관, 화랑, 비영리전시공간 등 258개 기관이 참여(전년대비 43% 증가), 참여자 64만 명(전년대비 31% 상승)
- 저렴한 가격으로 미술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술문화 향유 및 소장문화 확산(전국 16개 장터 개설, 1,003명 작가 참여, 약 6억7천만 원 판매)
-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59개 전시공간, 관람객 295,732명)

○ 문화적 공간 환경 조성 및 디자인 문화 확산

- 문화역서울 284 상설프로그램 공간투어 진행, 기획전시 연 2~3회 진행(48만 6천여 명의 관람객 방문)
- 2019 타이포잔치: 제6회 국제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19. 10. 5. ~ 11. 3.)
- 2019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행사 개최(시상식: '19. 10. 25. / 전 시: '19. 10. 25. ~ 11. 3.)

○ 생활 속 공예 진흥

- '공예 주간'(Craft Week 2019, '19. 5. 17. ~ 26.) 실시(서울 및 수도권 지역 359개 체험처에서 341,538명 참가)
- 공예 소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2019 공예트렌드페어' 개최. 310개 업체 참여, 관람객 73,091명 방문, 현장판매 약 15억원 원 매출(전년 대비 7% 증가)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유아의 발달 특성과 현장 수요를 고려한 양질의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원(58개 프로그램, 20,521명 참여)

-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의 약 70%인 8,481개교에 국악, 연극 등 8개 분야 예술강사 5,159명 지원
-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588개소, 12,523명 참여)과 제도 · 환경적 여건으로 소외된 특수계층(군 장병, 교정시설, 소년원 등)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속 지원(1,145개 프로그램, 18,260명 참여)
- 지역별 특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을 위해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통합 추진(전국 848개 프로그램, 45,908명 참여)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 조성 지원

- 2019년 생활SOC 3개년 계획에 지역 중심의 창의 ·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 포함(2022년까지 총 10개소)
- 2019년 11월, 전주 팔복예술공장이 꿈꾸는 예술터 1호로 첫 개관

○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 및 사업모델 개발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강화' 정책 목표에 발맞춰 '영유아 ·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현장 경험을 제공하여 전문인력으로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19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신규 추진(95개 시설, 94명)
-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 지원을 위해 2019년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신규 추진(5개 지역, 62개 프로그램, 1,182명 참여)

○ 문화예술 기부문화 확산 지원

- 기업-예술단체 간 상호 결연 195건(대기업 44건, 중소 · 중견기업 126건, 지역 특성화 기업 25건) 체결
- 문화예술후원인식 확대를 위한 예술나무캠페인 및 크라우드펀딩 확대 추진 및 문화예술 후원금 307억 원 확보

3) 지역주민 문화향유 확대 여건 조성 및 지역문화역량 강화

국민의 전반적인 문화향유 욕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문화 편차가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균형 있는 문화 환경 조성과 지역 고유문화의 발굴 ·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지역문화진흥의 기반이 되는 박물관 · 미술관 ·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 2,825개소를 확충하였다.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작은미술관 · 도서관 등) 조성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적극 기여하였다. 아울러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문화발전을 위해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해서 11개 지역의 현안과제에 실제적인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문화향유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 문화시설 중심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제공되었다. 2016년 3개관만 시범운영하였던 '휴관 없는 박물관 · 미술관' 사업은 2017년 7개소로 확대하여 2019년까지 7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며, 문화시설 야간개장,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도 지속 추진하였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인지도(68.9% → 73.9%)', '참여율(59.8% → 62.1%)'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주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공감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49개소)',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40개 지역)', '어르신 문화프로그램(311개)' 등의 다양한 지역문화 활동 지원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도시형 33곳, 마을형 17곳)과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전주, 경주, 공주 · 부여)을 추진하여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브랜드 구축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한편 그동안 문화특화지역 사업 및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 등 중앙 ·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한 도시문화 관련 사업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문화도시 7곳(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 부산 영도구, 제주 서귀포시)을 지정하였으며, 제2차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12곳에서 추진 중에 있다.

각 지역이 간직한 역사를 기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적 관점의 지역 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과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먼저 2018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2019년 19곳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간 상승효과 창출은 물론 문화를 통한 쇠퇴지역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였다. 두 번째로 소각장, 창고 등 지역의 폐산업시설, 유휴시설의 문화를 통한 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까지 총 39개소의 유휴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에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문화 주요 추진 사업〉

○ 지역문화 자생력 제고 및 역량 강화

- '2017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2018~2019)' 결과 발표('19. 3.)
- 제1차 문화도시 조성 지정(7곳) 및 제2차 제2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12곳) 등 문화도시 조성사업 본격 추진
- '지역 재생'사업으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18년 4곳 → '19년 19곳),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18년 3곳 → '19년 8곳) 확대
-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중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별 토론회 10회 개최('19. 7. ~ 9.), 계획 수립 기획단 회의 개최('19. 9. ~ 11.), 종합 토론회 개최('19. 12.)

○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월 평균 2,560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개최,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73.9%) 및 참여율(62.1%) 대폭 증가(2014년 기준 인지도 19%, 참여율 28.4%)

–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지원대상 문화 소외지역주민에서 전국민으로 확대(총 15개 광역시 · 도 40개 지역 대상)

○ 도서관 운영 및 법제도 정비

–「도서관법」 일부개정(국립장애인도서관 소속 변경 등, '19. 12. 3.)

○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활성화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참여 도서관 525개, 1,313명 전문 일자리 창출

○ 국공립 박물관 · 미술관 운영

– 박물관 · 미술관 인프라 확충(전년 대비 2.8% 증가)

○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 시각예술 소외지역의 유휴공간과 전시시설을 활용한 작은미술관 조성 적극 추진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활성화

–「아시아문화도시법」문화전당 운영 5년 연장 1건 의원 발의

– 옛 전남도청 복원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할 전담조직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발족('19. 8.)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차별화된 복합 문화예술기관으로 위상 제고

– 개관 4주년, 관람객 1,000만명 달성 및 경제적 · 문화적 효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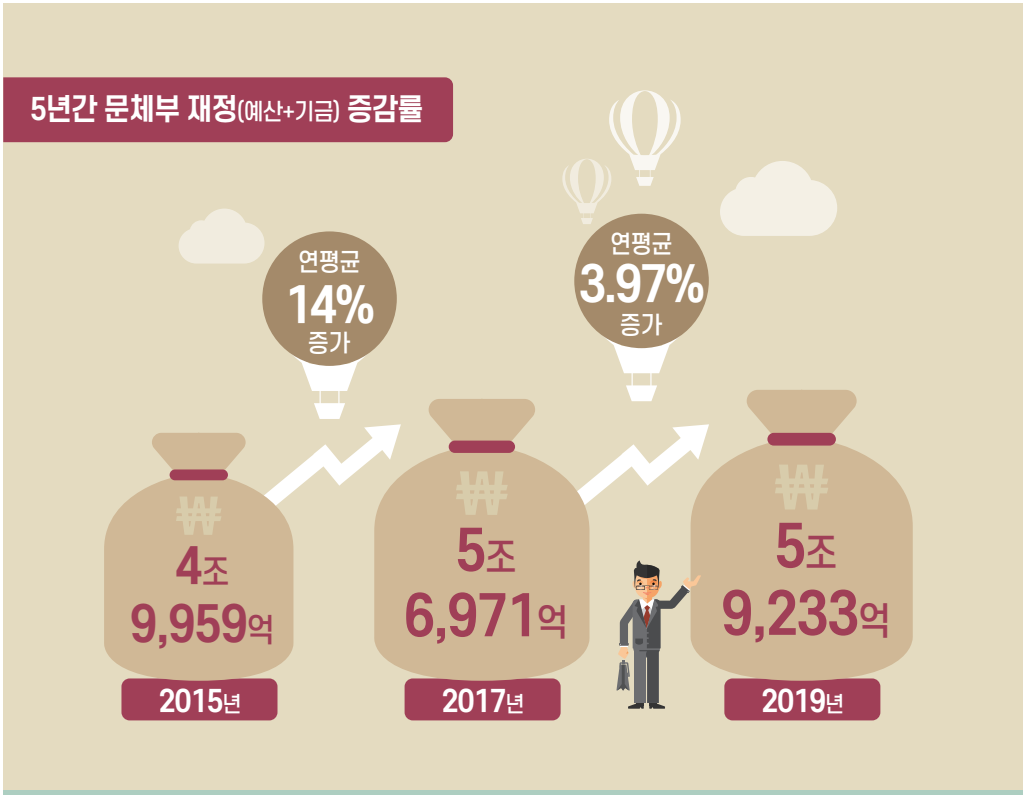
– 어린이 축제, 브런치콘서트,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및 융복합창 · 제작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향유 · 국민행복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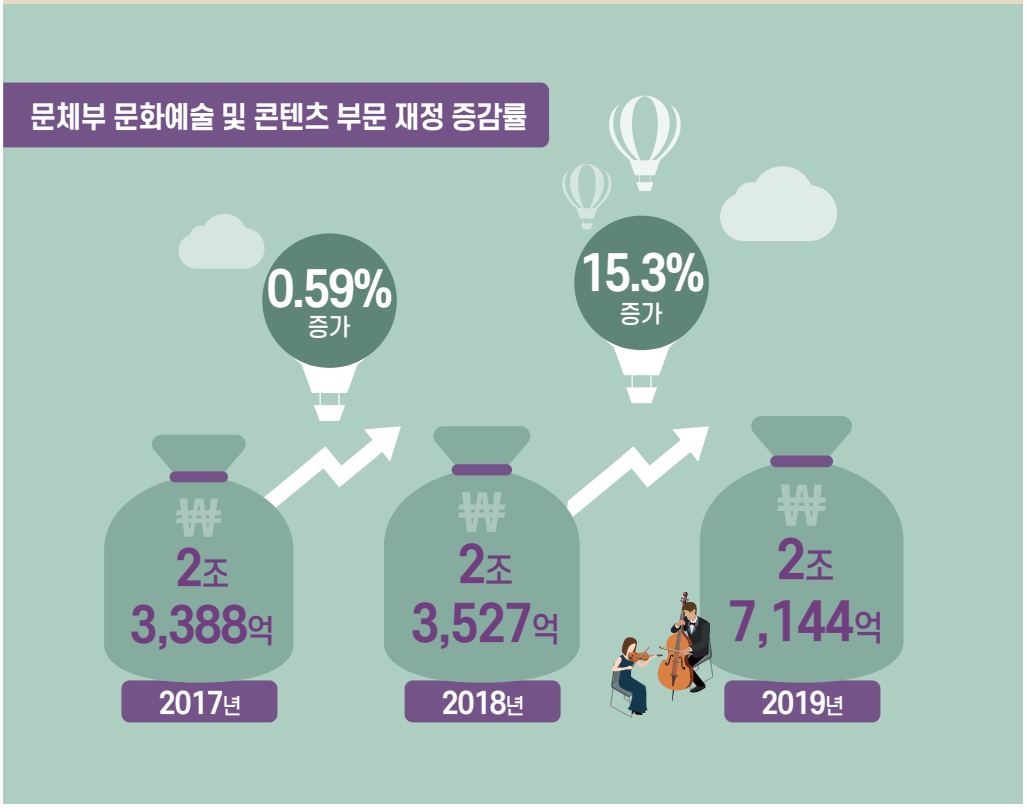
– 실험적 문화콘텐츠 창 · 제작 및 레지던시 확대 개편 통한 창 · 제작 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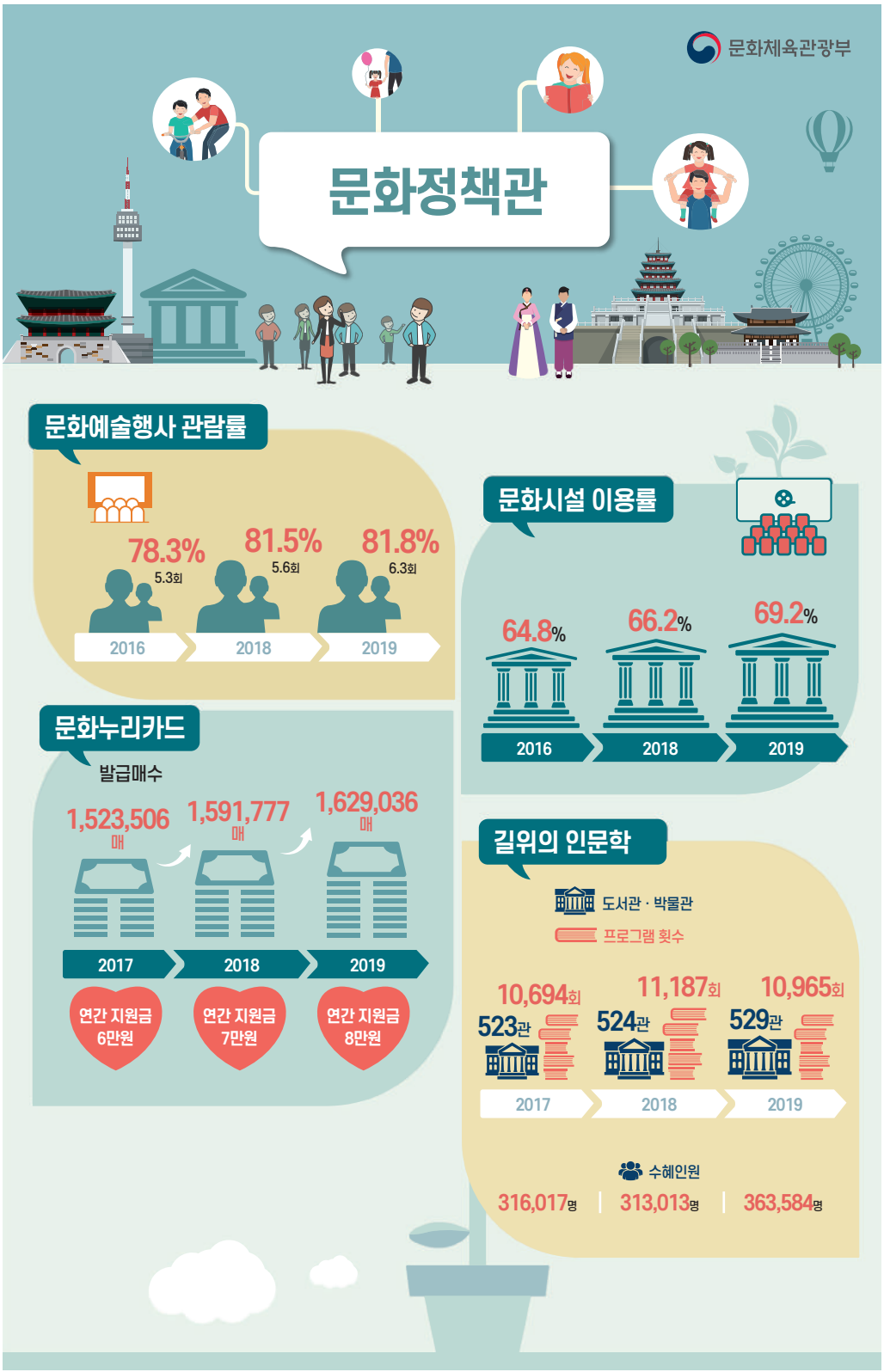
–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 및 아시아문화주간('19. 10. 17. ~ 29.) 성공적 개최, 아세안 국가의 아시아문화주간 협력 합의 도출 및 인지도 제고 등으로 국제교류 성과 확산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연계한 기획전시, 음악극, 물놀이장 운영, 폐장식 장소 지원 통한 지역협력 강화로 상상 기반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 그림으로
보는 주요 성과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이 실현됩니다.


5년간 문체부 재정(예산+기금) 증감률
연평균 14% 증가
연평균 3.97% 증가
₩ 4조 9,959억
2015년
₩ 5조 6,971억
2017년
₩ 5조 9,233억
2019년


문체부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부문 재정 증감률
0.59% 증가
15.3% 증가
₩ 2조 3,388억
2017년
₩ 2조 3,527억
2018년
₩ 2조 7,144억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78.3%
5.3회
2016
81.5%
5.6회
2018
81.8%
6.3회
2019
문화시설 이용률
64.8%
2016
66.2%
2018
69.2%
2019
문화누리카드
발급매수
1,523,506
매
2017
연간 지원금
6만원
1,591,777
매
2018
연간 지원금
7만원
1,629,036
매
2019
연간 지원금
8만원
길위의 인문학
도서관 · 박물관
프로그램 횟수
10,694회
523관
2017
11,187회
524관
2018
10,965회
529관
2019
수혜인원
316,017명
313,013명
363,584명

인생나눔교실

2017년	멘토 수	250명	멘토링 횟수 3,408회
2018년	멘토 수	254명	멘토링 횟수 3,917회
2019년	멘토 수	195명	멘토링 횟수 2,953회

인문독서아카데미

강의 횟수
수강생

2017	2018	2019
1,243회	1,236회	1,292회
60,539명	48,549명	46,445명

병영 독서 활성화

대상 부대
독서코칭

2017	2018	2019
1,825회	1,820회	2,100회
250부대	260부대	300부대

수혜인원

2017	2018	2019
12,100명	55,354명	12,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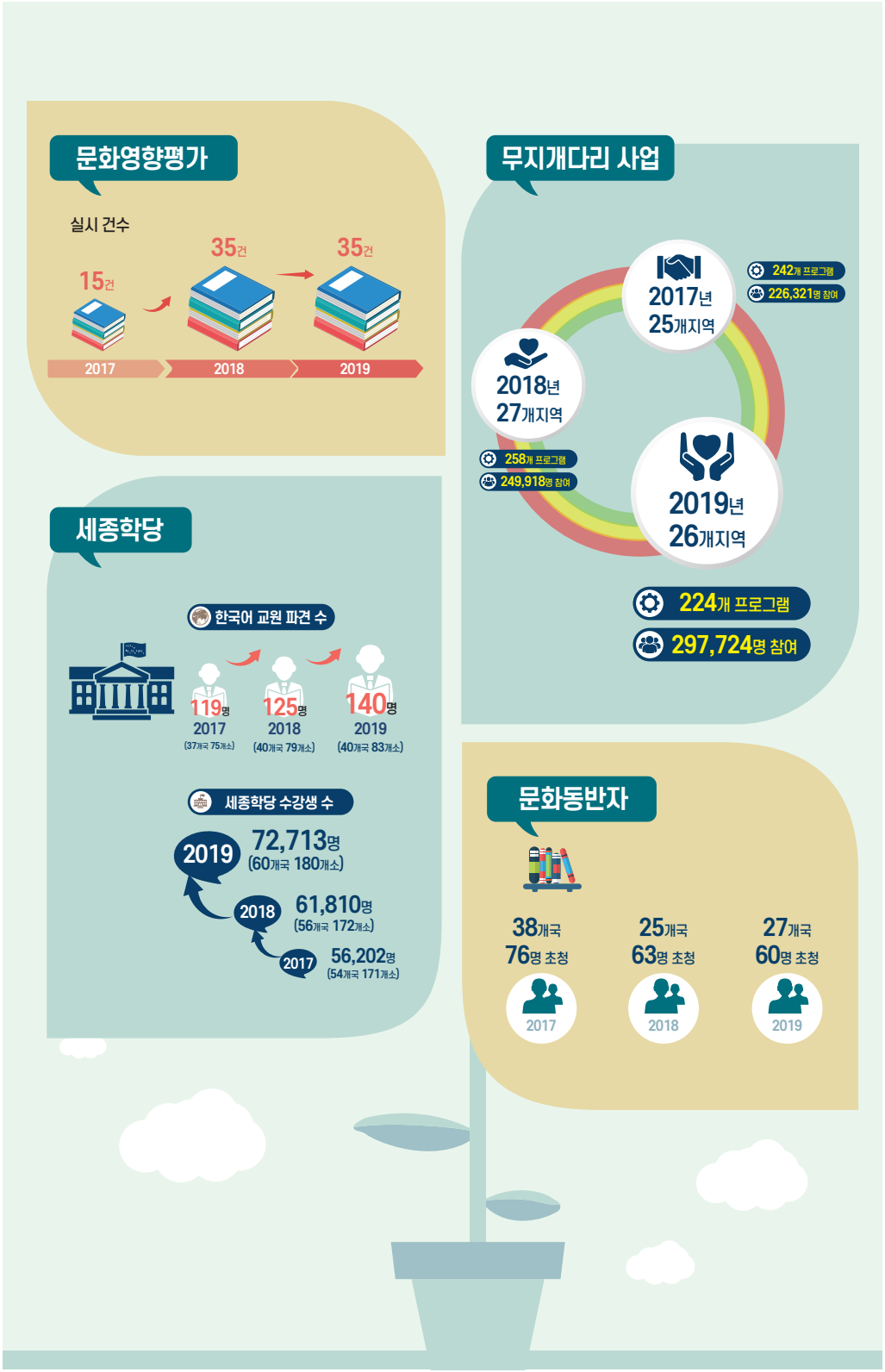
이야기 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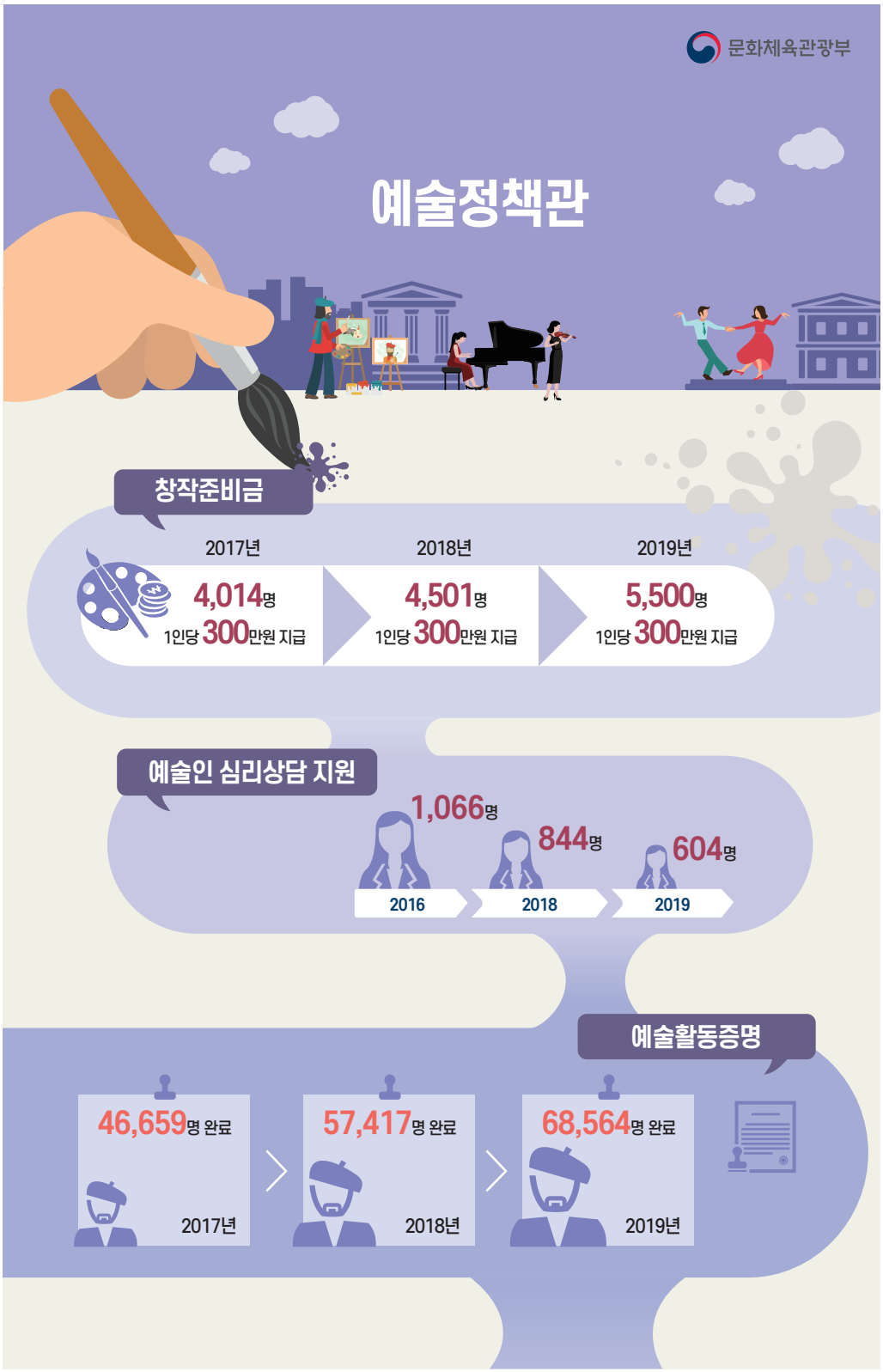
신규양성
이야기 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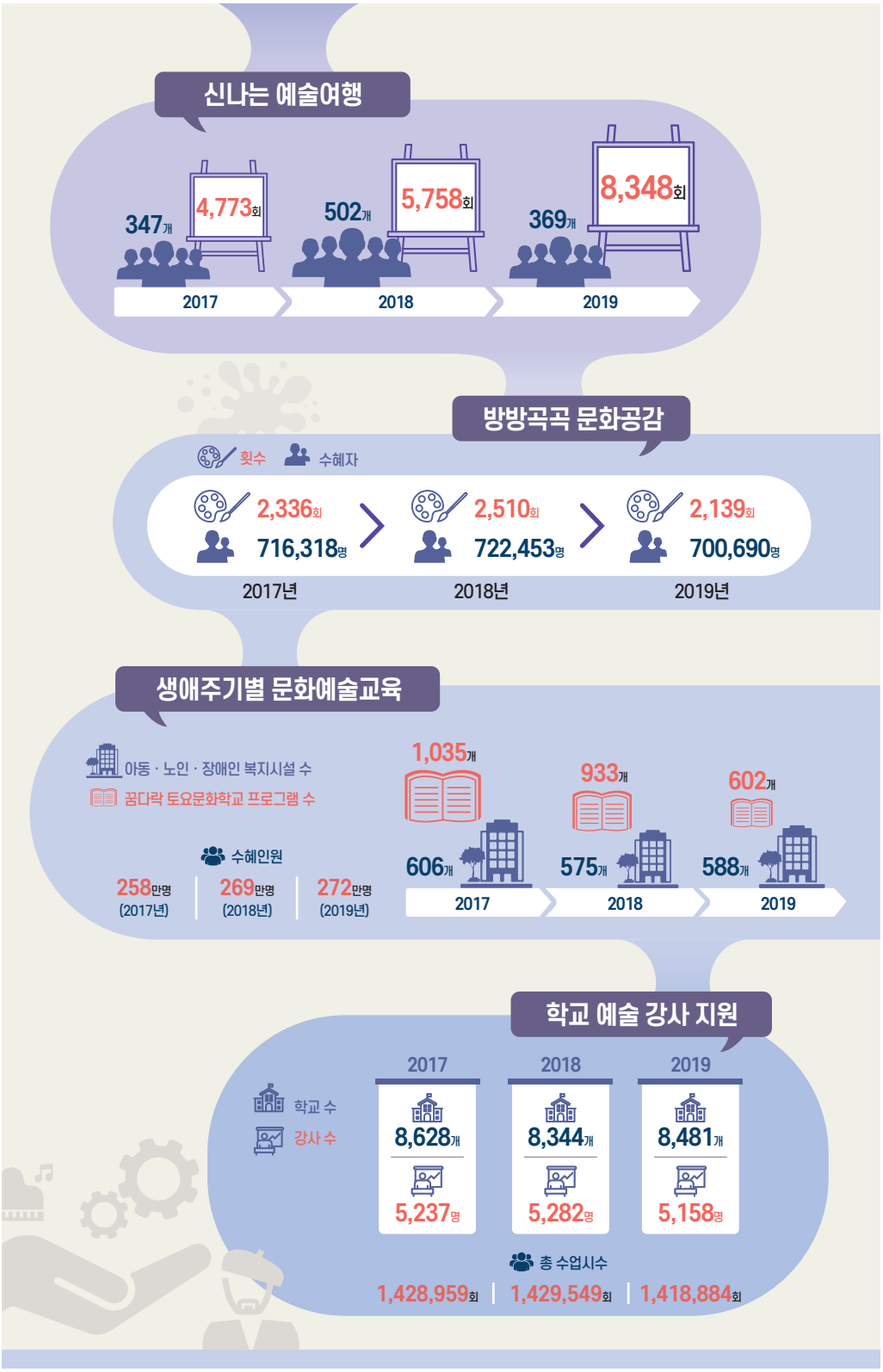
2017	2018	2019
2,462명	2,480명	2,658명
239명	549명	330명

수혜대상

2017	2018	2019
7,132개 유치원 등 46만명	7,268개 유치원 등 47만명	7,622개 유치원 등 51만명


문화영향평가
실시 건수
15건
35건
35건
2017
2018
2019
무지개다리 사업
2017년
25개지역
242개 프로그램
226,321명 참여
2018년
27개지역
258개 프로그램
249,918명 참여
2019년
26개지역
224개 프로그램
297,724명 참여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파견 수
119명
2017
(37개국 75개소)
125명
2018
(40개국 79개소)
140명
2019
(40개국 83개소)
세종학당 수강생 수
2019
72,713명
(60개국 180개소)
2018
61,810명
(56개국 172개소)
2017
56,202명
(54개국 171개소)
문화동반자
38개국
76명 초청
2017
25개국
63명 초청
2018
27개국
60명 초청
2019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창작준비금
2017년
4,014명
1인당 300만원 지급
2018년
4,501명
1인당 300만원 지급
2019년
5,500명
1인당 300만원 지급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1,066명
2016
844명
2018
604명
2019
예술활동증명
46,659명 완료
2017년
57,417명 완료
2018년
68,564명 완료
2019년


신나는 예술여행
347개
4,773회
2017
502개
5,758회
2018
369개
8,348회
2019
방방곡곡 문화공감
횟수
수혜자
2,336회
716,318명
2017년
2,510회
722,453명
2018년
2,139회
700,690명
2019년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아동 · 노인 · 장애인 복지시설 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수
수혜인원
258만명 (2017년)
269만명 (2018년)
272만명 (2019년)
1,035개
606개
2017
933개
575개
2018
602개
588개
2019
학교 예술 강사 지원
2017
2018
2019
학교 수
강사 수
8,628개
5,237명
8,344개
5,282명
8,481개
5,158명
총 수업시수
1,428,959회
1,429,549회
1,418,884회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문화가 있는 날

연계 프로그램

2017	2018	2019
28,974개	28,559개	30,726개
인지도 60.0%	인지도 68.9%	인지도 73.9%

인지자 중 참여율

2017년 50.7% 2018년 59.8% 2019년 62.1%

전국 문화기반 시설

	2017년	2018년	2019년
문화시설	2,694개	2,751개	2,825개*
이용자	445,135천명	496,186천명	422,356천명

* 2,825개 : 국립도서관3/공공도서관1,096/박물관881/미술관258/지방문화원231/문예회관255/문화의집101

생활공동체만들기 사업

활동 수

2017년 3,471건 2018년 3,674건 2019년 3,784건

수혜자 수

2017년 67,452명 2018년 88,621명 2019년 89,974명

만족도

2017년 86.5점 2018년 87.2점 2019년 85.0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 수행기관	운영 프로그램	참여인원
2017년 310개	2017년 332개	2017년 9,152명
2018년 265개	2018년 297개	2018년 11,909명
2019년 258개	2019년 311개	2019년 10,039명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2017 교육 231명 수료 203명 만족도 84.0점

2018 교육 260명 수료 214명 만족도 86.0점

2019 교육 260명 수료 217명 만족도 86.2점

2 장

문화체육관광부 현황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제2절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단체
제3절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부문 법령
제4절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02 문화체육관광부 현황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1. 연혁 및 역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의 창달, 전통문화의 보존 · 전승 · 발전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관광 · 체육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관련 정책과 시책을 수립 ·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 예술 · 영상 · 광고 · 출판 · 간행물 · 체육 및 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간 추진해 온 주요정책 영역 및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부 출범이후 문민정부(~1997년)까지는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을 준비하는 성장산업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문화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문화 · 체육 공간의 확충과 편리한 활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또한 문화와 관광의 연계를 통한 관광 개발과 생활체육 · 전문체육의 균형 육성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1990~1992년, 체육청소년부)이 수립 · 추진되었으며, 도서관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제정(1991년)되었다. 연극, 춤 등 11개 분야에 걸쳐 '문화예술의 해' 사업이 진행(1991~2001년)되었으며, 1993년에는 문화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 · 추진되었다. 1994년에는 문화산업국이 신설되고, 교통부로부터 관광국이 이관되었으며, 1994년에는 영상진흥기본법 제정, 1996년에는 음반 사전심의제가 폐지되는 등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국민의 정부(1998~2002년)에서는 문화가 중심가치가 되는 지식정보사회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1998년 발표된 '새문화관광정책'에 반영되었으며, 문화예산의 정부 예산 1% 달성으로 뒷받침되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예술지원정책의 원칙을 수립하고, 지역문화관, 창작 스튜디오 등 특화된 예술창작 인프라를 지원하였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특히 문화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강조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문화산업을 국가 경쟁력 증진의 주요수단으로 전략 육성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문화산업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게임산업개발원(1999년), 영화진흥위원회(2000년)와 문화콘텐츠진흥원(2001년)을 잇따라 설립하였다. 한편, IMF 위기 극복을 위하여 문화와 연계한 관광산업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관광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기도 하였다.

참여정부(2003~2007년)는 디지털화 · 융복합 환경에 부응하는 콘텐츠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우리문화의 전략적 세계화를 추진하고, 국민 문화향유 확대로 문화적 가치를 사회전반에 확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정책 기조 및 방향은 「창의한국」(2005년)을 통해 발표되었다.

참여정부 시기에는 다양한 영역들이 문화정책의 범주 내로 포괄된 바, 공간문화 · 공공디자인 정책, 학교 등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새롭게 문화정책 영역 안에서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으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 나눔 사업이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다. 민간 중심의 예술영역 지원 구조 확립을 위하여 기존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예술인 중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개편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광주, 전주, 경주, 부산 등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생활권 문화시설 건립 취지 아래 작은 도서관 설립이 확대되었으며, 도서관정책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설립되는 등 체계적 도서관정책 추진체계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문화비전으로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설정하고 문화예술 · 콘텐츠 · 관광 · 체육 각 분야에 실질적으로 정책현장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꾸준히 실행하였다. 전국 곳곳에 문화기반시설과 스포츠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고, 국내 최초의 근현대사 박물관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신설하였으며, 문화 · 여행 · 스포츠 바우처 등의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국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예술인복지법 제정 등 법 · 제도 정비를 통해 예술 창작 여건을 개선시키는 한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적인 콘텐츠 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콘텐츠 투자재원 다변화, 해외진출 지원 등 콘텐츠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였으며, 관광 분야에서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외래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동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박근혜 정부(2013~2017년 3월)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구성,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등 법령 정비, 소외계층 대상 문화향유 프로그램 등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관광주간을 통한 국민관광 조성, 인문정신 · 전통문화로 문화자산의 가치 확산 등을 지원하였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라는 국정전략에 맞춰 중장기 정책비전인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를 수립하였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 · 패럴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남북 간 문화 · 체육교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문화비 소득공제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표준계약서 개발 · 보급 등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도 추진하였다. 한편, 관광산업 회복 및 성장세 달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관광진흥기본계획(2018-2022) 수립 등을 추진하였다.

2. 조직 및 기능

문화체육관광부는 1948년 11월 4일 정부조직법 및 직제의 공식출범과 함께 탄생한 공보처 및 문교부의 문화국, 그리고 1961년 10월 2일 설치된 교통부의 관광공로국에서 기관의 기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 후 공보업무와 문화예술업무의 통합으로 1968년 7월 24일 문화공보부가 발족(대통령령 제3519호)되었고, 1990년 1월 3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보처가 다시 분리되어 문화부로 공식 출범(대통령령 제12895호)하였다. 당시 문화부는 정원 316인(정무직 2인, 1급 2인, 2급 10인, 3급 1인, 4급 26인, 5급 62인, 6급 80인, 7급 52인, 기능직 81인)으로 2실, 4국, 11담당관, 18과로 구성되었다.

1993년 3월 6일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함께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되어 문화체육부(대통령령 제13869호)로 개편되었으며, 정원 1,784인, 1차관보, 3실 7국, 12담당관, 34과로 구성되었다. 1994년 12월 23일 교통부의 관광국을 인수하고, 1998년 2월 28일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관광부(대통령령 제15722호)로 개편되어 1차관보, 2실, 6국, 5관, 5담당관, 29과 및 16개 소속기관의 조직으로 명실 공히 문화관광 정책을 관장하는 중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003년 3월 13일 새로 건립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국가의 중추적인 문화기관으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예연구관에 준하던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직위를 차관급으로 격상하였다. 이어서 4월 16일 장관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정책보좌관을 신설하였으며, 이어 7월 1일 개방형 직위였던 청소년국장을 청소년수련과장 및 정보화담당관으로 대체하였다. 총무과의 인사 기능을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기획관리실의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폐지하고 기획총괄담당관, 예산담당관 및 행정인사담당관으로 대체하는 조직개편 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제출한 자체 기능조정방안을 토대로 21세기 문화비전 실현과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2004년 11월 11일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2005년 3월 31일 정책홍보기능의 강화를 위해 정책홍보 관리실을 설치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업무를 위해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을 설치하였다. 이어 8월 16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교육문화교류단의 신설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기획기능 및 국제교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획처의 신설을 추진하였다. 12월 9일에는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체육과를 신설하였다. 2006년에는 7월 25일 전면적인 팀제를 도입하였다.

문화관광부는 2007년 5월 2일 도서관정책정보기획단과 5월 22일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신설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 사업과 도서관정책의 실현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 및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문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07년 9월 18일자로 본부제를 도입하여 문화산업본부 및 관광산업본부를 신설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29일 국정홍보처의 국정에 관한 홍보 및 정부발표 등의 관장업무와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업무가 문화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기능 및 사무를 기존의 문화관광부 조직에서 흡수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신설(대통령령 제20676호)하였으며 기존의 1차관제에서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2차관, 3실, 5국, 2단, 11관, 62과(팀), 11개 소속기관을 두었다. 7월 3일은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인력 32명을 지식경제부에서 이관 받았으며 10월 13일은 영남지역 국악진흥을 위해 국립국악원 분원인 부산국악원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009년 5월 4일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조직 간소화를 위한 대국대과제를 실시하여 본부 62과(팀)를 54과(팀)로 축소, 개편하였다. 이와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자료운영부(디지털도서관 운영), 국립민속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 국립중앙극장의 공연예술박물관과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신설하였다. 이어 10월 19일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개칭하였다.

2010년 1월 1일에는 기능직공무원 40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7월 2일에는 개방과 경쟁을 통한 조직 효율성 강화를 위해 개방형직위를 확대(고공단 6개 → 8개, 과장급 19개)하였으며, 국제문화과의 기능과 정원을 해외문화홍보원으로 이관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신축에 따른 시설관리 인력 6명을 증원하였다. 이어 12월 8일 온라인 정책홍보기능 강화필요에 따라 홍보지원국에 온라인홍보협력과를 신설하는 등 업무를 조정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관리과 신설 및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의 고고부와 역사부를 통합하고 학예연구 관련 업무를 조정하였다.

2011년 1월 1일에는 2010년에 이어 기능직공무원 40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6월 7일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 대비 전시자료 수집 및 전시기획 기능을 보강하고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등 정보보호 기능 강화, 저작물 불법복제 방지 및 국악 악기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13명의 정원을 증원하였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다문화 ·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문화예술교육과에서 문화여가정책과로 이관하였고, 이와 아울러 템플스테이 등 전통종교문화체험 업무를 종무1담당관에서 관광진흥과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국어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어민족문화과 · 지역문화과를 국어정책과 · 지역민족문화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전시자료과를 신설하여 인력 6명을 증원하였다. 이어 10월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정부의 국민소통 및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40개 중앙행정기관 등의 직제가 일괄 개정(대통령령 제23209호)되었다.

2012년 2월 1일, 국정홍보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수행하는 홍보기획 및 홍보정책의 총괄 · 조정기능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여 국민소통실을 신설하였으며,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수행하는 국제문화교류 총괄 조정기능을 문화예술국 문화정책관 소관으로 이관, 문화정책관 소관 문화예술교육기능을 예술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하였다. 2012년 4월에는 국가서지 품질제고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 국가서지과가 신설되었으며, 9월에는 장애인의 정보욕구 충족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2007년 신설)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2012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신설되었으며,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2012년 5월 23일 발표)의 박물관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2년 9월 7일 문화예술국에 박물관 전담부서인 박물관정책과가 신설되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2013년 3월 23일에는 디지털콘텐츠 사무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한편, 문화예술국을 문화정책국과 예술국으로 분리, 관광산업국을 관광국으로 개편,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을 도서관 · 박물관정책기획기획단으로 개편, 국립국악원에 기획운영단을 설치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2013년 12월 12일에는 공무원 직종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 축소, 계약직 및 기능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직종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따라 인사과와 운영지원과를 운영지원과로 통합, 스포츠산업과 신설, 범 부처 차원의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른 인력 감축 등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 및 정원을 정비하였다.

2014년 2월 17일에는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문화기반국으로 개편하고, 국립한글박물관을 신설하였으며, 2014년 8월 27일에는 동계올림픽특구를 지원하는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을 신설하였다. 2014년 10월 23일에는 정책 분야별 융합행정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문화예술정책실 및 관광체육레저정책실을 각각 신설하고, 그 하부 기구로 문화예술정책실 아래에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문화기반정책관을 두고, 관광체육레저정책실 아래에 관광정책관, 체육정책관, 관광레저정책관을 두었다. 또한, 미디어정책국을 미디어정책관으로 개편하고, 문화콘텐츠산업실 소관으로 하는 등 '실' 중심의 조직체계로 개편하였다. 아울러 해외문화홍보원과 관련된 업무와 재외문화원의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문화정책국에서 국민소통실로 변경하였다.

2015년 3월 23일에는 국정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차관보를 신설하고, 2015년 7월 20일에는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2015년 12월 30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속으로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신설하였다.

2016년 4월 4일에는 관광분야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체육관광정책실'을 '관광정책실'과 '체육정책실'로 분리하고, '관광레저정책관'을 '국제관광정책관'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2016년 9월 29일에는 시청각 장애인의 언어권 · 교육권 · 정보 접근권 보장 및 특수 언어(수어, 점자)의 체계적 · 전문적 지원을 위해 국립국어원에 특수언어진흥과를 신설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2017년 9월 4일에는 신속한 의사 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책임행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콘텐츠산업실을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으로, 체육정책실은 체육국(보좌기관: 체육협력관)으로, 관광정책실은 관광정책국(보좌기관: 관광산업정책관)으로의 조직개편을 통해 4실, 5국, 11관(기존 7실 16관)의 국(局)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지역문화 · 예술 격차 해소의 통합적 대응을 위해 지역문화정책관을 신설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등 새로운 정책 의제에 대한 문화적 대안 마련 및 통합 · 조정 능력 강화를 위해 미래문화전략팀을, 주요 통상 협상에서의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문화통상협력과를 각각 신설하였다. 독서진흥과 출판정책의 연계 및 통합적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독서진흥기능을 출판인쇄산업과로 이관하고, 과 명칭도 '출판인쇄독서진흥과'로 변경하였다.

2018년 7월 1일에는 국민소통실 내 온라인 홍보 총괄 지원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기능 강화를 위한 디지털소통관 및 디지털소통제작과를 신설하고, '홍보정책관'을 '소통정책관'으로, '홍보콘텐츠기획관'을 '소통지원관'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2018년 8월21일에는 국제 스포츠행사를 통해 창출된 유산을 지속 관리 · 발전하기 위하여 스포츠유산과를, 2018년 12월 31일에는 대변인 밑에 대국민 소통기능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였다.

2019년 2월 26일에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기획과 부내 행정협업 강화를 위해 혁신행정담당관을 기획혁신담당관으로 재편하였으며, 익산미륵사지 및 익산문화권의 문화유물의 보존 · 관리를 위해 익산미륵사지전시관을 국립익산박물관으로 전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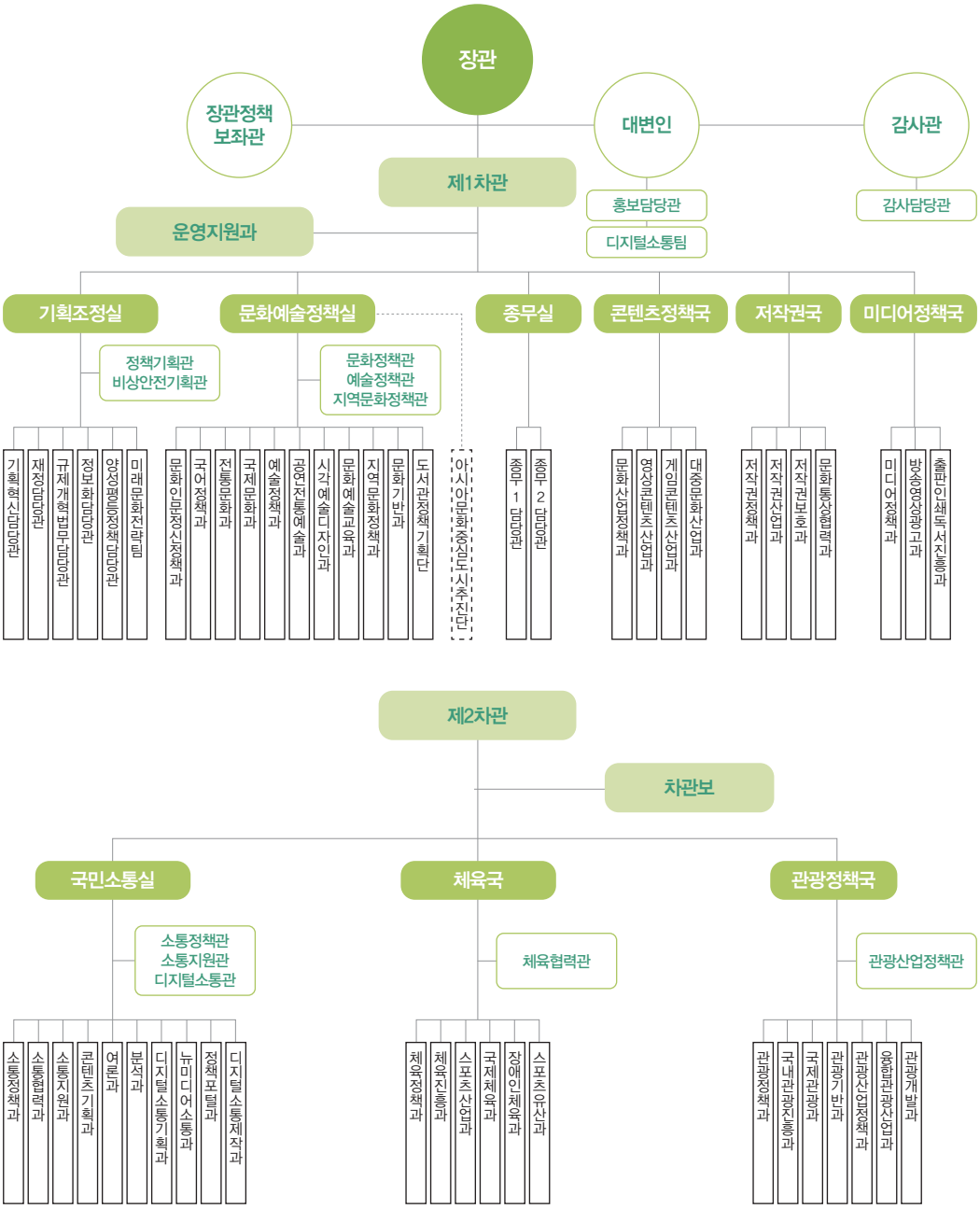
2019년 5월 7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박물관의 디지털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의 기획운영단을 행정운영단으로 변경하고 그 하부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지방박물관의 역량과 위상 강화를 위해 경주박물관 내 '교육문화교류과'를 신설하는 한편, 대구박물관장의 직급을 4급에서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였다.

2019년 8월 27일에는 광주광역시 내 옛 전남도청 건물의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2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과 그 하부조직인 '복원협력과'와 '복원시설과'를 신설하였다.

2019년 12월 31일에는 문화정책 수립 및 추진의 수혜자인 국민의 이해 제고를 위해 문화인문정신정책과를 문화정책과로 재편하였으며, 국립현대미술관이 유일한 국립미술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임기제 인력 38명을 정원화하는 등의 조직을 개편하였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은 2차관, 1차관보, 4실, 5국, 12관, 57과, 2팀, 18개 소속기관을 두고 있다.

그림 2-1-1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조직도



1) 장차관 직속기관

장관 직속기관 하부조직으로 정책보좌관, 대변인, 감사관을 두고 있다. 정책보좌관은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 · 검토, 부내와 일반국민의 정책 의견 수렴 및 기타 장관의 정책에 대한 연구기능을 한다. 대변인은 하부조직으로 홍보담당관과 디지털소통팀을 두고 있으며,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 · 조정 및 협의 · 지원, 문화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보도내용의 확인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 및 분석,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온라인대변인 지정 · 운영 등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총괄 · 점검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감사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 처리,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 강구,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 심사 및 병역신고,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차관 직속기관으로는 운영지원과가 있다. 운영지원과는 공무원의 채용 · 승진 · 전직 등 임용, 교육 훈련 등 능력 발전, 상훈 · 인사 제도 및 운영 관리의 혁신,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 소속 공무원의 연금 · 급여 · 복지후생 및 보안, 관인, 행정자료의 관리, 민원 일반 및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국유재산, 물품 관리,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계약, 자금의 운용 · 회계,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한다.

2)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과 비상안전기획관을 두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장기 기획 총괄, 예산, 조직, 성과관리, 국회 대응, 정보화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하부조직으로 기획혁신담당관, 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미래문화전략팀을 두고 있다.

기획혁신담당관은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 조정,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 · 조정, 부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 및 관리, 조직과 정원의 관리, 공공기관 관리,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 집행 및 각종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 통계업무 등을 담당한다.

재정담당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점검, 예산의 운영 및 결산, 기금운영업무를 총괄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안의 심사, 행정심판업무, 소송사무의 총괄,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규제개혁, 국회 및 정당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화담당관은 문화정보화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 업무를 담당한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양성평등 관련 정책, 성차별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 성희롱 · 성폭력의 피해 구제 및

방지 정책의 수립 · 점검 등을 담당한다.

미래문화전략팀은 중 · 장기 전략의 수립 · 관리, 정책의제의 관리 및 점검, 남북문화교류협력 및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정책의제에 대한 문화적 대안의 수립 ·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비상안전기획관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재난 · 재해 관리, 안전관리 ·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의 연계체계 구축 ·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예술정책실은 문화예술 분야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2014년 10월 23일 신설되었으며, 2017년 9월 4일 문화격차의 해소 및 지역문화정책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문화기반정책관을 지역문화정책관으로 재편하여,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으로 개편 · 구성되었다.

문화정책관은 우리나라 문화 · 인문정신문화, 국어, 전통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조정 · 시행,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에 관한 사항, 남북문화교류 협력, 문화다양성 보호 · 증진, 민족문화 진흥 기반 조성 및 확산 지원,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 · 시행 및 문화예술 등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문화정책관 하부조직으로는 문화정책과, 국어정책과, 전통문화과, 국제문화과가 있다. 문화정책과는 문화 ·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추진, 문화 ·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국민문화의식 실태조사 · 연구 및 함양에 관한 사항,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 및 소외계층 문화향유 증대에 관한 사항, 문화다양성 증진 및 남북 문화교류에 관한 사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도 · 감독, 문화재청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국어정책과는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추진, 국어 · 언어에 관한 법령 및 제도와 어문규범의 정비,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 및 한국어 보급에 관한 사항,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한글날 행사, 한글가치 확산 및 진흥 · 홍보 등을 담당한다.

전통문화과는 전통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추진 및 법령 · 제도 정비, 전통문화 자원의 생활화 · 산업화 · 세계화, 민족문화 자원의 발굴 · 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전통 · 민족문화, 정신문화, 한국학 관련 연구 및 보급, 문화재청의 주요업무 지원 등을 담당한다.

예술정책관은 우리나라 문화 예술 창작 지원과 국민의 문화 예술 향수권 신장을 위한 예술 진흥 정책의 수립, 공연예술과 전통예술의 시설 확충 및 창작 활동의 지원, 복합 문화예술 공간 조성 지원, 문화예술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예술정책관의 하부조직으로는 예술정책과, 공연전통예술과,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예술교육과를 두고 있다. 예술정책과는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시행, 예술인의 복지 증진, 문학 진흥, 문화예술진흥 지원을 위한 재원조성 및 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사항, 예술정책에 관한 조사 · 연구, 문화예술 경영 활성화 및 예술 산업화, 문화예술 창작 지원 및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정책 수립 및 지원,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업무협력 및 교류,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후원 활성화 등을 담당한다.

공연전통예술과는 음악 · 무용 · 연극 등 공연예술 및 전통음악 · 전통무용 · 전통연희 등 전통예술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공연 · 전통예술 관련 시설확충 · 공간조성 및 운영, 문화예술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평가,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분야 창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무대예술전문인의 양성 및 외국공연물의 국내공연 관련 사항, 예술요원 지원, 공연예술의 유통구조의 개선,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분야의 남북 · 국제교류와 해외진출,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분야의 조사 · 연구, 전통예술의 원형보존과 개발 및 보급, 전통예술 대중화 · 산업화 · 세계화 등을 담당한다.

시각예술디자인과는 회화 · 조각 · 사진 · 디자인 · 공예 · 건축 등 시각예술(이하 "시각예술"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시행, 시각예술 관련 법령의 제정 · 개정 및 제도 개선, 시각예술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시각예술의 마케팅 활성화와 산업화, 시각예술의 창작 및 기획, 경영 등의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시각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문화적 공간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문화적 공간 환경 조성,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 공간문화 인식 제고 및 교육,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 공간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문화예술교육과는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시행,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지원,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교육, 문화예술교육 수요 개발 및 확충,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문화예술교육관련 시설 · 기관 및 단체 지원, 문화예술교육관련 국제교류 등을 담당한다.

지역문화정책관은 지역문화정책과, 문화기반과, 도서관정책기획단을 두고 있다. 지역문화정책과는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 추진,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문화도시 조성 및 진흥, 지방문화원의 육성 · 지원, 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 ·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문화기반과는 박물관 ·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 시행, 문화기반시설 관련 법 · 제도 개선 및 조사 연구, 국립 박물관 · 미술관 설립 협의 및 공립 · 사립 · 대학 박물관 · 미술관의 육성 · 지원, 공립박물관 및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도서관정책기획단은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도서관 관련 법령 제 · 개정 및 제도의 개선,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관리, 사서 등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공공도서관의 설립 · 육성 지원, 작은도서관 및 지역 대표 도서관의 육성 지원, 도서관정보화 및 협력망 구축 · 개선, 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

4) 종무실

종무실은 우리나라 종교문화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종교인들 간의 화합과 갈등 해소를 통해 종교가 우리 사회에 건전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하부조직으로 종무1담당관, 종무2담당관을 두고 있다.

종무1담당관은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종교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불교 관련 단체 · 법인의 업무 지원, 전통사찰 지정 · 지원 ·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종무2담당관은 기독교 · 천주교 · 유교 · 민족종교 등 관련 단체 · 법인의 업무 지원,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향교재산의 보존 및 관리,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5) 콘텐츠정책국

콘텐츠정책국은 문화산업을 세계 5대 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화 · 음악 · 애니메이션 · 비디오물 · 게임물 · 멀티미디어콘텐츠 · 캐릭터 · 만화 등 각 분야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문화상품 개발과 우리 문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확대 등 문화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다각적으로 추진하며, 하부조직으로 문화산업정책과, 영상콘텐츠산업과, 게임콘텐츠산업과, 대중문화산업과를 두고 있다.

문화산업정책과는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문화산업진흥 재원의 조성 및 운용, 문화산업진흥 기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지역 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관련된 업무,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R&D) 업무 총괄 · 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 · 운영,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종합계획 수립, 문화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금융제도, 세제 개선 등을 통한 문화산업 분야 투자활성화, 문화 콘텐츠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과 융 · 복합 콘텐츠 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영상콘텐츠산업과는 영화 · 비디오물 ·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및 정책개발, 영상콘텐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양성, 창작 ·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영상산업의 제작 · 배급 · 상영 활동 및 관련단체 지원, 영상콘텐츠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촉진활동의 지원,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영화 · 비디오물 관련업의 등록 · 신고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육성,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관련된 사항과, 영화진흥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게임콘텐츠산업과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게임산업 분야의 창작 · 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게임물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게임산업의 남북교류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인터넷 게임 시설 제공업 및 게임 제공업에 관한 사항, 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와 유통 · 이용제공 관련 영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게임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지원 육성 및 그와 관련된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게임 이용 교육 및 게임 과몰입 예방 등 역기능 대처에 관한 사항, 게임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디지털 · 모바일 · 스마트 문화콘텐츠산업 및 에듀테인먼트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한다.

대중문화산업과는 음악 · 만화 · 대중문화예술 · 패션 · 엔터테인먼트 · 이야기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사 · 연구 및 정책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작 · 제작활동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유통구조 개선 · 정보화 · 투자활성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위상 제고에 관한 사항, 대중문화산업 관련 인프라 조성, 응용 문화산업 발굴 및 지원, 노래연습장업, 음반 · 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 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 문화산업 분야와 관련된 남북교류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6) 저작권국

저작권국은 1987년부터 저작권 분야 정책수립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각종 활동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그간 여러 번의 조직개편을 통해 저작권국 아래에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과, 저작권보호과, 문화통상협력과를 설치한 지금과 같은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 유통, 이용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관련 정책 수요 및 기능이 확대되었고 이는 전담 조직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최초로 저작권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당시 문화공보부) 소관으로 편재되었던 당시에는 오직 1개 과만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4개로 담당 부서가 늘어나게 되고 인력 역시 10명 안팎에서 60명으로 증가 되었다.

저작권정책과는 저작권 법 · 제도 및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저작권 등 지식재산 분야 조사 · 연구, 동향 분석, 저작권 교육 및 홍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감독 등과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저작권산업과는 저작권 산업 활성화 및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공공저작물, 공유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제도 운용 등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저작권 보호기술 표준화 및 R&D 등과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저작권보호과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관련 사항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감독, 불법 복제물 수거 · 폐기 · 삭제 업무 및 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 명령, 전송중단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며,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의 주요 대도시(서울, 세종, 대구, 부산, 광주)에 별도로 설치된 지역 사무소에 각기 배치되어 불법복제물의 단속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문화통상협력과는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 및 총괄 · 조정,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 · 다자 통상 대응,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 · 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후속대책 수립, 해외 저작권 보호 · 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 협력,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협력 등과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한다.

7)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국은 하부조직으로 미디어정책과, 방송영상광고과, 출판인쇄독서진흥과를 두고 있다.

미디어정책과는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유통구조 개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의 종합 조정, 뉴미디어 · 지역 언론 정기 간행물 발행업 · 뉴스통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미디어와 관련된 남북교류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문화미디어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 · 제도의 정비,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문사업 · 인터넷신문 사업 · 정기간행물사업 · 지역언론 · 뉴스통신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신문 · 정기간행물지사 · 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뉴스통신진흥회 · 언론중재위원회 및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한다.

방송영상광고과는 방송영상산업 ·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수행,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지원 기반 확충과 법 · 제도의 정비, 뉴미디어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육성 및 지원, 방송영상산업 · 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출판인쇄독서진흥과는 출판 · 인쇄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 육성,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지원 기반 확충과 법 · 제도의 정비, 출판물 국제유통시스템 구축 및 출판유통 포럼에 관한 사항, 출판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출판산업 · 전자출판산업 및 인쇄산업의 육성, 출판업 · 인쇄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에 관한 사항,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시행, 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육성 · 지원, 독서진흥 연차보고 및 국민독서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 연구, 독서의 달 및 독서문화상에 관한 사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한다.

8) 국민소통실

국정에 대한 홍보 사무를 담당하는 국민소통실은 국정과제 및 정책 홍보에 대한 능동적인 기획 · 총괄 · 조정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소통실장 아래 소통정책관과 소통지원관, 디지털소통관을 두고 있다. 소통정책관에는 소통정책과, 소통협력과, 소통지원과 3개의 과를 두고 있으며, 소통지원관에는 콘텐츠기획과, 여론과, 분석과 3개의 과를 두고 있다. 디지털소통관에는 디지털소통기획과, 뉴미디어소통과, 정책포털과, 디지털소통제작과 4개의 과를 두고 있다.

소통정책과는 국정홍보 업무의 총괄 기획, 공무원 대상 홍보 전문 교육 등 정책홍보역량강화 지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소통협력과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협의 · 조정 및 협력,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종합실적 관리 및 효과 분석,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중앙행정기관 대변인협의회의 운영, 정부발표 브리핑 지원, 정부행사 취재 및 보도활동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소통지원과는 정책발표 사전협의, 국정 현안별 이슈 관리 및 홍보, 정책홍보 환경 분석, 홍보기법 연구 · 개발 및 보급,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 메시지 개발 및 활용,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컨설팅 및 활용 지원 등을 담당한다.

콘텐츠기획과는 국정홍보 콘텐츠 기획 · 개발 및 성과 분석, 정책홍보 간행물의 기획 · 편집 및 제작 · 배포, 국정현안 홍보자료집의 기획 및 제작, 국정보도사진 촬영 · 제작 및 배포, 국정기록사진 관리 및 보존 업무 등을 담당한다.

여론과는 국민의식 및 정책여론조사 등 여론수렴 및 그 결과를 활용한 국정홍보, 정부의 주요정책 광고 · 공익광고 및 각 중앙행정기관 정책광고의 협의 · 지원,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보유 홍보매체에 대한 홍보 콘텐츠 지원, 정책홍보 관련 국민제안 및 의견 수렴 업무, 정책전문가 및 민간단체와의 교류 · 협력 업무 등을 담당한다.

분석과는 일간신문 및 정기간행물, 공중파 방송매체, 종합편성 채널 등 케이블방송 및 인터넷 매체의 보도 · 논평의 수집 및 분석, 통신보도 논평 수집 및 분석, 정책보도 분석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및 활용 업무 등을 수행한다.

디지털소통기획과는 정부 온라인 홍보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각 중앙행정기관의 온라인홍보 협의 · 조정 및 협력, 중앙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 회의 및 정책홍보협의체의 운영, 온라인정책홍보 평가시스템의 운영 등을 수행한다.

뉴미디어소통과는 온라인여론수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 분석, 뉴미디어 플랫폼 협력사업, 정책홍보지원시스템 및 정책메일시스템 운영 · 관리, 정책 이슈 관련 온라인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정책포털과는 정책정보포털 관리시스템 및 국정사진 관리시스템의 운영, 중앙행정기관 정책정보사이트의 홍보콘텐츠 지원, 중앙행정기관 뉴스사이트 운영 지원,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관리 및 활용, 공직자통합메일 운영 ·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디지털소통제작과는 온라인 콘텐츠 기획, 영상 · 그래픽 등 콘텐츠 제작, 온라인 매체 활용을 통한 민간협력,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한다.

9) 체육국

체육국은 우리나라 생활체육, 전문체육, 스포츠산업, 국제체육교류, 장애인 체육의 진흥 및 스포츠유산(遺産)에 관한 사항 지원 등을 통하여 궁극적 국민 복지 향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체육국과 보좌기관으로 체육협력관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 국제체육과, 장애인체육과, 스포츠유산과를 두고 있다.

체육정책과는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 · 단기종합계획의 수립, 체육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 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국가대표선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일반적 관리에 관한 사항,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 · 지원,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 · 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 스포츠 공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한다.

체육진흥과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 시행 및 관련 단체의 육성 · 지원, 생활체육종목의 육성,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과 스포츠클럽의 육성 · 지원,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 · 배치에 관한 사항, 체육 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국민 체력 증진에 관련된 사항,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바우처 지원,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환경 조성, 선수 · 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 · 지원,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전국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스포츠산업과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 단체 및 기구의 육성 · 지원, 스포츠산업 진흥 재원의 조성 및 운용, 스포츠산업 기술 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지원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육성에 관한 사항, 체감형 가상스포츠 등 융 · 복합형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스포츠 용품 · 시설 · 서비스의 품질 비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민간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 활성화, 스포츠 관련 용품 · 용구 · 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교류 · 협력에 관한 사항,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 단체의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 · 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 · 지원,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 · 이용 활성화, 스포츠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체육과는 국제체육 교류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제경기대회의 유치 · 개최 및 참가지원, 국가 간 · 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 · 협력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체육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 · 보급,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도핑)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체육 분야 개발도상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장애인체육과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 · 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장애인체육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장애인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 · 배치 및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국가대표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 국제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장애인 체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장애체육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스포츠유산과는 국제경기대회 시설 사후활용 등 스포츠유산 창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장에 따른 동계올림픽 특구에 관한 사항, 태권도 진흥 정책의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태권도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태권도진흥재단에 관한 사항, 태권도 이론 · 기술 등의 조사 · 연구 및 보존 · 보급에 관한 사항, 태권도에 관한 콘텐츠 개발 및 관련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태권도 국제교류 활성화에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한다.

10) 관광정책국

관광정책 업무를 위해 관광정책국과 관광산업정책관을 두었다. 관광정책국에는 관광정책과, 국내관광진흥과, 국제관광과, 관광기반과 4개의 과를 두고 있다. 관광산업정책관에는 관광산업정책과, 융합관광산업과, 관광개발과 3개의 과를 두고 있다.

관광정책국은 관광산업의 내실화를 추진하여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조성,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확충, 방한 관광 시장 질적 제고 및 정부 간 관광협력 강화,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의 개발, 생애주기별 · 계층별 관광 지원 및 국민관광 향유권 보장을 통한 국내관광 수요 확대, 저탄소 녹색관광 활성화로 관광산업의 녹색성장 초석 마련, 미래형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등을 통하여 국민 복지 향상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관광정책과는 관광진흥 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수립 및 관광 진흥개발기금의 조성 · 운영, 관광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 남북관광교류 · 협력 증진, 관광산업 정보화 및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 관광복지 증진, 관광연차보고 및 통계의 종합,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국내관광진흥과는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 및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 산업 · 생활 · 도시관광 활성화, 문화관광축제 조사 · 개발 및 육성, 걷기여행길 관리 ·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시티투어 홍보 및 마케팅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관광과는 국제관광분야 정책 개발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외래 관광객 유치 실적관리 및 동향파악, 관광정보 종합제공, 한중일 정부 및 관련기관 간 관광협력, 관광분야 국제협력, 한국문화관광대전 기획, 환승관광 활성화 및 항공협력, 해외광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관광기반과는 관광불편해소 및 안내체계 확충, 관광교통 협력 및 서비스 개선, 외래관광객 면세제도 개선 및 쇼핑관광 활성화, 국민의 해외여행 편익 증진, 관광통역안내사 육성, 한국방문위원회 사업지원,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 · 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관광분야 인증제 통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관광산업정책과는 관광산업 기반조성 및 지원정책 수립, 관광숙박업(호텔, 콘도) 및 대체숙박 육성,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관광법규 정비 및 규제 개선, 관광벤처기업 및 관광두레 육성 · 지원, 유원시설 및 야영장 제도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융합관광산업과는 마이스(MICE) 산업육성 및 국제회의 관련 외래 관광객 유치 · 지원, 한류 · 공연 · 스포츠 · 음식 · 전통시장 관광활성화, 의료 · 웰니스 · 크루즈 관광 등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카지노 및 복합리조트 산업 육성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관광개발과는 관광개발계획의 검토 · 조정, 관광지 · 관광단지의 개발,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 광역관광자원개발 계획 수립 및 지원, 관광자원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역관광발전지수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1)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복원추진단)은 2019년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내 옛 전남도청(민주평화교류원) 건물의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2022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되었다.

복원추진단 신설 이전, 옛 전남도청 6개 동에 대하여 1980년 5 · 18 당시로의 복원을 바라는 광주 · 전남지역 시민단체 · 기관 등으로 구성된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원회(이하 복원대책위)가 출범(2016.9.30.)하여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를 하였다. 정부에서는 신속한 체계를 갖추어 도청 복원을 진행하고자 2018년 11월 12일 선행 조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내 '옛전남도청복원전담팀'(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원 등 7명)을 구성 · 운영하였다.

신설된 복원추진단은 단장 아래 2개 과(복원협력과, 복원시설과)를 두고, 복원협력과 내에 전시콘텐츠팀을 구성하였으며, 옛 전남도청을 1980년 5 · 18민주화운동 당시로 복원하고 전시 · 기념 · 추모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직제정원은 9명이나 직제정원 외 파견, 신규 충원 및 부처 내 재배치 등으로 15명(파견 9명, 신규충원 4명, 재배치

2명)이 추가되어 운영 정원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원협력과는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복원에 관련된 부처 · 지방자치단체 · 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 복원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복원협력과 내 전시콘텐츠팀은 복원 공간 전시 콘텐츠 개발, 복원 관련 자료의 수집 · 분석 · 검증 및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복원시설과는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복원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2절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단체

1. 국립문화예술기관

1)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13528호)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21세기 창의적 예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예술영재 교육 및 체계적인 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현재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 등 6개원 체제를 갖추고 있다.

2) 국립국악중학교 ·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와 국립국악고등학교는 선조들이 이룩한 찬란한 전통 음악과 무용을 계승 발전시키며, 나아가 우리 문화 창달의 주역이 될 창조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국가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중등학교이다.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국악고등학교는 「국립 국악 · 전통예술학교 설치령」의 제정(2012년 5월 23일)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었다.

3) 국립전통예술중학교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는 한민족의 빛난 얼을 계승하여 민족예술의 창달과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민족예술 전문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2008년 2월 14일 대통령령 제20608호 국립학교설치령(일부개정령)에 의하여 국립학교로 전환된 중등학교이다. 2012년 5월 23일 「국립 국악 · 전통예술학교 설치령」의 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었다.

4)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제29조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고고학 · 미술사학 · 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를 수집 · 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공 · 사립박물관의 지원, 학예사 양성 등 전문 인력의 육성, 국가소유 매장문화재와 동산문화재의 보관 · 관리를 총괄한다. 더불어 전통문화의 교육 · 홍보 · 국제교류 및 문화상품 보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산하에 경주박물관 · 광주박물

관 · 전주박물관 · 대구박물관 · 부여박물관 · 공주박물관 · 진주박물관 · 청주박물관 · 김해박물관 · 제주박물관 · 춘천박물관 · 나주박물관 및 2019년 개관한 국립익산박물관 등 13개의 박물관을 두고 있다.

5)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어문규범의 개선을 위한 조사 · 연구,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정보 자원 구축 · 관리, 전문용어 표준화 및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체계 구축, 국어 및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및 국어 순화, 특수 언어(한국수어, 점자)의 정비와 보급 등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 활동을 관장하고 있다.

6)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국내외 자료의 수집 · 정리 · 보존 관리와 국가서지 작성 및 표준화 업무,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위한 주제별 자료실 운영, 공공도서관 지원 · 육성에 관한 사항, 전국 도서관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등 도서관 정보화와 전국 도서관협력체계 구축 관련 업무, 외국 도서관 및 문화기관과의 교류 협력과 사서직원의 교육훈련을 관장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은 3부 3관 19과(팀) 1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본관 외에 소속기관으로는 전국의 어린이 · 청소년도서관을 선도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200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국가시책을 수립 · 시행할 국립장애인도서관(2012), 정부정책 수립 활용 및 지원에 특화된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립세종도서관(2013)이 있다.

2015년 개관 70주년 및 천만장서 달성을 계기로 국가문헌으로 보존돼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온라인 자료까지 확대하였고, 2018년에는 1988년 이전 개관 이후 낙후되어 있던 본관의 서비스 공간과 시설을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달라진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고품격 서비스와 자료 이용 환경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2019년 디지털도서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노후화된 기기 및 장비를 교체하고, 정보생산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광장 이용공간 재 · 개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7)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해외 문화홍보 정책, 재외공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지원 · 협의, 해외언론 협력 및 국가이미지 제고 등 해외홍보 전반에 관한 사무를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8)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극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에 근거하여 1950년에 설립되어 민족예술의 진흥과 무대예술의 향상 발전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운영되었다.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의 3개 전속단체가 속해 있으며 2009년에는 공연예술박물관이 개관하였다.

9)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미술작품과 자료의 수집 · 보존 · 전시 · 조사 및 연구, 미술활동의 보급과 교육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 국제 교류를 통한 우리 미술문화의 발전과 세계화 도모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다. 과천관, 서울관, 덕수궁관, 청주관의 4개 미술관을 운영 중이다.

10)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전통악 · 가 · 무의 보존 및 창조적 계승, 전통예술 공연 및 교육 · 연구를 통한 전통예술의 진흥, 해외교류를 통한 국악의 세계화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산하에 국립민속국악원을 1992년에, 국립남도국악원 2004년에, 부산국악원을 2008년에 개원하였다.

11)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장 제65조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전통생활사, 전통공예기술, 전통세시풍속, 민간신앙, 각종의례, 전통사회의 관습 · 제도 등에 관한 조사 · 연구와 동 · 서양의 민속을 비교 조사하며, 전통세시풍속의 활성화 및 전승 · 보급, 민속유물의 구입 · 수집 · 보존관리 및 보존처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민속유물의 문화상품화 및 정보화, 사회문화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1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조의 2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자료에 대한 조사 · 연구를 수행하고 자료의 체계적 수집 · 보존 및 전시, 국내외 근현대사 박물관과 교류 · 협력, 근현대사 소장 자료 아카이브 구축, 근현대사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관장하고 있다.

13)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은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를 보존 · 확산 · 재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9일(한글날) 개관하였다. 한글 및 한글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 · 보존 · 조사 · 연구 · 전시 · 교육 및 교류 등 한글문화의 보존,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14) 예술원사무국

예술원사무국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예술원 회원의 창작활동 지원 등을 담당하며, 국내 · 외 예술교류 및 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15) 한국정책방송원

한국정책방송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8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 · 방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 · 지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1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14년 10월 완공,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9월 4일 부분개방 후, 11월 25일 공식 개관을 하였다. 조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근거해 2015년 7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되었으며,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 · 교육 · 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2, 제28조에 근거해 아시아문화원에 콘텐츠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의 교부 및 정산을 하며, 이를 통해 기관 운영 및 사업 관리감독의 역할을 한다. 또한 국유재산(공간, 시설)의 운영 · 유지 · 보수와 국내 · 국외 교류협력 총괄의 역할을 한다.

2. 특수법인 형식의 문화예술기관

1)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은 1987년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2000년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현행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예술의전당은 예술의 전당 관내 시설운영,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 관리 · 보급과 조사 · 연구,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국립예술단체와 협력, 후원회 운영 등을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요 업무로 한다.

2)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번역원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1996년 5월 6일 설립된 (재)한국문학번역금고를 모태로 하는 기관으로, 2001년 3월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하여 (재)한국문학번역원으로 출범하였다. 2005년 9월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 19(이후 제 38조로 이관)를 근거로 특별법인으로 승격되었으며, 이후 2010년 6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0조의 2로 기관 근거법령이 이관되었다. 현재는 2016년 8월 4일 시행된 「문학진흥법」이 근거법령이다. 「문학진흥법」 제13조 내지 제15조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주요업무를 한국문학의 번역 · 출판사업/번역가 양성사업/세계화 관련 기획 · 조사 · 연구 사업/해외 교류 · 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문학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 · 출판 사업,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5년 2월 5일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나, 2005년 12월에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부칙 제2조에 의거 2006년 8월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식문화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력 양성 등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학교 ·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 강화, 문화예술교육정책 진흥기반 조성,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 · 운영,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연구 및 조사,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평가, 교원의 연수지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 장비의 확충 및 정비,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2005년 8월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었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등 기초예술 분야의 비영리적 실험 영역을 대상으로 그 창작과 매개, 향유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예술분야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이 주는 창조적 기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2016년 5월 「문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정법인으로 전환된 국책연구기관이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4년 개원)과 한국관광연구원(1996년 개원)을 2002년 통합하면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설립되었으며, 2007년 현재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주요업무는 ①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 · 연구 ②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 · 평가 · 연구 ③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 · 연구 ④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⑤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 · 연구 ⑥ 북한 문화예술 연구 ⑦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⑧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 · 통계의 생산 · 분석 · 서비스 ⑨ 조사 · 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등이다.

6) 세종학당재단

세종학당재단은 한국어 · 한국문화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총괄 · 관리하기 위해 「국어기본법」 제19조의 2에 근거하여 2012년 10월 설립된 기관이다. 세종학당이 체계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 및 지원하고, 한국어 기본 교육과정 및 표준 교재 보급, 한국어 전문 교원 파견 및 현지 교원 재교육,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온라인 학습 누리집('누리-세종학당' 및 '온라인 세종학당') 개발 및 운영, 한국어교육자 및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 한국문화교육 및 각종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라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15년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동법 제10조에 따라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 · 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 · 연구,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 운영,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술계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을 비롯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8)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1996년 3월에 설립(출범 당시 기관명은 전국문예회관연합회였으며, 2010년 5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 명칭 변경)된 이후, 「문화예술법」 제38조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2012년 8월 특수법인화 되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지원 사업, 문화예술회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사업, 문화예술회관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및 홍보,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 사업, 문화예술회관 관련 국 · 내외 교류 사업,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9)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2012년 7월 27일 설립하였다. 과거 간행물의 심의 등 규제 중심이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국내외 출판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출판문화산업 진흥 ·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 ·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 기관의 직무는 ①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 · 조사 · 기획, ②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③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④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⑤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 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⑥ 전자출판 및 출판 미래성장 동력의 육성 · 지원, ⑦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⑧ 출판문화산업의 국외 진출 지원 등이다. 한편, 간행물의 유통질서 건전화 및 윤리적 · 사회적 책임구현을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간행물윤리위원회'를 부설하여 간행물 유해성 심의 업무를 계속하고 있으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문정신문화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2017년 1월 25일)되어 전문 인력을 발굴 · 육성하고 관련 연구 활동 지원 및 대외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0) 아시아 문화원

아시아문화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근거해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관련 홍보 · 교육 · 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 ·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10월 1일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아시아문화 관련 홍보, 교육, 연구, 콘텐츠 창 · 제작, 유통에 집중하기 위하여 중장기 콘텐츠 육성하고 창 · 제작 중심의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입지를 확보하고자 한다.

3. 민법상 법인형식의 정부재정지원 문화예술기관

1) 국립극단

국립극단은 1950년 설립(국립극장 전속단체), 2010년 6월 독립법인으로 전환한 국가 대표 극단으로 '서계동 문화공간(백성희장민호극장, 소극장 판)'과 '명동예술극장' 등을 주된 활동공간으로 하며 연극작품의 창작과 인재양성을 통하여 연극예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연극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극작품의 창작과 공연, 연극예술 발전을 위한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 연극작품의 보급 및 관객개발, 연극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국립발레단

국립발레단은 1962년 1월 설립, 1999년 12월 30일 독립법인으로 전환한 국가 대표 발레단으로 서울 예술의전당에 상주하고 있고, 발레공연을 통한 온 국민 문화예술향유의 기회 확대 및 문화소외지역 해소를 위하여 정기공연 및 지역순회공연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여 발레를 통한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공연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발레예술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발레예술영재 지원 사업 및 발레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

3) 국립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은 1962년 1월 설립, 1999년 12월 30일 독립법인으로 전환한 국가 대표 오페라단으로 예술의전당을 주된 활동공간으로 하며 오페라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정기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 개최, 오페라 공연의 국내외 교류사업, 오페라 공연 발전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교육사업, 오페라 아카데미 운영, 오페라 영재 발굴지원 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4) 국립합창단

국립합창단은 1973년 5월 설립, 1999년 12월 30일 독립법인으로 전환한 국가대표합창단으로 예술의전당을 주된 활동공간으로 하며 합창음악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정기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개최, 합창음악공연의 국내외 교류사업, 합창학교 운영, 성악 예술영재 발굴지원 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5)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현대무용단은 2010년에 창단한 국내 유일의 국립 현대무용단체이다. 창작역량을 지닌 최고의 예술가들과 함께 춤을 통해 동시대의 역사와 사회,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역과 세대를 아울러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한국적 컨템퍼러리 댄스를 지향한다.

국립현대무용단은 '관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예술가들과 함께 만드는 재미있는 현대무용'이라는 비전 아래 예술성 · 대중성 · 국제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창작역량 강화, 관객저변 확대,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 활동으로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춘 신규 무용작품 개발, 지속가능한 무용 레퍼토리 개발 및 보급, 현대무용 다양성 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대무용의 건강한 창작 생태계 조성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전국민의 현대무용 향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순회공연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 관객개발 프로그램인 〈오픈-업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무용이 표방하는 가치의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6) 정동극장

정동극장은 1995년 6월 17일 설립되었으며, 1997년 1월 1일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공익법인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동극장은 무대예술작품 제작 · 공연 등 공연예술진흥사업,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 발전사업, 문화예술의 국내 · 외 교류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목적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공연장 관리운영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7) 서울예술단

서울예술단은 1985년 남북 예술단 교환 공연 후 남북 간 문화 동질성 회복과 문화예술 교류, 국가적 주요행사를 위한 대형 종합예술단체 육성의 필요에 의해 1986년 8월 1일 '88서울예술단'으로 창단되었으며 1990년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서울예술단'으로 독립하였다.

서울예술단은 한국적 음악극이라 할 수 있는 '가무극'이라는 공연양식을 통해 한국적 소재와 양식을 기반으로 현대적이고 완성도 높은 창작 공연을 제작하고 있고,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사절의 역할 수행과 지역공연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수에 힘쓰고 있으며, 교육사업 및 각종 창작 작업을 통해 공연예술 인력양성 사업을 주요 업무로 한다.

8)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예술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2006년 1월 12일에 설립되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주요기능 및 역할은 예술 유통구조의 체계화 및 활성화 지원, 예술기관 운영 및 경영 관련 컨설팅, 예술기관 경영인력 양성 및 지원, 예술분야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국내외 예술시장정보의 구축 · 관리 · 활용, 서울아트마켓 개최 및 운영, 기타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간접 매개지원 사업 등이다.

9)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85년 3월 설립, 2001년 2월 8일 독립법인으로 전환한 국내 대표적 교향악단으로 예술의전당을 주된 활동공간으로 하며 교향악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정기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개최, 교향악의 국내외 교류 사업, 예술의전당 기획 공연, 국립예술단체 공연전담, 교향악 예술영재 발굴지원 사업 등을 주요업무로 한다.

10) 국악방송

국악 FM방송은 한국전통문화예술 중흥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국악인구의 저변확대와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2001년 3월 개국하였다. 수도권 일원에만 송신되던 국악방송의 전국화를 위하여 중계소 증설을 추진하여, 현재 서울 · 경기와 부산, 대구, 전주, 경주 · 포항, 강릉, 목포 · 진도, 남원, 제주, 서귀포로 청취권역이 확대되었고, 2018년 11월에는 충북 충주 및 영동 권역에 대한 방송 허가권을 확보하였다. 또한 2014년 최초의 지역방송국인 광주국악방송국을 개국한데 이어, 2017년에는 두 번째 지역방송국인 대전국악방송을 개국하였다. 국고지원을 통해 2007년 2월에는 방송국이 최첨단 방송설비를 갖춘 서울 상암동으로 이전하였다. 국악방송은 유일한 한국전통문화예술 전문방송으로 국악과 관련된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개발, 방송함으로써 한국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대중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11)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2007년 2월 1일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국악문화재단으로 시작,

2009년 5월 28일 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전통공연예술 민간부문 활성화의 거점을 비전으로 전통공연예술 민간부문 경쟁력 강화와 수요 발굴 ·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 전통공연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 전통공연예술의 인력양성 및 연수사업, 전통공연예술의 창작활동 활성화 지원 등 전통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12)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은 2000년 4월 공예산업의 육성 · 진흥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06년 우수공예품의 유통 ·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예종합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09년 공예 관련 전문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공예정보센터'를 설립 · 운영하였다. 2010년 4월 공예와 디자인을 통한 공예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두 분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설립된 '한국디자인문화재단'과 통합, 현재의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KCDF)'의 체제를 갖추고 같은 해 10월 'KCDF갤러리'를 리뉴얼 개관하였다. 2011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6조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1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구 서울역사(사적 제284호)를 관리위탁을 받아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 284'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12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9년 4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다.

13)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문화유산의 보존 · 계승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2004년)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민의 삶에 박물관 문화가 자리할 수 있도록 '박물관 복합문화공간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공연 · 문화상품 · 전시운영 · 교육 · 출판사업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내 '극장 용'(805석)을 운영함으로써, 박물관 전시와 연계한 '전시 연계 공연'을 기획 · 제작 · 상연함은 물론, 우수한 공연 콘텐츠를 발굴 · 보급하는 '박물관 문화향연(행사)'을 추진하고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특별 · 기획전시와 연계한 상품 및 전국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주요 문화유산을 토대로 우수한 박물관 문화상품을 발굴 · 제작하여 국립 박물관 및 국회 등의 문화상품점(총 12곳, 16개) 및 온라인 상품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박물관 내 32개의 식음료매장 및 편의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립박물관의 특별 · 기획전시 운영 지원(2016년~), 국립중앙박물관 내 전시 도록 · 학술서적 등 박물관 전문서적을 만나볼 수 있는 '박물관 서점' 운영(2018년~) 및 첫 자체

기획도서 출간(2019년) 등 점차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14)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은 2002년 12월에 설립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문화 관련 공공기관의 문화정보화 촉진과 문화정보의 지식화를 위하여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창의적 지식정보사회 기반 구축 및 문화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화 추진체계 지원, 문화정보화 중장기 연구 개발 및 사업 기획, 문화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지원, 문화PD 양성 및 콘텐츠 관리,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신탁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포털(www.culture.go.kr)', '문화N티켓(www.culture.go.kr/ticket/main)', '전통문화포털(www.kculture.or.kr)', '공공누리 포털(www.kogl.or.kr)' 등 국민편익 중심의 문화정보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자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문화비(도서 및 공연) 소득공제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 있다.

특히 문화 분야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 · 연계한 문화데이터는 '문화데이터광장(www.culture.go.kr/data)'을 통해 민간 기업이 즉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 신규 서비스 창출 등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인 인공지능(AI) 및 로봇기술을 적용한 문화정보 큐레이팅봇(큐아이)를 박물관 및 도서관 등에 설치하여 새로운 문화향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화정보자원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전환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이버안전센터 전담운영으로 24시간 보안관제를 실시하여 유관기관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5)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03년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으로 시작하여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2006년),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09년)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한류 조사연구와 문화교류 정책사업을 추진해왔다. 2018년 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12조)에 근거한 국제문화교류 진흥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며, 순수예술부터 대중문화콘텐츠까지 다양한 문화 분야에 걸쳐 국제문화교류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 국내외 다양한 주체 간 국제문화교류 사업 협력을 매개하고, 국가 간 문화교류 관계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정보시스템운영, 해외문화동향조사, 전문인력양성 등 국제문화교류 특화 정보제공 및 인적자원 육성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제3절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부문 법령

1. 법령체계

문화 관련 법령 중 문화예술과 관련한 법령의 주요 목적은 첫째, 국민 모두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며 둘째,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각종 문화예술 시설과 프로그램의 확충을 통해 문화예술 창작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셋째로 거점별 창의적인 문화 환경 조성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마지막으로 세계와 교류하는 한국문화예술을 키워나가고자 함이다.

이러한 법령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이고 문화 창조력 증진을 통하여 문화예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1) 문화기본법

「문화기본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는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인 '문화권'을 말한다. 이러한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정책 수립 · 시행상의 기본원칙',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문화 인력 양성', '문화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와 개발',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문화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법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2) 문화예술 관련 법제

문화예술 관련 법제는 우리 문화의 보존 · 계승 · 발전과 음악 · 무용 · 연극 · 연예 · 국악 · 곡예 등 문화예술 활동과 인류 · 역사 · 민속 · 예술 등에 관한 자료를 전시 · 보존하는 박물관 · 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에 관한 법률, 그리고 종교단체에 속하는 문화유산인 전통사찰과 향교재산에 관한 사항과 국가적 · 세계적 유산가치가 있는 유 · 무형의 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시설 등 문화에 관한 법률로는 ① 음악 · 무용 · 연극 · 연예 · 국악 ·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공중에게 관람하게 하는 공연활동과 공연장의 설치 · 운영 및 무대예술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연법」, ② 문화예술공간설치, 문화예술복지증진,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문화예술기관 운영 체계 등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③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 및 그들의 창작활동을 우대 ·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대한민국예술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예술원법」, ④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 · 예술 ·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⑤ 지역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설립 ·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진흥법」, ⑥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법」, ⑦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⑧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보전과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국어기본법」, ⑨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⑩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 · 창조 · 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적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⑪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문화진흥법」, ⑫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예술인 복지법」, ⑬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향상하고자 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⑭ 지역문화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⑮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⑯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⑰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⑱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한 「공예문화산업진흥법」, ⑲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⑳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수화언어법」, ㉑ 점자 및 점자 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자법」, ㉒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㉓ 공공기관이 조성 ·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의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 향교재산에 관한 법률로는 ① 문화재 보존 및 문화의 계승을 위한 문화재의 지정 · 관리 · 보호 · 공개 · 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② 문화적 보고로 인정받고 있는 고도(古都)의 역사 · 문화적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 ·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도(古都)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③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 · 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국민신탁 및 자연환경 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④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 ·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재보호기금법」, ⑤ 문화재수리 · 실측설계 · 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⑥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 · 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 · 조사 및 관리하기 위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⑦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 발전과 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⑧ 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하고자 하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⑨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향교재산법」 등이 있다.

2. 2019년도 주요 법령정비 성과

1) 예술인 복지법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서면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사권 및 시정명령권을 신설하였다(12월 3일 공포).

3. 법령별 주요내용

1) 공연법

「공연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61년에 제정되었으며 총 제8장 4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해 공연장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공연장 설치 ·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공연장 설치 시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 등록 전 안전검사 ·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공연의 공공성 및 윤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소자 유해 공연물 확인,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의 일환으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동 법률은 공연장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위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 및 그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향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연장을 건립할 경우 공연장의 건립 목적 · 운영인력 · 공연 프로그램 운영 및 재정 확보계획 등을 포함하는 건립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공연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 지역 공연장의 양적,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2)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2년에 제정되었다. 동 법은 총 제6장 4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 공간 설치 및 전문인력 양성, 전문예술법인 · 단체의 지정 · 육성, 문화지구의 지정 · 관리,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의 날 설정 및 문화강좌 설치,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도서나 문화예술 재화 · 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 인증제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문화이용권 지급 및 관리 등 문화예술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용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동 법에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설립 및 사업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4년에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종합적 ·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내용의 일부가 개정 · 시행(2014년 7월 29일)되었는데, 이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문화지구의 지정 · 관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항이 정비되었다.

2016년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를 개정하여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7년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를 개정하여 문화시설의 종류에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 · 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을 추가하여 문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8년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를 개정하여 문화이용권의 정의를 여행 및 체육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는 광의의 문화이용권으로 변경하여, 문화 · 여행 · 스포츠관람이용권을 일원화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3) 대한민국예술원법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 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 ·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제정되었다. 동 법률은 총 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술원의 기능, 조직, 회원의 자격과 선출, 예술 창작활동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1996년 예술원 회원의 수를 75인에서 100인으로 증원하였고, 2005년 학벌주의 조장의 우려가 있는 회원 자격 규정 및 2019년 회원으로서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감 부여를 위한 결격사유 명시, 회원 임기 규정을 개정하였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 · 예술 ·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에 제정되었다. 동법은 총 9장 3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사항과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의 등록, 관리운영, 지도 ·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에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 · 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국 · 공 ·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 · 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 · 시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국 ·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과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 ·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동 법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 등 동 법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 · 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써 박물관 · 미술관 협력망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 자료의 교환과 업무협조, 관리 · 운영 등에 관한 연구, 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과의 교류,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의 법인 설립을 허가를 규정함은 물론, 문화유산의 보존 · 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5)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의 설립 ·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 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4년에 제정되었다. 동 법은 총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문화원의 설립, 설립인가 기준, 기준 시설, 임원,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을 지원 · 육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의 정치나 종교 활동에 대한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한편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도서관법

1963년에 제정되어 한 차례의 제명이 변경(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된 바 있으나, 동 법의 성격이 도서관에 관한 기본법임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2006년 10월 4일 제명을 「도서관법」으로 다시 변경하고, 독서진흥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다.

「도서관법」은 총 9장 4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 법은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로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과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사항과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종류별 도서관의 설치 및 등록, 운영 및 지원, 지도 · 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책무 및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의 수립과 시행해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 ·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 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되고 2017년 12월 개정되어 총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그 유족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도록 하였고, 유족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을 설립(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등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념관 · 기념탑 · 기념공원 등의 건립 및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 연구 및 교류, 유적지의 정비,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국어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고,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국어심의회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 · 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국가에 대해서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외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였으며,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어기본법」 제정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국민들이 깊이 인식하게 하고, 국어의 발전과 국제적 보급 및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9)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에 제정되었다. 동 법률은 총 5장 34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관련 용어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경제적 여건,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의 설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 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교육시설 및 단체의 운영 실태 평가,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문체부 장관의 종합계획 수립, 지자체의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 장비, 문화예술교육사 ·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근거와 관련 기관과의 연계 · 활용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설 및 단체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동 법률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자격제도를 규정하고, 문화시설 등 국공립 교육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 · 창조 · 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에 제정되었다. 동 법률은 총 9장 5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동 법률에서는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광주광역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 · 교육 · 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광역시에 설립 ·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독서문화진흥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되고 독서진흥 관련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2006년 12월 28일 「독서문화진흥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 5장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지역 · 학교 · 직장의 독서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시키고 독서의 생활화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 · 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정부는 매년 독서진흥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예술인복지법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및 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17일에 제정되었으며 총 6장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인복지법에서는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만화)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표준계약서의 보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을 두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동 법에 따른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술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및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 · 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등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13) 작은도서관진흥법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2년에 제정되었다. 총 제3장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비롯하여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작은도서관 설치 · 운영,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 육성, 국유 · 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 · 관 협력활동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및 전문인력 육성, 지역주민의 참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14) 지역문화진흥법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에 제정되었다. 동 법은 총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시설의 지원,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정 · 지원,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도시 · 문화지구의 지정 · 지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 시행으로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자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문화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지역 간 문화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5)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시행으로 민간의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동 법률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및 육성 · 지원,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감면 근거, 문화예술후원자의 포상,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거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하여 문화예술후원자와 예술단체 간 후원활동을 매개하고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도 법령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게 되었다.

역량 있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와 모범적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민간의 문화예술후원 활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6)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유네스코에서 2005년에 채택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에 우리나라가 110번째 비준 국가가 되고 2010년 7월, 국내에 동 협약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국내 이행법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 법률은 국내 인구구성의 변화, 세대, 지역, 문화적 삶의 양식 등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국내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의 추진 근거가 된다.

총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다양성의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 문화다양성 실태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의 작성, 문화다양성 위원회의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및 문화다양성 교육 등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7)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의 유지 및 국민 전체의 행복수준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전체의 사회적 생산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2015년에 제정되었다. 여가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여가프로그램 및 여가정보를 개발 · 수집 · 보급하며, 장애인 · 노인 ·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비지원,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 및 연구, 여가산업의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여가 활성화를 통해, 일과 여가가

균형을 이루어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전체의 행복수준과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8) 공예문화산업진흥법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제정되었다. 동 법은 총 2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 운영, 실태조사, 창업 및 제작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기반시설 확충, 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우수공예품의 지정,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공예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정 · 시행을 통해 문화적 결정체이자 총체적인 문화 장르로서의 공예를 공예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전통과 현대, 예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문화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예의 가치 확산을 통하여 품격 높은 일상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생활 속의 예술을 실현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19)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소관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인문학법)이 2016년 2월 제정되었다. 동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 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 ·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인문학이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과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총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인문진흥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연구활동 지원, 인문교육의 실시, 전문인력의 양성 · 활용,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국내외 교류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018년 12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20) 한국수화언어법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2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한국수어가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5년마다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 한국수어 연구 및 한국수어 교육, 한국수어 정보화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한국수어교원 양성,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한국수어 능력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고 한국수어를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1) 점자법

「점자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5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선언하였다. 아울러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점자발전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점자에 관련된 실태 조사, 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점자 교육 및 보급, 점자문화의 확산, 점자정보화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22)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국제문화 교류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7년에 제정되었다. 동 법은 총 1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국제문화교류진흥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 운영,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지정, 국제문화교류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8년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2조를 개정하여 그동안 문화, 예술, 관광 분야로만 한정했던 국제문화교류의 정의에 「스포츠산업 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킴으로써 체육 분야 역시 중요한 국제문화교류 활동임을 명확히 하였다.

2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6년에 제정되었다.

또한 공공디자인에 대해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조성 · 제작 · 설치 ·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로 정의하고, 이러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내용을 총 23조와 부칙으로써 나누어 다루고 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공공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용역,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 배치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동 법의 시행을 통해 중앙부처는 물론 그간 모법 없이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을 추진해 온 지자체, 디자인 · 건축 ·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들은 문화로서의 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한 법 · 제도적 틀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법을 근거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정책을 다루는 중앙 부처간, 중앙과 지방정부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으며, 17개 시 · 도 및 226개 시 · 군 · 구의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공공디자인 정책의 중기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시행을 통해 중앙부처는 물론 그간 모법 없이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을 추진해 온 지자체, 디자인 · 건축 ·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들은 문화로서의 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한 법 · 제도적 틀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과 함께 우리 일상의 삶의 공간을 바꾸고 공공영역에 공공성과 심미성을 불어넣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4절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1. 문화분야 국가재정 운용계획 및 방향(2019~2022년)

문화 · 체육 · 관광분야는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문화예술 환경 조성,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산업 육성, 생활체육 참여 여건 조성과 스포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외래 관광객 유치 등에 재정을 투입하여 국민행복 증진, 국가 이미지 향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2019년 중앙정부 문화재정

1)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정

지난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예산+기금)은 2015년 4조 9,959억 원에서 2019년 5조 9,233억 원으로 연평균 4.3% 증가했다. 이 중 예산은 2015년 2조 5,546억 원에서 2019년 3조 2,902억 원으로 6.5%, 기금은 2015년 2조 4,413억 원에서 2019년 2조 6,330억 원으로 1.9% 증가했다.

2019년 재정의 세부내용을 보면, 문화예술부문은 2015년도에 비해 5,028억 원(36.4%) 증가한 1조 8,853억 원이며,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에 기인했다.

2019년도 콘텐츠부문 재정은 8,292억 원으로 2015년도에 비해 2,185억 원(35.8%) 증가했는데, 이는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기인했다.

2019년도 관광부문 재정은 1조 4,140억 원으로 2015년도에 비해 421억 원(3.1%) 증가했는데, 이는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지원, 외래 관광객 유치 촉진 등에 기인했다.

2019년도 체육부문 재정은 1조 4,647억 원으로 2015년도에 비해 1,106억 원(8.2%) 증가했는데, 이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스포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추진에 기인했다.

표 2-4-1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부문별 재정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증가율
합계(지출규모)	49,959	54,948	56,971	52,578	59,233	4.3
예 산	25,546	27,698	29,055	28,693	32,903	6.5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증가율
기 금	24,413	27,250	27,916	23,885	26,330	1.9
문화체육관광부소관	49,959	54,948	56,971	52,578	59,233	4.3
문화예술부문*	13,824	15,069	16,092	16,387	18,851	8.1
콘텐츠	6,107	7,492	7,296	7,140	8,292	7.9
관광부문	13,719	14,111	15,538	14,021	14,140	0.8
체육부문	13,541	15,386	15,021	11,850	14,647	2.0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2,768	2,890	3,024	3,180	3,303	4.5

※ 문화관광분야에서 문화재청 및 방송위원회 제외,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제외

* 문화예술부문은 문화정책, 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종무, 홍보, 국립문화예술기관을 포괄함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에 따라 국민 여가 향유권 확대, 생활체육 활성화 등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 패럴림픽 등 대규모 사업의 종료로 인해 정부예산대비 점유율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2019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표 2-4-2 정부재정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점유율 변화

(단위: 억 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증가율
점유율(A/B)	1.33	1.42	1.42	1.23	1.26	△1.3
문화체육관광부 재정(A)	49,959	54,948	56,971	52,578	59,233	4.3
정부재정(B)	3,754,000	3,864,000	4,005,459	4,288,000	4,696,000	5.8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지출규모 기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제외

※ 재정기준: 예산+기금

2) 2019년 국립문화예술기관 재정

국민의 소득 수준이 증대됨에 따라 수요가 가장 크게 증대되고 있는 분야는 문화예술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의 문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자체의 문화관련 정책 수행역량 강화 및 국립문화예술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각 기관들의 2019년도 예산은 다음과 같다.

표 2-4-3 국립 문화예술기관 재정 현황

(단위: 백만 원)

기관명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증감	%
합 계	560,339	603,719	668,167	64,448	10.7%
1. 예술원사무국	3,251	3,156	3,067	△89	△2.8%
2. 한국예술종합학교	33,964	33,969	39,744	5,775	17.0%
3. 국립중앙박물관	108,935	116,816	134,808	17,992	15.4%
4. 국립국어원	12,303	13,306	32,303	18,997	142.8%
5. 국립중앙도서관	72,241	74,579	74,245	△334	△0.4%
6. 해외문화홍보원	105,088	94,200	124,917	30,717	32.6%
7. 국립중앙극장	31,515	52,470	58,467	5,997	11.4%
8. 국립현대미술관	61,860	75,202	52,012	△23,190	△30.8%
9. 국립국악원	59,017	57,733	65,278	7,545	13.1%
10. 국립민속박물관	18,910	28,986	26,446	△2,540	△8.8%
1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2,545	11,842	15,241	3,399	28.7%
12. 한국정책방송원	19,697	21,032	21,167	135	0.6%
13. 국립한글박물관	12,838	12,220	11,180	△1,040	△8.5%
14. 국립국악중고	3,429	3,488	3,883	395	11.3%
15. 국립전통예술중고	4,746	4,720	5,409	689	14.6%

3. 문화예술진흥기금

1) 설치근거 및 배경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재원으로서, 1972년 8월 14일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2337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진흥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 · 보호 · 육성하여야 할 의무조항의 설정과 문예 진흥의 추진 주체가 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연장 등을 통한 문예진흥기금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3년 10월 11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 · 운영하고, 기금사업을 추진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정식 개원되었으며, 2005년 8월 2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개원 이전인 1973년 6월 22일 문화공보부장관의

모금승인을 받아 같은 해 7월 22일부터 전국 627개 극장에서 모금을 시작하여 1975년 고궁, 1976년 박물관, 1983년 능 · 사적지 · 미술관, 1994년 국가지정문화재로 모금 대상처를 계속 확대시켜 왔으나, 정부의 준조세정비 방침에 따라 2001년 12월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04년 1월 1일부터 기금 모금이 중단되었다.

2) 기금개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가 운용, 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을 위해 조성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에 의한 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존 · 계승 및 발전, 남북 문화예술 교류, 국제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인의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창작과 보급,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등을 위해 사용된다.

기금 사업 추진을 위해 제정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관을 보면, 문화예술의 창작, 매개, 향수와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정책연구 · 개발 및 교육 · 연수 사업이나 활동,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지방문화예술위원회와 재단법인과의 협의 · 조정,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 교류 사업이나 활동,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문화예술 재원의 확충 및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이나 활동 등을 명시하고 있다.

3) 기금조성

지금까지 축적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 운용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문예진흥기금 설치 이후, 그 동안(1973년 7월~2019년 12월) 모금한 총액 4,186억 원과 공익자금, 국고출연금, 복권기금 등 전체 3조 5,96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3조 3,530억 원을 문예진흥사업에 사용하였고, 자산평가에 의한 조정 등 826억 원이 차감되어 2019년 12월 말 기준 약 1,604억 원을 적립하였다.

기금 조성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설립 초기부터 지속된 모금이었다. 문예진흥기금은 1973년 7월부터 극장, 공연장, 고궁, 능, 박물관, 사적지, 미술관 등의 관람료에 일정비율의 기금을 부가하여 2003년까지 모금하였으며,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2004년 모금이 폐지되었다. 문예진흥기금 조성액은 모금, 국고, 공익자금, 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금과 이자수입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모금이 폐지되면서, 조성액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복권기금 등 타기금의 전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은 국고 출연금인데 정부에서는 1989년부터 국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출연하였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재원별 조성실적을 보면 국고 출연금이 3,152억 원, 공익자금 1,673억 원, 복권기금 8,126억 원, 체육기금 2,500억 원, 관광기금 2,000억 원, 경륜경정수익전입금 1,962억 원이 지원되었다. 공익자금은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광고 수수료 중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한 것이고, 복권기금과 경륜경정수익전입금은 2004년 모금폐지 이후 대체재원으로 전입된 사업자금이며, 체육기금과 관광기금은 문예기금 고갈 완화를 위해 2016년부터 전입되었다. 이 밖에도 개인 및 기업의 기부금 등의 기타재원도 있다.

표 2-4-4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별 조성실적

(단위: 백만 원, %)

구분	1973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비율
모금	418,463	70	27	–	–	31	–	–	–	5	–	–	–	–	–	418,596	11.6
국고	184,722	–	–	–	–	–	–	–	–	–	30,500	–	–	50,000	50,000	315,222	8.8
방송발전기금	167,290	–	–	–	–	–	–	–	–	–	–	–	–	–	–	167,290	4.6
복권기금	94,990	53,770	48,527	19,800	21,800	23,700	48,000	57,400	58,121	61,300	63,121	37,199	37,199	82,103	105,561	812,591	22.6
체육기금	–	–	–	–	–	–	–	–	–	–	–	50,000	50,000	50,000	100,000	250,000	7.0
관광기금	–	–	–	–	–	–	–	–	–	–	–	50,000	50,000	50,000	50,000	200,000	5.6
경륜경정수익전입	–	–	–	–	–	24,264	25,387	27,712	21,102	15,882	12,018	20,655	21,717	16,775	10,693	196,205	5.5
민간출연금	21,124	9,057	7,854	10,542	10,403	13,497	14,275	14,725	19,454	21,630	26,905	20,709	22,453	23,176	30,663	266,467	7.4
이자	471,199	25,972	34,201	25,922	17,306	20,069	14,402	10,793	6,836	6,947	4,795	2,696	3,021	1,225	3,438	648,822	18.0
기타	113,686	9,540	7,959	8,642	8,315	6,554	6,483	6,080	32,655	13,754	31,168	34,086	12,327	12,991	16,610	320,850	8.9
계	1,471,474	98,409	98,568	64,906	57,824	88,115	108,547	116,710	138,168	119,518	168,507	215,345	196,717	286,270	366,965	3,596,043	100.0

※ 기타 내역: 설립출연금, 올림픽잉여금(100억 원), 건물대여료, 기타경상이전수입, 골프장수입금, 입장료수입, 잡수입, 융자금회수 등

표 2-4-5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1973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조성액	1,471,474	98,409	98,568	64,906	57,824	88,115	108,547	116,710	138,168	119,518	168,507	215,345	196,717	286,270	366,965
운용액	978,560	136,536	119,742	89,438	92,968	163,254	144,273	127,535	150,911	204,330	212,160	245,033	223,514	248,778	298,607

4) 적립 및 지원 현황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액은 국고와 공익자금이 적립금 조성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왔다. 이는 모금수입 및 이자수입 등 기금 자체 수입이 매년 수행되는 지원 사업비로 집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고와 공익자금의 출연은 기금 자체를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명실상부한 종자금(種子金)으로서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재원이 되었으며, 2004년 1월 1일 모금폐지와 지원 사업비의 증가로 인해 2005년부터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적립금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에 국고 500억 원을 출연하였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액은 2019년 말 기준 약 1,604억 원이다. 적립 재원별로는 복권기금이 8,126억 원(22.6%), 국고출연금이 3,152억 원(8.8%), 공익자금(방송발전기금)이 1,673억 원(4.6%)으로 복권기금과 국고, 공익자금이 적립금 조원재성의 일정 부분(36.0%)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연도별 적립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4-6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실적

(단위: 백만 원, %)

연도 구분	1973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비율	비고
수입(A)																		
국고 출연	184,722	-	-	-	-	-	-	-	-	-	30,500	-	-	50,000	50,000	315,222	8.8	'15년 추경
공익 자금	167,290	-	-	-	-	-	-	-	-	-	-	-	-	-	-	167,290	4.7	방송 발전기금
복권 기금	94,990	53,770	48,527	19,800	21,800	23,700	48,000	57,400	58,121	61,300	63,121	37,199	37,199	82,103	105,561	812,591	22.6	
기타	1,024,472	44,639	50,041	45,106	36,024	64,415	60,547	59,310	80,047	58,218	74,886	178,146	159,518	154,167	211,404	2,300,940	64.0	
계	1,471,474	98,409	98,568	64,906	57,824	88,115	108,547	116,710	138,168	119,518	168,507	215,345	196,717	286,270	366,965	3,596,043	100.0	
지출(B)																		
계	978,560	136,536	119,742	89,438	92,968	145,860	161,667	127,535	150,911	204,330	212,160	245,033	223,514	248,778	298,607	3,435,639	-	
적립금액(A–B)																		
계	492,914	△38,127	△21,174	△24,532	△35,144	△57,745	△53,120	△10,825	△12,743	△84,812	△43,653	△29,688	△26,797	37,492	68,358	160,404	-	-

2019 Culture & Arts Policy White Paper

3 장

문화정책

제1절 문화정책일반
제2절 국어정책
제3절 전통문화정책
제4절 국제문화정책

03 문화정책

제1절 문화정책일반

1. 기본 방향 및 정책목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5세대(5G) 등 기술발전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의 도래와 급격한 고령화, 출산율 저하,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이에 따른 국민의 삶의 양식과 문화향유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18.7)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로 문화 수요는 점점 증대하고 있으며 밀레니얼 세대의 부상과 1인 가구 증가로 문화 활동 참여와 체험방식이 다양화 되는 등 경제적 환경 및 사회문화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따른 문화정책의 대응 방향도 진화하고 있다.

다양한 취향에 바탕을 둔 문화 활동 참여수요가 증가하여 지역 · 계층 ·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현 정부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국민 누구나 배제되지 않고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 및 환경을 조성화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주요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통합문화이용권, 소외계층 문화순회 및 방방곡곡 문화공감 등 다양한 '문화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의 기초문화생활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다양한 문화주체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에 대한 가치 확산을 위해 문화 간 상호 교류 및 소통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와 캠페인, 문화예술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 간 위원국으로서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기위해 국제포럼을 개최('19.4.18) 하는 등 아 · 태지역 및 한국적 맥락에서 협약의 이행현황과 과제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셋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1](2016년 8월 4일 시행)에 따라

1] 동 법률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법정계획이자 범정부 종합계획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17~'21)」을 수립 · 시행하는 등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또한 인문정신문화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9~2023),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7~2021), 문학진흥기본계획(2017~2021) 등과 연계하여 관계 부처 ·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유도하였다.

넷째, 문화기본법에 의거 추진되는 문화영향평가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및 정책에 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의 문화화'를 위한 토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문화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의 개선방안을 맞춤형으로 제시하고, 문화적 요소와의 효과적 결합에 필요한 전문적 컨설팅을 통해 타 분야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제고하였다.

다섯째, 국민의 문화 활동 향유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국민의 문화향유 경로와 방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구 문화향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섯째,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성평등 문화시상식 및 양성평등주간(7월 1일~7월7일) 행사 등 다양한 성평등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문화예술계 성희롱 ·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분야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분야별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예술인 대상 현장맞춤형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등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던 도서구입, 공연관람비 소득공제에 이어 2019년 7월 1일부터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까지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생활 향수에 대해 더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1) 정책현황 및 추진성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행복을 배려하는 문화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04년부터 복권기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에 투입하여 문화이용권, 소외계층 문화순회 등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나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외계층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면서 2008년부터 관련 사업들의 통합 명칭으로 '문화 나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문화 나눔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통합문화이용권, 신나는여술여행),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방방곡곡

문화공감) 등 다양한 시행주체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2019년도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에서 30개 공익사업 중 '우수' 등급(1위)을 받았다.

표 3-1-1 문화 나눔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지원내용
통합문화이용권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 여행 · 체육 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문화예술 · 여행 · 체육 분야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 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신나는예술여행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	예술단체의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 대상 문화예술 순회프로그램 개최 경비 지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문화소외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 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소외 지역민 대상 공연행사 개최 경비 지원 및 소외계층 의무 초청 비율 적용(30%)

문화 나눔 사업과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복지 사업은 경제적 · 사회적 ·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문화예술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의하면 문화예술 관람률은 전체 평균이 0.3%p 증가함에 비해, 100만 원 미만 계층은 9.2%p가 증가하여 전체 평균보다 그 증가폭이 높게 나타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의 문화 향수권이 신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1-2 소득 계층별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2018~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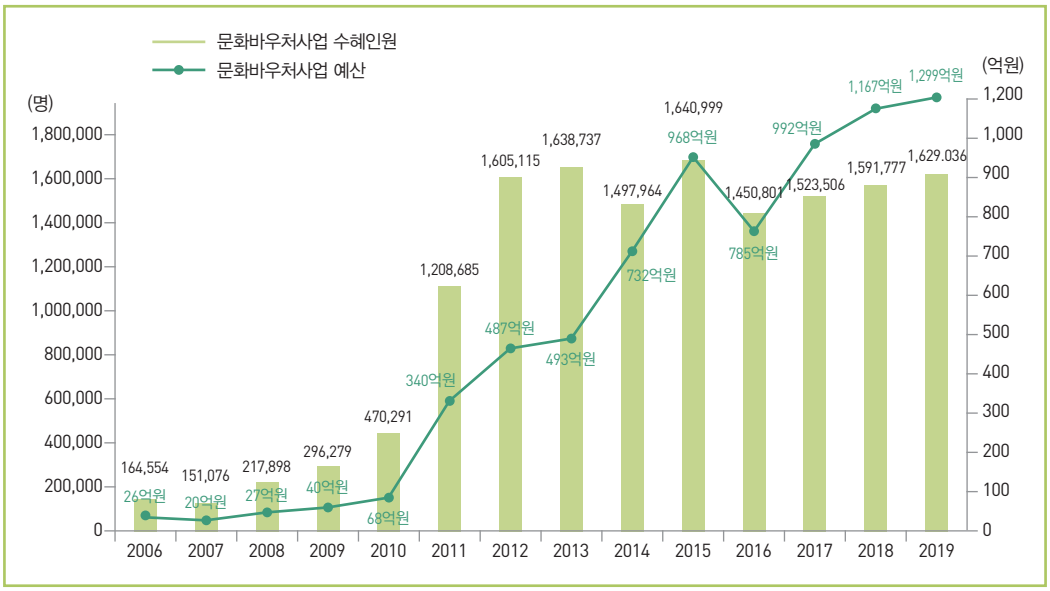
구분		2018년	2019년
전체 평균		81.5	81.8
가구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42.5	51.7
	100~200만원 미만	58.4	60.4
	200~300만원 미만	75.9	76.5
	300~400만원 미만	81.4	82.5
	400~500만원 미만	88.1	89.3
	500~600만원 미만	91.6	92.1
	600만원 이상	91.9	92.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문화향수 실태조사,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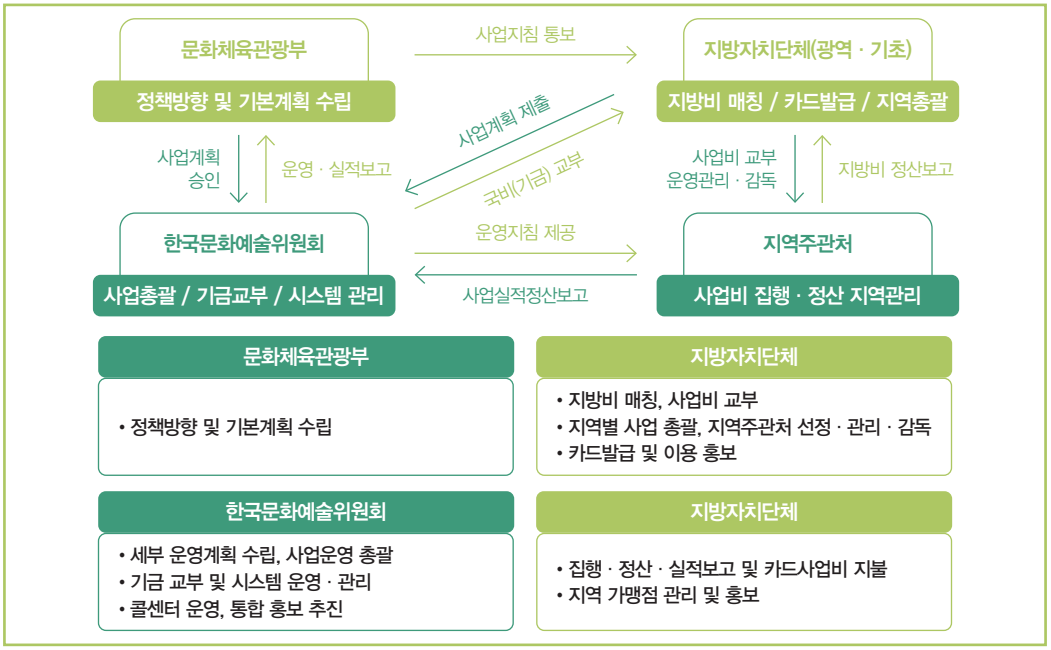
2005년 국고 4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바우처 시범 운영 이후, 2006년 26억 원(기금 20억 원, 국고 6억 원)에서 2011년 340억 원(기금 245억 원, 지방비 95억 원) 2014년 732억 원(기금 518억 원, 지방비 214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예산은 총 1,299억 원(문예기금 915억 원, 지방비 384억 원)이다.

그림 3-1-1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 및 수혜인원 현황



문화예술 분야의 유일한 바우처 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전용 이용권(문화누리카드) 형식으로 문화예술, 여행, 및 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이용자의 자발적인 문화 향유 욕구를 끌어내고, 스스로 이를 충족함으로써 정서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사업이다.

그림 3-1-2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체계도



당초 포인트제로 운영하던 문화바우처에서 2011년 카드제 도입 이후 2012년에는 선기명식에서 후기명식으로 전환하고, 전국 주민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3년에는 사업명을 순화(문화바우처 → 문화이용권/ *외래어 순화 및 문예진흥법 상 법정 용어 적용)하였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대상자 자격검증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세대 검증시스템과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발급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중앙정부(문화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방자치단체–지역주관처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지역별 차이를 감안하여 지자체 및 지역주관처의 역할을 강화하였다(기획사업 등). 공연장, 영화관, 서점 등 공공 · 민간 협력을 통한 할인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영화 · 음악, e–book, 중고도서 등 문화카드 사용범위를 확대하였다.

2014년에는 문화 · 여행 · 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일원화 한 통합문화이용권을 도입하여 분야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국민 공모를 통해 대외명칭을 '문화카드'에서 '문화누리카드'로 변경하였다. 통합문화이용권 도입을 계기로 가구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문화 경험이 중요한 계층인 청소년의 이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청소년 추가발급 연령을 10세~19세(2013년)에서 6세~19세(학령기 아동 추가)로 확대하였다. 한편, 동일 세대원 간 카드합산 및 개인비용 충전 기능을 신설하여 사용 편리성을 강화하였다.

2015년에는 세대 당 10만 원에서 개인당 5만 원으로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구성원 수 차이에 따른 세대 간 불평등을 해소하였고,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15.7)에 따라 중위소득의 50%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안정적인 카드 발급을 위하여 권역별로 순차 발급을 실시하였으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카드 발급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2016년에는 기획사업(문화더누리사업)을 폐지하고 문화누리카드 발급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였다. 체육 분야는 스포츠 관람뿐만 아니라 운동용품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가맹점 정보 현행화 및 가맹점 위치(좌표) DB 구축으로 모바일 위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맹점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였다.

2017년에는 지원금을 1만 원 인상하고, 전국 체육시설을 이용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였다. '문자도움말서비스' 신설, 전문 상담인력 투입, 표준상담 DB 구축,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안내 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원응대율을 제고하였다.('16년 58.6% → '17년 76.5%)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지원금을 1만 원 인상하여 7만 원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모바일 발급을 도입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불편 지역 거주자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용 분야를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했으며 가맹점을 신규로 확충하였다.(캠핑장 117개소, 워터파크 31개소, 케이블TV방송, 체육시설 플랫폼 TLX 등) 아울러,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카드 발급을 시스템 개선을 통해 동일 일자에 시작함으로써 발급 시 혼선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하여 문화누리카드를 일반적인 카드 디자인과 동일하게 변경하였다.

표 3-1-3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개요(2018~2019)

구분	2018	2019
① 예산	총 예산 1,167억 원 (국비 821억 원, 지방비 346억 원)	총 예산 1,299억 원 (국비 915억 원, 지방비 384억 원)
② 재원	국비(문예기금):지방비=7:3 매칭	국비(문예기금):지방비=7:3 매칭
③ 사업기간	2018년 2월~2018년 12월	2019년 2월~2019년 12월
④ 사업내용	문화예술 향유 및 국내 여행, 체육 활동이 가능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예술 향유 및 국내여행, 체육 활동이 가능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⑤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⑥ 지원 금액	개인별 카드 1매당 7만 원	개인별 카드 1매당 8만 원
⑦ 문화누리카드 발급자수	1,591,777명	1,629,036명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지원금을 1만 원 인상하여 8만 원을 지원하고, 전화(ARS) 재충전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여 교통 및 인터넷 접근성이 열악한 이용자의 발급 환경을 개선하였다. 차상위 한부모 수급자 대상 권리구제서비스 시행으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다. 영화관, 놀이공원, 지역 축제에서의 식음료 구입 허용으로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최근 문화 소비 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온라인 가맹점(숙박예약, 음원재생, 전자책 구독, 취미생활 등)을 확대로 이용처의 폭을 넓혔다. 이용 잔액 불용액을 감안한 예산 대비 초과 발급으로 신청자에게는 모두 발급하고 불용액은 절감하였다.

표 3-1-4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확대 현황(2019)

세부내용
• 문화예술 · 여행 · 체육 관련 가맹점 3,962개 신규 등록 • 개인 모바일 기기 확산 등 여행 · 여가 · 문화생활 트렌드를 반영한 야놀자, 멜론 등 온라인 가맹점 197곳 신규 발굴 • 지역 관광지, 축제, 박물관, 미술관, 국공립 문화시설 등 744개 가맹점 발굴 및 23개 등록 •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 내 362개 매점 가맹점 확대 • 롯데월드, 에버랜드, 서울랜드 내 82개 식음료 매장 가맹점 확대 • 지역축제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 및 축제 참여 현장 식음료 매장 한시적 허용 438개 가맹점 등록 • 교보문고 업무제휴를 통한 가맹점 할인 혜택 확대(현장결제 시 10%할인) • 국민여가 트렌드 변화에 맞춰 12개 VR 체험관 가맹점 등록(평일 방문 시 20% 할인)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연계(단체구매 최대 40%, 유공자 · 장애인 · 경로 50%, 청소년 40% 할인)

표 3-1-5 문화누리카드 연령별 발급 이용 현황(2019)

구분	발급인원(명)	이용금액(백만원)
10대 이하	61,271	3,203
10대	278,460	16,823
20대	140,444	10,186
30대	83,687	7,594
40대	216,350	19,329
50대	254,352	19,093
60대 이상	594,472	41,931
합계	1,629,036	118,159

한편 문화누리카드 발급자들은 '나눔티켓'을 이용할 수 있는데, 나눔티켓은 국공립 · 민간의 문화예술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기부한 객석을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문화 나눔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의 문화 향수권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눔티켓 관람 후기 접수를 통한 이용자 의견 상시 수렴 및 다양한 홍보 행사 개최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의 순수예술 향유 경험 축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3-1-6 통합문화이용권: 나눔티켓 이용 현황(2019)

구분	나눔 회원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등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	사회복지사	계
구매인원(명)	4,556	6	16	4,578
예매횟수(건)	20,400	19	28	20,447
티켓매수(매)	54,463	55	246	54,764

표 3-1-7 통합문화이용권: 나눔티켓 분야별 이용 현황(2019)

(단위: 건)

구분	연극	뮤지컬	음악	전시	무용	문화일반	전통	국악	계
무료티켓	28,310	11,066	8,173	–	930	233	1,760	2,321	52,793
할인티켓	306	406	586	–	12	661	–	–	1,971
계	28,616	11,472	8,759	–	942	894	1,760	2,321	54,764

문화누리카드 안내 · 홍보를 위해 전단지(200만 장)와 포스터(2만 장)를 제작하여 전국 3,500여 개 주민센터에 배포하였다. 또한 언론매체(신문기사 등)와 지역 홍보매체, 온라인 플랫폼(누리집, 블로그 등)을 통해 이용 방법, 신규 가맹점 등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2019년에는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홍보 매뉴얼을 제공하고 지역 기반 이용정보가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였다. 특히 온라인 홍보를 활성화 하고 문자 발송을 확대하여 이용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이용자 설문조사 및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사업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표 3-1-8 문화누리카드 홍보 내역(2019)

대상	수단	내 용
전국 동시 대국민 홍보	홍보물 배포	– 문화누리카드 발급 · 이용 안내 포스터, 전단지 제작(전단지 200만 장, 포스터 2만 장) 및 배포(전국 주민센터 및 주요 복지시설, 관공서 등) – 인포그래픽 홍보영상 및 이용 안내 웹전단 제작, 배포
	SNS 홍보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의 지역 홍보 게시판 활성화 • 게시물 수: '18년 22건 → '19년 79건, 조회수 전년대비 18% 향상 – 문화누리카드 블로그 활성화로 계절별, 계기별 이용정보 제공 • 게시물 수: '18년 77건 → '19년 115건, 조회수 전년대비 84% 향상 – 카카오톡채널 활성화로 풍부하고 다양한 이용정보 제공 • 친구 수: '19년 3,564명, '18년 대비 82% 증가
수혜자 접점 홍보 및 지역 주민 타깃 홍보	문자발송	–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맞춤형 안내 문자 발송(총 1,072,158건) – 전액미사용자 대상 안내문자 발송 및 맞춤형 홍보행사 개최(12.19~30./850명 참여) – 노인, 가맹점주, 사업 담당자 대상 수시 설문조사 및 의견 청취(9.30~10.15./660명 참여)
	지역 단위 홍보물 배포	– 지역별 가맹점 안내책자 제작 및 배포 – 지역별 누리집, 블로그,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등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
	지역단위 특화 홍보	– 지역 매체(지역신문, 라디오 등) 및 공공기관 협력(전광판, 현수막 등) 홍보 – 지역주관처 주최 시군구, 주민센터 담당자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 지역 공동체(반상회, 이장회의 등)를 통한 홍보 및 이용 독려 – 지역 복지기관(아동센터, 자활센터, 노인복지관 등) 및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 홍보 – 지역 축제 부스 운영을 통한 발급 · 이용 안내 및 이벤트 진행

(3) 소외계층문화순회(신나는예술여행)

2004년부터 복권기금의 지원(2004년 40억 원, 2005년 48억 원, 2006년 75억 원, 2007년 75억 원, 2008년 46억 원, 2009년 62억 원, 2010년 58억 원, 2011년 80억 원, 2012년 93억 원,

2013년 95억 원, 2014년 100억 원, 2015년 100억 원, 2016년 200억 원, 2017년 211억 원, 2018년 210억원)을 받아 문화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문화 소외지역 주민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군부대, 교정시설 등 경제 · 사회 · 지리 · 특수 소외계층과 순수예술 관람경험의 기회가 적은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문화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공연예술단체가 해당 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 및 참여 프로그램 등의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복권기금이 아닌 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운영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재원으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252억원(운영비 포함)을 지원하여, 369개 단체가 8,348회 순회사업을 실시하였고, 향유층을 일반국민으로까지 확대하여 총 988,311명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하였다.

2019년도에는 시설과 예술단체를 매칭해주는 매칭형 사업, 예술단체가 직접 수혜대상과 장소를 발굴하는 발굴형 그리고 만39세이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신설된 청년예술형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표 3-1-9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사업 유형별 실적(2019)

(단위: 명, 개, 회, 백만원)

사업명		프로그램수	관객수	단체수	예산
매칭형	노인시설순회	450	35,168	45	2,242
	아동시설순회	530	60,206	53	2,683
	일반시설순회	560	59,878	56	2,786
	장애인시설순회	264	30,826	28	1,350
	청소년시설순회	427	79,403	45	2,256
	특수계층시설순회	301	57,866	31	1,626
	소계	2,532	323,347	258	12,943
발굴형	문학순회사업	294	21,031	17	499
	신나는예술여행확산사업	130	131,295	4	800
	지리적문화소외지역순회사업_농산어촌마을순회	1,042	91,705	11	2,540
	지리적문화소외지역순회사업_도서지역순회	287	12,705	7	900
	지역협력특화사업_공공주도형	616	81,318	8	1,380
	지역협력특화사업_민간주도형	793	132,038	15	1,430
	지역협력특화사업_사회적네트워크형	319	21,245	6	880
	소계	3,481	491,337	68	8,429
청년 예술형	청년예술형	2,335	173,627	43	3,000
	소계	2,335	173,627	43	3,000
총합계		8,348	988,311	369	24,372

표 3-1-10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지역별 프로그램 수 및 관객 수(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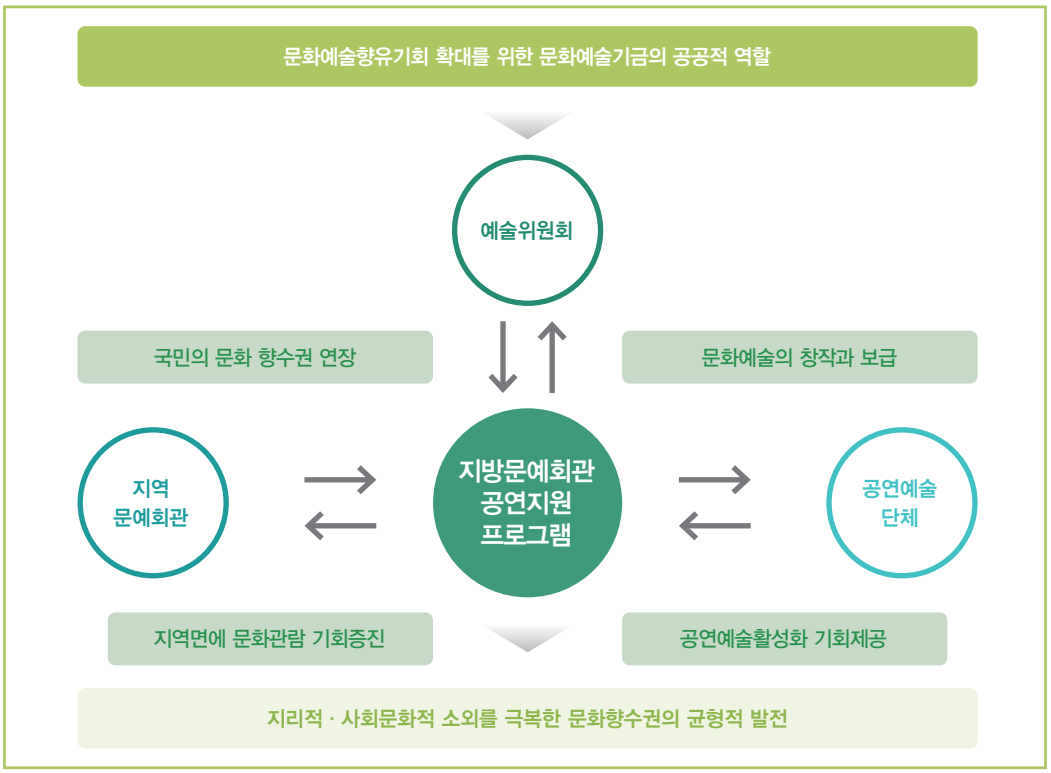
(단위: 회, 명)

지역	프로그램 수				관객수			
	매칭형	발굴형	청년 예술형	총계	매칭형	발굴형	청년 예술형	총계
강원도	168	361	316	845	21,452	21,722	32,406	75,580
경기도	617	351	409	1,377	81,868	12,944	50,614	145,426
경상남도	183	345	225	753	23,491	30,346	10,281	64,118
경상북도	162	75	107	344	22,179	12,209	3,175	37,563
광주광역시	76	18	42	136	9,519	392	1,556	11,467
대구광역시	87	77	5	169	10,604	2,746	395	13,745
대전광역시	75	287	46	408	9,485	48,573	3,077	61,135
부산광역시	98	214	4	316	11,598	65,394	96	77,088
서울특별시	184	485	332	1,001	21,703	65,520	21,470	108,693
세종특별자치시	53	8	27	88	11,265	1,142	1,611	14,018
울산광역시	29	4	–	33	3,641	151	–	3,792
인천광역시	124	163	27	314	17,614	11,862	1,385	30,861
전라남도	165	378	205	748	18,715	155,990	12,375	187,080
전라북도	197	175	114	486	21,560	14,051	3,629	39,240
제주특별자치도	15	91	120	226	2,053	6,002	5,980	14,035
충청남도	149	230	221	600	18,832	27,102	16,004	61,938
충청북도	150	219	135	504	17,768	15,191	9,573	42,532
총합계	2,532	3,481	2,335	8,348	323,347	491,337	173,627	988,311

(4) 방방곡곡 문화공감

문예회관의 시설 특성 등을 활용하여 문화 소외지역의 공연문화 활성화와 균형적인 문화향수권을 보장하는 공익사업으로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 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생적 공연의 창작 · 유통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문예회관이 유치하는 프로그램의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문예회관의 활성화를 돕고 지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는 복권기금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다.

그림 3-1-3 공연 나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개념



2019년에는 157.5억 원의 예산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방비 매칭을 통한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해당 문예 회관에 책임성을 부여하여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비용효과성을 발전시키고, 지방비 매칭을 위한 자체 심사과정을 통해 지역 문예회관의 기획 · 운영 능력이 향상되게 되었다.

2) 문화다양성 정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2000년대 초반 국내 외국인근로자 수의 증대로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진지하게 고민됨에 따라 2005년 3월 「외국인근로자 문화적 지원 과제탑승팀」이 운영되면서 시작되었다. 2006년에는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국내 유입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사회 대비 문화적 지원 TF팀」이 꾸려졌고, 2007년부터는 신설된 조직인 다문화정책팀에서 사업을 이어가 2009년에는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사업을 확장하는 등 국내 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자국민 중심의 동화정책을 지향하는 기존 다문화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2012년부터는 문화 상호주의에 입각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을 높여 이주민과 내국인 간 문화적 소통에 초점을 두는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2012년 지역사회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시범추진을

시작으로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면서 문화다양성 정책이 본격 추진되어 이주민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노인, 독립예술가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계층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현재는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에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 및 법무부 외국인정책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해당사항을 총괄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정책은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주체가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110번째 비준 국가이며, 2010년 7월 협약이 정식 발효된 이후 국내 이행을 위해 문화다양성법을 제정(2014년 5월 28일) · 시행(2014년 11월 29일)함으로써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2015년은 본격적인 법 시행 첫 해로, 법률에 근거한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행사,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등 의미 있는 사업들이 다수 추진되었으며, 기존에 추진되었던 정책 사업을 확대하여 성별 · 소득계층 · 세대 · 지역 · 장애 등 다양한 소수문화를 보호하고 주류문화와의 교류와 소통을 증진시키는 한 해였다.

2016년은 정책사업이 보다 안정화된 해로, 대표 사업인 무지개다리 사업 추진지역이 전국 24개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교사 대상 커리큘럼 개발, 유 · 초등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등이 이루어졌으며, 문화기반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수도 확대되었다.

2017년에는 문화다양성법 제11조에 따라 추진되는 문화다양성의 날(매년 5월 21일) 기념 주간행사의 개막식 개최도시를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 · 운영하였으며(부산광역시 선정), 지역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무지개다리 사업 주관지역을 25개로 확대하였다. 또한, 제6차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2017. 6. 12.~15.,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우리나라가 정부 간 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2017년~2021년 임기)됨으로써 국제적인 책무가 강화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2018년은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의 성과지표를 '참여자 만족도'에서 '참여자의 문화다양성 인식제고 정도'로 변경하여 사업 참여 전후에 참여자의 문화수용성, 타문화 존중도 등을 측정해 정책사업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콘텐츠공모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글로벌리포트 한국어판 발간 등을 통해 국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제반환경 조성과 국제적 의제 확산을 통한 저변확대 등을 추구하였다.

2019년에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국으로서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관계자 · 학자 · 활동가 등 200여명이 참여한 국제 포럼을 개최(2019. 4. 18., 현대미술관 서울관)하고, 협약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8. 27.) 및 국내 전문가 회의(10.17., 11.25.)를 열어 아 · 태지역 및 한국적 맥락에서 협약의 이행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추진해 온 문화다양성 연구학교의 우수한 교육적 성과를 널리 알리고자 유아교육 우수사례집을 제작 · 배포하고,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도모하는 등 사회 내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1)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기반 조성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와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문화다양성 주간행사는 문화다양성법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에 따라 매년 5월 21일(문화다양성의 날)로부터 1주간 진행된다. 2015년 충북 청주시 청주문화산업단지 일대에서 최초의 주간행사 개최를 시작으로, 2016년 서울 대학로, 2017 부산 광복로 일대 등에서 개막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행사 기간 동안 전국 무지개다리사업 추진지역을 중심으로 '차이(差異)를 즐기자'라는 슬로건 아래 강연, 참여형 워크숍, 포럼, 영화제 및 도서전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펼쳐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널리 알려 왔다.

2019년 문화다양성 주간에는 전국 26개소에서 지역민들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전시, 공연, 상영, 축제 및 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 약 11만여 명이 참여하였고,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네이버 해피빈 문화다양성 캠페인에는 약 15만 명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림 3-1-4 문화다양성주간 포스터

표 3-1-11 2019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지역별 프로그램

기관명	프로그램명	세부 내용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문화다양성 포럼	■ (포럼)경남 문화다양성 포럼 ㅇ 일시 : '19.5.24.(금) 14:30 ㅇ 장소 : 김해문화의 전당 시청각미디어센터 ㅇ 내용 : 경남문화다양성 조례 제정과 향후과제 – 1부 : 경남문화다양성 포럼 – 2부 : 보이는 무지개 라디오현장 문화 다양성팟캐스트 &토크콘서트
광주문화재단	문화다양성 확산 페스티벌	■ (축제)문화다양성 확산 페스티벌 ㅇ 일시 : '19.5.25.(토) 13:00~19:00 ㅇ 장소 : 수완호수공원 ㅇ 내용 : 광산구 세계음식문화축제와 연계한 문화다양성 확산 페스티벌 – 문화다양성 주간 개회선언 – 아시아 문화 체험, 아프리카 문화체험 등 문화다양성 체험 부스 – 세계 음식문화체험 부스 운영 등 ■ (포럼)호남권 문화다양성 포럼 ㅇ 일시 : '19.5.21.(화) 14:00~18:00 ㅇ 장소 :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 ㅇ 내용 : 문화다양성 기반 문화도시와 도시재생 – 익산 · 완주 · 광주 · 전남 문화재단 네트워크 – 호남권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 문화 다양성과 도시재생 · 문화도시 포럼 – 문화재생 소프트웨어 구축에 있어 '문화 다양성' 기반에 대한 공통의 가치 인식과 문제의식 제기
구로문화재단	문화, 서로 다르면 함께 빛난다.	■ (공연)맘마미아의 "마법학교" ㅇ 일시 : '19.5.13.(월)~5.14.(화) ㅇ 장소 : 온수초등학교 ㅇ 내용 : 4학년 전교생(약 200명) 대상 이야기톡 기법을 활용한 문화다양성 인식 함양 프로그램 진행 ■ (공연)극단 수다의 뮤지컬 "비망" ㅇ 일시 : '19.5.17.(금) 19:00/ '19.5.18.(토) 15:00, 19:00 ㅇ 장소 : 오류아트홀 ㅇ 내용 : 서울지역 대학 신입생을 모집하여 제작 · 체험하는 뮤지컬 프로젝트(5.18 광주민중항쟁 이야기) ■ (공연)문화예술협동조합 곁애의 "그토록 프로젝트" ㅇ 일시 : '19.2.25.(토) 17:00 ㅇ 장소 : 오류아트홀 ㅇ 내용 – 곁애와 구로문화재단이 무지개다리사업으로 함께 운영한 6년간의 사업 정리 콘서트 – 1부: (오류동) 소영이네 생선가게 2부: (통일) 류명성 통일 빵집 3부: (시) 더드림밴드–노래가 된 시 ■ (영상상영)다큐창작소의 영상 상영 ㅇ 일시 : '19.5.13.(월)~27.(월) 18:00–21:00 ㅇ 장소 : 오류동역 문화공원 계단 ㅇ 내용 :다큐창작소가 구로문화재단과 무지개다리사업으로 제작했던 영상물 상시 상영 ■ (체험, 전시)아띠스트–U의 "걱정구름이 무지개 되어" ㅇ 일시 : '19.5.18.(토) 14:00–20:00 ㅇ 장소 : 오류문화센터 1~3층 ㅇ 내용 : 대학생기획단 체험부스 및 전시 운영

기관명	프로그램명	세부 내용
김포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마음 두드림'	■ (축제)문화다양성 주간행사 '마음두드림' – 차이를 즐기자 ㅇ 일시 : '19.5.26.(일) 13:00~18:00 ㅇ 장소 :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 광장 ㅇ 대상 : 김포 거주자 전체 ㅇ 내용 : 체험부스, 다양한 장르 및 뮤지션 버스킹 공연, 캠페인, 영화 상영회, 문화다양성 공로상 표창 ■ (체험)문화다양성 어린이 그리기대회 ㅇ 일시 : '19.5.26.(일) 11:00~15:00 ㅇ 장소 :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 광장 ㅇ 대상 : 김포시 거주 초등학생 ㅇ 내용 : 무지개 활용 문화다양성 의미를 담은 그림 창작 ■ (공연)문화다양성 초청강연 – 틀림이 아닌 다름의 이야기 ㅇ 일시 : '19.5.27.(월) 19:00~20:30 ㅇ 출연자 : 알베르토 몬디(방송인) ㅇ 장소 : 김포아트홀 공연장 ㅇ 대상 : 김포 거주자 (무료행사) ㅇ 내용 : 함께 누리는 평화, 문화다양성 사례(이탈리아, 한국),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우리가 만날 평화) ■ (영상상영) 문화다양성 영화상영 ㅇ 일시 : '19.5.21.(화) 11:00~, '19.5.23.(목) 15:00~ ㅇ 장소 : 월곶생활문화센터 ㅇ 내용 : 2018 김포문화재단 제작 문화다양성 영화 '삔빠를 기다리며' 상영
김해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with]	■ (축제)문화다양성 마을축제 [종로난장] ㅇ 일시 : '19.5.26.(일) ㅇ 장소 : 동상동 종로길 일원 ㅇ 내용 : – 문화다양성 차별 금지 Zone 운영 – 가면을 소재로 한 문화다양성 체험 – 문화다양성 퍼레이드, 공연 · 캠페인 진행 ■ (포럼)경남 문화다양성 포럼 ㅇ 일시 : '19.5.24.(금) 14:30~18:00 ㅇ 장소 : 김해문화의전당 ㅇ 내용 : 경남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책적 발전 방향 – 1부 : 문화다양성 포럼 – 2부 : 문화다양성 팟캐스트&토크 콘서트
대전문화재단	우리多문화人 캠페인	■ (홍보캠페인)우리多문화人 캠페인 ㅇ 일시 : '19.5.24.(금) 11:00 ㅇ 장소 : 지역 주요대학 및 다중집합장소 등 / 5개소 ㅇ 참여 : 지역 내 유학생 등 10여명 ㅇ 대상 : 대전 시민 ㅇ 방법 :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협력을 통한 참여자 모집 ㅇ 내용 – 유학생 등이 주체가 되어 문화다양성 관련 홍보 – 문화다양성 주간 및 무지개다리사업 인식 조사 – 문화다양성 관련 키워드 자유 제안 및 제안자 대상 홍보물 배부

기관명	프로그램명	세부 내용
		■ (포럼)제2회 충청권문화다양성 정책포럼 ㅇ 일시 : '19.5.21.(화) 14:00~18:00 ㅇ 장소 : s컨벤션 라비홀(청주) ㅇ 주제 : 충청권 문화다양성의 현재와 미래 ㅇ 대상 : 광역 · 기초 문화재단 관계자, 문화예술단체 등 ㅇ 주관 : 세종 · 충남 · 대전 · 충북 문화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ㅇ 내용 – 조례제정의 국내 · 외 사례공유 및 문화다양성 현주소 – 문화다양성 문화예술공연 등
도봉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 (이벤트, 캠페인)문화다양성 감각깨우기 '식스센스 Six Sense' – '읽다! 다독다독 문화다양성' ㅇ 일시 : '19.5.22.(수) 16:00~18:00 ㅇ 장소 : 도봉기적의도서관 ㅇ 내용 : 도서관 방문 시민 대상, '문화다양성에 관한 책을 찾아보는 서치 게임' 진행 ■ (체험, 캠페인)'손의 대화법 손손수수 垂手' 프로젝트 ㅇ 일시 : '19.5.22.(수) 10:00~17:30 ㅇ 장소 : 도봉구민청 1층 홍보관 ㅇ 내용 : 지역문화예술가와 함께 예술적 경험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느껴보는 프로젝트 – 도봉구 시민 108분의 손에 담긴 이야기를 사진과 영상 및 시민참여 퍼포먼스를 통해 시각화
부산문화재단	문화다양성 페스티벌 '빛이 모이다'	■ (축제, 캠페인)문화다양성 페스티벌 '빛이 모이다' ㅇ 일시 : '19.5.25.(토) 15:00~20:30 ㅇ 장소 : 부산진구 서면 1번가 ㅇ 내용 : 문화다양성 커뮤니티 존 운영 – 런웨이 '빛이 모이다' 진행 – 문화다양성 개막 8인 선언 – 한가지 약속 캠페인
부천문화재단	부천문화축제 '다 · 多 · Đa'	■ (축제)부천문화축제 '다 · 多 · Đa' 축제 ㅇ 일시 : '19.5.19.(일) 12:00~18:00 ㅇ 장소 : 부천마루광장 ㅇ 내용 : 공연, 기념식, 길놀이와 퍼레이드, 외국인 · 국가별 전통체험 & 다양성 문화 체험 등 ■ (복합)다 · 多 · Đa 주간 (주간행사) ㅇ 일시 : '19.5.12.(일)~'19.5.31.(금) ㅇ 장소 : 부천 지역의 문화 공간 ㅇ 내용 : 나만의 문화다양성 의미를 담은 체험 활동, 공연 · 전시 관람 – 맞짱 설장구 시즌2, 환경과 문화를 담은 그릇, '나만의 문화' 알리기, 디디파티 "다양성은 리듬을 타고", 연극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김성건– 형상전형의 전환展〉
성동문화재단	다양성洞에 무지개 꽃이 피었습니다.	■ (축제) '다양성洞에 무지개 꽃이 피었습니다.' ㅇ 일시 : '19.5.25.(토) 12:00~16:00 ㅇ 장소 : 성동문화광장(소월아트홀 옆) ㅇ 내용 : '521 한 가지 약속' 캠페인 – 손 프린팅, 문화체험(무지개 화분, 바람개비 만들기 등), 플리마켓, 시민 네트워킹 파티, 공연 등

기관명	프로그램명	세부 내용
성북문화재단	사전행사 –다다식탁–	■ (축제)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다문화마켓〈다다식탁〉 ㅇ 일시 : '19.5.18.(토) 17:00~21:00 ㅇ 장소 : 석관초등학교 앞 ㅇ 내용 : 세계푸드마켓, 문화체험부스, 플리마켓, 세계문화공연, 지역단체부스 운영
	본행사 –누리마실–	■ (축제)제11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ㅇ 일시 : '19.5.26.(일) 12:00~18:00 ㅇ 장소 : 성북동 성북로 일대 ㅇ 내용 : 세계 체험부스 운영, 어린이 특화 우주별놀이체험공간, 지구만물장(물품 마켓), 문화다양성 캠페인 및 음식해설사, 누리마실 퍼레이드 거리 공연 등
세종시문화재단	충청권 문화다양성 정책포럼	■ (포럼)제2회 충청권 문화다양성 정책포럼 ㅇ 일시 : '19.5.21.(화) 14:00~18:00 ㅇ 장소 : 청주 S컨벤션 ㅇ 내용 : 충청권의 문화다양성의 현재와 미래 – 1부 : 발제진행 – 2부 : 발제자–플로어 종합토론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세대소풍'	■ (공연)문화다양성 북콘서트 ㅇ 일시 : '19.5.24.(금) 16:00~17:30 ㅇ 장소 : 국립세종도서관 3층 대회의실 ㅇ 내용 : 채인선 동화작가와 '다양성의 가치'를 주제로 한 북콘서트 진행 ■ (영상상영)애니메이션 영상상영 ㅇ 일시 : '19.5.25.(토) 11:00~17:00 ㅇ 장소 : 국립세종도서관 1층 종합영상음향실 ㅇ 내용 : '세대소통'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영상 상영(올리볼리 그림동화 12편 상영) ■ (체험)세대소통 체험부스 ㅇ 일시 : '19.5.25.(토) 11:00~17:00 ㅇ 장소 : 세종호수공원 중앙광장 일대 ㅇ 내용 : '조부모 · 부모 · 나'의 세대 놀이, 의복, 음식 체험 프로그램 – (체험부스①) 놀이로 즐기는 세대소풍 – (체험부스②) 음식으로 맛보는 세대소풍 – (체험부스③) 의복으로 뽐내는 세대소풍 ■ (캠페인)나에게 하는 문화다양성 한 가지 약속 ㅇ 일시 : '19.5.25.(토) 11:00~17:00 ㅇ 장소 : 세종호수공원 중앙광장 일대 ㅇ 내용 : 多화만사성 BUS에 전시될 시민참여 작품 제작 – 자화상과 자신의 한 가지 약속을 적어 각자의 다짐을 그림과 글로 표현
영등포문화재단	2019무지개다리사업 우정과 환대의 영등포 문화다양성포럼	■ (포럼)우정과환대의 영등포 : 문화다양성포럼 ㅇ 일시 : '19.5.25.(토) 16:00~18:00 ㅇ 장소 : 아시아미디어팩토리(3층) ㅇ 내용 : – 우정과 환대의 영등포 무지개다리사업 소개 – 영등포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의제 발굴 ■ (공연)네트워킹오픈파티: 너에게로 초대 ㅇ 일시 : '19.5.25.(토) 18:30~20:30 ㅇ 장소 : 아시아미디어팩토리(옥상) ㅇ 내용 : – 이주민 음악이 함께하는 이주민 예술가의 삶 이야기 – '나' 중심이 아닌 '너'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

기관명	프로그램명	세부 내용
영주 문화관광재단	영주의 문화밥상	■ (전시, 체험) '영주의 문화밥상' ㅇ 일자 : '19.5.25.(토)~5.26.(일) ㅇ 장소 : 소백산 일원(영주 소백산철쭉제장) ㅇ 내용 : – 영주의 세대간, 인종 간, 지역 간 다양한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음식, 공예 등 예술 체험행사 '영주의 문화밥상' –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2019년 무지개다리사업' 홍보 및 캠페인 ■ (공연)'영주의 문화밥상' 음악회 ㅇ 일시 : '19.5.26.(일) 13:00 ㅇ 장소 : 소백산 일원(영주 소백산철쭉제장 주무대) ㅇ 내용 :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음악회 및 토크콘서트로 다양한 문화주체들의 음악회
영월문화재단	인도를 만나다	■ (영화상영)인도를 만나다 ㅇ 일시 : '19.5.21.(화) 19:00~22:00 ㅇ 장소 : 영월시네마〈당갈〉 ㅇ 내용 : 편견을 딛고 인도 최초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여성 레슬러 자매와 그 아버지 이야기 – 초청 강의 〈인도, 팩트 체크〉: 인도 전문가인 백좌흠(경상대 명예교수, 인도미술박물관 부관장) 초청 강의 – 부대행사 : 인도 전통 문양 콜람 그리기 체험 등
완주문화재단	2019 완주문화다양성 영화제 '되어보는 영화제'	■ (영화상영)2019 완주문화다양성영화제 '되어보는 영화제' ㅇ 일시 : '19.5.23.(목)~5.24.(금) ㅇ 장소 : 완주 휴 시네마 ㅇ 내용 : – 영화프로그램 : 한국단편 8편, 한국장편 2편, 애니메이션 7편 상영 – 감독과의 대화 : 메리크리스마스 미스터모 임대형 감독, 언프리티 영미 이영미 감독 – 참여부스 운영 : (1)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문화다양성 카드놀이 체험 (3)정신 장애인 문화공동체 '아이리스' 사진전
	호남권 문화다양성 포럼	■ (포럼)호남권 문화다양성 포럼 ㅇ 일시 : '19.5.21.(화) 14:00~18:00 ㅇ 장소 :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 ㅇ 내용 : 문화다양성 기반 문화도시와 도시재생 – 익산 · 완주 · 광주 · 전남 문화재단 네트워크 – 호남권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 문화 다양성과 도시재생 · 문화도시 포럼 – 문화재생 소프트웨어 구축에 있어 '문화 다양성' 기반에 대한 공통의 가치 인식과 문제의식 제기
은평문화재단	〈추적 30분〉	■ (공연)여는 공연 〈문화다양성 책의 노래 콘서트〉 ㅇ 일시 : '19.5.23.(화) 11:45~12:45 ㅇ 장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야외로비 ㅇ 내용 – 「책의 노래 서울」과 함께 하는 '완득이를 찾습니다'(가제) – 소수문화, 세대문화 등을 표현하는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꾸마달」 연계 ■ (전시)미로 전시회 ㅇ 일시 : '19.5.23.(목)~6.5.(수) ㅇ 장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로비 ㅇ 내용 – 문화감수성 TEST & 은평구 문화감수성 지표 만들기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창작그룹 「틈–사이로」 협력 전시 – 설문조사 & 이벤트 '감수성 마침표' 진행

기관명	프로그램명	세부 내용
익산문화재단	호남권 문화다양성 포럼	■ (포럼)호남권 문화다양성 포럼 ㅇ 일시 : '19.5.21.(화) 14:00~18:00 ㅇ 장소 :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 ㅇ 내용 : 문화다양성 기반 문화도시와 도시재생 – 익산 · 완주 · 광주 · 전남 문화재단 네트워크 – 호남권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 문화 다양성과 도시재생 · 문화도시 포럼 – 문화재생 소프트웨어 구축에 있어 '문화 다양성' 기반에 대한 공통의 가치 인식과 문제의식 제기
	다가치 페스티벌	■ (축제)다가치 페스티벌 ㅇ 일시 : '19.5.25.(토) 15:00~19:00 ㅇ 장소 : 익산 영등시민공원 ㅇ 내용 : – '인연의 끈' 521한가지약속 캠페인 – 어울림 축제(체험 및 전시, 공연) • 세계의 다양한 놀이 · 먹거리 · 의상체험 • 문화다양성 도서 · 영상 전시 및 블라인드 북 • 다가치협의체 기관들의 편견 · 차이를 깨는 체험 프로그램 • 세계 전통 공연과 플래시몹
인천영상위원회	제7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 (영화상영)제7회 디아스포라영화제 – 사이를 잇는 ㅇ 일시 : '19.5.24.(금)~5.28.(화),5일간 ㅇ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아트플랫폼 일대 ㅇ 주최/주관 :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 ㅇ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프로그램 : – 개막식: '19.05.24.(금) 19:30, 인천아트플랫폼 야외무대 • 축하공연, 개막선언, 프로그램 소개, 개막작 상영 등 – 폐막식: '19.05.28.(화) 18:00,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 청소년 영화감상문 공모전 시상식, 하이라이트 영상 공개, 자원활동가 해단식, 폐막선언 등 – D-Film: 국내 · 외 60여 편 상영, 초청 감독과의 대화 – D-Academy • 재일조선인 학자 서경식 교수의 특별 강연 〉강연 Ⅰ. 외국인 수용자와 함께하며 〉강연 Ⅱ. 분쟁의 땅에서 목소리를 전하며 • 제주 예멘 난민 등 디아스포라 주제 현안 연계 토크 •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강연 Ⅰ.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세상 〉강연 Ⅱ. 난민인권운동의 작은 이정표:이란 소년과 친구들 – Special Exhibition • 〈태양을 넘어서〉 • 〈이카이노(猪飼野)-일본 속 작은 제주〉 – Events: 청소년 영화 캠프 '영화, 소란', 청소년 영화감상문 공모전 '영화로 세상 읽기', 다국적 문화 체험 카페 'CAFE IN, 모자이크', 직조체험 '사이를 잇는', 유엔난민기구와 함께하는 특별 캠페인 등
인천문화재단	만국시장 in 디아스포라영화제 _지구별 여행	■ (체험)만국시장 in 디아스포라영화제_지구별 여행 ㅇ 일시 : '19.5.25.(토)~5.26.(일) ㅇ 장소 : 환대의 광장(인천아트플랫폼 중앙광장) ㅇ 내용 : – '지구별 여행'이라는 테마에 맞춰 30여 팀의 셀러들이 세계 각국의 먹거리, 볼거리, 핸드메이드 소품 등을 판매 – 먹거리 5팀, 볼거리(각 나라별 토산품) 5팀, 핸드메이드 소품 15팀, 특별해서 좋은 팀(나만의 독특한 예술팀) 5팀 참가

기관명	프로그램명	세부 내용
전남 문화관광재단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 (공연)문화다양성 토크콘서트 ㅇ 일시 : '19.5.26.(일) ㅇ 장소 : 남도소리울림터 ㅇ 내용 :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한 게릴라 토크콘서트, 문화다양성 캠페인 및 체험행사 ■ (캠페인)문화다양성 캠페인 ㅇ 일시 : '19.5.21.(화)~5.25.(토) 중 1회 ㅇ 장소 : 전라남도 인근 ㅇ 내용 : 문화다양성 인식확산을 위한 캠페인
종로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 (영화상영)영화속의 문화다양성 ㅇ 일시 : '19.5.21.(화) 19:00~22:00 ㅇ 장소 : 에무시네마 1관 ㅇ 내용 : – (17:30/19:30,(총2회) 아네스가 말하는 바르다 특별전 – (21:00~22:00) 시네마토크 • 진행 : 연극평론가 이은경, 시네마 프로그래머 손지현, 김혜리 기자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2019문화스킨쉽	■ (포럼)제2회 충청권 정책포럼 ㅇ 일시 : '19.5.21.(화) 14:00~18:00 ㅇ 장소 : S컨벤션센터 ㅇ 공동주관 : 세종, 충남, 대전, 충북,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ㅇ 내용 : 충청권 문화다양성의 현재와 미래 – 충청권 문화다양성 협약식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의 필요성(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완대표) –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의 국내외 사례와 충청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제정 구자호 위원장) – 충청권 문화다양성의 현주소와 나아가야할 방향(문화디자인자리 최혜자대표) ■ (캠페인, 교육)2019문화스킨쉽 ㅇ 일시 : '19.5.27.(월) ㅇ 장소 : 동부창고 36동 ㅇ 내용 : 꿈나무오케스트라 단원 및 학부모 대상 문화다양성 인식교육 –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활용한 인식교육 – 문화다양성 한가지약속 캠페인 – 체험프로그램 (오색팔찌만들기, 러시아인형만들기)
충남문화재단	모두의 이야기 '서로, 소리'	■ (포럼)제2회 충청권 문화다양성 정책 포럼 ㅇ 일시 : '19.5.21.(화) 14:00 ㅇ 장소 : 청주S컨벤션 ㅇ 내용 – 충청권 문화다양성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제 및 자유토론 – 충남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세종시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공동 주관 ■ (캠페인)문화다양성 도서 캠페인 '사이 책방' 1회차 ㅇ 일정 : '19.5.21.(화)~5.31.(금) ㅇ 장소 : 서산해미도서관, 금산작은도서관, 충남도청, 예산군청소년수련관,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서천군문화예술창작공간, 아트큐브136, 충남문화재단, 공간U, 독립기념관(총10곳) ㅇ 내용 – 문화다양성 관련 주제 도서 7권 선정, 캠페인 홍보자료와 함께 도내 10개 도서관 및 시민 공간으로 배포 – 문화다양성 관련 홍보물 배치 및 독서 권장 캠페인 진행

기관명	프로그램명	세부 내용
		■ (공연)문화다양성 렉처 콘서트 'Life 溫 Music ; 그녀에게' 1회차 ㅇ 일시 : '19.5.27.(월) 15:00 ㅇ 장소 : 단국대학교 학생회관 학생극장 ㅇ 내용 – 근대 역사적 배경 및 대중 음악을 통한 당대 여성상 – 당대 대중음악의 현대적 편곡 및 연주와 함께 인문학 ■ (영화상영)문화다양성 공공영화 상영회 '영화방 수다방' 특별상영회 ㅇ 일시 : '19.5.25.(토), 10:00 ㅇ 장소 : 서산문화원 ㅇ 내용 – 노인 · 청소년 등 2개 분야로 구성된 영화 상영회 – 감독과의 대화, 문화다양성 캠페인, 오픈 마이크 등 진행
충북문화재단	충청권 문화다양성 정책포럼	■ (포럼)제2회 충청권 문화다양성 정책 포럼 ㅇ 일시 : '19.5.21.(화) 14:00 ㅇ 장소 : S컨벤션(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ㅇ 내용 : 충청권 문화다양성의 현재와 미래
	무지개 꽃이 피었습니다	■ (체험, 교육)생애주기 문화다양성 인식확산 프로그램" 소통하는 우리, So 通" ㅇ 일시 : '19. 5월 중 ㅇ 장소 : 충청북도 권역별 도서관 ㅇ 내용 : 강의와 체험이 결합된 형태로 강사와 참여자들 간의 소통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강의 및 체험〉 – 세계 각국의 문화다양성 동화를 주제로 강의와 동화 속 주인공 체험을 통한 생애주기 특강 〈소통및 공감하기〉 – 체험을 통해 참여자가 느낀 점을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기
충주 중원문화재단	2019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함께 끄는 리어카』	■ (캠페인)함께 끄는 리어카 ㅇ 일시 : '19.5.21.(화), 14:30 ㅇ 장소 : 충주시청 탄금홀 ㅇ 내용 – 문화다양성 동화 강의 (강사 박미숙, 문화기획협동조합별책부록 이사)를 통해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함께 찾아가는 주제의 참여형 프로그램 – 문화다양성 캠페인(문화감수성 테스트, 내가 생각하는 문화다양성 노트, 문화다양성 도서 전시)

'문화예술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사업은 우리사회의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세계화로 인한 이주 증가, 1인가구와 고령인구의 급증, 지역 간 · 계층 간 격차의 심화 등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배경이 다양해지고 있는 정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제고하고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유 · 초등학교 대상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교원 대상 직무연수, 전문인력 대상 맞춤형 문화다양성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에 문화기관 종사자, 초중등교사, 언론종사자 대상의 커리큘럼을, 2013년에는 기업종사자, 행정인력 대상의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연수를 운영하였으며, 2014년에는 일반인과 대학생 대상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그동안 개발된 커리큘럼 및 교안을 활용하여 행정인력, 기업종사자,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대상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5년은 본격적인 문화다양성법 시행 첫 해로, 기존 커리큘럼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교과적 적용이 가능한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지침서'를 제작 · 배포하였으며, 본 지침서를 통해 문화다양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교육의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문화다양성 교육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 · 초등생 및 중 · 고등생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학습지도안과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유 · 초등 3종, 중 · 고등 2종), 시범운영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2016년에는 교육 및 문화현장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해 문화다양성 교육이 우선시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원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원 직무연수 프로그램'(유치원 1종, 초등학교 1종)을 개발하였으며, 전국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교육 연수'와 1박2일 집합교육과정인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교육부와 협력하여 시 · 도 교육청 공모를 통해 4개 유 · 초등학교를 선정, 최초로 '문화다양성 연구학교'를 추진하였다. 유 · 초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다양성 관점의 교육 커리큘럼 및 교안, 학습자료 개발과 교육을 통해 학생 · 학부모 · 교사로 이루어진 교육공동체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포용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초의 연구학교로 선정된 대구 성서초등학교, 김해 합성초등학교, 부산 덕천유치원, 서울 군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16년~2017년 2년간의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 커리큘럼 개발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 활동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등의 성과도 도출해냈으며, 문체부는 선정된 학교들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문화다양성과 아동교육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지원하고 관계자 간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하여 소통 · 공유 및 상호지원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7년에는 전년도에 개발된 '문화다양성 교원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해 온라인 프로그램(3H)과 오프라인 프로그램(13H)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온라인 연수(3H) 및 오프라인 집합연수(12H)를 운영하였다. 지역 현장을 찾아가서 진행하는 맞춤형 교육을 총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심화과정으로 1박 2일 집합연수를 운영하였다.

2018년~2019년에는 제2기 문화다양성 연구학교로 부산 현곡초등학교, 경기 능원초등학교, 광주교대부설초등학교, 충북 금왕유치원이 선정되어 1기 연구학교의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문화다양성 연구학교를 이어갔다. 특히, 유아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의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나 2019년 충북 금왕유치원의 연구학교 결과물을 우수사례집('나답게 너답게')으로 제작하여 전국 유아교육기관과 시 · 도 교육청에 배포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 대상 직무연수, 찾아가는 연수 및 집합연수도 예년과 같이 추진하였다.

그림 3-1-5 2019년 충북 문화다양성 연구학교–금왕유치원(좌), 문화다양성 집합연수(우)

표 3-1-12 2019 유치원 및 초등 교원 대상 문화다양성 직무연수 운영 내용

연수대상	구분	구분	기수	일정	시간
전국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원	온라인 + 오프라인 연수	오프라인	1기	2020년 1월 13일 ~ 1월 14일	12H
			2기	2020년 1월 15일 ~ 1월 16일	12H
		온라인	4기	2020년 1월 6일 ~ 1월 16일	3H
	온라인 연수	온라인	1기	2019년 12월 2일 ~ 12월 8일	3H
			2기	2019년 12월 9일 ~ 12월 15일	3H
			3기	2019년 12월 16일~ 12월 22일	3H
			5기	2020년 2월 3일 ~ 2월 16일	3H

표 3-1-13 2019 문화다양성 집합연수 운영 내용

회차	일정	연수대상	연수장소
1차 연수	2020년 1월 6일(월)~7일(화)	교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문화재단관계자 등	부산 호메로스 호텔
2차 연수	2020년 1월 16일(목)~17일(금)		전주 영화호텔
3차 연수	2020년 1월 20일(월)~21일(화)		서울 하자센터
4차 연수	2020년 1월 30일(목)~31일(금)		대전 나무호텔

(2) 다양한 문화 간 교류 및 소통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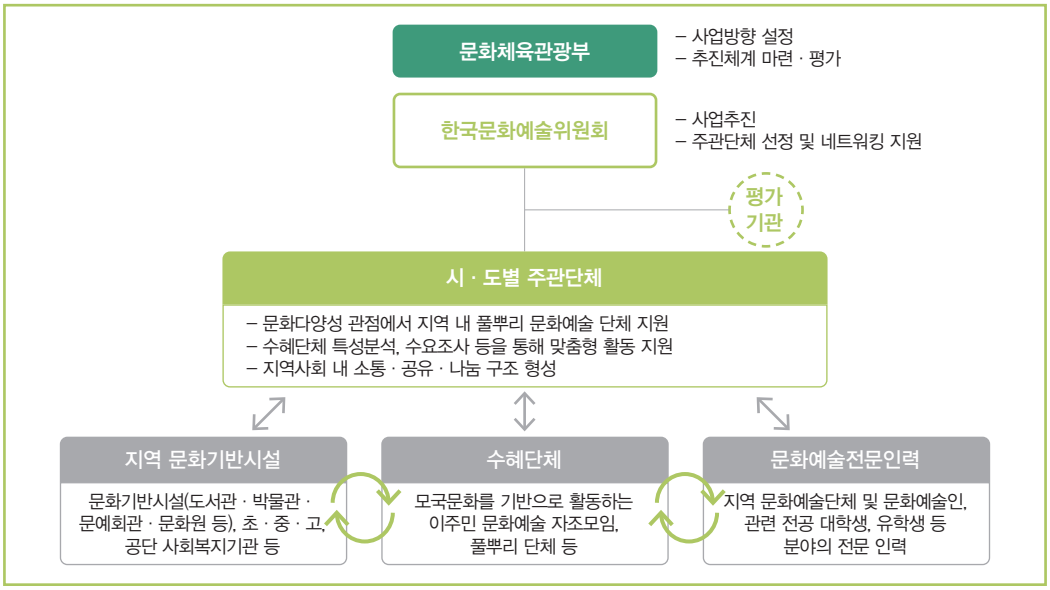
다양한 문화 간 상호 이해를 위한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무지개다리 사업'은 지역 내 이주민, 선주민, 탈북민, 외국인근로자, 청소년 등 다양한 문화주체들의 문화적 표현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을 매개로 함께 어울리며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문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표 3-1-14 무지개다리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개요	지역 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다문화, 소수문화, 세대문화, 하위문화, 지역문화 등 다양한 문화 및 문화주체들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공공문화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이주민 단체, 문화단체 등과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다양성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
사업 목적	1. 국민 제반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및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사업 증진 2. 문화 간 교류, 소통, 상호작용을 통한 능동적 문화 주체로서의 문화적 소수자의 역할 확대 3. 지역 내 자생적인 문화다양성 기반의 사업 개발 및 정착
주요 특성	1. 이주민 등 문화적 소수자들의 주체적 문화표현 활동 2. 다양한 문화주체들 간 소통 및 교류 활동 3. 생활문화, 대중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4.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 5. 사업기획 및 관리, 컨설팅, 네트워크 체계 구축 6. 지역사회와 단체 및 개인 간의 문화다양성 기반 네트워크 구축

무지개다리 사업은 2012년 다문화이해 차원에서 6개 지역 대상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2013년에는 전국 12개 지역, 2014년 17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5년에는 문화다양성 법률에 기반('14. 5. 28. 제정, 11. 29. 시행)하여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여성 · 도시이주민 · 세대(노인, 청소년) 등 소수문화계층의 문화 표현 기회 확대와 지역의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을 전국 23개로 확대하였다. 이후 2016년 24개 지역, 2017년 25개 지역, 2018년 27개 지역, 2019년 26개 지역 등 지속적으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3-1-6 공연 나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개념



무지개다리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단체 선정 및 네트워킹 지원 등 사업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집단 또는 문화주체의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전국 공공지역문화기관을 통해 공연 · 전시 등 맞춤형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 간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각 지역 주관기관들은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전문인력 등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무지개다리 사업은 전국 26개 공공문화기관에서 1,333개 협력단체와 함께 총 22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연간 297,724명(주간행사 114,463명 포함)이 각 지역에서 추진된 축제, 강연, 워크숍, 상영회,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참가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평균은 85.9점(100점 만점)으로, 특히, 직접 만족도가 88.5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재참여 의향 85.9점, 타인에게 추천 의향 83.6점으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다.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도움이 되는 지점을 묻는 설문을 청소년과 성인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다른 문화의 사람 또는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84.1점)과 '자신의 생활'(82.7점), '관련 정보의 취득'(82.3점)을 가장 높게 응답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취득 등을 통해 자기표현, 타인에 대한 이해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5 **무지개다리 사업 연도별 추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	시범사업	2,270백만원	2,470백만원	2,430백만원	2,584백만원	2,430백만원	2,309백만원	2,231백만원
참여 (기관 수)	6개(시범)	12개	17개	23개	24개	25개	27개	26개
참가자 수* *연중 프로그램 참가자 수	33,193명	124,812명	36,369명	108,839명	187,012명	226,321명	318,730명	297,724명
만족도 ('13~'17) 인식제고정도 ('18년~)		80점	85점	86점	87점	89점	78.9점	76.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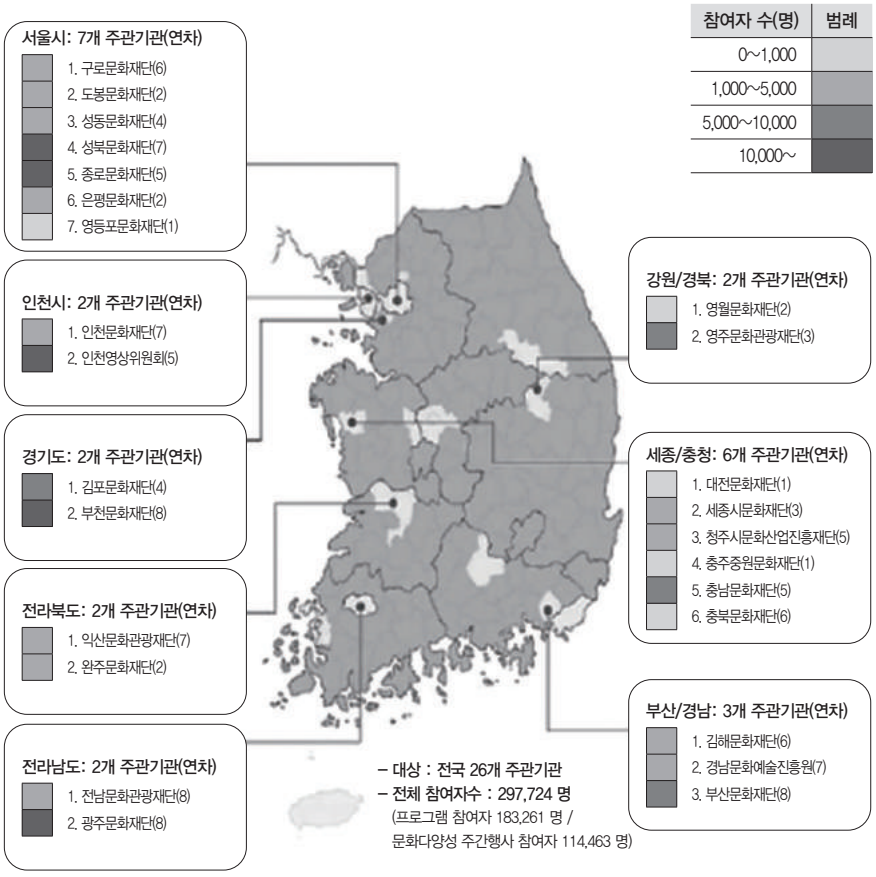


표 3-1-16 2019년 무지개다리 사업 참여지역 및 사업명

연차 (개수)	기관명 (사업명)
1 (3)	대전문화재단 (우리多문화人)
	영등포문화재단 (우정과 환대의 영등포)
	충주중원문화재단 (무지개다리 리어카)
2 (4)	도봉문화재단 (다양성연구소)
	완주문화재단 (다름의 가치)
	영월문화재단 (영월 문화 다방)
	은평문화재단 (은평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똑똑")
3 (2)	세종시문화재단 (多화만사성)
	영주문화관광재단 (잇다, 그리고 있다. 연결하다, 그리고 이미 共存한다)
4 (2)	김포문화재단 (多幸 – 다양한 행복)
	성동문화재단 (문화다양성마을 – 다양성洞)

연차 (개수)	기관명 (사업명)
5 (4)	인천영상위원회 (디아스포라영화제)
	종로문화재단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다양성에 스미다)
	충남문화재단 (서로, 소리)
6 (3)	구로문화재단 (구로채운_사이의 공동체를 이어내는 문화자주성)
	김해문화재단 (문화공존 김해 ; 다양성을 그리다)
	충북문화재단 (오색빛깔 조약돌)
7 (4)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따로 또 함께_문화다양촌(村) 경남)
	성북문화재단 (문화다양성, 동네가 우주다!)
	익산문화관광재단 (문화로 소통하는 다다익산(多多익산))
	인천문화재단 (천 개의 마을, 천 개의 문화)
8 (4)	광주문화재단 (우리누리(URI_N_URI))
	부산문화재단 (공감 메이커)
	부천문화재단 (부천다양성 다다(多多))
	전남문화관광재단 (남도 오작교 가장자리를 잇다 II)

무지개다리사업 8년차를 맞아 그 간 전국 여러 지역에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2018년 말 기준으로 13건이 제정된 데 이어 2019년 한 해 동안 5건의 조례가 추가 제정 · 공포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 인식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17 문화다양성 조례제정 현황

구분	연번	지역	시행일	조례명
지방 자치 단체	1	전라남도	2016. 12. 1.	전라남도조례 제4121호)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	광주광역시	2017. 1.1. 제정 2018. 7. 24 .개정	광주광역시조례 제5111호)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3	목포시	2017.2.13. 제정 2018. 12.17. 개정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198호) 목포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4	경기도	2017. 3. 13.	경기도조례 제5488호)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5	부산광역시	2017. 4. 23.	부산광역시조례 제5552호)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6	서울특별시	2017. 5. 18.	서울특별시조례 제6495호)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7	제주특별자치도	2017. 6. 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60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8	충청북도	2017. 11. 10.	충청북도조례 제4098호)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구분	연번	지역	시행일	조례명
지방 자치 단체	9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7. 11. 16.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29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10	전라북도 익산시	2017. 11. 30.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715호)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8. 1. 5.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 128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12	전라북도	2019. 4. 5.	전라북도조례 제4634호)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3	충청남도	2019. 7. 10.	충청남도조례 제4538호) 충청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14	경상남도 김해시	2019. 10. 4.	김해시조례 제1449호)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15	세종특별자치시	2019. 12. 16.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432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16	전라남도 신안군	2019. 12. 19.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234호) 신안군 1004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지역 교육청	17	경기도 교육청	2017. 6. 14.	경기도조례 제5625호)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18	경상남도 교육청	2017. 12. 28	경상남도조례 제4418호)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이러한 오프라인 사업 외에도 온라인에서의 문화 간 교류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 미디어 소통채널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문화다양성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다양성 관련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 외 문화다양성 자료 수집 및 보존 체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공기관 생산 자료에 접근성, 활용성, 검색 편의성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2012년에는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기록관리 시스템과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관련 기록물 디지털화 및 메타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2013년에는 시스템을 리모델링하고 무지개다리 사업 등 연관 사업들의 정보가 아카이브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에는 사용자 편의를 위한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시스템에 대한 메뉴체계를 전면 개편하였고, 문화다양성 관련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정리, 수집, 입력하여 홈페이지 내에서 약 3,000여건의 콘텐츠를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5년은 안정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콘텐츠를 탑재하였다.

2016년에는 아카이브 자료 통계 수립 방법을 체계화하고 생성 자료를 재정비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지개다리 사업 등 정부 정책사업 관련 자료를 보다 폭넓게 발굴, 탑재하고 있다. 2018년 12월 기준 문화다양성 아카이브를 통해 총 4,022여건의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고, 2019년에는 모바일 기기에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사이트 개편을 진행하였다.(문화다양성 아카이브, http://www.cda.or.kr)

(3) 문화체육관광부의 범부처 협력 다문화 · 외국인 정책 사업

범부처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및 외국인정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적 지원 중심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문화예술, 체육, 관광, 미디어, 종교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영역을 적극 활용하고, 문화기반 시설 내 자연스러운 문화체험 활동 중심의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국인의 실질적인 태도의 변화와 인식개선을 유도하는 등 타 부처의 사업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① 인식개선 및 문화교류(무지개다리 사업, 문화다양성 교육), ② 한국어교육(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자료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개발), ③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도서관 내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④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제공) ⑤관광활성화 및 품질제고(MICE 연계관광 및 의료 · 환승 · 크루즈관광 활성화, 유치대상국 다원화 및 관광편의 · 품질 제고)등이 있다.

3)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

국가 경제의 성장에 비해 개인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은 향상되지 못하고, 타인과 사회에 대한 불신과 함께 공동체 해체 위기가 대두되면서 인간에 대한 성찰과 삶의 지혜 함양을 본질로 하는 인문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통한 문화정체성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인문정신문화 진흥정책은 이러한 사회상에 대응하여, 인간 본연의 가치를 회복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문정신문화는 인문학적 지식의 단편적 습득에 집중하기 보다는 인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고민하고 공유하는 가치 지향적 개념이다. 따라서 인문정신문화 진흥정책은 사회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문화 · 체육 · 관광 ·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영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사람 사이의 자연스러운 교감, 일상과 사물에 대한 상시적 성찰을 통해 삶의 실천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의 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단편적 지식습득, 분절된 교과목에 국한된 인문학의 외연을 생활 전반으로 확장하고, 일상 속에서 인문적 가치가 녹아들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1) 인문정신문화 진흥 토대 구축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2](2016년 8월 4일 시행)에 따라 교육부와 공동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구성하고,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범정부 종합계획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17~'21)」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 동 법률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관련 학계와 현장전문가 등의 의견과 다양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인문학 진흥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공통 비전을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고, "인문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과 "인문 진흥 및 사회적 확산"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정책영역을 대학 내 인문학 연구뿐만 아니라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진흥으로 확장하여 국민들이 '교양을 내면화하고 삶에서 실천'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기초 인문역량을 강화' 하는 것에 집중하여 3대 전략과 7대 중점과제를 수립하였다.

또한, 인문정신문화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4~2018),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7~2021), 문학진흥기본계획(2017~2021) 등과 연계하여 관계 부처 ·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유도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2017년 이후 매년 중앙부처 및 시도 · 시도 교육청별로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인문정신문화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17.1.25.)하여 국가 차원의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림 3-1-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 전략

비전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 향상	
목표	◈ 인문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 ◈ 인문 진흥 및 사회적 확산	
분야	인문학 진흥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략 및 중점 과제	① 생애주기별 체계적 · 연속적 인문교육 • 초 · 중등 인문소양교육 체계화 • 모든 대학생 대상 인문교양교육 강화 • 평생교육기관 및 소외계층 인문교육 확대	④ 주체적 인문소비 강화 • 인문 본질을 강화한 프로그램 제공 • 인문활동의 자생력 신장
	② 인문학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다양화 등 지원 • 인문학 후속세대 교육 · 연구 안정적 지원 • 인문학자 연구 지원 내실화 • 인문학 교육 · 연구 거점으로서 HK연구소 육성	⑤ 인문 친화적 환경 조성 • 공간의 인문적 활용 촉진 • 문화기반시설의 매개역량 강화
	③ 연구 성과의 확산을 통한 인문학 대중화 • 국내 인문학 대중화 기반 마련 • 인문학 성과의 글로벌 확산 기반 마련	⑥ 장기적으로 사회 · 경제 발전에 기여 • 사회적 화두에 적극 대처 • 인문의 산업적 활용 및 국제적 확산 • 장기 실효성 담보를 위한 기반 정비
	⑦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행 · 재정적 기반 구축 • 범정부 협업 강화 및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 전담 조직 운영 • 안정적 인문 진흥을 위한 법적 · 재정적 기반 확보	

(2)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확대

'인문정신문화'는 가치 지향을 담은 '인문'과 '정신문화'를 결합한 용어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지적 · 정신적 활동 및 유형 · 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인문정신문화가 국민 생활 속으로 확산되어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문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화기반시설인 도서관과 박물관, 생활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인문강좌와 지역 현장체험을 결합한 '길 위의 인문학', 은퇴인력 중심의 선배 세대가 청소년, 군인 등 새내기 세대와의 인문적 소통을 통해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인생나눔교실' 등의 인문 프로그램 운영과 국민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인문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인문정신문화 온라인서비스 인문360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①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전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인문자산을 재해석하고 강연과 탐방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2013년 시작하여 2019년 7년차에 이르면서 참여자로부터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전국 400여개의 도서관에서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에 맞춘 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문학의 대중화와 일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참여도서관은 2013년 121개 도서관에서 2019년 409개 도서관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2019년에는 409개 도서관에서 5,207회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총 131,454명이 참여하였다.

표 3-1-18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연도별 사업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참여 도서관 수(관)	121	180	340	353	403	404	409
운영횟수(회)	594	1,538	2,979	3,823	5,030	5,464	5,207
참여자수(명)	21,977	48,193	98,530	127,243	138,519	136,230	131,454

특히 고전 함께 읽기와 자서전 쓰기 등 심화과정은 '17년 68개관에서 '19년 80개관으로 확대되어 인문의 본질적 사유와 성찰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자유학기(학년)제와 연계한 20개 도서관에서는 미래세대의 청소년이 인문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표 3-1-19 2019 도서관「길 위의 인문학」기본 프로그램 유형별 내용

프로그램 유형	내 용
자유기획형	– 사회통합, 미래변화 등 사회적 주요 이슈를 주제로 독서, 강연 및 토론, 탐방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프로그램 기획 – 기타, 문학, 미술, 음악, 건축, 영화, 과학(4차 산업혁명 및 인공지능), 생태환경 등 다양한 주제별 강연과 탐방(체험) 융합프로그램 기획 – 지역의 인문콘텐츠(역사, 인물, 전설 등)활용 프로그램 기획 – 10회 이상(강연 6회, 탐방/체험 3회, 후속모임 1회) 운영
자유학년제	–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는 인근 중학교와 지역도서관이 협업을 통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 및 진로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함께 읽기	– 다양한 주제 도서를 선정해 참여자가 함께 읽고 토론과 소통을 거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문 심화 프로그램을 기획 – 20회 이상(후속모임 포함) 운영
함께 쓰기	– 설정된 인문 주제에 맞춰 참여자가 각자의 의견과 이야기를 모아 글쓰기로 이어지는 참여형 심화 프로그램을 기획 – 20회 이상(후속모임 포함) 운영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기본 프로그램 외에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대상을 직접 찾아가는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기업체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직장인 인문학'이 2016년부터 4년째 운영되고 있고, 2018년부터는 행복주택을 찾아가 청년들의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인문학', 청소년 및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찾아가 인문강연과 문화공연을 융합하여 인문적 주제를 전달하는 '다원인문콘서트'를 진행하였다. 그 밖에도 2019년에는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은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문문화행사 '인문공감 2019'를 개최하였다. 또한 지역 인문대학의 수준 높은 교육 자원을 활용한 인문심화과정인 도서관 지혜학교를 9개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2,235명이 참여, 수준 높은 인문학 학습에 대한 정책수요에 부응하였으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그림 3-1-8 2019년 충북 문화다양성 연구학교–금왕유치원(좌), 문화다양성 집합연수(우)

찾아가는 직장인 인문학

청년 인문학

다원인문콘서트

도서관 지혜학교

인문공감 2019

표 3-1-20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특별 프로그램(2019)

구분	찾아가는 직장인 인문학	청년 인문학	도서관이 찾아가는 인문콘서트	도서관 지혜학교	인문공감 2019
기간	6월~11월	6월~11월	11월~12월	6월~12월	10월 18일~20일
대상	여가친화기업, 도서경영기업, 문화소외직군에 소속된 직장인	행복주택, 청년주택 등에 거주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	지역주민 및 중,고등학생 등	중장년층	전국민
규모	22개사 22회	행복주택 5곳 소모임 활동 및 인문콘서트	인문다원콘서트 5회	9개관 108회	31개 프로그램, 53,000명 참여
내용	문화향유 기회가 부족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상생과 배려 등을 통해 인문적 성찰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청년의 현재 관심사에 대해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고민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격무 취약 직업군 및 지역주민에게 융복합 인문공연 제공을 통해 삶의 성찰 계기 마련	전국 6개 국공립대학교와 9개 도서관이 협력하여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인문 심화과정 운영	시민들의 인문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인문 프로그램 체험 · 전시 운영, 인문 단체의 공유와 협력 도모

②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은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전국의 공 · 사립 · 대학박물관에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박물관의 유물을 통해 인류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인문학 체험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이다. 박물관 유물을 통해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일깨우고, 현장 속의 인문학, 생활 속의 쉬운 인문학 캠페인을 통해 유물과 현장, 그리고 역사와 사람이 만나는 인문학의 새로운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2014년 84개관 2,872회에서 2015년에는 121개관 5,717회, 2016년에는 124개관 6,051회, 2017년 120개관 5,664회, 2018년에는 120개관 5,723회, 2019년에는 122개관 5,601회를 운영하였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참여 박물관수(관)	84	121	124	120	120	122
운영횟수(회)	2,872	5,717	6,051	5,664	5,723	5,601
참여자수(명)	121,707	172,218	183,242	177,498	176,783	173,900

그림 3-1-9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2019)

잔아박물관

거제박물관

고흥분청박물관

그림 3-1-10 2019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홍보자료

포스터

뉴스레터

언론보도자료

③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인문활동가 양성 · 파견 사업)

2018년부터는 도서관 · 박물관 이외의 다양한 생활문화시설과 미취업 인문전공자가 협업하는 인문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활 속 인문가치 확산에 기여하였다. 2019년에는 전국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시설 외에도 민간단체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46개 생활문화시설에서 113명의 인문전공자가 강연뿐 아니라 동아리 운영, 체험 및 탐방 등 3,265회의 다양한 인문활동을 수행했으며, 26,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그림 3-1-11 2019년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사례

옥에서 즐기는 자연요리 체험
– 해남문화원 –

카빙, 나무에 흐르는 시간으로 나 읽기
– 개똥이네책놀이터 –

다문화 여성들이 모두 여는 문화방
– 조치원작은도서관

지역 어르신들의 인생보 쓰기
– 책공방북아트센터 –

특별프로그램으로는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 공모전을 통해 100팀을 선정하여 청년들 스스로 성찰하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창의적 실험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의 자생적 인문단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3년 이내의 청년 문화 · 인문단체 20개소를 선정하여 지역 내 인문 활동 수행을 지원하였다.

그림 3-1-12 2019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 우수사례

요망진 아이들 – '야, 너도 제주어 할 수 있어!'
점점 소멸되는 제주어를 기억하기 위해 방언집을 제작하고,
방언집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방언 수업을 진행

상상공작소 – '치유 글쓰기 공작소'
탈북민을 대상으로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짐

④ 인생나눔 교실 운영

인생나눔교실은 은퇴자 및 은퇴를 앞둔 신중년 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고민에 부딪히는 아동 ·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주는 멘토링 사업으로,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019년에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195명의 인생나눔 멘토가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간 5개 권역에서 3,343명의 멘티(243개 그룹)를 만나 인문을 바탕으로 한 소규모 멘토링을 2,953회 진행하여 세대 간의 진솔한 정서적 교류를 이끌어 냈다.

표 3-1-21 인생나눔교실 멘토링 추진 경과(2015~2019)

연도	선발 멘토 수	멘티 수(그룹 수)	멘토링 횟수
2015	250명	5,621명(270개 그룹)	2,143회
2016	250명	5,636명(305개 그룹)	2,846회
2017	250명	4,653명(296개 그룹)	3,408회
2018	254명	4,196명(320개 그룹)	3,917회
2019	195명	3,343명(243개 그룹)	2,95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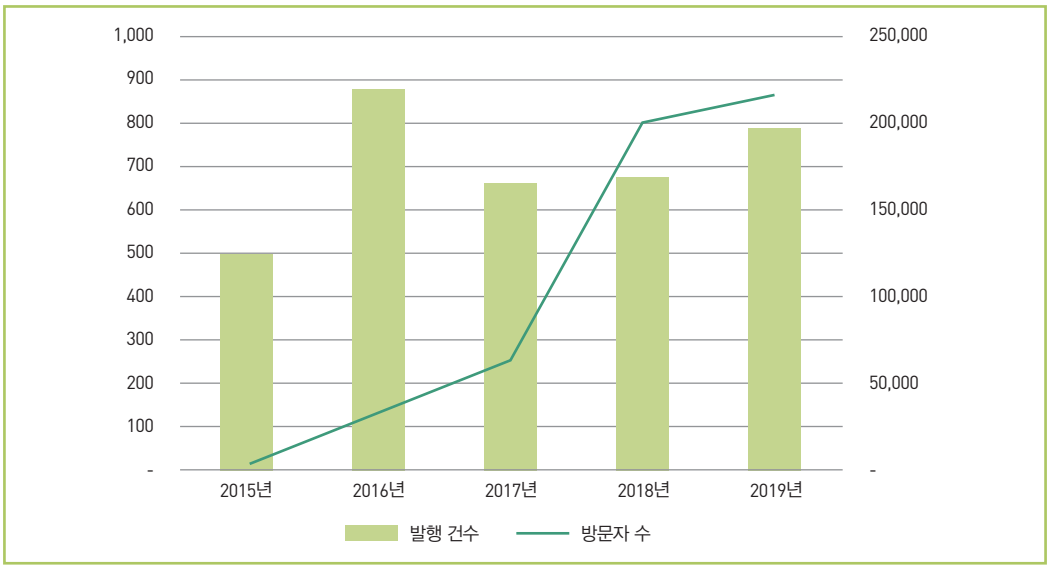
특히 2019년에는 자유기획 사업을 확대하여 기존 멘토링 형태에서 벗어나 은퇴세대의 인생나눔 활동을 위한 소모임 210개 1,111명을 지원하고,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이 의외의 장소에서 만나 음식과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인생식탁' 프로그램을 연간 10회 진행하여 인생나눔 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1-13 인생나눔교실 운영(2019)

⑤ 인문정신문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소외지역, 시간부족 직장인 등 누구나 쉽게 인문정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인문정신문화 온라인서비스 '인문360°(http://inmun360.culture.go.kr)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12월 출범 이후 주제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칼럼, 지역인문활동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연방문자 21만명, 57.6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웹사이트의 메뉴 체계를 개편하여 사용자 편의와 직관성을 증진하였고, 온라인을 통한 인문 담론의 생성과 발신지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일상의 공간에서 인문을 체험할 수 있는 '골목콘서트', 우리 사회의 화두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생각을 나누는 '인문예술콘서트 오늘' 등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온라인으로 서비스하였다.

그림 3-1-14 인문360도 연간 방문자수 및 콘텐츠 발행 건수



(3) 책 읽는 사회분위기 조성

올바른 독서습관에 의해 형성되는 합리적 사고력, 정서안정, 심리 치유, 교양 함양, 타인에 대한 배려심은 품격 높은 선진사회 발전의 기초라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년~2023년)〉에 의거하여 책 읽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된 주요 사업은 인문독서 아카데미, 대한민국 독서대전, 소외계층 독서활동지원(교정시설 독서활동지원,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독서동아리활동지원, 청소년 독서토론 한마당,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병영독서활성화지원 등이다.

인문정신 고양을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서 시작된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전국 85개 수행기관에서, 2019년 한 해 1,292회 진행되었으며 46,445명이 참여하는 실적을 보였다.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문화원, 서원 등 지역문화시설을 연계하고 지역의 우수 강사를 발굴하여 시민 친화적 인문 독서 교육이 진행함으로써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와 프로그램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15 대한민국 독서대전(2019)

또한, 9월 독서의 달을 계기로 시민 참여형 독서문화예술 축제 모델을 구축하고자 마련된 독서대전은 2014년 군포, 2015년 인천, 2016년 강릉, 2017년 전주, 2018년 김해에 이어 2019년에는 청주에서 개최되었다. 8월 30일에서 9월 1일까지 진행된 제6회 대한민국 독서대전에는 전국 300개의 독서 · 출판 관련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행사와 공연, 전시, 체험 및 학술토론 등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 총 13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독서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소외계층 독서활동도 활발히 지원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 대상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보호시설 5곳을 포함한 25곳의 교정시설에서 3,840명이 참여하였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사업을 통해 실버세대가 독서를 매개로 문화소외계층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기도 하였다. 총 200개 기관에서 시행된 동 사업은 202명의 독서봉사자가 2,400회에 걸쳐 활동하면서 36,564명에 이르는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책읽어주기 활동을 지속하였다.

그림 3-1-16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지역, 직장, 학교 등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독서동아리를 발굴 · 지원 · 육성하여 일상 속 책 읽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전국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사업도 진행되었다. 지역 안배를 고려한 400개 독서동아리를 선정하여 활동지원금 및 멘토링을 지원하고, 동아리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국 독서동아리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전국 한마당에는 독서동아리 회원 및 멘토 등 250여명이 참가하여 활동우수사례 공유 등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일상 속에서 독서와 공동체의 가치를 환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3-1-17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직장은 성인들이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또한, 직장 내 도서실이 있는 경우 연평균 독서량이 도서실이 없는 직장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2014년부터 직장인 독서 장려 정책으로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03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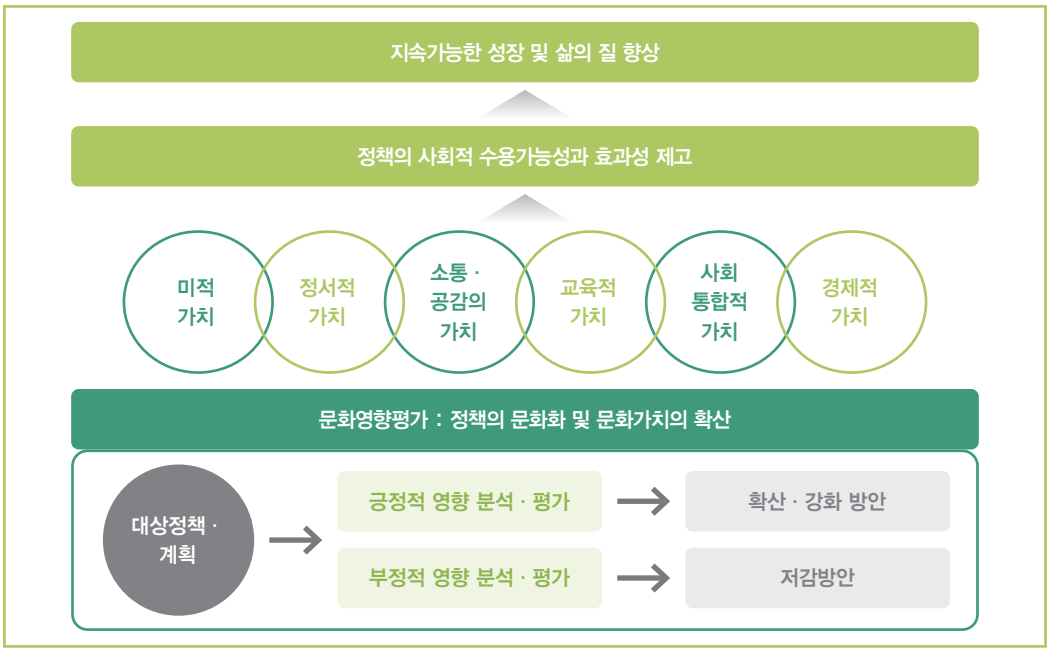
장병들에게 다양한 독서기회를 제공하고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해주는 병영독서활성화 사업은 2018년보다 40개 부대가 증가된 300개 부대를 대상으로 전개하였으며, 총 2,100회의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참여 병사의 만족도가 높아 독서코칭 종료 후에도 자발적인 독서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져 장병 간의 소통문화를 확산하고 병영 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4) 문화영향평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긍정적 영향을 강화 · 확산시키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문화영향평가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및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 권리의 침해나 문화경관의 파괴, 공동체의 상실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당 정책에 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의 문화화(문화로 옷 입히기)'를 통해 정책의 사회적 수용가능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문화역량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3-1-18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목표



(1) 공공정책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문화부문의 핵심 전략에 포함되면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구상되기 시작했으며 2013년 12월 「문화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 되었다. 이에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9개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계획에 대해 시범평가가 진행되었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15건의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4건의 전문평가를 수행, 이외에도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는 소관기관이 직접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자체평가'(1건)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다.

2018년도에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과 문화 향유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중점으로 문화영향평가를 확산 시행하였다. 또한 평가의 기본 방식인 전문평가의 경우 고비용 ·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대상이 되는 계획 및 정책의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진단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제언하는 약식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실시하였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영향평가는 총 35건으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23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조성사업(7건)과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2건),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1건), 서울시 금천구의 빈집프로젝트(1건), 경기도 광명시의 에코디자인창업지원센터 사업(1건)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평가 대상의 다양화를 시도하여 문화영향평가의 영역 및 저변을 확대하였다.

표 3-1-22 문화영향평가 수행 건수(2016~2019)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기준, 단위: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문평가	15	14	25	17
약식평가	–	–	10	18
기 타	–	1[1)]	–	–
계	15	15	35	35

주 1): 2017년 기타 1건은 행정기관의 자체평가 활성화를 위해 점검표를 활용한 약식평가를 추구하였으나, 평가 과정 및 결과물이 약식평가의 특성과 차이를 보여 기타로 처리함.

이를 통해 타 분야 공공정책에 대해 문화향유, 표현 및 참여,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공동체, 문화다양성,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 문화영향평가 핵심지표(6개) 및 특성화 지표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영향과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제3자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공공정책 담당자들이 정책을 수립 · 시행함에 있어 문화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상과제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1-23 문화영향평가: 연도별 문화영향평가 시행 내역

○ 2014년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연구(4건)

연번	평가대상 정책	소관기관
1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문화체육관광부
2	산업단지 ·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3	도시재생 정책	국토교통부
4	행복주택 정책	

○ 2015년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연구(5건)

연번	평가대상 정책	소관기관
1	세운상가 활성화(재생) 종합계획	서울시
2	새뜰마을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3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중소기업청
4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서울시
5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강원도

○ 2016년 문화영향평가(15건)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진행

–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체계 구축

연번	대상과제	소관	비고
1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제주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2	안동시 중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북 안동	
3	광주 동구 도시재생사업	광주 동구	
4	광주 서구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광주 서구	
5	대구 남구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사업	대구 남구	
6	농촌체험 · 휴양마을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7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8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경기도	
9	소통과 혁신의 경기도 신청사 건립	경기도	
10	인천시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인천시	
11	고양 삼송지구 대학생 연합 기숙사 건립 및 운영	교육부	
12	경기청년 협업마을 조성 · 운영사업	경기도 시흥시	
13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청	

연번	대상과제	소관	비고
14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재청	
15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제주도	계획에 대한 평가

ㅇ 2017 문화영향평가(전문평가 14건, 자체평가 1건)

– 전문평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 대상으로 중점 추진

연번	대상과제명	소관	비고
1	대전광역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대전시	도시재생사업
2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제천시	도시재생사업
3	옛길,맛길,물길 어우러진 소양 문화마을 만들기	춘천시	
4	창원시 여좌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창원시	도시재생사업
5	문화평야 김해 도시재생사업	김해시	도시재생사업
6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도시재생프로젝트	부산시 서구청	도시재생사업
7	강릉문학관건립 및 문학공원 조성사업	강릉시	
8	고도(古都) 이미지 찾기 사업	문화재청	
9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조성사업	원주시	문화도시사업
10	남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형)	남원시	문화도시사업
11	서울시 50+ 지원 종합계획	서울시	
12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서울시 동대문구청	도시재생사업
13	소통과 화합의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	경기도	
14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부천시	

– 자체평가: 시범평가 1건

연번	대상과제명	소관
1	광주비엔날레	광주광역시/(재)광주비엔날레

ㅇ 2018 문화영향평가(전문평가 25건, 자체평가 10건)

– 전문평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대상으로 중점 추진(21건)

연번	대상과제명	소관	비고
1	시간, 자연, 공간, 사람의 단절을 잇는 '구포 이음'	부산 북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7년 선정 사업지)
2	수원시 도시재생, 125만 수원의 관문으로 通하다	경기 수원시	
3	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조치원 Ver.2	세종 조치원	
4	지역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UP 프로젝트	대전 대덕구	
5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인천 부평구	
6	SLOW & SMART CITY, 남양주 원도심 역사문화 재생사업	경기 남양주시	

연번	대상과제명	소관	비고
7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	경기 시흥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17년 선정 사업지)
8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남 목포시	
9	몽미락(夢 · 味 · 樂)이 있는 청사뜰	전남 순천시	
10	다시 열린 "군산의 물길" 그리고 "째보선창으로 밀려오는 3개의 큰 물결"	전북 군산시	
11	역사가(驛史街) 문화로(文化路)	전북 익산시	
12	지역 특화산업(떡 · 차 · 면 · 술)으로 살리는 시민경제도시, 정읍	전북 정읍시	
13	新경제 · 교통 중심의 복합스마트거점공간 천안역세권	충남 천안시	
14	새로운 시작! 함께 채워가는 미래도시 포항	경북 포항시	
15	사람, 별, 말이 어울리는 영천대말	경북 영천시	
16	포용과 화합의 무계	경남 김해시	
17	올림픽의 도시, KTX시대 옥천동의 재도약	강원 강릉시	
18	젊음을 공유하는 길, 경제를 공유하는 길, 우암동	충북 청주시	
19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대구 중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8년 선정 사업지)
20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광주 북구	
21	천년 SAM(Sea Art Museum)첵! 아트피아	강원 삼척	

– 전문평가: 기타사업(4건)

연번	대상과제명	소관	비고
1	김해시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	경남 김해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사업
2	영천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조성사업	경북 영천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사업
3	경주 「월성(신라왕궁)」 복원 · 정비사업	문화재청	
4	원주천 댐 건설사업	강원 원주시	전략평가

– 약식평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대상으로 중점 추진(10건)

연번	대상과제명	소관	비고
1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인천 중구 신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8년 선정 사업지)
2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인천 계양구 효성1동	
3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인천 계양구 강화읍	
4	만년의 기원, 만인이 편안한 도시 만안(萬安) 석수	경기 안양시 석수2동	
5	내덕에 심다. 함께 키우다. 우리가 살다.	충북 청주시 내덕1동	
6	역말 공동체! 만남마을	충북 음성군 음성읍	

연번	대상과제명	소관	비고
7	역사와문화가숨쉬는동남리향교마을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18년 선정 사업지)
8	고창읍 모양성 스마트마을	전북 고창군 고창읍	
9	태인동 과거 · 현재 · 미래를 열다! "始作"	전남 광양시 태인동	
10	다시 돌앙 살고 싶은 남성마을	제주시 삼도2동	

ㅇ 2019 문화영향평가(전문평가17 건, 자체평가 18건)

– 전문평가: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17건

연번	대상과제명	소관	비고
1	모인다, 보여준다, 재생한다 "三和" 새로운도전! 홍도마을 공동체 살리기	강원 동해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2	거인문화가 스며든 맘(Mom)드림(Dream)생태마을	경남 김해시 내외동	
3	거제시 옥포동 도시재생활성화	경남 거제시	
4	감호권역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경북 김천시	
5	진주시 역사문화 도시재생 Enjoy the City!! 매력공감 원도심 만들기	경남 진주시	
6	금천구 빈집프로젝트	서울 금천구	시 · 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선정사업 (서울시)
7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정의 · 평화 · 생명의 거리조성」	강원 원주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문화재청)
8	오산시 이음문화 특화 문화도시 조성사업	경기 오산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체부)
9	나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남 나주시	
10	정읍 문화도시 조성계획	전북 정읍시	
11	진심(晉心)으로 통하는 공감 문화도시 진주	경남 진주시	
12	도시 그 자체가 예술, 통영	경남 통영시	
13	제주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제주 제주시	
14	강릉 문화도시 조성사업	강원 강릉시	
15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수원 문화도시 만들기–	경기 수원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체부)
16	춘천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	강원 춘천시	
17	신규 경기 문화 창조 허브 운영 –에코 디자인 창업 지원센터–	경기 광명시	지자체 사업

– 약식평가: 도시재생뉴딜사업 18건

연번	대상과제명	소관	비고
1	1 · 3세대가 함께하는 왕띠마을 우리동네를 살리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경남 의령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2	하늘을 담은 행복 예술촌...골목이 주는 위로	대전 동구	
3	공동체 중심의 공유재생, 세대가 통(通)하는 두문마을	경기 시흥시	
4	강변 프로방스를 꿈꾸는 불암장어마을	경남 김해시	
5	“서로의 우산이 되는 지우산마을”	전북 전주시	
6	다시 그린(Green) 대티고개 마을	부산 사하구	
7	봉산천 흐르는 살림과모심의 우물마을 만들기	강원 원주시	
8	“동거동락 공감마을 만들기 라이프메이트 유등마을 도시재생”	경남 진주시	
9	다시 피는 삶의 터전, 동광(東光)언덕마을	경남 하동군	
10	백년의 기억, respect 솜리골	전북 익산시	
11	공(存), 공(生), 공(感)으로 만들어가는 상성마을 행복이야기	전북 임실군	
12	가재울 마을 도시재생사업	인천 서구	
13	경주시 성동 · 황오지구(관사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경북 경주시	
14	사람, 도시의 역사 그리고 장흥의 변화	전남 장흥군	
15	거창의『미래 행복』을 마디마디 담아 성장하는 밤부공동체 “죽전마을”	경남 거창군	
16	소가야 역사와 월이의 얼이 깃든, 무학마을 리뉴얼	경남 고성군	
17	수리수리 마을수리, 니캉내캉 CHANGE UP 서변마을!	경남 남해군	
18	하나로 어우러진 행복한 달비골	대구 달서구	

(2) 평가유형의 다양화를 통한 평가 역량강화

문화영향평가는 사전계획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나 2019년에 실시한 서울시 금천구의 ‘빈집프로젝트’는 사업기간이 2017~2019년으로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과정 및 사후평가에 해당됨에 따라 사업기간 이후 중장기적 영향 예측을 포함하여 평가를 시행하는 등 평가의 유형을 다양화 하여 평가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8년에 시범 실시된 약식평가(10건)의 경우 그 수를 확대하여 2019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총 18건의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약식평가 추진 방법과 운영 · 관리 등을 고도화 하였다.

평가의 운영측면에서 약식평가는 1~2개월간 빠르게 추진되는 평가로 소관기관 정책담당자가 작성한 평가서 및 사업계획서의 검토와 현장 답사 등을 통해 도출되는 문화영향평가 전문가 검토단의 의견은 검토보고서 형태로 소관기관에 전달됨에 따라 평가의 전문성 및 피평가기관의 평가에 대한 활용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5)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 활동 향유의 필요성 및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실태 파악을 통한 문화향유 경로와 방식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문화향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또한 문화향유 및 활동조사를 통해 문화수요 및 욕구를 파악하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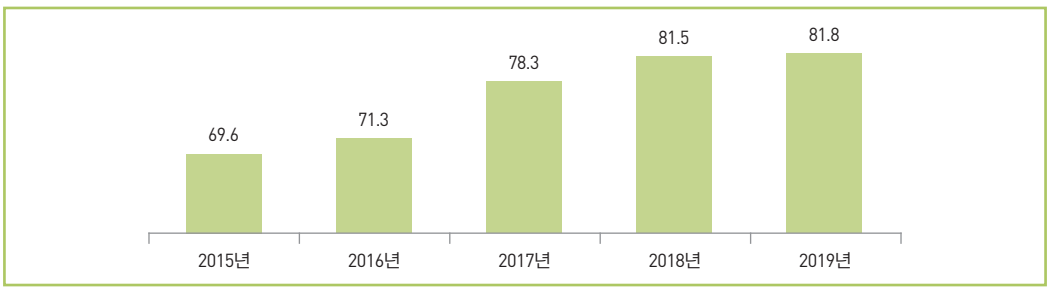
동 조사는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진행되어 오다가 2006년부터는 매 2년으로 변경 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표본수도 2천여 명에서 점차 확대하여 2014년부터는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19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전국 17개 시 · 도(제주도 및 세종시 포함)의 만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최근 1년간(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 까지) ①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② 문화예술교육 경험, ③ 문화예술활동 공간이용, ④ 문화관련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⑤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및 축제 관람 등이다. 조사방법은 가구방문을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로 총 조사기간은 2019년 9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하였다.

2019년 조사의 주요 결과, 국민의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81.8%로 '16년 78.3% 대비 3.5%포인트(p) 증가, 2018년 81.5%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03년 62.4%에서 15년 만에 19.1%포인트(p) 상승하여 2018년에는 최초로 80%대로 진입하였다.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는 지난 1년간 평균 6.3회로 '16년 5.3회에 비해 1회, '18년 5.6회에 비해 0.7회 증가했다.

그림 3-1-19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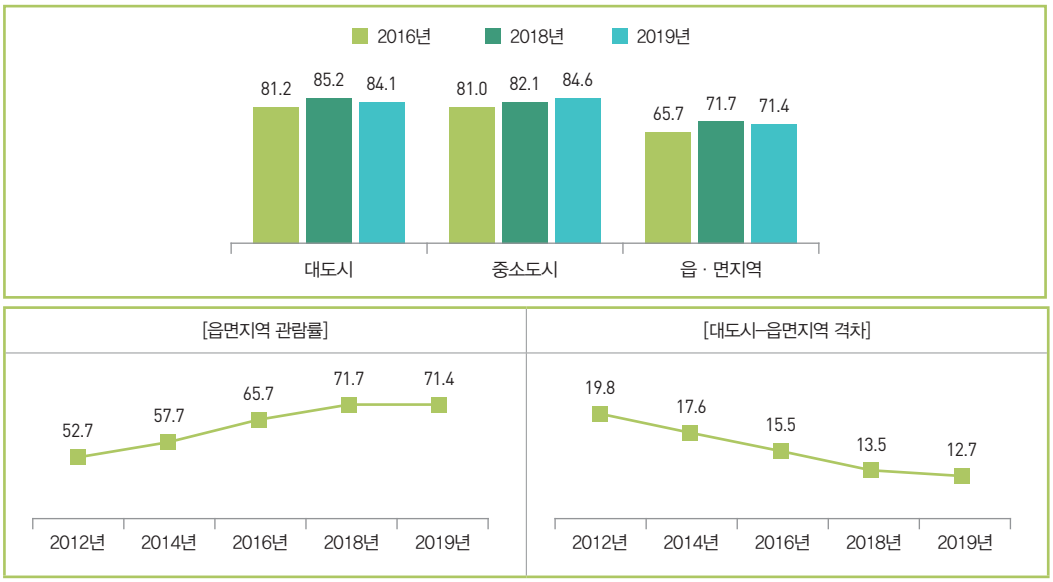
(단위: %)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9년 읍 · 면지역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71.4%로 '16년 65.7% 대비 5.7%포인트(p) 증가, '18년 71.7% 대비 0.3% 포인트(p) 감소하였다. 다만 대도시와 읍면지역 격차는 '16년 15.5% 포인트(p), '18년 13.5% 포인트(p), '19년 12.7% 포인트(p)로 점차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0 지역 규모별 관람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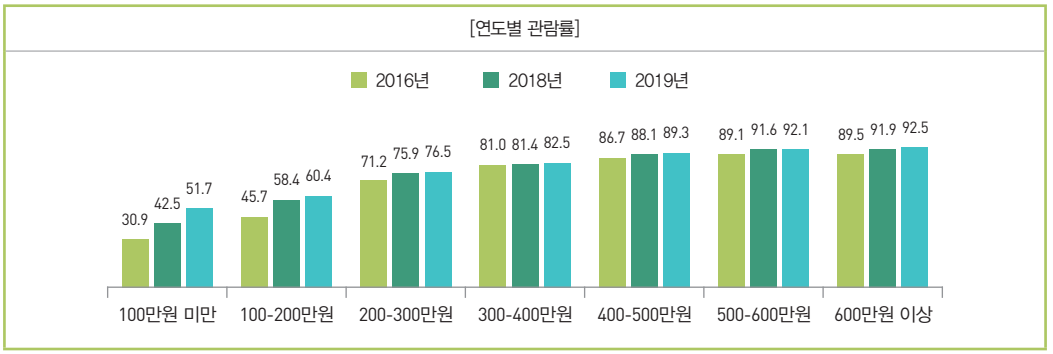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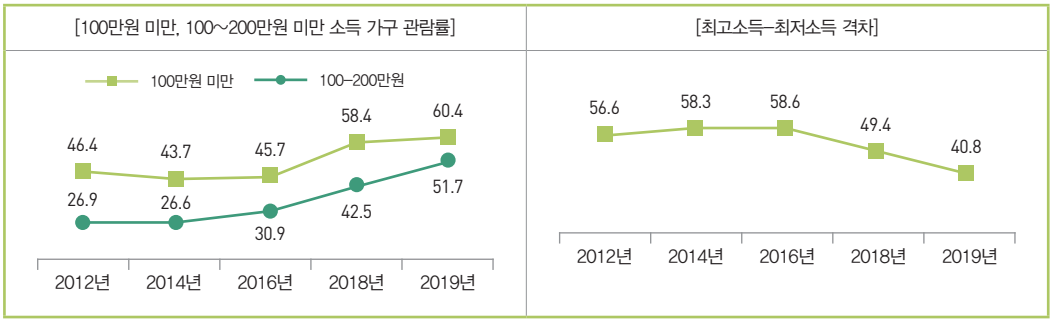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100만 원 미만 소득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51.7%, 100~200만 원 미만은 60.4%로 조사되어 2016년 대비 각각 20.8%포인트, 14.7%포인트 증가(2018년 42.5%, 58.4% 대비 각 9.2%포인트, 2.0%포인트)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자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최고 소득과 최저 소득의 격차는 2016년 58.6%포인트, 2018년 49.4%포인트, 2019년 40.8%포인트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21 월평균 가구소득별 관람률

(단위: %)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서는 전반적인 국민들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과 관람횟수가 꾸준하게 증가해 문화향유가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읍면 지역,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 등 그동안 문화예술을 접하지 못했던 계층에서의 문화예술 향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역 간, 소득 간 문화향유 격차가 대폭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초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체육, 관광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이 2016년 1인당 5만 원에서 2019년 1인당 8만 원까지 매년 1만원씩 인상되고, 2018년 7월 1일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비 등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되면서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양한 소외계층 시설과 지역에 예술단체가 찾아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의 읍면 단위 지원이 2016년 1,740건에서 2018년 2,518건, 2019년 3,525건으로 대폭 확대된 것도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 보고서는 '문화셈터(http://stat.mcst.go.kr)',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http://policydb.kcti.re.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6)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2003년 부내 문화행정혁신위원회 여성문화TF 구성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여성문화정책은 2017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15년)되면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현재는 '양성평등 문화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9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산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여 부처 내 양성평등정책을 총괄 · 조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분야 성주류화 및 성희롱 · 성폭력 근절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평등 인식제고 및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문화콘텐츠와 문화인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며, '2019년 양성평등문화인상'으로 무용가 안은미,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에는 영화[다큐]「김복동」이 수상하였다.

그림 3-1-22 양성평등문화상 관련 기사

또한 일반국민 대상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 콘텐츠공모전을 통해 문화분야 성차별 요소와 관행을 재조명하는 등 관련분야 종사자 및 일반 국민들의 양성평등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영상 · 디자인 · 문예 등 3개 부문 37점 선정)

그림 3-1-23 문화체육예술계 양성평등 공모전 수상작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추진되는 양성평등 주간(7월 1일~7월 7일)에는 일반 시민들이 양성평등 활동가들의 문화예술 작품을 체험하고 작가와 소통할 수 있는 행사인 '문화예술이 젠더를 말하다'를 7월 6일 서울(대학로 이음센터)에서 개최하여, 6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변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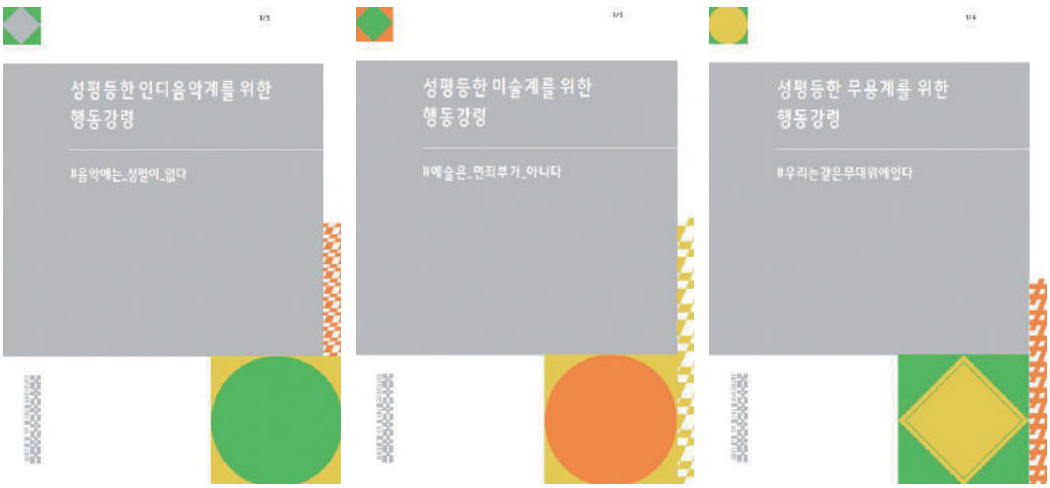
더불어 양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가는 첫 단계로,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한 포럼도 진행하였다. 10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1차 사전 포럼은 '현장에서 불어 온 바람을 읽다'를 주제로 마련됐으며, 2차 사전 포럼은 10월 16일 '성평등으로 한 뼘 더 나아가다'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두 번의 사전 포럼에서

연극, 콘텐츠, 무용, 영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 문화예술인들이 현장에서 부딪치는 성차별과 성평등에 대해 토론하며 이슈를 공유하였다. 이후 사전 포럼의 이야기들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지역주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대전, 전북, 부산, 광주에서 지역별 포럼을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나온 목소리들을 담아 12월 16일 서울에서는 '성평등으로 문화사회를 그리다'를 주제로 종합포럼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외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 성희롱 ·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분야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개설하였고, 2019년에는 미술 · 만화 · 사진 · 음악 등 분야별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예술인 대상 현장맞춤형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등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계 성폭력의 특징과 구조를 반영한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 및 활용하여 예술계 전반의 성인식 개선에 노력하였다.

미투 운동 이후, 문화예술 현장에서 성희롱 · 성폭력 예방을 위한 내부의 자발적인 의식전환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문화예술계 종사자와 조직 등 다수가 직접 참여 · 공감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 환경 구축'을 위한 분야별 행동강령을 개발하고 있다. 2019년에는 무용 · 인디음악 · 미술 분야에서 현장 종사자가 참여하여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행동강령을 개발 · 보급하고, 워크숍 및 SNS, 다양한 이벤트를 통하여 이를 홍보하였다.

그림 3-1-24 문화분야 성희롱 · 성폭력 예방 행동강령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계 분야별 상담센터 운영을 지속하며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젠더와 관련한 의식개선과 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해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 나갈 것이다.

7)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1) 필요성 및 수립과정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는 우리사회가 가진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을 넘어 문화 본연의 가치에 충실한 문화비전 수립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며 창의적인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이며, 문화정책의 근본 원리와 가치를 우리 사회의 변화와 미래 예측에 근거하여 새롭게 구성한 장기적인 시야를 가진 새로운 문화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10월 민간위원으로 새문화정책준비단을 구성하여 정례회의(총23회)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분과로 구분한 분과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또한 분과별 현장토론회, 문화청책(文化聽策) 포럼, 온라인 국민제안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 5월 16일「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를 발표하였다.

(2) 3대 가치와 방향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는 사람 자체의 존재, 사람 안에 내재한 문화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성찰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이라는 3대 가치와 방향을 중심 줄기로 삼고 있다. '자율성'은 자유로운 문화 활동과 향유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개인 뿐 아니라 문화예술인, 관광 및 문화산업 종사자,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까지 포함한다. '다양성'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며, 자신들의 문화적 힘을 펼쳐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국적, 인종, 종교만이 아니라 세대, 성, 성차, 장애, 지역을 아우르고, 나아가 예술의 크고 작은 집단들이 서로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창의성'은 단지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역량만을 의미하지 않고 교육, 노동, 복지, 도시재생, 환경, 통일 분야에서 문화가 사회 발전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가치이자 동력이다.

(3)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는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문화의 가치는 '사람' 그 자체에 있으며, 돈과 시설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문화로 변화해 나아가야 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간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문화의 창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새로운 용어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경쟁과 효율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문화로', '위기와 청산에서 비전과 미래의 문화로', '젠더 불평등에서 젠더 평등의 문화로', '불공정과 독과점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로',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의 문화', '일 중심에서 쉼이 있는 문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소외가 아닌 인간 감성의 문화로' 새로운 문화정책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4) 9대 의제와 47개 대표과제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라는 3대 가치를 중심 줄기로 총 9개 의제를 가진다.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인 · 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 '성평등 문화 실현',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분권 실현',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으로 각 의제에 따라 제시된 대표과제는 다음의 표와 같다.

가치	의제	대표과제
자율성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권 확산
		일과 삶의 균형으로 여가친화 사회환경 조성
		전 국민에게 문화복지 확산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전면 확대
		개인의 문화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인, 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 제도 기반 강화
		문화예술인 · 종사자(예술 · 스포츠 · 관광 · 콘텐츠 분야) 노동권 ·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확충
		예술인 복지 통합정책 지원체계 수립
		자율성과 협치 중심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지원체계 혁신
	성평등 문화 실현	성차별 · 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성평등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혁신
		여성친화적 생태계 ·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
다양성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문화다양성 정책 위상 강화와 법제 정비
		문화다양성 침해(혐오표현 등) 금지와 인식 제고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 보장
		언어문화 다양성 실현
		전통문화유산 보호와 현대화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국내외 관광객 정책 마련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체계 마련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
		문화콘텐츠 유통과 노동 불공정 개선 법률 제정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운영혁신과 민간 예술단체 창작 다양성 실현
		공정하고 다양한 스포츠 문화 조성
		출판의 다양성 실현
		관광산업의 공정 상생을 위한 지원

가치	의제	대표과제
다양성	지역 문화분권 실현	지역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 조성
		지역문화의 고유성 유지 · 발전
		지역문화 거점기관 운영 혁신과 지원체계 마련
		문화 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창의성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창의성과 상상력을 갖춘 시민 · 인재
		문화자원 관련 산업의 융합 기반 조성
		문화자원과 신기술 · 지식 융합 촉진
		문화자원의 기록 · 보존 체계 강화
		문화자원 융합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획기적 전환
		문화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
		지원과 상호협력을 통한 국제교류 확대
		한반도 평화를 여는 문화의 섬 · 문화로드 프로젝트
		아시아 문화교류 확대와 국제교류협력 기반 조성
창의성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사회 의제를 주도하는 문화정책 협력체계 마련
		더 나은 삶을 위한 '공론 · 학습 · 해결의 문화플랫폼' 모델 확산
		공공 문화서비스와 사회문화적 일자리 전환
		문화 공유지 활성화에 따른 지역 · 공간 재생
		기후 변화에 문화적으로 대응

(5)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문화비전 2030 더하기 포럼' 개최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의 개방형 · 진행형 문화비전 수립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문화비전 2030 더하기 포럼'을 개최하였다. 문화 분야 관련 종사자 뿐 아니라 관련 사회정책 전문가,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삶의 질과 문화권', '문화생태계의 공정성과 다양성 보장' 등 다양한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였고, 이를 통해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의 가치와 방향, 문화정책의 틀 변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표 3-1-24 '문화비전 2030 더하기 포럼' 개최 일시 및 주제

구분	일시	주제
1차	2019. 10. 4. (14:00~17:00)	1. 삶의 질과 문화권 2. 국민의 삶을 디자인하는 여가정책
2차	2019. 11. 6. (9:30~12:00)	1. 문화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그리고 표현의 자유 2. 문화생태계의 공정성과 다양성 보장
3차	2019. 11. 6. (14:00~17:00)	1. 지역분권에 따른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2. 문화수용성과 다양성 정책
4차	2019. 11. 27. (9:30~12:00)	1. 문화분야 일자리 문제 2. 과학기술과 문화의 융합
5차	2019. 11. 27. (14:00~17:00)	1.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체계 2. 문화행정 실현을 위한 중장기 재정 전략

8) 남북 문화교류 추진

(1) 남북 통일문화 교육

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교류 · 협력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해 남북 문화 교류 · 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분야 통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4년에 다양한 교육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북 통일문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통일문화교육은 한반도 화해협력 분위기 속에서 문화예술계 내 남북한 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 기회나 지식 ·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의 시작을 돕기 위해 교육 횟수를 확대하였다. 총 25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전체 1,263명이 참여하였다.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는 6.27점(7점 척도), 87.81점(100점 환산)으로 나타났다. 기존 문화예술인 기본과정에 편제되어 있던 문화예술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심화과정으로 옮겨서 '통일문화 워크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도 있는 남북한 문화교류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통일교육 프로그램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문화예술기관 대상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표 3-1-25 통일문화 교육: 교육과정 분류

과정	세부과정	교육 내용	교육 대상
예비 예술인 과정(Ⅰ)	① 청소년 통일문화교육	장르별 북한 문화예술의 이해	예술중고교 학생
	② 대학생 통일문화교육	장르별 북한 문화예술의 이해	예술전공 대학(원)생
문화 예술인 과정(Ⅱ)	③ 문화예술단체 통일문화교육	북한 문화 이해 및 문화분야 통일 준비	문화예술단체
문화 예술인 심화과정: 캠프형(Ⅲ)	④ 통일문화 워크숍	분단 및 통일 모티브 예술 작품 이해 및 작업	문화예술인
	⑤ 통일문화캠프	분단 현장 탐방 및 통일문화 이해	문화예술인
전문인력 양성과정(Ⅳ)	⑥ 남북문화 교류 실무교육	남북 문화교류협력의 이해 및 대북사업 실무	문화예술분야 대북사업 담당(의향)자

(2)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한반도 문화 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남북 문화교류협력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호남권, 강원권, 영남권, 수도권 및 중부권을 순회하는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한반도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차 포럼은 2019년 10월 31일에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문화예술 분야 남북 교류협력 방향'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 및 청중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어, 북한의 문화예술 동향, 기존 문화예술 교류의 시사점 및 향후 남북 문화예술교류 사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서 제2차 포럼(관광 분야)은 2019년 11월 13일 원주 상지대학교에서, 제3차 포럼(문화콘텐츠 분야)은 2019년 11월 28일 부산 시립박물관에서 개최되었으며, 마지막 제4차 포럼(체육 분야)은 2019년 12월 5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어 남북 간 공존 · 공영과 화해 · 평화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별 남북 교류협력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표 3-1-26 '신한반도 체제를 위한 한반도 문화 포럼' 개최 일자 및 주제

회차	일자	주제	비고
1	10. 31. (목)	[문화예술 분야] – 북한 문화예술분야 동향 – 기존 남북문화예술 교류와 시사점 – 향후 남북문화예술 교류 사업 방향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	11. 13. (수)	[관광 분야] – 북한 관광분야 동향 – 기존 남북관광 교류와 시사점 – 향후 남북관광 교류 사업 방향	원주 상지대학교
3	11. 26. (화)	[문화콘텐츠 분야] – 북한 문화콘텐츠분야 동향 – 기존 남북문화콘텐츠 교류와 시사점 – 향후 남북문화콘텐츠 교류 사업 방향	부산 시립박물관
4	12. 05. (목)	[체육 분야] – 북한 체육분야 동향 – 기존 남북체육 교류와 시사점 – 향후 남북체육 교류 사업 방향	서울 월드컵경기장

9)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는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 미술관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하 문화비)에 당해연도 연말정산 시 해당 비용을 추가적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2018년 12월 24일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던 도서구입, 공연관람비 소득공제에 이어 2019년 7월 1일부터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까지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생활 향수에 대해 더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200~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문화비 지출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된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도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간행물을 의미하고, '공연'은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연을 의미하며,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의미한다.

표 3-1-27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법 조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제5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5. "외국간행물"이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공연법」 제2조 제1호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 · 무용 · 연극 · 연예 · 국악 ·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 · 예술 ·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 · 고고(考古) · 인류 · 민속 · 예술 · 동물 · 식물 · 광물 · 과학 · 기술 ·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 관리 · 보존 · 조사 · 연구 · 전시 · 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 · 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 · 조각 · 공예 · 건축 · 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 관리 · 보존 · 조사 · 연구 · 전시 · 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표 3-1-28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 추진 과정

기간	내용
2017. 12.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2 개정
2018. 02. 27.	국세청, 문체부, 주요 카드사, 한국문화정보원 소득공제 관련 실무협의
2018. 03. 13.	종합쇼핑몰, 공연 및 도서 주요 온라인 대형업체 담당자 간담회 실시
2018. 04. 25.	문화비(공연분야) 소득공제 사업자 대상 정책 설명회(실시)
2018. 05. 21.	2018년도 도서 · 공연비 소득공제 접수 페이지 오픈
2018. 06. 04.	2018년도 도서 · 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 사전 접수
2018. 06. 11.	2018년도 도서 · 공연비 소득공제 콜센터 오픈
2018. 06. 26.	도서 · 공연비 소득공제 유관기관(국세청, 한국여신협회, 8개 카드사, 문체부, 한국문화정보원) 합동 점검회의 실시

기간	내용
2018. 07. 01.~	문화비 소득공제 실시(도서 · 공연비)
2018. 12.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2 개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추가)
2019. 3. 22.	관계부처 협의(국세청, 기재부, 문체부 등)
2019. 4. 26.~5. 28.	관련업계 간담회 실시(카드사, 결제대행사, 티켓예매처 등)
2019. 5. 8.~5. 23.	박물관 · 미술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6회)
2019. 5. 9.~6. 28.	2019년도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 등록 사전접수 실시
2019. 6. 13.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안내매뉴얼 및 Q&A 제작 · 배포
2019. 6. 26.	지자체, 유관협회 등록현황 점검회의(등록 독려)
2019. 7. 1.~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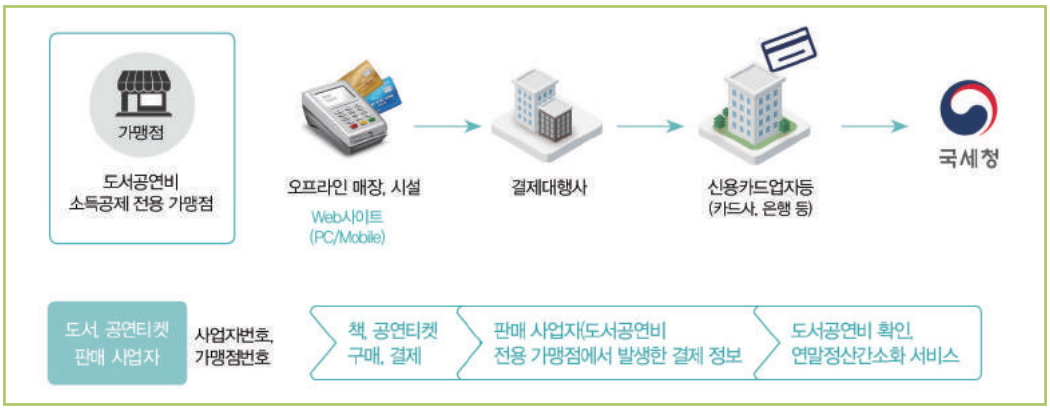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세청과 함께 2017년 말부터 도서 · 공연 및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와 수차례의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도서 · 공연비 소득공제 시행방안을 마련해왔으며, 2018년 5월 21일 도서 · 공연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접수 · 등록시스템을 구축한 이래 2018년 6월 4일부터 문화포털(www.culture.go.kr,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도서 · 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 · 접수를 받았다. 2019년 7월 1일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되었으며 2019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결과, 총 2조 6,125억원의 소득공제 금액이 적용되었다.(2018년 1년 환산액(1조 8,500억원) 대비 41% 증가 *국세청 제공) 또한, 동 제도관련 2019년 하반기 기준 설문조사 결과 국민 · 사업자 모두 문화생활 활성화에 '효과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여,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재인 정부의 문화분야 제1공약으로, 문화예술계의 지속적인 반영요청과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현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통해, 문화예술 지출확대를 통한 관련사업 활성화 촉진 및 장기적으로 사회적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3-1-29 **도서 · 공연비 · 박물관 · 미술관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분야	내용
서점	교보문고, 네이버(도서), 리브로, 반디앤루니스(서울문고), 알라딘,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등
공연	인터파크 티켓, 예스24 티켓, 이베이코리아(옥션), NHN티켓링크, 하나투어, 클립서비스, 에스케이(SK) 플래닛 11번가, 위메프, 카카오엠(M, 멜론), 네이버 공연 등
홈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시제이(CJ)홈쇼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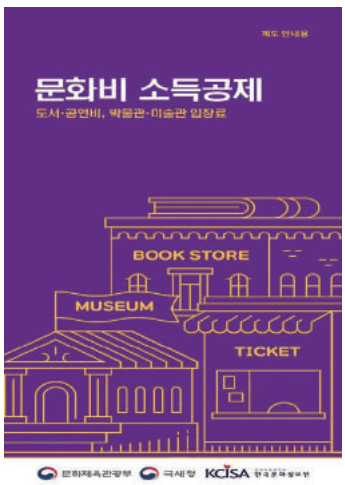
그림 3-1-25 도서 · 공연비 · 박물관 · 미술관입장료 확인 및 소득공제 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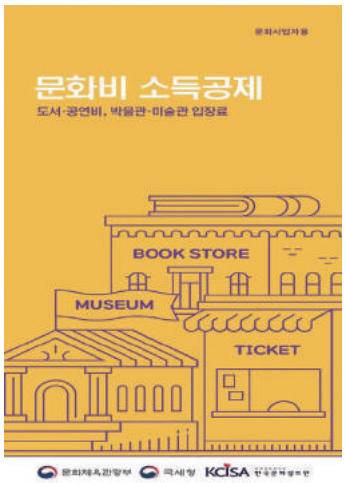


도서 · 공연티켓 · 박물관 · 미술관 입장권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다.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등록 완료로 표기되며 사업자별 인증번호가 부여된다. 또한 등록이 완료된 시설, 누리집 등에 부착, 게시된 아래 스티커와 띠 광고(배너) 등을 통해서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26 문화비 소득공제 홍보 포스터 및 안내서

〈박물관 · 미술관 게시용 홍보 포스터〉





〈제도안내용(좌), 사업자용(우) 안내서〉

3. 주요기관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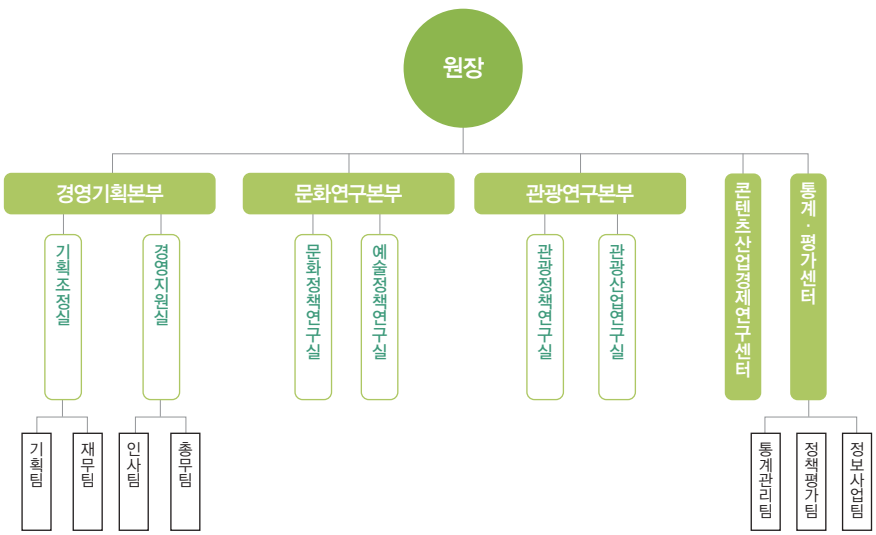
(1) 조직현황

한국문화관광연구원(출범 당시 기관명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문화 · 관광 분야 국가정책 연구기관으로 2002년 12월 4일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 한국관광연구원이 통합되면서 출범하였다. 「문화기본법」 제11조의 2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2016년 5월 29일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문화기본법」에 의한 법정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 · 연구,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 · 평가 · 연구,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 · 연구,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 · 연구, 북한 문화예술 연구,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 · 통계의 생산 · 분석 · 서비스, 조사 · 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등이다.

2019년 말 기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3본부(경영기획본부, 문화연구본부, 관광연구본부), 2센터(문화산업연구센터, 정책정보센터)와 각 본부 ·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9실(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문화정책연구실, 예술정책연구실, 문화기반연구실, 관광정책연구실, 관광산업연구실, 지역관광연구실 및 감사실), 7팀(연구기획팀, 대외협력팀, 인재개발팀, 총무관리팀, 재무회계팀, 통계관리팀, 정보사업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원은 기관장 포함 총 139명, 현원은 총 129명이다.

그림 3-1-2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직도(2019.12)



(2) 주요성과

가.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은 연구원의 고유 업무로서 연구목적에 따라 기초연구와 정책연구, 수시연구로 구분되며 2019년 총 36건(기초연구 4건, 정책연구 17건, 수시연구 15건)이 수행되었다. 기본연구 중 문화예술분야 연구과제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3-1-3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 분야 기본과제 목록(2019)

과제종류	과제명
문화예술분야 기본연구 (통계 및 평가 포함)	문화기반시설 개방시간 조정방안 연구
	예술의 가치와 영향 연구: 국내외 담론과 주요 연구결과 분석
	국제 비교를 통한 문화지표 분석
	공연예술분야 공공–민간 상생방안 연구 : 지역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유형화 기준 연구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방향 연구
	관광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문화권 선언 2030 방향 설정 연구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의 매개기능 활성화 방안
문화예술분야 기본연구 (통계 및 평가 포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개선방안
	여가행복지수 적용 및 활용 연구
	전통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방안 연구

나. 발간 사업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 · 관광 정책연구 및 지식정보의 공유를 촉진하고자 다양한 발간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문화정책논총」은 1988년 창간되었으며 2019년 말 기준 제33집 3호까지 발간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문화 정책 현장과 학문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술적 토대에서 문화정책 방향설정과 대안제시를 선도하고 있다. 「문화 · 관광 인사이트」는 문화 분야 주요 이슈를 선별하여 제공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문화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선도적인 국내외 문화정책 사례를 소개하는 조사 · 연구 리포트이다. 2019년 12월까지 141호가 발간되었다. 또한 매월 문화관광 분야 현장의 주요 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웹진 「문화관광」을 발간하고 있다.

다. 국정과제 및 정부정책 대응 활동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 · 관광 · 콘텐츠 분야에 대하여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부정책

대응 활동을 추진한다. 2019년은 포용국가, 4차산업 대응 및 일자리 창출, 신북방 · 신남방,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책대응, 일상의 문화 · 관광 등 여러 국정 화두에 대한 체계적 계획 수립과 실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대표적인 성과로 '문화정책의 성평등 관점 정착과 발전방안'을 통해 문화정책의 성평등 관점을 진단하였으며, '문화권 선언 2020 방향 설정연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개선 방안' 연구 등을 통해 문화적 가치 확산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 문화 · 체육 · 관광 · 문화재 분야 정책성과와 과제 토론회', '2019 포용적 문화국가 포럼'을 개최하여 지난 1년간의 정책성과를 논하고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공유하였다.

라. 문화영향평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기본법」 제5조 4항에 의거한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계획 및 정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주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문화영향평가 시행에 대한 지원, 계획 및 정책 담당자 등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교육,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 시범평가 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발생하는 문화적 권리의 침해나 문화경관의 파괴, 공동체의 상실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화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2019년 문화영향평가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등 총 17개 계획 및 정책사업에 대한 전문평가를 실시하였고, 문화영향평가 확산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을 대상으로 약식평가 14건을 추진하였다. 또한 평가의 고도화 및 확대를 위하여 기존 문화영향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형의 계획과 정책에 대해 연구와 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마.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지원 사업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인력자원을 발굴하고 문화프로그램 및 콘텐츠 기획 · 개발 · 실행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에는 269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료생 217명을 배출하였다.

바. 통일문화 관련 사업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남북한 문화통합 방향 모색을 위한 북한자료 분석, 학술행사, 통일문화교육 등으로 통일문화시대의 문화정책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 문헌(신문, 잡지)에 나타난 북한의 문화예술 현황을 보여주는 「KCTI 북한문화동향」 발간, 남북문화교류의 방향 제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2019년에는 「KCTI 북한문화동향」을 2회 발간했으며,

'남북문화교류 · 통합, 새로운 상상'이란 주제로 「통일문화정책포럼」 2회, 그리고 '북한의 세계화, 민족, 문화유산' 등을 주제로 한 학계 연계 토론회를 3회 개최했다.

사.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운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문화예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내외 문화 정책 및 현장 동향 관련 지식 ·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은 전문화된 지식정보를 다양한 콘텐츠 형태로 생산하며 웹페이지와 SNS 채널(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이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에는 〈해외자료브리핑〉 34건, 〈아키스브리핑〉 35건, 〈문화돋보기〉 18건 등의 원고 콘텐츠를 통해 국내외 문화예술 관련 주요 이슈들을 다층적으로 다루었으며, 전문가 인터뷰 동영상인 〈5분칼럼〉 8건과 〈인포그래픽〉 8건, 〈카드뉴스〉 51건, 〈블로그〉 41건, 〈현장스케치〉(영상) 4건, 〈아키스 서포터즈 기자단〉 30건 등의 콘텐츠를 생산했다.

제2절 국어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국내외 언어 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어정책의 환경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언어정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각 분야에서 불필요한 외래어나 낯선 외국어가 오 · 남용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방송에서도 규범에 맞지 않는 언어가 사용되는 등 국어 환경을 훼손하는 현상이 상존하고 있다. 한편 영어나 중국어 등 외국어에 대한 관심에 비해 국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도 선진국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어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함께 국민들에게 국어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구, 이주 노동자 등의 증가로 언어 사용 계층이 다양화되고, 산업화의 가속에 따른 탈지방화와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언어 사용 현실을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다원주의 언어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언어 취약 계층을 위한 언어 지원 정책 강화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셋째, 국제화 · 정보화가 확산되고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타 문화권과의 언어 · 문화 교류 강화와 정보 소통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자국어 보급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문화를 통한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위의 언어정책 요구에 맞추어, 2005년 「국어기본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국어정책은 법적 뒷받침을 받으면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법정 계획으로서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어발전기본계획은 국가 언어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고 부문별 국어진흥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제1차 국어발전기본계획(2007~2011년)과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2012~2016년)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제3차 국어발전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추진 계획을 담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한 국어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표 3-2-1 국어정책의 기본 방향

- ▶ 수요자 중심의 언어정책 기반 조성
- ▶ 바르고 편리한 언어 환경 지원
- ▶ 국민 언어 통합을 위한 사회 · 문화적 환경 구축
- ▶ 한국어 확산과 교육 기반 강화
- ▶ 한글문화 진흥 및 향유 확대

국어정책의 주안점은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국어기본법」의 기본 이념이 국민들의 국어생활 속에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어 사용 환경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층의 비속어 사용 일상화, 직장인들의 말하기 · 글쓰기 능력 부족 등 국민의 국어 능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둘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낯선 외래어나 외국어를 오 · 남용하거나, 인터넷 · 누리소통망 등에서 규범에 맞지 않는 언어를 점점 많이 사용함으로써 우리말 체계가 왜곡되는 등 국어 사용 환경에 부정적 요인이 증가하였다.

셋째, 다문화 가구, 이주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 언어 취약 계층이 급속하게 늘고 있어 우리 사회가 다언어 ·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넷째, 한국 대중가요(K-pop) · 드라마와 같은 한류의 확산, 한국의 경제 성장 등으로 세계 각국의 외국인, 국내 거주 이주 노동자 · 결혼 이민자 · 유학생 등에 의한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정부 및 학계의 각종 한글 및 국어 자료 전산화 사업과 국립한글박물관 건립으로 국어문화 유산의 체계적 수집 및 정비에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국어 사용 환경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언어현실을 반영한 어문규범 보급을 통해 국민들이 규범을 수용하면서도 이질감 없이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창조 ·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둘째, 공공기관과 대중매체의 언어가 더욱 충실하게 공공성을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성을 높여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한자어, 낯설고 혼란스러운 외국어 · 외래어 및 전문용어를 정비하여 언어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셋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이주 노동자 등이 언어적 · 문화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특수언어(한국수어 · 점자), 남북 언어 및 재외동포 언어에 대한 상호 이해도 제고 등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 한류 및 경제 성장에 힘입은 한국어 위상 제고의 호기를 맞아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가

세계인의 언어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한다.

다섯째, 국립한글박물관(2014년 10월 개관)을 한글의 가치 확산 기반으로 활용하고,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에게 언어 · 지식 정보의 효율적 소통 환경을 제공하며, 지역 언어문화의 보존과 활용으로 국어의 전반적 진흥을 도모한다.

국어 사용 환경 개선과 국어의 보존 및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는 문화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 수립, 국어 · 언어 관련 법령 및 어문규범 정비 등 국어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수행한다. 또한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심의회 · 국어책임관 · 국어문화원에 관한 사항, 국어 및 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한글의 가치 확산 및 한국어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 활동을 관장하기 위하여 1991년에 설립된 국립국어원은 합리적인 국어정책 추진에 필요한 체계적 조사 · 연구와 언어 규범 보완 및 정비를 수행하고 국가 언어 자원을 수집하여 통합 정보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국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국어정책 수립 및 편리한 언어생활 환경 조성

(1) 국어정책 수립 기반 조성

국어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및 실태 조사를 중장기 계획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9조(실태 조사 등)에 규정된 국어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 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조사를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국어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는 5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어 사용 환경 조사는 계층별, 직업군별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국어 능력 조사와 관련해서는 2008년에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를 시행하였고, 2013년과 2018년에는 단순한 문자 해독 능력을 넘어선 종합적인 국어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로 대체하여 시행하였다. 언어의식 조사는 언어 사용, 언어 교육, 언어 정책 등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2005년과 2010년에 이어 2015년에 제3차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어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어 사용 환경 조사와 관련해서는 '국군 장병 국어 능력 실태 조사'(2008), '교사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2009),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2010), '다문화가족 국어 사용 환경 기초 조사'(2011),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연구'(2016),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심층 조사 및 향상 방안 연구'(2017) 등 국어정책 대상의 구체적인 언어 사용 환경과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한국어 사용 실태(한국어 능력, 한국어에 대한 의식, 한국어 사용 환경 등)를 파악하여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정책 수립의 시사점을 찾기 위해 중국, 독립국가연합, 미국, 브라질, 일본을 대상 지역으로 한 5개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에 재중 동포, 2013년에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에 재미 동포, 그리고 2015년에 브라질 등 남미 동포, 2016년에 재일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외에도 세대별 언어 사용 실태 및 국어의 변이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5년에 '대도시 지역 사회방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한민족 언어 통합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4년에 '남북 언어통합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부터 북한어 말뭉치 구축과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방안 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는 남북 언어통합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남북 언어의식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연변, 서울 등지에서 여섯 차례 개최하였다.

그리고 국어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집행, 목표 설정 및 평가를 위한 객관적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외의 언어 관련 각종 통계와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의 국어 정책 자료 조사는 2009년부터 매년 수행 중이며, 2010년과 2014년, 그리고 2018년에는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을 발간하여 쉽고 재미있게 국어정책 관련 기초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 언어생활 기준 마련

국민의 국어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어문 규범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2000년에 고시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내용 중 일부를 2014년에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또한 컴퓨터 기반의 문서 작성 환경에 부응하도록 '한글 맞춤법'의 부록인 '문장 부호' 규정의 개정안 마련에 2010년부터 착수하여 '문장 부호 해설'을 발간(2014년 12월)하고, 개정된 문장부호 규정을 2015년부터 1월부터 시행하였다. 그리고 사전과 규범의 내용을 통일하고 용례와 표현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을 2017년에 개정하였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어휘를 표준어로 추가하고 있는데, 2011년에 '먹거리, 맨날, 짜장면' 등 39항목, 2014년에 '딴지, 속앓이, 꼬시다' 등 13항목, 2015년에 '푸르르다, 이쁘다' 등 11개 항목, 2016년에는 '걸판지다, 겉울음, 까탈스럽다, 실뭉치, 엘랑, 주책이다' 등 6개 항목, 2017년에는 '추켜올리다, 치켜올리다, 추켜세우다, 꺼림직하다, 께름직하다' 등 5개 항목을 표준어로 추가하였다.

또한 1988년 국어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해설에 언어 현실과 학계의 관점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해설 개정판을 2018년에 발간하였다.

'정부 · 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 위원회' 운영 및 외국 주요 인 · 지명 표기 구축 사업을 통하여 시사성 있는 외래어 표기 및 각종 국제 대회에 사용되는 외래어 표기 등의 용례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구축된 용례를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올려 보급하고 있다. 어문 규범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어문 규범 적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어문 규범 영향 평가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3) 특수언어(한국수어, 점자) 소통 환경 개선

농인(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좀 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6년은 「한국수화언어법」과 「점자법」이 제정되고, 국립국어원에 특수언어진흥과가 신설되는 등 특수언어 발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해라 할 수 있다.

농인의 언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수어 기초 자료 구축 및 사전 편찬, 교육 자료 개발 등을 진행하였다. 2013년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시작으로 2015년에 서울지역에서 90시간 분량의 말뭉치를 시범 구축하였다. 2016년에는 대용량 수어 자료를 축적,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7년에는 261분 분량의 한국수어 말뭉치에 대한 기본 전사를 수행하였고 2018년에는 강원 등 네 개 지역에서 40시간 분량의 말뭉치를 수집하고 80분 분량의 주석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2019년에는 지역별로 균형 잡힌 말뭉치 수집을 위해 경남지역에서 40시간 분량의 말뭉치를 수집하고 기존에 수집된 말뭉치 중에서 135분 분량을 의미주석하였다.

2007년부터 일상생활 용어를 비롯해 법률, 교통, 경제 등 전문용어 수어 사전을 지속적으로 발간하였고, 2015년에는 이를 모아 한국수어사전의 웹-모바일 통합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016년에는 한국수어의 수형을 기반으로 한국수어사전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을 구축하였다. 2017년에는 「한국수어사전」의 오류를 정비하는 한편 농인의 사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어 뜻풀이를 한국수어로 번역하고 한국수어 용례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한국수어에 기반한 새로운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한국어-한국수어 사전」(이하 '수한-한수 사전')을 구축하기 위해 기본 표제어 1,000개, 용례 1,417개를 구축하였고 한국수어 용례와 뜻풀이를 구축 · 관리하는 '한국수어 사전 용례 구축기'를 개발하였다. 2019년에는 한국수어 용례와 뜻풀이를 각각 1,202개씩 구축하였으며 '수한-한수 사전'을 시범 편찬하였다. 또한 '한국수어 용례 구축기'의 기능을 개선하였다.

이 외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한국 수화」 교재를 발간해 왔으며 2009년에는 이를 토대로 교육방송(EBS)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2017년에는 농인 학습자의 모어 교육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자료로 「농사회의 이해」를 집필하였다. 2018년에는 농인 학습자를 위한 교재인 「한국 수어」의 교사용 지침서와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재로 「농문화와 농사회」를 집필 · 보급하였다. 2019년에는 한국수어교원 양성용 교재로 「(한국수어교육을 위한) 언어 교육 이론」과 「한국수어의 실제」를 추가 개발하였다. 2018년부터 한국수어 문법에 관한 기초 연구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음운, 형태 분야의 수어 문법을 기술하였다. 2017년부터 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수어 문화학교를 운영하였으며, 2018~2019년에는 농문화 확대를 위한 수어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15년부터는 농인들의 문화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제공하는 전시물의 문화 정보를 한국수어로 제공하는 문화정보 해설 동영상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을 근거로 수립된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한국수어 관련 사업과 관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먼저,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가 시행되었다. '한국수어교원자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수어교육 경력 인정기관 고시 사항에 대한 심의와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의 등이 이루어졌다. 2018년에는 35명, 2019년에는 54명(총 89명)의 한국수어교원 2급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그리고 2018년에는 한국수어 교육능력 검정시험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고, 2019년에는 시범시험과 제1회 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강원도 농아인협회와 경기도 농아인협회 2곳을 한국수어교육원으로 2017년에 최초 지정한 바 있는데 한국수어교육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수어 전문인력 양성, 한국수어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벌이게 된다. 2017년에 전국 농인 500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방법, 한국수어와 농문화에 대한 인식, 농정체성 등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국가 승인(협의)통계이며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9년 12월부터는 정부 정책 브리핑 등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 농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그림 3-2-1 한국수어사전 수형으로 찾기 화면

그림 3-2-2 국립중앙박물관 '반가사유상'의 수어 해설 영상

시각장애인의 언어 소통 환경 개선을 위해 점자 규범 정비 및 보급, 교육 자료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8년 인터넷 점자 사이트 '점자세상'을 개설하여 점자 관련 정보를 쉽게 얻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점자세상'을 통해 한글(2009), 수학 · 과학 · 컴퓨터(2011), 음악 · 한글 심화(2012) 과정의 온라인 점자 강의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점역 · 교정사 교육용 한글 점자 교재(2011), 영어 점자 교재(2012), 수학 · 과학 · 컴퓨터 점자 교재(2013)도 개발하였고, 2017년에는 점역교정사 교육을 위해 대상별(점역사, 교정사), 단계별(기초, 검정, 실무), 영역별(국어, 영어, 수학 등)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담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2018년에는 2017년에 개정된 한국점자규정을 토대로 한글과 수학 분야의 점자 학습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2019년에는 과학과 서양음악 분야의 점자 학습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또한 일반 문자 외에 다양한 부호 등의 점역을 위해 그래프나 도표 등 시각 자료 점역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2010), 부호 및 특수 문자의 유니코드 점자 규정 마련(2011), 유니코드 점자 실효성 및 활용 방안 연구(2012), 유니코드 점자 입력 프로그램 개발(2013) 등의 사업이 수행되었다. 또한 점자 사용자의 식별 정확도를 높이고자 2016년에는 점자 활용 규격 표준화를 위한 기초 연구도 진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분석을 위해 편의시설, 의약품, 가전제품 등 일상생활 용품의 점자 표기 실태에 대한 시범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에는 지하철과 고속철도 223개 역사의 점자 표기 실태를 조사하였다.

'한국 점자 규정 개정안'(문체부 고시 제2017-15호)을 2017년 3월 28일에 고시하였다. 새 점자 규정은 2006년에 고시된 기존 점자 규정에서 일부 혼란스럽게 되어 있던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립국어원에서는 개정된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글 점자 규정', '수학 점자 규정', '과학 점자 규정', '서양 음악 점자 규정', '컴퓨터 점자 규정', '한국음악 점자 규정'의 해설서를 제작하였다.

2018년에는 「점자법」의 시행에 따라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하여, 점자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3-2-2 특수언어(한국수어, 점자) 관련 사업 추진 현황(2008~2019)

구분	연도	내 용
농인 (청각장애인)	2008년	– 〈한국 수화(제2권)〉 발간 – 〈한국 수화 사전 별책(의료 수화, 정보통신 수화)〉 발간 – 한국 수화 연수 – 한국 수화를 통한 한국어 문장 지도 방법 개발
	2009년	– 〈한국 수화(제3권)〉 발간 – 〈한국 수화 사전 별책(가톨릭, 기독교, 불교 수화)〉 발간 – 표준한국수화(초급) 방송 프로그램 제작 – 수화 동영상 웹사전 개발(10,000단어)
	2010년	– 〈한국 수화(제4권)〉 발간 – 국어 교과용어용 수화 사전 출간 – 한국 수화 사전 스마트폰용 앱 개발
	2011년	– 〈한국 수화(제5권)〉 발간 – 〈일상생활 수화 (4) 표준화 연구〉 발간 – 〈경제 용어의 수화 표준화 연구〉 발간
	2012년	– 〈일상생활 수화 (5) 표준화 연구〉 발간 – 〈정치 용어의 수화 표준화 연구〉 발간 – 수화 동영상 웹사전 증보(3,057단어)
	2013년	– 한국수어연구자문위원회 운영 – 한국수어 코퍼스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 농인의 문해 교육 실태 기초 조사 – 한국수어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2014년	– 농인을 위한 문화 정보 및 문해 교육 지원 체계 기초 조사 – '수어, 또 하나의 언어' 발간 및 수어 홍보 동영상 제작
	2015년	– 한국수어 전문용어, 문화 정보 구축 – 한국수어 말뭉치 기반 조사 및 시범 구축 – 한국수어 웹사전 구축 및 정비
	2016년	–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 구축 – 문화 정보 해설 한국수어 영상 자료 구축
	2017년	–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 – 한국수어교육원 지정(2개소) –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시행(한국수어교원자격 심의위원회 운영) – 2017년 한국수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 – 한국수어 말뭉치 연구 및 구축 –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고도화 – 한국수어사전 수어 뜻풀이와 용례 구축 및 정비 – 한국수어 전문용어 사전 구축 – 문화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한국수어 영상 자료 구축 –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 농인 대상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 농인 대상 한국수어 교재 개발

구분	연도	내 용
농인 (청각장애인)	2018년	– 2018년 한국수어발전 시행계획 수립 – 한국수어 관련 교육기관 운영 지원(6개소) – 지자체 공무원 대상 '한국수어 정책 연찬회' 개최 –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시행(한국수어교원자격 심의위원회 운영) – 한국수어 말뭉치 연구 및 구축 – 한국수어사전 용례 시스템 구축 – 한국수어사전 정비 및 구축 – 한국수어 전문용어 사전 구축 – 한국수어 문화정보 해설 영상 자료 구축 –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 – 농인 대상 한국수어 교재 개발 – 한국수어교원 교육 자료 개발 – 한국수어교원 연수회 –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 기초 연구
	2019년	– 한국수어사전 정비 및 구축 – 한국수어 사전 용례 시스템 고도화 – 한국수어 말뭉치 연구 및 구축 – 한국수어 문법 연구 – 한국수어교원 교육 자료 개발 – 한국수어교원 연수회
시각장애인	2008년	– 온라인 점자 학습 체계 구축(한글 점자 동영상 제작)
	2009년	– 온라인 통합 점자 학습 사이트(점자세상) 운영
	2010년	– 시각자료 점역 지침 및 약점자 효율화 연구
	2011년	– 온라인 점자 강의(수학 · 과학 · 컴퓨터 점자) 개발 – 점자 콜센터 운영 – 유니코드 점자(부호 및 특수 문자) 규정 마련 – 점역 및 역점역 프로그램(점사랑) 개선 – 점역 · 교정사 교육용 한글 점자 교재 개발
	2012년	– 온라인 점자 강의(음악, 한글 심화) 개발 – 점자 콜센터 운영 – 한글 점자 규정 개정을 위한 실증 연구 – 한자 점자 규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 – 유니코드 점자 실효성 및 활용 방안 연구 – 점역 · 교정사 교육용 영어 점자 교재 개발
	2013년	– 한국점자위원회 운영 및 한국 점자 규정 개정안 마련 – 유니코드 점자 음성처리 실용화 연구 – 국악 점자 제 ·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 점역 · 교정사 교육용 수학 · 과학 · 컴퓨터 교재 개발
	2014년	– 시각 장애인 언어 환경 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
	2015년	– 외국 주요 점자 규정 번역 및 점자 교육 콘텐츠 개발
	2016년	– 점자 활용 규격 표준화 및 사용자별 교육과정 개발
	2017년	– 한국점자규정 개정, 고시 – 한글점자규정, 수학점자규정 해설서 발간 – 점자 표기 기초 조사 – 점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구분	연도	내 용
시각장애인	2018년	– 과학점자규정, 서양음악점자규정 해설서 발간 – 한글, 수학 점자 학습 온라인 콘텐츠 개발 –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 – 점자출판시설 운영 지원(6개소)
	2019년	– 컴퓨터점자규정, 한국음악점자규정 해설서 발간 – 과학, 서양음악 점자 학습 온라인 콘텐츠 개발 – 점자 표기 실태 조사

2)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

「국어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9년 12월 현재 1,830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국어책임관(중앙행정기관 47명,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1,540명, 광역 지방자치단체 17명, 기초 지방자치단체 226명)이 지정되어 있다.

표 3-2-3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

계	중앙행정기관 (부처청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1,830명	47명	1,540명	17명	226명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①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②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③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④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등이다.

국어책임관은 알기 쉬운 용어 개발과 보급, 공문서 바로 쓰기 및 행정용어 순화, 공무원 국어능력 향상 교육 과정 개설 운영, 자치법규 제정 등을 통해 해당기관의 국어 발전 및 직원들의 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2005년도에 「국어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이와 관련한 상담을 담당하는 11개의 '국어 상담소'가 지정되었고, 2008년 3월 28일 같은 법을 개정함에 따라 '국어 상담소'가 '국어문화원'으로 개칭되었다. 2019년 현재 전국 국어문화원연합회를 포함해 총 20개소의 국어문화원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표 3-2-4 국어문화원 지정 현황

합계	서울 · 인천 · 경기	부산 · 울산 · 경남	광주 · 전북 · 전남	대구 · 경북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강원	제주
20	6	3	3	2	4	1	1

국어문화원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어 상담, 국어 위탁 교육, 언어 실태 조사, 언어 사용 환경 개선, 각종 한글 관련 행사(글쓰기, 말하기, 우리말 겨루기), 국어콘텐츠 개발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국어문화원연합회는 국어문화원 업무를 총괄하면서 전국 규모의 국어문화원 공통 사업 발굴, 국어문화원 백서 발간, 전국문화원장 업무협의회, 국어책임관 및 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해외 한국어 보급

(1) 한국어 교육 대표 브랜드로서 '세종학당' 확산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제19조의 2에 따라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의 국어 보급을 위하여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학당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국어원,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보급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기관의 접근성 및 인지도 제고를 통해 언어 권역 확장 및 국가 경쟁력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표 3-2-5 한국어 국외 보급

기관명	주요 사업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세종학당재단	– 한국어 보급 관련 정책 수립 및 협의 · 조정 –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 지원 – 한국어 교육 기초 연구, 표준교재 등 개발, 보급 : 다문화 교육용 한국어 교재 등 교육자료 개발, 보급 : 국외 한국어 학습용 한국어 교재 등 교육자료 개발, 보급 – 누리 세종학당 및 온라인 세종학당 구축 · 운영 * '누리 세종학당' : 한국어 · 한국문화 정보 제공 온라인 통합 서비스 '온라인 세종학당' : 온라인 한국어 학습 서비스 – 한국어 교원 양성, 재교육 및 파견 지원 : 한국어 교원 자격증 부여(근거: 「국어기본법」) : 한국어 교원 재교육 : 한국어 교원 파견 – 세종학당 문화 전문가 파견, 교구 지원 등 문화교육 지원

표 3-2-6 국외 한국어 보급 기관(2019년 기준)

부처 명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외교부		
교육 기관	한국 문화원 세종학당	일반 세종학당	한국학교 (정규학교)	한국 교육원 세종학당	한국 교육원 세종학당	한글학교 (민간자생설립)		
설립 현황	27개국 31개소	50개국 118개소	16개국 34개소	18개국 41개소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31개소)	13개국 31개소	115개국 1,642개소		
교육 대상	외국인		일시 체류민 재외동포 자녀	재외동포		재외동포(청소년), 외국인, 현지 대학생		
관계 법률	국어기본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 재단법	한국국제 교류재단법	한국국제 협력단법
관련 기관	세종학당재단 (2012년~)		국립국제교육원 (1992년~)			재외동포재단 (1997년~)	한국국제 교류재단 (KF) (1991년~)	한국국제 협력단 (KOICA) (1991년~)
추진 목적	어문정책 주무부처로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교육 및 문화 교류 지원		재외국민의 평생교육과 동포자녀에 대한 모국 이해 차원의 국어 교육 지원			재외동포에게 민족 정체성 함양 차원에서 국어, 역사, 문화 등 교육	해외 교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우리나라와 개발도상 국가와의 우호협력 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

문체부에서는 전 세계 세종학당을 총괄 지원 · 관리하기 위한 '세종학당재단'을 설립(2012년 10월 24일)하여 본격적으로 한국어 보급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2019년 12월 기준 전 세계 60개국 180개소의 세종학당에서 72,713명이 수강했다. 세종학당에서는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표준 교재 〈세종한국어〉 및 〈세종한국어 회화〉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다양한 콘텐츠로 학습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또한 이들 세종학당 중 40개국 83개소에 140명의 한국어교원을 파견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기여했으며, 세종학당 관계자 대상 지역별 세종학당 워크숍 확대 개최(유라시아(6월), 아메리카(8월), 동남아시아(11월))를 통해 권역별로 특화된 교육 방법론을 모색하고 해외 한국어 · 한국문화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세종학당의 전략적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해 해외 현지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앞으로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표 3-2-7 세종학당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반 세종학당 수	3개국 13개소	4개국 14개소	6개국 17개소	13개국 23개소	24개국 41개소	36개국 68개소	46개국 93개소	48개국 103개소	49개국 111개소	52개국 116개소	45개국 110개소	47개국 110개소	50개국 118개소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강자 수(명)	740	2,906	4,301	6,016	9,348	16,590	22,135	28,457	27,420	32,674	34,931	42,746	53,752
문화원 세종학당 수	-	-	-	-	16개국 19개소	19개국 22개소	24개국 27개소	24개국 27개소	24개국 27개소	24개국 27개소	27개국 30개소	27개국 31개소	27개국 31개소
수강자 수(명)	-	-	-	-	9,160	12,203	15,042	15,689	15,888	16,875	21,271	19,064	18,961
합계	740	2,906	4,301	6,016	18,508	28,793	37,177	44,146	43,308	49,549	56,202	61,810	72,713

또한 세종학당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등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온라인으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한국어교육 대표 사이트인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을 운영한다.

그림 3-2-3 누리-세종학당, 모바일 학습 앱

가. 문법(중급) 학습 앱 나. 회화발음(중급) 학습 앱 다. 여행한국어 학습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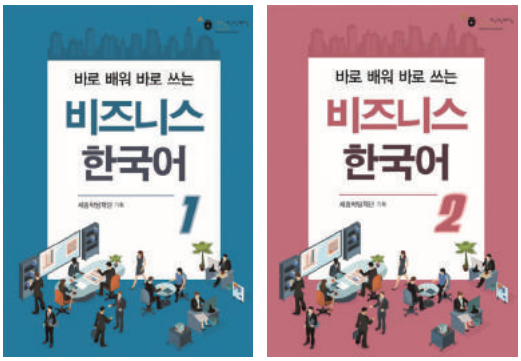
'누리-세종학당(온라인 학습사이트)' 화면 한국어 학습 앱(3종) 화면(2019년 개발)

* 자료: 세종학당(http://www.sejonghakdang.org)

누리-세종학당(한국어 · 한국문화 정보 제공 온라인 통합 서비스)은 현지 세종학당 운영자 및 한국어 학습자, 교원에게 원격교육시스템과 한국어 교육 관련 통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점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총 4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번역된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에는 「해외한국어 교육지원체계 개선 세부 실행 방안」(2016년 7월)의 후속조치로 교육부 코스넷 사이트의 콘텐츠(414개) 및 유관기관 콘텐츠를 누리-세종학당으로 이관하여, 대상별 한국어 교육과정, 한국 관광, 한식, 한국기업 취업 및 유학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 한국문화 관련 허브 사이트로 발돋움하였다. 특히, 비대면 학습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온라인 자가학습지원 기능 등 학습자 및 교원 간 실시간 상호 교수-학습 지원이 가능한

학습관리시스템 구현을 위한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고도화 및 신규 서버 교체 등 기반 개선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다. 2019년 말 기준, 누적된 회원 수는 200,916명이며, 연간 이용하는 접속자 수는 971,684건에 이르고 있으며, '굿 콘텐츠 서비스' 인증(2018년)을 받아 교육 콘텐츠 품질의 우수성과 효과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최근 모바일 학습 환경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한국어 어휘학습 초급 앱 출시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한국어 어휘 초 · 중급, 문법 초급, 회화 초급 학습 앱 3종, 2018년에는 시사한국어 어휘 고급, 문법 중급1, 회화 · 발음 중급1 학습 앱 3종, 2019년에는 문법 중급2, 회화 · 발음 중급2, 여행한국어 학습 앱 3종을 각각 개발하였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자가 학습에 기여하고자 초급 학습 앱(어휘, 문법, 회화 · 발음)에 대한 다국어 번역(한,영,중,베,스,인니)을 확대(총 6개 언어)하였다. 특히 한국어 학습 앱은 2017년 서비스 제공 이후 326,444건 다운로드 되었고, 한국데이터진흥원으로부터 2017년~2018년 연속 '굿 콘텐츠 서비스' 인증을 받아 사용자 편의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향후에도 신남방(신북방) 등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해외 한국어 학습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국어 번역 등 현지화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비즈니스 한국어」교재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재

현재 세종학당의 기본교재인 「세종한국어 1~8」에 이어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세종한국어 회화 1~4」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세종한국문화 1~2」를 개발하여 학당에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한국 기업 취업 목적 학습자를 위한 「비즈니스 한국어 1~2」와 한국 여행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행 한국어」, 결혼 이주자를 위한 「결혼이민자 한국어 1~2」 등 다양한 학습 수요에 대응하는 교재를 개발하였다.

또한, 한국문화 보급 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세종학당이 '세계 속의 작은 문화원' 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현지 수요 맞춤형 한국문화 전문가 파견 사업인 '세종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총 18개국 35개소 세종학당에서 세종문화아카데미를 운영을 한 결과, 12,625명의 수강생이 참여를 하였다. 아울러, 세종학당 수강생의 한국어 말하기 실력 향상 및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실시하고, 시범 사업으로서 쓰기 대회 또한 진행되었다. 특히, 말하기 대회 본선에 진출한 우수 학습자 140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어 · 한국문화 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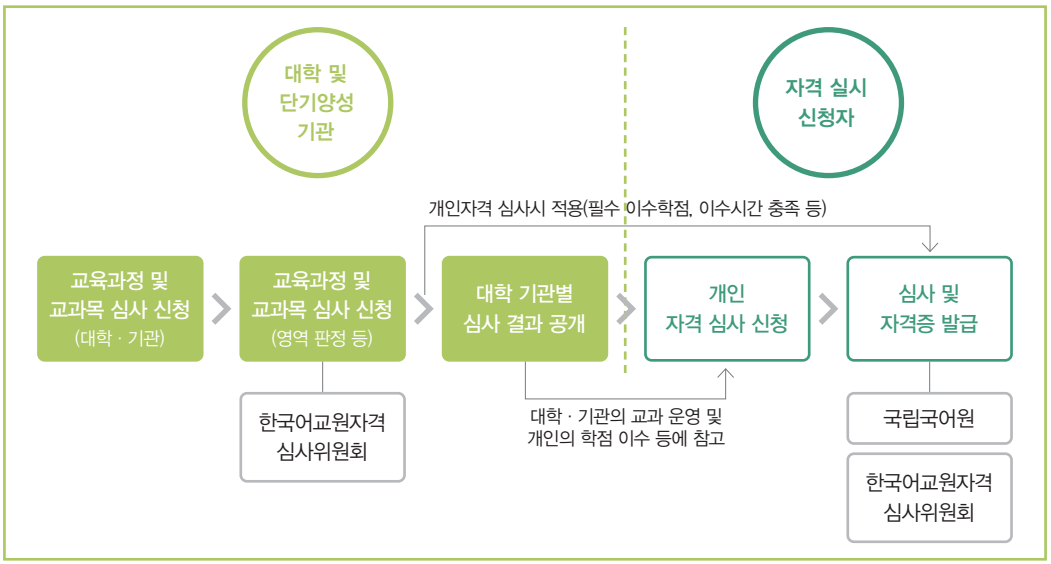
제공하고, 말하기대회 결선 입상자들에게는 단기 한국어 연수(3~6개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다양한 세종학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어의 대외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외 한국어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세종학당' 브랜드 사업은 표준화된 관리 · 지원을 통해 국외에서 한국어교육기관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대내외적으로 알려 국가브랜드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및 교원 연수 사업 운영

2005년 「국어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2006년 상반기부터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가 실시되었다.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제도는 기본적인 교육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과 필수이수시간 등을 제시함으로써 체계를 갖춰가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자격 취득자가 매년 증가하여 2019년 12월 31일 기준 총 48,764명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었다.

그림 3-2-4 한국어 교원자격제도 심사 체계



* 자료: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http://kteacher.korean.go.kr/)

한편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 국외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매년 해외 8개 내외 지역에 한국어 전문가를 파견하는 사업과 현지 외국인 한국어 전문가(한국어학 학 · 석사 학위를 소지한 한국어 관련 종사자)를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총 11개 지역에 한국어 전문가를 파견하여 해당 지역의 한국어 교원 연수를 진행함과 동시에 한국어 교육 현황을 파악하였고, 14개국 16명의 외국인 한국어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대 6주간 연수회를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어 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 이론 연구 및 개발, 한국어 교원

역량 강화,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한국어 교육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9년 '배움이음터'(국립국어원 주최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 명칭)는 대상별 맞춤형 연수회를 집합 연수회와 찾아가는 연수회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집합 연수로 국내 대학 관리자급 전문 교원 대상 배움이음터를 1회 개최하였으며,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원 관련 배움이음터를 각 1회씩 개최하였다. 국내 찾아가는 배움이음터는 총 18회 개최되었다.

4) 한글문화큰잔치

그동안 한글날 전후로 산발적으로 행해진 기념행사를 집약적으로 모아 그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2008년부터 한글날 기념식과는 별도로 한글날 전후 일주일을 한글주간으로 선포하고 공연, 전시, 체험 및 참여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한글의 가치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즐기는 문화 축제로 승화시켰다. 또한, 한글발전유공자 포상, 세종문화상 포상,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시상 지원 및 수상자 초청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해외 세종학당, 지자체, 전국 국어문화원 및 한글 관련 단체에서도 기념식 및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표 3-2-8 역대 한글 주간 개요

구분	기간장소	주제	대표행사	디자인
2008	10. 4. ~ 10. 11. 경복궁 수정전 및 일원	한글, 피어나다	• 한글주간 선포식 • 한글 스승전 * 한글순회전(일본, 11월)	
2009	10. 6. ~ 10. 12. 경복궁, 세종문화회관, 올림픽파크텔	한글, 세상을 담는 아름다운 그릇	• 한글 공간전 * 체험, 축제의 장 마련, UCC공모, 아름다운 한글 설문조사 • 세계한국어 교육자 대회(제1회)	
2010	10. 4. ~ 10. 10. 광화문 일원 및 전국	한글, 세상과 어울림	• 글꼴 공모 · 초대전 • 한글누리 어울림마당 (공연 등 부대행사 종합 마당) * 제1회 외국인 우리말 겨루기대회	

구분	기간장소	주제	대표행사	디자인
2011	10. 3. ~ 10. 9. 광화문 일원 및 전국	한글로 통하다	• '문자는 살아 있다' 전시 * 세계문자의 변천사, 문자 체험 • 한글누리 어울림마당 (공연 등 부대 행사 종합 마당)	
2012	10. 5. ~ 10. 11. 광화문 일원 및 전국	한글, 함께 누리다	• '톡톡한글, 누림 세상' 전시 * 문자 표현 도구 전시 및 체험 • 한글누리 어울림마당 (공연 등 부대행사 종합 마당)	
2013	10. 7. ~ 10. 13. 광화문 일원 및 전국	한글아 놀자	• '한글 꽃, 한글 꿈' 전시 * 한글을 활용한 작품 체험 전시 • 한글문화 큰잔치의 밤 (공연 등 부대행사 종합마당)	
2014	10. 7. ~ 10. 10. 광화문 일원 및 전국	한글, 세상의 아름다움	• 한글 반포식 재현, 디자인 공모전 •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문화행사 • 한글문화 큰잔치의 밤 (공연 등 부대행사 종합마당)	
2015	10. 5. ~ 10. 9. 광화문 일원 및 전국	다 함께 즐기는 한글	• 한글 반포식 재현, 디자인 공모전 • 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이 걸어온 길' 전시 • 한글문화큰잔치의 밤 (공연 등 부대행사 종합마당)	
2016	10. 5. ~10. 9. 광화문 일원 및 전국	온 세상, 한글로 비추다	• 한글문화큰잔치 전야제(한글날 주제 선포식, 한글 창의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축하공연 등) • 한글문화큰잔치(공연, 전시, 체험 등 부대행사 종합마당) • 국립한글박물관 특별전 '원도, 두 글씨장이 이야기', 책사람 강연, 체험행사 등	

구분	기간장소	주제	대표행사	디자인
2017	10. 5. ~10. 9 광화문 일원 및 전국	마음을 그려내는 빛, 한글	• 한글문화큰잔치 전야제(한글날 주제 선포식, 한글 창의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축하공연 등) • 한글문화큰잔치(공연, 전시, 체험 등 부대행사 종합마당) •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전 "한중일 서체 특별전, 한글 전래동화 100년 • 해외 세종학당 및 국어문화원 행사 등	
2018	10. 5. ~10. 9 광화문 일원 및 전국	한글, 세상을 품다	•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 기념 행사 • 한글문화큰잔치 전야제(한글날 주제 선포식, 세종문화상 시상, 한글날 기념 음악회 등) • 한글문화큰잔치(공연, 전시, 체험 등 부대행사 종합마당) •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전 "개화기 한글 해부학 이야기" • 해외 세종학당 및 국어문화원 행사 등	
2019	10. 5. ~10. 9 광화문 일원 및 전국	한글, 세상을 열다	• 한글문화큰잔치 전야제(한글날 주제 선포식, 한글 창의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축하공연 등) • 한글문화큰잔치(공연, 전시, 체험 등 부대행사 종합마당) •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전 "한글의 큰 스승" • 해외 세종학당 및 국어문화원 행사 등	

표 3-2-9 역대 한글 주간 개요

구분	주요 내용	2019년 수상자
세종문화상	• 목적: 세종대왕의 창조정신과 위업을 계승하고 문화 창달 장려 • 대상: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 • 부문: 한국문화, 예술, 학술, 국제문화교류, 문화다양성 5개 부문	• 한국문화: 홍정실 길금공예연구소 소장 • 예술: 안은미 안은미컴퍼니 예술감독 • 학술: 권헌익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 문화다양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 • 국제문화교류: 수상자 없음
한글발전 유공자 포상	• 목적: 한글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세종대왕의 창조정신과 위업을 계승 • 대상: 한글의 진흥과 발전에 공적이 큰 개인이나 단체 •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화관 문화훈장: 최윤갑 전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 문화포장: 박창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문화포장: 고 오봉협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 문화포장: 이상우 한국추리작가협회 이사장 • 대통령표창: 김응수 케냐 나이로비 세종학당장 • 대통령표창: 도블렛맘멧 아자디국립투르크멘세계언어대학교 • 국무총리표창: 심의두 (사)한글세계화문화재단 이사장 • 국무총리표창: 김문태 서예 작가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 목적: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널리 알리고 전 세계 문해율 향상에 기여 • 대상: 개발도상국의 모국어 발전과 보급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 유네스코 본부(프랑스 파리)에서 시상	• '알제리 국립 성인문해교육청'(Algerian National Office of Literacy and Education for Adults)의 '국가 다중언어 문해 전략 프로그램' • '세네갈 방직개발회사'(Senegal's Textile Fibres and Development Company)의 '세네갈 남부 농민들을 위한 모어 기반 기능 문해와 후속 직업 훈련 프로그램'

5) 국가 언어 자원의 수집 및 통합 정보 서비스 강화

(1)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사업은 기존 「표준국어대사전」의 50만 항목도 활용하되 기존 사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가 언어 지식의 관리 체계를 만든다는 전략으로 기획되었다.

2010년부터 본격 추진한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사업은 기존 사전의 풀이가 어렵고 기존 사전에 실생활에 필요한 언어 정보가 많이 빠져 있으며 정보 · 지식 사회에 걸맞은 언어 지식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 그리고 급증하는 한국어 수요에 대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10개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구축하여 2016년 10월 5일 개통하였다.

「우리말샘(http://opendict.go.kr)」은 기존의 풀이를 쉽게 수정하고 신어 및 생활용어, 방언, 전문용어 등 실생활 용어를 대폭 확충하여 이를 위키피디아 사전처럼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되, 전문 감수 체계 운영으로 사전 내용의 질이 관리되는 인터넷 기반의 언어 지식 관리 체계로 일반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3-2-5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배경 및 추진 방향

이전 현황(표준국어대사전, 일반 인터넷 사전 등)		추진 계획
한정된 표준어, 규범 정보 중심		모든 (한)국어 정보의 수집, 축적
실생활 언어 정보 미흡		신어, 방언, 전문어 대폭 확충(구 단위 형태 포함)
전문가 중심 사전 편찬 체제		일반 사용자 참여가 가능한 국가 언어 지식 관리 체계
인터넷 사전 등에 미 검증 언어 정보 난립	▶	자료 감수단 구축, 운영
한국어 학습 자료 부족		한국어기초사전, 다국어사전 구축
전문어 설명, 맞춤법 설명 등의 언어와 관련된 부가적인 지식 정보 부족		어휘 역사 정보, 지식 정보, 국어 생활 정보 등 다양한 언어 지식 정보를 포함하는 사전 지향

그림 3-2-6 '우리말샘(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의 특징

「한국어기초사전(http://krdict.korean.go.kr)」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을 위한 5만 항목 규모의 한국어 학습용 기초사전이며,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은 「한국어기초사전」의 표제어와 뜻풀이를 베트남어, 타이어, 러시아어, 몽골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아랍어의 10개 언어로 번역한 사전으로 「우리말샘」과 함께 2016년에 개통하였다.

2017년부터는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였다. 2019년에는 일반인의 집필 참여가 2018년의 증가 추세에 이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사전 표제어나 뜻풀이로 등록을 요청한 것이 56,619건으로, 36,162건을 기록한 2018년에 비해 약 20,000여 건 이상, 약 56.5% 늘어났다. 일반인 참여 56,619건 중에 전문가의 감수를 거친 10,286건은 사전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이외에도 2019년에는 표제어의 정확한 의미와 사용 맥락을 이용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멀티미디어 자료(사진, 동영상 650 항목)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국어 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에 대해서도 2019년에는 사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42건을 감수, 30건을 반영하였으며, 신규 표제어 추가 및 내용 수정 사항을 10개 언어로 번역하여 총 1,110건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국립국어원 한국어-중국어 학습사전」의 2018년도 3차 구축 결과물인 14,000여 항목의 유지 보수 및 통합 정비를 진행하였다.

6)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사용 환경 개선

(1)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과 일반 성인 대상 국어 연수 프로그램인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여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 화법, 공문서 바로 쓰기, 국어 정보 활용법 등을 익히게 함으로써 국민이 우리말과 글을 바르게 알고,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국어문화학교

정규 교육 과정과 더불어 독서 · 화법 · 작문 특별 과정, 어문규정 · 공문서 특별과정 등을 운영하여 교육 내용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국립국어원 내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과정에 참석하기 어려운 수강생들을 위하여 강사를 현지에 파견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여 국어교육의 기회가 국민 누구에게나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썼다. 이로써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어 2019년에는 국어전문교육과정인 정규과정, 특별과정 등을 총 28회, 2,238명이 수강하였다.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총 1,234회 45,521명이 수강하였고, '온라인 국어문화학교'를 통해서도 2,899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총 50,658명이 국어문화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한편,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국어문화학교의 만족도는 90%를 넘어 국어문화학교가 국어 전문 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학습 공백이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쏙쏙 국어교실'을 확대, 심화 운영하는 등 언어 소외 계층의 기초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 언어 소외 계층 청소년들에게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국어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국립국어원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국어 관련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국어생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의 상담 건수는 총 216,710건이고, 상담 매체별로는 가나다전화 76,744건, 온라인가나다 35,107건, 누리 소통망을 통해서는 104,859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상담 내용은 어문규범뿐만 아니라 국어 문법, 국어정책, 언어생활 등 국어생활 전반에 걸쳐 있다. 국립국어원은 상담 내용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가나다 상담원 회의 및 상담원 전체 연찬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 2회 실시하는 가나다전화 만족도에서는 평균 91.0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2) 공공언어 개선 지원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공공기관과 대중매체의 언어, 즉 공공언어에 아직 어렵고 낯선 한자어, 외국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이에 공공언어의 질을 개선하고자 행정, 방송, 교과서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언어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5월 국립국어원에 '공공언어지원단'(2014년 2월 '공공언어과'로 직제 개편)을 설치하여 공공기관 및 대중매체가 국민을 상대로 구사하는 공공언어의 수준 향상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사회 각 부문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우리 언어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사업을 수행 중이다. 그 하나로 기안문과 보고서를 대상으로 한 '한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쓰기'(2009),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쓰기'(2011, 2014, 2016)를 발간하여 보급하고 있고, 2019년에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언어 작성 지침서인 "개정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6,000부)를 발간하여 전국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였다. 아울러 2010년에는 공공기관별 언어의 특성을 파악하여 공공기관 언어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인 '공공언어 진단 기준'을 개발하였다. 2014년부터 이 지표를 활용하여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의 하나로 45개 중앙행정기관의 보도자료를 평가하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매년 우수 기관에 총리 표창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평가 외에 18개 부 정부업무보고자료 및 누리집을 시범적으로 평가하였고, 2019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45개 부 · 처 · 청 · 위원회의 정부업무보고자료 및 누리집을 정식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보도자료를 연중 상시 점검하여 「국어기본법」에 어긋나는 점을 규명하고 개선안을 강구하여 2016년에는 302건, 2017년에는 231건, 2018년에는 189건의 시정 권고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각급 공공기관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하여 2019년에는 17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도자료 4,080건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 생산되는 용어 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국가적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소통을 강화하도록,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을 2017년 3월에 개통하였다. 공공언어 감수 정보 및 공공용어 번역 정보, 우리말 다듬기 국민 참여 서비스 등을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https://publang.korean.go.kr/)으로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공공언어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2018년부터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에 정책용어 상담 전용 창구를 개설하여 행정용어, 정책명, 보도자료 등의 공공언어 사용과 관련된 문의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국민 제보 창구'를 개설하여 어려운 공공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의견을 모아 소관 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2015년의 266건, 2016년에 262건, 2017년의 265건을 지원하였고,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 2018년에는 328건을, 2019년에는 567건의 공공언어 감수를 지원하여 개선된 공공언어가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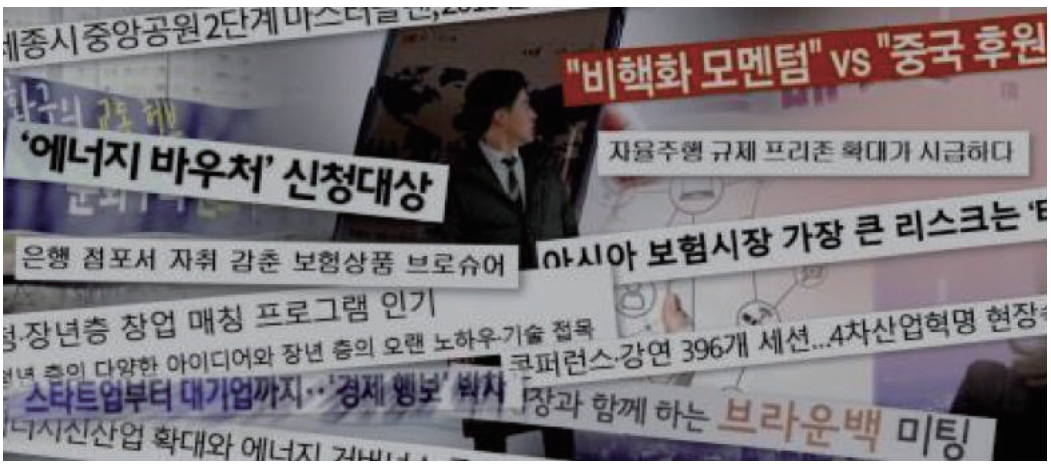
그림 3-2-7 '공공언어 통합 지원'의 누리집 첫 화면

2018년에는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가 나서서 쉬운 우리말을 쓰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라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에 '정책용어 상담 전용 창구'를 개설하여 정책용어 파급 전 상담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용어, 정책명, 보도자료 등의 공공언어 사용과 관련된 문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국민 제보 창구'도 개설하여 어려운 공공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의견을 해당 부처에 전달하고 있다.

2017년 9월 22일에 「국어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한 결과, 2016년 769명이었던 국어책임관이 2018년에는 1,830명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국어책임관 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어책임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지역별 국어문화원과 협력하여 국어책임관 · 국어문화원 공동 연수회를 17회 개최하였다. 아울러 국어 진흥 관련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 53곳에서 2019년 12월 기준으로 총 98개(광역자치단체 16곳, 기초자치단체 79곳, 교육청 3곳)으로 확대되었다.

말다듬기위원회를 운영하여 순화어 선정 기준(의미 전달력, 간결성, 조어 방식의 적절성 등)에 따라 다듬은 말을 결정하고 있다. 2004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다듬은 말은 모두 422개이다. 2016년부터는 다듬은 말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말 다듬기 사업을 홍보하였다. 국민신문고와 온라인 소식지를 활용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카드뉴스,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누리 소통망(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함으로써 다듬은 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3-2-8 다듬은 말 홍보 영상물 중 한 장면



또한 국립국어원은 전문용어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행정용어 표준화에 관한 홍보물(교육 자료용, 광고 홍보용 각 2편, 총 4편)을 지하철, 케이티브이(KTV) 국민방송 등을 통해 송출하였다.

2019년에는 대외 기관들과도 활발히 협력하였다. 건설 현장의 일본어 투 용어를 개선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건설 용어를 알기 쉽게 다듬어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밖에도 알기 쉬운 법률을 만들기 위하여 '법제처', '법제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법령 속 일본식 용어를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았다. 지에스 25, 국립한글박물관과는 한글날을 맞아 다듬은 말과 우리말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방송언어 개선을 위하여 2016년에는 '존중과 배려의 방송언어'를 주제로 '국립국어원 · 에스비에스(SBS) 방송언어 공동 연구 발표회'를 진행하여 방송언어의 품격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방송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토대로 "2016 방송언어 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7년에는 "2017년 방송언어 개선 연구—동계 올림픽 중계방송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이하여 '올림픽 중계방송의 언론 문화'를 주제로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 회원과 방송 현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평창 동계 올림픽 중계방송 언어의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2018년에는 방송언어 평가 척도를 개발하고 정교화하는 한편 이러한 평가 척도와 연계한 방송언어 지침을 개발하여 "2018년 방송언어개선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지상파 3사(KBS, MBC, SBS)의 아나운서 및 보도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방송언어 관계 교육을 실시하여 방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9년에는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연 재난방송 지침 연구"를 실시하여 2020년에 개발할 예정인 "재난방송 언어사용 지침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아나운서 및 보도부 방송 관계자를 대상으로(문화방송) 방송언어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과서는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매체로 그 시기에 중요한 언어 환경으로 작용한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2008년부터 교과서 표기 · 표현 감수를 진행해 왔다. 2019년에는 국정 초등 5 · 6학년 교과서와 지도서(총 28책, 디지털 교과서 8책 포함)를 감수함으로써 교과서 등이 바른 언어생활의 모범으로 역할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공공용어 번역 관리 체계 부재로 기관별로 번역이 추진되는 등 업무 비효율화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2013년부터는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에서 시작한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사업을 통해 오역하거나 번역 용어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에는 '공공 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문체부 훈령으로 발표하였고, 2016년에는 '외한 번역의 후부 요소 표기 실태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외국의 자연 지명과 인공 지명이 국내에 정착될 때에 어떠한 번역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문화용어와 관련하여서는, 2014년부터 한국관광공사, 한식재단, 식약처 등과 공동으로 작업한 주요 한식명 200개를 비롯하여, 2015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에서 요청한 한식명 210개를 추가 번역하였고, 2016년에는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강원도 지방 음식명 100여 개를 번역하였다. 2017년에는 "공공용어 번역(영중일) 수용성 연구 사업을 수행하여 한식명을 비롯한 공공용어의 번역 수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고,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음식으로 번역 범위를 넓혀 한식재단에서 추가 의뢰한 음식명 400개의 표준 번역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해외문화홍보원 등이 요청한 음식명에 대한 표준 번역안을, 2019년에는 한국관광공사 등이 요청한 음식명에 대한 표준 번역안을 마련하여 2019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총 2,934건(영, 중, 일 각 978건)의 음식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국립국어원은 공공 용어 번역 표준화를 위한 실태 조사 및 기초 연구도 계속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주요 관광 문화 용어를 대상으로 한 공공 번역 수용성"을, 2019년에는 "재난 안전 안내 번역 실태 조사 및 표준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주요 관광 문화 용어가 포함된 자연 지명(영, 중, 일 각 840여 건)과 인공 지명의 표준 번역안(영, 중, 일 각 800여 건)을 마련하였고, 재난 안전 용어(영, 중, 일 각 186건)을 마련하여 공공언어 통합지원 시스템(https://publang.korean.go.kr) 내 '공공 용어 번역' 부문에서 공개하고 있다. 2014년부터 꾸준히 확장해 온 우리 문물 용어의 표준 번역안은 2019년 현재 영어 2,899건, 중국어 2,896건, 일본어 2,897건에 이른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번역 용례를 감수 지원하고 잘못된 번역을 발견하면 수정 권고도 하고 있다.

(3) 바른 언어문화 기반 조성

공공언어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쉽고 바른 언어로 소통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인 청소년에게 바른 언어 사용을 교육함으로써 바른 언어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소년의 비속어 사용 문제의 개선을 위해 2011년을 기점으로 다채로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한글날 특집방송으로 대담 프로그램인 '고운 입, 미운 말'을, 2012년에는 관찰 다큐멘터리

'쉿, 욕 없는 교실 만들기'를 제작 · 방영하였다. 2011년부터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용 자료 '마음을 담아내는 창, 말'(2011), '청소년 수련시설 및 초중고교용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2012), '오염된 청소년 언어 이렇게 개선했어요'(2012)를 발간 · 보급하였다. 청소년 언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모색하기 위해 2012년에는 총 5회에 걸쳐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13년에는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공익광고 줄거리 공모전'을 개최, 수상작 중 3편을 공익광고로 제작하여 홍보하였고, 2014년에는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우수 사례 공모전' 개최, '청소년의 건전한 대화 문화 확립을 위한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2015년에는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대화 상황의 갈등에 대한 개선 방향 제시를 주제로 '공감과 소통의 청소년 대화 손수제작물(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7편의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으며, 언어를 매개로 한 인성 역량(소통, 공감, 배려 등)을 함양하도록 돕는 언어 인성교육 프로그램 '함께 가꾸는 말씨와 마음씨'를 개발하였다. 또한 우리 시대의 청소년들이 접하고 있는 언어 환경을 진단하고 언어문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연구를 위한 기초 조사'(2015)와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연구'(2016)를 실시하여, 청소년 언어에 대한 연구 자료를 토대로 청소년 언어 관련 정책, 교육 자료 개발로 확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심층 조사 및 향상 방안 연구'(2017), '언어를 통해 청소년의 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2017)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자는 청소년 하위집단(성별, 연령별, 학교급별 등)에 대한 관찰, 심층면담 및 대화분석을 통하여 청소년 언어문화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이고, 후자는 청소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조사 분석하고, 갈등으로 인한 소통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립국어원의 청소년 언어 · 인성 교육과 관련된 실제 수업에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 연구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루어진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개발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청소년 말살이 가꾸기' 6차시)을 각각 초등 10차시('바르게 곱게 함께'), 중등 10차시 프로그램('따뜻한 언어 행복한 우리 아름다운 세상')으로 수정 · 보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초 · 중 · 고교 총 15개교 154차시(연인원 3,654명)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특히 중등 프로그램은 교육부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 절차를 통과하여 2019년 교육부 인성 교육 프로그램 자격을 취득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언어문화개선 전국 청소년 연극제 '안녕! 우리말' 개최, 중학생 대상 꿈나무 말하기 멘토링 사업 지원(서울, 경기, 충청 등 3개 지역) 등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살리는 동시에 또래 언어문화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하였다. 우리말 가꿈이 양성(전국 11개 국어문화원),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강연 사업(전국 초 · 중등학교 100곳), 청소년 수련시설의 언어문화 개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청소년 참여형 언어문화 개선 활동도 지원하였다.

한편 2017년에는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는 호칭어 · 지칭어, 높임법, 인사말의 사용 실태 및 표준 언어 예절과 관련하여 불편 요인으로 예상되는 쟁점들에 대한 국민 인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10대~60대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한 것이다. 2018년에는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2017)를

바탕으로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다. 호칭과 지칭을 간소화하였고 남녀 비대칭적인 호칭과 지칭을 대칭적으로 구성하였다. 2019년에는 앞선 두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언어예절 안내서인 "(배려와 소통의 호칭과 지칭)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를 발간하였다.

표 3-2-10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구축 사업 추진 실적

<table>
<tr><th>분야</th><th>추진 내용</th></tr>
<tr><td>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구축</td><td>
• 이용자 참여형 사전인 '우리말샘' 운영
– 실생활어 중심의 112만 여 항목 등재(방언 11만, 전문 용어(67개 분야) 62만 항목 포함)
– 쉽고 입체적인 사전을 위한 뜻풀이 보완 멀티미디어 자료(사진, 동영상, 삽화, 애니메이션) 10,337항목 제공('19년 650항목 구축)
– 언어 소외계층을 위한 수어 정보(사진, 동영상) 42,502항목 제공
– 어휘 역사 정보 10,606 항목 제공
– 일반인 참여 구축 자료에 대한 교정 · 교열 및 정비
* 『우리말샘』 연도별 일반인 참여 및 반영 건수
<table>
<tr><th></th><th>2016년
(10월 개통 이후)</th><th>2017년</th><th>2018년</th><th>2019년</th></tr>
<tr><td>일반인 등록 요청</td><td>3,006</td><td>7,467</td><td>36,162</td><td>56,619</td></tr>
<tr><td>전문가 감수 사전 반영</td><td>1,644</td><td>2,208</td><td>8,232</td><td>10,286</td></tr>
</table>
–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고도화 사업 추진

• '표준국어대사전'의 사전 콘텐츠 정비 및 보완
– 뜻풀이 · 띄어쓰기 등 콘텐츠 정비 및 보완 2,921 항목('19년)
– 누구나 자유롭게 사전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완전 개방('19년 3월)
– 전문분야 개편, 뜻풀이 방식 보완 등 서비스 개편('19년 3월)

• 외국인 등을 위한 한국어 학습용 '한국어기초사전'과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운영
–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 학습용 기초 어휘 5만 항목 등재
–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한국어기초사전'을 번역한 10개 언어로 번역
*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타이어, 프랑스어 10개 언어 각 5만 항목(총 50만 항목)
– '한국어기초사전'과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의 사용자 의견에 대한 감수 및 검토, 사전 반영(30건/'19년), 신규 표제어 추가 및 내용 수정 사항에 대한 번역 및 사전 반영(10개 언어 총 1,110건/'19년)
– '한국어–중국어 학습사전' 개통을 위하여 '18년 구축 결과물(14,000여 건)에 대한 유지 보수 및 통합 정비('19년)
</td></tr>
</table>

3. 주요기관

1) 국립국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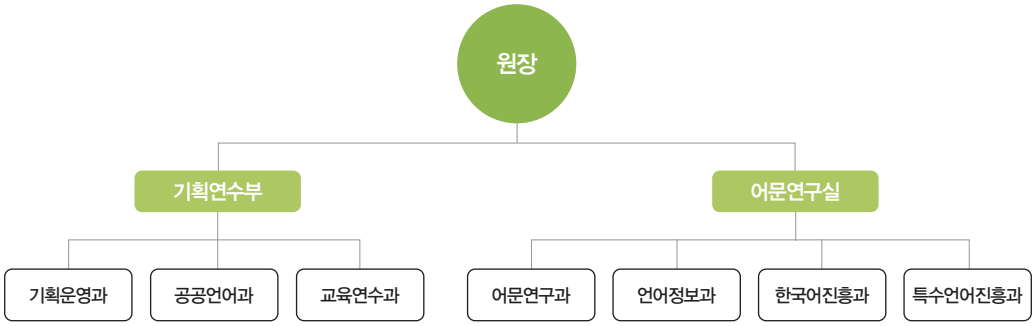
(1) 조직현황

국립국어원은 우리말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조사, 정비하여 언어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어 생활에 필요한 어문 규정을 정비하며 국어사전을 편찬하는 등 국민 언어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어와 관련된 유산을 보존, 연구함으로써 국어 생활의 향상을 이룩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국립국어원은 1984년 학술원 산하의 임의 기구로 개소한 '국어연구소'의 전통을 이어받아 문화부 창설과 함께 1991년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서울 운니동 청사에서 개원하여 2000년 지금의 서울 방화동 청사로 이전하였다. 개원 당시에는 '국립국어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업무를 시작하였고 2004년 업무 범위 조정을 포함한 직제 개정과 함께 지금의 '국립국어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국립국어원은 우리말 환경 개선과 국민의 국어 능력 강화, 언어정보 관리 및 사전 편찬, 국어문화학교의 운영, 한국어 교육 수준의 제고와 다문화 시대의 언어 소통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말 소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을 운영하여 국민과의 국어 상담 창구를 넓혀 나가는 한편 표준국어대사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사업을 통하여 표준적인 언어 정보와 다양한 언어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여 공무원, 교사 등 각계각층의 사회인들에게 우리말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어 교원 연수를 통하여 한국어 학습자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다양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한국어의 세계화에 힘쓰고 있다.

그림 3-2-9 국립국어원 조직도



※ 위치: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 누리집(홈페이지): www.korean.go.kr

국립국어원은 개원 당시 1과 3부 체제로 출발하였으나 2019년 현재 기획연수부에 소속된 기획운영과, 공공언어과, 교육연수과와 어문연구실에 소속된 어문연구과, 언어정보과, 한국어진흥과, 특수언어진흥과 등 1부 1실 7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정원은 연구직 30명, 일반직 21명으로 총 51명이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363억여 원으로, 사업비 323억 원, 인건비 36.4억 원, 기본경비 등 3.6억 원이다.

국립국어원은 국어 정책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 · 분석, 국어정보화와 사전 편찬을 통한 언어정보 체계화, 국민이 실감하는 국어 환경 개선, 국민의 국어 능력 강화, 한국어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특수언어 기반 의사소통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어문연구실의 어문연구과에서 어문 규범 정비를 통해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어 사용 실태 조사, 표준어 · 외래어 심의 및 용례 구축, 국어 정책 통계 관리, 국어생활 상담

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민족어의 통합과 민족어 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남북 언어통합 방안 연구 및 학술교류, 지역어 조사 및 지역어 정보 활용 체계 구축 사업 등을 벌이고 있으며, 언어정보과에서는 언어 자원을 정비하고 체계화하여 '언어정보나눔터' 사이트를 운영하며 표준국어대사전 · 우리말샘 등 사전을 편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진흥과에서는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하여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 자료를 개발 ·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국내외 한국어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특수언어진흥과에서는 사회 통합을 위한 언어 환경을 구축하고 농인(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언어 사용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한국수어와 점자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수어 연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한국수어 기초 자료와 한국수어 사전을 구축 · 운영하고 있으며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어 · 점자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점자 규범 정비와 표준화를 통해 점자 사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기획연수부의 공공언어과에서 국어 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 소통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언어를 대상으로 쉬운 언어 쓰기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언어의 품격 향상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또한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식명, 도로명 등 공공용어를 대상으로 올바른 번역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용어 번역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말 다듬기, 매체 언어 개선 등의 사업으로 국민의 언어문화와 언어 의식을 개선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국어 문화를 가꾸어 나가고 있다. 교육연수과에서는 공무원, 교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어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내 집합 교육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국어문화학교는 일반 과정뿐만 아니라 독서, 화법, 작문, 공문서 등 특별 과정 및 온라인 국어문화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2) 주요성과

국민들이 의사소통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기 위하여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현실화하고 보급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대한 영향 평가 및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표기 및 발음 실태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짜장면, 꼬시다, 푸르르다, 주책이다' 등 흔히 사용하는 비표준어 69항목을 복수 표준어로 정하고 한글 맞춤법 규정의 부록인 '문장 부호'를 개정하였다. 그리고 1988년에 발간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해설을 현실 언어에 맞게 개정하였다. 또한 G20 정상회의(2010), 런던 올림픽(2012) 및 월드컵 축구대회(2010), 대구 세계 육상대회(2011), 브라질 월드컵(2014), 리우 올림픽(2016) 등 주요한 국제행사 시 외국 사람들의 인명, 지명에 대한 표준 표기를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하여 표기상의 혼란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국어생활 상담 매체를 누리소통망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국어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더욱 빠르고 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국립국어원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사전을 편찬하여 한국어 사용자에게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규범 위주의 사전이었던 표준국어대사전 이외에 신어, 방언 등 언어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는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우리말샘')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우리말샘'은 1단계(2010년~ 2012년) 작업을 마치고 2단계(2013년~2015년) 교정, 교열을 진행하는 단계를 거쳐 2016년 10월에 개통하였다. 일상어, 지역어, 전문용어 등 약 100만 개 어휘를 수록하고 품사, 뜻풀이, 발음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에 더하여 어휘 역사 정보, 규범 정보, 수어 정보, 음성 · 사진 · 영상 정보, 어휘 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언어문화 정보의 집합체로서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2018년에는 일반인 참여 36,162건 중에 전문가의 감수를 거친 8,232건이 사전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보를 보완하고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개선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분기별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정보를 수정 · 보완하여 실시간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뜻풀이 · 띄어쓰기 수정 등 총 6,120항목의 정보를 수정 · 보완하였다. 한편, 증가하는 외국인 등의 한국어 학습에 부응하고자 구축한 '한국어기초사전'을 10개 언어로 번역하는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만들었다. 이 역시 지난 2016년 10월에 개통하였고, 연차별로 단계적 구축, 감수를 진행한 결과이다(2010년~2015년). 또한 우리말 정보화를 위하여 역사 문헌 데이터베이스화,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대회 개최, '언어정보나눔터'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우리말 정보의 체계화와 광범위한 공유를 가능하게 하였다.

한류 등으로 나날이 그 위상이 커져가고 있는 한국어의 국내외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하여 세종학당 교재 및 초중고 한국어(KSL) 교재, 다문화가정 대상 교재, 재외동포 유아용 언어권별 교육 자료와 다양한 보조 자료를 개발 및 출판하는 등 기초 연구를 추진하였다. 또한 한국어교원 재교육 및 교원 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8년에 찾아가는 배움이음터를 정식 도입하여 국내 약 1,015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외에도 국외 약 728명에 달하는 한국어교원들에게 연수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에 대한 심사를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2018년까지 42,230명이 취득하도록 하는 한편, 항시적 접근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외 한국어교원 교수 · 학습 통합 지원 누리집인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샘터를 구축 · 운영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것이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이기에, 이러한 공공언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기관 행정용어를 순화하고 표현을 감수하는 일을 하였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보도 자료와 국정교과서 감수, 방송 언어를 개선을 위한 평가 체계와 지침 개발, 연 4회 낯선 외국어와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기, 공공용어의 올바른 번역 정보 제공을 통해 한국어가 아름답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어문화학교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일반인, 강사 등을 위한 특별과정,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였다. 국어문화학교 이외에도 온라인 국어교육을 확산하기 위하여 한글 맞춤법 등 21개의 온라인 강좌를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지역아동센터 27개소의 아동들을 지원하였다.

국민의 언어 통합과 장애인 · 비장애인 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특수언어(한국수어, 점자)에 대한 인식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기존 〈한국수어사전〉의 표제어 중에 실제 농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수어를 사전에 반영하기 위해 농인 검토단(20명)이 한국수어사전 표제어 2,160개를 검토하였으며 이 가운데 90개를 삭제하였다. 또한 농인과 청인의 언어장벽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수한-한수 사전 편찬 작업에 착수하여 한국수어 기본 표제어 1,000개를 선정하고 용례 1,417개를 구축하였다. 더불어 한국수어 용례 동영상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용례 시스템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수어 교육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한국수어 말뭉치를 확장하기 위해 강원, 전남, 전북, 경남 지역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한국수어 원시 말뭉치(40시간 분량)와 주석 말뭉치(80분 분량)을 구축하였다. 18개 전국 국공립 박물관 문화 정보에 대한 수어 해설 영상 1,627건을 구축하여 농인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한국수어 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 35명의 교원에게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2019년 제1회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시행하였다. 또한 농인 대상 모어 교육용 교재와 강사용 지침서,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한국수어 문화학교를 운영하여 한국수어 능력을 높이고 한국수어 보급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점자 규정 해설서를 발간하고 점자 학습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점자 교육과 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점자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변화하는 언어 환경에 따라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의 국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어 정보 통합 지원 체계를 설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국어 문화학교의 교육 대상 및 개설 과정을 다양화하고 한국어 교원의 자격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3-2-10 국립국어원 전경

2) 국립한글박물관

(1) 주요현황

국립한글박물관은 기획운영과, 전시운영과, 연구교육과의 3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0명(연구직 18명)이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111.8억 원으로, 한글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 유지 42.8억 원, 사업비 69억 원이다.

그림 3-2-11 국립한글박물관 조직도

표 3-2-11 국립한글박물관 2019년도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내역	예산현황	비고
□ 한글박물관 운영	11,180	–
○ 한글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 유지	4,278	–
○ 한글박물관 전시	1,696	–
○ 한글문화 연구 · 교육	1,357	–
○ 한글문화자원 확충	3,849	–

(2) 주요성과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의 가치와 한글문화를 국내외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한글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한글문화의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며 국내외 문화교류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토대로 2016년 56만 4천명, 2017년 67만 2천명, 2018년 69만5천명, 2019년 77만6천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명실상부한 '한글문화'의 중심기관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가. 한글과 한글문화 전시

상설전시실 '한글이 걸어온 길'은 실물 자료 중심으로 한글의 역사와 미래가치를 재조명하는 공간이다. 동시에 오늘날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는 한글문화의 다양성과 문자로서의 미래를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곳이기도 하다. 기획전시실은 한글 문화사, 소장품, 한글 디자인 등 분야별 전시 주제를 특성화하여 국민 친화적 전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 가치의 해외 확산을 위하여 2016년부터 꾸준히 '한글실험프로젝트' 국내 · 외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한글 디자인: 형태의 전환'을 개최하였다. 기획특별전으로는 덕온공주 집안의 한글 자료를 소개하는 전시 '공쥬 글시 뎍으시니', 한글을 빛낸 인물들을 소개하는 전시 '한글의 큰 스승' 등을 개최하였다.

표 3-2-12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전시

전시포스터	전시개요
	ㅇ 전시명: 개관 5주년 기념 기획특별전 '공쥬, 글시 뎍으시니: 덕온공주 집안 3대 한글 유산' ㅇ 전시 기간: 2019. 4. 25. ~ 2019. 8. 18. ㅇ 전시 내용: 조선의 마지막 공주 덕온과 아들, 손녀 3대가 쓴 한글 자료와 생활 자료 200여 점 전시
	ㅇ 전시명: 제3회 한글실험프로젝트 '한글디자인: 형태의 전환' ㅇ 전시 기간: 2019. 9. 9. ~ 2020. 3. 8. ㅇ 전시 내용: 철학과 조형적 관점에서 한글의 문자적 · 디자인적 세계를 살펴보고 '조형'을 주제로 한 디자인 작품 52건 300여 점 개발
	ㅇ 전시명: 개관 5주년 기념 기획특별전 '한글의 큰 스승' ㅇ 전시 기간: 2019. 9. 30. ~ 2020. 3. 8. ㅇ 전시 내용: 국민의 참여로 직접 뽑은 한글을 빛낸 인물과 숨은 주역들을 소개(주시경, 윤동주, 방정환, 정세권, 헐버트, 허균, 최세진, 장계향, 집현전 학사, 박두성, 공병우, 최정호)

나. 한글 자료 수집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과 한글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중요 자료, 한글의 세계화 · 산업화 · 정보화 · 기계화 등과 관련한 근현대 자료, 한글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사 · 문화사 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한다. 2019년 기준 61,597점(구입 39,728점, 기증 21,801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관 68점) 한글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소장품은 다음과 같다.

표 3-2-13 국립한글박물관 소장품

명칭	연도	수량	사진	주요내용
월인석보 권9,10 〈보물 제745-3호〉	1459년 (세조5)	2		–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하여 1459년에 편찬한 불교 서적 ※ 훈민정음 창제 직후 한글의 사용례와 표기의 변천을 살필 수 있는 중요 자료
선종영가집언해 권하 〈보물 제1163호〉	1495년 (연산군1)	1		– 선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것을 정리한 책 ※ 사찰 간행 언해본의 모본이 되는 책으로 판본 및 국어사에 중요 자료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20 〈보물 제1886호〉	고려말~ 조선초	1		– 고려시대 만든 〈재조대장경〉을 인쇄한 불교 경전으로, 대표적인 여말선초 구결자료 ※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구결)을 살필 수 있는 중요 자료
말모이원고 〈등록문화재 제523호〉	1911년경	1		– 1911년경 주시경과 그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사전 편찬을 위해 쓴 최종 원고 ※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사전 원고로, 국어학 및 국어 사전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
정조어필 한글 편지첩	1755년 ~ 1798년	1		–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가 큰외숙모 여흥 민씨에게 보낸 한글 편지 14점과 한문 글씨 2점을 모아 놓은 첩 ※ 현전하는 정조 임금의 유일한 한글 자료이면서, 당시 한글의 국어사적 · 문화사적 가치를 살필 수 있는 중요 자료
청구영언	1728년 (영조4)	1		– 김천택이 직접 편찬한 최초의 가집(시조를 모아 놓은 책)으로, 시조 580수를 수록 ※ 19세기까지 170여종의 가집 중 편찬 시기가 가장 빠르고, 다른 가집의 원형적 모델을 제공하는 중요 자료
덕온공주가 왕실 한글 자료 일괄	조선말기	일괄		– 조선의 제23대 왕 순조와 순원왕후의 셋째 딸인 덕온공주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왕실 한글 자료 일괄 ※ 조선 왕실과 한글문화, 궁체 연구 등에 매우 귀중한 자료
송기주 4벌식 한글 타자기 〈등록문화제 제771호〉	1933년	3		– 1933년 송기주가 뉴욕의 타자기 제조회사인 언더우드사와 함께 만든 4벌식 한글 타자기 ※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글 타자기
박두성 한글 점자 관련 자료 일괄	20세기초	일괄		–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창안한 박두성(1888~1963)의 친필 원고, 사진 등 일괄 자료 ※ 박두성은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으로, 해당 소장품은 박두성 선생님 따님(박정희)이 기증한 자료

명칭	연도	수량	사진	주요내용
해동제국기 〈서울시유형문화재 제310호〉	17세기초	2		– 한글 창제에 큰 역할을 하였던 신숙주가 일본의 정치, 외교, 사회, 풍속, 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 ※ 유구(오키나와)어를 한글로 채록한 어음번역 등이 있는 중요 자료
몽산화상법어약록 〈서울시유형문화재 제436호〉	1467년	1		– 원나라와 고려 고승의 법어를 국역하여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불서 ※ 한글 창제 직후의 중요 한글 자료
무예제보 〈서울시유형문화재 제437호〉	1714년	1		– 1598년에 발간한 병법서 『무예제보』를 저본으로 1714년에 중간한 책 ※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중간본 『무예제보』 유일본

다. 한글 및 한글문화 연구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의 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글이 우리 생활에 끼친 영향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소장 자료를 연구, 분석하여 관련 전시 및 교육, 강연의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2019년에는 조선의 마지막 공주인 덕온공주의 한글 서예 작품 『현부인기록』, 〈자경전기〉 등의 현대어역을 정리하여 『덕온공주가의 한글 1』을 발간하고 배포하였다. 그리고 훈민정음의 확장성 활용 방안 및 훈민정음 멀티미디어 해설서 개발 등을 연구하고, 훈민정음의 현대어 번역 및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동아시아의 문자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게다가 한글과 관련한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이하여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한글문화 지식 사전 편찬의 계획 수립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한민족문화학회, 구결학회, 등 유관학회와 한글문화를 주제로 한 3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덕온공주 망전단자』, 『워드프로세서 한글 1.1(1989)』 등 소장자료를 주제로 한 강연회를 5회 개최하여 한글의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고 확산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자료관리팀에서는 개관 이후 구술채록의 대중적 콘텐츠화를 목적으로 〈한글문화인물구술채록 사업〉을 추진하여 국어, 한글산업 분야에서 총 47명 135시간의 구술 채록을 진행하였으며, 결과물을 디지털한글박물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한글, 함께 걷다』(2017년 발간), 『고국으로 돌아온 한글편지』(2018년 발간), 『김진평, 한글의 꿈을 그리다』(2019년 발간) 등 기증자료집을 발간함으로써 기증자료의 가치를 발굴하고 관련 학계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글꼴교류협력팀에서는 국내외 글꼴에 대한 기초 연구와 함께 한글문화 확산을 위하여 국내외 교류 활동을 체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2019년에는 국내 글꼴 산업 지원을 위한 체계적 조사로서 30개 글꼴 개발사 설문 · 면담을 통하여 한글 글꼴 산업 현황 조사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근대(1931년 ~ 1950년) 한글 제호 자료 70건을 자료집으로 정리, 자료집 제2권을 발간하였다. 또한 디지털 한글문화 자산 확대를 위하여 옛 문헌의 한글 글꼴 아카이브인 '옛글꼴누리'를 구축 공개하였다(12월). 국내외 신규 교류 · 협력 관계 구축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한국국학진흥원(1월) 및 사단법인 한국패션문화협회와 업무협약(3월)을 체결하였고, 아시아 주요

국가와의 긴밀한 교류를 위하여 제1회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과의 공동 학술 세미나(5월) 및 해외글꼴명사 초청강연회(5월)를 개최하였다. 또한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동서양 문자 전문 박물관 관계자를 초청, 문자 전문 박물관의 현황과 전망을 논하였다. 글꼴교류협력팀은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및 협회 활동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세계박물관대회 참석 및 국제정보과학위원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국외 유관 기관 및 국제 기구 · 단체와의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한국박물관협회, 한국폰트협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관계 구축과 확장을 통한 국내 최초 · 유일 문자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라. 한글과 연계한 교육 · 문화 서비스 제공

국립한글박물관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한글문화의 국내외 확산과 공유를 위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대상별, 목적별로 총 27종의 한글과 한글문화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202회) 한국의 문화와 함께 한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외국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하고(5종, 73회), 세종탄신일과 한글날 주간 집중 문화행사를 실시하는 등 대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박물관 교육과 한글 교육 관련 국내외 협력망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에는 세종학당 주최 '2019년 세계 한국어대회교육자대회'와 제28회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정기 총회에 참석하였으며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집중 연수' 강의 지원, 세종학당재단 국외 세종학당 대상 프로그램 지원, 세종학당재단 주관 외국인대상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K-Stay' 사업 협력 등 국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글문화 체험 교육 운영 및 교구재와 교사 연수를 지원하였다. 또한 문화소외계층 대상 한글문화 체험 확대를 위하여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였으며(1종), 박물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여 운영하였다(서울 외 10개 지역, 20개 학급). 이 밖에도 박물관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립한글박물관 대표 체험공간인 한글놀이터의 일부(상설전시실 2부 '예쁜 한글')를 개편 완료하였다.

세종대왕 탄신일(5월 15일)과 한글날(10월 9일)에는 전시, 공연, 강연, 체험 프로그램 등 복합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문화가 있는 날', 어린이날, 방학 등 계기별로 연극, 음악극 등의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표 3-2-14 국립한글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9)

분류	교육명		운영 횟수(회)	참여 인원(명)
유아 단체	놀이터 속 한글 탐험		88	3,117
부모자녀 동반	도란도란 고전 즐기기(2종)		20	469
	자연 속 한글 탐험		22	563
	박물관 선생님과 함께하는 놀이터 이야기		상시	6,768
	방학교육	도란도란 고전 즐기기(3종)	20	467
		한글아 안녕(2종)	20	514
		우리 한글 멋지음	12	301
학교 연계	손글씨가 디지털이 되기까지		19	525
	붓으로 만나는 한글		9	271
	한글보따리(3종)		56	1,377
	뿌리 깊은 나무		20	479
성인	인문학 특강		4	354
	한글 상표 공방		20	654
외국인	한글문화와 우리 말글(4종)		73	1,702
장애인	알록달록 한글 숲 여행		10	195
기념일	기념일 교육(세종탄신일, 한글날)		2	4,911
전시 연계	기획특별전 전시 연계 교육(3개 전시)		9	487
합계			404	23,154

마. 고객지향의 안내서비스

상설전시 해설(일 5회) 및 기획전시 해설(일 2회)을 정례화하고, 모바일 해설(한 · 영 · 중 · 일어, 50대)을 활성화하였다.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영어(주 2회) · 일어(주 1회) · 중국어(주 1회) 정기해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해설을 주말과 여름 · 겨울 방학 중 정기적으로(일 1회) 추진하였다. 유물관람 보조자료(한 · 영 · 중 · 일어)를 제작하여 해설 없이 관람을 원하는 관람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광복절, 세종탄신일, 한글날에는 특별해설을 운영하여 관객 맞춤형 해설을 통해 보다 전시를 충실히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그림 3-2-12 국립한글박물관 전경

※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 누리집(홈페이지): www.hangeul.go.kr

3) 국립세계문자박물관

(1) 주요현황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세계 문자 등을 종합적으로 전시, 체험, 연구 및 교류할 수 있는 문화기반을 조성하여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문화 창의성 ·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2016~2021년으로 총사업비는 613억 원(공사비 561억 원, 설계비 28억 원, 감리 · 부대비 24억 원)이다.

그림 3-2-13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조감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8(센트럴파크 내)에 규모는 대지면적 19,418㎡, 연면적 15,650㎡이며, 전시시설(상설 · 기획전시관), 교육 · 연구시설, 수장고, 회의실, 다목적강당, 카페테리아, 뮤지엄숍 등으로 구성 예정이다.

(2) 주요성과

세계적으로 다문화 · 다민족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문화다양성 증진과 사회 통합 및 상호 존중 등을 위한 문화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국제 사회와 한글의 가치를 공유하고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세계화 · 극대화하기 위한 복합문화 공간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요구에 따라 소통, 포용, 통섭의 매개인 문자를 통해 국민들의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계 문자사에서 한글의 의미를 재조명하여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은 2014년 12월 기본구상을 마치고, 2015년 7월 지자체 공모(9개 시 · 도 신청)를 개최하여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한 서류심사,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건립대상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를 선정하였다. 2016년 11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타당성을 확보(B/C 1.07, AHP 0.507)하였고,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건립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3-2-15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 추진 현황(2019)

ㅇ 2014년 10월~12월	기본구상 연구 수행
ㅇ 2015년 4월~7월	건립 대상지 선정(9개 시 · 도 신청 → 인천 송도 결정)
ㅇ 2016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B/C 1.07, AHP 0.507)
ㅇ 2015년 7월~2016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수행
ㅇ 2017년 3월	건립위원회 규정 제정 및 시행
ㅇ 2017년 4월	건립위원회 구성
ㅇ 2017년 5월	기본계획 고시 및 국제설계공모 공고
ㅇ 2017년 9월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ㅇ 2017년 11월~2019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ㅇ 2019년 11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공사 착공

2017년 3월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4월에 건립위원회를 발족하였고 5월에는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건립위원회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문자 · 언어, 박물관, 문화 · 예술,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5월~9월에는 국제 설계 공모를 실시하였는데 40개국 126개 팀이 참여하였다. 9월에 심사를 통해 (주)삼우종합건축사무소의 응모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설계 결과물을 토대로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하여 남광건설주식회사 등 7개 업체와 건립공사 계약을 체결, 2019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18년 6월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체결, 건설사업기술자를 배치하여 건립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16년 10월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시콘텐츠 세부계획 수립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6월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 관리 세부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8년부터 주요 소장품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에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조직 구성 · 운영 방안 기본 연구'를 완료하였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시 교육 ·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제3절 전통문화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변화하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확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화, 산업화 중심의 전통문화 정책과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전통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전통 생활문화 육성지원

(1) 한복분야 육성지원

한복의 경우 한복 관심도 제고 및 한복 산업화 기여를 위한 2010 대한민국 한복 페스티벌 축제(2010년 10월 15일~16일 창경궁)를 개최하였다. 2011년에는 새롭게 단장된 구 서울역사 '문화역 서울 284'에서 근대를 주제로 하는 최초의 한복패션쇼를 열어 '근대한복'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한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2012년에는 향후 한복문화를 이끌어갈 신진 인력 양성을 위해 한복디자인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3년 한복 교복 제작 · 보급(8개교) 및 한복의 날 행사 개최로 한복 대중화 기반을 조성하였다. 2014년에는 한복진흥센터 설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한복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한복의 날, 신한복 개발, 찾아가는 한복교육, 한복 나눔, 민간단체 한복사업 지원 등 보다 다양한 대중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에는 국내 유일 한복 분야의 진흥을 전담하고 한복 정책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인 한복진흥센터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내에 설립하였다. 한복진흥센터는 한복이 지닌 고유성을 회복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조화된 경쟁력을 갖춰 국내외 한복문화를 선도하고자 하는 미션 아래,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 상징으로 구현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복 입는 문화 조성, 한복문화 콘텐츠 육성, 한복산업의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의 목표를 통해 한복의 일상화, 대중화, 산업화, 세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15년에는 일반인 2천여 명이 참석한 경복궁 활용 '한복의 날' 행사 개최,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프랑스 장식미술관 한국복식전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복문화의 대중화 및 세계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제20주년 한복의 날을 맞아 경복궁에서 기념식 및 패션쇼, 체험전 등을 개최하여 대중화 확산을 도모하였으며, 공예트렌드페어 참가, 백화점 팝업스토어 운영 등을 통해 유통 활성화를 제고 하였다.

2017년에는 일반인 4천여 명이 참석한 '한복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초 · 중 · 고등학교에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고유 의복의 정체성 및 중요성을 일깨웠다. 또한 젊은 디자이너 및 일반인들에게 한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한디자인, 입고 싶은 우리옷'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한복의 대중화를 확대하기 위해 5명의 디자이너와 함께 35건의 새로운 한복디자인을 개발하였다. 한복 고유의 아름다움과 전통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미국의 유수패션스쿨과 연계하여 한복강좌를 개설하여 특강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2018년에는 서울지역권에 집중되어 있는 한복문화 향유의 기회를 전국단위로 확산시켜 보다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도록 기존 '한복의 날'을 '한복문화주간'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광장에서 펼쳐진 개막식을 필두로 전국 9개 지역에서 패션쇼, 전시, 체험, 관광, 교육, 퍼포먼스 등 총 9개 단체 프로그램을 실행하였고, 36개 박물관 · 미술관 · 관광지, 576개 전통시장 등 과 협업하여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공동홍보를 진행하였다.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을 통해 총 134개소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6,800명에게 체험형 교육을 제공하였다.

2019년에는 대한민국 대표 한복문화 향유행사인 '한복문화주간'의 두 번째 해를 맞아 개최 장소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부산 광안리에서의 개막식을 비롯하여 전주, 양산, 영암, 수원 등 전국 10여 개 지역에서 5개의 지역 민간단체가 참여하였다. 패션쇼, 전시,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한복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한복입는 문화 확산 및 지역의 독특한 한복문화 발굴에 기여하였다.

문체부–교육부 협력사업으로 한복교복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편한교복 정책에 따라 활동이 편한 '한복교복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약 50종의 디자인이 개발되어, 이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일선 학교에 학생들이 한복 교복을 입게 될 예정이다.

'찾아가는 한복 교육'을 통해 유치원과 초중고 등 총 168개 교육 기관, 약 7,000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복을 바르게 입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대학교를 대상으로는 한복전문교육을 진행하여, 한복 관련 강좌 및 학과의 개설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

81개의 한복업체가 참여하는 한복박람회 겸 장터인 '한복상점'을 통해 한복 소비자 접점 확대 및 한복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편한교복 정책에 발맞추어 교육부와 공동으로 '한복교복 개발' 사업을 통해 한복교복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한복의 일상화와 대중화를 높이기 위해 시작된 '한복디자인 프로젝트'는 전통예복중심의 한복디자인에서 더 나아가,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한복디자인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한다. 마지막으로 재외한국문화원, 대사관, 해외패션스쿨 등 해외문화예술의 주요 거점 등에 한복문화관련 콘텐츠를 지원하고,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프로모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3-3-1 2019찾아가는한복문화교육

그림 3-3-2 2019 한복 해외교류

그림 3-3-3 2019 한복전문교육지원 (결과전시)

그림 3-3-4 2019 한복문화주간 (부산)

그림 3-3-5 2019 한복문화주간 (북촌)

그림 3-3-6 2019 한복문화주간 (전주)

그림 3-3-7 2019 한복상점

그림 3-3-8 2019 한복디자인프로젝트

(2) 한지분야 육성지원

한지 분야는 2007년부터 태권도 단증의 전통 한지화 사업((재)국기원)을 지원하여,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였고, 2009년도에도 계속 이어갔다. 또한, 영구기록 보존 매체로서 한지의 우수성과 시장 선점, 산업화 방안으로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 복본화를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전통방식에 의해 생산되는 한지의 물성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전통한지의 특성과 용도를 집대성하여 〈한지대전〉을 발간하였다. 2011년부터 새롭게 추진한 '한지상품개발 토너먼트'는 디자이너의 많은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토너먼트에서 개발된 상품은 '2011공예 트렌드 페어'와 프랑스의 '메종 앤 오브제' 등 유명 디자인 페어에 출품하여 많은 관심을 받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지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전략을 수립하여 중국 및 동남아의 저가 닥과 폐 펄프를 이용한 품질이 떨어지는 한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채산성이 떨어지는 국산한지 시장 잠식을 극복하고 순수 전통방식으로 제조된 수록한지의 원천기술 보존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2012년 한지 물성에 대한 연구 등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국산 닥을 이용한 전통한지에 대한 '한지품질인증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 4월 '한지품질표시제'를 도입 · 운영(20개 업체 참여)함으로써 신뢰성 높은 유통구조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2014년에는 한지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 한지 세미나, 독일 페이퍼 박람회 참가 등을 추진하였고, 이어서 2015년에도 한지 뉴욕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지의 해외 시장 진출의 토대를 조성하였다. 2016년에는 한지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우수한 정책사업을 발굴 · 지원하고 한지문화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2017년에는 한지디자이너와 기업을 연계하여 시장성 있는 한지 상품 개발 지원 및 한지공공소비물품 제작 등을 통해 한지 수요 증진을 도모하였고, 한지 문화 대중화 추진을 위하여 한지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18년도에는 한지상품개발공모전을 통해 12팀을 선정하여 12종의 신규 상품을 개발하고, 기존에 추진하였던 한지 디자이너와 유통사를 연계하는 것에 나아가 한지제조사까지 연계하여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10여종의 한지상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한지상품과 한지에 대한 홍보 지원을 위하여 공예트렌드페어와 독일페이퍼월드에 참가하였다. 또한 작년에 개발한 한지문화교육프로그램을 320명의 초 ·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다. 2019년도에는 한지 실태조사 및 해외 현황조사 연구를 통해 한지문화산업 중장기 기초 통계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전통 한지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한지 통합 브랜드 (BI) 디자인 개발하여 한지의 새로운 인식 변화를 주었다. 한편, 전통 한지를 활용한 고품질 한지 소비 상품 개발을 위해 유통 및 상품 경쟁력 있는 5개 팀을 선정 · 지원하여 국내 및 해외 페어에서 한지 브랜드 및 상품개발 사례를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쓰임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북촌에 '한지문화산업센터' 를 조성하였다.

그림 3-3-9 2019 한복상점

2019 한지공공소비상품 개발 결과물

2019 한지 브랜드 개발 (BI) 주인장

한지문화산업센터 구축 (서울 종로구 북촌)

한지문화산업센터 전시 공간

(3) 한식분야 육성지원

한식의 경우는 해외 한식당의 문화적 고품격화를 위하여 국가별로 현지화 된 대표 한식 메뉴 20선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한국전통음식연구소,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2007년 중국과 일본지역의 20대 한식 메뉴 개발에 이어 2008년에는 홍콩과 베트남지역의 한식 선호도 조사를 통해 각각 20대 대표 한식메뉴를 연구 · 개발하였다. 또한 해외 한식당 조리사 및 경영주를 대상으로 현지화 된 20대 한식메뉴 조리기술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행사들을 연계 추진하였다. 2009년 한식 세계화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한식에 담긴 문화가치를 발굴 · 확산하는 사업을

지속하였으며, 2013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약을 통해 음식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한식의 산업적 측면 이외에 문화적 측면의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한식정책협의회'를 구성 · 발족하여 한식의 가치 발굴 및 콘텐츠 개발, 한식의 가치 확산 홍보 ·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6년에는 2015년도와 같은 방향으로 한식문화 확산을 위해 한식문화진흥 기반구축, 지역전통 한식문화 발굴 및 확산 등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한식문화 진흥 및 확산을 위한 중장기 전략방안을 연구하였고, 한식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식문화다큐멘터리 '한식의 마음(25부작)'을 제작하여 한국방송공사를 통하여 방송하였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국내외에 한식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식문화행사 '잔치'를 개최하였다.

2018년에는 대국민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네이버와 협업하여 한식문화 동영상 공모전 '나눌수록 유익한 푸드 하우투 동영상 공모전을 추진하였으며, 조리, 영양, 식품공학 등 자연과학 분야에만 치우쳤던 기존 한식 관련 연구에서 벗어나 관련 인문학 연구를 활성화시켜 한식의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국내외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한식의 인문학」 심포지엄도 개최하였다. 또한 일반 국민들의 한식문화 향유 및 소비실태와 인식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한식문화 향유 및 융합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2019년에는 대국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한식문화행사를 기획, 추진하였다. 카카오 브런치와 함께 한식문화 이야기 · 일러스트 공모전 「우리家한식」을 개최하였고, 박찬일, 유지상, 주영하, 성석제 등의 명사와 함께 떠나는 「한식×인문학여행」을 진행하였다. 또한 전통 · 지역 한식문화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지역 한식문화 콘텐츠 기획 · 제작」을 추진하여 8개 지역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한식문화 구술 · 채록 종합계획 수립 및 시범운영」으로 한식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들을 조사, 기록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4)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전통적으로 가정이 담당했던 유아기 인성교육 기능이 오늘날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이는 급격한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물질 중시의 사회적 가치관 확산 등이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미래세대의 인성 함양이 직접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한국인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문화와 한국적 가치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져, 미래세대가 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유년기는 가정에서 벗어나 최초로 공동체 활동을 영위하며 사회에 적응하는 단계이나 정신적 미성숙 등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단계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선현의 미담을 통해 나눔과 배려, 상생의 정신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옛 무릎교육의 전통을 되살려 이야기할머니들이 유아교육기관을 찾아가 아이들에게 우리 선현들의 미담 및 전래 동화 등을 들려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사업은 미래세대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하며, 전통문화의 활용을 통한 현대화라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깊다.

2009년 대구 · 경북지역에서 선발된 28명(1기)으로 시작된 시범사업은 2010년 100명(2기)을 모집했고, 2011년에는 300명(3기)을 모집하여 서울지역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2012년에는 600명(4기)을 모집하고 제주를 포함하여 전국적인 사업으로 발전했다. 2019년은 2,658명(1기~10기)의 이야기 할머니들이 7,622개의 유치원과 어린집을 대상으로 50만여 명의 아이들을 직접 방문하여 전통스토리를 들려주고 있으며, 11기 신규 이야기할머니도 330명을 선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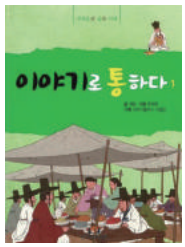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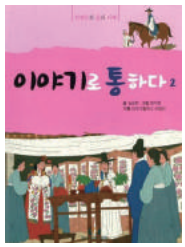
또한 올해는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외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전통스토리를 들려줌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인성함양에 기여하고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도서 · 벽지지역 병설유치원 및 소아병동 등 30개소을 대상으로 70회를 실시하여 500명의 원아들과 해당기관으로 지속적은 활동을 희망하여, 2020년에는 90여개소로 활동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림 3-3-10 2019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교육현장 및 현장 활동

이와 함께 할머니들이 들려줄 이야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내외의 고전, 우리 주변의 현대 미담 발굴 등의 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맞는 이야기 교재 개발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야기 소재는 전승되는 우리의 옛이야기와 선현들의 교훈적인 미담을 중심으로 공모하여, 유아들에게 들려주기에 적합한 주제(정직, 효, 우애, 성실, 사랑, 지혜, 신의, 충성 등)를 담았으며,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하고 있는 전통기록자료에서 추출한 내용도 담고 있다.

표 3-3-1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교재 발간 현황

도서명		내용설명	비고(교재사진)
도란도란 이야기	도란도란 이야기 보따리	• 우리나라 전래 기록이나 설화, 민담에 등장하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소재를 이야기로 개발. 하늘을 감동시킨 효자, 기지와 용기로 위기를 헤쳐나간 이야기, 이웃을 위해 재산을 내놓은 부자, 어진 임금의 나라사랑 등 우리 조상들이 남긴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이 담겨 있음	
	우리 옛이야기편 (30편)	•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화들을 발굴하여 유아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는 이야기로 재구성.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 친구 간의 의리, 꿈을 이룬 아이 등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는 사연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	
	세계 옛이야기편 (35편)	• 중국, 일본, 라오스, 이스라엘, 그리스 등 동서양의 전래 기록들을 이야기로 꾸려져 있음. 이 책 속에는 정직, 인내, 우애, 협동 등 세계 여러 민족이 역사를 통해 깨우친 유익한 교훈들이 동물들의 우화나 재미있는 사건을 통해 흥미롭게 펼쳐져 있음	
	우리 이웃의 아름다운 이야기편 (35편)	• 『도란도란 이야기 보따리』 시리즈 〈우리 옛이야기〉, 〈세계 옛이야기〉, 〈우리 이웃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권으로 합쳐 해설을 덧붙임. 각각의 편마다 읽기 전에는 이야기를 어떤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끝나고 나서는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지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전문가의 해설이 들어 있음	
3~4세를 위한 우리 옛이야기 33가지		• 2010년 12월 발행, 이야기할머니사업단 • 이야기할머니들께서 유아교육기관에서 특히 저연령층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야기 활동을 할 때 활용할 교재로 기획. 『도란도란 이야기 보따리』의 〈우리 옛이야기〉를 골격으로 하되 3~4세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개작	
생각은 깊고 마음은 넓게 (2012 선현미담)		• 2012년 12월 발행, 계일 지음, 김천정 그림 (30편) • 2012년 선현미담 공모를 통해 제보된 선현들의 귀감이 되는 일화 및 미담을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기획된 유아 인성 교육용 이야기 교재. 선현들의 미담을 통해 모범적인 삶의 행적을 자연스레 본받아 바람직한 인성과 덕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음	

도서명	내용설명	비고(교재사진)
선현들의 삶과 지혜 이야기로 통하다 (2013 선현미담)	• 2013년 12월 발행, 계일 지음, 정석호 그림 (30편) • 선현들의 훈훈하면서도 교육적인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긴 일화, 미담을 2013년에 공모하여 이야기교재로 개발. 옛 조상들의 귀감이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유아용 교재	
	• 2015년 12월 2쇄 발행	
선현들의 삶과 지혜 이야기로 통하다 2 (2014 선현미담)	• 2014년 12월 발행, 김승현 지음, 정석호 그림 (30편) • 선현들의 훈훈하면서도 교육적인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긴 일화, 미담을 2014년에 공모하여 이야기교재로 개발. 옛 조상들의 귀감이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유아용 교재	
	• 2015년 12월 2쇄 발행	
선현들의 삶과 지혜 이야기로 통하다 3 (2015 선현미담)	• 2015년 12월 발행, 심재은 지음, 정석호 그림 (30편) • 선현들의 훈훈하면서도 교육적인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긴 일화, 미담을 2015년에 공모하여 이야기교재로 개발. 옛 조상들의 귀감이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유아용 교재	
선현들의 삶과 지혜 이야기로 통하다 4 (2015 선현미담) * 미발간	• 2016년 11월 25일 완성(미발행, 파일) 14편 김승현 지음, 정석호 그림 (14편) • 선현들의 훈훈하면서도 교육적인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긴 일화, 미담을 2015년에 공모하여 이야기교재로 개발. 옛 조상들의 귀감이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유아용 교재	

도서명	내용설명	비고(교재사진)
우리 옛이야기 (전래동화) * 미발간	• 2016년 11월 25일 완성(미발행, 파일) 56편 박지은 지음, 김홍선 · 김영옥 · 김아영 그림 •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재미있는 전래동화를 수집하여 이야기할머니가 들려주기에 적합한 시간에 맞춰 분량을 조절하여 우리 옛이야기로 개발. 다양한 소재로 재미와 흥미 위주의 이야기로 구성	
우리 옛이야기2 (전래동화) *미발간	• 2019년 11월 25일 완성(미발행, 파일) 128편 안상학 · 윤해연 지음 •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우리고장에 전래하는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와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하고 있는 국학자료에서 소재를 발굴하여 동화로 개작함으로써 옛 선조들의 교훈과 우리고장에 대한 사랑을 체득할 수 있도록 만든 이야기 자료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 10년사	• 2019년 12월 발행, 이야기할머니 사업단 지음 • 지난 10년의 사업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전망하기 위해 발간 구성은 1부–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 10년 발자취, 2부–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의 추진과 성과, 3부–자료로 보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으로 구성됨 (총265쪽)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이 주는 의미는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이고, 둘째는 실버세대의 은퇴 후 삶의 질 확보이며, 셋째는 세대 간 교류와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고, 넷째는 민족문화 전승 및 국학의 진흥이다. 올해로 11년째를 맞고 있는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조손(祖孫)간에 이루어지던 무릎교육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와 파견 요청기관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해 그 효과를 입증 받고 있다.

표 3-3-2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만족도 조사 결과(2017~2019년)

(단위: 점)

구 분	전체	이야기할머니	유아 교육 기관장	교육 교사	학부모
2017년	89.3	86.9	91.7	89.5	84.5
2018년	90.4	89.3	91.6	90.6	85.4
2019년	90.6	87.4	92.1	91.4	88.7

또한, 고용노동부가 전 부처의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서2017년 "A등급", 2018년 "S등급", 2019년 "A등급"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지난 시점으로 지난 10년의 사업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 10년사』를 발간했다.

1부에는 이야기할머니 사업 10년간의 발자취, 2부에는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 3부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담아 발간했다.

또한 2019년은 첫 기수로서 이야기할머니 활동을 시작한 1기 이야기할머니들의 활동이 종료되는 해이기도 했다. 졸업한 할머니들 가운데 활동을 희망하는 할머니들은 자체 심사를 거쳐 4명의 선발하여 재초빙하여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할머니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5) 전통문화 융복합 자원 발굴

2012년 발표한 전통문화 창조적 발전 전략에 따라 문체부는 세시풍속 이어가기 사업과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창조적 계승사업을 진행하였다.

세시풍속 이어가기 사업은 세시풍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단체를 지원하여 세시풍속 행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세시풍속 지키는 전통마을로 정읍(정읍학연구회), 완주(청포마을감영농조합), 공주(공주문화원)를 선정 지원하였고 세시풍속 축제로는 대구 감상동 정월대보름 대동제, 정읍 정량골 당산굿 축제, 강릉 망월제, 종로구 인사동 한가위 축제, 전남 강진 해신제, 충북 제천 오티별신제, 충남 서천 기벌포 대보름 축제, 전남 고흥 월악당산굿제 등을 지원하였다. 2016년과 2017년에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사전 홍보성 행사로 강릉 망월제를 지원하여 시문화제전 행사를 진행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속 우리문화를 홍보하기도 하였다.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창조적 계승사업은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현대와 융복합하여 상품을 개발하는 작가를 지원하고 전통기술을 지닌 장인과 현대적 감각을 가진 디자이너가 협업하여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대적 디자인 속에 전통의 숨결을 불어 넣어 개발된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은 전통문화의 일상화 · 생활화 · 대중화를 목표로 개발되어 전통문화 상품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 · 내외 전시 참가를 통해 홍보해 왔다.

2014년에는 신(新) 전통문화 육성 진흥 연구를 통해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창조적 발전방향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으며,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개발 교육을 운영해 관련 전문가를 발굴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했고 융복합 플러싱 공모전을 열어 신제품 개발 및 리뉴얼을 지원해 총 15개 상품이 개발되었다.

2015년에는 전통문화 융복합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계승형, 개발형, 창조형 총 3개 분야의 상품개발을 진행했다. 전통문화 자원 간 상호 융복합을 목적으로 개발된 계승형은 4개 상품이 개발되어 전통문화의 격을 높였으며, 전통문화와 현대적 기술을 융복합 시킨 개발형 상품은 3D프린터, 블루투스, 드론 등 최신 IT기술 및 현대산업과 전통문화가 결합된 아이디어 상품 12종이 개발되었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에 스토리텔링을 더한 창조형 상품으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전통문화 상품이 10종 개발되었다. 상품개발뿐만 아니라 개발된 상품을 전시하여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상품전시지원을 진행하여 상품 상용화를 위해 노력했다.

2016년에는 장인과 디자이너의 협업으로 상품을 개발하는 '지역전통문화 기술을 활용한 창조명품 육성사업'을 통해 장인 8명과 디자이너 6명이 협업하여 지역전통문화를 계승해 온 장인의 전통기술과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이 결합한 16개의 상품이 개발되었다. 더불어 신진작가 및 예비창업자가 개발한 전통문화상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상품의 패키지 개발, 홍보비 지원, 상품 매뉴얼 제작 등 총 16개 상품의 상용화를 지원했다. 또한 이탈리아 로마 노멘타나 대로에 위치한 주이탈리아 로마 한국문화원의 개관식에 맞춰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을 보급하였으며 문화나눔 교류행사를 운영하였으며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전통문화 세시풍속 축제를 지원하여 세계 속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창조명품 육성 사업을 통해 8인의 장인과 7인의 디자이너의 협업으로 개발된 총 24점의 작품이 2017 서울디자인페스티벌에 참여하였고, 현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현대적 디자인을 입혀 새로운 융복합 우수 상품 개발에 목적을 둔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 상용화 지원사업을 통해 총 16건의 상품 리뉴얼, 상용화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였다.

그림 3-3-11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결과물**

2018년에는 혼인을 주제로 신(新) 전통문화 상품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8인의 장인/작가와 4인의 디자이너의 협업을 통해 전국 6개 지역, 7개 자원을 활용한 총 20개의 제품군을 개발하였으며 2018 공예트렌드페어에 참가하여 현대 생활에서의 전통문화자원의 시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전통문화 융 · 복합 상품개발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현대적 가치를 더한 전통문화 14개의 상품을 개발하여 국내 전시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 NY NOW 전시회, 마카오 아트마켓, 싱가포르 퍼블릭 가든 등 해외 전시 및 판매로 전통문화산업 시장 확대도 기대하게 되었으며 세시풍속 맥 잇기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세시풍속을 발굴하여 절기마다 진행된 전통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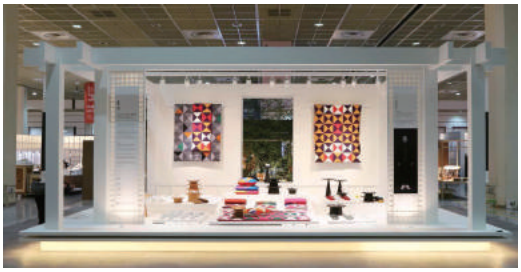
그림 3-3-12 지역 전통문화를 활용한 창조명품 육성사업

장인과 디자이너의 협업으로 상품 개발(나전칠기)

장인과 디자이너의 협업으로 상품 개발(도자)

2019년에는 청년층(20~30대) 대상으로 진행된 전통문화 향유를 위한 창의적 콘텐츠 발굴 사업은 '기승전통'이라는 주제로 전통문화의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전통문화 예비 청년창업자 발굴 및 창의적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공모로 24팀을 발굴하여 전문가 멘토링 및 교육을 통해 청년 시각의 실험적, 창의적 콘텐츠 발굴 및 향후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디자이너 1인과 전문공예작가 장인 4인의 협업으로 '혼수'라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개발된 상품은 우리나라 전통문화 자원이 지닌 고유의 물성 및 기법, 쓰임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금의 다양화된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맞추어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전통문화자원의 현대적 활용성을 타진하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시풍속 맥잇기 지원사업은 민속학 및 축제 전문가의 면밀한 멘토링 협의를 통해서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통문화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림 3-3-13 전통문화를 활용한 창조명품 육성사업



창의명품 육성 개발상품 결과물전시(2019공예트랜드페어)

창의명품 육성 개발상품(누비,도자,유리,목공)

그림 3-3-14 전통문화 향유 콘텐츠 발굴 및 육성사업

기승전통 전문가 교육

기승전통 결과발표(전주한옥마을)

그림 3-3-15 세시풍속 맥 잇기 지원사업 행사 모습

제주시 이호동(멜 그물칠 재현)

강원도 영월(동강 섶다리 밟기 놀이)

(6) 국학 자료 발굴 · 육성을 통한 전통문화 확충

우리의 전통문화의 문화적 기반 확충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전통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전통문화자산을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이를 새로운 문화 창달을 위한 기반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자료에 대한 수집 · 보존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다.

특히 민간소장 기록자료는 선조의 정신과 가치관이 그대로 녹아있는 기록문화의 정수이지만 농촌경제의 해체로 인해 멸실되고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기록자료의 멸실 · 훼손을 방지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민간 소장 기록자료를 수집 · 보존 · 연구하고 있다. 2019년에는 26,005점을 기탁 받아, 총 54만 2천여 점의 기록자료를 수집 · 보존하고 있다.

표 3-3-3 국학자료 소장 현황(~2019년 누계)

고서	고문서	목판	현판	서화	기타	합계
165,731	300,385	66,499	1,264	4,799	3,617	542,295

그림 3-3-16 국학자료 언론보도

이러한 민간소장 기록자료의 수집 · 보존 노력으로 인해 유교책판(718종 64,226장)은 2015년 10월 10일 열린 ICA(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자문회의) 총회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는 민간 소장 기록자료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자, 유교책판의 가치를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16년 5월 19일에는 189개 문중과 서원 등에서 기탁한 편액 550점이 한국 최초로 유네스코 아시아 · 태평양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017년에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2,470점(한국국학진흥원 소장자료 52점 포함)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한편, 2018년 5월 30일에는 〈만인의 청원, 만인소〉 2점이 유네스코 아시아 · 태평양지역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019년부터는 우리나라 기록유산의 가치 격상을 위하여 아시아 · 태평양지역 기록유산(한국의 편액 외 1건)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고 있으며, 국외 반출된 기록자료 반환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 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기록유산 등재를 넘어, 목판의 보존과 연구를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목판의 기록유산적 가치에 대한 국제적 인식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목판 관련 세계기록유산 및 문화유산을 보유한 4개국 16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목판보존연구협의체[IAPW]는 2015년 발기총회 이후 매년 국제목판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동아시아 목판에 대한 보존 ·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2018년 6월에는 마카오와 중국 베이징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 국가별 센터를 한국국학진흥원에 설치하여 기록유산의 활용과 가치 발굴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동참하였다.[※ 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을 담당하는 국제자문위원회(IAC) 산하 교육연구소위원회(SCEaR)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국가별 센터]

또한 민간소장 기록자료는 민초들의 생생한 삶의 기록이며, 조선시대의 '개인', '지역', '일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료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모든 기록자료는 한자나 고어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일반인들이나 전문가들이 직접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민간소장 기록자료를 수집 · 보관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번역하고 현대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학자료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사료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학자료 심층포럼을 연 6~8회 개최하였다. 포럼을 통해 생산된 결과물은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으며, 이 외에도 학술대회(연 2회), 연구서 발간(연 7~8종) 등을 통해 기록자료의 중요성과 가치를 대중과 공유하였으며, 현대적으로 활용성이 높은 자료들을 선별하여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국학연구의 대중적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발간한 교양총서 시리즈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지다'가 2018년도를 끝으로 완결(20책)되고, 올해부터는 '그때도 그랬을까'라는 주제로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진행 중에 있다. 교양총서는 2013 문화부 우수학술도서, 2014 문화부 공감도서, 2014 · 2015 · 2016 문화부 세종도서에 선정된 바 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친숙한 청년세대들과도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6년부터는 그 방안으로 전문 강사가 선비정신과 현재적 삶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20분 강좌'를 유튜브 '청비이공' 채널 등에 탑재함으로써 전통 선비정신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오늘날 청년들의 고민과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전통 선비정신과 고전에서 찾아나서는 토론 방식의 포럼인 '청년선비 고전읽기 캠프'를, 2018년에는 '선비와 여성'이란 주제로 전국 3개 권역 대학(경북대, 충남대, 전남대)에서 개최, '청년선비 시시비비 포럼'(연 1회, 서울)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어 2019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청비이공 및 청년포럼을 서울, 중국, 독일에서 개최하였고, 중국 푸단대 문사연구원, 독일 베를린자유대 한국학연구소와 학술교류협약 체결 하는 등 국제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학의 세계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림 3-3-17 2019년도 어린이고전암송대회 및 청년선비포럼

또한 창작현장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록자료를 번역 · 분류 · 재구성하는 '스토리테마파크'(http://story.ugyo.net)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일상적인 삶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일기류를 선별하여 일자별 · 분야별로 DB화하여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http://

diary.ugyo.net) 을 통하여 제공하는 한편, 번역 일기의 흥미로운 사건을 중심으로 활용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스토리테마파크 내 이야기 소재들은 창작 현장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며 다큐멘터리와 방송, 도서 등으로 재탄생되기도 하였다.

스토리테마파크는 2011년부터 연간 600여 건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으로 5,465건의 이야기 소재가 창작자들에게 제공되고 있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동 소재를 활용한 '스토리테마파크 창작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영화 · 방송 · 출판 등 전문창작자와 예비창작자, 창작소재 제공기관이 함께하는 '전통문화 창작 콘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문화콘텐츠 창작 가능성을 구체화 시켜나가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림 3-3-18 민간소장 기록자료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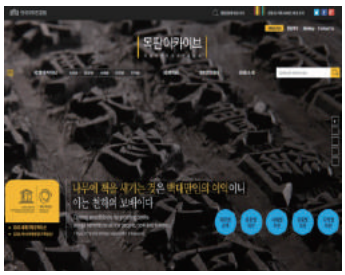
유교넷(www.ugyo.net)
• 전통문화 관련 정보 관문 사이트

옛문서생활사박물관(life.ugyo.net)
• 문서를 통해 알아보는 일상 생활사

스토리테마파크(story.ugyo.net)
• 선인의 일기 자료에서 추출한 이야기 소재 제공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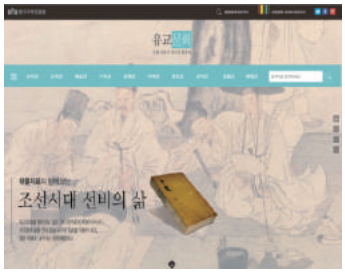
조선의 교육(edu.ugyo.net)
• 조선시대 유교 교육의 전반을 소개하는 사이트

조선의 전통건축(hanok.ugyo.net)
• 조선시대 건축 및 구조물에 대한 유형별 특징 소개



목판아카이브(mokpan.ugyo.net)
•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유교책판 소개

조선의 가례(form.ugyo.net)
• 조선의 가정 의례에 대한 정보 제공



유교문화(multi.ugyo.net)
• 유물을 통해 이해하는 조선시대 선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

사행록역사여행(saheng.ugyo.net)
• 조선시대 사행기록을 이야기 소재로 가공한 사이트

디지털 하회마을(hahoe.ugyo.net)
• 세계유산에 등재된 전통마을인 하회마을 소개

만인소(maninso.ugyo.net)
• 만인소에 대한 자료 소개

한국의 편액(pyeonaek.ugyo.net)
• 편액에 대한 유래와 내용 소개

조선시대 일기(diary.ugyo.net)
•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일자별 원문 서비스

내방가사(naebang-gasa.ugyo.net)
• 여성이 주체가 되어 기록한 내방가서 소개 사이트

(7)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동학농민혁명은 낡은 봉건제도를 개혁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만민평등을 추구한 반봉건 민주항쟁이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어난 반일 민족항쟁이다. 그러나 그 역사적 의미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반란사건'으로 왜곡되고 축소된 채 한 세기를 지나왔다. 그러다가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전후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이 전개되면서 기념사업단체들이 창립 · 활동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로 2004년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공포 3. 5. 이하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에는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맞아 최초로 대승을 거둔 황토현전승일(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정(2019. 2. 26.)되어 정부 주최로 첫 번째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제정의 목적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 ·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설립되어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 · 관리 · 보존 · 전시 · 교류사업,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유적지 정비, 동학농민혁명 연구소 설립 ·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온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정부가 직접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기간(2004~2009년)이고, 두 번째 시기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이 사업을 추진한 기간(2010년~현재)이다.

○ 첫 번째 시기,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2004~2009년)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위원회(2004. 9. 17.)는 총 15명의 위원(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되었다. 3개 분과(결정및심사등록분과, 명예회복추진분과, 기념사업지원분과)로 구성된 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 명예회복, 기념사업 등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 · 의결하였다. 「동학농민명예회복법」 규정에 따라 2009년까지 활동한 위원회는 수행하던 업무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문체부, 특수법인)에 승계하고 해산하였다.

위원회에서(2004~2009년)에서 추진한 사업은 참여자 및 유족등록, 명예회복 사업, 기념사업 등이다. 이를 위해 2004년 11월 3일부터 2005년 9월 5일까지(약 10개월 간) 제1차 등록 신청을 받았고, 2007년 2월 15일부터 2007년 7월 25일까지(약 6개월 간) 제2차 등록 신청을 받아 참여자 498명과 유족 10,567명을 등록하였고, 신청이 없는 참여자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인물들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3,146명을 참여자로 등록하였다.(전체 참여자 3,644명, 유족 10,567명) 또한,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보훈처에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全琫準) · 손화중(孫化中) · 최시형(崔時亨)의 건국포상 서훈을 요청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추진 및 정신선양사업, 기념대회 등도 지원하였다.

이 밖에도 전국 각 지역에 산재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및 기념시설의 실태를 조사하여 자료집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시설 및 유적/유적지의 실태조사』(2005)를 발간하였으며, 전국적인 반일 민족항쟁으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선양을 위한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학농민혁명 역사자료관(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아울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내 · 외 자료조사 수집 및 자료 번역, 자료집 발간 등의 학술연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가기록원(79종), 국립중앙도서관(196종), 국사편찬위원회(544종) 등 국내 주요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총 1,224종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들과 일본(국회도서관, 방위연구소 등)과 중국(당안관, 중국국가도서관 등) 등 국외 주요 나라를 총 7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일반인 및 연구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 · 해제 작업을 거쳐 자료DB 구축을 완료(2006~2009, www.e-donghak.go.kr)하였으나, 대부분의 자료들이 한문(초서)과 일본어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여 탈초 · 번역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하였다. 그 결과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동학농민군 · 관군 · 민보군 · 중앙 정부 등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한 『동학농민혁명 일지』를 2006년에 발간하게 되었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동학농민혁명 관련 주요자료를 망라한 자료집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6』도 순차 발간하였다.

ㅇ 두 번째 시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문체부 특수법인, 2010년~현재)

이 시기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제9조 및 부칙 3조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을 추진한 시기이다.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명시한 기념사업 수행을 위해 기념 및 홍보, 연구조사,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등 다양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을 추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 ·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은 제116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2010.10./경북 상주/약 8백여 명 참석)를 영남지역에서 최초로 개최하였으며, 정신선양사업 지원(전국 기념사업단체 공모사업, 14개 단체), 동학농민혁명 및 재단 홍보 소식지 창간 및 발간(2회, 계간지), 홈페이지 개편,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2회)실시, 참여자 추모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 연구 용역 수행,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 현황조사(1차, 서울 · 경기 · 강원 · 경남 · 경북), 일본 미나미고시로 문서 수집, 동학교단 자료 번역,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7~8』 발간, 『국역총서 5~6』 DB 업데이트, 유족 영상증언록 「다시 피는 녹두꽃 1」 제작, 국제학술대회(주제 : 새로운 자료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적 의미)개최, 참여자조사위원회(2회) 및 사실조사(3회/7건) 등이 있다.

2011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은 정신선양사업 지원(공모, 16개 단체), 유적지 및 기념시설 현황조사(2차 충남 · 충북, 3차 · 전북동부), 소식지 발간(계간지, 4회) 및 홍보물 제작, 유적지 답사(7회), 기념관 전시프로젝터 등 노후시설물 보수, 소장자료 도록 제작, 대만 중앙연구원 소장 자료 수집, 동학교단 자료 및 일본 미나미고시로 문서 번역, 『국역총서 9』 발간, 『국역총서 7~8』 DB 업데이트, 유족 영상증언록 「다시 피는 녹두꽃 2」 제작, 정기학술대회(주제 : 역사교과서 동학농민혁명 서술)를 개최하고 참여자조사위원회(1회), 사실조사(4회/ 9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2012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은 정신선양사업 지원(공모, 13개 단체), 소식지 발간(계간지, 4회), 유적지 답사(26회), 기념관 기획전시실 바닥재 및 전시대 교체, 휴게시설 등 노후시설 보수, 특별전 개최, 기념관 주요우물 도록 발간 및 홍보물 제작, 유적지 및 기념시설 현황조사(4차 전북서부), 동학농민혁명 정신문화콘텐츠 스토리 공모전, 중국 북경 당안관 자료수집, 「이홍장전집」 등 중국 관련자료 번역, 『국역총서 10』 발간, 『국역총서 9』 및 동학 교단자료 DB 업데이트, 유족 영상증언록 「다시 피는 녹두꽃 3」 제작, 정기학술대회(주제 : 동학농민혁명과 태평천국운동, 과거 · 현재 · 미래를 논하다)개최, 참여자조사위원회(2회) 및 사실조사(3회/11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였다.

2013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은 제119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2013. 10. 17.~10. 18./충북 보은), 정신선양사업 지원(공모, 12개 단체), 소식지 발간(계간지, 4회), 홍보영상물 제작 및 홈페이지 통합 개편, 어린이 전시실 개관, 기획전 및 소장유물 관리, 체험 공간 보수, 유적지 답사(21회), 유적지 및 기념시설 현황조사(5차 전남), 「전봉준공초」 번역, 『국역총서 11』 발간 및 『국역총서 10』 DB 업데이트, 학술대회(주제 : 1893년, 동학농민혁명의 전야를 밝히다)개최, 참여자조사위원회(1회)

및 사실조사(5회/20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기념공원 자문회의를 다수 개최하였다.

2014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은 제120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2014. 10. 10.~10. 11/서울), 국제학술대회(2014. 10. 28.~10. 29./서울) 등을 개최하였으며, 정신선양사업 지원(공모, 26개 단체), 소식지 발간(계간지, 4회), 기념관 관람 편의시설 설치 및 전시실 전시패널 교체, 기획전 개최 및 도록 발간, 유적지 답사(13회), 동학천도교 자료 번역, 『국역총서 12』 발간 및 『국역총서 11』 DB 업데이트, 정기학술대회(주제 : 새로운 자료로 본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농민혁명)개최, 참여자조사위원회(1회) 및 사실조사(5회/10건), 문화재 등록 신청(원평집강소)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지침을 마련하여 설계에 착수하였다. 기념공원은 전라북도 정읍시 황토현전적 인근 대지면적 301,329.10㎡(건축연면적 3,055.09㎡)에 체험전시관, 연수동, 묘역, 연구소, 추모관, 편의시설 및 야외 공원(울림의 기둥, 기억의 들판, 동학농민혁명의 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1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념공원 조성으로 역사 · 문화 · 체험 · 관광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이념과 인간평등세상을 추구했던 정신을 계승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발전 전망을 구상하며,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에서 축소 · 왜곡 되어온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3-3-19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조감도

2015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은 제121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2015. 10. 12./서울/약

700여명), 정신선양사업 지원(공모, 22개 단체), 소식지 발간(계간지, 4회), 찾아가는 기념관 및 이달의 유물 전시, 기획전, 기념관 노후화로 인한 방수공사, 유적지 답사(12회), 일본 국회도서관 자료수집, 「갑오군정실기 1~9」 번역, 『국역총서 13』 및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5』 발간, 『국역총서 12』 DB 업데이트, 학술대회(주제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개최, 참여자조사위원회(1회) 및 사실조사(4회/12건) 등을 추진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신청서(175건 12,000여면)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였으며, 사발통문과 일괄문서, 양호전기, 흥선대원군 효유문 3건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2016년에 추진한 주요사업은 제122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2016. 10. 11./서울/약 500여명 참석), 정신선양사업 지원(공모, 24개 단체), 소식지 발간(계간지, 4회), 기획전시 도록 발간, 유적지 답사(30회), 중국 갑오전쟁박물관 자료 수집, 「갑오군정실기 10」 번역, 『신국역총서 6~8』 발간, 『신국역총서 1~5』 DB 업데이트, 학술대회(주제 : 갑오군정실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 개최, 참여자조사위원회(1회) 및 사실조사(5회/14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워크숍(1회)도 진행하였다.

2017년에 추진한 주요사업은 제123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2017. 9. 18.~9. 19./전북 정읍/약 700여 명 참석), 정신선양사업 지원(공모, 12개 단체),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공모전, 소식지 발간(계간지, 4회), 유적지 답사(21회), 일본 국회도서관 도서 및 신문자료(1894~1895년) 수집, 「별계」 번역, 『신국역총서 9』 발간 및 『신국역총서 6~8』 DB 업데이트, 학술대회(주제 : 동학농민혁명과 한국근현대사) 개최, 참여자조사위원회(1회) 및 사실조사(4회/ 14건) 등을 추진하였다. 2016년 신청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결과 등재 신청 대상에 선정(2017. 6. 28.) 되었으며, 「동학농민명예회복법」 개정(2017. 12. 19.)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8년에 추진한 주요사업은 제124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 개최(2018. 10. 10.~10. 11./ 강원 홍천/약 600여명 참석),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 선양사업 지원(공모, 13단체), 동학농민혁명 콘텐츠개발(연극 '갑오백성' 순회공연 : 4회 / 전주시, 부안군, 고창군,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답사(21회) 소식지 발간(계간지, 4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총사업비 조정, 사업기간 연장, 재설계 및 조달청 적정성 검토, 부지경계 및 분할측량, 국 · 공유재산 무상양여)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일본 국회도서관(간사이 분관), 오사카부립중앙도서관 도서 및 신문자료(1894~1895년) 수집, 「호남초토사민종렬서목」 등 동학농민혁명 소장 고문서(49종) 번역, 『신국역총서 10』(「별계」, 「사법품보」 수록) 발간 및 『신국역총서 9』, 『다시 피는 녹두꽃』(동학농민혁명 구전 영상증언록) 1 · 2 · 3편 총 28편(770분) DB 업데이트, 학술연구논문 공모(당선작 : 1894년 일본군의 전라도 전신선 가설계획과 그 의미/박진홍) 및 발표, 정기 학술대회(주제 : 강원도와 북한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개최 등을 추진하였고.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제10조(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간 위 · 수탁 협약을 체결(2018. 9. 1.)하고 심의위원회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2018. 9. 4.)하였다. 이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2018년 9월 5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족등록신청 39건(유족 479명)을 접수받았다.

2019년에 추진한 주요사업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 11.) 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정부 주최 기념식으로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을 개최(2019. 5. 11./서울 광화문광장/약 1,500여명 참석)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 선양사업 지원(공모, 12단체), 소식지 발간(계간지, 4회), 동학농민혁명 홍보 활용을 위한 유적지 영상 촬영 및 제작,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국유재산 무상양수, 건축허가 완료, 기념공원 공사 조달청 발주, 공사 및 감리 등 업체 선정)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The British Library 등 영국 런던 소재 도서관 및 Terry Bennett Collection 관련 사진 · 신문자료 수집, 「유회성책」 등 동학농민혁명 소장 고문서(31종) 번역, 『신국역총서 11』(동학농민군 편지,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문서, 『춘당록』 수록) 발간 및 『신국역총서 10』,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 현황조사』 수록자료 DB 업데이트, 정기 학술대회(주제 : 동학농민혁명 현재와 미래,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주제 :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등을 추진하였다. 특별히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인 『소모사실(召募事實)』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제264호/2019. 12. 20.)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동학농민명예회복법」제10조(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에 따라 기념재단이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탁받아 진행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족등록신청 140건(유족 1,531명)을 접수받았다. 현지 사실조사 17회(39건)를 거쳐 제2차 심의위원회(2019. 6. 12.)에서 34건을 심의(참여자 20명, 유족 432명 인정)하였고 제3차 심의위원회(2019. 12. 4.)에서도 31건을 심의(참여자 6명, 유족 223명 인정)하여 총 참여자 26명, 유족 655명이 신규로 추가 등록되었다. 등록된 유족에 대해서는 상 · 하반기 2차례에 걸쳐 유족등록 통지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3. 주요기관

1) 한국국학진흥원

(1) 조직현황

한국국학진흥원은 멸실 및 훼손 위기에 놓인 민간소장 자료를 조사 ·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문화의 가치를 발굴하여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60~70년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농촌 사회가 붕괴되면서 문중과 서원 · 향교 등에서 더 이상 고서 · 고문서, 목판 자료 등을 보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안동지역의 대학과 지역단체, 유림에서 뜻을 모아,

국학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경상북도와 안동시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1996년 3월 7일 한국국학진흥원 업무를 개시하였다.

설립 초에는 안동군청 청사에 사무실을 마련하였으나, 2001년 10월 안동시 도산면에 현재의 신청사를 건립하여 공식 개원하였다. 2004년에는 국학자료 10만 점 수집 목표를 달성하여 이듬해 이를 보관할 전문 수장고인 장판각을 설립하였다. 2006년에는 유교문화를 대중에 알리는 유교문화박물관을 개관하였으며, 2007년에는 전통문화연수 및 교육시설인 국학문화회관을 개관하였다. 또 2004년 한문자료를 전문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고전국역자 양성과정을 개설하였고, 2011년에는 부설 한문교육원을 개원하여 안동, 대구강원에서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는 교육 연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국학문화회관을 연수부와 통합하여 인문정신연수원으로 개편 · 운영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의 직제는 설립 초기 사무국, 교육연구부, 국학자료관, 유교박물관으로 출발하였으나, 2019년 직재개편으로 국학진흥본부(연구정책팀, 연구사업팀, 고전국역팀, 이야기할머니사업단, 한국국학연구소), 국학기반본부(국학자료팀, 콘텐츠개발팀, 유교문화박물관, 기록유산센터, 한국목판연구소), 경영지원실(기획예산팀, 홍보전략팀, 총무인사팀, 재무회계팀, 시설정보팀), 인문정신연수원(연수기획팀, 운영홍보팀)을 운영하고 있다. 정원 72명(정무직 1명, 별정직 2명, 연구직 17명, 일반직 5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물로는 본관인 홍익의 집 외에 유교문화박물관, 장판각, 인문정신연수원, 별관 및 올해 12월 완공한 기록유산전시체험관까지 6개의 시설물을 갖추고 있다.

(2) 추진사업

한국국학진흥원은 '전통을 이어 미래를 여는 국학의 진흥'이라는 비전 아래, ① 세계적인 전통기록유산 소장기관 위상정립, ② 이론과 활용이 겸비된 국학연구 중심도약, ③ 한국적 가치에 바탕을 둔 교육연수 선도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국학의 세계화 · 현대화 · 실용화 · 정보화 ·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세계적인 전통기록유산 소장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국학자료를 조사 ·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헌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발굴하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소장자의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기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학계와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민간자료를 효과적으로 조사 · 수집하는 한편, 고서 · 고문서와 목판을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수장고와 장판각을 건립하여 국학자료의 보존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소장자료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서 · 고문서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하고 있으며, 해마다 문중의 기탁자료를 엄선하여 정기 기획전을 개최하고, 유관기관과의 전시교류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다음으로 학술과 실용이 겸비된 국학연구 중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문집 · 일기 · 간찰자료를 정기적으로 국역하여 발간하고, 국내외 한국학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를 통해 심층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청년세대에 전통문화와 인문학적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청년선비포럼'과 선현들이 남긴 사찬 일기자료에서 창작콘텐츠를 발굴하는 '스토리테마파크 창작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 국학에 대한 관심을 청년층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국학자료를 디지털콘텐츠로 가공한 포털사이트 유교넷(www.ugyo.net)과 조선시대 일기자료를 국역 · 가공하여 스토리텔링 소재로 제공하는 스토리테마파크(story.ugyo.net)를 운영하여 국학의 대중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적 가치에 바탕을 둔 교육연수를 선도하려는 목표 하에 '전통'과 '인문'을 매개로 강의와 현장체험을 결합한 전통인문정신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 전국 유아교육기관에 이야기할머니를 파견하여 우리의 선현들의 옛이야기를 유아들에게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3) 주요성과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국학진흥원은 국학연구에서 대중화에 이르기까지 경영철학에 걸맞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첫 번째는 기탁제도를 활용한 꾸준한 국학자료의 축적을 들 수 있다. 2019년 한국국학진흥원은 국학자료 54만점을 수집함으로써 국내 최대 국학자료 소장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이 중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2건[유교책판,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 2건[한국의 편액, 만인소]을 비롯해 국보 1종 1점[제132호 징비록]과 보물 20종 1,854점, 시도유형문화재 34종 2,244점, 문화재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유교책판의 보존, 관리에 있어서는 '국제목판연구보존협의체[IAPW]'를 구성하여 정기 총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기록유산의 보존과 발굴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또 2017년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의 업무협약[17. 11. 23]을 체결, 상호 협업하면서 2018년 5월 '한국 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를 설치하였다. [※ 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을 담당하는 국제자문위원회(IAC) 산하 교육연구소위원회(SCEaR)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국가별 센터]

두 번째는 국학의 외연을 확장해간 점을 들 수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에 산재한 국학자료를 조사 · 수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세계적인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2015년 '유교책판'과 2016년 '한국의 편액'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유네스코 아시아 · 태평양지역 기록유산에 각각 등재하고, 2018년 5월 '만인의 청원, 만인소'가 유네스코 아시아 · 태평양지역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한국국학진흥원은 '유교문화' 중심의 연구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세계적인 기록유산 소장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된 국학자료를 바탕으로 학계 연구자뿐만 아니라 유아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와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중화하는 실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청년선비포럼은 21세기 급속한 문화변동을 겪고 있는 젊은 청년층에게 청렴과 절의, 변혁의지로 무장한 조선시대 선비의 세계관과 철학을 소개하고 직접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에 빗대어 선비정신을 비판하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문학프로젝트이다. 청년선비포럼의 결과물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스토리테마파크(http://story.ugyo.net)는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된 일기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일상 이야기소재를 온라인상에 탑재한 사이트이다. 올해 말까지 5,465건의 이야기소재를 구축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콘텐츠 DB구축 뿐만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전국 대학생 ·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창작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 대중 영화와 드라마 소재 등도 발굴하고 있다. '스토리테마파크 창작 콘텐츠 공모전'으로 불리는 공모전은 올해로 6회째를 맞고 있다.

한편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은 매년 지역별로 이야기할머니를 선발하고 유치원에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전통소재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무릎교육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사업이다. 2009년에 28명의 이야기할머니를 선발하여 시작으로, 올해는 2,658여명의 이야기할머니들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파견하여 전통스토리를 들려주고 있다. 또한, 2019년 부터는 문화소외지역으로 이야기할머니를 파견하여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국학진흥원은 조선시대 방대한 기록유산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다양한 대중문화콘텐츠로 재생산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갈 길은 멀다. 수집한 국학자료의 체계적인 정리와 관리시스템의 도입, 기록유산 등재를 넘어 대중 친화적인 활용방안 마련, 국학자료 심층 연구의 저변확대 등 국학 사업의 질적 전환을 모색할 시점이다. 한국국학진흥원이 30주년을 맞이하는 즈음 어떠한 기관으로 성장해 있을지 주목된다.

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 개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 '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족의 대화합과 통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와 때를 같이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재단법인, 문화관광부, 2004. 9.)을 설립하여 활동하였다. 이후 법에 따라 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제9조에 의거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2010. 2. 24. 문화체육관광부)으로 거듭났다. 재단은 설립 이전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 및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고유목적사업을 승계하여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던 재단은 2010년 9월에 정읍황토현전적(사적 제295호) 일원의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으로 이전하였고, 이곳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 · 홍보 사업, 연구조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재단은 2011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국고보조사업 이외 전라북도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위 · 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수탁 ·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혹은 문화재청의 공모 · 보조금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재단의 직제는 사무처에 기념사업부, 연구조사부, 기념관운영부, 기념공원추진단을 두고 있는데, 이중 기념관운영부는 전라북도로부터 기념관 수탁을 받아 별도정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문체부로부터 수탁을 받아 별도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념공원추진단은 전라북도 및 정읍시 공무원, 재단 기술직 등 4명으로 구성하여, 기념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재단의 정원은 7명으로 사무처장 1명, 기념사업부 4명, 연구조사부 2명이며, 기념관 수탁운영에 따른 별도 정원 7명,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수탁운영 별도 정원 3명, 추진단 파견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추진사업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은 기념 · 홍보 사업, 연구조사 사업, 기념시설 운영지원 사업, 기념공원 조성사업으로 구분하여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매년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먼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이다.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협의조정 및 조성부지 내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완료하였고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업체 및 감리업체 등이 선정되어 공사계약 체결을 완료하였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애국애족정신 확산과 대국민 역사인식 제고를 위해 전국 규모의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를 제116주년(경북 상주)을 시작으로 119주년(충북 보은), 120주년(서울), 121주년(서울), 122주년(서울), 123주년(전북 정읍), 124주년 기념대회(강원 홍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19년 2월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제정됨으로써 2019년 5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일제 침략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고자 전국적으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을 복원 · 정립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30개 기념사업단체를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공모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재단 기관지 형식으로 소식지 『'녹두꽃』(계간)을 발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 홍보물 제작 · 배포, 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정신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념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2011년부터 2013년에 걸쳐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및 기념시설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분포한 유적지 및 기념시설물을 파악 · 정리하였다. 그 후속작업으로 아직까지도 확인하지 못한 유적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전국에 분포한 이들 유적지를 연계시켜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국내외 수집, 자료 번역 및 자료집 발간, 종합지식 정보시스템 유지 및 업데이트, 학술대회 연례 사업으로 추진 등을 통해 학술연구의 기초자료 확보 및 다양한 연구주제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및 문화재 등록 신청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수탁 · 운영이 있다. 2011년부터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수탁 받아 운영해오고 있는 재단은 매년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미래가치 구현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특별기획전과 상설전시 콘텐츠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물구입 및 관리, 어린이 · 청소년 대상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기념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을 추진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의 전국화와 미래화에 힘쓰고 있다.

기념관은 특히 2014년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하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 라는 주제의 특별전 개최 및 순회전시(독립기념관 등)를 추진하였다. 또한 '상생의 정원 조성', '포스터 공모전' 등의 특별기획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자유와 평등, 개혁과 자주를 향한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본 야마구치현문서관 유물 대여 · 협력(2012)을 시작으로 중국태평천국박물관(2014), 중국갑오전쟁박물원(2016)과의 교류 · 연대를 추진하였으며, 기념관을 알리는 영문 · 중문 · 일문의 홍보 만화를 제작 · 배포(2012)하는 등 세계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힘써왔다.

2019년 기준, 연 관람객 78,018명에 소장 유물 6,601점을 관리하는 기념관은 2019년도 기획전시를 2회 개최하였다. 동학농민군 후손이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재로 한 '우리 곁의 동학농민군 이야기'와 1890년대를 살았던 평범한 백성의 모습을 담은 전시 '포토그라프 Photograph, 1894 –민중 The People– 이다.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등을 대상으로 교육 · 체험 · 답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연 61회, 총 2,182명이 참여하였다. 이 외에 다중시설과 축제 현장 등에 전시물을 설치 · 운영한 찾아가는 기념관을 연 15회 운영하였으며,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운영하여 호응을 얻었다.

(3) 주요성과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을 제정하기 위한 '동학농민혁명기념일선정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였고 공청회 개최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맞자 최초로 대승을 거둔 1894년 5월 11일 황토현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기념일'로 선정하였다. 2019년 2월 26일에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091호) 개정안이 공포 · 시행됨으로써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되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때로부터 125년 만에 법정 기념일이 제정됨에 따라 2019년 5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 정 · 관계 인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역사학계 전공연구자, 전국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단체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국가기념식이 성황리에 거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에 대한 범국민적 확산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림 3-3-20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개최

표 3-3-4 기념대회 및 기념식 개최 현황

주 최	행 사 명	개 최 일	개 최 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재단법인)	112주년 기념대회	2006. 12. 8.	충남 공주
	113주년 기념대회	2007. 11. 9.	서울특별시
	114주년 기념대회	2008. 11. 1.	충남 태안
	115주년 기념대회	2009. 11. 7.	전남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특수법인)	116주년 기념대회	2010. 10. 29.	경북 상주
	117–118주년 미개최	2011 ~ 2012	–
	119주년 기념대회	2013. 10. 17. ~ 18.	충북 보은
	120주년 기념대회	2014. 10. 10. ~ 11.	서울특별시
	121주년 기념대회	2015. 10. 12.	서울특별시
	122주년 기념대회	2016. 10. 11.	서울특별시
	123주년 기념대회	2017. 10. 18. ~ 19.	전북 정읍
	124주년 기념대회	2018. 10. 11.	강원 홍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2019. 5. 11.	서울특별시 (광화문 북측광장)

서울 종로구 서린동 서울지하철 종각역 앞 인도에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건립사업 지원을 통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을 복원하고 재인식을 기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방송 드라마 '녹두꽃'(SBS, 총 48부작) 제작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역사인식 제고 및 범국민적 확산 · 기여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은 국공유지 무상양여 및 예산협의 지연으로 중단되었던 사업을 재개하여 재설계 및 조달청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설계 완료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완료하여 조달청에 공사 입찰 및 건축허가 완료, 공사업자를 선정하였다. 2020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기념공원 준공 이후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조직 확충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용역사업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기념공원 재설계 진행으로 공사 진행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기념공원 부지 측량 및 소유권 이전 완료로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조사를 통해 전국 각 지역에 산재해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기념시설을 체계적으로 파악 · 정리하여 향후 유적지 정비 사업은 물론이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신선양사업 추진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국 · 내외 자료수집, 매년 학술대회 개최 및 국외 주요 연구기관과 협약 체결은 국외자료 수집 및 교류 전시의 계기를 마련, 관련 연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특히 2010년부터 매년 원문 자료(한문, 일본어, 중국어 등) 번역을 추진한 결과물로 『국역총서』 시리즈를 발행하고 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대국민 원문자료 및 번역문을 제공하여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2017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대상으로 선정된 것도 큰 성과 중 하나이다.

표 3-3-5 국역총서 발간 현황

구분	권수	주요 수록 자료	발간연도	비고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권	양호초토등록(兩湖招討謄錄), 양호전기(兩湖電記) 등	2006	심의위원회 발간*
	2권	순무선봉진등록(巡撫先鋒陣謄錄)	2006	
	3권	동비토록(東匪討錄), 수록(隨錄) 등	2007	
	4권	금번집략(錦藩集略), 남유수록(南游隨錄) 등	2007	
	5권	석남역사(石南歷事), 김낙철역사(金洛喆歷史) 등	2008	
	6권	갑오기사(甲午記事), 의산유고(義山遺稿) 등	2008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발간
	7권	양호우선봉일기(兩湖右先鋒日記), 장계(狀啓) 등	2010	
	8권	선봉진정보첩(先鋒陣呈報牒), 선봉진서목(先鋒陣書目) 등	2010	
	9권	갑오실기(甲午實記), 소모사실(召募事實) 등	2011	
	10권	김약제일기(金若濟日記), 노정약기(路程略記) 등	2012	
	11권	동학도종역사(東學道宗繹史), 본교역사(本敎歷史) 등	2013	
	12권	전봉준공초(全琫準供草), 중범공초(重犯供草) 등	2014	
	13권	갑오동학란(甲午東學亂), 천도교서(天道敎書) 등	2015	

구분	권수	주요 수록 자료	발간연도	비고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권	종리원사(宗理院史), 부동학사(附東學史), 순교약력(殉敎略歷), 고흥군교구역사(高興郡敎區歷史), 균암장임동호씨약력(均庵丈林東豪氏略歷), 이종훈약력(李鍾勳略歷)	2015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발간
	2권	소모사실(召募事實), 창계실기(蒼溪實記)	2015	
	3권	학초전1(鶴樵傳)	2015	
	4권	학초전2(鶴樵傳)	2015	
	5권	미나미 고시로 문서(南小四郎文書)	2015	
	6권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1~3권	2016	
	7권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4~6권	2016	
	8권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7~10권	2016	
	9권	동정일기(東征日記), 이홍장전집(李鴻章全集),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季中日韓關係史料)	2017	
	10권	별계(別啓), 사법품보(司法稟報)	2018	
	11권	동학농민군 편지,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문서, 춘당록(春塘錄)	2019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국역총서 발간(2006년~2008년) 사업을 재단 설립 후 이어받아 지속 발간함.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전국 대표 기념시설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2012년) 하였으며, 어린이전시실(2014)과 녹두학당(2015)의 신설 · 개편으로 교육 ·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기념관의 사회교육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자산 활용방안 연구' 세미나 개최(2015),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조성 수립' 학술용역(2017)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념관이 지역 내 역사문화 관광 거점시설로 육성 ·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사업도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과 전국의 박물관, 도서관, 지역축제 행사장 등에 찾아가 전시 ·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찾아가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연례사업으로 정착화해 국민 문화 향유권 신장과 기념관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림 3-3-21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교육체험 주요사례

초등학교 방문 교육체험 프로그램(변산 격포초등학교)

관내 교육체험 프로그램(청소년)

문화가 있는 날(뮤지컬, 내 친구 유관순)

생생문화재(1박 2일 체험 답사, 가족 대상)

제4절 국제문화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국제문화교류정책은 다양한 교류주체들이 국경을 넘어 문화를 매개로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도록 인적 · 물적 교류를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방된 세계 속에서 국제적인 문화교류활동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재인식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의 문화가 세계인들이 즐기는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즉, 국제문화교류 정책목표는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문화교류콘텐츠의 다양화, 지역의 다변화, 쌍방향성 확대이다.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가 확산되어 있는 가운데 한국의 전통문화, 현대문화, 생활문화까지 교류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기존 서유럽 · 동북아 · 북미 중심의 교류에서 동유럽 · 중남미 · 중동 · 아프리카 등으로 교류 지역을 다변화하고, 일방적 문화 전파 형식이 아닌 쌍방향적 상호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국제문화교류 지원체계 정비

(1)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문화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문화로(영문명 K-Culture Road, www.kcultureroad.kr)'를 구축하고 2019년 4월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문화로'는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사업과 문화 동향 정보를 모두 수집해 민간 교류 단체를 비롯한 수요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문화로' 서비스는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 · 예술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제공 정보는 ▲ 교류 현황, ▲ 교류 지원, ▲ 교류 지식, ▲ 교류 정책, ▲ 동아시아 문화도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교류 현황'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와 콘텐츠진흥원 등 관련 기관의 국제교류 사업을 찾아볼

수 있고, 해외 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 행사와 축제 정보도 검색해볼 수 있다. ▲ '교류 지원'에서는 여러 기관의 행사와 교육, 일자리 정보를 모아서 볼 수 있다. ▲ '교류 지식'에서는 각종 발간물과 통신원 보고서(37개국 40개 지역)를 이용할 수 있다. ▲ '교류 정책'에서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령 등 정책 방향을, ▲ '동아시아 문화도시'에서는 한 · 중 · 일 문화장관 회의를 통해 추진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대한 정보(역대, 도시별)를 확인할 수 있다.

(2)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국제문화교류 지표개발 기초연구(2017)〉에 따르면,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육성 및 역량 강화'는 국제문화교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 중 1순위로 나타날 만큼 국제문화교류 분야에서 전문인력 양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은 문화 · 지역 · 언어 · 교류에 대한 국제적 지식과 역량을 겸비하고, 국가 간 상호 문화이해 증진을 위해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정의할 수 있다.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러한 기반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내 문화예술 분야 국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교육 및 해외 파견 등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해외 파견사업은 대상을 신진인력(경력 3년 미만), 준전문인력(경력 5년 내외), 전문인력(경력 7년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각 단계별 필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파견인력이 다양한 기관에서 현장 경험을 쌓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신규 파견인력은 호주(오즈아시아 페스티벌), 벨기에(한국문화원), 영국(워터쉐드) 등 13개국 13개 기관과 협력하여 문화예술 축제 인턴십, 재외 한국문화원 공동 프로젝트 기획, 문화예술 전문기관 리서치 펠로우십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기존 파견인력의 후속 프로젝트도 지원함으로써 우수인력의 역량을 심화하고 파견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하반기에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주요 이슈와 동향을 공유하고 참여자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워크숍과 아카데미를 권역별, 대상별로 특화하여 개최하였다. 특히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아세안 지역의 문화예술 현황을 집중 조명하는 워크숍을 통해 동 권역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3-4-1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호주 오즈아시아페스티벌 파견자 활동

〈아세안, 지금의 예술〉 워크숍 현장

2) 주요 국제문화교류

(1) 수교 계기 문화행사 개최

정상외교, 수교를 계기로 우리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리고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문화교류행사를 개최하였다. 동 행사는 문화를 통해 '소통과 교감'을 이뤄내고, 상대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존중과 관심을 이끌어내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문화교류의 씨앗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였다.

표 3-4-1 수교계기 문화행사 주요 추진실적 총괄 표(2019)

한 · 덴마크 상호문화의 해	난타/고래야 공연 (넌버벌/ 창작국악)	3월	덴마크 외무부 차관, 주요 외교단(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문화예술 관계자, 일반 관객 등 380여명 관람
	국립부산국악원 공연	12월	코펜하겐대학교 한국학과, 문화예술 관계자, 일반 관객 등 180여명 관람
한 · 덴마크 상호문화의 해/ 한 · 헝가리 수교 30주년	국립무용단 〈묵향〉 공연	4월	덴–한 소사이어티 대표, 덴마크 외무부사, 헝가리 상원의원(친한), 헝가리 한류재단, 문화예술 관계자, 일반 관객 등 1,046여명
한 · 브라질 수교 60주년	국립현대무용단 공연	9월	상파울루 시립극장 예술감독, 상파울루 시립발레단 예술감독, 문화예술 관계자, 일반 관객 등 2,019여명 관람
한 · 필리핀 상호교류의 해	K–POP 공연	3월	정 · 관계 주요 인사, 주요 문화예술 관계자, 일반 관객 등 3,000여명 관람
	필리핀 한국영화제	11월	문화예술 관계자, 필리핀 영화진흥위원회 국제부 필리핀국립대학 영화학부, 일반관객 등 1만 5천여명

한 · 쿠웨이트 수교 40주년 * UAE 연계	공명/두번째달/디크런치 공연 (창작국악/크로스오버/K-POP)	10월	아부다비 문화센터 음악감독, UAE 한류팬클럽, 국립문화위원회 문화교류담당 등 문화예술 관계자, 일반 관객 4,000여명 관람
한 · 폴란드 수교 30주년	국립국악관현악단 〈격格, 한국의 멋〉공연	12월	크라쿠프 국립 음악 아카데미 민속학과, 바르샤바 국제음악제 , 아담미츠키에비츠 협회 동아시아 교류담당, 문화예술 관계자, 일반관객 등 500여명 관람

가. 한-덴마크 상호문화의 해, 한-헝가리 수교 30주년 기념 문화행사

1. 한-덴마크 상호문화의 해 기념 문화행사 : 〈난타&고래야〉 공연

덴마크 코펜하겐의 블랙다이아몬드 퀸즈홀에서 월드뮤직 그룹 고래야와 PMC프로덕션의 〈난타〉, 2개 작품이 공연되었다. 이번 공연은 한국과 덴마크가 수교 60주년을 맞는 2019년을 상호문화의 해로 지정하고 연중 개최한 기념행사 중 하나이다.

한국 최초의 비언어극 공연인 난타는 칼과 도마 등 주방기구를 악기로 승화해 국적을 불문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이번 공연에서도 현지 관객을 직접 무대로 불러내어 함께 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고래야는 한국 전통악기의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 전 세계의 다양한 전통음악과 현대의 대중음악을 접목해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한국음악을 선보였다.

덴마크 현지 관객들은 '두 공연 모두 기대 이상이었다', '한국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다', '한국의 훌륭한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 한-덴마크 상호문화의 해 기념 문화행사 : 국립부산국악원 공연

다양한 한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 전통음악 공연이 덴마크 코펜하겐 DR 콘서트홀 스튜디오2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무대에 선 국립부산국악원은 전통공연예술의 보전과 창조적 계승 의지를 가지고 전통공연 및 국악교육 · 연구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예술기관이다.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인 대취타, 기악 독주 '가야금산조', 판소리 〈적벽가〉, 장구 연주자가 멋진 몸동작과 화려한 장구가락을 선보이는 '선반설장구', 국악기인 생황과 단소로 연주하는 '수룡음', 가곡인 '우락', 관악합주 '수제천'까지 총 7개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공연을 관람한 덴마크 관객들은 '한국의 전통음악을 볼 수 있는 귀한 기회였다', '멋지고 아름다운 공연이었다'며 박수를 보냈다.

그림 3-4-2 한 · 덴마크 상호문화의 해 문화행사

〈난타&고래야〉 공연

부산국립국악원 공연

3. 한–덴마크 상호문화의 해, 한–헝가리 수교 30주년 기념 문화행사 : 〈묵향〉 공연

2013년 초연 이후 한국을 넘어 전 세계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립무용단의 〈묵향〉이 덴마크와 헝가리 국민들을 만났다. 〈묵향〉은 무용가이자 안무가였던 故최현의 '군자무'를 바탕으로 한국적 아름다움을 무용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등을 소재로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정적이면서도 동시에 역동적인 한국 춤의 진정한 멋을 느낄 수 있다.

이번 공연은 한–덴마크 상호문화의 해 및 한–헝가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었다. 현지 협력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행사 홍보와 모객이 진행되었으며, 관객들과 문화예술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림 3-4-3 한 · 덴마크 상호문화의 해/한–헝가리 수교 30주년 문화행사 〈묵향〉

덴마크 국립무용단 〈묵향〉 공연

국립무용단 〈묵향〉 공연

나. 한–브라질 수교 60주년 문화예술 행사

한–브라질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현지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상파울루 시립극장에서 국립현대무용단의 〈검은 돌: 모래의 기억〉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검은 돌: 모래의 기억〉은 국립현대무용단 안성수 예술 감독의 2019년 신작으로, 전통국악으로 연주하는 새로운 춤곡에 무용수 본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안무를 곁들여 한국적 아름다움을 선사하였다. 브라질 현지 관객들은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표현력이 놀라웠다', '언어의 장벽을 넘는 좋은 공연이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 현대무용 뿐 아니라 전통무용에 대한 관심사도 커지며 다양한 한국예술을 접할 수 있는 후속 공연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림 3-4-4 한 · 브라질 수교 60주년 문화예술 행사

국립현대무용단 〈검은 돌: 모래의 기억〉 공연

국립현대무용단 〈검은 돌: 모래의 기억〉 공연 객석

다. 한-필리핀 상호교류의 해

1. 한-필리핀 상호교류의 해 개막행사 : K-POP 우정콘서트

한-필리핀 정부는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우의를 증진하고자 수교 70주년을 맞는 2019년을 '한-필리핀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하였다. 개막행사인 '한-필리핀 K-POP 우정콘서트'를 시작으로 한 해 동안 한국영화제, 태권도 문화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었다.

3월 7일 필리핀 마닐라 MOA 아레나에서 개최된 'K-POP 우정콘서트'에는 필리핀 등 15개국에서 아이튠즈 종합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던 'NCT 드림', 2015년에 데뷔한 이후 활발한 활동과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에이프릴', 데뷔하자마자 중국 12개 도시 투어와 일본 도쿄 콘서트를 개최한 '느와르', 필리핀 대표 락밴드 'Silent Sanctuary'가 출연했으며, 필리핀 현지 관객들의 열띤 호응과 함성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젊은 K-POP 팬들은 한국 인기 가수 'NCT 드림' 등의 필리핀 최초 방문에 매우 감격한 모습을 보였으며, 그 열기는 이후 미얀마 양곤에서 개최된 'K-POP 우정콘서트 인 양곤'으로 이어져 3,000여 명의 관객이 운집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2. 한-필리핀 상호교류의 해 기념 문화행사 : 필리핀 한국영화제

한-필 상호교류의 해 기념 '필리핀 한국영화제'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비롯한 7개 도시(다바오, 세부, 일로일로, 카비테, 올라가포, 팜팡가 등)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은 영화들과 필리핀 현지에서 흥행했던 작품들을

선보임으로써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소개하고,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영화제에서 상영된 작품은 ▲제17회 뉴욕 아시아 영화제 타이거 언케이지드 최우수 장편 영화 수상작인 〈소공녀〉 ▲제69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 부문 대상을 수상한 〈벌새〉 ▲제64회 런던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우리집〉 ▲제72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의 영예를 안은 〈기생충〉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 감독상을 수상한 〈리틀 포레스트〉 ▲2018년 필리핀 리메이크 버전으로 개봉된 〈수상한 그녀〉 ▲한류 스타 수지, 이제훈이 출연한 〈건축학개론〉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된 필리핀 영화 〈#존 덴버〉까지 8개이다.

영화제는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만 5천 여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종료되었으며, 부대행사로 개최된 '한-필리핀 시네마포럼'을 통해 양국 영화산업 발전사를 되짚어보고 동반성장을 향한 우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림 3-4-5 한-필리핀 상호교류의 해

한-필리핀 K-pop 우정콘서트

필리핀 한국영화제

라. 쿠웨이트 수교 40주년/ UAE 순회 문화행사_한국 음악 콘서트

한국과 쿠웨이트 외교관계 수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0월 27일 쿠웨이트 압둘후세인 압둘리다 극장에서 한국 전통과 현대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을 개최하였다. 10월 24일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립극장에서도 같은 공연을 개최해 중동 지역에서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 우리나라 민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두 번째 달'과 ▲ 한국 전통음악을 각국의 전통악기를 사용해 새로운 음악으로 재구성한 '공명', ▲ 역동적인 케이팝을 선보이는 '디크런치' 등이 참여하였다.

쿠웨이트 및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한류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어와 한식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공연을 찾은 현지 관객들은 '한국문화를 잘 보여준 행사였다', '한국과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과의 거리적, 사회 · 문화적 장벽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기회가 부족했던 중동지역에서 다양한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경험하고 관심을 확산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로 평가된다. 이를 계기로 중동국가들과 더욱 활발하게 문화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4-6 쿠웨이트 수교 40주년 / UAE 연계 문화행사

쿠웨이트 수교 40주년

UAE 연계 문화행사

마. 한–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문화행사 : 국립국악관현악단 〈格, 한국의 멋〉 공연

2019년 12월, 한–폴란드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 〈格, 한국의 멋〉 공연이 개최되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남도 아리랑과 개량대금 협주곡인 '풀꽃', '아리랑 로드' 등을 선보였으며, 특히 양국의 대표적인 민요와 가곡을 관현악으로 편곡해 폴란드 관객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공연 외에도 음악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주요 음악 축제 관계자 면담을 통해 향후 한국과 폴란드 간 공동기획과 문화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향후 폴란드 출신 유명 작곡가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공동 창작 프로그램,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크라쿠프 국립음악원 간 MOU 체결 등 양국 간 활발한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4-7 한 · 폴란드 수교 30주년 문화행사

국립국악관현악단 〈格, 한국의 멋〉

(2) 권역별 · 국가별 문화교류

가. 한 · 중 · 일 문화장관회의

한 · 중 · 일 문화장관회의는 한 · 중 · 일 3국 문화교류 증진방안 논의 및 동북아 문화협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07년 중국 남통에서 개최된 이래, 한 · 중 · 일 3국에서 순환 개최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한국 인천까지 총 11차례의 한 · 중 · 일 문화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1 · 2 · 3차 회의는 3국의 문화교류의 상생의 원칙과 효과, 협력의 가치를 합의하였고, 2012년 4차 회의에서 채택한 상하이 액션플랜(2012~2014년)에서는 역대 회의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평화 우호, 평등 호혜, 협력강화, 공동발전'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향후 3년간 문화 분야에서 협력할 내용을 담았다. 이후 2013년 5차 회의에서는 2014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으며, 부속합의서에 따라 국가별 문화도시 행사 및 국가별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역대 개최현황≫
- 제1회 2007. 9. 19.~9. 21 중국 남통, 제2회 2008. 12. 24.~12. 26 한국 제주도, 제3회 2011. 1. 18.~1. 20 일본 나라현, 제4회 2012. 5. 4.~5. 6 중국 상해, 제5회 2013. 9. 27.~9. 28 한국 광주광역시, 제6회 2014. 11. 29.~11. 30 일본 요코하마, 제7회 2015. 12. 19.~12. 20 중국 칭다오, 제8회 2016. 8. 27.~8. 28 한국 제주도, 제9회 2017. 8. 25.~8. 26 일본 교토, 제10회 2018. 8. 29.~8. 31. 중국 하얼빈, 제11차 2019. 8. 29.~8. 30. 한국 인천광역시

2019년 제11차 회의에서는 지난 10회에 걸친 한 · 중 · 일 문화장관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 · 중 · 일 3국의 문화교류 협력을 확대 ·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합의문인 '인천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3국이 연이어 올림픽을 개최(2018 평창, 2020 도쿄, 2022 베이징)하는 것을 계기로 평창올림픽 · 패럴림픽 때와 같이 공동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협력 증진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성공적인 협력 모델 역할을 해온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간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민간 예술 기관 간의 교류협력도 장려하기로 했다.

한 · 중 · 일 3국은 지난 2014년부터 국민들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선정하고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및 역외 지역 도시 간의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0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한국 순천시, 중국 양저우시, 일본 기타큐슈시를 선정하고 선정패를 수여했다.

그림 3-4-8 제11회 한 · 중 · 일 문화장관회의

한 · 중 · 일 문화장관회의

동아시아문화도시 선포식

나. 동아시아문화도시 한 · 중 · 일 공동 추진

제4회 한 · 중 · 일 문화장관회의(2012년, 중국 상해)에서 한 · 중 · 일 3국은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 감상'의 정신 실천을 위해,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를 공동 개최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어 2013년도 문화장관회의에서 2014년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각각 선정하여 선포하였고, 2014년도부터 3국의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였다. 또한 3국에서 순환 개최하고 있는 한 · 중 · 일 문화장관회의의 주최국에서는 당해 연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회의장소로 추진하였다.

≪연도별 한 · 중 · 일 3국의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현황≫
• 2014년 광주(한국), 요코하마(일본), 취안저우(중국), 2015년 청주(한국), 니가타(일본), 칭다오(중국), 2016년 제주(한국), 나라(일본), 닝보(중국), 2017년: 대구(한국), 교토(일본), 창사(중국), 2018년 부산(한국), 가나자와(일본), 하얼빈(중국), 2019년 인천(한국), 도쿄 도시마구(일본), 시안(중국)
* '14년 이후 동아시아문화도시에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

2019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는 한국의 인천시, 일본 도쿄 도시마구, 중국 시안시가 선정되어 2018년 한 · 중 · 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발표되었고, 2019년 한 해 동안 세 도시는 상호 협력하여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를 개최하였다. 1월 도시마구, 3월 시안, 4월 인천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예술인, 시민,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고 소통하며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갔다.

인천시는 2019년 동아시아문화도시 개 · 폐막식과 핵심행사인 춤추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인천, 동아시아 릴레이 작가전, 동아시아 생활문화축제, 동아시아 합창제, 한중일 문학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한 · 중 · 일 3국 간 문화예술 교류 및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디아스포라 영화제, 부평대중음악축제 뮤직게더링, 민간 문화예술단체 교류 행사 등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행사를 추진하여 동아시아 문화도시 3국의 문화예술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2019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문화 교류행사 함께 진행해왔던 인천시, 시안시, 도시마구는 2019년

11월 문화협력 교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문화교류와 발전방안 등을 담은 '동아시아문화도시 2019 공동선언문'을 체결하여 향후 지속적인 교류의 확대와 상호 협력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그림 3-4-9 동아시아문화도시 인천(2019)

동아시아문화도시 인천 개막식

동아시아문화도시 생활문화축제

다. 한일문화교류회의 운영

한일 양국 간 문화교류 강화와 상호 이해 및 신뢰 구축을 위해 1999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1999년에 "한일문화교류회의"가 발족하였다. 위원 구성은 현재 3기 위원(한일 각각 1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 전체회의 및 한일 합동 예술공연 개최, 국제 학술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 한중일 문화교류포럼 운영, 문화교류 정책보고서 발간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2012년부터 한일 양국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일합동공연 '동행(同行)'은 제8회째 공연을 맞이하여 일본 내 재일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오사카의 산케이브리제 홀에서 개최되었다. 명창 안숙선의 판소리, 국무 국수호의 전통무용, 일본전통예능 인간문화재 사쿠라마 우진의 노(能) 무대 등 한일 양국의 격조높은 전통문화의 진수를 선보이는 공연과 함께, 양국의 전통악기인 가야금과 샤쿠하치의 합주, 전통무용과 북춤의 콜라보레이션 무대, 한일문화교류 20주년 특별 위촉곡 '휘황'의 초연 등 한일관계가 경색된 가운데에서도 문화교류는 계속된다는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의미 깊은 공연이 되었다.

또한 2005년부터 한중일 3개국에서 매년 순차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문화교류포럼을 2020 도쿄올림픽 개최를 기념하여 일본 도쿄에서 '아시아를 잇는 현(弦)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한중일 3국을 대표하는 현악기(가야금, 고토, 고금)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별강연 및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본회의에서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3국간의 문화교류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도쿄올림픽 개최지 및 도쿄예술대학 시찰 등을 통해 일본의 올림픽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이외에도 국내의 한일문화교류 기관과의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과 공동주최로 한일 간 공통으로 안고 있는 사회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한일 사회문화

세미나 개최 등 한일 간 문화교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문화를 통한 한일 간 우호교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림 3-4-10 한일문화교류회의 행사(2019)

제8회 '동행' 공연 한일 전통악기의 협연

제15회 한중일 문화교류포럼 개막식

라. 2019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

한 ·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한–아세안 문화예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가 2019년 10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한 · 아세안 문화장관들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상생번영의 미래공동체 실현'을 위한 한–아세안 문화협력의 비전을 공유했다.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 25.~26. 부산) 사전 대화의 장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 문화장관들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한–아세안 문화협력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으며, 한–아세안 문화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감사와 지지를 표현했다. 또한 회의 개최 장소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와 창작의 창작의 중심으로서 주목하였다.

한국과 아세안 문화장관들은 미래 세대 간 문화교류 · 협력 증진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앞으로 상호이해에 기초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창의적 역량을 개발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호 문화 이해 증진, ▲공동 창작 활성화, ▲문화산업 협력, ▲문화유산 보존 · 활용 협력, ▲문화예술기관 협력강화 등 5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으며, 분야별 세부 협력(안)은 다음과 같다.

표 3-4-2 분야별 세부 협력(안)

분야	협력(안)
상호문화이해 증진	상호문화교류의 해 개최
	아시아문화주간
	한 · 아세안 문화정체성, 협력증진 포럼 개최

분야	협력(안)
공동 창작 활성화	한 · 아세안 예술가/단체 협력 공동 지원 논의
	한 · 아세안 청년예술가 창작 워크숍
	전통음악인 레지던시
문화산업 협력	문화산업교류행사 상호 협조
	한 · 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 공동노력
문화유산 보존 · 활용 협력	아태 문화유산 협력 기구 신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문화유산 보존 · 활용 협력
문화예술기관 협력 강화	국립박물관 · 미술관 · 도서관 교류 · 협력 확대

특히 주목되는 협력사업으로는 ▲한–아세안 간 영화 협력 촉진을 위한 기구 설립, ▲ 세계 유산 등재협력 · 약탈 문화재 환수 공동 대응 등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협력기구 신설, ▲한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아세안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 등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향후 정례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에서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그림 3-4-11 2019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

마.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 지원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

한국의 우수한 문화예술을 알리고 한국 문화예술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연, 전시 등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해외 권역별로 순회하는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순회가 가능한 프로그램 풀(후보군)을 구축하고, 재외 한국문화원 및 현지 문화예술 기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선정하여 순회를 지원한다.

2014년 첫 시범사업으로 공연과 전시 각 1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총 7개국을 순회하였으며, 2015년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 풀이 본격 구축되면서 14개국, 2016년에 15개국, 2017년 20개국, 2018년 18개국에 이어 2019년에는 16개국에서 공연과 전시를 추진하였다. 현지 극장, 미술관, 축제

주관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공연과 전시 사업을 진행하였고, 한국문화 파급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권역 내 인근 국가 또는 도시 순회를 장려하였다.

2019년에는 공연 23개와 전시 13개 등 총 36개의 프로그램 풀(후보군)을 운영하였으며, 이 중 15개가 해외에서 사업화 되어 총 16개국 22개 도시에서 총 284,985명의 관람객을 맞이하였다. 사업화 된 전시 프로그램이 7개로 예년에 비해 증가하여 공연 사업 수와 균형을 맞추게 되었다. 신규 전시 프로그램인 리얼디엠지프로젝트의 〈경계협상〉은 브라질 쿠리치바 비엔날레와 영국에서 전시되었고, OCI미술관 〈그 집〉 전시는 일본 동경과 요코하마, 중국 북경을 순회하였다. 현대 무용팀인 아트프로젝트 보라의 〈소무〉와 시나브로 가슴에의 〈해탈〉은 벨기에 바리아 극장 2018-2019 정규 시즌 프로그램 공연으로 초청받아 진행되었다. 3년간의 공연 풀 주기 종료로, 2019년을 끝으로 참여하게 된 창작국악 타악 팀 타고의 〈타고: 천둥소리〉는 남미 최대 규모 연극제인 2019 메르코수르 국제연극제 폐막작으로 초청받아 공연하였다.

아울러,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문화 파급력 조사도 실시되었다. 관람객과 현지 문화예술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현장에서의 설문양식 배포와 개별 인터뷰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총 10개 사업에서 관람객 4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합평가에서 89.6점을 받았으며, 전반적 만족도가 최고점을, 사업의 정보 접근성이 최저점을 받았다. 공연과 전시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한국의 더 많은 공연 · 전시를 보고 싶다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있었고, 홍보가 강화되면 좋겠다는 개선 의견도 있었다. 해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으며 사업개최 시, 교류의 장 등 부대행사 연계 개최에 대한 요청 등이 있었다.

2015년부터 진행 중인 해외 문화예술 전문가와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원 동반 초청 사업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 플러스'도 함께 추진되었다.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분야가 격년제로 추진되어 2019년은 공연분야로 진행되었으며 10월 서울아트마켓 기간에 맞추어 총 10개국에서 24명이 방문하였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공연예술 현장을 살펴보고 프로그램 풀 기획자들과 향후 사업기획을 협의하였고, 2020년 미국, 이탈리아, 러시아 사업이 후속 성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림 3-4-12 **우수 프로그램 권역별 순회(트래블링 코리안 아츠) 사업(2019)**

주워싱턴한국문화원 〈한국의 자수〉 전시

주아르헨티나한국문화원 〈타고: 천둥소리〉 공연

표 3-4-3 분야별 세부 협력(안)

번호	문화원	프로그램		지역		시기	개최장소(협력기관)
		분야	작품명	국가	도시		
1	벨기에	공연	소무 및 해탈	벨기에	브뤼셀	4월	바리아 극장
2	워싱턴	전시	한국의 자수	미국	워싱턴	5–6월	주워싱턴한국문화원 및 조지워싱턴대 텍스타일뮤지엄
3	폴란드	공연	쿨콘	폴란드	바르샤바	6월	아그리콜라 공원
4	스페인	공연	그때, 변홍례	스페인	마드리드	6월	피가로 극장
				리투아니아	클라이페다		클라이페다 극장 (테아트리움 축제 초청)
5	시드니	전시	Take at Face Value	호주	시드니	6–9월	주시드니한국문화원 및 4A아시아현대예술센터
					멜버른		웨스트 스페이스
6	브라질	공연	외봉인생	브라질	상파울루	7월	북 엑스포 센터
							상파울루 시립극장 앞
7		전시	경계협상	브라질	상파울루	8–11월	주브라질한국문화원
					쿠리치바		쿠리치바 비엔날레
8	동경	전시	그 집	일본	동경	8–10월	주일한국문화원
					요코하마		페이 아트 미술관
9	북경	전시	그 집	중국	북경	10–11월	송좡당대예술문헌관
10	태국	공연	도깨비 굿	태국	방콕	9월	퓨터파크 랑싯
11	뉴욕	전시	꾸밈_모자로 전하다	미국	뉴욕	9–12월	뉴욕주립대 찰스왕 센터
12	영국	전시	경계협상	영국	런던	9–11월	주영국한국문화원 프리즈 아트페어 코털드 인스티튜트
13	아르헨티나	공연	타고: 천둥소리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10월	레알극장 (메르코수르 국제연극제 초청)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넬리 고이띠뇨 국립극장
14	베트남	전시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베트남	하노이	10월	주베트남한국문화원 하노이 문묘
15	캐나다	전시	영감의 원천	캐나다	오타와	11월–20년 2월	주오타와한국문화원 칼튼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6	터키	공연	잠비나이	터키	앙카라	12월	중동공과대학교 공연장
					아다나		아다나 시청극장

(3) 국제문화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각 본국과 한국 간의 긴밀한 교류 · 협력을 위해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주한 외교단은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유용한 창구이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주한 외교단과 상시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한국의 주요 문화정책 · 행사를 널리 알리며, 국내 · 국제문화교류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각1회씩 주한외교단을 초청하여 '주한외교단 국제문화교류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4월 1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7개 주한외교단,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기관이 참여하는 '제1회 국제문화교류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문화 담당 외교관들과 주요 지자체, 문화 · 예술 기관 담당자들이 교류하고, 합동 사업을 기획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각 기관의 대표사업과 2019년 주요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행사 · 공모 사업 등 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문체부는 우수문화상품 권역별 순회 사업(Traveling Korean Arts), 문화로(K-Culture Road) 등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을 소개했다.

그림 3-4-13 2019 제1회 국제문화교류 합동 워크숍

11월 2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18개국 주한외교단과 4개 문화예술기관, 10개 국제축제 추진위원회 기획자 등 총 32개 기관이 참여하는 '제2회 주한외교단 국제문화교류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2회 공동 연수(워크숍)에서는 '2019 한-덴마크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진행하고 있는 덴마크와 '2020-2021 한-러시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앞둔 러시아 등 주요 문화교류 협력국, 부산국제영화제와 광주 비엔날레 등 주요 국제축제 기획자(프로그래머),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문화예술기관 기획자들이 새로운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림 3-4-14 2019 제2회 주한외교단 및 국내 문화예술 국제교류 담당자 워크숍

(4) 민간협업 문화교류 –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 · 지원 사업

민간협업 문화교류 사업은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교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기초지자체 소재 문화예술기관 · 단체의 우수 콘텐츠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는 경기 광명시(광명문화재단)의 '국제 업사이클아트 디자인 전시', 경북 고령군(고령문화원)의 '가야금, 마당놀이 풍동전' 등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우수 콘텐츠 10개가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9개국 12개 도시에서 선보이는 기회를 가졌다.

사업에 참여한 기초지자체와 지역문화기관 · 단체는 서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외 협력 도시 · 기관과의 쌍방향 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사업 발굴 및 규모 확장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앞으로 동 사업을 통해 기초지자체 내 국제교류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향후 지역의 우수 문화 콘텐츠들이 좀 더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4-15 민간협업 문화교류 –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 · 지원 사업(2019)

광명문화재단 '국제 업사이클아트 디자인 문화교류'

이천 나드리 '이천 도자기 명장 세계를 빚다'

표 3-4-4 민간협업 문화교류 –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 · 지원 사업(2018~2019)

연도	지자체	수행기관	사업명	사업명
2018	경기 이천	이천도자기 협동조합	프랑스 파리	2018 세계문화유산장인 박람회–이천도자기명장 도자제작 시연
	강원 영월	영월문화재단	중국 위해	영월 '동방채묵' 아트페스타
	충북 괴산	문화공간 그루	프랑스 몽톨리외	한지, 소리를 담고 바람에 날다
	경기 안산	안산문화재단	중국 연태	'단원 길 떠나다'
	전북 전주	전주문화재단	이탈리아 3개 도시	르네상스 도시 피렌체에서 피어난 '변사또 생일잔치'
	충북 청주	청주공예비엔날레	호주 시드니	'선비의 식탁' 국제문화교류전
	강원 원주	원주영상미디어센터)	탄자니아 잔지바르	사운드와 영상을 매개로 한 원주–잔지바르 콜라보 프로젝트

연도	지자체	수행기관	사업명	사업명
2019	경기 광명	광명문화재단	독일 라이프치히	국제 업사이클아트 디자인 문화교류
	충남 서천	서천군립예술단	몽골 울란바타르	NOMAD, 예술로 만나다
	경기 이천	이천나드리	프랑스 파리	이천도자기명장, 세계를 빚다
	강원 영월	영월문화재단	중국 위해	영월 동방채묵 "별마로 7개월을 그리다"
	경남 창원	발해1300호 기념사업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선린우호 해동성국 발해가 잇다
	경북 고령	고령문화원	이탈리아 크레모나	대가야의 소리 '가야금, 마당놀이 풍동전' 해외공연
	전남 순천	두루미과학 예술센터	프랑스 낭트	2019년 순천 방문의 해 기념, 순천만 생태 기반 문화관광 융복합 콘텐츠 확산 및 도시재생 기반 문화도시 네트워크 협력 · 교류
	충남 공주	웅진문화회	베트남 후에	세계문화유산 우호협력도시 전통문화 교류 공연
	충북 옥천	옥천문화원	일본 3개 도시	제9회 일본지용제
	충북 충주	택견보존회	폴란드 그단스크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택견&사물놀이 한-폴란드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해외전통문화예술단

해외전통문화예술단은 해외에 한국 전통예술을 소개 · 확산하고, 청년 예술인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자 현지인을 대상으로 가야금, 장구, 부채춤 등 전통예술 강습과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0개국에 171명의 전통예술 전공자를 파견하였으며, 재외문화원과 연계한 강습 및 공연 뿐 아니라, 현지 교육기관 및 예술 단체 연계 공연에도 참여하였다.

2019년에는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상하이 · 아랍에미리트에 총 5명의 예술단원을 파견, 총 121회의 강습과 22회의 공연 활동을 통해 한국전통예술의 멋과 아름다움을 알렸다. 또한 (재)국악방송과 협력하여 역량 있는 신진전통예술단체 '신민속악회 바디'를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하여 한국문화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림 3-4-16 해외전통문화예술단 활동(2019)

주 베트남 한국문화원 장구 강좌

신진 전통예술단체 '신민속악회 바디' 공연

표 3-4-5 해외전통문화예술단 사업성과(2012~2019)

연도	파견지역	팀원
2012	터키	• 분야: 사물놀이, 가야금 • 강습 55회, 공연 11회 • 터키방송 Tv8 television 생방송(사물놀이)
	폴란드	• 분야: 가야금, 판소리, 사물놀이, 단소 • 강습 54회, 공연 6회 • Korea Festival 2012 한국문화 체험 부스 운영 • Biblioteka Publicznaw Dzierżoniowie(도서관 건립1주년 축하공연)
	헝가리	• 분야: 장구, 탈춤, 아리랑, 부채춤, 장구춤 • 강습 23회, 공연 10회 • 'Shadow women' 전시회 개막 초청공연, Coreea, armonia dansului 초청공연 • 헝가리인 무궁화무용단 결성
2013	터키	• 분야: 사물놀이, 가야금, 해금, 단소 • 강습 84회, 공연 13회 • 캐러반 '한국 문화의 날' 행사, 동아시아 동아리 초청 공연, 하제테페 막사발장작가마 심포지움 2013 축하 공연
	폴란드	• 분야: 가야금, 소금, 단소, 해금, 사물놀이 • 강습 56회, 공연 14회 • Korea Festival 공연, BGM연주 대사관 공연
	헝가리	• 분야: 무용기본, 검무, 부채춤, 창작춤 • 강습 48회, 공연 17회 • 무궁화무용단 유럽 3개국(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공연 • 아시아문화축제 메인공연, 루마니아 대사관 한-루 친선협회 초청
2014	터키	• 분야: 사물놀이, 단소, 가야금, 해금 • 강습 60회, 공연 6회 • 캐러반 행사, 앙카라 오아시스 국제 학교 국악 체험 • 봉사단원 문하람 터키 한국문화원 취업
	아르헨티나	• 분야: 단소, 민요, 장구, 무용 • 강습 68회, 공연 21회 • 브라질 한국문화원 개원1주년 기념공연,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개원 8주년 기념공연
	베트남	• 분야: 민요, 해금, 장구, 단소 • 강습 57회, 공연 20회 • 2014 KOICA 한-베 친선의 밤, 한-베 민속음악 어울림 콘서트, 베트남국립음악원 협연 2회 • 베트남 강습생 중 1명, 현재 연세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 교육 강습중

연도	파견지역	팀원
2015	태국	• 분야: 사물놀이, 단소 • 강습 29회, 공연 12회 • 콘껜 대학교 한국전통악기 워크숍, 태국 왕립 전통가면극 특별 초대 등 협연 2회 • 교민잡지, 태국 PBS 등 언론보도 4회
	베트남	• 분야: 단소, 장구, 부채춤, 민요 • 강습 71회, 공연 16회 (단소 중급과정 개설) • 베트남국립음악원 한국전통악기 시연회 및 아리랑 교환연주
	인도네시아	• 분야: 단소, 해금, 가야금 • 강습 68회, 공연 10회 • 한인신문, 포스트, 글로브, RTV 등 현지 언론보도 32회 • 반둥 교육대학교 연계, 전통음악 협연
	카자흐스탄	• 분야: 단소, 해금, 가야금 • 강습 53회, 공연 16회 • 한-유라시아 문화교류축제 전통민요 협연 • 악토베 민족음악제 초대
2016	몽골	• 분야: 단소, 사물놀이 • 강습 43회, 공연 13회 • VTV HD방송 'Master togooch' 오프닝 연주 • 한인동포신문, UB코리아타임즈 등 공연 활동 언론 보도 및 SNS 게시 11회
	터키	• 분야: 가야금, 무용, 민요, 단소 • 강습 133회, 공연 12회 • 헤럴드경제 터키 동포신문 등 공연 활동 언론 보도 및 SNS 게시 11회 • 폴란드 바르샤바 협연 2회, 터키 앙가라 등 지역 공연 진행
	베트남	• 분야: 장구, 단소, 민요, 부채춤 • 강습 140회, 공연 11회 • '문화동반자 동창회 사업' 초청 협연, 소외 계층 대상 봉사 공연 진행
2017	베트남	• 분야: 단소, 가야금, 민요, 장구 • 강습 49회, 공연 2회 • KBS 뉴스9, 뉴스광장 1부 〈베트남 한류의 진화 자원봉사 · 공헌활동 '눈길'〉 방영 • 한-베 수교25주년 꽝남성 한국문화의 날 행사 개막공연 참가
	인도네시아	• 분야: 가야금, 단소, 해금 • 강습 60회, 공연 10회 • 인도네시아 한국의 달 기념행사 및 국경절 행사 공연 • 현지 한인회 및 교육대학교 특별공연 진행
	터키	• 분야: 가야금, 무용, 민요, 단소 • 강습 120회, 공연 8회 • 문화원 개원 기념행사 공연, 세종학당 연계 문화의날 및 인근지역 공연 등
2018	스페인	• 분야: 가야금, 단소 • 강습 33회, 공연 6회 • 제10회 마드리드주 및 한국대사배 태권도대회, 개천절 행사 등 특별공연
	브라질	• 분야: 부채춤, 사물놀이, 단소 • 강습 51회, 공연 7회 • 한국의 날, 브라질 한류 엑스포 2018, 한국 국경일 행사 등 특별공연
	중국	• 분야: 가야금, 장구 • 강습 38회, 공연 3회(주상하이 한국문화원 내)

연도	파견지역	팀원
2019	베트남	• 분야: 단소, 장구 • 강습 30회, 공연 8회 • '2019 꽝남(Quang Nam) 한국문화의 날' 독주 •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주최 '더불어 함께 한국 CSR의 밤 행사' 참가
	인도네시아	• 분야: 가야금, 장구 • 강습 45회, 공연 8회 •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특별 공연 • 자카르타 CGV 개막공연 〈Korea Indonesia Film Festival 2019〉 독주
	상하이	• 분야: 한국무용(태평무, 부채춤), 장구 • 강습 30회, 공연 1회 •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유투브 채널 '문화포털' : 〈한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리다〉 영상 제작
	아랍에미리트	• 분야: 사물놀이 • 강습 16회, 공연 5회 • 세종학당 수료식 특별 공연 참가 • 아부다비 HCT(고등기술대학) World Conference 공연
		• 신진 전통예술단체 '신민속악회 바디' 아랍에미리트 공연 추진 • 협력기관: (재)국악방송 • 공연 6회 • 주재국 대학 3개교 코리안 페스티벌 초청 공연(자이드대학, UAE대학, 소르본 대학) • '한-UAE 상호 문화교류의 해' 기자회견 해금 독주 • 주 UAE한국문화원 〈2020 설날 기념 '바디' 단독 콘서트〉 개최 • 현지 언론사 'Emirates 24/7' 기사 보도 "UAE-Korea Cultural Dialogue kicks-off celebrating 40 years of relations"

3) 문화분야 ODA 사업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1) 문화동반자 사업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각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풍부한 문화적 자원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소통과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점 또한 문화에 있다. 여기에 문화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이 더해진다면 문화를 통해 우리는 좀 더 친근하고 발전된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문화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문화교류를 통해 각 나라가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은 문화적 위상을 확보하고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여 문화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동반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문화동반자사업은 아시아, 남미, 동유럽,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대상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하여 실무연수 및 공동창작 등을 실시하는 문화연수 사업이다. 문화, 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등의 분야에 걸쳐 젊고 유망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약 3~5개월 간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국립문화시설, 산하 · 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야별 실무연수 등을 받게 된다.

2005년 9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학번역원 등 11개 기관이 12개 사업을 통해 57명을 초청했다. 12월에는 시범사업 평가 및 향후 계획 논의를 위하여 '아시아에서 바라본 한국, 그리고 아시아'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06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9개 사업 142명을 초청하였으며, 전주 · 경주 및 '아시아 헤르츠 데이: 아시아 문화주파수' 행사 등을 통하여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누리집(홈페이지) 및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아리랑 TV 등 매체를 통하여 각 기관의 동반자 전문분야 연수와 한국에서의 생활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현장 중심의 사업평가, 각 기관 담당자들을 위한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정기 워크숍 개최 등을 실시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었다.

2007년에는 아시아 · 남미 · 아프리카의 31개 국가에서 초청된 127명의 문화동반자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체험행사가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남미 · 아프리카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문화를 통한 쌍방향 교류를 통한 긍정적인 한류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008년에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30개 국가에서 95명을 초청하였고, 2007년도에 비하여 다양한 국가군을 초청하였다. 또한 전문연수프로그램 세부 계획을 강화하고 '자국문화정책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상호교류를 통해 동반자적 공존 관계 구축에 기여하였다.

2009년에도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37개 국가에서 74명의 문화동반자들이 초청되었다. 또한 체류기간 중 내국인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예술인의 경우 외부공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고, 국내 대학생 서포터즈를 공모하여 문화동반자와 연결해줌으로써 원활한 한국생활 지원과 다양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하였다. 이는 문화동반자 사업 홍보 및 사업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2010년에는 기존 초청대역이었던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세 대륙뿐만 아니라 동유럽까지 그 초청대역을 확대하여, 아시아 17개국, 남미 5개국, 중동아프리카 9개국, 동유럽 6개국, 총 37개국에서 70명의 문화동반자를 초청하였다. 또한, 2005년 시범사업 때부터의 초청자들의 인력데이터를 정비하여 문화동반자 인력풀 가이드북을 제작,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및 동 사업관련 협력 기관들에 배포했다. 이를 통해 기 초청된 동반자들이 우리나라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에는 28개국에서 73명의 문화동반자를 초청하였다. 특히 문화동반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운영기관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진행할 수 있는 국가의 동반자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 기관에서는 이를 토대로 다양한 종류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공동창작 작품을 선보이는 기관들(국립극장,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국제무용협회)의 경우, 매년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국내외 문화예술 관계자 및 일반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과의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시행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에는 31개국에서 66명의 문화동반자를 초청하였다. 문화동반자사업 운영기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동반자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각 운영기관에서 문화동반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에 대하여 경험하고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동반자들의 전문연수와 결합된 다양한 한국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동반자들의 집중도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었다.

2013년에는 36개국에서 72명의 문화동반자를 초청하였다. 이를 통하여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한 동반자는 귀국 이후에도 자국에서 한국문화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한국과 관련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문화동반자로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문화동반자 연수과정이 종료된 후에도 연수생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증진하고 한국과의 우호협력을 강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2014년에는 39개국에서 80명의 문화동반자를 초청하였다. 문화동반자사업은 문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일환으로서 수원국가를 대상으로 쌍방향 문화교류 협력을 실천하고 있으며, 문화동반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문연수를 통하여 강화된 역량이 향후 동반자 모국의 운영기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전문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다. 특히 문화동반자 초청대상 국가를 24개 중점 협력국으로 집중하여 선정함으로써 ODA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동반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15년 문화동반자 10주년을 앞두고 문화동반자사업 10년 성과보고서를 제작함으로써 문화동반자사업의 과거와 성과를 되돌아보고 이를 통한 제언을 수록하여 문화동반자사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발전을 상기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2015년에는 24개국에서 74명의 문화동반자를 초청하였다. 인도네시아 동반자(국기원 소속)의 경우, 연수기간 중 개최된 '2015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회에서 각각 1위와 3위의 성과를 올렸다. 또한, 문화동반자사업 10주년을 기념하여 동반자의 연수활동 종료 후 이를 통해 자국에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한 동반자 60명을 선정 및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실시하는 등 기동반자와 현동반자 그리고 한국 현지 전문가와의 토론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쌍방향 문화교류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41개국에서 77명의 문화동반자를 초청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재외 한국문화원과의 협력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현지에서 첫 동창회를 개최하여, 역대 문화동반자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수 성과를 상호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마련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2016 문화 ODA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문화 ODA 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시대에 문화 ODA 역할 및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심포지엄에는 2008 스리랑카 문화동반자가 참가하여 문화동반자사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열띤 논의에 참여하였다.

2017년에는 38개국에서 76명의 문화동반자를 초청하였다. 2017에는 2016년에 진행하였던 사후관리 차원의 동창회를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3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2회 연속

개최하였고, 태국 현지에서 첫 동창회를 개최하여 문화동반자 네트워크 형성 및 체계화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문화동반자 사무국에서는 웹진(2회)을 발간하여 2017년 참가자의 한국생활에 대한 안내 및 문화동반자 활동 등을 담아 기존동반자와 2017년 동반자에게 공유하였다. 특히, 구로문화재단 및 트러스트 무용단이 신규 연수기관으로 참여하여 지역문화를 활용한 문화기획 연수, 전문 무용교육과정 연수 등을 제공해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하였다.

2018년에는 25개국에서 63명의 문화동반자를 초청하여, 전통예술 · 무용 · 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연수를 진행하였다. 특히 전주세계소리축제와 충남문화재단, 배우공동체 자투리가 신규 연수기관으로 참여하여 연수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또한 문화동반자 연수 운영기관과 기참여 동반자 간 지속적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내 운영기관과 기참여 동반자가 함께 참여하는 장기 공동창작 프로젝트를 기획 지원하였다. 문화동반자들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2016년과 2017년에 설립된 4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동창회 연속 지원에 이어, 미얀마 현지에서도 첫 동창회를 개최하여 문화동반자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9년에는 27개국에서 60명의 문화동반자를 초청하였으며, 전통예술 · 무용 · 문화유산 · 무대기술 등의 분야에서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과정을 진행하였다. 특히 안정적인 교육 기반과 교육 과정을 보유한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다문화연구소)이 새롭게 운영기관으로 들어오면서 운영기관 구성이 더욱 안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9년에는 기동반자들의 지속적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후속 사업'을 지원하여, 동반자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우즈베키스탄과 스리랑카에서 개최되었다. 도서관 사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에서 개최된 '도서관 전자 자료 개발 토론회'에는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한국의 전자 자료 구축 현황 및 기술을 전수하였다. 스리랑카(콜롬보)에서 개최된 '한국-스리랑카 전통 예술가 토론회'에서는 국립남도국악원 단원들이 참가하여 양국 간 전통음악을 통한 국가 간 문화교류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몽골에서 첫 동창회를 개최하여 몽골 내 문화동반자 네트워크 확대 및 양국간 지속교류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여 개최된 '한-아세안 미래특급' 사업에 한국문화재재단 동반자들이 참여하여 한국의 다양한 문화체험 및 아세안 문화 교류활동에 참여 하기도 하였다.

표 3-4-6 문화동반자 직접사업 내역(2019)

사업명	주관기관	주요 사업내용	2019 예산 (백만 원)	인원
TEPT (Transcultural Encounter Project with Trust)	트러스트무용단	• 현대무용, 발레, 즉흥춤 등 과목별 이론/실기 교육 추진 • 공동창작 토론회 및 공연	61	4명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댄스 익스체인지	국제무용협회	• 한국 전통춤 · 현대무용 전문토론회 • 한국 무용과 문화를 배운 뒤, 교육내용을 기반으로 공동창작 작품 발표	79	5명

사업명	주관기관	주요 사업내용	2019 예산 (백만 원)	인원
문화유산 전문가 초청 연수	한국문화재재단	• 문화유산 전문가 전문 이론강의 및 현장교육 • 재단–동반자 공동 사업 수행 수행 및 개인 연구성과 도출	90	6명
춤으로 소통하는 아시아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다문화연구소	• 한국의 전통 문화예술의 현대적 창작 활용 사례들에 대한 자료, 경험 • 다양한 국가 전통이 어우러진 창작 사업 개발	24	3명
이중 언어 베이스의 국제연극 교류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항'	배우공동체 자투리	• 공연 이중언어화 체험 및 조명 디자인 기초 연수 • 이중언어연극 관련 네트워크 교류	61	4명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동반자 연수사업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센터	• 주제별 개별연구 수행 및 다양한 방식의 전문연수를 통한 무형유산 보호 실무역량 강화 • 국내 무형유산 유관기관 및 현장방문을 통한 전문성 강화	94	6명
2019 아시아 소리 프로젝트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	• 아시아 전통음악가 • 전주세계소리축제 초연 및 창작곡 작/편곡 작업	76	6명
2019 문화동반자 高 ON!	충남문화재단	• 동반자들과의 협업을 통한 전통예술 공연 창작 및 한국과 동반자국의 전통예술 상호 연수 및 워크숍 추진 • 충남의 무형문화재를 기반으로 한 공연 창작을 통해 한국전통문화유산의 재해석	29	3명
탈춤 관련 예술인 초청 교육	안동축제관광재단	• 하회별신굿탈놀이 등 탈문화를 통한 문화교류 • 안동국제탈춤축제 참가를 통한 문화동반자 역량 강화 및 지역 내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 다양성 이해증진	58	4명
국가별 전통공연프로그램 공유확산 연수	충북민예총	• 국가별 전통음악 연수 및 융합 사업 발굴 확산 • 지식공유, 창작 토론회, 성과공유 및 발표	88	6명
문화동반자사업 사무국 운영		• 운영기관 업무지원 • 동반자 후속관리 및 지원	164	
10개 사업	10개 기관		824	47명

표 3-4-7 문화동반자 소속기관사업 내역(2019)

사업명	주관기관	주요 사업내용	2019 예산 (백만 원)	인원
MMCA 국제펠로우십 연구 프로그램	국립현대미술관	• 한국현대미술 관련 개별 연구 실시 및 연구 결과 발표 • 국내미술현장(기관, 작가 방문 및 인터뷰, 문화탐방 등) 연수	46	3명
국외 박물관 전문인력 연수	국립민속박물관	• 베트남 박물관의 현지 관계자를 초청, 국립민속박물관의 다양한 교육 사업 운영기법 체험 기회 제공 • 박물관 교육의 기획 · 운영 · 성과관리 방법 등 전문 영역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국 박물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 제공	14	1명

사업명	주관기관	주요 사업내용	2019 예산 (백만 원)	인원
해외 사서 연수 프로그램	국립중앙도서관	• 도서관 전문지식 및 선진기술 습득의 기회 제공하여, 한국 관련 정보 능력 향상 • 한국 관련 자료의 수집 · 정리, 능력 개발을 통한 자국 거점 도서관 내 한국문화 전파 요원 양성	71	4명
AMFEK(Art Major Faculty Explore K-Arts)	한국예술종합학교	• 개발도상국 주요 예술대학 교 · 강사, 신진예술가 등을 초청, 한예종 전문연수제공 및 결과발표회 개최 • 선진 예술교육 과정 경험 제공과 전공 교수법 전수를 통한 교사역량 강화 및 차세대 예술가 발굴 · 육성 지원	80	5명
4개 사업	4개 기관		211	13명

(2) 유네스코 신탁기금

유네스코 협력(ODA) 사업은 유네스코 신탁기금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표현 다양성 증진 및 문화창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문화 분야의 최초 국제규범인 '2005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 이후, 유네스코는 회원국의 '문화창의산업 역량 강화를 통한 발전 도모'를 중점 추진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문체부는 유네스코와의 MOU 체결('06. 4. 11.)을 통해 2007년부터 격년으로 신탁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부르키나파소, 라오스, 우간다, 르완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의 문화창의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아 · 태지역의 문화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19~2021년에는 아세안 지역의 문화창의 향상 정책지원을 위한 아세안 문화정책 담당자 정책 워크숍 및 인도네시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정책 지원 · 태국 문화창의산업 정책 활성화를 위한 신탁기금 사업을 추진한다.

【유네스코 협력사업】
▶ (목적) 문화적 표현 다양성을 위한 창조산업개발 지원
▶ (방식) 유네스코 신탁기금(Funds-in-Trust) 기금 출연
▶ (근거) 유네스코 개도국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MOU(2006 체결, 2008 수정)
▶ 사업 현황
– (2007~2010) : 베트남 전통공예산업 발전, 몽골 문화원형 디지털화사업(3억)
– (2009~2013)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전통공예 보존 · 발전(3억)
– (2011~2014) : 부르키나파소 문화산업 육성기관 설립지원, 라오스 · 몽골 · 베트남 창조산업 지속가능성 강화(5억)
– (2013~2018) : 몽골 · 베트남 · 우간다 문화창의산업 진흥정책 · 전략개발(5억)
– (2015~2019) : 우즈베키스탄 · 라오스 · 르완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위한 창조산업 발전(4.8억)
– (2017~2019) : 아 · 태지역 문화다양성 전문가 역량강화, 파키스탄 · 방글라데시 문화창의산업 개발역량 강화(4.8억)
– (2019~) : 아세안 문화정책 담당자 정책 워크숍, 인도네시아 · 태국 문화창의산업 강화(4.8억)

4) 국제기구 활동 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유네스코, ASEF(아시아-유럽재단), IFFACA(국제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구연합) 등 문화예술 관련 국제기구는 각국과 문화자원 · 역량을 교류 · 협력하고 소통하기 위한 주요 무대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가입한 이후, 제6차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17.6월)에서 '17-'21년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 간 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이에 국제사회에서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 11월에는 140여개국 문화장관 및 고위급이 참여한 21세기 첫 유네스코 문화장관회의에 문체부 장관이 참석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의 문화산업정책(한류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역문화산업 지원 정책 등)" 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는 국제사회 내 우리나라의 선도적 문화정책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유네스코 본부에 약 5억 원의 신탁기금을 격년 지원(2007년~)하여 개도국의 문화창의산업 발전을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동 협약 문화섹터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9 Culture & Arts Policy White Paper

4 장

예술정책

제1절 예술정책 일반
제2절 문학정책
제3절 공연예술정책
제4절 전통예술정책
제5절 시각예술디자인정책
제6절 문화예술교육정책

04 문화정책

제1절 예술정책 일반

1.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문화예술의 바탕이 되는 창의성과 다양성, 혁신성은 국민 개개인이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일뿐만 아니라 미래 국가경쟁력을 이끌어갈 핵심가치이다. 특히 일과 삶의 균형, 여가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풍토와 4차 산업 혁명 등으로 인해 인간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의 가치와 역할이 더욱더 조명 받고 있다.

예술은 예술 활동을 하는 '개인적 만족'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핵심 원천이 된다. 예술은 시장경쟁력에서는 일부 한계를 가지지만 예술에서 비롯하는 창조성과 창의성 같은 사회적 편익을 결코 가벼이 할 수는 없다. 예술분야를 정책대상으로서 지원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의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시키고 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예술 창작을 위한 창작여건 개선과 창작부터 소비까지 선 순환하는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과 예술 활동 확대, 공정한 예술생태계를 위한 법 · 행정적 지원, 인프라 마련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소비/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예술정책은 '예술로 풍요로운 '사람과 삶' 중심의 문화국가'라는 비전 아래, 사람 중심의 창작 · 참여 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구축, 예술 가치 존중의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술정책 과제를 추진하였다.

첫째, 청년예술가 및 신진예술가의 진입을 돕고, 공연단체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청년예술가 생애 첫 창작활동 지원, 화랑 예비 전속작가제, 공예 · 디자인 수습근무(인턴) 지원, 공연예술단체 중장기 창작 지원 등을 통해 기초예술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둘째, 예술인 권리 보장 및 창작안전망 구축을 통해 열악한 창작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범운영(85억원)하였으며, 예술인 복지 사업을 사회보장정보 시스템(보건복지부)과 연계하여 복지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통합적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셋째, 미술 11종, 공연 분야 세분화(근로 · 용역) 등 예술분야 표준계약서를 확대하고,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서면계약 작성 여부 조사권 및 시정명령권 신설('19. 10., 예술인복지법 개정), 신고창구 확대('18년 9개 → '19년 12개)하는 등 공정과 상생의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넷째, 예술분야 자본 유입 촉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통 선진화이다. 정확한 공연통계 제공을 통한 관객 저변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의 정보 전송을 의무화('19. 6.) 하여 연계를 확대하였다. 또한 예술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과 사업개발을 지원(66개사)하였으며, 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 투자유치도 적극 지원하였다.

다섯째, 번역 · 출판 · 네트워크 지원 등 한국예술의 해외진출도 지원하였다. 한국 창작뮤지컬을 중국 현지에 소개하고 비즈니스 교섭(미팅)을 지원하였으며, 해외 출판사의 한국문학 번역출판도 확대 지원하였다. 또한, '미술주간 미술여행',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등의 대표적인 예술 행사들을 관광과 연계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였다.

여섯째, 국민의 예술 감수성 증진과 예술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속 확대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를 전주에 처음 개관('19. 11.)하였으며, 성남 2호점도 조성을 추진한다. 직장인, 중장년층 등 생애전환기, 예술동아리 등 문화예술교육의 대상도 지속 확대하여, 보편적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고자 하였다.

일곱째, 생활 속 예술 만남의 기회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전통예술의 친밀도 증진을 위해 서예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19. 6.), 국악TV 개국('19. 12.)을 추진하였으며, 생활공간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서관 · 문학관 · 지역서점에 상주작가를 지원하고, 공연 연습공간 및 공예창작공간('19. 11., 여주) 등의 지역 창작 인프라도 구축하였다. 또한,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되었다. 국립한국문학관 법인 설립('19. 4.) 및 건립 부지 기부채납 합의(은평구)를 진행하였으며, 『진달래꽃』, 『탁류』등 故 하동호 교수 장서를 기증(55천점) 받는 등 총 74천점의 한국근대문학 주요 자료를 수집하였다.

여덟째, 문화행정 팔길이 원칙 구현 등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호선제 도입을 위한 발판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공공기관운영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을 변경('19. 1.)하였으며, 호선제 도입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을 지속 운영하고, 블랙리스트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다짐('19. 12.)을 하는 등 예술 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2. 정책현황 및 추진성과

1) 예술인 복지증진 체계 마련

(1)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을 위한 법 · 제도적 보완

2011년 11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제정법에는 예술인의 정의, 예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사항 등이 규정되었다.

이후 2013년 12월 예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예술인에 대한 금지행위(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2014년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술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료 요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금지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고창구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신문고'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16년 2월 「예술인 복지법」 재개정으로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 하고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예술인과 문화예술 관련 사업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지행위'라는 용어는 '불공정행위'로 변경하였다. 법의 시행에 따라 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금액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 의무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서면계약에는 6개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표준계약서로 대신해도 된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사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행위 위반 사업자 대상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2017년 3월에는 예술인 복지 관련 규정들이 개정되었다.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분과별 규모를 확대하도록 관련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운영 탄력성을 강화하고 분과위원 정수를 9인에서 12인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공정한 예술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및 업무처리 지침 등을 일부 개정하였다.

2018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법 개정이 이뤄졌다. 먼저,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어도 은폐 · 축소되거나 예술인 개인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이 미투 운동을 통해 드러났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일어났다. 이에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 · 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기본적인 권리보장 규정을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성희롱 · 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계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019년에 개정된 법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면계약 체결 제도의 본격적인 정착을 위하여 관련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조사 및 시정조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서면계약서 보존의무를 신설하였다.

(2) 예술인 창작안전망 사업 확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은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보호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은 '창작역량강화', '직업역량강화',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의 네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창작역량강화'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업 예술인과 창작 활동 기회가 적은 원로 예술인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부터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로 칭하고 있다. 2019년에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및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통해 총 5,500명의 예술인에게 각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 이후 누적 수혜인원은 총 21,538명에 달한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완료함에 따라 2020년부터 서류가 간소화되고, 심의기간이 축소되는 등 예술인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직업역량강화' 사업은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이것이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해당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는 예술인의 본업인 예술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부업을 개발하고 예술영역에 대한 협업이 필요한 기업, 기관, 지역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술인은 자신의 능력을 기반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참여기업과 기관은 예술인과의 협업과정 및 예술 활동의 결과물을 통해 조직의 역량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한 해 동안, 1,001명의 예술인이 참여했고, 207개의 기업 · 기관이 함께 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를 통해 퍼실리테이터 예술인과 참여예술인은 5개월에서 8개월까지 월 약 120~13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새로운 활동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술인들의 사회적 활동 참여로 인해 기업과 기관에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예술인과 기업 · 기관이 사전 기획을 거쳐 팀 단위로 활동하는 기획사업을 신설하여

갈등 관리 및 성과 제고에 효과가 있었다.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 사업은 2014년도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한 사업으로,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관행들을 개선하여 예술인의 직업적인 권리를 신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에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 예술인의 신고를 받아 변호사 · 노무사로 구성된 전담팀이 사실관계 확인, 분쟁조정 및 행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시 신고인에 대한 민 · 형사 소송 지원을 하고 있다.

2017년 '예술인 신문고'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불공정행위 신고 · 상담센터'를 개소하였다. 불공정행위 뿐만 아니라 예술창작활동과 관련한 서면계약 상담 등 법률 관련 고충에 대한 종합시스템(One-stop System)을 갖추었다. 불공정행위 신고 · 상담센터는 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전문 상담사로 위촉하여 예술인에게 서면계약서 검토, 보수 미지급에 대한 법적 대응, 저작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예술인에 대한 권리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예술인(예비예술인 포함)을 대상으로 '저작권 및 표준계약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창작과정에서 파생되는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에는 '미투 운동'에서 비롯된 성폭력과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일어났다. 이에 재단에 성폭력 피해 예술인 지원 전담기구인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를 개설하여,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의료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이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2년 「예술인 복지법」 제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술인들도 임의가입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예술인들에게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입하지 못했던 예술인도 사회안전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서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등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대행 중이다.

보험료 지원 폭도 매년 확대하여 2013년도에는 1등급 기준 납부보험료의 30%를 지원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1등급 기준 납부 보험료의 50%, 2015년부터는 등급에 관계없이 예술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폭을 넓혔다. 2018년부터는 1등급 가입자에게 가입 첫 6개월 동안 납부보험료 90%를 지원하여 예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2019년 실연예술가 월 9,510원~30,550원, 창작예술가 월 7,510원~24,120원 지원, 1등급 90% 지원 시 실연예술가 17,120원, 창작예술가 13,520원 지원)

2014년부터는 표준계약서 사용 및 보급을 활성화하여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고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 예술인과 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결 기간 동안 예술인과 사업자에게 각각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예술인 복지 사업 참여의 전제조건인 '예술활동증명' 신청 및 갱신, 예술인의

경력관리를 위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등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 주거, 생활 영역에서 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사업 및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은 주말, 밤 · 낮 구별 없이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 특성에 따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예술인의 예술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2014년 4월 대학로에 반디돌봄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를 개소하였고, 2017년 3월 예술인자녀돌봄센터 제2호점(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을 추가 개소하였다. 또한 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대학생 · 청년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던 '문화 · 예술인 패스'사업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6년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문화 · 예술인 패스' 사업은 문화시설 이용에 더해 숙박시설, 카페 등 제휴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예술인에게 생활 속 혜택이 넓어지도록 운영하고 있다. 타 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대상자에 예술인이 포함되도록 하는 작업들도 진행하였는데,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를 통해 2016년 12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으로써 2017년부터 예술인도 행복주택에 입주 할 수 있게 되었다.

2) 문화예술 기부문화 확산 지원

(1) '문화로 인사합시다' 인식개선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접대비 제도의 본격 시행(2007년 9월 1일)과 더불어 기업의 문화경영 확산을 지원하고자 2007년부터 '문화로 인사합시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 문화경영을 통해 창조적인 조직문화로 변화하여 문화예술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활용한 창의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예술수요의 확산과 함께 예술단체의 자생력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전경련 등 9개 경제단체 방문 설명(2007년 8월), 중소기업 CEO 대학로 초청 기업과 예술의 만남(2007년 9월), 지자체 대상 설명회(2007년 10월), 고3 및 수능생 대상 수능 후 100일 문화대작전(2007년 11월) 등 '문화로 모시기 운동'을 본격 전개하였다.

2008년에는 전국 시도 홍보 컨설턴트 100인 위촉(2008년 1월 15일)을 시작으로 한층 발전된 형태인 '문화로 인사합시다' 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중소기업 CEO 800명 초청 신년음악회(2008년 1월 4일), '문화로 인사합시다' 출범 기념 음악회(2008년 5월 15일)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08년 5월 15일 업무협력합의서(MOU)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6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내에 중소기업 문화경영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2009년에는 중소기업 문화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좀 더 다양한 '문화로 인사합시다' 사업이 진행되었다. 2009년 신년음악회(2009년 1월)는 당시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하여 격려하는 '중소기업 신년음악회'로 개최하였다.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제1기 SB문화경영아카데미를 개설하여 55명의 중소기업 CEO에게 14주간(2009년 9월~12월) 동안 문화경영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디자인문화재단과 공동으로 디자인문화경영자과정을 상 · 하반기 운영하였다(2009년 6월 · 11월, 110명). 또한 문화경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일경제신문과 공동 기획보도('중소기업경영, 문화를 만나다', 2009년 11월, 3회), 찾아가는 중소기업 문화공연(2009년 5월~12월, 21개 중소기업, 4,450명 관람), 문화경영 우수성공사례집 발간(2009년 12월), 기업의 기부금 후원을 통한 '문화나눔 세상공감' 사업(2009년 12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밖에도 문화접대비 제도개선 및 문화경영 활성화 포럼 개최(2009년 5월), 문화경영위원회 운영(2009년 11월), 중소기업 문화대상 시상(2009년 12월) 등을 통해 '문화로 인사합시다' 운동 및 중소기업과 문화예술의 만남을 활성화하였다.

이후에도 중소기업 CEO 대상 SB문화경영아카데미 운영(2010년 54명, 2011년 33명, 2012년 56명, 2013년 44명, 2014년 38명), 찾아가는 중소기업 문화공연(2010년 20개 기업 5,150명 관람, 2011년 18개 기업 3,620명 관람, 2012년 14개 기업 1,760명 관람, 2013년 20개 기업 1,891명 관람, 2014년 20개 기업 1,900명 관람, 2015년 16개 기업 1,582관람), 문화접대비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2015년 총 15회 507명 참여), 중소기업 문화예술교육의 교류 및 확장 독려를 위한 공연 개최(2015년 2월 25일 644명 참여)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경영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인의 문화경영 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및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중소기업문화대상(2007년 2개 기업, 2008년부터 매년 5개 기업)을 통해 2015년까지 총 36개의 문화기업을 시상하였다. 또한 이들 중소기업의 문화경영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매년 문화경영 우수성공사례집을 발간 · 배포하였다. 한편 매년 Art&Business 문화나눔 페스티벌 등 각종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하여 문화를 통해 중소 · 벤처기업 임직원과 가족을 주축으로 폭넓게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경영의 긍정적 효과가 문화접대로 전환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6년에는 홍보 리플렛과 안내자료를 제작하고, 버스외부광고(총3대)와 지면광고(총5회), 온라인홍보(인터파크, yes24, 클립서비스 등)를 통해 광고를 진행하였다. 또한 문화 · 예술 · 스포츠 분야 유관 기업과 협력하여 '문화접대비' 모바일 상품권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세무 · 회계 담당자, 예술단체,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문화접대비 사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1,754명 수강)하는 등 문화접대비 제도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하였다.

2017년에는 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 '㈜스테이지원'이 사업자로 선정하여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포(2종, 1만부), 전문가 칼럼(3회), 온라인홍보(배너광고, Facebook 광고 등), 오프라인홍보(음악저널 등 3건)를 통해 타겟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기획기사 3건(매일경제 1건, 문화일보 2건) 등 언론 보도(총 15건)를 추진하였다. 기업 CEO 및 임원을 대상(총 8회 2,000명)으로 기업관련 행사에서 문화접대비 제도안내 및 홍보를 진행하였고, 세무회계 담당자 대상 교육(총 35회 1,050명), 기업 임직원 대상(총 2회 130명) 문화접대비 문화강연 실시를 통해 관계자

홍보 및 교육을 확대 강화하였다.

2018년에는 '(사)한국메세나협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문화접대비 사업의 홍보 방안을 수립하는 자문회의를 2회(7월/12월) 개최하였고, 기업 실무자들을 초청하여 문화접대비 제도를 소개하는 행사를 총 4회 추진하여 34개 기업에서 224명의 실무자가 참여하였다. 또한 문화접대비 및 청탁금지법 관련 기업 설문조사에서 총 100개 기업의 응답을 통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조사에서 문화접대비 인지도와 활용도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삼일회계법인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홍보 이벤트를 추진하였으며, 1만부의 리플렛 배포와 홍보영상 제작 등으로 다양한 온 · 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였다.

2019년에도 '(사)한국메세나협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과 성장을 도모하였다. 대기업보다 접대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을 회계 프로그램 및 법인세 신고서에 실제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문화예술을 활용한 접대가 지속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또한, 문화소비를 통한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을 위해 '세종문화회관'과 MOU를 체결하여 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험행사를 3차례 추진하여, 문화접대비를 소개하고 문화접대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연말 문화접대 활용 유도와 사업홍보를 위해 문화접대 및 문화송년회를 진행한 기업의 사례를 토대로 매일경제와 함께 기획기사를 42회 보도하였으며, 출 · 퇴근시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노출 효과를 위해 152회의 라디오 광고와 2회의 잡지 광고를 추진하였다.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 제도가 미치는 예술 및 기업연장의 효과와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조사'를 기존 500개 기업에서 1,000개(중소기업 900개/중견 · 대기업 1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화접대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과 비활용 기업의 문화접대를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할 수 있는 표본을 확보하였다.

(2)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 & Business) 지원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은 기업과 예술단체가 상호 결연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교류를 통해, 예술에 대한 창작지원과 수요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문화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기업과 예술단체 간의 직접적 · 지속적인 교류활동 지원 및 사업추진조직 간 결연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은 분위기 조성 시기로 준비기, 시스템 구축기, 실행기 등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준비기에는 경제단체,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참가의사 확인 및 참여유도, 사무국 및 실무협의회 구성 등 실무 추진조직 구성 및 사전 의견을 조율하였다. 시스템 구축기에는 결연 중재, 상담, 모니터링 관련 세부실행 툴(tool) 개발, 결연수요 파악 및 신청 접수, 기업 및 예술단체에 대한 정보구축, 구체적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누리집(홈페이지) 개발 · 구축,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추진시스템을

개발하고 확보하였다. 실행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추진단 발대식 개최, 기업 · 예술단체 간 결연 및 교류사업 본격 실행 등 추진단 출범 및 사업을 실행하였다.

2006년은 확산 단계로 기업 · 예술단체 간 결연 확대 및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지원 Finding Program을 개발 및 운영하였고, 기업 · 예술단체 관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기업 · 예술단체 간 결연 확대 및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연건수의 확대와 대기업의 부서별 및 사업장 단위,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였고,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기 위한 발표대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우수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제공 · 확산하였다.

2007년은 정착시기로 기업 · 예술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정착시키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확대 · 발전시켰다. 특히 2007년에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국 A&B의 뉴파트너십 프로그램의 매칭펀드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중소기업 매칭펀드 운영을 위하여 2007년도에 6억을 투입하였으며, 27건의 결연을 성사시켜 12억(정부지원 6억 원, 중소기업 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대기업 결연 21건, 18억을 포함하면 총 48건 30억 원을 문화예술계에 지원하였다.

2008년 이후는 사업의 내실화가 이뤄진 시기로 결연 카운슬링, 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 · 홍보함으로써, 기업과 예술 간의 전략적인 협력의 필요 인식을 확산시켰다. 또한 'A&B 포럼' 활성화 및 '기업인 문화예술체험 · 세미나' 개최를 통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기업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힘입어 2008년 대기업 22건 중소기업 41건 등 전년대비 30% 증가한 총 63건의 결연이 성사되었고, 2009년은 대기업 결연 20건 중소기업 결연 45건 등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총 65건이, 2010년은 대기업 결연 23건 중소기업 결연 50건, 2011년은 대기업 결연 23건 중소기업 60결연, 2012년은 대기업 결연 25건, 중소기업 결연 75건, 2013년은 대기업 결언 30건, 중소기업 결연 79건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그간의 기업 참여성과를 인정받아 예산이 크게 증액되어 대기업 결연 32건, 중소 · 중견기업 결연 165건 등 기업 참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5년에는 대기업 결연 33건, 중소기업 결연 93건을 달성했으며, 전체 참여 기업의 73%가 재참여하는 등 매칭펀드 참여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또한 대기업 결연 37건, 중소기업 결연 158건을 달성하였으며 지역특성화매칭펀드의 시행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7년 대기업 결연 38건, 중소기업 결연 162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지역특성화매칭펀드 사업 또한 꾸준히 참여 지역을 확대하며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2018년에는 대기업 결연 38건, 중소 · 중견기업 결연 153건으로 국고보조금 규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목표 결연건수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기업 지원금 6,322백만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9년에는 대기업 결연 44건, 중소 · 중견기업 결연 151건으로 총 195건의 결연건수를 달성하였으며, 기업 지원금 6,179백만원을 이끌어내었다. 대기업 결연의 경우, 2006년 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40개 커플을 넘어서며 대기업들의 예술지원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3년 이상 장기

지원하는 사례가 21개로 총 사업의 47%가 되면서 안정적인 지원 환경이 제공되었다. 또한,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기업지원금 22.7억 원을 매칭하여 국고보조금 대비 1.9배의 민간지원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거두었다.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의 경우 2014년 4개 지역에서 2019년 9개 지역참여로 참여하는 지역이 꾸준히 증가하며,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3) '문화예술후원인식 확대를 위한 예술나무캠페인 및 크라우드펀딩 확대 추진'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예술의 중요성,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문화예술분야의 후원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술나무운동 캠페인'은 단순 바이럴 마케팅식의 현장 캠페인에서 벗어나, 각 현장 캠페인별 명확한 타겟 분석을 통해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이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서울랜드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최초로 테마파크와의 협업을 통해 일반 대중의 여가생활과 문화예술의 결합이라는 콘셉트를 내세워 놀이동산에서 즐기는 순수예술 콘서트를 추진하였으며, 신진 예술가 및 병역 대체 복무 중인 예술요원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진 뜻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10월 21일, 22일 양 일간 약 3만 명 이상의 관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연이었으며, 2018년 현장캠페인을 확대, 총 51회의 예술나무 콘서트를 통해 271,871명의 참여 및 캠페인 노출을 하였다. 2019년은 6월15일~16일, 6월22일~23일까지 총 4회의 예술나무 콘서트를 추진하여 서울랜드 내방객 39,865명의 참여와 캠페인 노출을 하였으며, 예술현장 중심의 현장캠페인 활동과 예술체험을 제공하는 '예술나무 마음약국', '예술나무 드로잉클래스' 등 신규 캠페인을 도입하였다. 또한 최초로 예술나무 캠페인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온 · 오프라인에서 155만회 이상 송출하고 2019년 국제비즈니스대상 비디오부문 비영리기금분야에서 예술나무 캠페인 홍보영상이 금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일반대중의 십시일반 온라인 모금을 통해 공적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하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3] 사업은 도입기를 지나 안착기에 접어들고 있다.

2016년에는 예술나무운동 자체 플랫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중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특화된 텀블벅(tumblbug.com)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외연 확대에 집중하여 진행하였다면, 2017년 이후로는 텀블벅의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의 성공률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2017년 33건, 2018년 35건, 2019년 50건 등의 지원프로젝트가 모금에 성공함에 따라 3년 연속 90%를 웃도는 성공률을 기록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기부자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크라우드펀딩이 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안정적 재원 조성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20년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술나무운동은 SBS영재발굴단과의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개인

3] 크라우드펀딩이란 불특정 다수의 후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금 기법으로 예술단체(예술인)의 프로젝트 계획 및 모금목표액을 온라인사이트에 게재하고 SNS 등 온라인 홍보 일정기간동안 모금 진행하는 온라인 모금 플랫폼.

정기후원금을 자라나는 예술 영재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 2명의 어린 피아니스트(김두민, 배용준)를 시범 지원한 데에 이어, 2018년도에는 대상과 장르를 넓혀 5명(김두민(피아노), 김민지(현대무용), 남여울(피아노), 이승민(발레), 전이수(동화, 일러스트))의 영재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였다. 2018년도 예술영재들은 각자의 부문에서 성인 못지않은 왕성한 활동을 통해 프랑스 파리 사립음대(에꼴 노르말 드 뮤지크)에 재학 중인 김두민은 리처드 용재 오닐 〈선물〉에 출연하여 협연하였으며, 예술영재 김민지가 속한 팀은 2018년 서울무용제 사전축제 〈4마리 백조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프리스쿨에서 수학한 남여울은 현재 음악원 본원 예비과정에 입학했다, 이승민은 2018년 서울국제무용콩쿠르 프리주니어Ⅱ부문 1등을 기록하고, 예술영재 전이수는 2018년 네 번째 동화책 〈나의 가족, 사랑하나요?〉를 발간하고 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성인 예술가 못지않은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에도 5명의 예술영재들은 그대로 활약을 이어갔다. 김두민은 워너 클래식과 함께 앨범 〈Mendelssohn: Piano Works〉를 발매하였으며. 김민지는 제16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컨템포러리무용 프리주니어Ⅱ 여자 부문에서 우승. 남여울은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본원 5학년 과정에 합격하여 수학중이며, 이승민은 World Ballet Competition의 Pre-Professional 부문에서 1등, 동아무용콩쿠르 중등부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전이수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 개인전 〈이수야, 안녕〉을 개최하고, 뒤이어 수피아미술관에서 〈어른들은 누구나 어린이였다〉 개관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4)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 문화예술 사회공헌 활성화'를 통한 민간재원의 후원 참여기반 마련

2014년 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4년 7월 29일 시행) 및 「지역문화진흥법」(2014년 7월 29일 시행)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의 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법률을 근거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까지 지난 5개년 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4개,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29개를 인증하였다.

2019년에는 한국철도공사, 한전KDN,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및 오성정보통신, 하지공업 등 지역 중소기업 등 12개 기업이 신규 인증되었다.

2014년 발족한 공공 · 민간 문화예술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최초의 협의체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를 통해(2014년 3월 12일, 13개 광역문화재단, 12개 기업 · 문화재단 참여) '공공과 민간영역의 문화예술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하였다. 2018년까지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지원사업에서는 공공 · 민간 공동협업사업 발굴 및 운영을 통해 총 1,245백만 원 기금투입 대비 1,915백만 원 민간지원으로 총 3,160백만 원의 지원효과를 창출하였다.

2019년에는 10개의 지역 문화재단, 11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295백만 원 기금투입 대비 335백만 원 민간지원으로 총 635백만 원의 지원효과를 창출하여 민관 파트너십 구축 및 지역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신규재원을 조성하였다.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문화예술분야 기업들의 적극적인 후원 참여와 공동 기획을 통한 기업의 문화예술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기존 문화예술 후원기업의 예우 및 관계 강화와 신규 문화예술 후원 기업의 발굴을 통한 기획기부 사업제안 및 1대1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참여 계기를 마련하였고, 2014년에는 문화예술계의 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순회 모금아카데미(7개 지역, 대전, 부산, 경기, 광주 등) 운영 및 1대1 후원 컨설팅(39회)과 함께 기업 사회공헌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기업 문화예술 기부설명회(12회)를 실시함으로써 찾아가는 기업후원 제안 및 모니터링, 예우 및 사회공헌 담당자 관리 강화를 통한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5년에는 예술경영지원센터 '마켓&포럼'을 통해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기업 후원 제안 모의PT를 시행하여 단체들의 실제적 역량을 강화시켰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예술단체 전반이 참여하는 기업 사회공헌 제안 공모전과 기업과 예술단체간 1대1 비즈니스미팅을 활성화시켰다. 2017년부터 기업 사회공헌 관계자와의 지속적 관계 유지 및 네트워킹 행사 · 간담회 진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기부편의성 및 투명성 제고 노력으로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지속적 문화예술 관심 증대 유도하였고, 공공–기업, 민간–기업, 고액개인후원자 등 다각적 민관협력 기업기부금 유치에 노력하였다. 그에 따라 2016년에는 207억 원, 2017년에는 225억 원, 2018년에는 232억 원, 2019년에는 307억원의 문화예술 후원금 총액을 확보하여 민간의 문화예술후원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3) 공연 예술창작 및 유통 지원체계 강화

(1) 공연예술 창작 및 유통구조 선진화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자체 우수 레퍼토리 확보 및 공연예술 창작기반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창작산실(舊 창작팩토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연극 · 뮤지컬 · 오페라 · 무용 · 음악 등 기초 공연예술 분야를 창작에서부터 유통까지, 시범공연, 작품 제작, 재공연 등 단계별로 공연제작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전통예술 분야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4-1-1 창작산실 추진내역

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연극	30	1,300	33	1,530	23	1,330	33	1,540	40	1,592	26	1,305	29	1,640
뮤지컬	18	700	37	3,130	32	2,680	27	3,986	22	2,285	18	1,639	21	1,953
오페라	12	1,000	7	680	9	900	7	400	8	400	4	285	10	400
무용	38	1300	33	648	39	1350	29	624	39	779	30	827	22	832

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음악	–	–	5	400	19	537	22	759	23	861	23	789	23	800
전통예술	–	–	–	–	–	–	8	135	23	487	14	72	9	370
합계	98	4,300	115	6,388	122	6,797	126	7,444	155	6,404	115	4,917	114	5,995

관객개발과 홍보 측면에서 온오프라인 정보 플랫폼 및 채널을 활용한 통합 관객개발 지원 또한 병행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한 공연예술의 관객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네이버 실황중계를 실시, 2017년부터 네이버의 공연 · 전시판 신설 등 전문 정보채널과의 협력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19년에는 공연예술창작산실 실황생중계를 네이버TV로 총 16편 중계하여 144,783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9년에서 CGV와 공연예술 영상사업화 MOU를 체결하여 창작초연 작품을 극장에서 유료상영하는 아르코라이스 서비스를 개시 하였다.

창작과정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7년에 신규 사업인 창작실험활동지원이 신설되어 28개의 개인과 단체를 지원하였다. 창작실험활동지원은 참신한 창작 아이디어의 완성도 높은 무대화를 위한 창작워크숍, 리서치 등 프리프로덕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심의서류 간소화와 장르통합심의 추진 등으로 신진예술가 · 단체의 탈장르, 융합형 창작 실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단순 지원방식을 넘어 2018년부터 연초에 전년도 창작실험활동 참여 예술가의 활동실적 과정 공유회를 추진하여 현장 네트워킹 및 성과확산을 도모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9년에는 연극과 뮤지컬 장르의 대본공모 사업을 복원하여 공연예술창작산실의 창작 준비지원–신작 초연 발굴 지원– 재공연 지원의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였다.

(2) 지역 공연예술 제작 및 소외계층 공연예술 향유기회 확대

지역 문화예술활동의 거점인 지역 문예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문화소외지역의 공연예술 수준 제고를 위해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 문예회관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운영 인력 전문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4-1-2 문화소외지역 지원 사업 및 성과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방방곡곡 문화공감 (일반회계 '14년부터 문예기금)	지역	78	129	147	161	182	198	201
	지원문예회관	78	351	318	438	479	529	511
	수혜자(명)	61,103	412,733	527,805	654,982	716,318	722,453	700,690
	예산액(백만 원)	2,883	7,983	8,000	15,000	15,000	15,000	15,750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문예기금)	지역	124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통합					
	지원문예회관	150						
	수혜자(명)	434,104						
	예산액(백만 원)	4,704						
신나는예술여행 (舊.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문예기금)	지역단체(수혜시설)	1,992	1,956	1,919	2,841	4,026	4,883	4,536
	참여공연단체	198	202	527	226	347	502	369
	공연 횟수	2,127	2,001	4,662	3,296	4,773	5,758	8,348
	수혜자(명)	535,065	588,994	2,389,111	753,523	839,475	783,579	988,311
	예산액(백만 원)	9,530	10,000	30,000	20,000	21,119	21,020	25,289
사랑티켓 (문예기금)	프로그램 수(개)	2,615	2,531	1,538	1,212	사업 폐지		
	참여단체 수(개)	743	489	357	258			
	수혜자(명)	445,496	274,511	263,100	263,805			
	예산액(백만 원)	1,956	1,251	1,278	1,119			
합계	지원지역(누적)	2,194	2,085	2,066	3,002	4,208	5,081	4,737
	수혜자	1,475,768	1,276,238	3,180,016	1,672,310	1,555,793	1,506,032	1,689,001
	예산액(백만 원)	19,073	19,234	39,278	36,119	36,119	36,020	41,039

*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은 추경사업 포함한 내역임

또한 지역의 민간공연예술단체의 공연제작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장 가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지원 사업을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9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약 64억 원을 118개 공연장, 145개 단체에 지원하였다.

더불어 문화향유 기반이 부족한 전국각지의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임대주택, 교정시설, 군부대, 산업단지공단 및 중소기업근로자, 새터민 등 문화소외지역과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일반국민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신나는 예술여행(舊.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을 4,536개 수혜처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지역 간,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4) 일상 공간 속 문화가치 확산

(1) 일상 공간의 문화적 재창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공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정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공간을 둘러싼 자연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채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공간이 계획되고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공간은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전제이며, 나아가 도시 및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양적 팽창 위주로 형성되어 온 우리의 일상 공간을 삶의 질을 고려한 공공디자인과 문화 콘텐츠의 결합을 통해 문화적 · 예술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6년 8월 4일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디자인 시범프로젝트를 발굴 · 지원함으로써 지역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수립 및 사업 실행을 지원하였다. 2019년 사업대상지는 4개소로 경기도 하남시 원도심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 및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편안한 통학길 조성, 전북 익산시 공영주차장 공간환경 질적 개선, 전남 완도군 비석거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시설물 정비 및 안내체계 개선 및 야외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선정하였고, 2019년 설계를 마쳐 2020년에 시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에 이은 2년차 사업지로 안양시 안양예술공원 안내체계 개선 설계, 시흥시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고령자를 위한 인지건강 디자인 적용, 울산 울주군 범죄예방 통합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대하여 2019년에 완료하여 사례를 보급하였다.

(구)서울역사의 리모델링을 통해 2011년 8월에 복합문화공간으로 개관한 '문화역서울284'는 2019년 〈DMZ〉, 〈전기우주〉 등의 기획전을 개최하고 전시 · 세미나 ·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상설 프로그램 운영 및 대관 등을 통해 문화예술의 창작기반을 조성하였다.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국제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등의 개최를 통해 일상 속의 문화가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적 관점에서의 건축문화 진흥 및 인식 확산을 위해 '대한민국건축문화제' 개최,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젊은 건축가들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한 젊은 건축가상 시상, '사람과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공간문화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 '공간문화대상' 선정 · 시상 등을 추진하였다.

(2) 한국 공예의 대중화 · 세계화 · 산업화

2019년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인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18~'22)'에 따라 공예문화산업을 정착시키고 발전하는 단계로, 공예문화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 · 창작 · 제작 · 유통 · 전시 · 소비 ·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 한해였다.

2019년 '공예 주간'('19. 5. 17.~26.)은 전년도 행사의 성공에 힘입어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일상 속 공예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시, 장터, 체험, 교육 등 다채로운 공예 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전국 359개 체험처에서 341,538명이 참가하는 기록을 세웠다.

공예문화 확산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2019 공예트렌드페어'('19. 12. 12.~15.)는 공예작가와 소비자와의 접점이자 공예기반의 리빙트렌드를 제안하는 비즈니스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14회째 개최된 이번 페어에는 320개 사 참여, 관람객 73,091명, 현장판매 약 15억원 등 2018년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공예 · 디자인 전문 정기간행물, 우리공예디자인 리소스북(금박, 화혜)을 발간하였으며, 한국공예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공예 전 분야를 대상으로 우수공예품을 공모하여 총 49종의 우수공예품을 2019년 신규로 지정하였다. 현대적인 감각과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신진 공예디자인 작가들을 발굴 지원하여, 공모 선정된 작가 20명을 대상으로 공예디자인 상품 총 189개를 개발하였으며, 이 중 4명의 우수 작가를 대상으로 브랜드화를 위한 후속 지원을 하였다. 2016년부터 한국문화재재단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상품개발 기능을 이관받아 전통문화유산 활용 상품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에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콘텐츠를 활용한 브랜드 문화상품, 특화상품 등 총 42품목 129종을 개발 및 공급하였다.

지역별 공예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공예공모전 선정 · 지원(원주, 남원, 나주 등 6곳), 지역으로 찾아가는 공예 교육 컨설팅(충청, 강원, 세종) 등을 개최하여 지역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했다.

또한 2019년은 한국 공예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업계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원 방식의 변화를 꾀한 한 해였다. 해외 박람회(영국 콜렉트 Collect, 프랑스 메종&오브제 Maison&Objet, 미국 시카고 소파 SOFA, 뉴욕 나우 NOW) 참가 지원 및 한국-필리핀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공예전, 제2회 국제공예포럼을 개최하여, 한국 공예의 우수성 홍보 및 상호 교류 확대를 통해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전통공예의 현대화 및 세계화를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디자인위크 기간('19. 4.)동안 '한국공예의 법고창신' 전을 개최하여 전통소재 및 기술과 현대적 디자인이 접목된 공예 작가 23인이 만들어낸 공예 작품 75점을 집중 소개하였다.

5)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강화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국악 등 예술 분야별 전문 인력의 초 · 중등학교 방문 교육을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예술 전공자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교육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2000년 국악 분야부터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 · 인성 함양과 문화예술 향유능력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 10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간 업무 협약(MOU)을 체결함에 따라 양 부처가 협력하여 사업비 분담 및 예술 강사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점차 확대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원 학교 수가 2008년 3,689개교에서 2019년 8,481개 학교로 크게 확대되었다. 따라서 전체 초 · 중등학교의 71%에 달하는 학교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에 걸쳐 학교에서 희망하는 예술 강사를 지원하게 되었다(전국 초 · 중등학교 현황: 12,090개교, 2019년 연말기준 교육통계).

문화예술 소외지역의 전교생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예술꽃 씨앗학교'는 2008년 10개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전국 118개 학교를 지원하였다. 운영학교는 최대 4년 간 아이들이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전교생이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국악, 영화, 디자인, 연극, 영화, 뮤지컬, 주제중심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와 내용을 중심으로 예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운영을 통해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4년차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대내외적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실현 및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유아를 대상으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간헐적으로 운영해오다가 2016년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17년부터는 문화기반시설을 통한 지원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여 각 시설의 고유 콘텐츠를 활용, 누리과정과 연계하되 예술적으로 차별화된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였다. 사업종료 이후에는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하여 콘퍼런스를 진행했다.

2019년부터 사업이 지역 이관되어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편성, 17개 시 · 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와 협력하며 지역별 문화시설 자원을 활용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2019년 기준 총 58개 문화기반시설에 918개 영유아교육기관과 수혜자 총 20,521명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2)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체험 · 학습 · 창작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5년부터 추진해온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2019년에는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부처 간 협력 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 기획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및 지역 확산,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다섯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첫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17개 분야의 491명의 예술강사를 533개 시설에 파견하였다.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복지기관에는 교육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과 기자재를 참가자 규모에 맞게 지원하고 있다.

둘째,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2005년 국방부를 시작으로 법무부 · 산업통상자원부 ·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 · 통일부 · 국가보훈처와 같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과의 협력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2019년에는 군부대 225개, 교정시설 52개, 소년원학교 11개, 치료감호소 2개, 근로자 26개, 방과후청소년 21개, 학교 밖 청소년 73개, 지역아동센터 690개, 북한이탈주민 7개, 상이군경 16개 프로그램으로 총 1,227개 시설을 지원하였으며, 20,420명의 군인, 재소자, 아동 ·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상이군경 등이 참여하였다.

셋째, 문화예술교육 기획 프로그램은 전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프로그램과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예술가가 문화예술에서 소외된 주민들을 발굴하여 문화예술 경험을 함께 나누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문화예술계 저명인사와 예술인들이 주민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학교를 가지 않는 토요일에 문화예술교육을 접하며 문화예술 소양을 키우는 취지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밖에도 치안센터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주민자치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문화파출소가 9개소 조성되었다.

넷째,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 사업은 사회 통합과 문화 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자원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마을 등 생활권 단위에서 시민들이 직접 문화예술교육의 주체가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섯째, 2019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범죄피해자, 위기청소년, 도박중독자, 군대부적응병사 등 심리적 상처를 가진 소외계층의 회복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기관 협의를 통해 6개 지원 시설 군을 선정하고 심리 · 상담 기법과 미술, 음악, 무용 등 예술매체를 융합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마련하여 wee프로젝트 관련 시설, 국군병원, 소년원학교 등 68개 시설에서 7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성폭력피해자, 미혼모, 감정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22개 시설에 22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경도인지장애자를 대상으로 24개 시설에 24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다양한 계층의 수혜대상을 세분화하여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예술강사와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을 새롭게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셋째, 예술강사 및 교육수행단체를 위한 연수 · 평가 · 컨설팅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문화예술교육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문화예술교육정책과 여가정책, 교육정책, 평생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다문화정책, 교정행정, 노인정책, 여성정책 등과의 협력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3) 문화예술교육의 전문 인력 양성

2019년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서는 학교 · 사회 예술강사 및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초 · 중등 교원, 행정인력 등 총 5,465명을 대상으로 총 122회, 1,691시수의 연수를 제공하였다.

대상별 핵심역량을 도출, 전문인력 양성의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대상별연수, 주제특화 연수, 협력연수 등 다양한 형태의 연수를 기획하였으며, 특히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통한 연간 상시 운영체계를 도입하여 연수장소(연수원 및 지역 유휴공간) 및 교육형태(장 · 단기 집체형, 통학형 등)를

다양화하는 등 전국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대상 역량강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2011년 12월 30일 국회에서 개정 의결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법률 제11312호)이 2012년 2월 17일 공포되었으며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법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 2(문화예술교육사)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 부칙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는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9년 12월 말 현재 18,466명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출되었다. 자격제도 도입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되어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6)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1)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기반조성

장애인 문화예술 부문은 복지정책 또는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2009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에 장애인문화체육과가 신설되면서 별도의 정책대상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부문이 체육국 소관으로 되어 있어 적극적인 진흥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현장 장애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2013년 3월 예술국 예술정책과로 이관하여 본격적으로 예술정책의 한 분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령도 정비되었다. 2008년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 지원하기 위한 관련 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시책 강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경비 보조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장애예술인 창작 기반 구축 및 교류 지원

2015년 3월 11일 장애인 문화예술진흥 사업수행과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위탁 운영을 위해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설립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실행 ·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7년부터 문체부 장애예술 담당부서는 장애예술의 정책개발, 거버넌스(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 구축에 집중하고, 예산 교부체계는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 일원화하여 사업운영을 체계적 ·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정책과 사업 영역을 분리하여 지원전달체계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정부와 민간단체의 교량 역할 및 정책지원, 사업운영, 대외협력 기능을 수행하여 장애예술 협력네트워크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 2019년 장애예술 예산은 총 13,890백만 원(함께누리 지원 8,821백만 원, 체육기금 3,612백만 원, 센터운영 1,457백만 원)이며, 2019년에는 장애인 예술단체의 창작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 장애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장애예술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해외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통해 6개 분야 172건의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여 총 194,551여명이 참여하였다. 매년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등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을 운영하며 133개 단체 및 개인에게 787건을 대관하였고 ▲장애인 문화예술 웹진 '이음' 운영 ▲장애인-비장애인 작가, 기획자의 협업을 통한 배리어프리 콘텐츠 개발 및 전시, 연계프로그램 개최 ▲장애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 장애예술단체 · 예술가 초청공연 및 강연 개최(2개 공연, 강연 1회), ▲해외 전문가 초청 장애-비장애 예술가 공동 창작 워크숍 개최(8회)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외 사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대중예술, 클래식, 전통예술 공연예술단 지원 ▲미술, 음악, 문학, 대중예술 4개 부문 장애예술인을 표창하는 '장애인문화예술대상' ▲'장애인국제무용제', '장애인 무용전문인력 양성' ▲예비 장애예술인 발굴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 ▲잡지발간 ▲장애인 창작아트페어, 한중일 미술교류 등이 있다.

(3)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 및 문화 접근성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 및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 중 보건복지부 '42-6 장애인 문화 · 여가 접근성 강화' 중 세부과제로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및 장애예술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는 문화예술 향유 측면에서 더욱 소외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예술인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방과 후 교습 형태로 이루어지며 클래식, 공연, 무용, 미술, 도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2016년 9개 시도 10개소, 2017년 12개 시도 13개소에서 2018년 14개 시도 16개, 2019년 15개 시도 18개소로 확장되었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공연(국내 · 외), 홍보지 발간, 문화예술교류대회 등 부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예술 공연장 건립' 사업은 〈장애예술 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도출하였고, 향후 공연장 건립, 운영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연장은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반한 시설로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향유 및 창작활동 참여를 위해 배리어프리 무대 · 객석 · 편의시설 등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수어 · 문자통역, 음성해설장비 등 장애인의 공연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관료를 낮추어 창작활동을 간접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율과 만족도를 높여 비장애인과의 격차를 줄이고 장애인의 문화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3. 주요 기관

1) 한국예술종합학교

(1) 조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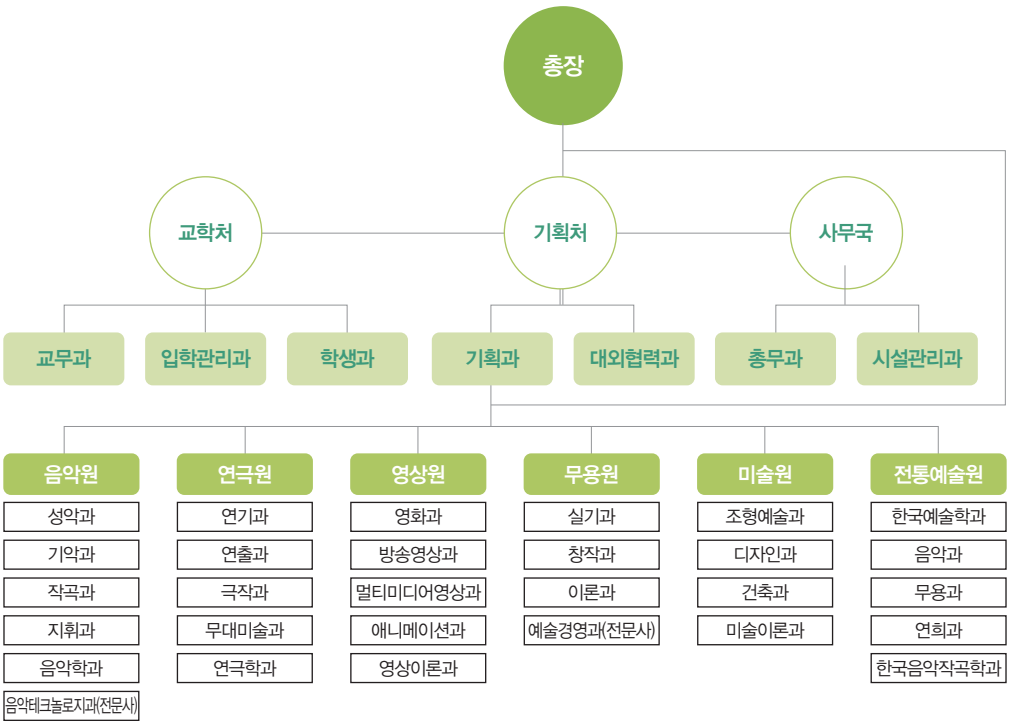
선진국의 예술교육은 전통적인 도제식 교육을 통하여 직업적 예술가를 양성하는 콘서바토리(Conservatory) 형태의 예술학교와 보다 학문적인 영역에서 예술을 탐구하는 예술대학을 통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립 이전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예술교육은 미국 주립대학에서와 같이 교양적이고 표준적인 예술교육을 수행하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유학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계적 수준의 예술가를 양성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우리의 예술교육에 대한 반성과 자각은 세계적 수준의 실기 능력을 갖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예술학교를 설립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으며, 국내 최초로 예술실기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림 4-1-1 한국예술종합학교 비전

표 4-1-3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혁

1990. 06. 25.	국립예술학교 설립계획 공포
1991. 12. 30.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정(대통령령 13528호)
1992. 10. 30.	학교 직제 확정
1992. 11. 16.	초대교장 취임
1993 ~ 1998	음악원을 시작으로 총 6개원 개원 – 1993. 03. 08 음악원 개원 – 1994. 03. 03 연극원 개원 – 1995. 03. 08 영상원 개원 – 1996. 03. 04 무용원 개원 – 1997. 03. 03 미술원 개원 – 1998. 03. 09 전통예술원 개원(6개원 체제 완료)
2017. 08. 26.	제8대 총장 취임(김봉렬 교수)

그림 4-1-2 한국예술종합학교 조직도



* 위치: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서초구 서초동, 종로구 와룡동

** 자료: 누리집(www.karts.ac.kr)

표 4-1-4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직원 수(2019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특정직					일반직									
		소계	총장	원장	전임교원	조교	소계	고위공무원	3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연구직	전문경력관나군	관리운영직군
정원	269	167	1	6	144	16	102	1	–	2	1	11	74	1	3	9
현원	254	155	1	6	132	16	99	1	1	1	3	6	73	1	3	10

* 대학회계직: 36/33

표 4-1-5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수(2019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명)

구 분		계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	협동과정
예술사	정원	2,252	532	340	420	240	380	340	–
	현원	3,102	632	472	646	381	551	418	2
예술전문사	정원	882	281	116	145	100	140	76	24
	현원	1,362	285	236	247	172	182	209	31
계	정원	3,134	813	456	565	340	520	416	24
	현원	4,464	917	708	893	553	733	627	33

* 학생 현원=재적생(재학생+휴학생)

2019년도 국고 세출예산은 60,649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5,181백만 원 대비 5,468백만 원, 약 9.9% 증액되었다. 기존사업들 중 증액된 부분을 포함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사업에 석관동교사 별관개선공사 비용, '학교종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사업에 홈페이지 개편 비용, 그리고 '아시아예술계인력양성(ODA)' 사업에 등록금 반영 등 여러 신규 사업들이 반영됨에 따라 전체 국고 예산이 증액 되었다. 국고 세출예산은 주요사업비 39,744백만 원, 인건비 18,600백만 원, 기본경비 2,305백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6년부터 세입예산이 모두 대학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국고 세입예산은 없다.

(2)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예술 인력의 양성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타 예술교육기관과 차별화된 고유의 입시제도와 교과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창의적 예술인재를 발굴하고 조기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 내에는 음악원 · 연극원 · 영상원 · 무용원 · 미술원 · 전통예술원의 6개원을 두고 있다. 각 원은 독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장르별 독자성과 전문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탈장르적이고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 창작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함으로써 장르의 융복합, 디지털화, 글로벌화 등 예술 흐름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08년 8월 설립된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서는 현재까지 음악 · 무용 · 전통예술분야 예술영재를 발굴하여 실기능력 뿐만 아니라 창의성 및 예술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 중이다.

(3) 전문예술교육기관 특성에 적합한 학습 공간 조성

2006년 10월 석관동에 극장, 전시장, 영화전용관 등 첨단 문화복합시설을 갖춘 제2교사를 완공함으로써 전문예술교육 특성에 적합한 학습공간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국제적 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다양하고 유익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문화공간이 빈약한 서울 동북부 지역의 새로운 문화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이후로도 학습공간 등 시설개선과 화재예방점검(1~3월), 내진 및 구조보강 공사 용역(4~7월), 소방시설 점검(7~9월), 난방설비 등 교체공사(9월~11월), 겨울철 자체 안전점검(10~12월)등의 안전대책 추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구축하였다.

(4) 국립교육기관으로서 공익적 역할 강화

지난 1999년부터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과 농어촌 · 도서벽지 등을 직접 찾아가서 공연이나 전시활동을 하는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통하여 소외지역 계층에 대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공자들이 참여, 문화 취약계층(전국 지역아동센터, 초 · 중등학생) 대상 아트캠프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국민의 다양한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민 문화향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행사' 및 한예종 인적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한 '섬&아트 프로젝트',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예술봉사', '문화예술교실', '전통예술 나눔' 등의 사업도 계속 추진되었다.

아울러, 2011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예술교육 기회가 부족한 중증장애인,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포용, 적극적인 인재 발굴 및 교육 기회 제공 확대라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2016년 하반기부터는 지역주민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학기당(3월, 9월 개강) 25여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수강신청을 통해 무료로 강습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아시아예술계인력양성(AMA^{+} 장학사업[4], AMFEK 문화동반자사업[5])' 등을 통해 범아시아 지역 내 한국의 예술 영향력을 확장하고 개발도상국의 문화 · 예술 기반을 지원하는 인재 육성 ·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 AMA^{+} (Art Major Asian plus Scholarship)프로젝트: 해외 우수예술인재 유치를 위한 국비장학제도로 전세계 개발도상국 출신 예술 인재를 장학생으로 유치해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예술학교 졸업생으로 배출하는 사업

5] AMFEK (Art Major Faculty Explore K-Arts): ODA 수원국 출신 예술교육자, 예술교육 전문가 및 행정가를 1학기 간 초청하는 단기 연수 프로그램

(5) 주요성과

2019년도에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우수교원 채용 및 유연하고 창의적인 교과과정 마련」, 「학생 인권보호 및 복지 지원 확대」, 「공정하고 효율적인 입시운영을 통한 우수학생 선발」, 「글로벌 메이저 예술대학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원」, 「융합예술 인재 양성 및 예술연구 활성화」, 「우수콘텐츠를 활용한 대외 공연 · 교류 · 교육사업 활성화」, 「예술영재 발굴 · 육성 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등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분야별 최고 수준의 교수진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② 전임교원 정원 증원 추진, ③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보호 원년의 해 사업 추진, ④ 입시전형 개선 및 공정성 제고로 우수 학생 확보, ⑤ 국제교류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한 학교위상 제고, ⑥ 융합예술 '연구–교육–창작' 프로그램을 통한 융합예술인재 양성, ⑦ 학내 우수콘텐츠를 활용한 공연 · 교류 사업 확대, ⑧ 예술교육 향유층 확대를 위한 대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⑨ 예술영재 교육지원 운영 활성화 및 국내외 교류 활동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표 4-1-6 한국예술종합학교 2019년도 세부 추진 성과

구분	내용
교무 및 학사 분야	▶ 교육 수요를 반영한 우수 교원 채용 및 정원 확대 – 신규채용 시기 확대 및 공채를 활용한 전임교원 신규 채용(6개원, 11명 신규 임용) * 최근 3년간 신규임용 현황 (2017) 0명 → (2018) 12명 → (2019) 11명 – 교원 정원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예산 확보 추진(2020년 6명 증원) ▶ 입시 홍보 활성화 및 입시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우수인재 유치 – 입시 홍보 활성화를 통한 우수 인재 유치('통합 입시설명회',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개최) –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입시 일정의 전반적 조정 및 관리체계 변경 ▶ 학생복지 및 대외활동 지원 – 장학제도의 안정적 운용(총 5,203백만 원 지급/ 수혜율 49%) – 학생 개성 및 특성을 배려한 복지활동(심리상담, 보건진료, 장애학생 대상 도우미 지원 등) – 예술전공 재 · 졸업생 취업진로 지원프로그램 제공(특강 · 교육, 취업 · 진로상담 등) ▶ 인권센터 기능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예술창작환경 마련 – 교내 인권실태조사 실시 및 인권침해 고충 상담 · 처리 –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및 관련 매뉴얼 배포를 통한 인권 감수성 증진

구분	내용
대외협력 분야	▶ 주요 성과를 집약한 홍보물 제작 및 대외홍보 강화 – 기획기사 발굴 및 보도자료 배포(106회), 언론보도 7,148회 – 글로벌 예술명문 및 국립예술대학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위한 '학교 대외 이미지 조사' 실시 – 학교 홍보 영상, 세계대학평가기관 QS APPLE(아시아태평양고등교육박람회) '2019 가장 창의적 기관 동영상' 선정 – 성과 홍보물 〈K–Arts PDIDE 2019〉 언어별(국 · 영 · 중) 콘텐츠 제작(리플릿, 인포북 2종) – 문화예술매거진 〈K–Arts〉 발행 및 웹진 서비스,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및 온라인 홍보영상 채널, SNS 운영 등을 통한 온 · 오프라인 홍보 강화 – '2019 학교 홍보콘텐츠 공모전' 및 '2019 K–Arts 영상콘텐츠 상영회' 개최 ▶ 글로벌 캠퍼스 조성을 위한 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킹 추진 – ALIA 이사회의 및 합동공연 개최로 아시아 예술 연계에 주도적 역할 담당 – 6개국 6개 대학 및 1개 국제기구 신규 체결, 1개국 1개교 교류 갱신 – 해외 글로벌 대학과의 교환학생 교류(파견 54명, 유치 63명) 및 외국인학생 지원제도 운영 – 2019년도 우수 예술인재 선발(AMA+, 17명), 문화동반자 초청연수(AMFEK, 5명) – 문화인턴 7개국 7명 파견 ▶ 다양한 사회 기여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예술봉사 꿈그림학교', '섬&아트 프로젝트' 등 문화예술교육 및 공연 · 전시 추진 – '문화가 있는날' 꿈꾸는 정오의 음악회, '전통예술나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요영화관' 등 운영
교육환경 분야	▶ 효율적인 공간 환경 조성 – 석관동 별관 학습장 환경개선 및 내진보강 공사 •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에 따른 구조 보강공사 추진 – 학습 공간 등 시설개선 • 출입문 교체, 주방 바닥 보수, 노후 CCTV 교체 및 추가설치 등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실시(연 2회) – 시설물 정기점검(연 2회) 및 매월 자체 안전점검 실시 등 ▶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기반 환경 개선 – 학교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 – 최신 소프트웨어 서비스,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운영체제 교체 진행 – 교육 및 연구 지원을 위한 자료 구입 · 수집, 학교발행자료 및 기증자료 수집 등
	▶ 학사행정시스템 서비스 강화 – 메인디자인 및 사용자UI 개편 등 사용 편의성 향상 – 학사행정시스템 의견수렴 및 지속적인 서비스 기능 개선 ▶ 학습공간 조성 및 도서관 이용 환경개선 – 예술정보관 2층 까뜰리에 공간 재구성 –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 · 설비 개선
세계적 예술가 및 예술영재 발굴	▶ 세계적 예술가 배출로 국제적 위상 제고 – 2019 QS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 부문 세계 37위, 국내 1위 달성 – 각종 경연대회 다수 입상 등 학생 경쟁력 강화(2019년도 국내외 대회 188명 수상) ▶ 체계적인 예술영재 육성 기반 구축 – 음악, 무용, 전통예술분야 총 173명 선발운영(사회적 배려대상자 정원 외 10% 내외 별도 선발) – 융합분야 시범운영(34명 선발)을 통한 융합(디지털미디어)분야 영재 발굴 – 정규 수업 및 인성 · 창의성 교육과정 운영 – 특별프로그램(마스터클래스, 특강, 찾아가는 공연, 상담 등) – 2019학년도 대외수상 실적 250건 (국내 196, 국외 54) – 사회통합범주 청소년 대상의 예술영재 발굴 아카데미 운영 총 37명 수료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조직현황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5년 8월 26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위원회로 변경된 특수법인으로, 2007년 4월 1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설립되었고, 2019년 1월 31일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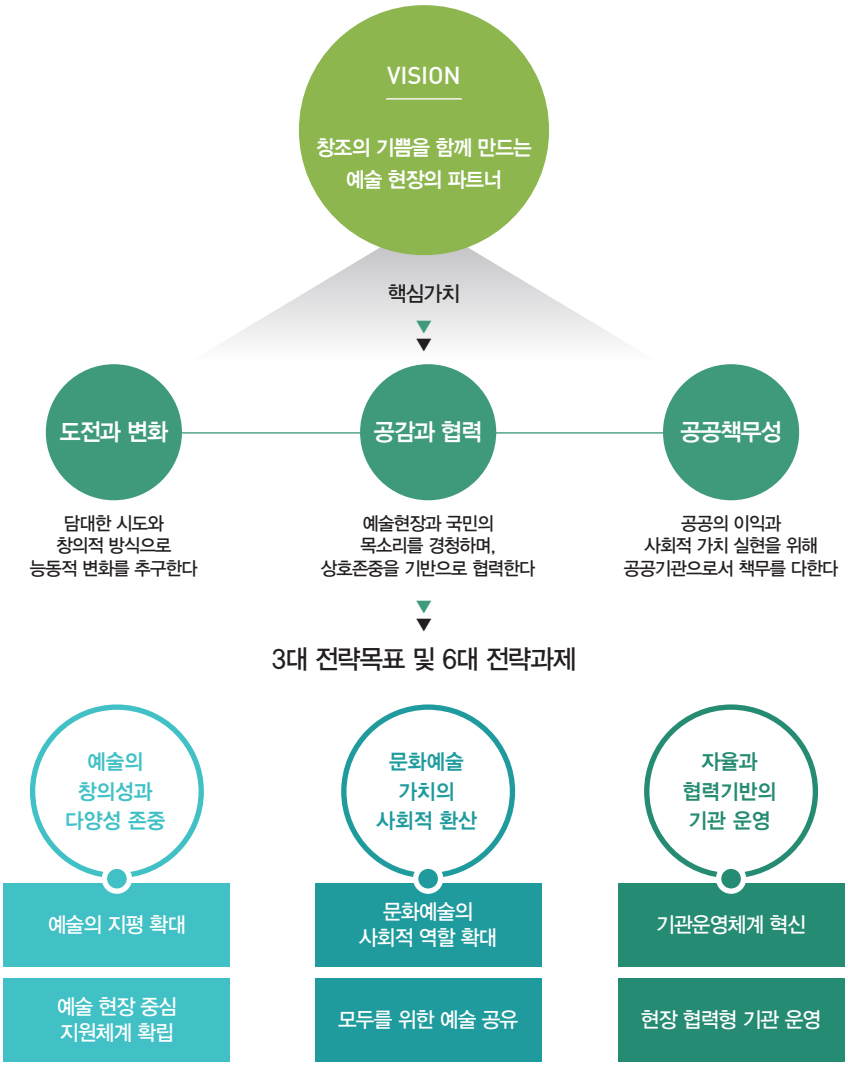
1972년 8월 14일 각종 문화예술 정책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 운영과 문화예술 사업지원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개원한 이래 1976년 10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소재의 구 서울대 부지와 본관 건물을 2010년 4월까지 청사로 사용했다. 1979년 5월 21일에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내에 현대식 전시공간인 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을, 이어 1981년 4월 1일에는 공연예술 종합 공연장인 문예회관(현 아르코예술극장)을 신축 · 개관하였다. 또한 1992년 5월 27일 무대예술 분야 전문연수 시설인 무대예술연수회관(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을 경기도 고양시에 설립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1일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 종합자료센터인 예술자료관을 서울시 서초동 예술의전당 구내로 옮겨 새롭게 개관하였다. 1995년부터는 우리나라 조형예술 및 건축의 세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무대예술연수회관을 증 · 개축하여 문화예술연수원(현 창의예술인력센터)을 개관하였다.

서울 서남권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4월 구로구 구로동(신도림)으로 본관을 이전하였으며, 기존의 대학로 본관을 상업주의에 밀려 창작여건이 위축되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인 '예술가의 집'으로 리모델링하여 2010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014년 4월 공공기관 지방 혁신도시 이전 정책에 따라 광주 · 전남혁신도시로 본관을 이전하였다. 또한 2010년 분리되었던 한국공연예술센터와 국립예술자료원이 2014년 5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기능 간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해 사업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영합리화를 제고하였다.

표 4-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요연혁

1972. 08. 14.	문화예술진흥법 제정(법률 제2337호)
1973. 10. 1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개원
2005. 08. 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인 설립(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해산)
2007. 04. 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2014. 04. 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관 전남 나주로 이전
2014. 05. 2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연예술센터, 국립예술자료원 3개 기관 통합
2017. 11. 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 6기 위원 출범
2019. 01. 31.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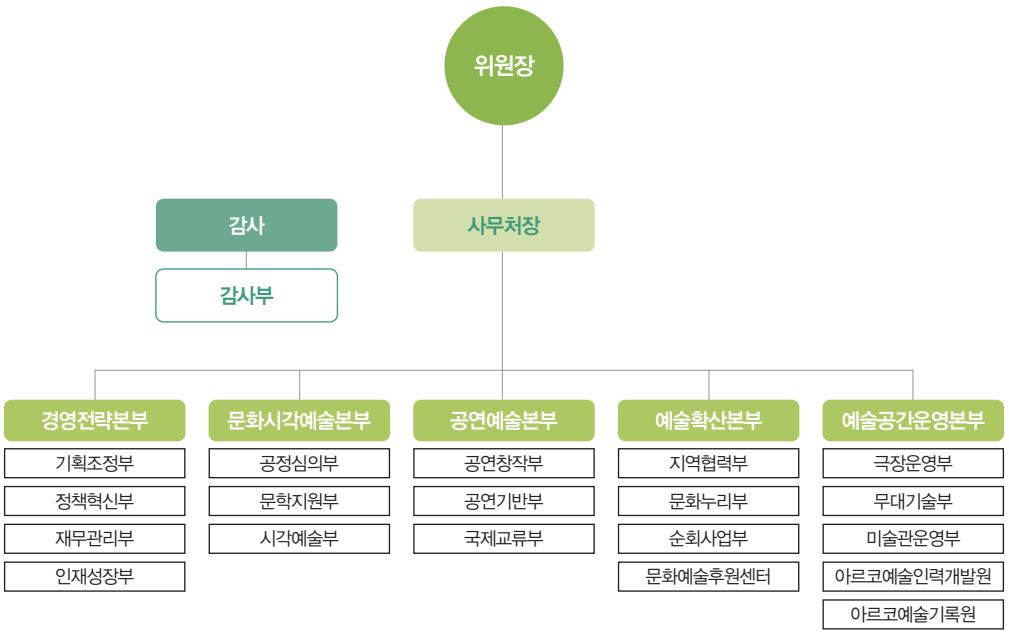
그림 4-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전 20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초예술의 진흥을 위한 총본산이자 최고 의결기구로서 2017년 11월 13일 6기 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위원장(1인)과 비상임위원(9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감사 및 1처 5본부 20부의 조직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처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정책수립, 위원회 운영, 연구 · 조사, 예산, 회계, 인사 등을 담당하는 경영전략본부(기획조정부, 정책혁신부, 재무관리부, 인재성장부), 지원심의제도 개선 및 총괄 운영과 문학, 시각예술 장르의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심의 · 평가 및 분야별 창작 · 연구 · 보급 업무를 담당하는 문학시각예술본부(공정심의부, 문학지원부, 시각예술부), 공연예술 장르의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심의 · 평가 및 분야별 창작 · 연구 · 보급 업무, 국제예술분야의 문화예술교류를 담당하는 공연예술본부(공연창작부, 공연기반부, 국제교류부), 지역협력협의체 운영, 문화누리카드 사업 등 문화복지 사업 , 문화나눔과 사회 · 을 경제적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술나눔과 문화예술기부문화 확산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예술확산본부(지역협력부, 문화누리부, 순회사업부, 문화예술후원센터),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미술관,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아르코예술기록원 등 시설 운영과 기획공연 · 전시, 차세대 창조인력육성과 문화예술 현장인력 일자리 확대 · 육성, 예술자료의 연구 수집 및 디지털 복원 등을 담당하는 예술공간운영본부(극장운영부, 무대기술부, 미술관운영부,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아르코예술기록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감사를 보좌하고, 문예진흥기금 사업 전반에 관한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감사부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4-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9년도 총 사업 규모는 468,533백만 원이다. 2019년 수입으로는 자체수입 63,631백만 원, 정부내부수입 305,561백만 원, 여유자금회수 99,341백만 원이다.

지출예산은 기금운영비 20,663만 원, 사업비로 예술창작역량강화에 67,627백만 원, 지역문화예술진흥 27,927백만 원, 예술향유기회확대 155,513백만 원 등이다

표 4-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출예산(2013~2019)

(단위: 백만 원)

연 도	지 출 예 산
2013	268,602
2014	360,170
2015	335,021
2016	390,857
2017	540,207
2018	348,067
2019	468,533

(2)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충

2004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이 중단된 이후 매년 500억 원 내외의 모금수입이 감소한 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은 양적으로 급격하게 확대되어 연간 2,000억 원 내외의 사업비 규모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 적립금 인출이 불가피하게 되어, 재원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문화예술위원회는 2010년부터 안정적인 재원 확충과 중장기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기금모금 전담 조직인 기금마케팅부를 신설하여 기부금 유치를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9년 4월 1일 경륜 · 경정법 개정에 이어 2010년 9월 16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242억 원의 신규 재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부터는 예술원, 예총, 민예총, 메세나협회와 함께 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예술나무운동'을 전개하면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3년에는 최초로 문화의 날과 연계하여 '문화예술후원주간'을 운영하고 문화예술후원 참여에 대한 모금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2014년에는 재정 · 조세 · 법률 등 전문가 워크숍 및 국회정책 대토론회를 개최, 공공재원으로서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공론화 계기를 가졌다. 2016년부터 체육기금, 관광기금으로부터 각각 500억 원의 신규 재원이 전입 되었으며, 문예진흥기금 안정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총 7회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문예기금 재원 확충 및 예술의 사회적 성과 공유 워크숍 2회, 문예기금 재원확충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를 2회 실시하여 문예기금 확충방안 공론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2017년도에는 신정권의 출범과정에서 국정과제에 문화예술기금 재원확충이

포함되어 재원확충 필요성에 대한 연대감을 확대하여 '18년에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기금으로 500억 원의 전입이 이뤄질 수 있었다.

2019년도에는 '재원확충 소위원회'를 출범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재원방안 마련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19대 국회에서 문예기금재원확충을 위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2년까지 매년 적립금 1,000원씩 총 5,000억 원을 쌓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3) 주요성과

2019년에는 대내외 환경 변화 대응과 예술현장의 신뢰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기관의 중장기 전략인 「아르코비전2030」을 수립 · 발표하였다. 예술현장과 소통하고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소통, 예술정책 · 지원, 지역협력, 재원확충, 미래전략, 예술가치확산, 남북 및 국제교류, 사업평가, 성평등예술지원, 한국예술공론화 등 의제 중심의 소위원회로 대폭 확대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다양한 의제를 도출하여 사업정책에 반영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위한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정보상체계 조성을 위해 원고료 평균단가 적용 가이드를 고시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서면계약서 체결 의무화를 적용하였다.

청년예술가의 공공영역 진입 장벽을 낮춰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확대를 위해 청년예술가 생애첫지원 사업을 시행하였고, 청년예술가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사업운영, 청년예술형 신나는예술여행사업, 창작실험활동지원 등 청년을 위한 중작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고, 그들의 예술활동 보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예술향유 확대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개인별 지원금액을 연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확대 및 이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리적 문화소외계층 대상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예술인복지를 위한 전용 금융 서비스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을 새로 시행하여, 예술인들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담보대출을 제공하였다.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조직현황

예술인 복지의 중요성은 1980년 유네스코총회에서 '예술인 지위에 관한 권고'가 채택되면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은 '저작가,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명시하여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생존권 및 복지권이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예술인복지에

관한 초기 논의는 최소생계 유지와 사회보장 차원의 공제회 설립 등 연구에 집중되었으나, 점차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외예술인복지 모델 검토를 통해 직업 환경과 관련된 보편적 복지차원의 논의로 발전해 왔다.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 11월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이로써 사회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술 활동의 지속성과 예술 재생산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라 예술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동법 제10조에 따라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 예술인의 직업안정 · 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등 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총괄하고 전담하는 주체의 기능을 하고 있다. 2015년에는 기획재정부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역 현장의 예술인을 직접 발굴하여 지원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총 16개 문화재단 및 문화예술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2019년 12월 기준 17개 문화기관과 협약체결).

예술인자녀돌봄센터(시간제 보육지원)를 2014년 대학로와 2017년 망원동에 설치하여 예술인들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7년 12월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 상담센터를 개소, 예술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공정행위를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다.

2018년 6월에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를 개소하였고, 10월에는 예술인복지금고 설립에 필요한 운영 · 홍보 및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예술인복지금고 설립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2019년 6월에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개선 및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2019년 8월에는 재단 이사회를 비롯해 현장전문가 및 예술인으로 구성된 '예술인복지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예술인복지위원회 내 '정책현장소통', '공정예술생태', '예술인생활안정', '사회보험확대' 등 4개의 소위원회를 두어 예술인복지 의제에 대한 논의 및 조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2019년 11월 지역기반의 예술인 복지 지원 증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를 발족하여, 지역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의제 발굴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림 4-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미션 · 비전 · 전략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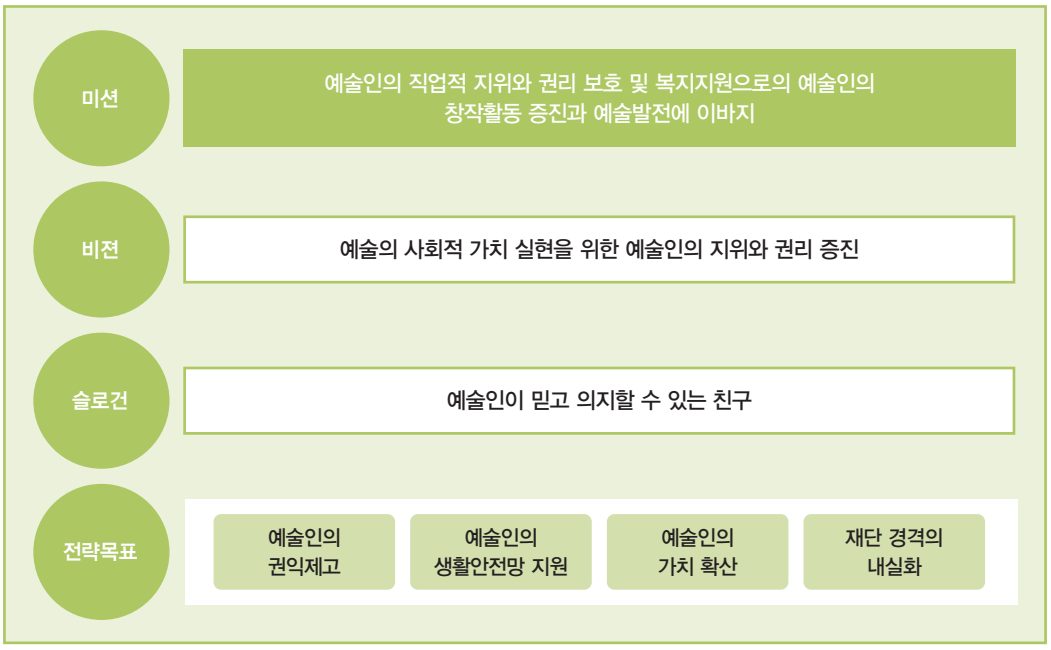


표 4-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혁

2011. 10. 28.	예술인 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1. 11. 17.	예술인 복지법 제정
2012. 11. 18.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12. 11. 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
2013. 09. 30.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개소
2014. 02. 24.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개설
2014. 03. 27.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예술법인 지정
2014. 04. 15.	반디돌봄센터(시간제 보육지원) 개소
2015. 01. 29.	기획재정부 기타 공공기관 지정
2016. 09. 21.~(계속)	예술인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2019.12월 기준 총 17개 지역기관)
2016. 11. 2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 예술인 확대
2017. 03. 14.	예술인 자녀돌봄센터(시간제 보육지원) 개소
2017. 09. 22.	“예술을 통한 혁신적 가치창출” 국제세미나 개최
2017. 12. 28.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개소
2018. 06. 20.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 개소
2018. 08. 20.	예술인 산재보험 온라인 가입 시스템 개설
2018. 10. 24.	예술인복지금고 설립추진위원회 출범
2019. 06. 24.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
2019. 08. 26.	예술인복지위원회 발족
2019. 11. 18.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발족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사회와 대표(상임이사), 운영본부를 중심으로 정책기획팀, 경영지원팀, 예술인지원팀, 창작준비지원팀, 예술가치확산팀, 사회보장부 내 불공정행위 신고 · 상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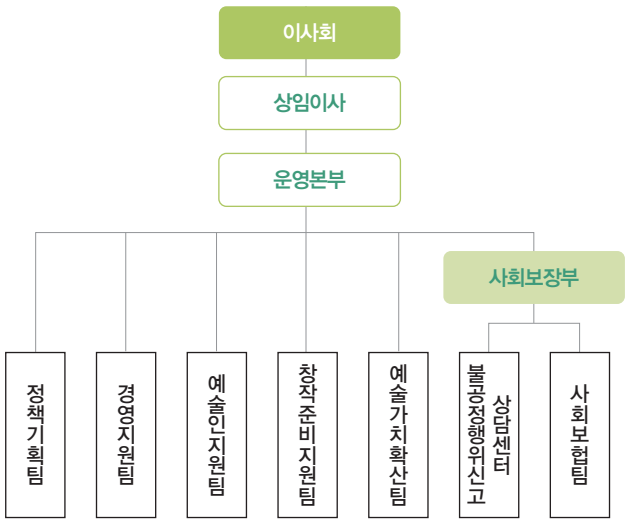
사회보험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은 39명이며, 2019년도 12월 기준 총 39명(정규직 기준)이 근무하고 있다.

재단은 직제개편을 통해 기존 운영본부 내 전략 · 홍보를 정책기획팀으로 승격했다. 정책기획팀은 기관전략을 수립하고 조사연구와 홍보 및 대외 업무,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수행한다. 경영지원팀은 예산, 회계, 인사, 총무, 정보화 등 조직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사업부서인 예술인지원팀은 예술활동증명 업무와 민원 업무,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예술인패스 등을 담당한다. 창작준비지원팀은 창작역량강화사업에 해당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을 지원하며, 예술가치확산팀은 직업역량강화사업에 해당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와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면계약 의무화 및 조사, 성폭력 피해지원 강화 등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 사업 확대 운영을 위한 사회보장부를 신설하여 산하에 불공정행위 신고 · 상담센터와 사회보험팀을 분리 · 개편했다. 불공정행위 신고 · 상담센터는 예술인 신문고 등 불공정관행 개선 사업,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 심리상담 지원, 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추진을 위한 사회보험팀을 신설하여 사회보험료(국민연금, 산재보험)지원, 의료비 지원사업,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9년 예산은 국고보조금은 312억 1천만 원으로, 전년도 274억 6천만 원에서 13.6% 증가했다.

그림 4-1-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조직도(2019년 12월 말 기준)



* 위치: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 누리집: http://www.kawf.kr

(2) 주요성과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재단이 수행하는 예술인 복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총 68,564명(누적 인원)의 예술인이 예술활동증명을 받았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평생 예술에 헌신해 온 만 7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들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총 5,500명의 예술인들이 지원을 받았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한 팀을 이뤄 예술인의 시각으로 기업 · 기관의 이슈를 해결해 나간다. 2019년 한 해 동안, 1,001명의 예술인이 참여했고, 207개의 기업 · 기관이 함께 했다. 예술路(로) 사업은 예술인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을 위한 법률 상담 · 컨설팅, 예술인 신문고(불공정행위 신고접수 및 소송 지원), 심리상담 지원,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 및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예방 교육을 비롯해 계약 및 저작권 교육 등 예술인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예술계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17명의 신규강사를 배출하였다. 또한 예술계 내 성폭력 문제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의 위기상황 대처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재단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 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이 사회보험제도 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 산재보험료를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예술인의 중장기적 복지처우를 개선하고자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 6월 제도권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과 창작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11월에는 예술인의 주거안정 및 창작공간 확보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였다.

제2절 문학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지난 세기 말부터 문학의 사회적 위상은 커다란 변화를 맞았다. 미디어가 주도하는 정보사회의 도래로 문학은 문화의 중심적 지위를 영상매체에 넘겨주었고, 문학 수요자의 이탈과 함께 젊은 문학 수요자 기반을 형성하지 못함에 따라 문학은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문학 진흥 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첫째, 1999년부터 침체된 문학창작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문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창작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둘째, 장기적으로 문학의 자생적 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문학인구의 저변확대와 문학관 건립 등 문학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였다. 셋째, 대외적으로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통한 문학정책의 정책 목표는 창작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국민이 보다 쉽게 문학을 향유 ·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정책, 문학의 해외전파를 통해 글로벌 코리아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문학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진흥법」이 2016년 2월 3일 제정되고 2016년 8월 4일 시행되어 문학, 문학인, 문학단체, 문학관, 문학관 자료에 대한 정의 규정 및 문학진흥의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문학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이 입법화되었다. 「문학진흥법」의 시행은 문학 진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데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문학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제5조), 문학 창작 환경 등에 실태조사 실시(제6조),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구성 · 운영(제7조),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제18조)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감으로써 문학 창작을 활성화하고 문학의 생활화 등 국민의 문학 향유 기반을 확대하고, 한국문학이 전 세계에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문학창작 활성화 사업

문학창작 지원 사업은 1999년 이래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문학창작 활성화를 위해 투입된 재원은 문예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토토기금, 국고 등 다양한데, 그 중 문예진흥기금은 창작 및 매개 · 유통 활성화 사업에 투입되었다. 문학창작 지원 사업에 투입된 문예진흥기금 규모를 보면,

2008년 53억 6,700만 원, 2009년 35억 7,600만 원, 2010년 23억 5,100만 원, 2011년 24억 8,500만 원, 2012년도 23억 7,400만 원, 2013년도 예산액 25억 5,000만 원, 2014년도 32억 원, 2015년도 32억 원, 2016년도 32억 5,000만원, 2017년도 25억 7,000만원, 2018년도 32억 7,500만원으로 총 341억 9,800만 원, 2019년도 29억 8,600만원으로 총 371억 8,400만 원이다.

문예진흥기금으로 시행하는 창작프로그램지원 (2008년 16억 4,400만 원, 2009년 · 2010년 각 8억 원, 2011년 9억 원, 2012년 8억 원, 2013년 8억 원, 2014년 10억 원, 2015년 10억 원, 2016년 3억원, 2017년 2.7억원, 2018년 10억원)은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에는 작가 1인당 창작지원금 1,200만 원씩 지급하다가 2009년에는 작가 1인당 1,200만 원~3,000만 원씩, 그리고 2010년과 2011년에는 작가 1인당 연간 1,000만 원씩 2년간 지급하고, 2012년도 이후부터 시상금 제도로 변경해 2014년에는 작가 1인당 1,000만 원씩 지급했다. 또, 2015년도에는 상반기에는 기존 시상금 제도를 통해 7억 원으로 작가 1인당 1,000만 원 씩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3억 원으로 아르코 주목할 만한 작가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문단 추천으로 발굴 및 선정한 전도유망한 작가에게 1인당 1,500만 원을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2015년 하반기에 추진했던 아르코 주목할 만한 작가 지원의 사업명을 유망작가지원으로 변경하고, 공개추천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하여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작가 1인당 1,500만 원씩 20명에게 창작지원금을 지원하였다. 2017년 또한 공개추천제 방식을 통해 2.7억 원의 예산으로 작가 1인당 1,500만 원씩 18명에게 창작지원금을 지원하였다. 2018년도에는 공모를 통해서 10억 원 예산으로 작가 1인당 1,000만 원씩 90명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공모를 통해서 8억 원 예산으로 작가 1인당 1,000만 원씩 80명에게 창작지원금을 지원하였다.

문예지 및 문학 분야 주요 단체 기관지, 청소년 문예지 등을 지원하는 '우수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은 2011년, 2012년, 2013년 각 7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10억 원을 지원하였다. 2015년도는 상반기에 3억원으로 우수문예지 발간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7억 원으로 우수문예지발간지원의 후속사업인 문예지 우수콘텐츠 디지털아카이빙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도는 문예지콘텐츠아카이빙사업으로 2억 원을 지원하고 전국규모의 문학계의 대표적인 기간단체의 기간지 발간 및 기획사업 추진에 3억 원을 지원하였다. 2017년은 문예지발간지원(체육기금) 5억 원으로 33건을 지원하였다. 2018년은 문예진흥기금 10억 원으로 51건의 신규, 기존 문예지를 지원하였다. 2019년은 문예진흥기금 9억 원으로 47건의 신규, 기존, 지역 문예지 등을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아르코 영아트프론티어 지원 사업과 차세대예술인력육성 사업(2009년 1,000만 원, 2010년 1억 9,000만 원, 2011년 2억 4,000만 원, 2012년 2억 2,800만 원, 2013년 2억 원, 2014년 2억 원, 2015년 2.5억 원)을 통해 신진예술가의 창작소재 개발을 지원하였고 2016년부터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문학)사업을 통해 문학분야 차세대 창작자가 다양한 창작 소재를 개발하고 보다 수준 높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창작과정을 지원하였다. 2019년부터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사업 문학분야에서는 창작준비지원 6명, 창작발표지원 6명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5년에 운영된 문학 창작여건을 개선하고 창작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업문인

문학창작집필실 및 문학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예술전용공간지원(2008년 1억 7,000만 원, 2009년 5억 원, 2010년 16억 원, 2011년, 2012년 4억 원, 2013년 3억 원, 2014년 5억 원, 2015년 5억 원, 2016년 2.5억 원, 2017년 2.5억 원, 2018년 2.5억 원, 2019년 2.5억 원), 사이버문학광장운영(2008년 · 2009년 · 2010년 각 3억 원, 2011년 5억 원, 2012년 6억 5,000만원, 2013년 5억 원, 2014년 5억 원, 2015년 5억 원, 2016년 5억 원, 2017년 6억 원, 2018년 6억 원, 2019년 6억 원) 외에 각종 문학국제교류지원과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국제창작프로그램 참가 등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체육기금으로 '생동하는 문학관 조성 등 문학향유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5억 원으로 전국 문학관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시낭송 나눔사업으로 일반 국민의 문학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2017년에는 우수문예지 발간지원 사업에 5억 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문인들에게 창작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도서관을 활용한 지역 및 청소년의 문학 향유 및 창작 기회 확대를 위해 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으로 2017년에는 10억 원으로 33개 도서관과 33명의 문인이 참여하였고, 2018년에는 35개 도서관과 35명의 문인이 참여하였으며, 2019년에는 9억 원으로 31개 도서관과 31명의 문인이 참여하였다.

2018년부터 문학나눔도서보급사업은 국고 50억 원 예산으로 500종의 도서가 선정 및 1,504개소에 배포되었고 2019년 문학나눔도서보급사업은 국고 51억 원 예산으로 500종의 도서 선정 및 해당도서는 2,603개소에 배포되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우수 문학작품에 대한 독자저변 확대 및 향유 활동을 위해 소설, 시, 아동청소년, 수필 장르별 각 6명의 서평단을 운영하여 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온 ·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6년부터는 복권기금 5억 원을 투입하여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중 문학 장르를 기반으로 기획된 전국 지역문학관 문학기행, 문학콘서트 및 작가와의 만남, 한국문학지도 제작 등 '문학순회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문학관을 활성화하고 한국문학과 대중과의 접점을 확대하였다. 2018년에는 5억 원으로 전국의 22개 예술단체가 직접 문학순회사업을 추진케 하여 지역과 단체의 특성을 살린 문학순회 프로그램 264회를 운영하였고 2019년에는 5억 원으로 전국의 177개 문학단체가 직접 문학순회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과 단체의 특성을 살린 문학순회 프로그램을 총 294회(수혜자 수 21,031명) 운영하였다.

2015년부터 정부는 기성작가 위주의 1회성 단순 지원사업으로는 전반적인 문학 활성화를 이끌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업 체계를 개편하였다. 창작 지원은 작가의 창작 주기(문학영재발굴–신진작가육성–유망작가지원)에 따라 운영하였으며, 문예지도 단순 발간 지원에서 나아가 우수콘텐츠를 선별하여 디지털자료화 하였으며, 사이버문학광장 '문장'에 게재하여 일반에 무료열람 제공함으로써 이용가치를 제고하였다.

2016년에는 문학 침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학 분야 독자 증진이 필수라는 인식이 증대되며 독자를 개발하고 문학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문학주간 행사 등 대국민 문학 향유 활성화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문학 분야의 대표적인 주요단체나 협회의 기간지(문예지) 원고료 지원을 통해 작가들의

기초적인 창작여건을 마련하고 우수콘텐츠를 선별하여 디지털 자료화 하여 우수한 문학 자료의 유실을 방지하였다. 2019년에는 문학주간 행사에 주요 문학단체 등이 참여하였고 작가스테이지를 기획 및 프로그램 공모를 하여 다양한 문학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서울 및 전국 84개처에서 개최하여, 10,527명의 참여 관객들이 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독자 및 문학계 참여 프로그램 운영되었다.

생애주기별 지원(영재 발굴–신진작가 교육–기성작가 발간 지원–원로작가 성과 확대)을 통한 우수 문학의 공급과 문학작품 감상과 독후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문학의 저변 확대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추진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지속될 전망이며, 이에 더해 작가와 시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험형 · 축제형 사업과 우리 문학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인들에게 향유되어질 수 있도록 문학의 세계화 사업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온라인 기반 문학진흥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문학의 창작 유통과정에서 작가와 독자의 직접적 관계가 형성되고 사이버공간에서는 익명성의 보장과 검열기능의 약화로 개인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나타나는 등 문학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하였다. 이러한 문학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5년부터 '사이버문학광장(www.munjang.or.kr)' 운영사업을 진행해 왔다. 사이버문학광장 사업은 한국문학 기초 자료와 새로운 작품 및 멀티미디어 기능을 결합하여 공익적이고 교육적인 차원의 문학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이버문학광장은 특히, 문학 향수자층 확대를 위한 콘텐츠 서비스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매 주 시 또는 문장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독자에게 이메일로 배달하는 '문학집배원(http://letter.munjang.or.kr)' 서비스를 비롯하여, 인터넷 문예 월간지인 '문장웹진(http://webzine.munjang.or.kr)',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인터넷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http://radio.munjang.or.kr)'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모바일 이용자가 급증한 최근 트렌드에 발맞춰 웹 방식을 벗어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 분야(페이스북, 유튜브 및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클립 서비스 등)로도 그 영역을 확장하여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문장의 소리 공개방송, 문장웹진 기획행사 등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작가, 예비작가, 문학애호가 간 소통 및 매개역할을 강화하였다.

사이버문학광장 사업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해 온 청소년전용 문학사이트 '글틴(http://teen.munjang.or.kr)'의 경우, 출신 등단 작가가 20여명에 이르는 등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작품 발표 및 소통 공간을 제공하는데 큰 실효성을 거두었다. 시, 소설, 수필, 감상 및 비평 4가지 장르의 온라인 멘토링도 함께 실시하고, 문장웹진 내 '글틴스페셜'을 운영하였다. 한국일보사 및 전국 국어교사모임과 함께 '문장 청소년문학상'이라는 온라인 기반의 청소년 대상 문학상을 제정,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문학 아카데미(글틴

캠프)와 청소년 창작시 대회(콘테스트)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문학영재와 독자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그림 4-2-1 사이버문학광장 개요도

	사이버문학광장	
시험목표	국민 문학 향유 기회 증진	청소년의 문학 관심 유발
사업내용	1. 인터넷 문예월간지(문장웹진) 정기 발간 2. 찾아가는 문학 서비스(문학집배원) 운영 3. 인터넷 문학 라디오(문장의 소리) 운영 4. 그 밖에 문학행사, 관련 뉴스 소개	1. 온라인 기반의 청소년문학상 (문장청소년문학상) 제정 운영 2.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문학콘텐츠 생산, 서비스 3. 청소년 대상 온/오프 창작교육 실시
핵심사업	문장웹진 / 문학집배원 / 문장의 소리	청소년문학관 '글틴'

그림 4-2-2 사이버문학광장 '문장'

3) 문학관 건립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문화 · 관광자원으로 문학관 건립과 해당 지역출신 문인 기념사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여 왔다. 정부에서는 유명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사업으로 2002년부터 문학관 등 건립 지원을 시작하여 지역 유명 문화예술인의 업적을 기리는 한편 신진 예술인들의 문화창작 활동 무대제공 등을 통한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다. 2002년 4개 시설 33억 원(채동선음악관 9억, 동리목월문학관 12억, 마산문학관 6억, 이효석문학관 6억), 2003년 3개 시설 12억 원(최명희문학관 3억, 이육사문학관 6억, 정지용문학관 3억 원), 2004년 3개 시설 8.7억 원(신동엽문학관 3.7억, 오장환문학관 2.5억, 김정한문학관 2.5억 원), 2005년 5개 시설 14.5억 원(김동명문학관 1.5억, 박인환문학관 2억, 충주문학관 1.5억, 만해문학체험관 4.5억, 눌인문학관 5억 원), 2006년 6개 시설 17.4억 원(강화문학관 1억, 만해문학체험관 4.5억, 박동진판소리기념관 4.2억, 석정문학관 4억, 정채봉기념문학관 1.9억, 박재삼문학관 1.8억 원), 2007년 8개 시설 18.4억 원(강화문학관 0.77억, 박동진판소리기념관 1.61억, 석정문학관 6억, 눌인문학관 2.46억, 정채봉기념문학관 0.87억, 임제백호문학관 2.31억, 김천문학관 3.07억, 박재삼문학관 1.31억 원)을 지원했으며, 2008년 이후 문학관 등 건립 지원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4-2-1 연도별 문학관 건립 지원 실적

(단위: 백만 원)

연 도	단 체	내용	지원액	계
2008	강원	여초서예관	200	4개 시설 2,180
	충남	이문구문학관	1,000	
		이응노화백기념관	480	
	전북	석정문학관	500	
2009	대전	대전문학관	540	8개 시설 4,592
	강원	여초서예관	1,300	
	경남	박경리기념관	650	
		향파이주홍선생기념관	300	
	전남	복합문학관	266	
		시문학파기념관	306	
	충남	이문구문학관	800	
		이응노화백기념관	430	

연 도	단 체	내용	지원액	계
2010	대전	대전문학관	227	10개 시설 5,661
	강원	여초서예관	1,100	
	충남	이문구문학관	529	
		이응노화백기념관	805	
	전남	시문학파기념관	300	
		백호문학관	200	
		땅끝순례문학관	300	
	경남	박경리기념관	430	
		향파이주홍기념관	270	
		기산박헌봉기념시설	1,500	
2011	대구	대구문학관	1,000	7개 시설 3,820
	충남	신동엽문학관	280	
	전남	시문학파문학관	266	
		백호문학관	574	
		땅끝순례문학관	200	
	경북	소천권태호기념관	500	
		권정생어린이문학관	1,000	
2012	대구	대구문학관	1,000	5개 시설 3,196
	전남	땅끝순례문학관	936	
		보길도 고산 윤선도 문학관	200	
	경북	소천 권태호기념관	860	
		권정생 어린이문학관	200	
2013	강원	박수근화백 기념관	300	4개 시설 2,342
	충북	조명희문학관	500	
	전남	땅끝순례문학관	842	
		보길도 고산 윤선도 문학관	700	
2014	충북	조명희문학관	700	4개 시설 1,102
	전북	전북문학관	80	
	전남	땅끝순례문학관	122	
		노계가사문학관	200	
2015	경북	노계가사문학관	300	1개 시설 300
2016	경기	기형도 문학관	1,000	3개 시설 2,146
	전북	가람시조문학관	766	
	경북	노계가사문학관	380	

연 도	단 체	내용	지원액	계
2017	전북	남원고전소설문학관	400	4개 시설 2,407
	충북	김득신문학관	1,200	
	경기	기형도문학관 건립	41	
	전북	가람시조문학관 건립	766	
2018	경북	향사박귀희명창기념관	840	4개 시설 1,740
	충남	신동엽 시인의 길 조성	100	
	전북	남천 송수남 기념시설	200	
	충북	김득신문학관	600	

※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 사전행정절차 이행 중('17~20)으로 문학진흥법 제정, 부지선정, 건립위원회 운영, 건립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

3. 주요 기관

1) 한국문학번역원

(1) 조직현황

한국문학번역원은 정부의 한국문학 해외소개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국문학번역금고(1996년 5월 설립)와 문예진흥원의 한국문학해외소개사업 업무를 승계하여 2001년 3월에 출범하였다. 2005년도에는 번역을 통해 한국의 문학과 문화를 세계와 공유하고자 하는 정부의 뜻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설립 당시 민법에 근거했던 기구의 법적근거를 「문예진흥법」으로 전환(「문예진흥법」 제38조)하였다. 2016년 8월에는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제정된 「문학진흥법」으로 한국문학번역원의 소관법이 변경되었다. 「문학진흥법」의 제정과 기관 소관법의 이동은 당해법률의 목적(문학진흥)과 기관 설립목적(한국문학 발전 및 세계화)이 비로소 일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관의 설립목적이 강화되고 한국문학 진흥에 대한 기관의 역할이 강화된 중요한 계기라 할 것이다.

「문학진흥법」이 시행되면서 2018년도에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의 외부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한국문학 세계화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세계문학의 다양성과 호혜적으로 상호 교류하기 위해 기관의 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문학의 발전과 세계화'라는 미션 하에, 2023년까지 달성할 기관의 새 비전을 '한국문학 해외교류 · 해외홍보 총괄 본부'로 정했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조직은 1원장 4본부 9팀 2개 부속기관 5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기획본부 아래 정책기획팀, 경영관리팀, 전산관리팀, 해외사업본부 아래 해외사업 1팀, 해외사업 2팀, 문학진흥본부 아래 문학기반팀, 문학향유팀, 번역교육본부 아래 국내교육팀, 해외교육팀이 있으며 부속기관으로는 한국문학번역전문도서관, 번역아카데미를 두고 있다.

2019년도 총 예산은 102억 8천 2백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01억 5천 6백만 원과 기본재산 이자수입, 임대수익 및 임의보유금 등을 합친 자체수입 2억 9천 2백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사업비 72억 4천 3백만 원과 경상경비 32억 5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2-3 한국문학번역원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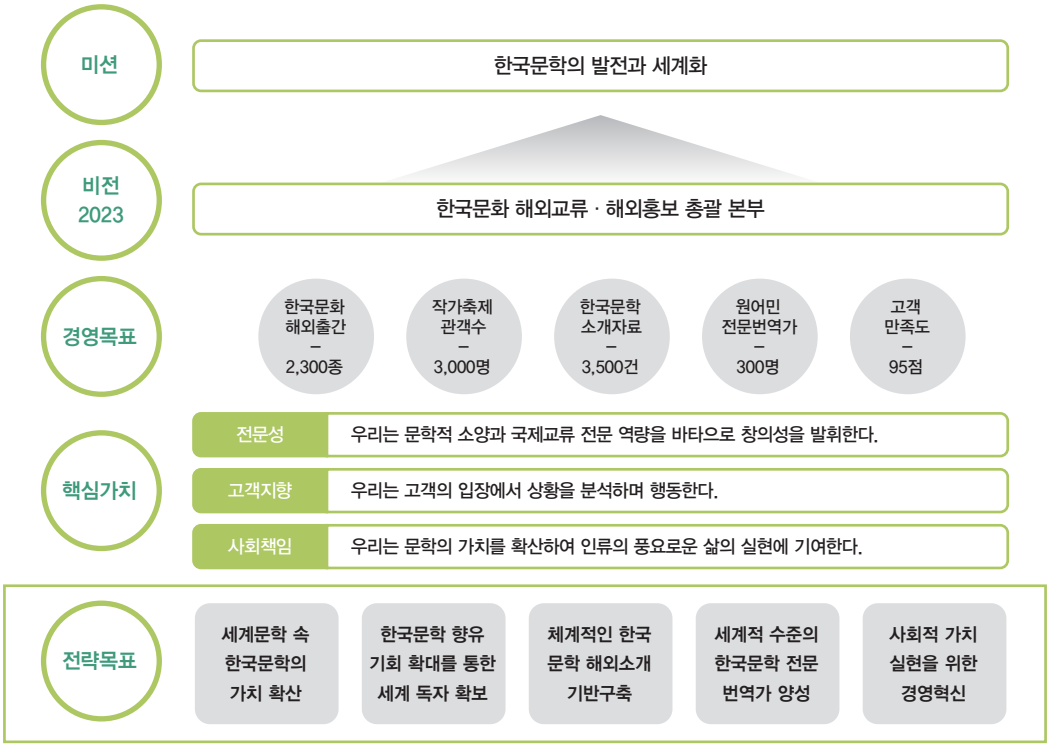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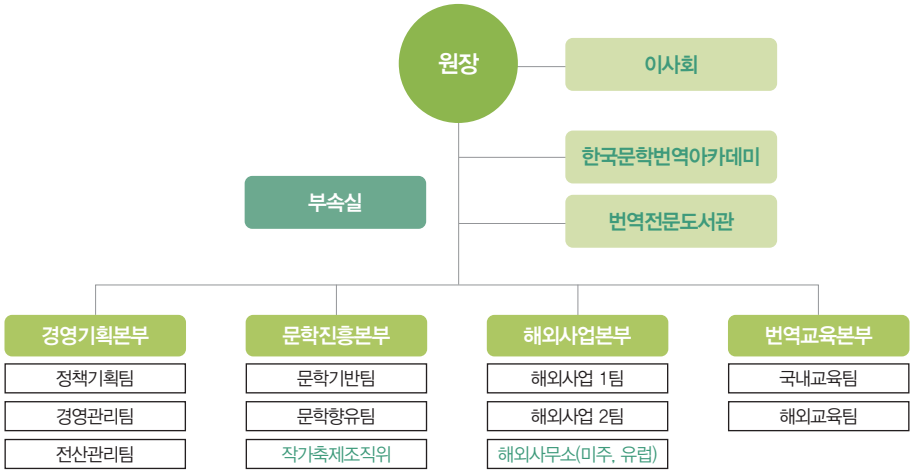


그림 4-2-4 한국문학번역원 조직도



※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12길 32(삼성동)

※ 자료: 한국문학번역원(www.ltikorea.or.kr)

(2) 주요성과

가. 한국문학 번역 · 출판지원 사업

번역 · 출판 지원 사업은 다양한 한국문학이 우수한 번역을 거쳐 재탄생 할 수 있도록 번역을 지원하고, 이를 해외 유수 출판사를 통해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국문학 세계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는 한국문학 저작권을 선구매한 해외 출판사에 번역 · 출판을 동시에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주요 언어권부터 소수언어권까지 유력 출판사를 통해 한국문학이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 프랑스 로베르 라퐁 출판사를 통해, 편혜영 작가의 『홀』이 프랑스 빠요 리바쥬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으며, 김영하 작가의 『살인자의 기억법』은 스페인 플라네타 출판그룹을 통해 출간되었다. 또 황석영 작가의 『낯익은 세상』은 터키 도안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문학 번역 · 출판 지원의 노력으로 해외 문학계에서 한국문학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 해외 문학상 수상(최종 노미네이트 포함), 판매량 증가 등의 성과도 달성하였다. 대표적으로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은 아마존 재팬 아시아 문학부분에서 판매 1위를 기록했고, 김혜순 시인의 『죽음의 자서전』은 캐나다 그리핀 시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한국문학의 안정적 출간을 위해 미국, 독일, 일본 등 유수출판사와 한국문학 선집 기획 번역 · 출간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도에는 영어, 독일어, 일본어 3개의 언어권에서 5개의 출판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아직까지 한국문학 소개가 부족한 동남아 지역 등의 아시아국가에서 한국문학선집 번역출판을 기획하여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아랍어, 벵골어 6개 언어권 11권의 선집 출간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 알쿠툽칸, 인도네시아 그라메디아, 그리스 메타이크 미오 등 소수언어권에서 신규 출판사를 섭외하고 출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문학 해외 소개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 4-2-2 한국문학번역원: 연도별 번역지원 현황(2001~2019)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지원 건수	68	38	45	46	57	69	98	41	80	115	105	93	81	108	141	184	146	118	120	1,753

표 4-2-3 한국문학번역원: 연도별 출판지원 현황(2001~2019)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지원 건수	15	34	32	47	72	61	48	45	52	53	54	57	54	110	93	117	127	119	151	1,341

표 4-2-4 한국문학번역원: 장르별 출간지원 현황(2001~2019)

(단위: 건)

장르		연도																			총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현대	소설	6	25	17	20	34	32	21	24	25	26	30	35	41	65	51	74	71	61	104	762
	시	5	3	8	16	21	16	9	8	8	9	10	12	4	13	16	16	21	20	21	236
	기타	0	0	0	4	2	1	6	0	0	4	1	0	0	0	2	2	4	9	4	39
고전		4	5	4	6	7	5	7	6	16	10	6	4	3	7	5	3	11	6	7	122
아동		0	0	0	0	1	0	1	1	0	0	1	3	2	11	3	5	5	13	2	48
인문 · 사회		0	1	3	1	7	7	4	6	3	4	6	3	4	14	16	17	15	10	13	134
계		15	34	32	47	72	61	48	45	52	53	54	57	54	110	93	117	127	119	151	1,341

2019년에는 번역지원 공모사업(샘플번역지원), 해외출판사 번역출판 지원사업, 기획번역사업 등을 통해 총 21개 언어권 120건의 신규번역을 지원했다. 또한 출판지원 사업을 통해 총 27개 언어권 151종의 도서가 해외 각지에서 출간되었다. 연도별 출간지원 현황을 볼 때, 지난 2013년까지 매년 50~60건 정도가 출간되었던 것에 비해 2014년부터 100여 건 가까이로 출간종수가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2014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해외출판사 번역출판 지원사업(한국문학 작품의 저작권을 구매한 해외출판사에 대해 번역과 출판지원금 일시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해외 자생적 한국문학 수요가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국제교류 사업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다양한 문학적 전통이 호혜적으로 상호 교류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문학 위상 제고를 위해 국내외 교류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19년에는 지역별, 대상별 특성에 맞춘 국제교류를 추진하였다. 한-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브라질 수교 60주년 기념 및 스웨덴 예테보리 국제도서전 주빈국 선정 등을 계기로 집약적 문학행사를 추진했고, 아일랜드 더블린 문학축제 등 세계적 문학축제와 협업하여 한국문학 작가와 세계 작가들과의 교류와 해외에서의 한국문학 홍보를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별 다각화를 위해 이집트 탄타 문학축제, 싱가포르 문학축제, 카이로 도서전 참가 및 문학행사 개최 등 신규 소수언어권 교류행사를 발굴하고, 해외교류 공모사업 지원제도를 재도입하여 현지 기관이 기획 · 운영하는 교류행사를 지원함으로써 현지 수용성을 제고하였다.

국내 개최 문학교류 행사도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독자의 한국문학 향유 기회를 증대하였다. 2019년 서울국제작가축제는 서울문화재단 및 서울디자인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행사장(서울 DDP) 및 유관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한편, 국내 출판사 · 대학 · 독립서점 등 기획 행사를 병행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다. 퓰리처 상 수상자 등 인지도 높은 국내외 작가 31인을 초청하여 24개의 공식행사 프로그램을 개최한

결과, 관련기사 137건 보도 및 참여관객 1,472명, SNS 팔로워 수 전년 대비 246%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 밖에도 2017년부터 진행한 교차언어 낭독회 역:시(譯:詩) 행사를 2019년부터 크게 확대하여 서울 및 지방에서 총 7회 개최, 한국 시인과 번역가가 만나 작품 원문과 외국어 번역본을 교차 낭독하여 국내 독자들에게 색다른 문학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림 4-2-5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 교류행사

해외 교류행사

이집트 카이로문학축제(2019. 2.)

중국 북경국제도서전 한국관 문학행사(2019. 8.)

한-스웨덴 수교 60주년 기념 스톡홀름대 문학행사(2019. 9.)

일본 K-BOOK FESTIVAL 한국문학 행사(2019. 11.)

국내 교류행사

서울국제작가축제(2019. 10.)

교차언어 낭독회 역:시(譯:詩)

다. 해외홍보 사업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양한 한국문학 작가 및 작품을 해외에 소개하여 해외 독자를 확대하기 위한 해외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해외독자대상 독후감대회를 개최하면서 멕시코 누에보레온 자치대학,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 인도네시아 교육대학 등 신규 지역을 포함하여 총 18개국에서 23건의 독후감대회를 개최하였고, 총 1,560여명이 독후감대회에 참가하였다.

표 4-2-5 한국문학번역원: '해외독자대상 독후감대회'(2019)

국가	현지 주관기관	시행 시기	대상작품	
			작가	작품명
미국 (서부)	버클리대학교 한국어과정	2019. 2. ~ 2019. 4.	이언호	꽈리열매 세탁공장
미국 (동부)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2019. 3. ~ 2019. 10.	배수아	서울의 낮은 언덕들
미국 (중부)	세종문화회	2018. 9. ~ 2019. 5.	편혜영 이문열	토끼의 묘 아우와의 만남
미국 (중부)	인디애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6. ~ 2019. 11.	한강	채식주의자
인도	자와할랄 네루대학교 한국어학과	2019. 4. ~ 2019. 9.	김사과	미나
프랑스	주불한국문화원 세르쥬 사프랑 출판사	2019. 4. ~ 2019. 12.	황석영	개밥바라기별
스페인	말라가대학교	2019. 4. ~ 2019. 11.	공지영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2019. 9. ~ 2019. 12.	정이현	달콤한 나의 도시
오스트리아	빈대학교	2019. 4. ~ 2019. 11.	박형서 정유정 임철우	새벽의 나나 종의 기원 등대
이탈리아	시에나대학교	2019. 3. ~ 2019. 10.	황석영	바리데기
브라질 (상파울루)	상파울루대학교	2019. 9. ~ 2019. 11.	한용운 외	한국 현대시선
브라질 (브라질리아)	브라질문인협회 (ANE)	2019. 9. ~ 2019. 11.	강병융	알루미늄 오이
멕시코	누에보레온자치대학교 아시아학센터	2019. 8. ~ 2019. 11.	최은영 김경욱	쇼코의 미소 위험한 독서
중국 (북경)	중앙민족대학교	2019. 9. ~ 2019. 12.	김애란	바깥은 여름
중국 (사천성)	서남민족대학교	2019. 9. ~ 2019. 11.	장강명	한국이 싫어서
대만	대만국립정치대학교	2019. 4. ~ 2019. 9.	최은영	쇼코의 미소

국가	현지 주관기관	시행 시기	대상작품	
			작가	작품명
일본	K-BOOK 진흥회	2019. 6. ~ 2019. 11.	조남주 최은영 이현 권여선 한강 천명관	82년생 김지영 쇼코의 미소 1945, 철원 안녕 주정뱅이 흰 고래
베트남	탕롱대학교	2019. 3. ~ 2019. 10.	김향이	달님은 알지요
터키	에르지예스대학교	2019. 4. ~ 2019. 9.	황석영	낯익은 세상
불가리아	소피아대학교	2019. 9. ~ 2019. 12.	은희경	아내의 상자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	2019. 7. ~ 2019. 10.	신경숙 한강	엄마를 부탁해 채식주의자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2019. 5. ~ 2019. 7.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요르단	요르단대학교	2019. 2. ~ 2019. 6.	한강	채식주의자

또한 한국문학 홍보 수준을 제고하고 현지 문학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해외 한국문화원 인력파견 사업을 신설하여 2019년 2인의 전문 인력을 독일 베를린 및 미국 뉴욕 한국문화원에 파견하였다. 이를 통해 5개 문학기관 담당자 및 현지 문학행사 관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7개 신규 출판사를 섭외하였으며, 거점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 문학교류를 수행하였다.

한편 해외문화홍보원과 협업하여 한국문학 쇼케이스를 개최, 해외 9개국 주요 출판사 관계자 9인 및 국내 작가, 평론가, 번역가 등 한국문학 전문가 33인을 초청하여 심포지엄 · 낭독행사 · 저작권 면담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해외 출판사와 국내 출판사, 작가 간 개별면담을 통해 해외 미출간 한국문학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결과, 2019년 4개국 4개사와 5건의 저작권 계약 또는 번역출판지원 약정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한국문학이 국내외에서 거둔 성과를 공유하고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국내 언론관계자에게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으며, 406건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또한 번역원 국영문 웹사이트 및 기관 SNS, 블로그 등을 활발하게 운영하여 일반 구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그림 4-2-6 한국문학번역원: 국내외 한국문학 홍보 행사

국내외 한국문학 홍보 행사

2019 멕시코 한국문학 독후감대회 시상(2019. 11.)

2019 한국문학 쇼케이스(2019. 6.)

라. 교육연구사업

한국문학번역원은 우수한 한국문학 전문번역가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문학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번역아카데미에서 해외 원어민 예비 번역가를 주요 대상으로 주간에 운영되는 정규과정은 문학번역 실습 강의와 작가와의 공동 번역작업, 한국문학과 문화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강의, 문화체험, 문학기행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직장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야간에 운영하는 특별과정 또한 번역실습과 작가와의 공동 번역작업을 통해 수강생들이 한국문학 전문번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했다. 한편 수료 후 과정인 번역아틀리에에서는 보다 심화한 세미나 방식의 번역작업뿐 아니라 전문번역가들과 함께 교류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수강생의 번역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특히 2019년도에는 수강생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번역아카데미 커리큘럼 및 체재를 개편하였다. 정규과정 수강생들이 한국문학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고전 · 근대문학 번역실습 수업을 추가하고, 강독 및 한국어 수업을 문학수업과 결합하였다. 또한 특별과정을 평생교육원 개념의 반복수강이 가능한 1년제 과정으로 개편하고, 기존 정규과정 2학년 재학생 대상으로 시행하던 번역실무 프로그램(해외출판인 번역 윤문/평가 프로그램)을 전 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까지 확대하여 해외 출판을 위한 실무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번역아카데미 수강생 및 수료생에게 기관에서 주관하는 문학행사 및 유관기관 행사 연계 번역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한 사후관리도 강화하였다. 국내교류 행사인 '역:시' 행사에 수료생 및 수강생 15인이 참여하여 시인과 공동번역작업을 진행하고 낭독회를 가졌으며, 한국문학 쇼케이스 중 해외 출판인 멘토링 프로그램에 수강생이 참여하여 샘플번역 피드백 등을 받아 번역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리고 수료생 사후관리 강화 및 커리큘럼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번역아카데미 운영 10년 성과를 진단하고 효율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한편 국내 교육과정을 통해 흡수하기 어려운 해외 대학 한국학 전공 학생 가운데 잠재적인 한국문학 번역가를 발굴하기 위해 해외 유수대학 연계 번역실습 워크숍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규모를 확대하여 총 12건의 번역실습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이 중 7건이 소수언어권이었다. 또한 한국문화 및 한국어에 대한 현지 관심이 높으나 한국문학 번역 교육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소수언어권 번역가 발굴 ·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단기 번역캠프(베트남어, 아랍어),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연계 번역캠프를 개최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문학 해외소개를 위해 힘써온 전문번역가 3인에 한국문학번역상을 시상하고, 공모를 통해 8개 언어권 8인을 선발하여 한국문학번역신인상을 시상함으로써 한국문학 전문번역을 활성화하고 신진번역가를 발굴하였다. 2019년에는 한국문학번역신인상 대상작품으로 현대문학 뿐 아니라 고전 · 근대 문학을 지정하고 공모언어를 7개에서 8개로 확대(베트남어)하여 보다 다양한 언어권에서 한국문학과 전문번역에 관심 있는 인재 발굴의 토대를 강화하였다.

표 4-2-6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수료생 현황(2008~2019)

(단위: 명)

과정	연도												수료자 총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정규과정	16	20	25	24	19	18	25	16	18	16	17	19	233
단기과정*	20	15	25	–	–	–	–	–	–	–	–	–	60
특별과정	40	44	47	53	55	41	40	55	65	61	71	64	636
심화과정**	–	15	22	26	16	20	17	–	–	–	–	–	116
번역 아틀리에	–	–	15	9	27	22	16	19	20	25	26	22	201
연도별 총계	76	94	134	112	117	101	98	90	103	102	114	105	1,246

* 단기과정의 경우 2010년 이후로 과정 폐지

** 심화과정의 경우는 2015년부터 특별과정이 2년제로 전환되면서 과정 통합

표 4-2-7 한국문학번역원: 해외 한국학대학 번역실습 워크숍 개최 현황(2014~2019)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개최건수	3	5	4	4	7	12

마. 한국문학 해외소개 콘텐츠 제공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체계적 소개 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문학 해외소개 자료 등 콘텐츠를 확충하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인 디지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한국 고전문학 및 현대문학 해외소개자료 420건을 국 · 영문으로 제작하고 영상,

오디오북 디지털 콘텐츠 33편을 제작하여 한국문학 소개 콘텐츠를 양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한국문학 해외소개 계간지 Korean Literature Now(KLN)에 최근 세계 문학계의 동향에 대응하는 한국문학의 양상을 특집주제로 반영하고, 해외 유수필진(작가, 출판인, 연구자 등) 섭외를 통해 한국문학에 대한 양질의 담론을 확산하였다. 온라인으로는 계간 KLN 웹진 및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오프라인 매체가 닿지 못하는 보다 많은 수의 대중에게 계간지에 수록된 한국문학 소개 콘텐츠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또한 한국문학 콘텐츠 3,908건을 신규 수집하여 총 27,159건의 한국문학 콘텐츠(번역 서지정보, 원작정보, 한국문학 작가정보, 전자책, 동영상 등)를 디지털도서관을 통해 제공하면서, 웹서비스 품질 강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자료지원을 통한 홍보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해외 한국학 유관기관 및 재외 한국문화원 40개국 90처와 협정을 체결하고 2019년에는 27처에 788종 834권의 번역서를 기증하였다.

문학교류 활성화를 위해 해외 현지의 자국문학 진흥기관과 협업해 추진하는 문학작품 교차출간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벨라루스 작품이 국내 번역출간 되고 한국 단편소설집 등이 조지아, 인도네시아, 벨라루스에 번역출간 되었으며, 한국고전인 구운몽은 2020년 네덜란드에서 출판될 예정이다.

바. 한민족 이산문학 교류활성화 사업

한국문학번역원은 이산문학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한국문학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이산문학 국내외 교류 행사 및 독후감대회 개최, 해외한인문학 창작현황 소개자료 발간 및 작품 번역출간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해외한인작가 13인 및 국내작가 15인을 초청하여 국내 첫 이산문학 교류행사인 '소통과 평화의 플랫폼' 문학행사를 개최, 작가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직 국내 독자들에게 생소한 해외 한인작가와 작품을 소개하였다. 또한 일본 및 중국에서 교류행사 및 문학좌담회를 개최하여 재일한인문학 및 중국조선족문학과 한국문학과의 교섭방안 및 새로운 문학적 과제를 모색하였다.

해외 한인작가 작품에 대한 공감과 관심도 제고를 위한 일반 독자 대상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대회'는 2019년 제2회부터 성인부/청소년부를 구분하여 접수 및 시상하면서 참가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제2회는 대상작품 23종에 대해 총 446건이 접수되어 이 중 38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제3회는 대상작품 26종에 대해 총 324건의 독후감이 접수되어 이 중 38편의 입상작을 선정하였다.

또한 자체 독자 확보 및 해외 소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한인작가의 작품을 영어 등으로 번역출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10건(재일한인문학 6건, 중국조선족문학 4건)의 작품을 선정하여 저작권계약 및 번역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해외한인문학 창작현황 소개 자료 발간을 위해서 4개 권역별 기획회의(재일한인문학, 중국조선족문학, 미주한인문학, 러시아-중앙아시아 고려인문학)를 운영하였다.

제3절 공연예술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공연예술은 예술가와 무대 전문가 및 관객의 호응을 통해 그 예술성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집단예술에 속하며 다수의 관객과 직접 접촉하는 현장성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장르보다도 일반대중의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며 강력하다.

또한, 공연예술은 1회성, 노동 집약성, 수요의 비탄력성 등의 특성으로 일부 흥행성을 띤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외부의 지원 없이는 독자적인 운영이 어려워 비영리 분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공연 예술은 국민정서함양, 창의력 개발, 문화 향수권 확대, 민족 정체성 확립 및 국가 이미지 개선 등 경제적 가치로 산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공연예술 육성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원 정책도 종래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직접적 지원으로부터 예술단체의 자생력 확보에는 간접 지원방식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각종 규제의 완화, 기부금 세금감면범위 확대, 예술행사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전문 예술법인 지정 및 육성 근거마련, 무대 예술전문 인력 양성, 사랑티켓 지원확대, 대학로 공연장 임대 지원 등 다양한 간접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대중예술을 자생력이 있다는 이유로 방관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만 판단했으나 점차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대중예술이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산업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대중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적 비중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공연예술정책의 기본방향은 예술 '창작'의 관점에서 창조적 예술 활동 여건 확충과 예술 '소비 및 유통'의 관점에서 예술의 유통 · 소비 구조 선진화를 추진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예술 창작과 소비 · 유통의 양 축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창조적 예술 활동 여건 확충을 위해서는 국립예술단체의 체질 개선, 지역 공연예술 활동에 대한 체계화된 지원 강화 및 공연예술 창작 활동 여건을 제공하였고, 예술의 유통 · 소비 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연예술의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 공연예술의 향유 기회 확대, 예술 향유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창조적 예술 활동 여건 확충

(1) 지역 공연예술 활동 지원 강화

문화예술시설 및 공연예술단체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편중됨에 따라 지역 문예회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예술활동 지원 및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연예술 행사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

첫째,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가 협업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을 하였다. 상주단체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 및 예술교육전문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건당 연간 8천만 원~3억 원 내외의 지원금으로 공연장과 상주를 희망하는 공연예술단체를 연결하고 공연장 운영경비(지원금의 20% 이내), 단체 운영경비(지원금의 30% 이내) 및 협력 프로그램 제작경비(지원금의 50% 이상)를 지원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공연예술단체와 문예회관 · 소극장 등 문화시설 간의 인적 · 물적 협력 관계를 조성하여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총 지원예산은 2017년 문예기금과 지방비를 포함하여 125억 9천만 원이다. 주요 추진현황은 2009년에 수도권 시범사업으로서 14개 공연장/27개 단체를 지원하였고, 2010년에 80개 공연장/107개 단체, 2011년에 87개 공연장/109개 단체, 2012년에 133개 공연장/168개 단체를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134개 공연장/174개 단체를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119개 공연장/169개 단체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123개 공연장/167개 단체, 2016년에는 103개 공연장/142개 단체, 2017년에는 100개 공연장/131개 단체, 2018년에는 112개 공연장/148개 단체, 2019년에는 118개 공연장/145개 단체를 지원하였다.

그림 4-3-1 공연장과 상주단체 상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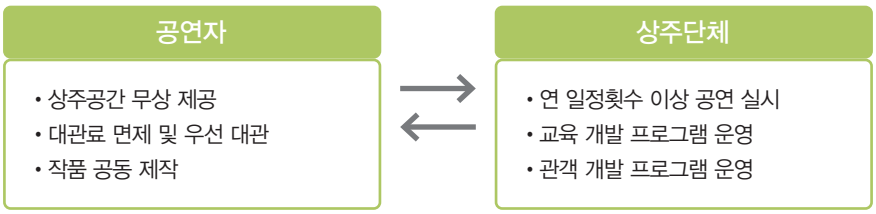


표 4-3-1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 추진 효과

연도	사업효과
공연장	• 우수 레퍼토리 확보, 관객개발 증진, 공연장 가동률 제고 • 예술교육 등 Out-Reach 프로그램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 시즌제 정착(공연장 자기색깔 찾기) 기반 마련
상주단체	• 안정적 단체운영 기반 확보 – 연습 · 행정 공간 등 물적 기반(H/W) 확보 – 홍보 · 마케팅 등 유통 기반(S/W) 활용 • 우수 작품 창작 매진 및 발표 기회 확대
지역주민	• 우수 공연프로그램 향유 기회 증진

둘째, 전국규모 공연예술행사 지원을 강화하였다.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사업을 통해서는 전국 각 지역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축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을 육성하였으며,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연예술의 수준 향상과 일반국민과의 접점 확대에 기여하였다.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사업이 74개 행사 91억 9천 5백만 원,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사업이 58개 행사 76억5천5백만 원을 지원 하는 등 2개 사업 총 132개 행사 168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두 사업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장르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을 지양하고 고른 지원을 통해 공연예술계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대표 공연예술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표 4-3-2 지역대표공연예술제(문예기금)

지역	연번	사업명	장르	지원액 (백만원)
서울	1	2019서울아리랑페스티벌	전통예술	90
	2	제27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연극	145
	3	대학로거리공연축제 'D.FESTA'	연극	85
	4	제40회 서울연극제	연극	180
	5	제40회 서울무용제	무용	165
	6	제22회 크리틱스초이스2019	무용	55
	7	2019SCF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무용	40
	8	MODAFE 2019	무용	335
	9	제33회 한국무용제전	무용	65
	10	2019 K-Ballet World	무용	90
	11	제22회 서울세계무용축제 SIDance	무용	200
	12	2019 세계4대오페라축제	음악	150
	13	제36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음악	90
	14	서울오페라페스티벌 2019	음악	60

지역	연번	사업명	장르	지원액 (백만원)
서울	15	2019 서울국제음악제	음악	80
	16	제7회 서울국제 하모니카페스티벌	음악	40
	17	제8회 그랜드 오페라 축제	음악	40
부산	18	제48회 부산민속예술축제 및 제37회 부산청소년민속예술축제	전통예술	45
	19	제16회 부산국제연극제	연극	160
	20	제15회 부산국제무용제	무용	125
	21	제15회 부산국제합창제	음악	100
	22	제10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음악	90
	23	부산거리예술축제	예술일반	60
대구	24	제13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연극	450
	25	제16회 대구국제호러페스티벌	연극	54
	26	제17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음악	550
인천	27	제23회 2019부평풍물대축제	전통예술	190
대전	28	제10회 대전국제소극장연극축제	연극	50
	29	제6회 보문산 숲속의 열린음악회	음악	45
	30	대전국제음악제	음악	90
	31	대전국제기타페스티벌	음악	45
	32	제8회 대전 인디음악 축전	음악	20
	33	제11회 대전ART마임 페스티벌	예술일반	45
광주	34	제37회 고싸움놀이 축제	전통	65
	35	제15회 광주평화연극제	연극	65
	36	2019 남도국제음악제	음악	50
울산	37	2019 울주오디세이	음악	35
	38	제6회 전국공연장 상주예술단체페스티벌	예술일반	90
경기	39	고양예술호수축제	예술일반	40
	40	제23회 과천축제	예술일반	60
	41	제24회 광주 남한산성문화재	전통예술	40
	42	2019 수원발레축제	무용	75
	43	2019 수원연극축제	연극	100
	44	2019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일반	280
	45	연천DMZ국제음악제	음악	100
	46	의정부음악극축제	연극	171

지역	연번	사업명	장르	지원액 (백만원)
강원	47	2019 강릉단오제	연극	130
	48	2019 대한민국 아리랑 어울림한마당 축전 '평화 아리랑'	음악	65
	49	제31회 춘천인형극제	연극	140
	50	2019 춘천연극제	연극	90
	51	제16회 평창대관령음악제	음악	550
경북	52	2019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예술일반	135
	53	제10회 심산문화축제	예술일반	15
경남	54	2019 김해가야금축제	전통예술	55
	55	기해년 마산만날제	전통예술	70
	56	제19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연극	95
	57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음악	200
	58	마산만 생명축제 새물맞이 아트페스티벌	예술일반	15
충북	59	제52회 영동난계국악축제	전통예술	160
충남	60	제6회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	무용	45
	61	제20회 공주 박동진 판소리 명창, 명고대회	전통예술	70
	62	제7회 예당국제공연예술제	연극	70
	63	제16회 고마나루전통향토연극제	연극	125
	64	천안흥타령춤축제2019	무용	350
전북	65	2019 전주세계소리축제	전통예술	360
	66	제24회 필봉마을굿축제	전통예술	120
	67	제89회 춘향제	전통예술	310
	68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전통예술	140
	69	부안마실축제	예술일반	105
전남	70	제22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전통예술	65
	71	2019 화엄음악제	전통예술	100
	72	2019 여수마칭페스티벌	음악	60
	73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예술일반	280
	74	제19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예술일반	75

표 4-3-3 대한민국공연예술제(문예기금)

연번	지원사업명	지원단체	장르	지원액 (백만원)
1	제9회 서울미래연극제(ST-Future)	서울연극협회	연극	40
2	2019 후용페스티벌 (Hooyong Festival)	후용공연예술센터		30
3	제 28회 신춘문예 단막극전	한국연극연출가협회		30
4	제17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김천국제가족 연극제추진위원회		25
5	세월호 2019	혜화동1번지 7기동인		30
6	제19회 월드 2인극 페스티벌	2인극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30
7	제11회 품앗이공연예술축제	(주)극단민들레		20
8	제23회 전국청소년연극제	(사)한국연극협회		59
9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19	프린지페스티벌		30
10	제16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한국본부		40
11	19회 서울변방연극제	서울변방연극제		20
12	2019 대한민국소극장열전	대한민국 소극장열전		30
13	제29회 2019 전국민족극한마당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20
14	제19회 포항바다국제연극제	사) 포항바다국제 연극제 진흥회		15
15	2019대학로소극장축제	(사)한국소극장협회		20
16	제27회 젊은연극제	젊은연극제집행위원회		15
17	2019대한민국무용대상	(사)한국무용협회	무용	80
18	제 18회 대전 뉴댄스 국제 페스티벌	21세기현대무용연구회		30
19	2019 한국현대춤협회 〈제33회 한국현대춤작가 12인전〉	한국현대춤협회		30
20	제10회 2019 부산국제춤마켓	신은주무용단		25
21	제16회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초청공연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IPAP)		30
22	2019 춘천아트페스티벌	춘천아트페스티벌		17
23	2019신진무용예술가육성프로젝트 (2019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조직위원회		30
24	2019 젊은안무자창작공연	젊은안무자창작공연운영위원회		20
25	2019 보훈댄스페스티벌	보훈무용예술협회		20
26	2019 춤&판 고무신 춤축제	한국춤협회		17

연번	지원사업명	지원단체	장르	지원액 (백만원)
27	제24회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14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음악	90
28	2019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사)한국작곡가협회		70
29	제29회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젊은음악인의 모임		45
30	2019 제38회 대한민국작곡상	(사)한국음악협회		35
31	2019년 제47회 범음악제	범음악제		45
32	ZERO Festival 2019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20
33	2019 화음프로젝트 페스티벌	(사)화음		50
34	2019 바로크 뮤직 페스티벌	대전예술기획		30
35	2019 대한민국합창대제전	한국합창지휘자협회		30
36	제42회 한국합창제	한국합창총연합회		30
37	곤지암 플루트 페스티벌 2019	클래식헤리티지 주식회사		10
38	2019 수성 월드뮤직 페스티벌	아트키키		15
39	2019 국악대학전	사단법인 정가악회	전통예술	40
40	2019 광주예술난장 굿판	(사)전통문화연구회 얼쑤		45
41	제 15회 농촌우수마당극큰잔치	(사)예술공장 두레		18
42	제22회 진주탈춤한마당	진주탈춤한마당제전위원회		45
43	2019년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	(사)동리문화사업회		25
44	제 54주년 동래민속예술축제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30
45	제38회대한민국국악제	(사)한국국악협회		45
46	제7회 의정부국제가야금축제	(사)가야금산조진흥회		20
47	ARKO한국창작음악제	한국창작음악제추진위원회	지정	400
48	대한민국발레축제	대한민국발레축제조직위원회		360
49	대한민국오페라축제	대한민국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		720
50	대한민국연극제	(사)한국연극협회		720
51	전국무용제	(사)한국무용협회		600
52	해비치아트페스티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414
53	한국뮤지컬어워즈	(사)한국뮤지컬협회		400
54	제4회원로연극제	스튜디오 반		410
55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990
56	독도사랑축제	사단법인 라메르에릴		250
57	부산매직페스티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조직위원회		500
58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서울국제문화교류회		400

셋째,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문예회관은 각 지역에서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향수와 창작활동을 활성화하는 거점공간으로서, 2018월 12월까지 전국적으로 254개관의 문예회관이 운영 중이다. 정부에서는 각 지역의 문예회관 확충을 위해 최근 5년간 2015년 160억 원(17개), 2016년 136억 원(20개), 2017년 119억 원(15개), 2018년 144억 원(16개), 2019년 206억 원(17개)을 지원하였다.

또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노후한 시설 및 전문성 결여로 인해 문예회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총 34개 문예회관의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현황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10개 문예회관의 기술정보 구축을 통하여 정확한 공연장 기술정보 공유로 공연품질 향상 및 문화정보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였다. 문예회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문예회관 아카데미를 통하여 종사자 3,861명을 대상으로 정규과정(신규자 과정(경영자, 실무자),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문화예술교육, 전시기획, 무대기계, 무대음향, 무대조명, 하우스매니저)과 찾아가는 서비스 접점 인력 교육 및 공연장 안전 실전훈련교육 등 11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수한 공연 프로그램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공연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지역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과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문예회관에서 시행되는 우수공연 및 기획공연 경비 일부를 지원하였다.

표 4-3-4 지역별 문예회관 운영 현황(2019)

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256	21	10	44	11	11	7	5	5	21	12	18	17	21	27	22	3	1

2004년부터는 복권기금을 확보하여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예회관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였다. 2004년에는 146억 원으로 185개 문예회관에 579건의 프로그램을, 2005년에는 94억 원으로 188개 문예회관에 630건의 프로그램을, 2006년에는 94억 원으로 186개 문예회관에 635건의 프로그램을, 2007년에는 70억 원으로 128개 문예회관에 289건의 프로그램을, 2008년에는 31억 원으로 96개 문예회관에 190건의 프로그램을, 2009년에는 40억 원으로 120개 문예회관에 213건의 프로그램을, 2010년에는 48억 원으로 126개 문예회관에 242건의 프로그램을, 2011년에는 48억 원으로 139개 문예회관에 275건의 프로그램을, 2012년에는 48억 원으로 163개 문예회관에 286건의 프로그램을, 2013년 47억 원으로 150개 문예회관 261건 프로그램을 각각 지원하고, 2014년에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과 통합 후 79억 원으로 351개 문예회관, 597건 프로그램을 2015년에는 318개 문예회관, 480건, 2016년에는 438개 문예회관, 701건, 2017년에는 150억 원으로 479개 문예회관 731건, 2018년에는 150억 원으로 529개 문예회관, 777건, 2019년에는 157.5억원으로 511개 문예회관 738건을 지원하였다.

표 4-3-5 전국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현황(2005~2019)

(단위: 억 원)

연도	지원액	문예회관 수	프로그램 건수
2005	94	188	630
2006	94	186	635
2007	70	128	289
2008	31	96	190
2009	40	120	213
2010	48	126	242
2011	48	139	275
2012	48	163	286
2013	47	150	261
2014	79	351	597
2015	80	318	489
2016	150	438	701
2017	150	479	731
2018	150	529	777
2019	157.5	511	738

(2) 공연예술 창작 활동 여건 제공

예술의 창작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창작 지원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예술계의 수요가 높은 새로운 예술 창작 공간을 운영하였다.

첫째, 2010년 11월에 대학로에 개관한 예술가의 집을 현장 예술인들의 수요를 반영한 창작 지원 공간으로 활용하여 문화예술계의 각종 세미나, 토론 등 담론의 장소로 활용하여 문화예술의 현상과 관련된 활발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국립발레단 · 국립오페라단 · 국립합창단 등의 열악한 연습 환경의 개선을 위해 국립예술단체들이 안정적으로 기량을 연마할 수 있는 국립예술단체의 전용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국립예술단체가 국민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고 국립예술단체 간 교류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연 연습장 운영과 국립예술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위탁운영기관으로서 사단법인 국립예술단체연합회를 설립하여 국립예술단체의 효율적인 공연 지원을 위한 연습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표 4-3-6 국립예술단체 공연 연습장 개요

개요	내용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내
규모	지하1층, 지상 1층(연면적 6,344㎡), 공연 스튜디오 10개(전용 7개, 공용 3개)
입주단체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관리 · 운영	국립예술단체연합회

그림 4-3-2 국립예술단체 공연 연습장

2) 예술의 유통 · 소비구조 선진화 추진

(1) 공연예술 창작 및 유통구조 선진화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자체 우수 레퍼토리 확보 및 공연예술 창작기반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창작산실(舊 창작팩토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연극 · 뮤지컬 · 오페라 · 무용 · 음악 등 기초 공연예술 분야를 창작에서부터 유통까지, 시범공연, 작품 제작, 재공연 등 단계별로 공연제작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전통예술 분야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관객개발과 홍보 측면에서 온오프라인 정보 플랫폼 및 채널을 활용한 통합 관객개발 지원 또한 병행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한 공연예술의 관객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네이버 실황중계를 실시, 2017년부터 네이버의 공연 · 전시판 신설 등 전문 정보채널과의 협력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19년에는 공연예술창작산실 실황생중계를 네이버TV로 총 16편 중계하여 144,783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9년에서 CGV와 공연예술 영상사업화 MOU를 체결하여 창작초연 작품을 극장에서 유료상영하는 아르코라이브 서비스를 개시 하였다.

표 4-3-7 창작산실 추진내역

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연극	30	1,300	33	1,530	23	1,330	33	1,540	40	1,592	26	1,305	29	1,640
뮤지컬	18	700	37	3,130	32	2,680	27	3,986	22	2,285	18	1,639	21	1,953
오페라	12	1,000	7	680	9	900	7	400	8	400	4	285	10	400
무용	38	1300	33	648	39	1350	29	624	39	779	30	827	22	832
음악	–	–	5	400	19	537	22	759	23	861	23	789	23	800
전통예술	–	–	–	–	–	–	8	135	23	487	14	72	9	370
합계	98	4,300	115	6,388	122	6,797	126	7,444	155	6,404	115	4,917	114	5,995

창작과정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7년에 신규 사업인 창작실험활동지원이 신설되어 28개의 개인과 단체를 지원하였다. 창작실험활동지원은 참신한 창작 아이디어의 완성도 높은 무대화를 위한 창작워크숍, 리서치 등 프리프로덕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심의서류 간소화와 장르통합심의 추진 등으로 신진예술가 · 단체의 탈장르, 융합형 창작 실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단순 지원방식을 넘어 2018년부터 매년 창작실험활동 참여 예술가의 활동실적 과정 공유회를 추진하여 현장 네트워킹 및 성과확산을 도모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9년에는 연극과 뮤지컬 장르의 대본공모 사업을 복원하여 공연예술창작산실의 창작 준비지원–신작 초연 발굴 지원– 재공연 지원의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였다.

(2) 지역 공연예술 제작 및 소외계층 공연예술 향유기회 확대

지역 문화예술활동의 거점인 지역 문예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문화소외지역의 공연예술 수준 제고를 위해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 문예회관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운영 인력 전문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의 민간공연예술단체의 공연제작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장 가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지원 사업을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9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약 64억 원을 118개 공연장, 145개 단체에 지원하였다.

더불어 문화향유 기반이 부족한 전국각지의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임대주택, 교정시설, 군부대, 산업단지공단 및 중소기업근로자, 새터민 등 문화소외지역과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일반국민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신나는 예술여행(舊.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을 8,348개 수혜처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지역 간,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표 4-3-8 문화소외지역 지원 사업 및 성과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방방곡곡 문화공감 (일반회계 '14년부터 문예기금)	지역	78	129	147	161	182	198	201
	지원문예회관	78	351	318	438	479	529	511
	수혜자(명)	61,103	412,733	527,805	654,982	716,318	722,453	700,690
	예산액(백만 원)	2,883	7,983	8,000	15,000	15,000	15,000	15,750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문예기금)	지역	124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통합					
	지원문예회관	150						
	수혜자(명)	434,104						
	예산액(백만 원)	4,704						
신나는예술여행 (舊.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문예기금)	지역단체(수혜시설)	1,992	1,956	1,919	2,841	4,026	4,883	4,536
	참여공연단체	198	202	527	226	347	502	369
	공연 횟수	2,127	2,001	4,662	3,296	4,773	5,758	8,348
	수혜자(명)	535,065	588,994	2,389,111	753,523	839,475	783,579	988,311
	예산액(백만 원)	9,530	10,000	30,000	20,000	21,119	21,020	25,289
사랑티켓 (문예기금)	프로그램 수(개)	2,615	2,531	1,538	1,212	사업 폐지		
	참여단체 수(개)	743	489	357	258			
	수혜자(명)	445,496	274,511	263,100	263,805			
	예산액(백만 원)	1,956	1,251	1,278	1,119			
합계	지원지역(누적)	2,194	2,085	2,066	3,002	4,208	5,081	4,737
	수혜자	1,475,768	1,276,238	3,180,016	1,672,310	1,555,793	1,506,032	1,689,001
	예산액(백만 원)	19,073	19,234	39,278	36,119	36,119	36,020	41,039

*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은 추경사업 포함한 내역임

(3) 공연예술 창작기반 강화

2008년부터 예술정책 4대 방향 중 '공연예술 인큐베이팅 제도 도입'에 따라 '공연예술창작산실(舊 창작팩토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연극 및 뮤지컬, 오페라,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 등 기초 공연예술 분야에 대해 창작부터 유통까지 공연 제작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분야별 대표 공연 레퍼토리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경쟁을 통한 단계별 제작지원(기획 → 쇼케이스 → 본공연)으로 우수한 신작을 발굴하는 '올해의 신작'과 우수한 창작 공연이 한국을 대표하는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도록 재공연에 대한 제작비를 지원하는 '올해의 레퍼토리'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신설된 '창작실험활동' 사업을 통해 제작지원 전 단계로서 과정지원을 강화하였다.

표 4-3-9 공연예술 창작기반 지원현황

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작품수	지원액
연극	30	1,300	33	1,530	23	1,330	33	1,540	40	1,592	26	1,305	29	1,640
뮤지컬	18	700	37	3,130	32	2,680	27	3,986	22	2,285	18	1,639	21	1,953
오페라	12	1,000	7	680	9	900	7	400	8	400	4	285	10	400
발레	12	700	9	261	9	375	6	168	4	110	–	–	–	–
한국무용	13	300	–	–	–	–	–	–	–	–	–	–	–	–
현대무용	13	300	–	–	–	–	–	–	–	–	–	–	–	–
무용			24	387	30	975	23	456	35	669	30	827	22	832
음악	–	–	5	400	19	537	22	759	23	861	23	789	23	800
전통예술	–	–	–	–	–	–	8	135	23	487	14	72	9	370
합계	98	4,300	115	6,388	122	6,797	126	7,444	155	6,404	115	4,917	114	5,995

연극분야는 우수작품 발굴 및 레퍼토리화 지원을 통해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작품의 발전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연되지 않은 작품에 대한 시범공연 지원공모, 시범공연 심사 통과작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작품 제작 지원, 기공연작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작품 재공연을 지원하여 2019년까지 시범공연 117편, 우수작품 제작 66편, 우수작품 재공연 52편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9년부터 대본공모 사업을 복원하여 10편을 지원하였다.

뮤지컬분야는 창작산실(뮤지컬) 지원사업과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 사업으로 이원화되어 개별 주관처(명동예술극장, 한국뮤지컬협회)에서 운영되었던 것을 2014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수레퍼토리를 발굴, 유통하는 것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창작뮤지컬 콘텐츠 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연되지 않은 작품에 대한 시범공연지원공모, 시범공연 심사 통과작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작품 제작지원, 기공연작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작품 재공연을 지원한다. 2019년도까지 시범공연지원 103개 작품, 우수공연지원 51개 작품, 우수재공연지원 48개 작품이다. 또한 2019년부터 대본공모 사업 복원하여 5편을 지원하였다.

무용분야 또한 창작활성화를 위하여 창작산실사업이 추진되었는데, 2011년 발레분야를 시작으로 2013년 한국무용과 현대무용이 별개로 추진됐다. 우선 발레분야는 2011년도 대본 1개, 시범공연 6개, 우수작품 제작공연 4개를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도 시범공연 6개, 우수작품 제작공연 4개, 2013년에는 시범공연 6편, 우수작품 제작공연 4편을 지원하였다. 현대무용분야는 시행 첫해인 2013년도에 46편의 응모작품 중 시범공연 8개, 우수작품 제작지원 3개를 선정하였고, 단순한 제작비 지원이 아니라 작품아이디어 단계부터 공연실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제작전문가를 통한 멘토링 및 사후 자생적 유통까지 고려한 공연관계자 쇼케이스를 다수

개최하는 등 전문적 제작 및 유통 지원시스템을 도입했다. 한국무용분야는 2013년 공모를 통해 시범공연 제작을 위한 8개 작품을 선정하였고 이중 심사를 통해 3개의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총 시범공연 8개, 우수작품 제작공연 3개 등 총 3억 원을 지원 하였다. 창무포스트극장(시범공연8개), 아르코예술극장(우수작품3개)에서 공연이 추진되었고, 이중 심사를 통해 1개 작품에 대하여는 2014년 재공연을 추진하였다. 2014년도부터는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이라는 3개의 세부장르를 무용분야로 통합하였다. 2019년도까지 시범공연 102개, 우수작품 제작지원 52개,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40개 작품을 지원하였다.

오페라 분야는 우리 창작오페라를 개발하여 한국오페라의 체질을 강화하고 공연예술 전반의 동반 발전을 위해 2010년 이후 7년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창작오페라 아카데미를 통해 8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시범공연 5편,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3편을 선정하였다. 2016년부터 2년간 연속 지원 사업으로서 1차년도에 작곡가와 극작가를 선정하고 2차년도에는 별도의 공모 없이 기 선정대상에 대해서 실연심의(쇼케이스)를 진행하여 최종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있다. 2019년도까지 1차년도 작곡가와 극작가 선정지원에 17개 작품, 2차년도 시범공연 11개 작품, 우수작품 제작지원 5개 작품을 지원 하였다.

음악 분야 창작산실은 2015년부터 두 개의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작곡가의 창작곡 실연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오케스트라와의 교류 협업을 지원하는 '오작교 프로젝트' 사업이다. 창작곡 발굴과 실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년간 연속 지원한다. 두 번째는 '지속연주지원' 사업으로, 국내 창작곡 발굴과 발표기회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 작곡가의 창작곡 연주(재연)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까지 오작교프로젝트 17개, 지속연주지원 65개 작품을 지원하였다.

전통예술 분야는 2016년 신설되었고, 2019년까지 시범공연 24개, 우수작품 제작지원 12개,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23개 작품을 지원하였다.

제작지원 이전 단계의 과정(준비)지원에 대한 사업 문호 확대를 위하여 2017년도에는 신규 사업인 창작실험활동지원이 신설되었다. 창작실험활동지원은 참신한 창작 아이디어의 프리프로덕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28개, 2018년 26개, 2019년 23개로 총 77개 작품을 지원하면서 신진예술가 · 단체의 탈장르, 융합형. 과정중심의 창작 실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3. 주요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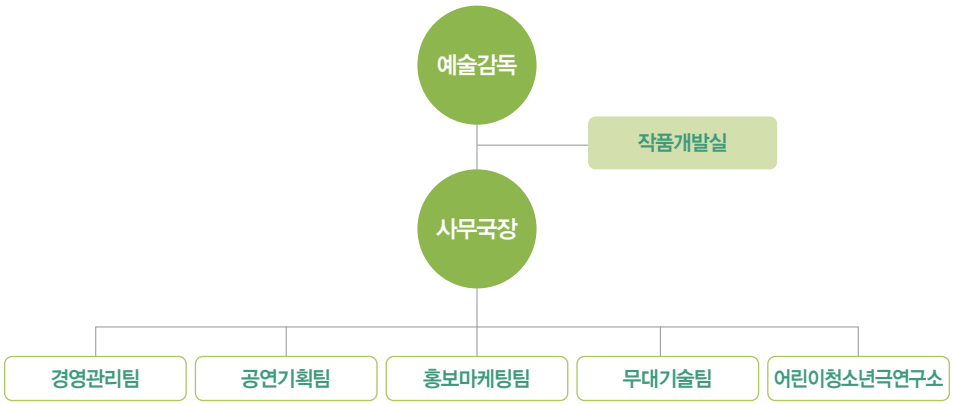
1) 국립극단

(1) 조직현황

국립극단은 1950년 국립극장 전속단체로 설립되어 2010년 6월 독립법인화(재단법인 국립극단), 2015년 4월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과의 기관통합을 거쳐 국내 최대 연극제작단체로서 발돋움하였다. 연극작품의 창작과 공연, 관객개발, 국내외 교류사업, 연극예술을 위한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를 통하여 한국연극의 발전을 선도하고, 많은 국민의 문화 향유와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립극단의 조직은 예술감독 이하 1국 1실 4팀 1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예술감독 1명, 직원 40명, 단원 30명을 포함하여 총 70명이다.

그림 4-3-3 국립극단 조직도



※ 위치: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3
※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ntck.or.kr

그림 4-3-4 국립극단 전경

백성희장민호극장, 소극장 판

명동예술극장

2019년도 총 예산은 121억 8,13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90억 9,100만 원, 자체수입금액은 30억 9,212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5.4%이다. 지출예산은 운영비 49.0%, 사업비 39.6%, 차기이월금 11.4%로 구성되어 있다.

표 4-3-10 국립극단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수입예산		지출예산	
2019	국고보조금	9,091,000	법인운영	5,808,304
	(△보조금 반납)	△1,812	– 인건비	2,995,414
	공연사업수입	1,723,142	– 경상운영비	2,812,890
	기타수입	75,377	예비비	160,983
	전기이월금	1,293,607	사업비	4,795,506
			– 공연사업	3,221,955
			– 작품개발사업	366,727
			–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720,277
			– 교육, 학술사업	138,126
			– 극단홍보마케팅	348,421
			민간이전	28,187
			차기이월금	1,388,334
	합 계	12,181,314	합 계	12,181,314

(2) 주요성과

2019년 국립극단은 이성열 예술감독 취임('17. 11. 10.) 2년차를 맞으며 우리연극의 정체성을 지키는 동시에 동시대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국내외 고전의 재발견과 함께 창작극 개발에 힘썼다. 셰익스피어, 몰리에르, 브레히트와 같은 세계적 거장의 고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무대와 함께 동시대의 사회적 고민을 담은 국내외 신작에서부터 국립극단 레퍼토리 공연과 어린이청소년극까지 제작공연 14편과 국내외 초청공연 2편을 제작하였으며, 작품개발사업으로는 우리연극의 원형을 동시대 연극문법으로 재해석하는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에서부터 온라인 상시투고제도 '희곡우체통'에서 발굴한 창작희곡과 연출가들의 창작과정을 공유하는 '연출의 판–작업진행 중',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연 및 창작자 발굴을 위한 '청소년 창작벨트'와 '한여름밤의 작은 극장'을 통해 30편에 달하는 낭독회와 쇼케이스를 시도했다.

또한 국립극단이 보유한 3개 극장인 명동예술극장, 백성희장민호극장, 소극장 판의 공연장별 특성을 강화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자체제작공연 14작품, 기획초청 1작품, 해외공연 1편, 해외초청 1편, 지방공연 2작품의 공연을 선보이며 이를 통해 평균객석점유율 86.9%를 달성하며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였다.

가. 공연사업

① 레퍼토리공연 – 〈나는 살인자입니다〉, 〈알리바이 연대기〉

2017년 젊은연출가전에 초청된 연출가 전인철이 소극장 판에서 연출한 〈나는 살인자입니다〉는 일본 SF작가인 호시 신이치의 초단편소설(쇼트쇼트스토리)을 옴니버스로 엮어 세계 최초로 무대화한 공연으로 초연 당시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받으며 동아연극상 연출상을 수상했다. 2019년 재연은 백성희장민호극장으로 공연장을 옮기고 에피소드의 유기적 연결을 꾀하여 관객들의 기대에 충족하는 공연으로 거듭났을 뿐 아니라 원작자의 나라인 일본 도쿄예술극장에 초청되어 호평을 받았다.

역시 2013년 젊은연출가전으로 소극장판에서 첫 선을 보인 창작극 〈알리바이 연대기〉는 작가이자 연출인 김재엽의 개인사를 파란 많은 한국현대사와 교차로 풀어 유수의 연극상을 수상하는 등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으로 2019년 명동예술극장으로 장소를 옮겨 세대를 아우르는 레퍼토리임을 검증받았다.

② 창작신작 – 〈고독한 목욕〉, 〈뼈의 기행〉

이성열 예술감독 취임 후 새롭게 시작한 희곡공모사업인 '희곡우체통'의 첫 발굴 작품으로 안정민 작 〈고독한 목욕〉을 서지혜 연출로 무대화하였다. '인혁당사건'이라는 현대사의 굴곡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부조리한 사회가 구성원에게 끼치는 영향을 조명한 작품으로 극적 효과를 극대화한 연출기법이 큰 호평을 받았다.

중견작가 백하룡의 신작 〈뼈의 기행〉(최진아 연출)은 이역만리에서 돌아가신 부모의 유골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통해 1940년대 해방 직후 만주에서 2000년대 연변까지 급변해왔던 우리의 사회사를 짚어볼 수 있는 작품이다. 아울러 세대 간의 갈등과 중국 연변 동포들에 대한 한국인의 모순된 시각을 거울처럼 보여주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③ 세계명작 – 〈자기 앞의 생〉, 〈갈릴레이의 생애〉, 〈당통의 죽음〉

세계 근현대 명작의 현대적 재해석을 추구하는 시리즈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프랑스의 작가 로맹 가리의 공쿠르상 수상작 〈자기 앞의 생〉(박혜선 연출)과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희곡 〈갈릴레이의 생애〉를 무대화하였다. 소설 〈자기 앞의 생〉은 주인공 '모모'의 입을 통해 사회적 장벽을 넘어서는 '사랑'을 설파한 작품으로 '모모'를 사랑으로 감싸는 '로자' 역할에 양희경, 이수미를 더블캐스팅으로 내세워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국립극단이 창단 이래 처음으로 선택한 브레히트의 희곡 〈갈릴레이의 생애〉는 진실과 현세의 장벽 사이에서 고뇌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이성열 예술감독이 음악극으로 연출하여 유쾌한 선율 위에 담아냈다. 과학에 관심 있는 대중들이 극장을 찾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④ 〈스카팽〉, 〈한여름 밤의 꿈〉, 〈당통의 죽음〉

2019년은 고전극작가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셰익스피어와 몰리에르를 모두 무대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 몰리에르의 〈스카팽〉(임도완 연출)은 코메디아 델라르테 기법으로 희극의 정수를 보여주었으며,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문삼화 연출)은 겨울무대에 시즌단원들이 대거 출연하여 관객들에게 즐거운 연말을 선사하였다.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 시리즈로 기획된 〈빙화〉는 일제 시대의 '국민연극' 참여작으로 당시 친일행적에서 결백할 수 없었던 극작가의 작품을 통해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근현대극 자문위원회에서 추천된 작품이었으나 급작스러운 한일관계 및 국민정서 악화로 취소되어 〈당통의 죽음〉(게오르크 뷔히너 작, 이수인 연출)으로 대체되었으며 격동의 혁명기에 입장을 달리한 두 영웅의 삶을 대조해 보여주며 '옳고 그름'의 아이러니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렸다.

⑤ 해외신작 – 〈콘센트–동의〉

세계 연극의 흐름을 소개하고 우수 희곡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1~2편의 해외 최신작품들을 제작해 오는데 2019년에는 가족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엮어내는 니나 레인의 〈콘센트–동의〉를 강량원의 연출로 올렸다. 신세대 커플들의 적나라한 삶을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성폭력을 포함한 권력관계를 다루면서 다양한 시사점을 던졌다.

⑥ 국립극단 청소년극 – 〈영지〉, 〈죽고 싶지 않아〉, 〈자전거도둑헬멧을쓴소년〉

〈영지〉 (김미란 연출)는 10대 초반 청소년의 정체성을 담은 첫 번째 청소년극으로 10대 초반에 대한 새로운 연극적 및 사회적 인식에 도전했다. 기존의 서사 중심의 틀을 깨는 청소년극을 시도하며 한 편의 시 같은 구성과 재기발랄한 상상력으로 관객을 매료시켰으며, 〈죽고 싶지 않아〉는 지난 '16년 초연 이후 '18년 앵콜 공연까지 국립극단 청소년극 레퍼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은 댄스시어터로서 2019년, 그간의 여정을 정리하는 마지막 축제의 무대를 마련했다. 2019년은 제목과는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위한 춤의 의식과 드레스코드를 준비해 '죽고 싶기만 한 세상엔 안녕을 고하라'라는 주제로 공연의 시작부터 끝까지 관객들과 함께 공연을 만들어나갔다. 울주 공연을 시작으로 천안, 서울 공연을 거쳐 성남 공연을 끝으로 4년이라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자전거도둑헬멧을쓴소년〉(윤한솔 연출) 은 1979년 발표된 박완서 작가의 단편소설 〈자전거도둑〉을 원작 모티프로 하여 재창작됐다. 10대들이 마주한 현실 사회를 치열하게 그려내며, 청소년들의 질주하는 고민과 엉켜버린 감정을 적나라하게 담아내었다.

⑦ 기획초청공연 – 〈고도를 기다리며〉, 〈인테리어즈〉

민간극단의 우수공연을 초청하여 보다 많은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기획초청공연으로 극단 산울림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초청하였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초연 50주년 기념을 맞이하는 우리 연극계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역대 출연배우들이 더블캐스팅으로 열연하여 '역시'라는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해외초청작인 스코틀랜드 극단 배니싱 포인트의 〈인테리어즈〉는 노벨상 수상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희곡에서 영감을 받아 훔쳐보기 기법을 통해 일상을 들여다보는 작품으로 한국 관객들에게 새로운 관극의 체험을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표 4-3-11 국립극단 공연사업 실적

분야	2018년				2019년			
	작품수	공연 횟수	관람객수 (명)	객석점유율 (%)	작품수	공연 횟수	관람객수 (명)	객석점유율 (%)
자체제작공연 (청소년극 포함)	15	300	62,897	83.2	14	273	56,147	85.7
기획초청공연	4	53	10,295	91.6	1	22	7,515	94.1
국제교류	2	14	2,420	93.8	2	9	1,766	90.2
지방공연	3	12	5,149	79.6	2	9	4,697	90.0
계	24	379	80,761	84.2	19	313	70,125	86.9

그림 4-3-5 국립극단 공연

자기앞의 생

고독한 목욕

스카팽

청소년극 – 영지

나. 작품개발 · 학술 · 출판 · 교육

국립극단은 지난 역사를 정리하고 미래를 기획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작품개발실을 운영하고 있다. 창작극 개발을 포함한 창작 콘텐츠의 연구와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기획팀과 어린이청소년연구소과 더불어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① 작품개발 – [희곡우체통], [연출의 판–작업진행중],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

국내 우수 창작 희곡을 찾기 위한 온라인 상시투고제도 [희곡우체통]은 2019년 접수된 총 164편의 희곡 중 8편을 낭독회로 소개하였고 그 중 〈사랑의 변주곡〉(작 유혜율)이 2020 희곡우체통 극작가전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새로운 연출 미학을 시도하는 [연출의 판–작업진행중]은 '노동'을 연간 주제로 선정하고 판 예술감독 윤한솔, 드라마투르그 이경미와 함께 김민경, 백석현, 윤혜진, 쯔카구치 토모 4명의 연출가가 다양한 양식의 창작실험극 쇼케이스를 선보였다. 우리 연극의 맥을 잇는 창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은 날로 탈관습화 되어가는 현대연극의 경향 속에서 한국연극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기획으로 2019년에는 공연창작집단 뛰다의 연출가 배요섭과 창작집단 희비쌍곡선의 연출가 임영욱이 작품개발 쇼케이스를 선보였다.

② 학술 · 출판 · 교육

학술 부문에서는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문별 전문가와 학자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구성, 쇼케이스 공연과 연계한 '이야기마당'이라는 제목의 좌담회 내용을 자료집으로 엮어 출판하였다. 이 밖에도 국립극단 시즌단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열었고, 1950년 창단 이래 공연된 400편에 달하는 작품 정보와 관련 인물, 기사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1차 개발을 완료 하였다. 나아가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국립극단이 모아온 역사 기록물들이 공개 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며 2020년 국립극단 7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8년부터 준비해온『국립극단 70년사』발간을 앞두고 다양한 연극인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해 국립극단이 나가가야 할 미래를 위한 제언을 공유하였다.

다. 어린이청소년극 연구 · 개발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는 '청소년극 창작벨트', '청소년17인', '청소년예술가탐색전', '작은극장' 등 미래세대와 만나는 연극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술 연구 사업을 통해 어린이청소년극의 연극적 위상과 다양한 가치를 공유 및 확산하고 있다.

〈한여름밤의 작은극장〉, 〈우리동네 작은극장〉 등을 통해 일상과 지역에서 어린이청소년극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희곡 작가 발굴 사업인 〈청소년 창작벨트〉를 통해 3명의 작가와 청소년들이 함께 청소년극을 창작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청소년17인'과 '협력학교'를 운영하여 공연과 연계한 워크숍, 리서치 등의 예술교육활동으로 청소년과 창작자의 소통을 확대함과 동시에 3세 이하 아기 관객을 위한 〈영유아극 창작과정 속의 실험과 도전〉과 청소년과의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 참여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전을 위한 극장/극단의 안전 지침 및 규정에 관한 기초연구2〉 등의 연구도 진행했다.

표 4-3-12 국립극단 작품개발 · 교육사업 실적

분야	2019년			사업내역
	프로그램 수	횟수	참여자	
연극저변확대 프로그램	2	12	191	• 일반인대상 연극저변확대 학술 · 교육프로그램 – '백스테이지 투어', '청소년 17인'
공연연계 프로그램	8	37	2,181	• 작품과 연계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예술가와의 대화', '이야기마당', '영유아극' 등
연극인교육 프로그램	2	18	53	• 연극인 창작역량 강화 지원 – '마스터클래스',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판소리워크숍'
작품개발	7	90	7,583	• 창작자원 개발사업 –'연출의 판 쇼케이스', '희곡우체통', '청소년극 창작벨트', '한여름밤의 작은극장',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 '심포지엄'등
계	19	157	10,008	

그림 4-3-6 국립극단 작품개발 · 교육사업

연출의 판–작업진행중 쇼케이스

희곡우체통 낭독회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 〈다.다른 길목에서〉

한여름밤의 작은극장

2) 국립발레단

(1) 조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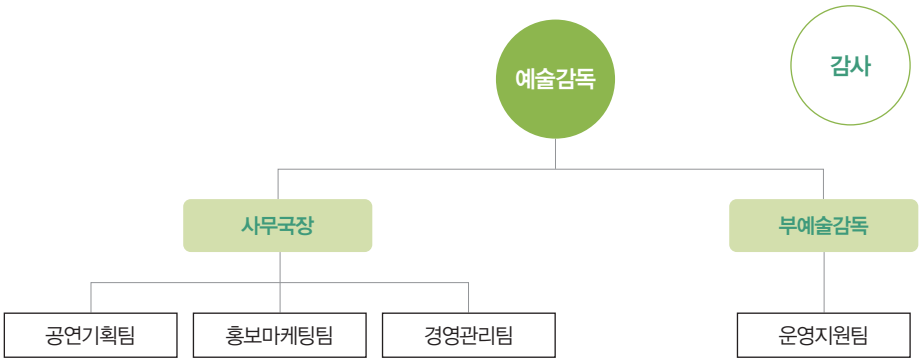
대한민국 발레를 대표하는 국립발레단은 1962년에 창단된 최초의 직업 발레단으로 국내 최고의 무용수들과 함께 세계 유명 작품을 레퍼토리로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막 작품으로는 볼쇼이발레단의 '살아있는 전설' 유리 그리고로비치가 안무한 〈호두까기인형〉, 〈백조의 호수〉, 〈스파르타쿠스〉, 〈라 바야데르〉와 파리오페라발레단 전 부예술감독 파트리스 바르가 안무한 〈지젤〉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우베 숄츠의 〈교향곡 7번〉, 글렌 테틀리의 〈봄의 제전〉, 존 크랭코의 〈말괄량이 길들이기〉, 조지 발란신의 〈세레나데〉, 마르시아 하이데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크리스티안 슈푹의 〈안나 카레니나〉, 레나토 자넬라의 〈마타 하리〉, 이어리 킬리안의 〈Forgotten Land〉를 선보이며 레퍼토리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국립발레단 고유의 창작 레퍼토리로는 〈왕자호동〉, 〈허난설헌-수월경화〉, 〈호이 랑〉이 있고, 2015년부터 시작한 'KNB Movement Series'로 신진 안무가 발굴 및 소품 레퍼토리 개발을 통한 창작 발레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해설이 있는 발레', '찾아가는 발레이야기', '찾아가는 발레교실'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발레의 대중화와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1996년부터는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발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레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 러시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벨기에, 콜롬비아, 캐나다, 홍콩, 아랍에미리트, 체코에서 발레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며 활발한 문화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0년 재단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조직은 공연기획팀, 홍보마케팅팀, 경영관리팀, 운영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 구성원은 예술감독 및 사무국장 외 직원 8명, 단원 7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9년도 총예산은 125억 50백만 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수입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국고보조금 86억 78백만 원의 지원금과 공연사업 수입금 등 자체수입 38억 72백만 원이고, 지출예산은 예술사업 68억 57백만 원, 인건비 38억 43백만 원, 경상사무비 16억 60백만 원, 예비비 1억 90백만 원이다.

그림 4-3-7 국립발레단 조직도



* 위치: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내 오페라하우스 4F
** 자료: 누리집(www.korean-national-ballet.kr)

(2) 주요성과

국립발레단은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인 〈잠자는 숲속의 미녀〉,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인형〉과 낭만발레의 대표작 〈지젤〉을 재공연하였고, 2017년부터 3년간 준비한 창작 발레 〈호이 랑〉을 초연하며 국민의 발레공연 향유 확대와 창작 발레 대중화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단원 안무자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2015년부터 시행한 'KNB Movement Series'는 다섯 번째를 맞이하여 8편의 작품을 선보였고, 체코 출신의 세계적인 안무가 이어리 킬리안의 작품을 체코국립발레단과 함께 9월과 11월에 서울과 프라하에서 공연하며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국립예술단체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호이 랑〉을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세계 초연하였으며, 그 외 〈해설이 있는 발레 갈라〉,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인형〉을 광주, 부산, 강릉, 경주 등의 지역에서 공연하였다.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발레교실〉은 산청, 합천, 인제 등에 소재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에게 발레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표 4-3-13 국립발레단 작품개발 · 교육사업 실적

구분	공연명	일수	횟수	관람객수	객석점유율	공연장
정기 공연	〈잠자는 숲속의 미녀〉	5	6	9,671	90.12%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마타 하리〉	2	2	2,662	83.66%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지젤〉	2	3	4,659	91.84%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백조의 호수〉	5	6	9,198	93.79%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호이 랑〉	5	6	5,081	84.90%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호두까기인형〉	10	14	26,499	95.86%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구분	공연명	일수	횟수	관람객수	객석점유율	공연장
해외 공연	제16회 아부다비 페스티벌 〈지젤〉	1	1	961	99.59%	아부다비 에미리트 팔래스 오디토리움
	체코 프라하 〈Kylián-Bridges of Time〉	3	3	2,917	98.68%	체코 프라하국립극장 히스토리컬 빌딩
공연 활성화 사업	〈Dance into the Music 2〉	3	3	2,121	70.49%	LG아트센터
	〈KNB Movement Series 5〉	2	2	1,106	77.45%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Evening Gala〉	3	3	1,610	75.16%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공익 및 지역순회 공연	〈해설이 있는 발레 갈라〉 〈찾아가는 발레교실〉 〈호이 랑〉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인형〉 외	30	35	21,736	79.24%	경기, 청주, 하동, 인제, 광주, 구미, 천안, 여수, 울산, 강릉, 부산, 세종 외
합 계		71	83	88,221	88.32%	

가. 정기공연

2019년 첫 정기공연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화려한 무대연출과 의상, 다채로운 캐릭터와 그에 맞는 안무로 클래식 발레의 진수를 선보였으며, 극 중 주인공인 마녀 카라보스역을 남성 무용수가 맡아 다른 안무 버전과는 색다를 매력을 더했다. 또한, 2018년 신작이었던 〈마타 하리〉는 초연 때보다 안정된 무용수들의 연기로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였고, 낭만 발레의 대표작 〈지젤〉은 애절한 파드되와 로맨틱 튀튀를 입은 발레리나들의 아름다운 움직임으로 백색 발레의 정수를 보여주며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4년 만에 재공연한 〈백조의 호수〉는 클래식 발레에 대한 관객들의 수요를 입증하듯 높은 판매점유율과 객석점유율을 기록하였다.

3년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초연한 〈호이 랑〉은 《일사유사》를 통해 알려진 효녀 랑의 이야기에 예술적 상상력을 더한 전막 창작 발레로 'KNB Movement Series'를 통해 안무가로서의 재능을 일찍이 드러낸 국립발레단 솔리스트 강효형이 안무를 맡았다. 주인공 랑을 진일보된 여성으로 표현하였고 빠른 전개와 다양한 구성, 박진감 넘치는 군무로 발레의 다양한 모습을 선사하였다.

연말 스테디셀러 〈호두까기인형〉은 12월 25일 마지막 공연을 예술의전당, KBS와 협력하여 KBS 1TV에서 공연 실황을 생중계함과 동시에 문화 소외계층 1,000여 명을 초대해 국민의 문화 향유와 발레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그림 4-3-8 국립발레단 정기공연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이 랑〉

* 자료: 국립발레단(http://www.korean-national-ballet.kr)

나. 해외공연

볼쇼이발레단, 마린스키발레단, 아메리칸발레시어터 등 세계 정상급 발레단을 초청해온 아부다비 페스티벌에서 〈지젤〉을 공연하여 한국 순수예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해외 공연 최초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 정치용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와 공동 초청을 받아 국립예술단체 간 상생하는 협업 사례를 보여주었다.

체코 프라하국립극장에서 진행된 〈Kylián-Bridges of Time〉은 9월 서울에서 진행한 〈Evening Gala〉와 연계된 공연으로 유럽에 기반을 둔 발레단과의 첫 교류 공연을 통해 유럽의 단체 및 아티스트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차후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4-3-9 국립발레단 해외공연

제16회 아부다비페스티벌 〈지젤〉

체코 〈Kylián-Bridges of Time〉

다. 공연활성화사업

2017년 이후 2년 만에 공연한 〈Dance into the Music 2〉는 갈라 공연 구성에 피아니스트 조재혁, 첼리스트 송영훈의 연주와 수석무용수 이영철의 해설로 기존의 공연 형식을 탈피하여 공연

관람의 즐거움을 배가하고자 하였다.

단원 안무자를 육성하고 창작 발레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작한 'KNB Movement Series'는 다섯 번째 시즌을 맞이하여 각 안무가의 개성이 돋보이는 작품 8편을 초연하였다. 또한, 2018년까지 전석 초대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저렴한 가격으로 티켓을 판매하여 노쇼를 방지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Evening Gala〉는 네덜란드댄스시어터를 세계적인 무용단으로 이끌어낸 체코 출신의 안무가 이어리 킬리안의 작품 3편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국립발레단과 체코국립발레단이 함께 공연하였다. 이 공연은 9월 서울에서의 공연 후, 11월 프라하에서도 공연되며 국제 교류 강화 및 한국발레의 세계화에 기여하였다.

라. 공익공연 및 지역순회공연

〈해설이 있는 발레 갈라〉, 〈찾아가는 발레교실〉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공익공연으로 발레를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 또는 지역에 직접 찾아가 발레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해설을 곁들인 공연 및 발레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발레 대중화에 힘을 보태고자 하였다.

수도권 문화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창작 발레 〈호이 랑〉을 서울이 아닌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와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세계 초연하였으며, 전막 발레 〈백조의 호수〉와 〈호두까기인형〉, 강수진 예술감독의 토크콘서트 등을 부산, 강릉, 세종, 대구, 경주, 경기 등에서 진행하였다.

그림 4-3-10 국립발레단 공익공연

〈찾아가는 발레교실〉

3) 국립오페라단

(1) 조직현황

국립오페라단(1962년 창단/2000년 재단법인 독립)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이며,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오페라단으로서 대한민국 오페라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국제적 수준의 오페라를 제작하고 고유 레퍼토리화하여 관객들에게 최고의 오페라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의 문화와 정서를 품은 창작오페라를 개발함과 동시에 오페라 본 고장의 대표적 작품들을 꾸준히 무대화함으로써 오페라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수준 높은 오페라를 제작하여 창조적 예술성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국립오페라단의 조직은 사무국 내 경영관리팀, 공연기획팀, 교육문화팀, 홍보마케팅팀, 무대예술팀의 1국 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임원 1명, 직원 35명을 포함하여 총 36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9년도 총 예산은 130억 3,559만 원 수준이었다. 수입예산은 국립오페라단 운영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81억 2,800만 원, 평창문화올림픽 지원을 위한 특별국고 사업(대규모 오페라 공연 및 창작오페라 개발) 예산이 이월금 포함 19억 759만원, 자체수입 30억원이었고, 지출예산으로는 인건비 13억 8,208만원, 경상운영비 10억 7,101만원, 공연사업비 76억 296만원, 인재개발 5,622만원, 익년도사업 2억 3,406만원, 연수단원사업 2,800만원, 평창문화올림픽 특별국고 사업으로 20억 902만원, 해외문화교류공연 1억 700만원, 기타 5억 4,521만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립오페라단은 2019년에 "모두를 위한 오페라, 국민과 함께하는 국립오페라단"을 비전으로 국내 대표 국립예술단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한 해였다. 연간 총 160회의 크고 작은 오페라 공연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예술기관으로서 오페라를 제작 · 공연하여 우리 문화발전과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였다.

그림 4-3-11 국립오페라단 조직도

* 위치: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 자료: 누리집(www.nationalopera.org)

(2) 주요성과

2019년 3월, 첫 번째 정기공연으로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를 현대버전의 가족오페라 형태로 새롭게 제작 · 공연하였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4회 전석매진을 기록하는 등 오페라 대중화 및 오페라 인구 저변확대에 기여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프로덕션은 인종주의적,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아 현대 관객들을 늘 불편하게 해왔던 부분을 현대 관객의 정서에 맞게 대폭 바꾸고, 원작의 18세기적 유머 감각을 21세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등 어린이는 물론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작품으로 변모, 성공을 거두었다.

5월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오스트리아의 압제에 맞선 스위스 건국 영웅의 투쟁을 그린 로시니의 마지막 대작 〈윌리엄 텔〉을 국내 초연으로 제작 · 공연하여 3.1운동 정신의 뜻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억압과 독재에 대한 저항, 독립에 대한 갈망을 장대한 스케일로 무대 위에 형상화하였으며,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와 프랑스 그랑 오페라 스타일의 만남이 이루어낸 시너지로 네 시간의 대작임에도 강한 몰입감으로 관객을 압도했다.

6월은 제10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의 참가작으로 기존의 오페라 갈라 형식에 연출을 가미한 〈바그너 갈라〉를 공연하였다. 국내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웅장한 스케일의 바그너 음악을 세계 정상의 무대에서 '바그너가 찾던 그 목소리'로 평가받는 베이스 연광철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바그너 스페셜리스트들이 함께하는 무대로 구성하여 진면목을 발휘하였다. '니벨룽의 반지' 4부작 중 두 번째 작품인 〈발퀴레〉 1막과 바그너 최후의 역작 〈파르지팔〉 3막의 하이라이트를 콘체르탄테 형식으로 엮어 오페라 매니아는 물론 초심자 관객까지도 바그너 음악으로 흠뻑 채워지는 보석같은 기회가 되었다.

7월, 현대사회의 모순을 신랄하게 풍자한 작품으로 독일을 대표하는 근현대작곡가 '쿠르트 바일'의 〈마하고니 도시의 번영과 몰락〉의 역사적인 초연이 이루어졌다. 현대인의 자화상을 담은 20세기 최고 문제작이자 화제작으로 오페라와 현대무용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콜라보 시도로 공연 전부터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초현실적인 공간과 바로크 시대의 화려하고 과장된 의상의 비현실적인 조합과 시각적인 아이러니함, 가사의 불일치로 인한 혼돈이 관객이 극에 몰입하여 현실을 자각하는 것을 방지하는 브레히트의 극적 의도인 '낯설게 하기 효과(Verfremdungseffekt)' 로 대변되어 극의 본질을 명확하게 꿰뚫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9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로 1945 해방 직후 민족과 국가를 넘어 피어오르는 따뜻한 휴먼드라마, 창작오페라 〈1945〉를 국내 초연으로 제작 · 공연하였다. '브랜드 코리아 창작오페라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3년의 숙성 과정을 거쳐 탄생한 창작오페라 〈1945〉는 자칫 고루해지기 쉬운 전통적인 소재를 위트와 풍자로 풀어낸 감각적인 연출과 세련된 무대미학, 에너지 넘치는 음악으로 '한국오페라의 신기원을 연 1945, 예술성과 대중성을 다 잡았다'라는 호평을 받으며 국립오페라단의 새로운 한국오페라 발굴의 소명을 이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 수정 · 보완 작업을 거쳐 해외공연을 추진, 한국을 대표하는 오페라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10월, 작곡가 오펜바흐(1819~1880)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로 19세기 낭만주의 오페라의 결정판으로 꼽히는 〈호프만의 이야기〉를 제작 · 공연하였다. '인형의 노래', '호프만의 뱃노래'등 오펜바흐 특유의 아름답고 환상적인 음악에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세련되고 감각적인 미장센, 초절정 기교를 소화해내는 세계 정상급 성악가들의 열연이 황금비율을 이루어 '음악적인 천재성이 보인 무대 위 마법으로 공연 내내 관객들을 매혹 시켰다'라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12월, 상반기 〈마술피리〉 공연에 이어 '미래 관객을 위한 가족오페라'라는 기획 의도 아래 연말 시즌 레퍼토리 작품으로 훔퍼딩크의 〈헨젤과 그레텔〉을 공연하였다. 국립오페라단 〈헨젤과 그레텔〉은 2018년 뉴 프로덕션으로 제작 당시 알록달록 마카롱 과자집, 롤러스케이트를 신은 캔디 천사 등 기발한 아이디어와 득특한 미장센이 돋보이는 환상적인 무대로 '어른들의 동화'로 평가받았다. 신비로운 멜로디와 웅장하고 환상적인 오케스트레이션에 담겨 위대한 오페라가 된 한편의 동화로 관객을 다시 찾은 〈헨젤과 그레텔〉은 재공연임에도 높은 관람객 점유율(89%)을 기록, 연말 시즌 고정 레퍼토리의 가능성을 높이며, 오페라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한 · 중문화교류공연으로 콘서트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를 중국 산동성 리창극장에서 공연하였다. 2012년 한중수교 20주년 기념으로 중국 NCPA에서 〈라보엠〉을 공연한 이후 이루어지는 중국문화교류라는 점에서 양국의 관심을 자아냈다. 한국의 정상급 성악가가 출연하여 한국 오페라의 우수성을 전파하였으며, 해외 극장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진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지역문화교류공연의 일환으로 상반기 전회매진을 기록한 모차르트 〈마술피리〉를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선보여 완성도 높은 오페라 공연을 지역민에게 제공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더불어 초연 당시 '한국오페라의 신기원을 열었다'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창작오페라 〈1945〉가 제17회 대구오페라 축제 참가작으로 위촉되어 지역공연을 추진함으로써 창작오페라 국내 활성화에 큰 힘을 보태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콘서트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와 〈마술피리〉, 〈라보엠〉, 〈라트라비아타〉, 〈그랜드 오페라 갈라 콘서트〉 공연을 통해 기업을 비롯하여 을숙도 및 춘천, 문경, 안동 등 지역의 중극장을 중심으로 오페라 초심자 관객을 위해 해설이 가미된 찾아가는 오페라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초심자 관객들이 보다 쉽게 오페라에 다가가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오페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으며, 오페라 관객개발의 기회로 외연을 확장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지역의 중극장에서 진행된 〈사랑의 묘약〉은 전막 형태의 국립오페라단 지역공연 대표 레퍼토리로, 강진과 부안, 청송 등 수도권 내에서도 오페라 공연 체험 기회가 적은 지역의 공연장을 중심으로 관객들에게 오페라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역극장 규모에 적합한 맞춤형 세트를 제작 · 활용하여 다채로운 동선과 무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성인 관객뿐 아니라 가족 단위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연출이 돋보이는 무대를 구성하는 등 향후 잠재관객 개발을 위한 가족오페라 제작의 중요한 핵심요소들을 짚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상반기 전회매진을 기록한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를 을숙도와 태백, 당진, 하남, 인제 등 오페라를 접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공연하였다. 특히 지역공연을 위해 재구성된 프로덕션이 아닌, 예술의전당 공연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인정받은 양질의 공연을 시차 없이 지역에서 관람할 수 있다는 큰 의미가 부여되어, 이는 향후 지역공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큰 이정표가 되기도 하였다.

미래 오페라 관객개발 및 어린이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오페라'는 〈교실 속 오페라 여행〉(저학년)과 〈헨젤과 그레텔〉(고학년)로 각각 60회씩 실시하여 23,294명의 어린이 관객을 대상으로 공연하였다. 지난 200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초등학교 1~2학년 교실로 직접 방문하는 저학년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강당에서 공연하는 고학년 프로그램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공연을 실시, 학생과 교사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고학년 프로그램인 〈헨젤과 그레텔〉의 경우,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프로덕션을 학교오페라 버전으로 신규 제작하여 학교오페라 레퍼토리의 확장과 더불어 공연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또한 차세대 오페라 스타 발굴 및 육성을 위해 2002년부터 해마다 〈국립오페라 성악콩쿠르〉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해외 유수의 오페라극장에서 미래 오페라 스타 발굴 ·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Young Artist Program)'과 맥을 같이하는 성악 인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수상자에 한해 상금 수여와 함께 국립오페라단 공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오페라 전문 인재로 양성 하고 있다.

그림 4-3-12 정기공연 〈호프만의 이야기〉, 창작오페라 〈1945〉

그림 4-3-13 학교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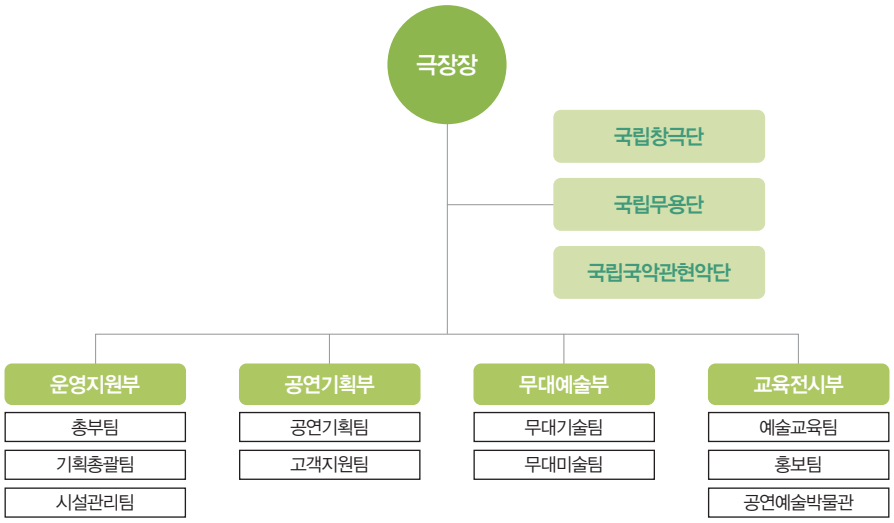
* 자료: 국립오페라단(http://www.nationalopera.org)

4) 국립중앙극장

(1) 조직현황

국립중앙극장은 1950년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예술의 진흥을 위해 전속단체인 국립극단의 창단과 함께 창설되었다. 1962년에는 국립국극단(현 국립창극단) · 국립무용단 · 국립오페라단, 1973년에는 국립발레단 · 국립합창단이 창단되었고 그 해 10월 장충동으로 이전 · 개관하였다. 1995년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으로 7개 전속단체가 운영되었으나, 2000년에 오페라단 · 발레단 · 합창단이, 2010년 4월에는 극단이 재단법인으로 분리되면서 창극단 · 무용단 · 관현악단의 3개 전속단체로 재정비되었다. 국립중앙극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을 통해 인사 및 예산상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책임경영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2006년 책임운영기관 제3기 출범으로 기능위주의 조직개편 및 전문성이 확보되었으며, 2009년 책임운영기관 제4기 출범으로 공연예술박물관 개관 대비 조직 · 인력의 재정비, 공연기획 · 마케팅홍보가 강조된 공연중심 조직체계가 마련되었다. 2012년 책임운영기관 제5기 출범으로 전속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체 공연 제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4부 3전속단체 6책임 감독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또한 국가대표공연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2001년 별오름극장 개관, 2004년 해오름극장 전면 새 단장, 2008년 KB청소년하늘극장을 개관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공연예술 문화유산의 체계적 수집 · 보존을 위한 한국 최초의 공연예술박물관을 개관하여 공연문화 · 예술 발전 토대를 강화하였다. 국립중앙극장의 현재 조직은 4부 · 3개 전속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공무원 95명과 전속단원 212명으로 총 307명이다.

그림 4-3-14 국립중앙극장 조직도



* 위치: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59
** 자료: 누리집(www.ntok.go.kr)

2019년도 세입예산은 14억 29백만 원으로 재산수입 3억 69백만 원,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10억 59백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656억 8백만 원으로 공연사업비 등 사업비 584억 67백만 원, 인건비 59억 30백만 원, 기본운영비 12억 11백만 원이다.

(2) 주요성과

국립중앙극장은 전통에 기반을 둔 동시대적 공연예술 창작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기관의 미션으로 하고 있다. 2012년 9월부터 시즌제를 도입, 국립극장 전속단체인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중심으로 우수 공연작품 개발 및 레퍼토리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통공연예술의 대중화 및 세계화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운영하는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은 2019~2020시즌까지 여덟 번의 시즌을 운영하면서 한국 공연계에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8번째 시즌인 2019~2020시즌까지 2,098일간 총 363편, 1,289회를 공연하여 시즌 평균 관람객 97,556명, 객석점유율 86%, 유료점유율 63%를 기록했다. 시즌 도입 전 동기간 비교 시 레퍼토리시즌 도입 이후 국립극장 전속단체와 기획공연 편수는 33편에서 평균 45편으로 136%, 관람객수는 63,085명에서 97,556명으로 155% 증가했다.

최소 1년 이상의 기획과 제작 기간을 확보하는 시즌제를 바탕으로 극장의 제작 시스템이 안정됨에 따라 공연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작품의 양적 · 질적 성장을 동시에 견인하고 있다. 2019년에 국립극장 3개 전속단체는 총 17편 중 9편(53%)을 레퍼토리로 개발하였으며, '12년 9월 시즌제 도입 후, 총 68편의 신작을 레퍼토리로 전환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국립창극단은 국내외 다양한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판소리계 창극과 현대 창극을 함께 선보이고 있다. 2019년에 국립창극단은 2편의 신작을 '시', '경극' 등 다른 장르와 결합을 시도함으로써 창극의 외연을 확장하였다. 특히 해외 경극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패왕별희〉는 중국 고전을 소재로 하였으나 미학적으로 수준 높은 창극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초연한 지 반 년 만에 국립극장 외부 공연장(예술의전당)에서 재공연을 올려 창극의 화제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어가고, 레퍼토리로의 도약을 성공시켰다. 초연 후 6개월 여 만의 재공연이었음에도 유료 객석점유율 90.5%를 달성, 전 회 만원사례라는 창극으로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다.

국립무용단은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전통춤을 연출적 · 시각적으로 현대화하는데 성공했다. 〈시간의 나이〉와 〈회오리〉는 레퍼토리로서 국내외 관객들에게 높은 관심을 이어가는데 성공하였으며, 〈넥스트 스탭〉을 통해 차세대 우수 안무가를 발굴하였다. 장기간 이어지는 명절 연휴 기간 중 온가족이 관람할 수 있고, 전통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공연을 선별한 〈설.바람〉의 기획은 차별화된 프로그램이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국내외 다양한 작곡가와 연주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악관현악의 음악적 확장을 꾀하는 동시에 연령별, 계층별로 차별화된 기획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19년에는 국내 관현악계가 다소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획을 통해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신작 〈아리랑로드-디아스포라〉는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큐레이션을 보여주었고, 〈3분 관현악〉과 같은 참신한 시도를 통해 신진 국악인들을 발굴하였다. 어린이 음악회 〈엔통이의 동요나라〉, 상설공연 〈정오의 음악회〉 등 어린이, 청소년, 주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공연도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국립극장은 전속단체 외에도 국립예술단체와 우수 민간단체와의 연계기획을 통해 전통예술은 물론 발레, 오페라, 연극, 현대무용, 콘서트 등 풍부한 장르 구성으로 다양성을 확보하고 완성도 높은 시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국립극장 마당놀이, 해외초청공연, NT Live, 제야음악회 등 다양한 기획 공연들을 함께 선보이고 있다. 2014년 12월 처음 시작한 국립극장 마당놀이는 가무악이 어우러진 한국형 뮤지컬로 자리잡았다. 2019년에는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를 장기공연하며 연일 매진을 기록했다. 영국국립극장 화제작의 공연실황을 스크린으로 상영하는 NT Live는 2014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이후 동시대 세계 공연예술계의 흐름을 접할 수 있는 장으로 정착, 매 시즌프로그램 공개 시마다 화제를 모으고 있다.

비시즌 기간, 7월에 매년 개최하는 국립극장 여름축제 '여우樂(락) 페스티벌'은 2019년에 10회를 맞이했다. 10주년을 기념, 여우락 페스티벌을 함께 한 전임 예술감독 3명(원일, 나윤선, 양방언)이 함께 음악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국립극장이 아닌 외부 공연장(블루 스퀘어)에서 관객들을 만났으며, 한국 음악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는데 기여했다.

국립극장과 3개 전속단체는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우수 작품의 지방 공연 추진을 통해 국민 문화 향수권을 높여나가고 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관객음악학교 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강습으로 동시대 한국 음악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에는 아마추어 관현악단 37명이 수료했고, 악기포커스-대금 수업을 35명이 수료했다. 아마추어 관현악단의 무대 발표를 통해 국악 비전공자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관현악 편성의 연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2019. 6. 29.). 국립창극단과 국립무용단은 공연 제작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객과 제작진 및 출연진과의 소통 기회를 증대하는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다. 국립창극단은 신작 공연 후 제작진 및 배우와 관객과의 대화를 4회 개최하고('시', '패왕별희'), 국립무용단은 오픈리허설 및 안무가와의 대화를 3회 개최했다('설,바람', '시간의 나이', '추석.만월'). 이외에, 수도권과 지방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자 2019년에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안동, 성남, 남원에서 공연을 올렸으며,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안동에서 공연을 올렸다. 2019년에 국립극장이 실시한 지방공연으로 총 2,486명 비수도권 국민이 국립극장 제작 명품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국립극장은 전국의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문화나눔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외계층 문화향유 권리보장과 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다.

국립극장은 전속단체의 우수 레퍼토리 해외진출 및 국제협업을 통한 신작 개발로 한국 전통공연예술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다. 2019년에는 국립무용단 〈묵향〉이 유럽 4개국에서(덴마크 · 헝가리 · 세르비아 · 프랑스) 선보였으며, 〈회오리〉는 일본 가나가와 예술극장에 초청 공연되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중국 · 태국 · 폴란드 공연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 국악을 외국 관객에게 소개하였다. 국립창극단은 동명의 경극을 소재로 한 대만 예술가(극본 린슈웨이, 연출 우싱궈),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홍콩 예술가(의상 디자이너 예진텐)와 함께 창극 〈패왕별희〉를 제작하였고, 창극을 아시아로의 예술로 확장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편 전통예술의 저변 확대와 잠재 관객 개발 등을 위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예술학교', '창극아카데미', '예술가 클릭' 등을 통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국악과 창극, 무용과 시각예술 등 다양한 예술분야를 친근하게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예술아카데미(태평무, 소고춤, 사물놀이, 판소리 등)'와 '취미의 계절', '공연예술특강'에서는 국립극장 고유의 공간과 재원을 활용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통예술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교사 대상 전통예술연계 교수법 학습 과정인 '교사직무연수'를 실시하였고, 주한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국악아카데미(한국무용, 판소리, 사물놀이)'를 운영하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한국 문화와 전통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은 상설전시실의 노후 공간 및 시설 일부의 개선을 통하여 관람객에게 보다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전시연계 체험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시물과 연계체험이 가능한 복합형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공연예술박물관 개관10주년을 맞아 기념 전시로 〈무대 위 새로운 공간의 창조, 무대디자인〉을 개최하였다. 상설전시와 연계하여 공연예술전문가의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공연예술전문가와 박물관 데이트〉는 공연분장과 연극 분야를 운영하였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일 동안 공연예술을 체험 · 발표하는 〈공연교실〉은 연극배우 체험을 통해 무대를 경험하고 문화감수성을 증진시켰다. 초등학생들이 무대미술가가 되어 무대장치를 만들어보는 〈무대미술가

프로젝트〉, 2015~2016 기획전시 연계프로그램을 확대시켜 미니무대를 만들고, 그림자극 체험을 할 수 있는 〈무대조명놀이〉와, 〈무대장신구 만들기〉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눈높이에 맞는 창의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유아들이 구연동화 감상을 통해 공연예술을 체험하는 〈도란도란 이야기꾸러미〉를 운영했다. 〈공연예술박물관 공연꾸러미〉는 전국 소재 어린이 기관에 공연의상 및 공연소품을 대여하여 약 1천 2백 명에게 공연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9년 기획전시 연계프로그램 무대디자인은 가족을 대상으로 무대디자인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무대&소품 디자인과 무대장치디자인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상설전시실 전시해설과 단체관람은 약 5백 명이 참여하였다.

공연예술박물관은 총 45만여 점의 공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MOU 체결 국립공연예술단체로부터 약 2천 점의 자료를 이관 받아 체계적인 자료 수집 · 분류의 성과를 올렸으며, 노후 자료 51건 5,868면을 복원 처리하여 공연예술유산 보존계승에 힘쓰고 있다.

또한 공연예술자료실 운영을 통하여 공연예술자료 열람 · 복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총 5,858명이 8,150점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편, 2010년부터 소장자료의 영구보존 및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해 오고 있으며, 2019년 725건을 디지털화하고, 5,287건의 공연예술인 DB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구축된 아카이브 자료는 공연예술 디지털아카이브 홈페이지(http://archive.ntok. go.kr)를 통해 일반에 서비스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142,323명이 방문하였고 조회수는 2,883,873건을 기록하였다.

5) 국립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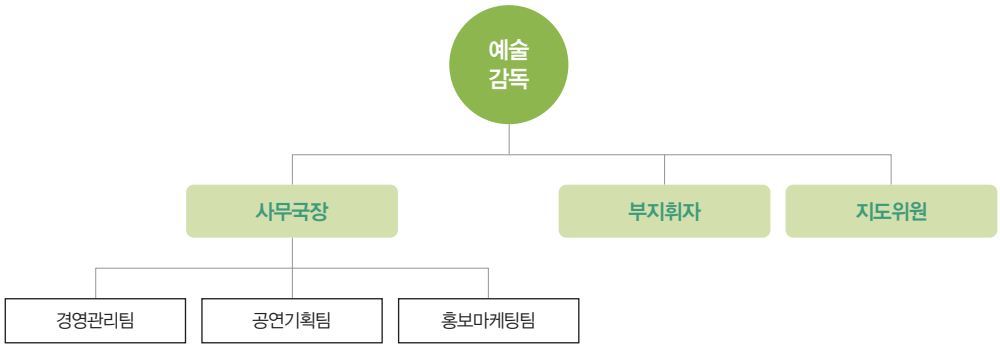
(1) 조직현황

국립합창단은 우리나라 합창 음악의 전문성과 예술성 추구를 위해 1973년 5월에 창단되었고,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공간운영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2000년에 국립극장 전속 단체에서 재단법인 국립합창단으로 독립하였다.

합창단의 조직은 사무국장 1국 3팀 경영관리팀, 공연기획팀, 홍보마케팅팀 및 부지휘자, 지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임원 1명, 직원 9명, 단원 50명을 포함하여 총 6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9년도 총 예산은 5,372백만 원 규모였다. 총 수입예산은 국고 4,502백만 원, 자체수입 870백만 원이고, 총 지출예산은 인건비 2,752백만 원, 경상운영비 563백만 원, 사업비 2,007백만 원, 예비비 50백만 원이다.

그림 4-3-15 국립합창단 조직도



※ 위치: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내 오페라하우스 4층
※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nationalchorus.or.kr

(2) 주요성과

2019년 국립합창단은 6회의 정기공연과 3·1절 기념연주회, 합창지휘경연대회, 전국소년소녀합창경연대회, 광복절기념 합창축제 등의 기획공연을 통해 합창의 대중화와 한국 합창음악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이바지하였다. 또한, 지방공연 및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의 2019 방방곡곡 문화사업에 참여하여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다양한 공연단체 및 기관 등에서의 연주회 요청 등으로 외부공연에 참여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연주를 제공하여 문화예술발전에 힘쓰고 있다.

정기연주회는 일반인들이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합창 명곡들과 무게감 있는 정통합창음악을 프로그램화하여 예술성 및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우리문화와 정서가 담긴 합창곡 개발 및 보급을 통해 합창곡의 다양화와 합창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176회 정기연주회는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177회 정기연주회에서는 클래식 전통 작품인 모차르트 레퀴엠 D단조를 연주하여 국내 클래식 애호가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레퍼토리로 신춘음악회를 구성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국립합창단은 세계적인 합창지휘자 Patrick Quigley를 초청하여 현대합창곡으로 유명한 스트라빈스키의 시편교향곡을 연주하여 색다른 합창의 묘미로 178회 정기연주회〈청소년음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아카펠라와 오케스트라 반주가 있는 작품으로 프랑스의 작곡가 뿔랭의 〈미사 G장조〉, 〈Gloria〉와 라벨의 〈Trois Chansons〉를 연주하여 프랑스의 정서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레퍼토리로 베토벤, 헨델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발굴하여 완성도 있는 연주로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색다른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가을음악회를 179회 정기연주회로써 무대에 올렸다.

180회 정기연주회에서 클래식 마니아를 위한 국립합창단의 송년음악회 대표 레퍼토리인 헨델의 〈메시아〉를 국내 최초 연출이 있는 〈메시아〉로 선보임으로써, 국내의 합창관계자 및 애호가,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여 우리나라의 독립 의사를 세계에 알린 3 · 1절을 기념하기 위한 기획공연으로, 2019년 3월 3일(일) 오후 5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국립합창단 전속 작곡가 오병희의 창작칸타타 〈동방의 빛〉을 초연하였다. 3 · 1절을 기념하는 창작칸타타 연주로서 대규모 연합합창단의 연주와 오케스트라의 반주로 3 · 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진정한 독립의식의 중요성을 음악으로 승화하여 예술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국민들에게 국립합창단의 수준 높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였다.

제3회 전국소년소녀합창경연대회는 소년소녀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합창문화발전을 위해 2017년 처음으로 개최된 경연대회이다. 소년소녀의 예술문화체험활동, 합창의 저변확대 및 잠재적 관객개발에 기여하였으며, 대회에 참여한 학생과 지휘자들에게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 및 예술적 교류기회를 제공하였다. 대회에는 예선을 거쳐 13단체가 결선에 진출하여 합창음악을 통해 소통과 교류를 체험하였다.

제8회 합창지휘경연대회는 대한민국의 합창계를 이끌고 나아갈 역량 있는 차세대 젊은 합창지휘자를 선발하여 국립합창단을 지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합창지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높이며 합창지휘 전공자들에 대한 동기부여의 기회와 한국 합창계의 발전을 위한 합창지휘 인적자원의 토대를 굳건히 마련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합창음악연주를 통해 청소년의 문화정서 함양과 합창음악의 조기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합창음악교육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7월 26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제1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전국고교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아름다운 경연을 펼쳤다. 또한 10월 4일 여의도 KBS홀에서 제8회 전국골든에이지(어르신)합창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합창음악의 저변확대에 기여하였다.

광복절을 맞이하여 합창음악을 통한 대한민국의 민족화합과 통일미래 염원을 목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한인합창단과 외국인합창단을 초청하여 〈광복절기념 합창축제〉를 개최하였다.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였으며 합창음악으로 광복절의 의미를되새기고, 세계인을 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다.

지휘자 데뷔콘서트는 2009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프로젝트로 1년 중 상 · 하반기로 나누어 각 2명씩의 신인지휘자를 6개월간의 연수프로그램을 거쳐 국립합창단을 통해 데뷔하는 지휘자 양성 프로젝트로 2018년까지 총 37명이 데뷔하였다. 2018년부터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중 2명의 신인지휘자를 선발하여 10개월간의 수련기간을 거쳐 하반기에 데뷔콘서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2019년 2명의 신인지휘자가 국립합창단의 지휘봉을 잡으며 데뷔하였다.

지방 공연은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권 확대 및 국민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합창음악 저변을 위해 지역 시 · 군 · 구 등과 함께 공동주최, 초청공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등의 사업형식으로 한국창작합창곡, 세계민요, 오페라 합창 등 국립합창단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레퍼토리들로 평창동계올림픽 및 페럴림픽 1주년기념행사, 국립오페라단 창작오페라〈1945〉 등 강릉, 대구, 군산, 구미, 익산 등 다양한 지역을 순회하였다.

한편, 합창음악의 체계적인 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해 성인을 위한 〈합창지휘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

해외연주회는 세계 각국의 순회공연을 통하여 우수한 우리문화를 알리고 한국 합창의 수준 높은 연주역량을 선보임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 및 문화예술교류를 통한 한류확산에 기여하였다. 2019년에는 〈국립합창단 프랑스 순회연주회〉로 프랑스 한인이주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 쉬프, 파리, 생브리외, 렌느시에서 공연하였다. 해외연주회를 통하여 현지의 많은 음악애호가들과 평론가들, 현지 관객들의 큰 호응 속에서 한국 합창음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한국합창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림 4-3-16 국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제179회 정기연주회-뿔랭과 라벨(2019. 10. 17.)

제180회 정기연주회-헨델 메시아(2019. 11 .26. / 12. 3.)

그림 4-3-17 국립합창단 기획공연

제100주년 3.1절 기념음악회-창작칸타타 동방의 빛(2019. 3. 3.)

제3회 전국소년소녀합창경연대회(2019. 6. 8.)

제1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전국고교합창경연대회(2019. 7. 26.)

2019 광복절기념 합창대축제(2019. 8. 15.~16.)

제8회 전국골든에이지(어르신)합창경연대회(2019. 10. 14.)

국립합창단 제20회 데뷔콘서트(2018. 11. 15.)

6) 국립현대무용단

(1) 조직현황

국립현대무용단은 현대무용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2010년 8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현대무용 작품의 창작과 제작 환경 조성을 통해 무용 예술인들에게는 창작 역량 강화와 예술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대무용 공연 관람 및 교육 · 체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고하고,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을 통해 문화적으로 다양한 가치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현대무용단의 조직은 1사무국과 1작품제작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은 기획팀, 홍보마케팅팀, 경영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되어 사무국장이 총괄하며 작품제작진은 예술감독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원은 임원 1명, 직원 14명, 제작단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이다. 정원 외에 작품 창 · 제작 및 관객저변 확대를 위한 외부 전문 제작인력, 매 작품마다 선발되는 프로젝트 무용수들이 있다.

2019년도 총 예산은 44억 4,800만원이다. 그 중 수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8억 2,800만원 및 자체수입금 6억 2,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약 14%이다. 지출예산은 인건비 9억 2,700만원, 경상운영비 5억 9,300만원, 공연사업비 27억 9,100만원이다.

국립현대무용단은 '관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예술가들과 함께 만드는 재미있는 현대무용'이라는 비전 아래 예술성 · 대중성 · 국제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창작역량 강화, 관객저변 확대,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 활동으로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춘 신규 무용작품 개발, 지속가능한 무용 레퍼토리 개발 및 보급, 현대무용 다양성 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대무용의 건강한 창작 생태계 조성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전국민의 현대무용 향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순회공연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 관객개발 프로그램인 〈오픈-업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무용이 표방하는 가치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그림 4-3-18 국립현대무용단 조직도

※ 위치: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4층
※ 누리집(홈페이지): www.kncdc.kr

(2) 주요성과

2019년 국립현대무용단은 국내 및 해외 공연을 포함하여 총 60회 공연을 통해 25,765명의 관객과 만났다. 국립현대무용단의 자체 기획공연은 8편 32회로서 현대무용 신작과 레퍼토리를 포함하여 총14개의 작품을 소개했다.

특히 관객군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특성을 바탕으로 예술적 완성도를 갖춘 대중 친화적 작품 개발에 주력했다. 그 일환으로 어린이무용 제작을 시도했으며, 관객의 사랑을 받은 작품들을 레퍼토리로 정착시키는 작업을 했다. 또한, 다양한 개성을 갖춘 해외 및 국내 안무가를 초청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안무공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간 독립 무용가들이 전문적 제작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구축했다.

지역순회공연은 18개 지역에서 19회 공연을 함으로써 현대무용을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해외공연은 스웨덴과 브라질 등 2개국 3개 도시에서 9회 공연을 가졌다. 스웨덴과는 국제협업 형식으로 교류했으며 브라질 공연을 통해서는 남미 관객에게 한국적인 현대무용을 소개했다.

국립현대무용단은 공연 외에 다양한 관객 개발 프로그램으로 현대무용 향유층을 확대했다.

2019년에는 통합 관객개발 프로그램인 〈오픈-업 프로젝트〉의 브랜드 홍보를 추진하면서, 개별 프로그램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운영하는 등 질적 성장을 통해 관객과의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그 결과, 총 269회 실시된 오픈-업 프로그램에 5,853명의 관객이 참여해 현대무용과 만났다.

가. 신작 개발 및 레퍼토리 작업 통해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춘 무용 브랜드 확립

국립현대무용단은 신작 개발과 레퍼토리 작업을 통해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춘 무용 작품의 브랜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9년 발표된 신작 중 〈루돌프〉는 48개월 이상의 어린이 관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무용이다. 2018년부터 단계적인 리서치와 워크숍, 어린이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의 특성을 반영하고 감상과 놀이의 유기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기획, 개발했다. 〈검은 돌: 모래의 기억〉은 안무가, 무용수, 창작스태프 들의 3년간의 예술적 협력을 통해 공연되어 평단과 관객의 찬사를 받았다.

한편, 작품 완성도 향상을 위한 레퍼토리의 전략적 구성을 통해 무용단 레퍼토리 개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초연된 〈제전악-장미의 잔상〉이 2019년까지 매년 지역순회공연에 초청되었다. 현대무용에 대한 관객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대중화에 기여한 〈스윙〉은 2018년 초연에 이어 2019년에 레퍼토리 공연으로 자리매김을 하며 서울과 지역 12개 시도에 초청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초연되어 관객의 사랑을 받은 〈쓰리 볼레로〉와 〈쓰리 스트라빈스키〉의 공연 작품들 중 각 1편씩이 〈라벨과 스트라빈스키〉라는 이름으로 만나 서울과 지역에서 재공연됐다. 2018년 스웨덴과의 협업으로 탄생된 〈두 점 사이의 가장 긴 거리〉는 완성도를 향상시켜 국내와 해외에서 재공연됐다. 신작이 아닌 기존 작품을 레퍼토리로 발전시키는 안무공모 프로젝트 〈스텝업〉도 2018-2019년 연속기획으로 재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며 프로그램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나. 현대무용 다양성 소개 및 국제경쟁력 강화

다양한 개성과 스타일, 뛰어난 안무 역량을 가진 국내 · 외 무용가를 초청, 국립현대무용단과의 협업을 통해 현대무용의 다양성을 소개했다. 〈쌍쌍〉을 안무한 스페인의 마르코스 모라우, 〈두 점 사이의 가장 긴 거리〉를 안무한 스웨덴의 페르난도 멜로, 어린이 무용 〈루돌프〉에서 비주얼 아트를 담당한 이탈리아 TPO 인터랙티브 시어터, 〈스텝업〉의 무용수로 참여한 벨기에의 피터 암퍼(이은경 안무작) 등이 그들이다. 특히, 〈스텝업〉을 통해 유럽 신진안무가 플랫폼 '스프링포워드페스티벌'의 한국 파트너로서 기능하며 한국 안무가들이 유럽의 경쟁력 있는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 창구를 마련했다. 〈스웨덴 커넥션〉에서는 스웨덴 스코네스댄스시어터와의 2년간의 협력을 통해 창작단체로서 무용단의 교류방식 다각화 모델을 제시했다. 국립현대무용단은 호주 댄스매시브, 프랑스 스프링포워드페스티벌, 서울아트마켓을 비롯하여 아시아무용네트워크(Asia Network for Dance, AND+)의 한국 코어 멤버로 활동을 이어가는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 현대무용의 위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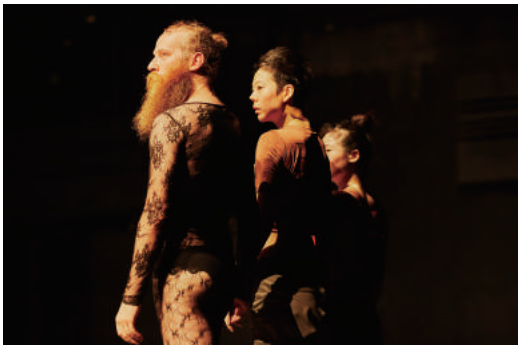
강화하고 그 역할을 공고히 하는데 노력했다.

그림 4-3-19 국립현대무용단 2019년 주요 작품

어린이 무용 〈루돌프〉
(안무 이경구, 사진 임재영)

해외예술과의 협업 〈쌍쌍〉
(안무 마르코스 모라우, 사진 황승택)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춘 〈스윙〉
(안무 안성수, 사진 황승택)



안무공모 프로젝트 〈스텝업〉
(안무 이은경, 사진 목진우)

다. 현대무용 창작 역량 강화 위한 기반 작업

국립현대무용단은 공연별 전문제작진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창작 단체의 전문성, 유연성 강화의 틀을 체계화시켰다. 기술, 조명, 의상, 음향, 영상 등 각 작품별로 각 분야 전문 크리에이티브 스태프를 섭외, 안무가와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작품 창작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창작자, 실연자, 스태프 대상의 표준 계약서 및 저작료 내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며 합리적인 창작 스태프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공연 특성에 맞는 쇼케이스, 프로덕션 미팅, 리서치 및 기술 리허설 등 체계적 프로덕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내외부 전문가들과의 합평회, 사업평가를 진행, 다양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그 결과가 다음 프로덕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라. 관객과의 다양한 소통 창구 마련 통해 현대무용 향유 인구 확대

국립현대무용단은 공연 외에 다양한 관객 개발 프로그램으로 현대무용 향유층을 확대했다. 2019년에는 통합 관객개발 프로그램인 〈오픈-업 프로젝트〉 브랜드 홍보를 추진하면서, 개별 프로그램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운영하는 등 질적 성장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특히,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향유 계층을 확장했으며, 전문가 · 청소년 · 어린이 등 대상 특정형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그 결과, 총 269회 실시된 오픈-업 프로그램에 5,853명의 관객이 참여해 현대무용과 만났다. 대표적 프로그램으로는, 일반인이 11주 동안 전문 무용가가 진행하는 클래스에 참여하여 움직임을 배우고 쇼케이스를 통해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무용학교〉와 현대무용에 대한 인문학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교양 강의 〈춤추는 강의실〉이 있다. 그 외에 연습실을 개방하여 리허설을 관람하고 아티스트와 대화하는 〈오픈 리허설〉, 안무가의 작업 과정을 체험하는 〈오픈 워크숍〉, 공연에 사용되는 춤곡을 집중 소개하는 〈무곡 콘서트〉, 공연 직후 아티스트와 대화할 수 있는 〈관객과의 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대무용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4-3-14 국립현대무용단 공연사업 실적(2019)

구분	공연명	일수	횟수	관객수	객석점유율	공연장
무용단 기획공연	〈쌍쌍〉	3	3	1,966	96.1%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검은 돌: 모래의 기억〉	3	3	2,113	98.2%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어린이 무용 〈루돌프〉	9	10	740	100.0%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스웨덴 커넥션 II	3	4	820	100.0%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라벨과 스트라빈스키〉	2	2	1,751	90.9%	LG아트센터
	〈스윙〉	3	4	3,111	100.0%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스텝업〉	6	6	1,222	99.3%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지역순회	〈제전악-장미의 잔상〉 〈라벨과 스트라빈스키〉 〈스윙〉 〈혼합〉 〈댄서 하우스〉	18	19	10,328	67.7%	홍주, 해남, 창녕, 광주 제주, 금산, 울산, 고령 광명, 수원, 군위, 성주 평택, 창원, 진주, 세종 안양
해외공연	〈혼합〉, 〈두 점 사이의 가장 긴 거리〉, 〈검은 돌: 모래의 기억〉	9	9	3,714	76.0%	스웨덴, 브라질
합 계		56	60	25,765	80.1%	

표 4-3-15 국립현대무용단 관객개발 프로그램 현황(2019)

유형	프로그램명	횟수	참여인원	비고
교육 사업	[체험] 무용학교	63	498	• 2018년 시범 진행한 봄 · 여름 · 가을학기 3학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행(기존 2학기 운영)
	[렉처] 춤추는 강의실	9	1,411	• 현대예술을 두루 살펴, 궁극적으로 현대무용의 본질을 찾아보는 연간 커리큘럼
공연 연계	[체험] 오픈 워크숍	8	244	• 초빙 안무가 · 무용수를 무대 밖에서 만나 소통하며 현대무용 친근감 증대
	[신규–체험] 무용수 · 창작자 오픈 워크숍	2	31	• 국내 무용계에서 국제적 흐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술가를 위한 특별 워크숍 개최
	[참관] 오픈 리허설	3	156	• 시청 대상 확산을 위해 SNS 라이브로 더욱 많은 관객에게 서비스함
	[참관] 오픈 콘서트	2	80	• 공연음악을 사전에 콘서트 형태로 공개하여 현대무용 경험 방식의 다양화 도모
	[렉처] 오픈 특강	2	113	• 스웨덴 문화와 예술, 스트라빈스키와 볼레로 음악세계에 대한 심층 탐구 등 공연 내용에 대한 심화 강의
	[커뮤니티] 아티스트 토크: 쌍쌍파티	1	40	• 아티스트와 예술적 영감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으로써 플랫폼엘과 협업
	[토크] 관객과의 대화	5	671	• 공연 종료 후 관객–창작자 대화를 통해 관객들의 지적 호기심 충족
	[참관] 팝업스테이지	22	1,500	• 차기공연 예고편을 노출해 고객 재방문 유도, 신규관객 개발
	[신규–전시] 팝업 전시	1	51	• 카페 등 유동인구가 많은 플랫폼에 전시 형태로 창작 작업을 공개함으로써 신규관객 확보 및 관객층 다양화 시도
협력 프로그램	[체험] 신세계문화센터특강	82	120	• 신세계문화센터 내 현대무용 강의 진행해 공간 접점 다양화, 핵심 관객 육성
	[체험] 타기관 협력 프로그램	7	173	• 위워크, 트레바리, 룰루레몬, 스틸로 등 다양한 공간 및 커뮤니티에의 접근으로 신규관객 개발 주력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체험] 찾아가는 현대무용	11	230	• 중고등학생 대상 진로체험으로, 일반학교에서도 예술교육을 전문 인력과 함께할 수 있도록 협력지원
	[신규–체험] 학생 대상 심화 교육	3	234	• 서초중학교 정규학기에 현대무용 강의 개설하여 심화 교육 실행, 기말 발표회로 성과 공유까지 진행 • 동덕여고 직업인 특강 중 안무가 특강 지원하여 학생 진로 개발에 도움
	[참관] N스튜디오 연습실 투어	1	12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 전공생 투어 진행, 예비 문화예술인력 대상 현장정보 공유
	[커뮤니티] 대학생 커뮤니케이터 〈춤 · 사이〉	38	16	• 20대 타깃 관객 육성 및 현대무용 기반 커뮤니티 형성 목적
	[커뮤니티] 대학생 네트워킹 데이	2	81	• 춤.사이가 기획하여 진행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 2019 하반기에는 기존 대학생에 국한하던 참여자를 청년층으로 확장
	[신규–체험] 어린이 오픈 워크숍	4	66	• 어린이 대상 현대무용 체험 특별 프로그램 개발하여 유아기 예술체험 지원 및 신규관객 육성 도모
	[신규–렉처] 어린이 무용 포럼	1	96	• 전문가 및 일반인 대상으로 '어린이 무용 창작의 현재와 미래' 포럼 개최하여 국내외 사례 공유
	[신규–커뮤니티] 어린이 자문단	2	30	• 〈루돌프〉 어린이 자문단을 신규 모집하여 공연 준비과정 공개하고 제작진과 어린이, 학부모 간 소통 강화로 타깃 관객의 의견 수렴
합계				269회 진행 연간 5,853명 참가

그림 4-3-20 국립현대무용단 2019년 〈오픈-업 프로젝트〉

7) 정동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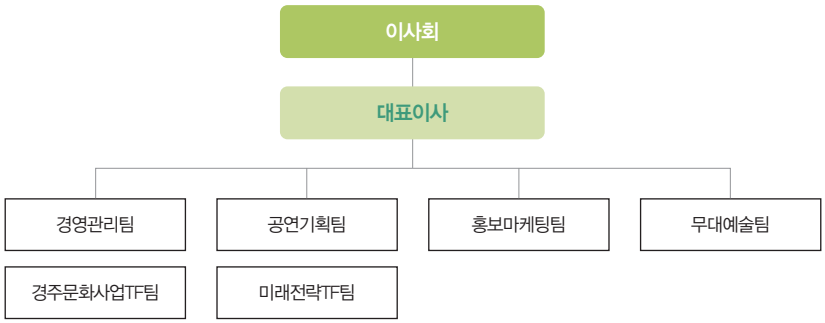
(1) 조직현황

정동극장은 1908년 신극과 판소리 전문 공연장으로 문을 열었던 최초의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의 복원이념을 담아 1995년 6월 국립중앙극장 분관체제로 설립되었고, 1997년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였다. 정동극장은 공연예술 진흥사업, 전통문화의 보존 · 계승 및 문화예술의 국내 · 외 교류사업 등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동극장의 조직은 대표이사 이하 경영관리팀, 공연기획팀, 홍보마케팅팀, 무대예술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68명(대표이사 및 무기계약직 포함)의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4-3-21 정동극장 전경

그림 4-3-22 정동극장 조직도



※ 위치: 서울시 중구 정동길 43(정동극장)
※ 누리집(홈페이지): www.jeongdong.or.kr(정동극장)

2019년 정동극장 총예산은 86억 39백만 원이며, 이중 자체수입금액은 16억 14백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8.7%이다. 지출예산은 운영비 47.4%, 사업비 47.2%, 차기이월금 4.1%, 예비비 1.3%로 구성되어 있다.

표 4-3-16 정동극장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수입예산		지출예산	
2019	국고보조금	5,240,000	법인운영	4,089,633
	(국고반납액)	–	– 인건비	2,310,919
	문화예술진흥기금	1,244,444	– 경상운영비	1,778,714
	(기금반납액)	(98)	예비비	114,370
	지방비	540,000	사업비	4,081,122
	공연사업수입	959,035	– 공연사업	1,948,519
	기타수입	248,946	– 경주브랜드공연사업	1,962,336
	전기이월금	406,250	– 예술인턴사업	44,444
			– 편의시설운영	125,823
			차기이월금	353,452
	합 계	8,638,577	합 계	8,638,577

(2) 주요성과

정동극장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예술적이고, 대중적이며 완성도 높은 전통공연 제작을 목표로 〈정동극장 전통시리즈〉를 2017년부터 시작하였다. 전통시리즈는 전통연희를 기반으로 한 '전통상설공연'과 정동극장표 우수공연을 선보이는 '전통레퍼토리', 창작을 통해 동시대와 만나는 현대적인 전통공연에 대한 모색으로 '창작ing'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작ing'는 창작자 발굴과 콘텐츠

개발을 공연 제작 지원의 형태로 진행해 미래의 전통공연을 미리 만나보는 무대로 구성하여 예술가와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2017년 신규 개관한 '정동마루(50석)'는 새로운 공연과 만남이 이뤄지는 공간 정신을 바탕으로 '청춘만발' '예술가의 작업실' 등 소규모 창작 공연들은 선보이며 청년예술가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났다. 정동극장은 한국예술의 다채로운 창 · 제작 소개를 통해 전통 기반 콘텐츠의 중심극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가. 상설공연

〈궁:장녹수전〉은 조선 최고의 기녀이자 욕망의 화신으로 낙인찍힌 '장녹수'의 이야기를 토대로 그녀가 탐한 권력 이야기와 그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예를 상상해 재구성한 창작극이다. 정동극장 전통공연은 드라마가 있는 무용극으로 특히, 이번 〈궁:장녹수전〉공연에서는 우리 전통 기방 문화와 민가의 놀이문화 그리고 궁중 연희의 모습까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역사 속 실존인물 '장녹수'를 '예인'에 초점을 맞춰 그려낸 여성 서사는 현대적 해석과 세련미로 관객과 평단의 큰 사랑을 받았다. 캐릭터와 드라마의 유기적 흐름 속에서 구현된 한국 전통 춤사위는 내 · 외국인 모두 아름다운 한국 전통미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정동극장은 2008년 정동극장 〈MISO:미소〉 브랜드의 상설공연을 통한 전통 공연 해외 마케팅의 성공사례로 평가 받은 이후, 〈궁:장녹수전〉을 통해 우리 역사 속 실존인물의 이야기를 새로 쓰는 뉴 브랜드 공연으로서 성공적 평가를 이끌어 내었다.

경주브랜드공연 〈Silla:에밀레〉는 신라 36대 혜공왕과 여인 에밀레의 운명적인 미완성 러브스토리를 성덕대왕신종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인신공희담(人身供犧談) 전설을 배경에 두고 새로이 각색한 창작극이다. 특히 〈에밀레〉는 대형스크린의 범종 영상과 불국사 전경, 이동식 월정교 등의 무대장치로 관객들로 하여금 보는 즐거움을 더욱 극대화하였다. 또한, 혜공왕과 에밀레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갈등과 대립, 희생이라는 극적인 요소를 면밀하게 연결시켜 언어적 의미 전달이 없는 무용극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틱한 연출로 관객들에게 극찬을 받았다. 2019년 〈에밀레〉공연은 경주브랜드공연의 정체성을 극대화 한 작품으로 대외적으로 찬사를 받았으며, 경상북도와 경주시를 대표하는 전통공연 제작극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4-3-23 정동극장 상설공연

궁:장녹수전

〈Silla:에밀레〉

나. 전통레퍼토리 공연 – 〈적벽〉

정동극장은 전통의 현대화 작업을 지속하고, 보다 많은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 전통창작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정동극장만의 제작 플랫폼을 만들고, 우수한 작품을 발굴, 개발, 지속화, 레퍼토리화의 목표를 갖고 사업을 전개해왔다.

2017년 창작ing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적벽〉은 관객 및 평단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며 레퍼토리 공연으로 결정되었다. 전통 기반 공연으로는 드물게 연속 3연 실시, 2019년 객석점유율 84% 달성(초연대비 18% 상승), 전통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중적 인지도 상승에 이바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 이데일리 문학대상 국악부문 상반기 추천작으로 선정되며 '젊고 매서운 작품, 소리와 연기, 춤이 모두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입체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한 판소리 뮤지컬'로 평가받았다.

그림 4-3-24 정동극장 전통레퍼토리 공연

적벽

적벽

다. 창작ing 공모사업 – 공연 〈춘향전쟁〉, 〈낭랑긔생〉, 〈오시에 오시게〉, 〈경성스케이터〉, 대본 〈괴물〉, 〈산홍〉

창작ing 사업은 정동극장 전통공연, 창작자 발굴 플랫폼 및 콘텐츠 제작의 교두보와도 같은 사업으로 폭넓은 전통공연의 수용과 민간단체와의 활발한 협력을 위해 민간, 개인 대상으로 열린 작품 공모를 실시하였다. 공모는 재공연, 신작, 대본 부분으로 나눴으며 장르에 구애 없이 전통적인 요소를 갖춘 작품을 대상으로 두어, 참여의 폭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총 70개의 작품이 공모에 신청 하였고, 이중 공연 4편(춘향전쟁, 낭랑긔생, 오시에 오시게, 경성스케이터), 대본 2편(괴물, 산홍)이 선정되었다. 선정작은 전통 예술의 정신과 형식을 오롯이 담으면서도, 신선한 발상과 형식으로 세련된 감각을 녹여낸 작품들이 뽑혔다.

〈춘향전쟁〉은 영상작업에 소리효과를 담당하고 있는 폴리아티스트를 연상하여 무대화하는 아이디어로 시작된 작품으로, 발상과 소재가 새로운 음악극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제한을 뛰어넘은 음향 퍼포먼스로 신선한 에너지를 선보였다.

〈낭랑긔생〉은 조선 최초의 단발 기생인 강향란을 모티브로 192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 군상들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내는 모습을 극적으로 묘사하였으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실존인물에 대해 재조명하였다. 단편적인 영웅적 인물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현시대를 되돌아 생각하게 하는 시사점을 제시한 작품이다.

〈오시에 오시게〉는 바우덕이 콘텐츠 원형을 새롭게 각색, 작업을 시도하여 우리 공연양식의 고유성을 담아낸 새로운 시도뿐만 아니라, 국악 · 양악의 융합과 다양한 전통 연희의 접목 등 다채로운 극적 형식의 조합을 이루었다.

〈경성스케이터〉는 조선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의 이야기를 소재를 바탕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전통 소리꾼이 극을 이끌어 가는 중심이 되는 특성을 살려, 판소리와 뮤지컬이 결합된 판소리 뮤지컬의 새로운 방향에 걸맞은 작품이란 평가를 받았다.

대본으로 선정된 두 편은 낭독 쇼케이스 형식으로 무대에 올랐다. 〈산홍〉은 여성의 숨겨진 역사적 가치를 부각하고, 이를 전통음악의 요소를 통해 시대를 표현하고자 한 점에 주목하였다. 〈괴물〉은 영국 여성 작가 메리 셸리가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를 배경으로 작가의 삶, 일대기를 모노 판소리극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두 편 모두 낭독 쇼케이스를 통해 작품의 확장, 개발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림 4-3-25 정동극장 창작ing 공연

춘향전쟁

낭랑고생

오시에 오시게

경성스케이터

라. 예술가의 작업실

2017년 첫 선을 보인 프로젝트로 전통 기반 창작공연의 지속적인 소재, 형식, 창작자 발굴 및 개발 시도를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2019년도에는 토크콘서트 형식을 확장하여 19세기 유행한 고소설 및 연희 텍스트를 소재로 낭독에 기반 한 공연을 선보이고 창작과정과 관련된 작업담을 이야기 나누는 형식으로 예술가–극장–관객이 더욱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무대로 구성하였다.

전통 기반 창작음악 예술가와 연극장르 극작가, 연출가의 협업 구조 매칭을 통해 총 4개의 작품을 재해석하였으며 새로운 작업의 씨앗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운영전〉은 안평대군의 통제 아래, 시를 짓는 궁인으로 살아야 했던 운영과 유생 김진사의 안타까운 연애사로 잘 알려져 있다. 판소리적 시선으로 확대 재구성하였으며 민요, 정가 등 다양한 창법을 활용해 원작에 드러난 시가 가진 운율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였다.

〈방한림전〉은 남장여자인 방한림의 출세기를 중심으로 방한림과 여혜빙이라는 두 여성이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모습까지 그려낸 독특한 소설이다. 필사가들의 손을 거치며 수 많은 미상의 작가들이 고치고 덧대어 나갔으리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창작자들의 해석으로 이야기를 고쳐 도발적 상상력을 지금의 상황에 적용해 전통음악그룹 '아마씨'의 음악으로 풀어냈다.

〈채봉감별곡〉은 갖은 역경을 딛고 연인과의 사랑을 채취해나가는 것으로 알려진 채봉의 삶을

연극적 기능을 더하여 재해석하였다. 보통 1인 소리꾼으로 이뤄지는 판소리를 2인 화자로 시도하여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려는' 실험을 선보였다.

〈취발이외전〉은 전통탈춤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탈춤의 대사들 속에 드러난 남성 중심의 위계질서를 여성 탈꾼의 시선을 통해 탈춤이 동시대적 가치관과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가 엿보이는 작품이다.

그림 4-3-26 **예술가의 작업실 공연**

운영전

방한림전

채봉감별곡

취발이외전

마. 청년국악인큐베이팅사업 〈청춘만발〉

30세 이하 국악전공의 젊은 창작자들에게 '첫 무대'를 지원하는 국악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총 14개의 팀을 선정하였다.

정동극장은 정동마루 공간 지원, 전문 기술인력 및 장비 지원, 홍보 마케팅 등 젊은 창작자들에게 공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한다. 또한,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진 · 영상물을 제공하고 전통분야의 전문 연출가와 멘토링 시간을 마련하여 50분 내외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청춘만발〉 공연은 실연심사를 진행하였고, 우수아티스트 4팀(Korean Gipsy 상자루, 길따라 프로젝트, 이나연, 창작음악그룹 ONE)을 선발하여 '청춘만발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공연 활동 기회를 제공하였다. 최종 올해의 아티스트 1팀은 '이나연'이 선정되었고, 선정된 '최우수 아티스트' 1팀과 '우수아티스트' 4팀에게는 창작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청춘만발〉은 2017년 사업을 시작하여 3회를 맞아, 공모사업 외에 2017년~18년 참여팀의 갈라 콘서트를 4회차 기획하여 젊은 국악인들의 향상된 역량을 엿볼 기회도 마련하였다.

그림 4-3-27 정동극장 공연사업

청춘만발

청춘만발

표 4-3-17 정동극장 관객 현황

분야	2018년				2019년			
	작품수	공연 횟수	관람객수 (명)	객석점유율 (%)	작품수	공연 횟수	관람객수 (명)	객석점유율 (%)
상설공연	1	155	19,644	49.5%	1	179	18,753	40.9%
전통레퍼토리	2	64	12,390	75.5%	1	38	8,453	83.6%
창작ing 시리즈	3	56	5,703	40.8%	4	80	11,672	54.8%
정동마루 시리즈	3	23	1,256	109.2%	5	34	1,776	104.5%
외주공연	–	8	4,545	–	–	3	926	–
해외공연	–	7	9,800	–	–	–	–	–
예술마당	–	4	1,248	–	–	14	3,847	–
문화특활	–	2	367	–	–	–	–	–
계	9	319	54,953	–	11	348	45,427	–

※ 외주공연: 외부공연, 특별공연 등

표 4-3-18 정동극장 경주사업소 관객 현황

분야	2018년			2019년		
	공연횟수	관람객수 (명)	객석점유율 (%)	공연횟수	관람객수 (명)	객석점유율 (%)
상설공연	150	8,702	12.7%	168	9,995	13.0%
외주공연	–	–	–	17	9,700	–
찾아가는 공연	26	13,680	–	16	9,535	–
계	176	22,382	–	201	29,230	–

※ 외주공연: 외부공연, 특별공연 등

8) 서울예술단

(1) 조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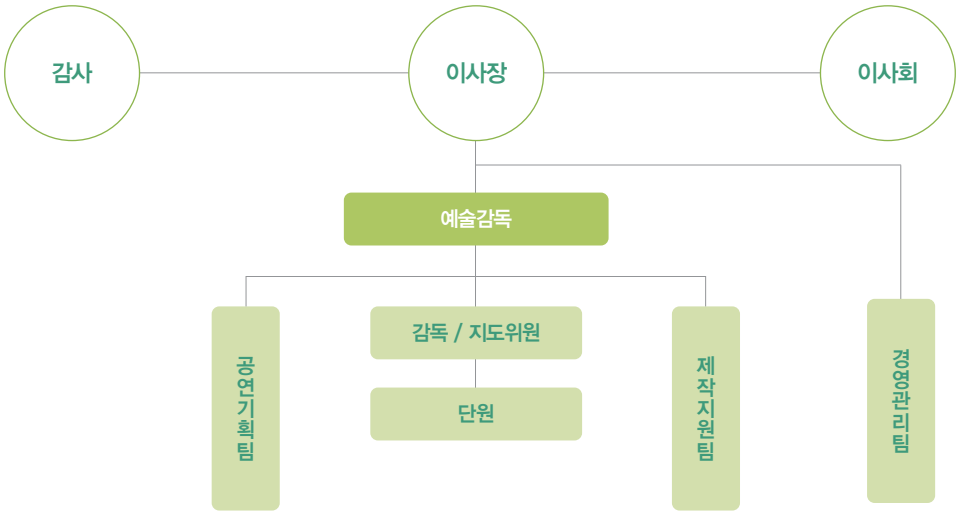
서울예술단은 1985년 남북 예술단 교환 공연 후 남북 간 문화 동질성 회복과 문화예술교류, 국가적 주요행사를 위한 대형 종합예술단체 육성의 필요에 의해 1986년 8월 1일 '88서울예술단'으로 창단되었으며 1990년 문화부 산하단체 재단법인으로 독립하였다.

서울예술단은 '가무극'이라는 예술형식을 통해 한국적 소재를 기반으로 한 현대적이고 완성도 높은 창작공연콘텐츠를 제작하여 관객들에게 한국적 감성을 찾아주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공공예술단체로서 지방순회공연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기여하였다.

공연예술의 새로운 흐름에 부합한 한국적 창작가무극 레퍼토리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연예술 인재양성, 관객개발 개발 등 한국 공연예술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서울예술단의 조직은 공연기획팀, 제작지원팀, 경영관리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임직원 13명, 단원 53명을 포함하여 총 66명의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9년도 총예산은 83억 9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 감소하였다. 수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8억 58백만원의 지원금과 자체수입 25억 37백만원이고, 지출예산에는 사업비 42억 57백만원, 인건비 28억 72백만원, 경상비 12억 66만원이다.

그림 4-3-28 서울예술단 조직도



※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 순환 로 2406 예술의전당내

※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spac.or.kr

(2) 주요성과

서울예술단은 한국적 음악극이라 할 수 있는 '가무극'을 통해 한국적 소재를 기반으로 현대적이고 완성도 높은 창작공연을 제작하고 있다.

2019년에도 한국적 소재를 기반으로 한국적 가치를 담은 '창작가무극' 4편을 제작하였고, 국립국악원과의 협업을 통해 〈굿 세워라 금순아〉라는 투어용 공연을 제작했다. 세대 계층 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윤동주, 달을 쏘다〉를 9개 지역 총 17회에 걸쳐 지역공연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창작가무극의 해외 진출을 위해 상하이 K-뮤지컬 로드쇼 〈나빌레라〉 쇼케이스 및 아란케이 자선콘서트 등에 참여했으며, 2020년 대만 가오슝 국립극장에 〈신과 함께_저승편〉, 〈신과 함께_이승편〉을 동시 초청받으며 예술한류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가. 창작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

레퍼토리 〈윤동주, 달을 쏘다.〉는 2012년 초연이후 다섯 번째 재공연까지 이어온 서울예술단을 대표하는 레퍼토리로서 3 · 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에 맞춰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우리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공연으로 주목 받았다.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에서 3월 5일~3월 17일까지 12일, 18회의 공연을 관객에게 선보였다.

윤동주 시인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 동시대 청년과 학생, 문인의 고민과 시련을 표현한 대표적 공연물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인지도 높은 레퍼토리 공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지난 공연대비 최다 매출을 기록하는 등 꼭 봐야하는 서울예술단 명품공연으로 자리매김했다.

나. 창작가무극 〈나빌레라〉

신작 〈나빌레라〉는 '연재 랭킹 1위', '독자 평점 1위'인 다음 웹툰 〈나빌레라〉를 무대화하며 순수장르인 '발레'를 소재로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한국판 '빌리 엘리어트'라는 실험적 작품에 도전하며 전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참신한 신규 콘텐츠 발굴에 앞장서며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에서 5월 1일~5월 12일까지 11일, 16회의 공연을 관객에게 선보였다.

〈나빌레라〉는 개인적 취향을 개발할 기회나 노후의 삶을 구상할 여유도 없는 한국사회에서 일흔의 나이에 발레에 도전하는 덕출을 통해, 자신만의 꿈에 도전하는 희망적인 메시지 전달하고 가족의 의미를 되살리며 현대인들의 공감대와 정서를 터치한 감동적 소재로 서울예술단의 공연콘텐츠 창작 저력을 증명하였다.

다. 창작가무극 〈신과 함께_이승편〉

신작 〈신과 함께_이승편〉은 예술단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한 〈신과 함께_저승편〉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 작품으로, 점점 사라지고 있는 한국 고유의 가택신앙과 도시화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약자에 대한 현시대의 사회적 이슈를 심도있게 다루며 LG아트센터에서 6월 21일~6월 29일까지 8일, 11회의 공연을 관객에게 선보였다.

공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신과 함께〉 시리즈를 제작하며 시리즈물 작품 제작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만 공연 초청을 통해 글로벌 버전의 신규 제작사업 활로를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라. 창작가무극 〈다윈 영의 악의 기원〉

레퍼토리 〈다윈 영의 악의 기원〉은 초연 당시 짧은 공연 기간에도 불구하여 90% 이상의 높은 객석 점유율을 기록하며 한국의 영어덜트 장르 개척으로 공연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 초연과 동일한 캐스팅과 보강된 음악, 추가된 넘버 등으로 2019년 재연이 기대되는 작품으로 부각되며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에서 10월 15일~10월 27일까지 12일, 18회의 공연을 관객에게 선보였다.

〈다윈 영의 악의 기원〉은 더욱 깊어진 연출과 음악 그리고 한층 탄탄해진 드라마로 완성도를 높이며 지난해 초연에 이어 재연도 호평을 받으며 대중성과 작품성을 갖추며 예술단의 경쟁력 있는 새로운 레퍼토리 브랜드화 구축에 기여했다.

그림 4-3-29 한국 창작 가무극 제작

〈윤동주, 달을 쏘다.〉

〈나빌레라〉

〈신과 함께_이승편〉

취발이외전〈다윈 영의 악의 기원〉

표 4-3-19 서울예술단 주요 추진 성과

분야	2018년				2019년			
	작품수	공연(교육) 횟수	관람객수 (명)	객석점유율 (%)	작품수	공연(교육) 횟수	관람객수 (명)	객석점유율 (%)
정기공연	4	75	30,718	81.8	4	63	41,462	92.5
지역공연	1	4	2,517	59.4	1	17	13,417	70.1
국제교류	1	1	1,893	–	1	1	1,126	80.4
예술교육	–	4	149	–	–	–	–	–
계	6	84	35,277	–	6	81	56,005	81.0

9) 예술경영지원센터

(1) 조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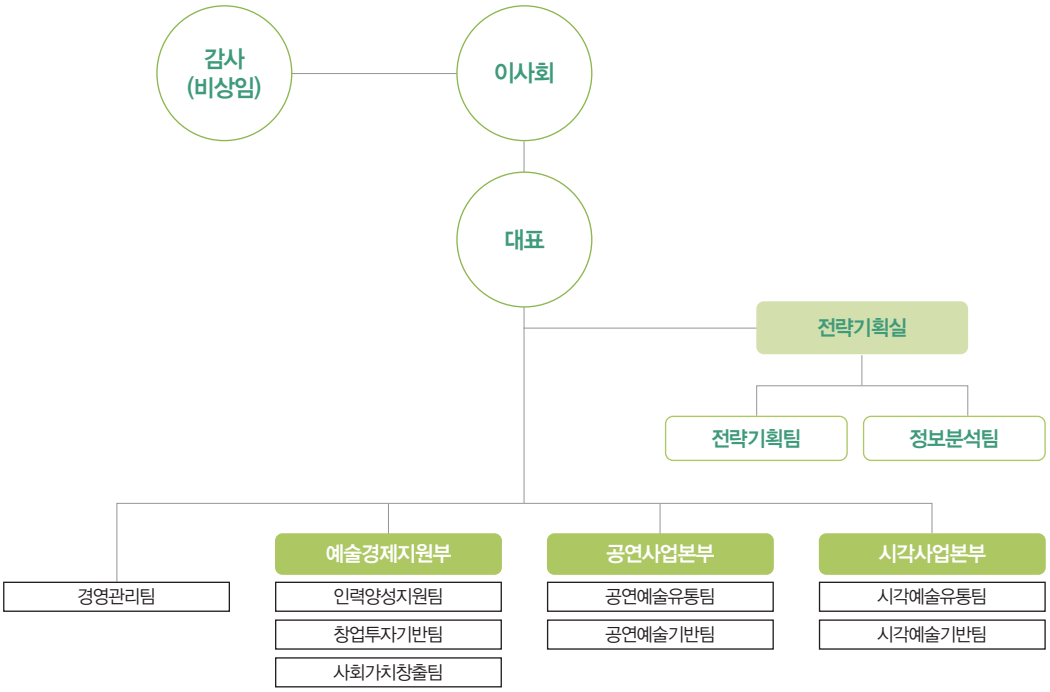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예술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2006년 1월 12일에 설립되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주요기능 및 역할은 예술 유통구조의 체계화 및 활성화 지원, 예술기관 운영 및 경영 관련 컨설팅, 예술기관 경영인력 양성 및 지원, 예술분야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국내외

예술시장정보의 구축 · 관리 · 활용, 서울아트마켓 개최 및 운영, 기타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간접 매개지원 사업 등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이사장 1인(비상임), 대표(상임) 1인, 비상임이사 9인(선임직7 · 당연직2), 감사 1인(비상임)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직제는 1실 3본부 10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은 전략기획실, 예술경제지원본부, 공연사업본부, 시각사업본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4-3-30 예술경영지원센터 조직도



(2) 주요성과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 단체를 비롯한 예술분야 단체 · 기관 ·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기관설립 이후부터 문화예술 기관 · 단체 설립, 법률, 세무 · 회계, 재원조성, 인사 · 노무, 저작권 · 계약, 국제교류, 문화예술정책 · 제도 분야의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총 1,202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예술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예술, 기술, 비즈니스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전공자들이 모여 예술 기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예술해커톤'을 2016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2019년에는 〈공연정보데이터〉, 〈아트센터 고객서비스〉를 주제로 개최하여 22개의 아이디어가 발굴되었다. 예술분야 전문 기획사 육성을 위해 2019년에는 9개 기획사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여 선정기업의 총 매출액이 전년대비 126%, 신규 고용창출이 143%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예술분야

투자유치대회를 개최하여 7개사가 수상하였고, 이 중 대상을 수상한 ㈜주스는 이후 약 51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 유치 지원을 위해 11개사를 선정, 최종 6건의 펀딩이 오픈되었으며, 총 1억 5천 8백만원을 유치하였다. 예술의 부가가치 제고 및 시장성 있는 상품 확산을 위해 21개 기업에 총 67종의 예술상품 개발을 지원하였고, 다양한 유통처를 통해 총 1억 6천 7백만원의 판매매출이 이루어졌다.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에 자금 및 컨설팅을 연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였다.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12개팀의 창업과정전반을 지원하였고, '초기 기업 사업기반 구축 지원'을 통해 11개 기업의 사업 안정화를 지원하였으며, '성장 · 성숙기 기업 사업도약 지원' 사업으로 10개 기업의 사업 확장 및 자원 연계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초기 기업은 전년대비 140% 매출 증가, 50명 일자리 창출, 1천만원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성장기 기업은 141% 매출 증가, 34명 일자리 창출, 37억원 투자 유치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전국 1,350개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문화예술분야 조직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에 대한 측정 지표 연구를 통해 사회성과 측정 기반을 마련하였다.

예술분야 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박람회 '문화예술 JOB으로 가자'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공공 · 민간의 총 45개 기업 · 기관과 함께 취업희망자 479명이 참여해 총 1,165건의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또한, 예술분야 단체 · 기관 · 기업의 현장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2007년부터 '예술경영아카데미'를 기획 ·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기획경영, 홍보마케팅 유통, 투융자, 조직관리, 예술과 기술 융합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25개 교육과정을 운영, 총 990명의 교육생이 참여하였다. 특히, 2019년부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뉴미디어 등 기술관련 교육을 신설하여 현장종사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으며, '문화예술 유통 · 소비 활성화를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방안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다.

표 4-3-20 2006~2019년 예술경영 컨설팅 건수

연도	수시 컨설팅 (온라인, 전문기관연계형)	맞춤형 전략 컨설팅 (지역, 재원조성, 홍보마케팅 등)	합계
2006	53	14	67
2007	101	15	116
2008	153	100	253
2009	354	83	437
2010	698	138	836
2011	561	320	881
2012	566	380	946
2013	575	169	744

연도	수시 컨설팅 (온라인, 전문기관연계형)	맞춤형 전략 컨설팅 (지역, 재원조성, 홍보마케팅 등)	합계
2014	556	212	768
2015	616	596	1,212
2016	683	788	1,471
2017	675	416	1,091
2018	689	420	1,109
2019	366	836	1,202
합 계	6,646	4,487	11,133

표 4-3-21 2007~2019년 예술경영아카데미 수강자 수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과정수(개)	5	20	29	23	14	15	22	26	23	15	27	25	25	269
수강자수(명)	375	706	1,802	1,740	882	819	946	1,115	1,275	1,198	1,189	1,171	990	14,208

표 4-3-22 2016~2019년 예술 해커톤 성과

연도	개최 수	참가팀 수	참가자 수	창업 아이디어 발굴 수
2016	4회	44팀	187명	44개
2017	2회	15팀	75명	15개
2018	2회	19팀	113명	19개
2019	2회	22팀	116명	22개
합 계	10회	100팀	491명	100개

표 4-3-23 2015~2019년 예술경영 취업교육 · 취업컨설팅 성과

연도	참가자 수	컨설팅 건수	기관, 단체, 기업 컨설팅 부스 수
2015	325명	152건	12개
2016	702명	351건	25개
2017	531명	421건	30개
2018	337명	586건	39개
2019	795명	1,311건	45개
합 계	2,690명	2,821건	151개

예술경영지원센터는 투명한 예술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술시장 정보를 생산 · 관리 · 확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연 · 미술시장 규모 및 각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공연예술실태조사(통계청 승인통계)'와 '미술시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공연소비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과 미술작품 거래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K-ARTMARKET)'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8년 12월 공연법 일부 개정으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전국적인 공연정보와 입장권 예매 · 취소 정보 수집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예술경영 전문매체 '웹진 예술경영'과 공연예술 국제교류 정보플랫폼 '더아프로(TheApro)', 한국 현대미술 포털 '더아트로(TheArtro)' 운영을 통해 예술현장 · 정책 등 시의성 있는 콘텐츠를 생산 · 제공하고 있다.

표 4-3-24 국내 공연시장 규모 추이(2008~2018)

(매출액 기준, 단위: 억원)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연시설	2,304	3,274	3,772	3,689	3,874	3,434	3,500	3,395
공연단체	2,322	2,219	3,358	3,904	3,940	4,045	4,632	4,837
합계	4,626	5,493	7,130	7,593	7,814	7,479	8,132	8,232

※ 2009~2019 공연예술실태조사 기준

표 4-3-25 국내 미술시장 규모 추이(2009~2018)

(작품거래금액 기준, 단위: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주요유통영역	3,216	3,798	3,774	3,668	2,557	2,884	3,402	3,425	3,906	3,239
공공영역	869	1,038	948	737	692	612	501	539	1,036	1,242
합계	4,085	4,836	4,722	4,405	3,249	3,496	3,903	3,964	4,942	4,481

※ 2010~2019 미술시장실태조사 기준

표 4-3-26 예술경영 및 국제교류 콘텐츠 생산 · 제공

매체명	구분	내용	콘텐츠 수집방법	비고
기관 홈페이지	국 · 영문	기관 사업소개, 현장소식 등	수집/생산	수시
웹진 예술경영	국문	예술경영 이슈, 사례, 정보 제공	수집/생산/배포	매월 2 · 4주(목) 월 평균 10건
더아프로 (TheApro)	국 · 영문	한국 공연예술 작품, 인물, 이슈, 정보 게시 등	수집/생산	월 1회, 월 평균 20건
더아트로(TheArtro)	국 · 영문	국내외 시각예술계 전시, 인물, 이슈, 정보 게시 등	수집/생산	매주 3회 업데이트, 월 평균 30건

공연예술 유통 플랫폼 강화를 위하여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서울아트마켓(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 PAMS)'을 2005년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2019년에 총 8개의 쇼케이스를

선정하여 선보였고, 국내외 1,559명의 공연예술 전문가가 행사에 참여하였다. 또한, 2018년부터는 대한민국의 대표 국제공연예술축제인 '서울국제공연예술제(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SPAF)'를 '서울아트마켓'과 동기간에 진행하고 있다.

표 4-3-27 공연예술 국제 유통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연도	서울아트마켓 쇼케이스 선정 작품 수					선정단체 연도별 사후 해외진출 성과	
	연극	무용	음악	복합	총계	단체수	해외진출 건수
2005	5	2	4	2	13	–	–
2006	9	12	4	4	29	10	14
2007	4	8	3	3	18	26	86
2008	4	5	3	4	16	34	78
2009	4	6	3	2	15	28	106
2010	2	4	4	3	13	29	110
2011	4	4	4	1	13	28	116
2012	3	3	4	3	13	38	125
2013	2	2	4	2	10	41	131
2014	3	3	3	1	10	30	112
2015	3	4	4	2	13	34	161
2016	5	5	4	4	18	50	164
2017	6	4	4	4	18	19	122
2018	6	5	3	2	16	33	125
2019	1	3	3	1	8	22	130
누계	61	70	54	38	223	422	1,580

공연예술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의 결과로 샤르자월드뮤직페스티벌(아랍에미리트), 국립가오슝공연예술센터(대만), 링컨센터(미국), 이즈미르 국제 인형극 축제(터키), 국제 현대 서커스 축제 '레메' (포르투갈), 시겟축제(헝가리), 오픈룩축제(러시아), 교토익스페리먼트(일본) 등 세계 유수 공연장 및 축제에서 한국특집 '센터스테이지코리아(Center Stage Korea)'를 개최하였다. 또한, '해외 월드뮤직시장 전문가 및 언론 네트워크 구축지원(Journey to Korean Music)을 운영하여 한국 전통공연 예술단체의 해외 프로모션 진출을 돕고 있다. 그 성과로 세계적인 음악마켓인 월드뮤직엑스포(WOMEX)에 2012년 이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단체가 8년 연속 공식 쇼케이스에 선정되는 등, 전통에 기반을 둔 신진 단체 및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외 축제 · 공연장 · 매체 등에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표 4-3-28 2011~2019년 센터스테이지코리아 수혜단체 외화 수입

(단위: 천 원)

진출연도	구분	공연료수입	기타수입	비고
2011	13개 단체/82회 공연	151,560	46,698	티켓수익 분배 등
2012	21개 단체/116회 공연	308,288	179,935	숙박 및 일비 등 기타
2012	21개 단체/118회 공연	308,288	179,935	숙박 및 일비 등 기타
2013	16개 단체/63회 공연	309,963	85,984	숙박 및 일비 등 기타
2014	23개 단체/172회 공연	497,173	61,640	숙박 및 일비 등 기타
2015	33개 단체/146회 공연	448,098	139,177	숙박 및 일비 등 기타
2016	35개 단체/188회 공연	579,867	48,731	일비 및 음반판매 등 기타
2017	44개 단체/205회 공연	1,094,971	29,138	일비 및 음반판매 등 기타
2018	46개 단체/206회 공연	628,506	37,002	일비 및 음반판매 등 기타
2019	50개 단체/205회 공연	759,434	26,506	일비 및 음반판매 등 기타

국내 전문가의 해외 시장 조사 및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하는 '공연예술 해외진출 기반마련 사업(KAMS Connection)'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노르딕 4개국 5개 연합기관 '노르딕 컴바인'(퍼포밍아츠허브노르웨이, 스웨덴예술위원회, 덴마크예술재단, 댄스인포핀란드, 서커스인포핀란드)을 비롯, 이탈리아 바사노델그라파 현대공연예술센터, 리투아니아문화원, 스위스예술위원회 등 총 8개 기관과 협력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의 시장조사와 네트워킹을 지원하였다. 또한, 기존 리서치를 통해 개발된 프로젝트 중 우수작을 사후 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 전문가들의 국제교류 및 협력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창작뮤지컬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제 4회 K-뮤지컬 로드쇼를 개최하였다. 2016년 한국 뮤지컬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시작된 본 행사는 2018년부터 중국의 대표 극장인 상하이문화광장과 행사를 공동주최하여 중국 대표 뮤지컬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크레이티브와이의 〈땡큐 베리 스트로베리〉, 과수원뮤지컬컴퍼니의 〈루드윅〉, (유)브러쉬씨어터의 〈리틀 뮤지션〉, 라이브(주)의 〈마리퀴리〉, 서울예술단의 〈나빌레라〉, EMK 인터내셔널의 〈엑스칼리버〉, 총 6개 작품의 쇼케이스를 진행하였다. 특히 2019년은 중국 뮤지컬 제작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강화하여 한국 창작뮤지컬의 중국진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각예술분야에 있어서는 미술품 판매 기회가 없는 대다수 작가들(전체 작가의 약 96%)의 미술품 판로개척 지원 및 국민의 미술품 소장문화의 확산과 대중화를 위해 2015년부터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장터를 비수도권으로 확대하여 지역 미술시장의 저변 확대와 신규 컬렉터 개발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총 16개 단체(서울 · 부산 6개, 서울 · 부산 외 10개)를 선정하여 27개소의 미술장터를 개설하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7천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였으며 총 97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사업은 작가와 화랑 · 대여업체의 온라인 홍보 및 매칭 플랫폼인 「미술공유서비스」 누리집(www.k-artsharing.kr)에 등록된 신진작가의 신진작가의 아트페어 등 국제 미술행사 특별전을 지원하는 '아트페어 신진작가 특별전 지원' 공모와 학교 · 병원 등 공공시설에 미술품 대여 · 전시를 지원하는 '미술품 대여 및 전시 지원' 공모로 이루어져 있다. 2019년에는 국내 아트페어에서 열리는 신진작가 특별전을 지원하였으며, 이외에도 수도권, 광역시 이외 지역의 대여 · 전시 진행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수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총 31개 공공기관에서 신진작가 전시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문화소외 지역의 미술품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였다.

'미술주간'은 미술문화의 일상화와 향유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미술행사이다. 미술주간 기간(2019년 9월 25일 ~ 10월 9일, 총 15일) 동안 미술을 어렵게 느끼는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고 미술 감상 및 미술시장의 친숙함 제고를 위해 '미술관 가자', '미술품 사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미술관 가자'는 미술관과 전시공간의 무료 및 할인 입장, 미술관의 밤, 미술여행 등의 행사로 이루어지며, '미술품 사자'는 미술시장 및 작품 구매 경험을 위한 통로를 제공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전국 국 · 공 · 사립미술관, 화랑, 비영리전시공간 등 258개의 미술기관이 참여, 전시,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46,018명의 관람객이 미술문화를 즐겼다. 또한, 국내 유료 비엔날레와 아트페어를 하나의 입장권으로 묶어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미술주간 통합패스를 제작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하여 할인 철도패스 '미로랑'을 개시하였다.

한국미술의 중장기적 진흥을 위하여 미술 생태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합적인 감정 및 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미술품 감정 · 유통 인력양성, 연구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 사업을 운영한다. 2019년까지 박서보, 김구림, 이건용, 윤명로, 안창홍 등 총 20명의 작가를 선정하였으며,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을 통해 구축된 자료는 국 · 영문으로 온라인에 제공, 한국 작가들을 해외에 홍보하는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한국미술의 담론 창출과 해외 홍보를 위한 다양한 연구, 해외출판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미술 자료의 올바른 번역과 정보전달을 위한 '20세기 한국미술 다국어(영문, 중문, 일문) 용어집'을 온라인 사전 형식으로 제작하여 번역가, 해외 한국미술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후(戰後)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미술을 재검토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며 담론을 창출하는 '한국미술 다시보기 프로젝트-다시, 바로 함께 한국미술'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트바젤홍콩, 피악 등 해외 주요 아트페어에 역량 있는 한국 화랑의 참가를 지원하여 국내 화랑의 해외 판로개척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보다 많은 한국 작가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고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외 미술기관을 통해 기획 · 개최되는 한국작가의 전시를 지원하고 있다. 시각예술 분야 전시를 기획 · 개최하는 해외 영리 · 비영리 미술기관으로부터 직접 지원신청을 받는 해외공모 사업으로 한국 작가를 초청 혹은 한국 미술기관과 협력하여 전시를 기획하거나 한국작가의 커미션 작품을 제작 · 전시하는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이다. 2019년에도 꾸준한 관심으로 80건 이상의 해외미술기관(전시)이 기금 지원을 신청하여 한국작가(미술)에 대한 해외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였다. 이에 해외 미술기관이 한국작가를 초청하는 기획전시 수를 전략적으로 촉진시켜 현지 컬렉터에게

지속적으로 한국미술이 소개 및 거래될 수 있는 장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시에 참여한 한국 작가들이 추후 세계 톱 아트페어에 참여하거나 다른 해외기관 전시에 초청받는 등의 활발한 후속 활동 역시 유의미한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은 신진작가의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조성하고 화랑의 작가 발굴 · 육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에 신설되었다. 신진작가와 전속계약을 맺고 창작활동비를 지급하는 중소규모 화랑을 지원하고 작가에게 안정적 창작환경을 제공하여 우수한 작품이 전속화랑의 매출로 연결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1,000여명의 작가가 지원하였으며, 이 중 총 80명의 작가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42개의 화랑 · 비영리전시공간이 공모에 선정되었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10개월 동안 매달 창작활동비가 지급되었으며 화랑에게는 1회의 작가홍보비가 지원되었다. 이외에도 전속화랑에게 법무, 홍보 등 실무 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화랑의 작가 육성 역량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개발한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법률 지원이 시급한 예술인의 서면 계약 체결률을 제고시키는데 일조하였다.

10) 예술의전당

(1) 조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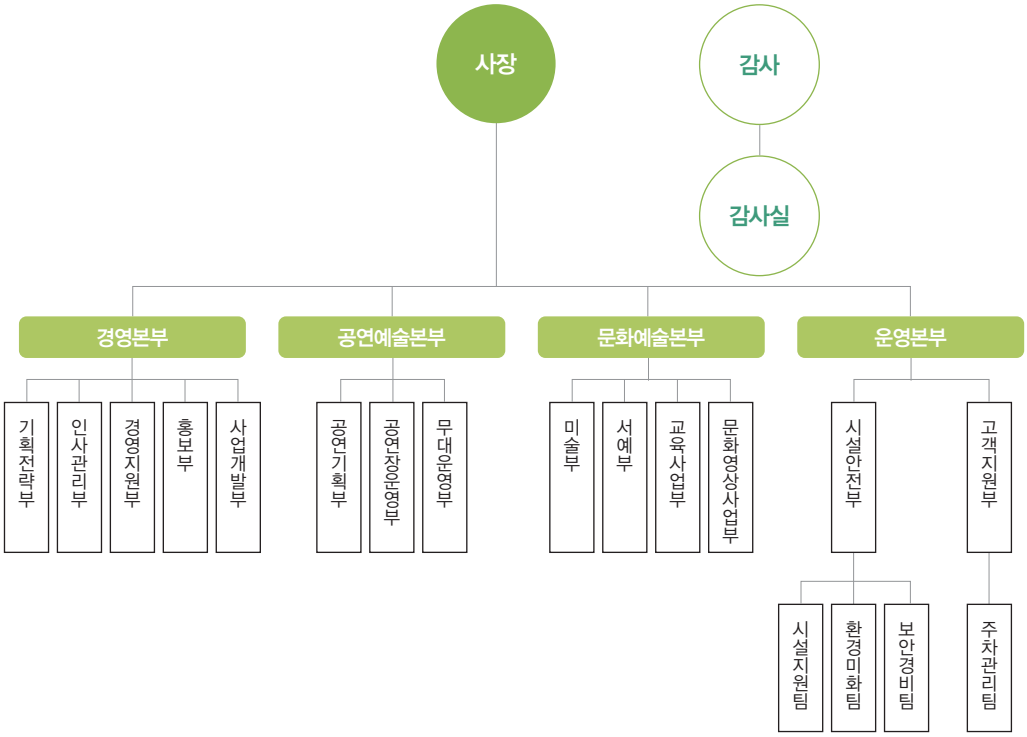
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87년 재단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1988년 음악당과 서울서예박물관 개관, 1993년 오페라하우스 등 전관 개관을 맞으며 국내 최대의 복합 예술 공간이자 최초의 장르별 전문 공연장으로 탄생하였다. 1982년 종합문화센터를 구상한 이래 10년이 넘는 역사 끝에 그 모습을 드러낸 예술의전당은 현재 오페라하우스에 위치한 오페라극장, CJ토월극장, 자유소극장과 음악당에 위치한 콘서트홀, IBK챔버홀, 리사이틀홀 등 총 6개 공연장과 한가람미술관, 한가람디자인미술관, 2016년 재개관한 서울서예박물관 등 3개의 미술관 및 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특수법인으로 법인격을 변경하였고 2017년 관람객 5천만 명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대표 예술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예술의전당은 이사장, 사장, 비상임 이사, 비상임 감사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직제는 4본부 14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본부는 기획전략부, 인사관리부, 경영지원부, 홍보부, 사업개발부로 구성되어 있고, 공연예술본부는 공연기획부, 공연장운영부, 무대운영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본부는 미술부, 서예부, 교육사업부, 문화영상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운영본부는 시설안전부와 고객지원부, 그리고 시설지원팀, 환경미화팀, 보안경비팀, 주차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의전당은 총 정원 381명으로, 사장 1명, 1급 2명, 2급 7명, 3급 16명, 4급 38명, 5급 33명, 6급 30명, 무기계약직 254명의 정원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예술의전당 2019년도 예산은 437.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자체수입금이 316.7억 원이다. 수입예산 중 예술사업(대관, 부대사업 포함) 수입은 266.2억 원으로

60.8%를 차지하며, 지출예산 중 예술사업비(대관, 부대사업 포함)는 113.2억 원으로 25.9%를 차지한다.

그림 4-3-31 예술의전당 조직도



*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2406

** 자료: 누리집(www.sac.or.kr)

표 4-3-29 2019년 예술의전당 예산 실적

(단위: 천 원)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 국고보조금수입	12,088,000		
• 예술사업수입	9,644,000	• 예술사업비	7,303,000
– 공연사업	5,083,000	– 공연사업	4,592,000
– 전시사업	1,170,000	– 전시사업	808,000
– 교육사업	3,391,000	– 교육사업	1,903,000
• 부대사업수입	4,010,000	• 부대사업비	1,620,000
• 대관사업수입	12,968,000	• 대관사업비	2,399,000
• 임대사업수입	4,270,000	• 관리운영비	9,233,000
• 기타수입	668,000	• 임대사업비	27,000
• 이자수입	113,000	• 기타사업비	71,000
		• 경상운영비	13,815,000
		• 공간유지비	8,909,000
		• 예비비	384,000
합계	43,761,000	합계	43,761,000

예술의전당 총 면적은 166,478㎡이고 건축 연면적은 121,716㎡이다. 이 부지 위에 오페라극장, CJ토월극장, 자유소극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 IBK챔버홀, 리사이틀홀로 구성되어 있는 음악당이 자리하고 있다. 시각예술을 위한 한가람미술관, 서울서예박물관, 한가람디자인미술관과 각종 야외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신세계 스퀘어와 야외무대, 방문객의 휴식을 위한 다양한 문화광장으로 옥외공간이 꾸며져 있다. 특히, 서울서예박물관은 2016년 리모델링을 거쳐 재개관하며 세계 서(書)와 문자예술 중심의 전문 뮤지엄으로 다시 태어났다. 실험 · 현대 · 역사로 전시장을 특성화하고, 아카이브 신설, 수장시설 전문화 등을 이루었다.

표 4-3-30 예술의전당 공간 개요

공간내용	규모		비고
오페라하우스 43,870㎡	오페라극장 CJ토월극장 자유소극장	2,283석 1,004석 241석	공연예술공간 – 오페라, 발레, 무용, 연극 등
음악당 19,950㎡	콘서트홀 IBK챔버홀 리사이트홀	2,523석 600석 354석	관현악, 독주, 실내악 등
한가람미술관 15,744㎡	전시실 강의 실기실	6실 4실	기획, 대관전시, 교육
서울서예박물관 8,530㎡	전시실 강의 실기실	2개 층 5실	기획, 대관전시, 교육
한가람디자인미술관 11,854㎡	전시실 강의 실기실	3실 5실	기획, 대관전시, 교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자료실
카페 모차르트 243㎡	주방시설 및 좌석 100여 석		휴게시설
문화광장, 기타공간 22,000㎡	음악광장, 미술광장, 계단광장 세계음악분수, 우면지 신세계 야외무대(551㎡/1,000석)		야외공연, 행사, 음악분수쇼, 휴게공간 등

표 4-3-31 예술의전당 기획행사 총괄(2010~2019)

구분		공연	전시	행사
2010년	행사내역	22건 총 152회	15건 938일	옥외: 16회
	공간별 내역	• 오페라하우스: 5건 64회 • 음악당: 17건 88회	• 미술관: 10건 776일 • 서예관: 5건 162일	
2011년	행사내역	26건 230회	19건 544일	옥외: 10회
	공간별 내역	• 오페라하우스: 9건 94회 • 음악당: 17건 136회	• 미술관: 13건 414일 • 서예관: 6건 130일	
2012년	행사내역	28건 237회	22건 828일	옥외: 28회
	공간별 내역	• 오페라하우스: 11건 143회 • 음악당: 17건 94회	• 미술관: 16건 593일 • 서예관: 6건 235일	

구분		공연	전시	행사
2013년	행사내역	57건 446회	12건 483일	옥외: 14회
	공간별 내역	• 오페라하우스: 36건 355회 • 음악당: 21건 91회	• 미술관: 10건 410일 • 서예관: 2건 73일	
2014년	행사내역	47건 384회	13건 416일	옥외: 13회
	공간별 내역	• 오페라하우스: 27건 289회 • 음악당: 20건 95회	• 미술관: 10건 324일 • 서예관: 3건 92일	
2015년	행사내역	44건 482회	8건 384일	옥외: 19회
	공간별 내역	• 오페라하우스: 27건 392회 • 음악당: 17건 90회	• 미술관: 8건 384일 • 서예관: 0건 0일	
2016년	행사내역	20건 251회	11건 512일	옥외: 13회
	공간별 내역	• 오페라하우스: 8건 148회 • 음악당: 12건 103회	• 미술관: 7건 312일 • 서예관: 4건 200일	
2017년	행사내역	23건 276회	18건 719일	옥외: 10회
	공간별 내역	• 오페라하우스: 12건 192회 • 음악당: 11건 84회	• 미술관: 8건 336일 • 서예관: 10건 383일	
2018년	행사내역	22건 251회	13건 431일	옥외: 6회
	공간별 내역	• 오페라하우스: 11건 170회 • 음악당: 11건 81회	• 미술관: 5건 177일 • 서예관: 8건 254일	
2019년	행사내역	37건 407회	9건 376일	옥외: 6회
	공간별 내역	• 오페라하우스: 24건 336회 • 음악당: 13건 71회	• 미술관: 4건 204일 • 서예관: 5건 172일	

※ 기획행사는 예술의전당 자체 기획행사와 공동주최 행사를 포함한 수치이며, 미술관 전시 내역은 한가람미술관과 디자인 미술관 전시행사를 합친 수치임.

(2) 주요성과

2019년은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Generation'을 테마로 하여 예술의전당 음악당 대표 레퍼토리에 내실을 기하고 신규 프로그램에는 참신함을 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마티네 콘서트의 대명사인 〈11시 콘서트〉는 젊은 지휘자들이 대거 포디엄에 올라 'New Generation'의 힘을 보여주고, 〈토요콘서트〉는 깊이를 더해 프로그램을 관객에게 소개하였다. 예술의전당 최장수 프로그램이기도 한 〈교향악축제〉는 2019년 30주년을 맞아 국내교향악단 17개팀을 초청하고, 아시아 대표 오케스트라 초청 일환으로 중국 국가대극원 오케스트라를 국내 관객에게 소개하며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협연자들과 함께 감동적인 연주를 선보였다. 2013년부터 시작하여 국내 콘서트 오페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2019 콘서트오페라는 푸치니의 〈토스카〉를 기획, 해외 메이저 극장에 출연하는 최고 수준의 성악가와 함께 공연하며 상반기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았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개최되는 〈아티스트 라운지〉는 전석 1만원이라는 저렴한 티켓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장르, 새로운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공연장 문턱을 낮추는데 기여하였다. 11월에 진행한 〈대학오케스트라 축제〉는 '젊음, 클래식을 채우다!'라는 부제로 총 7개 대학교 오케스트라가 출연하여 장차 우리나라 클래식계를 이끌어갈 전도유망한 연주자와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고 있는 기성 연주자가 함께 무대를 꾸며 클래식계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2019년 오페라하우스 기획 프로그램은 기존 레퍼토리 작품과 창작연극의 활성화를 위한 창작기움프로젝트로 보다 다채롭게 꾸몄다. 오페라극장에서는 겨울 시즌 대표 프로그램인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국립발레단과 공동 제작하여 2000년부터 계속해서 전석 매진의 성과를 이루었다. CJ토월극장에 올린 오페라 〈투란도트〉는 예술의전당 대표 가족오페라로서 브랜드 확립을 확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작 방식으로 화제를 모았다. 특히 예술성과 재미를 결합한 높은 완성도로 청소년, 가족, 오페라 초심자들에게도 오페라에 대한 흥미와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

자유소극장에서는 아멜리 노통브의 인기 소설을 원작으로 한 〈추남, 미녀〉를 선보였다. 해당 소설을 최초로 무대화하여 화제가 되었고, 작가의 위트 넘치는 상상력과 이대웅 연출의 재기발랄한 무대의 신선한 조합이 돋보였다는 반응을 얻었다. 또한 매년 여름 방학 시즌에 국내 검증된 어린이 공연 제작단체를 초청하는 2019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은 놀이음악극 〈아빠닭〉, 가족발레극 〈댄싱뮤지엄〉, 인형극 〈루루섬의 비밀〉을 무대에 올리며 여름시즌 우수 가족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았다. 하반기에는 창작기움프로젝트로 〈늙은 부부이야기〉와 〈여자만세2〉를 무대에 올렸으며, 특히 〈여자만세2〉는 예술의전당과 일신창업투자주식회사의 공공문화예술기관 최초 투자 상품으로 자유소극장 연말 시즌을 활용하여 신규 관객 개발에 기여했다는 점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2015년 초연, 2017년 재연 이후 관객과 평단의 재공연 요청이 끊이지 않았던 연극 〈맨 끝줄 소년〉이 매회 매진을 기록하며 최대 수익을 내는 성과를 올리면서 예술의전당 연극 레퍼토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신세계스퀘어야외무대에서는 매년 가족 단위 관객을 타켓으로 동요와 가곡으로 특별한 주제와 메시지를 전하는 공연을 올리고 있다. 2019년 〈가곡의 밤〉은 3 · 1독립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큰 호응을 이끌었고, 5년 차를 맞이한 〈동요 콘서트〉도 친근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났다. 이외에도 국립 · 민간단체와 함께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제10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은 총 6개 단체가 참여하고 관객설문조사 결과 4.18점(5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제9회 대한민국발레축제〉는 총 13개 발레단이 참가하고 관객설문조사 결과 4.58점(5점 만점)으로 최우수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대중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청소년 갈라 발레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 관객 저변확대에 기여하였다.

2019년 예술의전당 기획전시로는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극장〉, 한가람미술관에서 〈나는 광대다_베르나르 뷔페전: 천재의 캔버스〉,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치바이스와 대화〉, 〈자화상自畵像 – 나를 보다〉殿, 〈영화 포스터로 보는 한국영화 100년〉, 〈조선 · 근대 서화전〉, SACCalife 2019 〈서예, 그 새로운 탄생〉 전을 개최하였다.

지난 2016년 20만 관람객을 불러 모으며 예술의전당 최대관객상을 수상했던 〈앤서니 브라운〉에 이어 개최한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 극장〉전은 국내 미발간 작품과 신작을 포함 150여 점의 원화와

다양한 체험 기회를 관객에게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앤서니 브라운의 일러스트 원화 뿐만 아니라 국내 작가와 협업한 설치미술, 오브제, 영상, 미디어 아트 등의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내어놓아 의미가 있었다. 〈나는 광대다_베르나르 뷔페전: 천재의 캔버스〉는 20세기 프랑스의 마지막 구상회화 작가인 베르나르 뷔페의 국내 최초 단독 회고전으로서 파리시립근대미술관, 예르미타시박물관, 푸시킨 박물관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 회고전에서 선보였던 작품들을 구성하여 관객에게 소개하였다.

서울서예박물관에서는 3 · 1독립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서화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자화상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 개최하였는데 이 전시를 통하여 독립운동가를 포함하여 근대 인물들의 친필과 20세기 대표적인 서화미술작품들을 선보였다. 3회째를 맞이하는 SACCallife2019 〈서예, 그 새로운 탄생〉전에서는 서예 장르의 새로운 기획자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3팀의 전시를 선보였다. 영상과 결합한 서예, 해외 작가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신선한 주제를 바탕으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서예를 보여주며 동시대 예술로서 서예가 가진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중국과의 예술교류사업으로 2019년 여름 〈추사 김정희와 청조문인과의 대화〉전을 중국 국가미술관에서 개최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예가 추사 김정희의 대표 작품을 중국에 소개하였다. 이 전시는 중국 현지에서 30만여 명의 관람객을 불러 모으며 한 · 중 전시 교류의 무궁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1)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1) 조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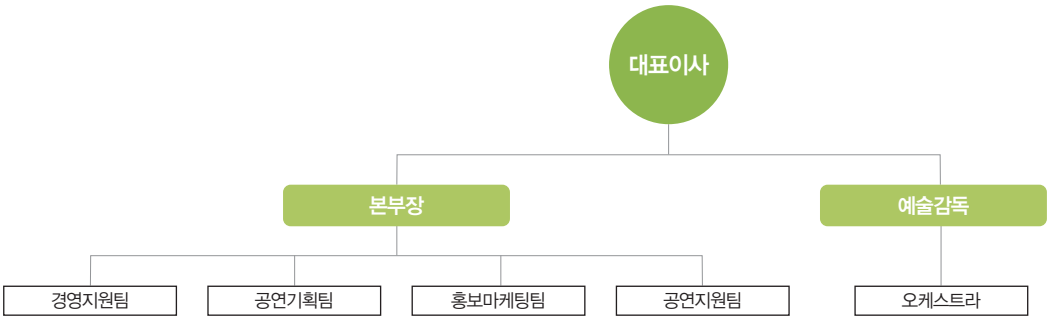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교향악 활동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음악적 역량을 향상 · 발전시키고 국제 음악문화 교류 활성화와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1985년 3월 대한민국 최초 민간교향악단으로 출범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87년 7월 국립극장 전속교향악단, 2000년 5월 예술의전당 상주교향악단을 거쳐 2001년 2월 독립법인으로 전환되어 국민의 행복과 한국 교향악의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데 힘쓰고 있다.

자체 정기 · 기획공연과 예술의전당 기획공연을 비롯해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국립예술단체 정규 레퍼토리에 꾸준히 참여해온 코리안심포니는 연간 120여 회의 공연을 아우르며 폭넓은 레퍼토리는 물론 국내 유일의 오페라 · 발레 오케스트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조직은 1본부, 4팀(경영관리팀, 공연기획팀, 홍보마케팅팀, 공연지원팀) 및 오케스트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임원 1명, 직원 15명, 단원 100명을 포함하여 총 116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9년도 총예산은 61억 4,700만 원 규모였다. 총 수입예산은 국고 41억 7,100만 원, 자체 수입 19억 7,600만 원이고, 총 지출예산은 공연사업비 21억 1,569만 원, 인건비 33억 890만 원, 경상운영비 6억8,541만 원, 예비비 3억 700만 원이다.

그림 4-3-32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조직도



※ 위치: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내 오페라하우스4층
※ 자료: 누리집(http://www.koreansymphony.or.kr)

(2) 주요성과

2019년에는 총 123회의 연주회가 시행되었다. 자체 기획연주(정기 6회, 기획 4회) 10회, 덴마크, 베트남, 아부다비 해외연주 3회, 예술의전당 기획연주 22회, 국립예술단체(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의 협업공연이 62회이며, 〈방방곡곡 문화공감〉을 포함한 외부연주 및 사회공헌사업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26회 진행하였다.

정기 · 기획공연에서는 〈말러 시리즈〉, 〈실내악 시리즈〉, 〈클래식 히어로〉 등 표제화와 시리즈화를 통해 코리안심포니만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졌으며 작곡가 이용조의 '아리랑', 이건용의 발레음악 '바리' 등 한국 작곡가 작품을 연주하며 창작음악 활성화에 기여했다.

국립예술단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예술성 향상도 눈에 띈다. 국립발레단의 〈호이 랑〉, 국립오페라단의 〈1945〉의 세계 초연을 이끌었으며, 국립오페라단의 〈윌리엄 텔〉, 〈마하고니〉 등 한국 초연을 함께하며 레퍼토리 확대 및 오페라 · 발레 오케스트라의 전문성 강화가 돋보인 해였다.

지속가능한 음악생태계를 모색하고자 관객개발과 미래 인재 육성에도 힘썼다. 타 산업군인 게임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게임 속의 오케스트라 – 마비노기〉를 기획, 대중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20–30대 관객개발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예술의전당을 주 무대로 진행되는 〈11시 콘서트〉, 〈토요콘서트〉, 〈교향악축제〉, 〈제야음악회〉를 통해서는 가족단위 관객부터 음악애호가까지 다양한 층위의 관객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신예 예술가들의 성장을 돕는 〈넥스트 스테이지〉를 통해 차세대 지휘자 '김유원'을 발굴하여 한국 교향악의 미래를 이어나갔으며, 〈클래식 히어로〉에서는 젊은 예술가 '선유예권', '임지영'을 집중조명하며 한국 클래식의 다음 세대를 위한 무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했다.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권 확대 및 국민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방방곡곡 문화공감〉이 진행됐다. 이를 위해 극장 오케스트라의 특성을 살린 〈오페라, 발레 in Concert〉, 〈시네마 클래식 KOREA〉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강진, 울산 등 11개 지역 2천 9백여 명의 관객과 만났다.

그 밖에 '한-덴마크 수교 60주년', '한-베트남 수교 26주년', '아부다비페스티벌 초청'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담당하며 한국 음악의 위상을 알리고 국격을 높이는데 이바지했다.

그림 4-3-33 주요공연

말러시리즈 부활(2019. 12. 10.)

클래식 히어로 II (2019. 08. 01.)

한-베트남 수교 26주년 기념음악회(2019. 01. 14.)

게임 속의 오케스트라 마비노기(2019. 05.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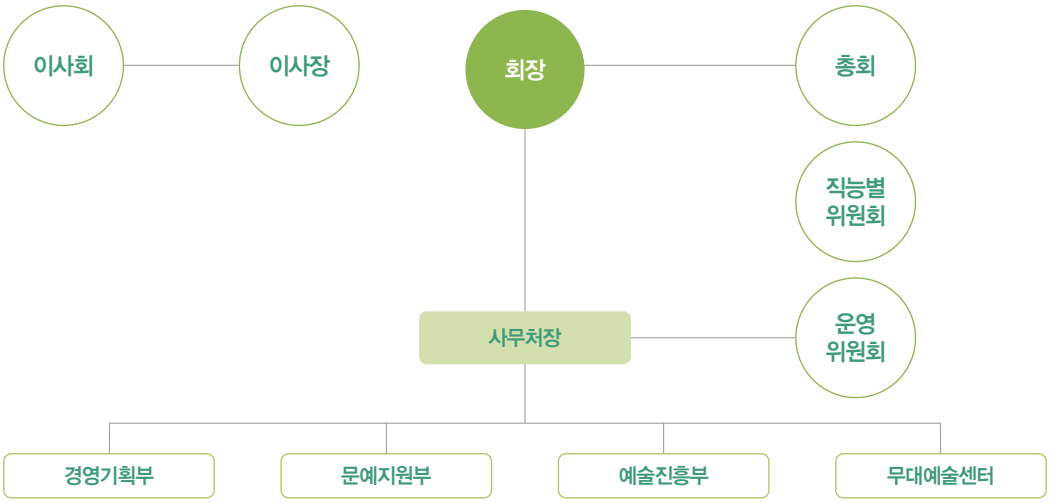
12)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1) 조직현황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문화예술회관의 균형발전 및 상호간의 협력 증진과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문화예술회관 육성을 위해 1996년 3월에 설립되었다.

무대장치 제작 및 재활용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와 무대예술 발전 도모를 위하여 2003년 10월 경기도 여주에 무대예술센터를 건립하였고, 2012년 8월 전국 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하여 법정법인으로 법인격을 변경하였다. 조직 구성은 1처 3부 1센터, 정원 16명, 예산 27,598백만 원 중 국고보조금이 6,192백만 원, 문예진흥기금 등 20,068백만 원, 자체수입금액 1,337백만 원으로 운영되었다.

그림 4-3-34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조직도



※ 위치: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406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4층

※ 누리집(홈페이지): www.kocaca.or.kr

(2) 주요성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2019년 '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라는 미션 아래 두 가지 추진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국민의 문화참여 증진' 부분에서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2,139회 공연, 618,211명 관람)을 통해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문화가 있는 날 사업(72개 기관, 356회 공연, 106,030명 관람)을 진행,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진행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 교육 운영(66개 문예회관, 19,601명 참여) 및 문예회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64개 문예회관, 2,152명 참여)을 통해 문예회관을 거점으로 지역주민 및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감상교육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전시활성화 지원'을 위해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59개 기관, 78,606명 관람)과 전시해설 인력 지원 사업(65개 기관, 75명 인력 지원)을 추진, 지역 문예회관, 미술관에 우수한 전시 콘텐츠 및 전시해설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으로 국민 문화참여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문예회관의 자생력 강화' 부분에서는 '국민 문화 향유 환경 개선'을 위해 문예회관 종합 컨설팅 사업으로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 도모(34개 기관 컨설팅)와 문예회관의 정확한 기술정보를 구축(10개 기관) 하였다. 문예회관 건립 · 개보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문예회관 건립지원 적정성 적정성 검토(21개 기초자치단체)를 운영하고, 문예회관 운영 관련 기초자료 구축과 정책 및 지원 사업 개발을 위해 255개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매개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 문예회관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문예회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11개 과정, 3,850명 지원), 문예회관 종사자 해외연수(45명)는 다양한 해외 문예회관 견학 및 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사례 체험과 분석으로 업무 전문성, 창의성 강화에 기여하였다. ‘예술 유통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공연유통 활성화 및 문예회관 운영 전문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454개 기관 및 단체, 13,851명 참가)

제4절 전통예술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2006년 9월 27일에 발표된 '전통예술활성화 방안 비전 2010' 이후 공연예술전통과의 전통예술 관련 정책은 전통예술의 원형을 보존 · 전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 활동을 지원해 왔다.

아울러 전통예술이 우리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사람들이 익숙하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화, 전통예술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문화 콘텐츠로서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산업화, 전통예술을 국제사회에 보급하여 문화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계화 등 세 가지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창작활성화, 해외 국악보급,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19년 60회를 맞아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지난 60년을 반추하며 그 결실을 맺고, 우리 전통문화가 세계로 도약하는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섰다. 2019년에도 2018년과 같이 기존에 추진했던 일련의 사업을 통해 민속예술의 발굴, 보존 및 전승과 전국의 민속예술단체간의 교류와 소통의 매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전통예술의 원형보존 및 창작활성화

(1)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일제강점기의 왜곡과 급격한 산업화 과정으로 인해 그 원형이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전통예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원형대로 재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2007년부터 수립, 시행해 오고 있다. 사업 첫 해인 2007년에는 전주 학무(무용)와 구례 잔수농악(풍물)이 복원된 후 2008년에 대한민국 전통 연희축제(2008년 9월 21일, 서울 상암동)와 제49회 한국 민속예술축제(2008년 10월 2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재현되었다. 2008년 이후 복원되고 재현된 전통예술은 다음 표와 같다. 이 사업은 단순히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연 형태로 재현하는 사업과 DVD 제작 등 디지털화를 통해 전통예술 콘텐츠의 현대적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2019년도에는 총 10건의 사업을 공모, 지원하였으며 공유가치가 높은 원천자료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복원, 재현을 추진하기 위한 지정과제 제도를 개발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다.

표 4-4-1 연도별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지원 사업 실적

복원시기	복원 및 재현 사업명	분 야	주관 단체	행사 장소(재현 일자)
2008	인천 부평삼산농악	농악	부평문화원	부평삼산역사박물관(2009.2.7)
	성남오리뜰 두레농악 농사풀이 및 농요	민요	한국농악보전협회 성남지회	대한주택공사(2009.1.7.)
	연경당 진작례 복원 공연	무용의례	서울국제문화교류회	창덕궁 연경당(2008.10.6.)
	수영 지신밟기	민속연희	수영고전민속예술보존협회	부산 사직공원(2009.3.13.)
	법성포수륙대제	민속연희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영광 법성포 수협공판장 (2008.10.26./2009.5.28.)
2009	봉화 12차 농악 발굴	풍물	봉화 연합 풍물단	봉화읍 체육공원(2009.12.18.)
	남양주 삼봉 농악	풍물	남양주문화원	남양주종합촬영소(2009.12.20.)
	산청지역일소리	민요	경남문화센터	보고서 및 음반 제작
	연경당 진작례	무용	서울국제교류회	창덕궁 연경당(2009.9.28.)
	세종조 편경제작	음악	국악문화재단	국립국악원(2009.11.11.)
	남사당 비나리	음악	민족음악원	민속극장 풍류(2009.11.19.)
	봉장취 음악	음악	동북아 음악연구소	민속극장 풍류(2009.11.30.)
	전주용왕제 복원	의례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전주 덕진 연못(2010.4월 예정)
	삼동 마당밟기 사설 · 가락 · 굿	의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 학동 거북공원(2009.11.13.)
2010	한국고대음악	음악	동북아음악연구소	보조서 제작
	영남 삼현육각	음악	한국음악문화협회	국립부산국악원(2010.12.10.)
	숭의전 제례악 및 일무	의례	숭의전보존회	연천 숭의전(2010.10.10.)
	북한강 산하의 소리	민요	강원소리진흥회	춘천국악원(2010.11.20.)
	마산오광대	민속연희	마산오광대 복원추진위원회	마산(2010.9.25.)
	세종조 편종	음악	연악사,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2010.12.16.)
	조선시대 지당판	무용의례	수로문화재단,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2010.12.14.~24.)
	동래 기영회 판놀이	민속연희	부산민속예술보존회, 국립부산국악원	동래별장(2010.11.24.)
2011	경서도잡가 10바탕 복원 및 재현 사업	음악	(사)서울소리보존회	남산국악당(2011.12.3.)
	궁중나례의 복원재현	음악	백석예술대학교	보고서 및 3D 영상제작
	동편제 판소리의 복원 및 재현	음악	채수정(동편제 판소리의 복원 및 재현 사업단)	전주 학인당(2011.10.2.~3.)
	농악 명인 박남식 전승의 무굿과 도둑잽이 굿의 복원 및 재현	농악	(사)한국농악보존협회	경기대학교 실내체육관(2011.7.30.)
	고려 말 선초 시가의 음악적 복원	음악	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국립국악원 우면당(2011.11.10.)
	한국고대음악의 복원 및 재현 II	음악	(사)동북아음악연구소	국립국악원 우면당(2011.11.30.)

복원시기	복원 및 재현 사업명	분 야	주관 단체	행사 장소(재현 일자)
2011	경기시나위춤 복원 및 재현	무용	(사)매헌 춤 보존회	남산국악당(2011.11.27.)
	마지막 세습무 채정례의 완판굿 복원 및 재현	무속	남도국악원	전남진도군(2011.9.28.)
	'궁중연례악' 공연에 활용할 순조대 화준 복원	무용의례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 예악당 2011 왕조의 꿈 태평서곡(2011.12.10.~18.)
2012	구포별신굿 복원 및 재현	무속	낙동 문화원	부산 낙동강변 둔치(2012.10.7.)
	경서도 잡가 10바탕 복원연주2	민요	(사)서울소리보존회	한국문화의 집 KOUS(2012.12.8.)
	순조 기축 년 자경 전 야진찬 복원 및 재현	궁중연례	(사)궁중무용춘앵전보존회	창경궁 자경전(2012.10.3.)
	윤선도 '어부사시사' 복원 및 재현	음악	전남대학교 산학 협력단	전남 완도군 보길도(2012.9.14.~17.)
	심가 중고제 판소리 가야금병창 복원 및 재현	음악	(사)동북아음악연구소	민속극장 풍류(2012.10.20.)
	박석고개 사신성황당 당굿 복원 및 재현	무속	동국대학교 예술 문화 진흥연구소	은평 소방서 강당(2012.12.8.)
	고양맹인소놀이	연희	고양문화원	고양문화원 놀이마당(2012.10.20.)
2013	동편제 심청가의 복원 및 재현	음악	채수정 예술단	한국의 집 KOUS(2013.11.20.)
	해남군 우수영 농요 복원 및 재현	농악	(사)동북아음악연구소	해남우수영관광지(2013.09.28.)
	이용우 산이 전승 경기도 동막도당굿 복원 및 재현	무속	(사)경기도 산이제도당굿연구회	인천시립박물관(2013.09.29.)
	남한산성취고수악대 복원 및 재현	음악	광주 광지원 농악 보존회	남한산성 일원(2013.9.22.)
	솟대쟁이패 복원 및 재현	연희	한국무형유산교육개발원	남산한옥마을(2013.10.12.)
2014	내서숯꾼놀이	연희	내서전통민속문화예술 보존회	창원시 내서읍 광산사 절입구(2014.10.11.)
	김정연의 민속춤	무용	이주희 무용단	민속극장 풍류(2014.12.20.)
	전라도 고사창	민속	터울림 전통예술원	전남 광주시 전통문화관(2014.10.11.)
	진주 솟대쟁이놀이	연희	솟대쟁이놀이보존회	경남 진주시 진주성 야외무대(2014.11.1.)
	박홍남 설장구가락 및 지영희 경기도당굿가락	연희	신향악 연구회	서울 바로크챔버홀(2014.12.3.)
	기판시조	음악	경서도 소리포럼	한국의 집 KOUS(2014.11.7.)
	이선유 경상도 동편제 판소리	음악	이선유 판소리 복원연주단	국립국악원 풍류극장(2014.10.3.)
2015	삶을 풀어가는 전통예술재담 (만담)공연콘텐츠화연구	연구	만담보존회	한국고등교육재단(2015.11.20.)
	송동숙무계의마지막수망오구 자료정리 및 의미고찰	연구	(사)한국문화공동체BOK	부산교육대학교(2015.11.20.)
	전라북도 부안, 정읍 무악 연구	연구	FROMKOREA	경기대학교(2015.11.6.)
	하서김인후의 "소쇄원48영" 시창 시연 및 콘텐츠 제작	시연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담양 소쇄원(2015.10.17./24.)

복원시기	복원 및 재현 사업명	분 야	주관 단체	행사 장소(재현 일자)
2015	솟대쟁이놀이, 놀~판 (두번째)	시연	솟대쟁이놀이보존회	진주성 야외무대(2015.11.1.)
	어름산이 조송자 줄타기 재담 및 기예 복원	시연	광주광지원농악보존회	남한산성 행궁(2015.11.7.)
	"한국 무용도감"으로 만난 김정연의 춤 2	시연	이주희 무용단	무형문화재 전수회관(2015.12.20.)
2016	1930년대의 정재와 현행 정재의 비교연구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원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2016.10.29./12.3.)
	기후제 '용굿'의 복원과 재현을 위한 연구	연구	(사)임영민속연구회	강릉 단오문화관(2016.12.16.)
	함경도 망묵굿 예술성의 총체적 연구	연구	FROMKOREA	경기대학교 서울교정(2016.11.6.)
	경기도 토속민요 복원재현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연구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6.10.15.)
	사계축 성악예술 –기판의 잡가와 시조	시연	경서도소리포럼	한국문화의집(2016.11.10.)
	삶을 풀어가는 예술 재담 (만담)공연	시연	만담보존회	종로3가 인사아트홀 (2016.11.12.~13.)
	고양 행주나루 강 풍어제	시연	고양 들소리 보존회	행주산성 역사공원(2016.10.2.)
	솟대쟁이놀이, 놀판(세번째)	시연	솟대쟁이놀이보존회	진주시 진주성무대(2016.11.5.)
2017	강릉 '용굿'의 복원과 시연	시연	(사)임영민속연구회	강릉시 남대천(2017.10.22.)
	악학궤범에 의한 학연화대처용무 합설	시연	(사)궁중무용춘앵전보존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2017.12.16.)
	1930년대 정재 복원 및 시연	시연	한국전통문화연구원	국립국악원 대연습실(2017.11.22.)
	이동백의 중고제 춘향가 복원 시연	시연	선영악회	돈화문 국악당(2017.12.22.)
	영친왕 천연구 회복기념 쌍줄백이 시연	시연	한국무형유산교육개발원	서울 운현궁(2017.11.9.)
	동해안 광인굿의 실체와 의의고찰	연구	(사)한국민속학술 단체연합회	고려대학교 국제관(2017.12.18.)
	1940년~1970년 음악극에 나타난 무용양상 연구	연구	이주희무용단	연구보고서 발간
	근대 공연예술 기초자료화 1906년~1945년 경성일보 기준	연구지정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 발간(1/3차년도)
	기완별록 복원 및 재현	연구지정	한국민속학회	고려대 박물관(2017.12.28.)
2018	향제 삼현육각 및 무속거상악	지정	한국음악문화학회	부산 센텀호텔(2018.11.24.)
	충청유교문화권 서사의례 및 가정의례	지정	음악인문연구소	서울대학교(2018.12.11.)
	웅진백제시대 악무 콘텐츠화	지정	헤리티지큐레이션연구소	공주문화원(2018.11.20.)
	동해안 광인굿 시연	시연	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	경남고성 오광대전수관공연장(2018.12.21.)
	만석승희 복원 연구	지정	한국예술종합학교	경남거창 두레문화교육원(2018.12.18.)
	북한 토속민요의 체계적 연구 및 재현	지정	저스트뮤직	JCC아트센터(2018.11.9.)

복원시기	복원 및 재현 사업명	분 야	주관 단체	행사 장소(재현 일자)
2018	근대 공연예술 기초자료화 1906년~1945년 경성일보 기준	연구지정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 발간(2/3차년도)
	기완별록 복원 및 재현	연구지정	한국민속학회	고려대 박물관(2018.12.28.)
2019	조선시대 양로연의 현대적 공연콘텐츠 복원 연구	연구	(사)한국정악원	정효아트센터(2019.11.23.)
	금성당제 복원을 위한 연구	연구	금성당제보존회	은평역사한옥박물관(2019.11.8.)
	〈연화대무〉의 문헌 기록방식과 춤의 형상화 과정 연구	연구	(사)궁중무용춘앵전보존회	예술가의집 제1강의실(2019.12.7.)
	의령집돌금농악, 의령의 소리	시연	의령집돌금농악보존회	의령 서동 생활체육 공원(2019.11.16.)
	통영 오귀새남굿 시연	시연	(사)무형문화연구원	통영 남해안 별신굿 예능전수관(2019.10.26.)
	감로탱화 체기, 기예 집중 시연	시연	한국무형유산교육개발원	서울놀이마당(2019.12.20.)
	양주대풍류 복원 연주	시연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2019.12.30.)
	조선후기 궁중연향 현장재연 공연화	연구지정	(재)정효국악문화재단	정효아트센터(2019.11.30.)
	근대 공연예술 기초자료화 1906년~1945년 경성일보 기준	연구지정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 발간(3/3차년도)
	향제 삼현육각 및 무속거상악	연구지정	한국음악문화학회	전남대학교 세미나실(2019.11.29.) (2/3차년도)

(2) 전통예술 경연대회 및 공연 · 창작활동 지원

가. 전통예술 경연대회 지원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보존 · 전승하고 우수한 국악 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예술경연대회는 매년 엄정한 전문가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정부시상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대회를 중심으로 전국 시 · 군 · 구 축제행사와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경연대회를 통해 전통예술분야의 전공 학생은 물론 일반인이 평소 연마한 기량을 점검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악교육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

연도	지원실적	지원내역
2010	110개 대회	대통령상 24, 총리상 19, 장관상 176
2011	102개 대회	대통령상 24, 총리상 17, 장관상 157
2012	101개 대회	대통령상 24, 총리상 16, 장관상 157
2013	110개 대회	대통령상 24, 총리상 16, 장관상 170
2014	112개 대회	대통령상 28, 총리상 17, 장관상 172

연도	지원실적	지원내역
2015	111개 대회	대통령상 32, 총리상 17, 장관상 161
2016	116개 대회	대통령상 28, 총리상 16, 장관상 160
2017	107개 대회	대통령상 28, 총리상 19, 장관상 163
2018	149개 대회	대통령상 33, 총리상 28, 장관상 205
2019	154개 대회	대통령상 31, 총리상 27, 장관상 210

나. 〈국악창작곡 개발-21c 한국음악프로젝트〉 개최

〈국악창작곡 개발-21c 한국음악프로젝트〉 사업은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과 대중화를 목표로 2007년부터 국악방송에서 매년 개최하는 경연대회로 우수한 국악단체를 발굴하고 작품을 창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매년 8월, 1~2차 예선에서 선정된 팀들의 본선 경연을 통해 최종 수상곡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작품은 음반으로 제작되어 국내 · 외 주요 음원사이트를 통해 유통된다. 2012년에는 〈아리랑 특집〉으로 꾸며 아리랑을 소재로 한 자유로운 창작 작품을 모집 · 발굴하였고, 2013년부터는 별도의 주제 없이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대중성을 갖춘 자유롭고 창의적인 미발표 창작곡을 모집하여 진행하였다. 2017년부터는 예술감독 선임을 통한 멘토링을 진행하여 참가곡들의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본격적인 수상팀들의 해외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젊은 국악, 힙한 국악〉, 〈악 · 창 미래 한중 음악 문화교류 축제〉 공연은 대회 수상곡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2019년에 홍콩에서 개최된 〈21c Korean Music Project: New Generation Gugak Concert〉는 해외관객에게 한국 창작 국악의 매력을 알렸다. 이 외에도 프로필 사진 및 영상 촬영, 각종 방송 및 공연 출연 등 대회 참가자들의 음악활동에 필요한 요소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표 4-4-2 연도별 〈국악창작곡 개발-21c 한국음악프로젝트〉 경연 결과

연도	응모작품 수(곡)	시상작품 수(곡)	대상 수상작
2007	86	10	퓨전국악프로젝트 樂 〈난감하네〉
2008	123	10	나리랑 〈새타령〉
2009	77	10	국악 아카펠라 토리's 〈아부레이수나〉
2010	49	9	Aux 〈품바〉
2011	52	7	어쿠스틱앙상블 재비 〈재비모리〉
2012	64	7	The 메아리 〈메아리랑〉
2013	66	7	벼리국악단 〈함양양잠가〉
2014	47	7	正歌앙상블 Soul지기 〈언약이 늦어가니〉
2015	45	7	THE+미소 〈심청은 억지춘향〉
2016	23	7	창작음악그룹 ONE 〈흑기사 위성〉

연도	응모작품 수(곡)	시상작품 수(곡)	대상 수상작
2017	77	10	bud 〈Blue Marble〉
2018	55	10	궁예찬 〈옹헤야 어쩌라고〉
2019	66	10	경로이탈 〈팔자아라리〉

다. 2019년 신진국악 실험무대 운영

전통예술 신진 · 실험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활동기반 마련을 통한 전통예술 창작활성화를 위해 2008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6주의 기간 동안 3개의 극장(공감M아트센터 소극장, 정효아트센터, 두리춤터)에서 각각 〈청춘오감+(기악)〉, 〈청춘가락마당(성악)〉, 〈청춘대로덩더쿵(한국무용)〉 공연을 진행하였다. 17개의 신진 · 실험단체에게 단독무대를 제공하였고, 지속적인 홍보와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28회 공연, 1,651명이 관람하였다. 특히 2019년도 발굴한 신진 · 실험단체 중 우수 신진단체에게는 음원 및 싱글 음반제작(성악1팀, 기악1팀)과 홍보영상 및 테크니컬 라이더 제작(한국무용 1팀)을 지원하였다.

표 4-4-3 신진국악 실험무대 공연 실적

연도	공연 기간	공연 요일	장 소	지원 단체 수	공연 횟수	관람자 수
2008	10.7.~2.20.(10주)	매주 화, 수, 금, 토	북촌창우극장	20개 단체	40회 공연	3,819명
2009	8.21.~11.14.(12주)			24개 단체	48회 공연	4,320명
2010	9.2.~11.7.(9주)			18개 단체	36회 공연	4,320명
2011	7.21.~10.4.(14주)			18개 단체	36회 공연	2,634명
2012	9.10.~11.2.(9주)			13개 단체	26회 공연	1,433명
2013	8.23.~10.18.			13단체	25회 공연	1,151명
2014	9.4.~10.31.	매주 월, 화, 목, 금	북촌창우극장	14개 단체	22회 공연	1,955명
	5.31.~8.3.	매주 금, 토, 일	성균 소극장	16개 단체	36회 공연	1,992명
2015	10.29.~12.18.(8주)	매주 목, 금	북촌창우극장	11개 단체	19회 공연	1,510명
	12.1.~1.16.(7주)	매주 화, 수	서촌공간 서로	15개 단체	10회 공연	728명
	12.1.~12.13.(2주)	–	두리춤터	9개 단체	17회 공연	364명
2016	11.10.~11.20.(2주)	매주 금, 토, 일	북촌창우극장	6개 단체	7회 공연	560명
	11.22.~12.20.(5주)	매주 화	돈화문국악당	5개 단체	5회 공연	305명
	'17.1.3.~1.21.(3주)	매주 화, 수, 금, 토	서촌공간 서로	5개 단체	11회 공연	499명
	12.3.~12.18.(4주)	매주 수, 목, 토, 일	두리춤터	8개 단체	9회 공연	273명

연도	공연 기간	공연 요일	장 소	지원 단체 수	공연 횟수	관람자 수
2017	11.17.~11.22.(2주)	금, 토, 일, 월, 화, 수	북촌창우극장	6개 단체	6회 공연	414명
	9.5.(화)~9.26.(화)	매주 화, 목	서촌공간 서로	5개 단체	6회 공연	321명
	11.20.(월)~11.30.(목)	매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두리춤터	6개 단체	9회 공연	349명
	9.1.(금)~9.16.(토)	매주 화, 수, 금, 토	대학로 스튜디오 SK	4개 단체	8회 공연	403명
2018	11.10.(토)~12.2.(일)	매주 토, 일	강북 솔밭국악당	5개 단체	6회 공연	352명
	11.20.(화)~12.8.(금)	매주 화, 수, 금, 토	서촌공간 서로	5개 단체	5회 공연	461명
	9.7.(금)~10.7.(일)	매주 금, 토, 일	대학로 스튜디오 SK	5개 단체	15회 공연	581명
2019	11.9.(토)~11.24.(일)	매주 토, 일	공감M아트센터	6개 단체	6회 공연	477명
	10.23.(수)~11.20.(수)	매주 수요일	정효아트센터	5개 단체	10회 공연	614명
	11.11.(월)~11.26.(화)	–	두리춤터	6개 단체	12회 공연	590명

라. 전통연희 활성화 사업

본 사업은 2007년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0년에는 연희분야의 창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창작연희 작품공모'를 시행하여 지역 4개 국립국악원(서울, 남원, 부산, 진도) 순회 상설공연을 진행하였다. 2016년부터는 창작연희 작품공모 선정작 발표 공연을 전통연희 페스티벌에서 진행함으로써 창작연희 페스티벌과 전통연희 페스티벌을 통합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창작연희 작품공모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 워크숍, 홍보 및 무대 제반 시설 등 간접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3개의 창작연희 작품을 선정하여 페스티벌에서 발표 공연을 하였으며, 국내 · 외 초청공연, 체험, 교육과 전시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었던 축제에는 약 2만 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표 4-4-4 연도별 전통연희 활성화 사업 운영 실적

(단위: 회, 명, 개)

연도	시 · 도	장소	기간	운영횟수	관람객 수	출연팀 수
2010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개막제)	6.27.	1	200	1
		국립국악원 별 맞이터	7.2.~10.20.	11	5,940	11
		국립국악원 우면당(폐막제)	10.24.	1	298	6
		국립국악원 전역(절기공연)	2011.2.16.~17.	2	1,354	2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	6.30.~8.18.	5	1,950	5
	부산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7.6.~8.17.	5	3,058	5
	계			25	12,800	중복출연으로 16개 팀 출연

연도	시 · 도	장소	기간	운영횟수	관람객 수	출연팀 수
2011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	10.19.~11.15.	5	2,560	6
		국립국악원 우면당	6.10.~8.17.	3	997	3
		국립국악원 별맞이터	5.27.	1	400	1
		국립국악원 전역(축제)	9.8.~9.10.	1	10,000	10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	5.14.~6.18.	4	1,597	4
	부산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7.28.~8.25.	4	2,190	4
	여수	거북공원	10.6.	1	1,300	1
	강릉	단오문화관	11.4.	1	530	1
	연천	수레울 아트홀	11.12.	1	340	1
	계			21	19,914	중복출연으로 24개 팀 출연
2012	서울	광화문광장 일원	9.30.~10.3.	36	110,000	53
	계			36	110,000	53
2013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		10.30.~11.20.	4	1,492	4
	부산		10.1.~10.22.	4	2,045	4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10.4.~11.15.	4	1,422	4
	진도		12.2.~12.11.	6	1,227	7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6,186	중복출연으로 10개 팀 출연
2014	국립국악원 우면당		8.12., 8.19.	2	690	2
	국립국악원 예악당		8.23., 31.	2	1,348	2
	국립민속국악원		9.6.~9.27.	4	1,320	4
	국립부산국악원		7.3.~8.21.	4	2,333	4
	국립남도국악원		8.8.~9.19.	4	1,370	중복출연으로 16개 팀 출연
2015	국립국악원 우면당		10.7.~10.9.	3	850	3
	국립국악원 연희마당		10.10.	1	650	1
	북서울 꿈의숲		10.17.~18.	21	20,000	19
2016	상암월드컵 평화의 공원		10.21.~23.	32	20,000	31
2017	상암월드컵 평화의 공원		5.28.~29.	35	30,000	42
2018	상암월드컵 평화의 공원		6.1.~6.2.	35	35,000	52
2019	문화비축기지		6.1.~6.2.	38	25,035	52

2) 전통예술의 대중화, 산업화 및 세계화

(1) 전통예술 대중화 지원

가.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정부가 직접 주최하는 전통 민속분야 최고의 권위를 가진 행사이다. 각 시 · 도 대표단의 열과 성을 다한 경연과 시연을 통해 한국 민속예술의 진수를 선보이면서, 오늘날 전국의 민속예술인과 전 국민의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9개 지방자치단체(도)가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다.

2019년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2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를 기념하여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주최로 서울놀이마당에서 개최되었다.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9개 시 · 도 학교대표가 참가 했으며, 충청북도 괴산오성중학교의 〈괴산두레농요〉가 청소년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박상민(충청남도)과 문준서(대구광역시) 학생이 개인 연기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일반부는 총 16개 시 · 도 및 이북5도 대표팀(총 21개팀)이 참가하여 경연을 벌인 결과 경상남도 대표로 참가한 고성오광대보존회의 〈고성오광대〉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일반부는 60회 기념행사로 역대 대통령 수상단체가 출전하여 왕중왕을 가리는 자리가 되었다.

표 4-4-5 연도별 한국민속예술축제/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대통령상(대상) 수상작

연도	회	한국민속예술축제		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출연단체	종목		출연단체	종목
2008	49	청원현도 두레보존회	청원군 현도 두레농요	15	김천 농공고등학교	금릉빗내농악
2009	50	제50회를 맞이하여 경연대회 없이 축하 시연 형태로 진행		16	청주 충북공고	청주 소래울 두레놀이
2010	51	입압리 민속보존회	양양군 수동골 상여소리	17	천안 병천고	천안 거북놀이
2011	52	금릉빗내 농악보존회	금릉빗내농악	18	양주 백석고등학교 4-H회	양주들노래
2012	53	함안 농요보존회	함안농요	19	경기도 광주중앙고등학교	광주광지원농악
2013	54	평안남도향두계놀이 보존회	향두계놀이	20	진도 실업고등학교	강강술래
2014	55	웅소성리상여소리 보존회	웅소성리 호상놀이	21	광명문화원 (충현고등학교)	철산쇠머리 디딜방아액막이놀이
2015	56	애월읍 하귀2리 민속보존회	아끈코지 원담역시	22	광주동신중학교	광주지산농악
2016	57	(사)전주기접놀이 보존회	전주기접놀이	23	덕신고등학교	강화용두레질소리
2017	58	문경모전들소리 보존회	문경모전들소리	24	오상고등학교	무을농악

연도	회	한국민속예술축제		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출연단체	종목		출연단체	종목
2018	59	논산시전통두레 풍물보존회	논산전통두레풍장	25	대전 유성생명과학 고등학교	웃다리농악
2019	60	고성오광대보존회	고성오광대	26	괴산오성중학교	괴산 두레농요

나. 문화공간 활용 전통공연사업

우리의 우수한 전통예술 콘텐츠를 궁과 연계하여 관광 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0년부터 '고궁에서 우리음악듣기'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었다. 각 궁(경복궁, 덕수궁, 창경궁)의 특성을 살린 다채로운 공연을 기획하여 우리 문화의 품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7년, 궁궐 외에 새로운 문화공간에서의 공연을 개발하기 위해 '전통예술 고궁공연 관광 자원화 사업'에서 '전통문화공간 활용 공연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꾸고 DDP(동대문디자인프라자), 백남준아트센터 등 전통음악 공연 장소로 인식하지 않던 문화공간에서 공연 사업을 시행했다. 2018년부터 '문화공간 활용 전통공연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대상별 선호도에 맞는 공간 맞춤형 공연을 추진하며 전통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고품격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2019년에는 신진예술가와의 융합공연과 지역 문화 공간 공연으로의 확대를 추진하였다.

표 4-4-6 연도별 문화공간 활용 전통공연사업 실적

	장소	창덕궁	덕수궁		경복궁
2008	행사명	창덕궁, 풍류음악을 그리다	고궁에 깃든 우리 춤 우리가락	가을엔 국악을 듣겠어요	전통연희 경복궁에 가다
	기 간	4.16.~10.29. (매주 목, 7.2.~8.27. 제외)	7.30.~31. (중화전)	10.10.~26. (즉조당)	10.30.~31. (흥례문)
	공연내용	줄풍류, 가곡, 궁중무용, 판소리, 산조 등 전통국악	국악 관현악, 창작무용, 퓨전음악, 태권도 등	퓨전국악	줄타기, 탈춤, 풍물, 민요, 판소리 등 전통연희
	관람인원	6,000명 (회당 150명)	2,400명 (회당 1,200명)	2,000명 (회당 250명)	6,000명 (회당 3,000명)

	장소	창덕궁	덕수궁	종묘	경복궁	
2009	행사명	창덕궁, 풍류음악을 그리다	국악, 활개 펴다!	영원의 소리, 종묘제례악	전통연희! 경복궁에서 놀다	자경전, 가추예향
	기 간	4.16.~10.29. (매주 목, 7.2.~8.27. 제외)	5.9.~31., 9.5.~27. (매주 토 · 일)	10.16.~17.	10.30.~31. (흥례문)	11.13.~14. (자경전)
	공연내용	줄풍류, 가곡, 궁중무용, 판소리, 산조 등 전통국악	퓨전국악 등	종묘제례악	줄타기, 탈춤, 풍물, 민요, 판소리 등 전통연희	판소리 등 전통국악 및 문화체험
	관람인원	6,000명 (회당 150명)	24,000명 (회당 1,500명)	4,000명 (회당 500명)	6,000명 (회당 3,000명)	800명 (회당 200명)

	장소	창덕궁	덕수궁	종묘	경복궁
2010	행사명	고궁에서 우리음악 듣기			
	기 간	6.6.~7.11., 9.4.~10.16. (매주 일, 낙선재)	6.13.~7.4., 9.18.~10.24. (토 · 일, 미술관 앞)	6.6.~7.11., 9.5.~10.10. (매주 토, 재궁)	5.5., 5.8., 10.3., 10.24., 10.30., 10.31. (토, 수정전)
	공연 횟수	24회(1일 2회)	14회	11회	6회
	공연내용	풍류/ 민속음악 등 소규모 명품공연	전통과 퓨전이 함께하는 공연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	궁중연향 재현
	관람인원	8,400명 (회당 350명)	9,800명 (회당 700명)	2,200명 (회당 200명)	21,000명 (회당 3,500명)
2011	행사명	고궁에서 우리음악 듣기			
	기 간	5.8.~6.19., 9.18.~10.16. (매주 일, 낙선재)	5.21.~6.18., 9.17.~10.16. (매주 토, 함녕전, 미술관)	5.7.~6.18., 9.17.~10.1. (매주 토, 재궁)	6.5.~19., 9.18.~10.7. (매주 일, 수정전)
	공연 횟수	24회	12회	10회	14회
	공연내용	풍류 민속 음악과 춤 소규모 명품 공연	퓨전국악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	궁중음악과 춤 국악 관현악 외
	관람인원	15,400명 (회당 640명)	7,200명 (회당 600명)	5,900명	22,500명 (회당 1,600명)
2012	행사명	고궁에서 우리음악 듣기			
	기 간	5.20.~6.17., 9.2.~10.14. (매주 일, 후원, 낙선재)	5.26.~6.10., 9.15.~10.7. (매주 토 · 일, 함녕전)	5.19.~6.23., 9.1.~22. (매주 토, 재궁)	5.19.~20.(수정전) 9.15.~29. (매주 토, 수정전)
	공연 횟수	24회	14회	10회	12회
	공연내용	풍류 민속음악과 춤, 후원 산책 음악회	퓨전국악, 동화음악회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	궁중음악과 춤, 국악 관현악 외
	관람인원	6,930명 (회당 약 288명)	8,200명 (회당 약 590명)	4,600명 (회당 약460명)	52,400명 (회당 약 4,360명)
2013	행사명	고궁에서 우리음악 듣기			
	기 간	4.18, 5.5.~6.9., 9.8.~10.13. (매주 일, 후원, 낙선재)	5.11.~12., 5.25.~6.2., 9.14.~10.6. (매주 토 · 일, 함녕전)	5.11.~6.22., 9.7.~21. (매주 토, 재궁)	5.4.~5., 5.18.~19., 10.5~6. (매주 토 · 일, 집옥재)
	공연 횟수	25회	14회	10회	12회
	공연내용	풍류 민속음악과 춤, 후원 산책 음악회	퓨전국악 동화음악회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	궁중음악과 춤, 어린이날 음악회
	관람인원	4,200명 (회당 약 175명)	11,200명 (회당 약 800명)	4,600명 (회당 약 460명)	54,000명 (회당 약 4,500명)

	장소	창덕궁	덕수궁	종묘	경복궁
2014	행사명	고궁에서 우리음악 듣기			
	기 간	5.20.(화, 11:00) (기자간담회), 5.25.~6.22. (매주 일 9:00/11:00) 5.28.(수, 9:00/11:00) 9.7.~10.12. (매주 일 9:00/11:00) 9.28.(수, 9:00/11:00) 10.5., 10.12. (10:00)	5.31.~6.15. (매주 토 · 일 19:30) 9.13.~10.12. (매주 토 · 일 19:30) (9.20.~21. 제외)	5.24.~6.28., 9.6.~27. (매주 토, 재궁)	5.24., 5.25. (14:00/16:00) 10.4.~12. (매주 토 · 일 14:00/16:00)
	공연 횟수	27회	14회	10회	17회
	공연내용	풍류 민속음악과 춤, 후원 산책 음악회	퓨전국악 동화음악회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	궁중음악과 춤, 어린이날 음악회
	관람인원	4,300명	12,000명	6,100명	54,000명

	장소	창덕궁	덕수궁	종묘	경복궁	창경궁
2015	행사명	고궁에서 우리음악 듣기				
	기 간	5.17.~6.21. (매주 일 9:00, 11:00) 9.6.~10.11. (매주 일 9:00/11:00) (9.27. 제외/10.7. 추가)	5.23.~6.7. (매주 토 · 일 19:30) 9.19.~10.11. (매주 토 · 일 19:30) (9.26., 9.27.는 17:30)	5.9.~6.6., 8.26.~9.26. (매주 토, 종묘일대)	5.2.~10. (14:00/16:00) (매일 20시)	8.1.~29. (매주 토, 7:30) 10.18. (10:00)
	공연 횟수	24회	14회	10회	9회	6회
	공연내용	풍류 민속음악과 춤, 후원 산책 음악회	퓨전국악 동화음악회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	궁중음악과 춤, 어린이날 음악회	전통음악, 해설
	관람인원	9,600명	37,200명	6,100명	19,000명	1,000명

	장소	창덕궁	덕수궁	경복궁	창경궁	문화공간
2016	행사명	고궁에서 우리음악 듣기				
	기 간	4.26., 5.15.~6.12., 9.4.~10.9. (매주 일 9:00/11:00)	6.10.~19., 9.9.~18. (매주 토 · 일 19:30)	5.18.~22. (20:00)	8.6.~27. (매주 토, 7:00) 10.4.~8., 10.18.~23. (20:00)	1.7.~14. (매주 토, 13:00/15:00) 1.29. (13:00)
	공연 횟수	23회	12회	5회	15회	5회
	공연내용	풍류음악+관객체험+ 스토리텔링 풍류음악+후원산책+ 인문학해설	창작국악+ 동화애니메이션	대규모 궁중연향+ 스토리텔링	새벽을 여는 풍류음악회 외	창작국악+ 전시작품+ 현대무용
	관람인원	9,600명	14,400명	12,500명	22,400명	500

	장소	창경궁	덕수궁	경복궁	간송미술관	DDP 갤러리문	동탄복합 문화센터	백남준 아트센터
2017	행사명	고궁에서 우리음악 듣기			문화공간 음악회			
	기 간	5.21.~30. (20:00)	6.3.~11., 9.1.~9. (매주 토 · 일, 19:30)	9.22.(금) 9.25.(토) 9.27.(수) 9.30.(목)	8.2.(수) 8.3.(목) 8.8.(화) (14:00/ 17:00) 8.5(토) (16:00/ 19:00)	9.21.(목) 9.23.(토) 9.24.(일) (16:30/ 19:30)	11.4.(토) 11.5.(일) (14:00/ 17:00)	12.8.~10. (14:00/ 17:00)
	공연 횟수	8회	8회	6회	8회	6회	4회	6회
	공연내용	창작국악 +스토리텔링 +현대무용 +미디어아트	창작국악 +동화	창작국악 +스토리텔링 +관객참여 +야간개방	창작국악 +전시작품 +스토리텔링 +관객참여 +현대무용	창작국악 +디자인위크 주제 +스토리텔링 +현대무용	창작국악 +스토리텔링 +미디어아트	창작국악 +전시작품 +현대무용 +스토리텔링
	관람인원	8,000명	12,000명	9,000명	800명	380명	320명	480명

	장소	경복궁	덕수궁	국회	창덕궁	문화비축기지	메가박스	DDP	국립중앙박물관
2018	행사명	문화공간 음악회							
	기 간	5.20.~31. (19:30)	9.6.~9. (19:30)	9.8.~29. (매주 토 19:30)	9.22. ~10.21., (매주 토 · 일 9:00)	10.18.~21. (16:00) 10.27.~28. (15:00)	11.10. 11.16. 11.17.	12.13.~16. (19:00)	2.9.~10. (14:00/ 17:00)
	공연 횟수	10회	4회	4회	8회	6회	4회	6회	4회
	공연 내용	궁궐 전각을 투어하며 관객이 선택 관람하게 되는 이머시브 콘서트	동화책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창작음악과 함께 공연	동화책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창작음악, 현대무용과 함께 공연	창덕궁 후원을 산책하며 해설과 함께 풍류음악을 감상	재생공간에서 전통음악과 현대무용과 어우러지는 공연	다중이용시설에서 동화책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창작음악과 함께 공연	창작음악과 공간에 어울리는 설치미술작품을 함께 감상	동화책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창작음악과 함께 공연
	관람 인원	6,100명	4,700명	5,500명	752명	3,000명	671명	840명	1,841명

	장소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백남준 아트센터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	영은 미술관	국회	문화비축기지	복합문화지구 누에	메가박스
2019	행사명	문화공간 음악회									
	기 간	4.27.~5.4. (19:30)	5.11.~6.9. (매주 토 · 일, 9:00)	9.19.~22. (19:30)	9.15. (14:00/ 16:00)	10.5. (14:00/ 17:00)	10.26. (14:00/ 16:00)	9.28.~10.6. (매주 토 · 일 19:00)	11.7.~8. (20:00) 11.9.~10. (14:00/ 16:00)	11.16. (14:00/ 16:00)	11.23. (11:00/ 13:00) 11.24. (13:00/ 15:00)
	공연 횟수	8회	10회	4회	2회	2회	2회	4회	6회	2회	4회
	공연 내용	경복궁에서 한국무용 퍼포먼스를 따라 관객이 직접 이동하는 공연	창덕궁 후원을 산책하며 해설과 함께 풍류음악을 감상	동화책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창작음악과 함께 공연	전시작품을 신진예술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창작 국악 공연	전시작품을 신진예술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창작 국악 공연	전시작품을 신진예술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창작 국악 공연	역사, 문학, 연극, 현대무용과 전통음악을 융합한 공연	재생공간에서 베짜기 퍼포먼스와 전통음악이 어우러진 현대적인 공연	지역 예술가들의 전시작품을 우리 창작음악과 함께 공연	다중이용시설에서 동화책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창작음악과 함께 공연
	관람 인원	7,928명	929명	2,847명	181명	149명	148명	6,278명	1,422명	147명	678명

다.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아리랑 등 전통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 아리랑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아리랑 음반 제작, 아리랑 대축제, 컨템퍼러리 시리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9년도에는 전통문화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컨템퍼러리 공연시리즈와 웹진 〈공진단〉발간 등 전통예술의 대중확산과 홍보에 역점하고 있다.

표 4-4-7 연도별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 실적

연도	실적
2008	아리랑 컬쳐코드 분석 아리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009	국제 심포지움 개최 지한파 아티스트 아리랑 앨범 3,000부 제작 아리랑 교육용 방송 콘텐츠 제작 아리랑 다언어(5개 국어)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2010	지한파 아티스트 아리랑 앨범 4,000부 제작 아리랑 악보집(국영문) 2,000부 제작 및 배포
	아리랑 페스티벌 개최, 메인행사 1회(서울광장) 아리랑 특별 공연(북촌창우극장) 아리랑 초청강연(프레지던트 호텔) 아리랑 상설공연(북촌창우극장)
2011	아리랑 국악관현악곡 개발(5개 단체) 및 악보집 제작 지한파 아티스트 아리랑 앨범 제작 지역 아리랑 워크숍 및 공연 개최(아리랑 한마당/남산국악당) 아리랑 국제 학술대회 개최(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아리랑 페스티벌 개최(국립중앙박물관): 메인공연 2회 가족극 2회, 체험 및 참여행사 2회, 국제학술대회 새터민 대상 아리랑 문화체험(강원도 정선)
2013	추석특집 아리랑 대공연 개최(KBS홀) 아리랑 교육용 콘텐츠 보급(10개 초등학교) 아리랑 기획전시(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한류스타 아리랑 앨범 4,000부 제작 청년 홍보 시범사업 〈청춘아리랑〉 개최 아리랑 홍보 동영상 1,000부 제작 및 해외 한국 문화원 배포
2014	지역아리랑활성화 공연(10회공연, 2,580명) 융복합 아리랑 공연(2회공연, 1,388명) 아리랑페스티벌(1회, 1,400명) 아리랑글로벌콘텐츠제작(음반 10곡, 음원 5곡, 영상 12건) 지역아리랑 음반제작(22곡 2CD 3,500부)
2015	아리랑 브랜드 개발(BI, 베이직 디자인 및 어플리케이션) 해외 문화원 홍보관 설치(베트남, 태국 2개소) 아리랑 음반제작(가곡 음반, 8,000부 제작) 지역아리랑 보존회 공모 지원(19개), 민간 아리랑 행사 지원(3회) 아리랑 융 · 복합 공연 '오늘, 여기 그리고아리랑'(2회) '광복70년기념 아리랑 대축제' 공연 및 부대행사(1회)
2016	아리랑 음반제작(2종) 아리랑 음원 개발 및 확산(음원 편곡 5가지 버전, 통화대기음 3종) 아리랑 다큐멘터리 제작('역사기행 그곳 – 史(사)적인 아리랑') 아리랑 대축제 '나의 아리랑, 우리의 노래', '지역 아리랑' 공연(각 1회), 부대행사(2회)
2017	아리랑 대축제(공연 5회, 관람객 4,130명) 지역아리랑 공연(공연 2회, 관램객 1,400) 아리랑 창작곡 공모(대상 1곡, 최우수상 1곡, 쇼케이스 공연 1회, 디지털음원 발매) 아리랑 교육용 공연콘텐츠 개발(7개 사업 지원 선정 / 총 12회 공연) 아리랑 음반 제작(7집 2,000부 배포)

연도	실적
2018	아리랑 창작곡 공모(대상 1곡, 최우수상 3곡, 쇼케이스 공연 1회, 디지털음원 발매)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6개작, 공연 8회, 관람객 3,054명) 해외전통문화 활성화(지정보조사업 1건, 공연 1회) 전통예술웹진 제작(8회, 구독자 8,000명)
2019	아리랑 대축제(공연 1회, 관람객 1,280명)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3개작, 공연 8회, 관람객 789명) 남북 전통예술 교류지원(학술대회 1회, 보고서 발간 1건) 전통예술웹진 제작(12회, 구독자 13,887명)

라. 세계무형유산활용 공연사업

외국인 대상,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재 종목 홍보를 통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1년부터 다양한 등재종목 활용 지역행사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부터 국회와 종묘공연을 통해 관광콘텐츠로의 품격을 높였다. 2016년 명동상설공연을 통해 국내외 관람객들과의 소통을 늘렸으며, 2018년 산재하던 세부사업의 구조 개편을 통해 등재종목을 활용한 상설공연과 우수공연 콘텐츠 공모사업을 집중시키고, 2019년은 신규개발공연 콘텐츠를 통한 국가행사 초청 및 고품격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고, 타 행사와 해외예술가를 공동초청하여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하고 있다.

표 4-4-8 세계무형유산 등재종목 관련 상설공연 실적

연도	실적
2015	국회 및 종묘공연 20회, 관람객 21,000명
2016	국회 및 종묘공연 20회, 관람객 16,000명
2017	국회 및 종묘공연 18회, 관람객 77,000명
2018	국립중앙박물관 공연 19회, 관람객 15,816명 국립민속박물관 공연 5회, 관람객 1,900명 우수공연 콘텐츠 공모 5건선정 공연 계기성 행사 1회, 관람객 5,000명 대국민 홍보콘텐츠 6건 제작 및 국내외 캠페인 개최
2019	국립중앙박물관 공연 19회, 관람객 28,318명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연계 공연 2회, 관람객 263명 우수공연 콘텐츠 공모 6건 선정 공연

표 4-4-9 연도별 세계무형유산 등재종목 관련 행사공모지원 공연 실적(2011~2019)

복원시기	지원과제명	주관 단체
2011	전주세계소리축제	(사)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
	구례 동편소리축제	구례동편소리축제추진위원회
	판소리유파대제전	(사)한국판소리보존회
	여성국극	(사)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2012	전주세계소리축제	(사)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
	구례 동편소리축제	구례동편소리축제추진위원회
	판소리유파대제전	(사)한국판소리보존회
	여성국극	(사)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소리와 흥부제	흥부제전위원회
	강릉단오제	(사)강릉단오제위원회
2013	전주세계소리축제	(사)전주소리축제조직위원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
	구례 동편소리축제	구례동편소리축제추진위원회
	판소리유파대제전	(사)한국판소리보존회
	여성국극	(사)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춘향제	춘향제전위원회
	강릉단오제	(사)강릉단오제위원회
	월하예당 선비문화 체험관광	월하문화재단
	명량역사체험마당	해남우수영강강술래보존회
	국악로대축제	국악로문화보존회
2014	구례 동편제 소리축제	구례동편제소리축제추진위원회
	여성국극 '견우와 직녀'	(사)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판소리 유파대제전	(사)한국판소리보존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보성문화원
	강릉단오제	(사)강릉단오제위원회
	월하예당 선비문화 체험	(사)월하문화재단
	소유지몽	남사당놀이 관악지부(박용태 꼭두패)
	아리랑 상설공연 〈판아리PANARI〉	전문예술단체 한국창극원
	아리랑 한국가곡 대축제	한국가곡연구소
	세계무형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국내관광	한국전통문화연구원
	남한산성 유네스코 등재기념 인류무형유산 큰잔치	한국무형문화유산교육개발원
	동해바다 세계무형문화유산 축제	(사)강원소리진흥회

복원시기	지원과제명	주관 단체
2015	제45회 판소리 유파 대제전	(사)한국판소리보존회
	남사당 6마당 놀이	천지개벽
	파주농악보존회와 함께하는 잽이놀이	(사)한국농악보존협회 파주지회
	대한민국 세계무형유산 대축제	강원미래전략연구소
	제18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
	제7회 구례동편제소리축제	구례동편제소리축제추진위원회
	2015 단단단 페스티벌	강릉단오제위원회
	여성국극 '예인 황진이'	(사)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한국의 인류무형유산 축제	한국무형유산교육개발원
	정선아리랑 대합창	(사)정선아리랑제위원회
	세계무형유산과 함께하는 국내관광 2015	한국전통문화연구원
	2015 밀양아리랑 '날 좀 보소' 페스티벌	밀양아리랑콘텐츠사업단
2016	제46회판소리유파대제전	(사)한국판소리보존회
	외국인과 함께하는 한민족의 얼 '농악'	김제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
	제19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
	템플스테이와 함께하는 세계무형유산	이주희무용단
	제8회 구례동편제소리축제	구례동편제소리축제추진위원회
	아리랑 융복합콘텐츠 '정선아리랑 대합창극'	(사)정선아리랑제위원회
	여성국극 춘향전 공연	(사)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2017	외국인과 함께하는 한민족의 얼 '농악'	김제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
	정유난장 '진주성 백희'	솟대쟁이놀이보존회
	제9회 구례동편제소리축제	구례군축제추진위원회
	제20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
	신바람통신사 K-Music envoy	(사)노름마치예술단
	제47회 판소리유파대제전	(사)한국판소리보존회
	여성국극 삼거리연가	(사)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아리랑 융복합 콘텐츠 정선아리랑 대합창극	(사)정선아리랑제위원회
2018	떡보와 아리랑 다섯 고개 호랭이	극단 꼭두광대
	창작국악극 '춘향난봉가'	(주)레이블 소설
	남사당 속 광대놀이	연희집단 The 광대
	가무악극 '날좀보소'	밀양아리랑
	아리랑 삶의 노래 갈라콘서트	사단법인 정가악회

복원시기	지원과제명	주관 단체
2019	판소리동화시리즈_안데르센	입과손스튜디오
	3색 소리극 '흥보가 비하인드 스토리'	거꾸로프로젝트
	소리개 '길'	(사)국악단 소리개
	한국의 안류무형유산 조선서커스 백희(百戲)	예인집단 아라한
	아리랑, 오래전 그때로	윤주희 소우주 앙상블
	대단한 놀이판 : 오늘의 광대	한국무형유산교육개발원

표 4-4-10 세계무형유산 등재종목 관련 상설공연 실적(2016~2019)

	장소	명동예술극장 앞마당
2016	행사명	한국풍류
	기 간	6.20.(월)~6.24.(금), 9.19.(월)~10.7.(금) 매주 월~금 12:20~13:00
	공연 횟수	20회
	공연내용	세계무형유산 등재종목 및 한국무용, 민요, 탈춤 등 전통예술공연
	관람인원	1만명
2017	행사명	한국풍류
	기간	5.5.(금)~5.30.(화), 9.14.(목)~9.29.(금) 매주 월~금 12:20~13:00
	공연횟수	24회
	공연내용	세계무형유산 등재종목 및 한국무용(궁중, 민속), 민요, 탈춤, 시나위 등 전통예술공연
	관람인원	15,750명
2018	행사명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
	기간	10.6.(토)~10.28.(일)
	공연횟수	19회
	공연내용	세계무형유산 등재종목 중 아리랑, 강릉단오제, 남사당놀이 등 전통예술공연(9종목)
	관람인원	15,816명
2019	행사명	위대한유산, 오늘과 만나다
	기간	8.31.(토)~9.29.(일)
	공연횟수	19회
	공연내용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종목 중 처용무,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등 전통예술공연(10종목)
	관람인원	28,318명

(2) 전통예술 활성화를 통한 예술한류 지원

가. 해외 국악문화학교

문화체육관광부는 1991년부터 외국인과 교포들을 대상으로 해외국악문화학교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우리 교포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나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지역 해외한국문화원, 교육기관에 강사 및 악기를 지원하고, 우리의 전통예술을 강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한국 전통예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한 문화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표 4-4-11 연도별 해외국악문화학교 사업 실적

연도	강습실시			국악자료 기증			
	국가 수 (개국)	기관 수 (개)	참가자 수 (명)	국가 수 (개국)	기관 수 (개)	기증 자료 수	
						품목	점수(점)
2009	9	11	454	11	13	국악기, 의상 등	590
2010	5	6	403	4	5	국악기, 의상 등	354
2011	5	6	496	4	5	국악기, 의상 등	363
2012	5	5	237	20	30	시청각 자료	400
2013	10	12	656	6	6	국악기, 의상 등	220
2014	4	4	91	4	4	사물놀이 및 가야금, 의상 등	55
2015	14	16	586	9	9	사물놀이 및 가야금, 의상 등	399
2016	10	14	460	13	15	국악기, 의상 등	336
2017	14	14	446	9	9	국악기, 의상 등	260
2018	14	14	589	12	12	국악기, 의상 등	385
2019	13	13	499	11	11	국악기, 의상 등	237

나. 전통예술 해외 아트마켓 및 페스티벌 진출

한국 전통공연예술 단체의 해외 시장 개발 및 진출 기반마련을 위하여 2008년도에 시작된 이 사업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예술 전략적 해외진출지원사업과 같이 해외홍보부터 해외유통까지 해외진출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 전통공연예술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예술 단체 및 기획자의 자생력 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주요 아트마켓에서 선정한 한국단체의 공식 쇼케이스 지원과 개인 기획자를 파견하여 단체의 해외홍보를 도모하고, 새로운 진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해외시장 조사를 지원한다. 센터 스테이지 코리아는 해외기관이 한국단체 초청 시, 제공하는 조건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해외유통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표 4-4-12 사업개요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비고
해외홍보	해외시장전문가 및 언론 네트워크 구축 〈Journey to Korean Music〉	• 해외 음악 주요 인사(바이어) 한국 초청을 통해 한국 전통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기회를 제공하여 해외 진출 기반 확대 • 민간 기획자 및 예술가의 해외 진출을 위한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국제교류 증진과 다양한 해외매체 소개 기회 확보	인바운드
	해외아트마켓 참가지원	• 국내 기획자 및 공연단체의 해외 주요 공연예술 마켓, 축제, 국제회의 등 해외 주요 행사 참가 지원 • 공연 쇼케이스 및 기획자 참가 지원, 한국 홍보관 운영 등	아웃 바운드
해외유통	〈Center Stage Korea – 해외공모〉	• 해외 주요 축제, 공연장, 협회 등과 협력하여 한국특집 프로그램 개최(공연 및 부대행사) • 해외기관–예술경영지원센터 MOU 체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 • 권역별, 연도별 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균형적인 진출 · 지원 체계 마련 ※ 해외기관 대상 협력제안서 공모 및 자체사업 추진	아웃 바운드
	〈Center Stage Korea – 국내공모〉	• 국내 공연단체(인) 대상 두 곳 이상의 해외투어 공연사업 공모 실시, 기대효과 높은 사업 선정 · 지원 • 단체 및 예술가들의 해외투어 역량 강화 도모	

표 4-4-13 2019 전통예술 해외 아트마켓 및 해외진출 지원 실적

○ 〈저니투코리안뮤직〉

프로그램명	장소	일자	선정자
경계없는 한국음악을 위하여(더튠)	정동극장 정동마루	2019.10.07.	이승천
플랑크톤뮤직 레이블 쇼케이스 (고래야, 신박서클)	생기뮤직스튜디오	2019.10.08.	안상욱
Park Jiha: Philos	디 엣지	2019.10.09.	박지하
뮤직 가든 인 양평 (신노이, 음악그룹 나무)	경기도 가평 금대리	2019.10.10.	박정연
Back to the Future, 미래의 전통 (필락, 김남령, 황진아, 성슬기×조은희)	서울돈화문국악당	2019.10.11.	안희경
Just Hey String	서울남산국악당	2019.10.09.	헤이스트링
Gray by Silver	서울남산국악당	2019.10.09.	그레이바이 실버
사라진 것들로부터	서울남산국악당	2019.10.09.	한솔잎

○ 〈해외아트마켓 참가지원〉

구분	단체	국가	기간	진출행사
쇼케이스 참가지원	창작음악그룹 the튠	스페인	6.5.~6.9.	쏠 마드리드
		모로코	11.19.~11.24.	비자 포 뮤직
	(사)문화문-Korean Gipsy 상자루	영국	7.31.~8.26.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동양표준음향사 (노선택과 소울소스 meets 김율희)	핀란드	10.22.~10.28.	월드뮤직엑스포(워멕스)
		캐나다	11.18.~11.23.	문디알 몬트리올
	악단광칠	핀란드	10.23.~10.27.	월드뮤직엑스포(워멕스)
홍보 지원	윤보미	스페인	4.8.~4.10.	국제예술가기획자연합
	오승연	독일	4.25.~4.28.	재즈어헤드
	이승천	독일	4.25.~4.28.	재즈어헤드
	유지영	네덜란드	5.15.~5.18.	클래시컬넥스트
	김혜연	핀란드	10.23.~10.27.	월드뮤직엑스포(워멕스)
	안희경	핀란드	10.23.~10.27.	월드뮤직엑스포(워멕스)
	최성우	핀란드	10.23.~10.27.	월드뮤직엑스포(워멕스)
	설현주	스페인	9.18.~9.21.	스페인 바르셀로나 뮤직마켓
	박정연	핀란드	10.23.~10.27.	월드뮤직엑스포(워멕스)
시장조사 지원	최석규	아랍권역	6월~12월	아부다비, 샤르자, 두바이 등

○ 〈센터스테이지코리아〉해외공모/국내공모

단체	국가	기간	진출행사
창작음악그룹 the튠	아랍에미리트,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 미국	2.1.~2.3. 7.19.~7.27. 9.19.~9.22. 11.6.~11.7.	1) Sharjah World Music Festival 2) Festival Músicas do Mundo 3) Luneda Production 4) SFINKS MIXED 5) Festival Boreal 6) The John F. 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7) Lincol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고래야	아랍에미리트, 미국	2.7.~2.9. 7.11.~7.12.	1) Sharjah World Music Festival 2) Abington Art Center 3) Smithsonian's Museums of Asian Art
모데스트몬스터	아랍에미리트, 영국	2.6.~2.8. 6.27.~7.2.	1) Sharjah World Music Festival 2) Glastonbury Festival) 3) Glastonbury Festival)
동양고주파	아랍에미리트	2.2.~2.4.	Sharjah World Music Festival
이나래	미국	5.9.~5.10.	1) Lincol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2) The John F. 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단체	국가	기간	진출행사
잠비나이	루마니아,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포르투갈, 프랑스	6.2.~7.5.	1) Best Kept Secret 2) AB Club 3) The Garage 4) NOS Primavera Festival 5) Terres du Son Festival 6) EUROCKÉENNES DE BELFORT
블랙스트링	캐나다	7.13.~7.21.	1) Caravan World Rhythms Society 2) Vancouver Island MusicFest 3) Vancouver Folk Music Festival (VFMF)
김소라	폴란드, 영국, 미국	7.20.~7.28. 8.15.~8.25.	1) GLOBALTICA World Cultures Festival 2) WOMAD Festival 3) Yerba Buena Gardens Festival 4) Creative Alliance 5) Philadelphia Folk Festival 6) Joe's Pub 7) American Folk Festival
둘다 밴드 (문화상인보부)	스페인	9.19.~9.22.	Festival Boreal
음악그룹나무	캐나다	9.19.~9.23.	1) Prismatic Arts Festival 2) Small World Music
모던 판소리 공작소 촘촘	대만	10.16.~10.26.	National Kaohsiung Center for the Arts(Weiwuying)

다. 전통공연 계기성 행사 지원

2014년도에 시작된 본 사업은 계기성 국제행사 연계를 통한 전통예술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통공연예술 분야의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년 2차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에게 해외교류활동을 위한 항공료를 지원하는 전통예술해외진출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2019년에는 전통예술소재 해외특성화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는 전통예술해외확산 사업을 통해 전통공연예술 민간단체들을 지원하였다.

○ 연도별 지원실적

연도	지원사업명	지원단체
2014	미국 애틀란타 교민을 위한 설날 "한민족국악대축제"	한국국악협회
	한국이탈리아, 음악으로 소통하다 "실내악단 이병욱과 어울림 초청 특별 강연 및 공연"	실내악단 이병욱과 어울림
	터키 International 23rd April Children's Festival 공연 참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14 국제문화예술 교류제(태국, 베트남)	윤명화무용단
	Ari Project 2014 〈Sound of Korea 2014〉	구음회
	달, 천의얼굴	서정춤세상
	2014 프랑스한국문화대학축제	한국전통문화연구원
	한-태수교 56주년 기념, 2014한-태우호문화축제	(사)나는새공연예술진흥회

연도	지원사업명	지원단체
2014	Bamboo Asia Project(한국, 중국, 베트남)	한음사이
	2014 명인열전	한국전통음악연구회총연합회
	한-베트남수교 22주년 기념 특별초청공연 및 한국음악 레지던시	나라국악관현악단
	2014뉴욕한국공연예술터 제20회 정기공연 "NewYork Plan"	남도민요보존회
	한국의 전통예술로 "있다, 잊다, 잇다"	(주)댄스팩토리
	제5회 전통춤 류파전	(사)한국춤예술센터
	한일전통예술 교류 공연 '인연'	이주희 무용단
	K-Culture 세계인의 노래 한국의 아리랑	(사)강원소리진흥회
2015	2015 달라스 한민족 국악대축제 / 2015 오스틴 한민족 국악대축제	(사)한국국악협회
	2015 시드니 설축제	홍승욱무용단
	국악과 플루트 앙상블과의 만남	마산오광대보존회
	제 3회 한국소리페스티벌	전통예술단 아우름
	데이톤국제민속제	드림무용단
	한국-폴란드 프로젝트 쇼팽&아리랑	풍류지악
	헝가리에 핀 무궁화 "Mugunghwa, blooming from Hungary"	두(頭) Do Dance 무용단
	인천아라리, 이집트 세계 전통타악 페스티벌 초청공연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아시아 전통음악 전승에 관한 학술세미나와 렉쳐 콘서트 '아시아교류음악회'	(사)경기향제줄풍류보존회
	2015 아리랑 칸타타	이영신의 소리타래
	2015 킹스톤 웰컴즈 코리아 개막공연 및 축하공연	한국전통문화연구원
	블랙스트링클란데스티노 페스티벌	블랙스트링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기념 전통축제 한마당	애오개본산대놀이보존회
	한국전통예술의 향연 "기운생동(氣韻生動)"	한국전통춤예술원
	중국 심양 2015 선양한국주 초청공연	국내실내악단 슬기둥
	런던 코리아 페스티벌, 킹스턴 웰컴코리아 페스티벌 초청공연	연희컴퍼니 유희
	헝가리 "한국인의 날" 기념 초청공연	풍류 방중지악
	〈해외 미래세대에게 아리랑 심기 글로벌 프로젝트〉 아리랑, 아프리카의 심장을 두드리다!	(사)한국전통문화예술원
	제3회 미동부지부 국악대제전 '명인열전'	삼현육각피리보존회
	2015 아사쿠라시 자주문화 행사	기산국악제전위원회
	광복 70주년 기념공연 〈대한민국 춤과 음악 in 오스트리아-'우리춤 우리가락'〉	발림무용단
	2015 아세안 전통음악축제	광개토 사물놀이
	Ari Project 2015 〈Sounds of Korea 2015〉	구음회
	한-중교류음악회 "존중"	한음사이 실내악단
	중국천진국제상무문화제 참가	(사)국악단소리개

연도	지원사업명	지원단체
2016	제6회 세이셸 빅토리아 카니발 축제 초청공연	테헤신카르마프리무용단
	다민족 우정축제(세계속에 한국 알리기)	평택민요보존회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 명작무제전	한국전통문화연구원
	프랑스 투어 공연–촉각 콘서트 “다섯가지 기억”	리퀴드사운드
	[코리안랩소디–천상무도] 리우올림픽 계기 브라질 순회공연	코리안랩소디
	일본해금연구회 초청 불세출 콘서트	불세출
	천강에 춤추는 달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전통예술위원회
	김주홍과 노름마치 〈The K–WIND〉 슬로베니아 Okarina Ethno Festival 투어	(사)노름마치예술단
	독일 상트 오틸리엔 선교박물관 한국관 재개관기념 한국문화향연	중요무형문화재제30호가곡전수관
	1. 한–인도네시아국제협업즉흥연주, 자카르타한국음악워크숍 2. 한국,일본 관악기를 위한 현대음악 연주회	가민
	김장우의 춤 동행(同行), 희망에서 아름다움을 춤추다'	우댄스컴퍼니
	2016 이집트–터키 앙카라 뮤직 페스티발 및 안탈랴 엑스포 한국의 날 행사	타악그룹 진명
	EXPO 2016 ANTALYA 국가의 날 행사	순천시
	러시아 사할린 에트노스 예술학교 한국전통음악 및 무용단 방한 연수	국립전통예술중학교
	Min Moon Productions의 시애틀투어 초청공연사업_ 〈이어도: 더 파라다이스〉	(사)전통공연예술개발원 마로
	잠비나이영국K–Music페스티벌	잠비나이
	베트남에 부는 새바람 ‘Live–K’	아리랑 앙상블
	2016 코레디씨 페스티벌	㈜난장컬처스
	농악' 인류의 신명이 되다	(사)고창농악보존회
	알래스카 한국 전통 문화 페스티벌	(사)국악단소리개
	〈한국의 예술–굿〉(‘GUT’: Shamanistic Art of Korea)	희방전통문화원
	글로벌 한국 전통문화 2016 “한류” (Globalisation of Traditional Korea Culture 2016 “Korean Waves”)	서정춤세상
	들소리 미주투어 “뜻밖의 외출–Umespected”	(사)문화마을 들소리
	제1회 미중부 광개토 사물놀이 초청 순회 공연 및 강습회	광개토 사물놀이
	한푸리 가무악 코리아 제10회 해외 입양인 대축제 축하공연 “나의 조국의 전통음악 한마당”	한푸리 가무악 코리아
	헝가리 한국영화제 개막 기념공연 및 폴란드 한국문화원 초청공연	윤명화무용단
	문화가 있는 날–힐링 퍼커션 [바람의 숲]	소나기프로젝트
	주독일한국대사관–한국문화주간	유소
	아시아 문화나눔 콘서트 '한국의 소리'	(사)경기향제줄풍류보존회
2017	중앙아시아 키르키즈스탄 전통공연과 K–pop 및 전통놀이 체험	(사)전통문화예술연구소
	한국전통문화축제	한국전통문화연구원

연도	지원사업명	지원단체
2017	한국전통예술의 향연 “혼의 소리, 혼의 몸짓”	한국전통춤예술원
	노마드, 예술로 만나다–바람의 멋	전통예술단 혼
	2017년 한류–한국전통문화의 세계화행사–단울림 가야금 앙상블 초청공연	단울림 앙상블
	주워싱턴한국문화원, 주뉴욕한국문화원 초청공연 바라지 〈비손〉	우리소리 바라지
	김주홍과 노름마치 〈The K–WIND〉	노름마치예술단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개원기념식 및 고려인을 위한 힐링퍼커션 순회공연	소나기프로젝트
	인도네시아 폴왈리 국제민속예술축제	국가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보존회
	한국춤 세계를 노닐다	(사)한국전통춤연구회
	한 · 캄 수교20주년 기념 한국문화의날 행사	(사)소리사위예술단
	화성과 창의에의 시도 Op.8, NO.1–6	(사)국악단 소리개
	조종훈의 古今 鼓	프로덕션 고금
	아프리카세이셸 공화국 Biennale de Dance	김미숙하나무용단
	2017 댈러스 코리안 페스티벌	한국전통예술단
	캐나다 건국 150주년 기념 World Traditional Performing Art Festival	한국무형유산교육개발원
	잠비나이 유럽 7개국 순회공연	잠비나이
	2017 한–온두라스 우호의 달 숙명가야금연주단 초청공연	숙명가야금연주단(아즐가)
	호치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타악그룹 진대
	한중교류음악회 “존중”	한음사이 실내악단
	타고 마케도니아 스코페 화이트 나이트 축제 초청	타고
	한국전통문화공연 In 이코마시 〈역사의 바람〉 제2회	춤새무용단
	2017 샌프란시스코 제25회 한국의 날 축제	문화기획 나무
	한국의 신명을 세계로	(사)일통고법보전회 대구경북지회
	2017 International Creative Dance Seminar	경희대학교 윤미라무용단
	이영신의 소리타래 ‘인연–연’	이영신의 소리타래
	모로코 월드뮤직페스티벌 Visa for Music	(사)정가악회
	브뤼셀 세계민속축제 포클로리시모	악단광칠
	지구촌 난장프로젝트 – 모꼬지 in seattles	전통연희단 꼭두쇠
	경기JAZZ프로젝트 〈한국남자〉	이희문 컴퍼니
2018	Festival Dell Oriente 2018 로마 ‘한국 천년의 몸짓, 그 오묘한 세계’	울산학춤보존회
	한국 전통음악과 플라멩코의 만남	푯대
	몽골 울란바토르시립앙상블 초청 국악관현악단 더불어 숲 전통음악 공연 ‘꿈이 피어나는 숲’	국악관현악단 더불어 숲
	2018년 한중 전통문화교류 별난 ‘단오’ 별별 ‘삼락’	임실필봉농악보존회

연도	지원사업명	지원단체
2018	2018 패스포트 DC 얼쑤 워싱턴 '판' 축제	타악그룹 진명
	한국-캐나다 수교 55주년 기념 전통축제 한마당	동락연희단
	2018 주상하이 한국문화원 '한국문화가 있는 날' 개막식 -봄 콘서트-	예술숲
	동방의 불꽃, 한국의 춤 문화 유산	연낙재
	2018 한중우호주간 '춤으로 물들인 비단길'	전은자 무용단
	한-방글라데시 수교 45주년 'Charm of Korea'	컬처앤유
	한국의 숨 - 문화로 세계로 하나로	무대와 의상
	2018 LA한국문화원 아리프로젝트 '무브먼트코리아' 공연 및 워크숍	광개토사물놀이
	2018 포르투갈 국제민속축전 참가 공연	성남시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주 베를린 한국문화원 〈한국문화가 있는 날〉 '산조탐닉'	경기가야금앙상블
	2018 AFCU-23 챔피언십 준우승 및 한-베 수교 26주년 기념공연	풍류방중지악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초청 로마한국주간 전통공연 '집대성음'	신쾌동류 거문고산조 보존회
	한국의전통예술〈굿〉 'GUT':Shamanistic Art of Korea	희방전통문화연희원 (구.희방전통문화원)
	스페인 가라치코 한국주간 한국 전통무용 음악공연	윤명화 무용단
	2018 〈마홀라컴퍼니〉 해외공연 이스라엘	마홀라컴퍼니
	2018 한-미얀마 추석맞이 국악대공연	(사)한국국악협회
	몽골에 그린 한국의 소리 〈소지음회 초청공연〉	소지음회
	미야기갱 이웃나라의 타악과 춤	이주희 무용단
	〈Park Jiha: Communion〉	박지하(Park Jiha)
	경기도무형문화재 제48호 평택민요보존회 삶의 소리, 흥의 소리(한,필문화교류축제)	평택민요보존회
	Immigrant Arts Summit Launch Concert(이민자연합 주최 콘서트)	놀이꾼들 도담도담
	제1회 필리핀 싼 페르난도 교도소 제소자를 위한 축제 "어깨동무 얼쑤야"	㈜쿨웨이브
	사물놀이 세계화 프로젝트#1 'THIS IS SAMULNORI'	(사)사물놀이한울림
	성탄축제 '라나비데나(LaNavidena)' 명인명무전 '스페인풍류'	양길순 무용단
	주터키 한국문화원 카라반 한국문화의 날 초청공연 '한반도아리랑'	사단법인향두계놀이보존회
	주뉴욕한국문화원사물놀이40주년기념 2018 오픈스테이지〈빛:BEAT in NewYork〉공연 및 워크숍	BEAT프로덕션
	미국 디트로이트 댄스시티 페스티벌 모던테이블 다크니스 품바투어	모던테이블
	몽골 국립마두금앙상블 합동공연 '강물 위에 뜬 달, 초원 위에 뜬 별'	(사)충북민예총
	김주빈무용단 불가리아 초청공연 견肩(Shoulder)	김주빈무용단(JBKCompany)
	제1회 하얼빈의 여름 전통음악회	김계옥가야금연주단
2019 해외진출	주터키한국문화원 초청 2019 카라반 한국문화의날 〈NORI〉	박안지연희컴퍼니
	2019 홍콩한국문화원 초청 한국전통문화주간 〈현금무가〉	신쾌동류거문고산조보존회

연도	지원사업명	지원단체
2019 해외진출	한국정악원과 조선족 전통음악연구회가 함께하는 〈우리소리 음악회〉	사단법인 한국정악원
	2019 뉴욕국악축전 2019 Spirit of Korea '한인의 얼'	㈜퓨전코리아
	2019 대만 세계전통춤문화축제 초청공연	신은주무용단
	누모리 in Paris	누모리(누베이스레코드)
	2019 〈마홀라컴퍼니〉 워싱턴 해외투어 공연	마홀라컴퍼니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크르와즈 문화축제 초청공연	김백광
	미국 서부 윌로우스 한국 공국 역사기념 재단 초청 〈남북한 음악이 함께하는 화해의 메아리 콘서트〉	통일앙상블
	2019 ensemble PHASE SPREAD II	앙상블 페이즈
	판소리 〈레겐트루데〉 독일 투어	희비쌍곡선
	한일 전통문화 교류극 망한가	블루아이 프로덕션
	제12회 터키 아마시아 국제문화예술축제 초청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2019 TCO 초청 기획공연 국악타악 협주곡 〈수로부인〉 캐나다 초연	㈜컬쳐비즈글로벌
	민속악회 시나위 창단 50주년 기념 '故지영희 추모음악회', '스승의 소리길'	민속악회 시나위
	2019 북경 국제무용세미나 초청공연	윤미라무용단
	2019 제34회 세이셸 크레올 페스티벌	김미숙하나 무용단
	ASEM 계기 한국 전통 문화 소개	국악그룹 이상
	2019 블랙 스트링 유럽 투어	블랙 스트링
	모던가곡	모던가곡
	2019 코레디씨 페스티벌	사단법인 디딤돌문화원
	함께 더 멀리 'Together Further'	국악관현악단 더불어숲
	엘살바도르 한국문화행사 공연	악단광칠
2019 해외확산	The Phantom '처용' : 心(Cuore)	ART STAGE 다올– 청평문화예술학교
	2019 이희문프로젝트 날[陞] 독일 투어	이희문컴퍼니
	세계 풍류음악 여행시리즈 Ⅵ 〈비잔틴 풍류〉	아우름

3. 주요기관

1) 국립국악원

(1) 조직현황

국립국악원은 국악계의 종가로서 한국 전통음악 원형의 보존과 보급 및 창조적인 전승을 통해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51년 부산에서 개원한 이래 1987년 현재의 서울 서초동 청사로 이전하였고, 궁중과 민간에서 향유했던 악가무(樂歌舞)의 전통을 계승하고 재창조하기 위한 공연 교육 ·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전통음악을 체계적으로 계승 · 발전시키고 진흥하기 위하여 1992년 전북 남원에 민속국악원을, 2004년 전남 진도에 남도국악원을, 2008년 부산에 부산국악원을 각각 개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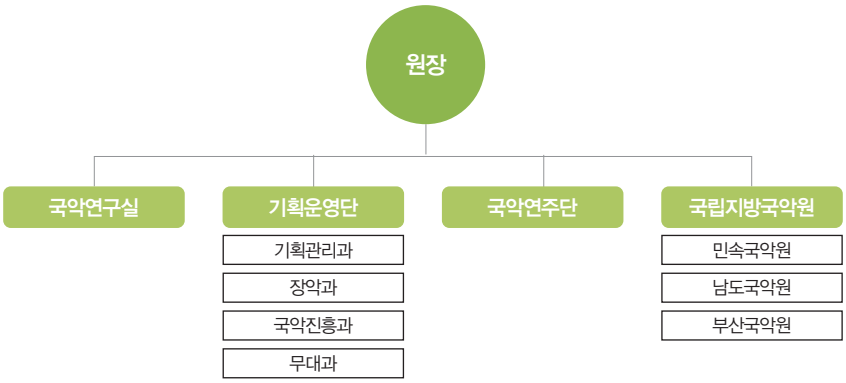
국립국악원은 우리음악의 원형 재현과 복원을 위한 정통국악공연과 더불어, 이 시대의 새로운 문화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작품개발과 보급을 통해 한민족 음악문화유산의 가치와 감동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국악학 및 국악기 연구, 국악자료의 온라인 공유와 활용 기반을 조성하였고, 이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과 계층은 물론 국내외를 막론한 맞춤형 체험과 교육, 공연을 통해 국민의 생활화 및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국립국악원의 조직은 기획운영단에 소속된 기획관리과, 장악과, 국악진흥과, 무대과 및 국악연구실, 민속국악원, 남도국악원, 부산국악원 등 1단 1실 4과 3개 지방국악원, 각 원별 국악연주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4-14 국립국악원 인원 현황(2019)

구분	일반직				정단원	객원단원
	계	일반직	연구직	관리운영직		
총 계	161/153	111/107	40/37	10/9	481/444	26
국립국악원	90/87	58/55	24/24	8/8	246/231	0
민속국악원	24/22	18/16	5/5	1/1	90/77	10
남도국악원	24/23	18/18	6/5	0/0	50/46	12
부산국악원	23/21	17/18	5/3	1/0	95/90	4

그림 4-4-1 국립국악원 조직도



* 위치: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 홈페이지: http://www.gugak.go.kr

2019년도 세출예산은 766억 원으로, 국립국악원 운영비 653억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113억 원이다.

(2) 공연

국립국악원은 오랫동안 전승해 온 궁중 음악과 민간 음악, 춤은 물론 미래의 전통이 될 새로운 한국 음악까지 다양한 문화 예술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국립국악원의 연주 전통과 재해석은 '지금 여기'의 음악과 '미래에 다가올' 우리 음악의 지평을 넓혀 가고 있으며, 국악의 전승과 창조적 계승을 위하여 최고의 기량을 갖춘 정악단, 민속악단, 무용단, 창작악단의 4개의 전속 국악연주단을 운영하고 있다.

정악단은 궁중음악과 풍류음악의 전승을 목적으로 연주활동을 하며, 민속악단은 민간 공동체 삶의 신명나는 민속음악의 전승을 목적으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무용단은 궁중무용, 민속무용, 신무용 등 한국 춤의 전 장르를 전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작품을 개발하는 창작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창작악단은 전통음악을 근간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창작음악의 개발과 새로운 한국음악의 양식 창출로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예술세계를 열어 가고 있다.

2019년 국립국악원은 정통성과 예술성을 확보한 대표공연 〈영화를 만난 국악판타지 꼭두〉(6월, 3회, 1,732명)와 필름콘서트 형태로 재탄생 시킨 〈꼭두 이야기〉를 국내(6회, 2,076명) 및 해외(3회, 2,400명)에서 공연하였고, 대표공연 개발을 통해 〈신화와 국악의 만남 붉은선비〉(11월, 5회, 2,269명)를 제작 초연공연을 하였고, 〈정기공연〉으로 민속악단 '창단 40주년 기념-혹되지 아니ᄒᆞ다'(4월, 3회, 1,308명), 창작악단 '그날'(4월, 2회, 923명), 정악단 '제례악, 깊이 듣기'(9월, 2회, 672명), 창작악단 '이면과 공감'(9월, 2회, 606명), 무용단 '처용'(10월, 2회, 1,055명), 민속악단 '갈까부다'(10월, 2회, 430명) 등을 추진하였으며, 연주단 집중 〈기획공연〉으로 '정악, 깊이 듣기'(정악단, 3월, 2회, 801명), '정가, 깊이 듣기'(정악단, 7월, 2회, 380명), '대한민국작곡상

수상작품 공연'(창작악단, 12월, 1회, 456명) 그리고 송년음악회 〈종묘제례악〉(12월, 5회, 2,084명공연하였다. 또한 다양한 공연을 통한 국악의 동시대성을 확보하고 대중적인 소통을 위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국악과 합창 칸타타를 중심으로 한 '그날(The Day)'(4월, 2회),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멕시코시티 공연(4월, 2회), (위안부 기림의 날 공연)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공연(8월, 1회), (어린이 · 가족) '토요국악동화'(연중, 27회), '겨울국악동화'(1~2월, 8회), '십이야'(5월, 5회), 청소년 음악회 '너의 이야기, 꼭두 이야기'(7월, 3회), 퓨전국악 등으로 이루어진 '우면산 별밤축제'(7~9월, 8회), (관광객 대상) 토요명품공연, 박물관 관람, 국악 체험 연계 관광 상품 개발, 외국인 관광객 유치(인바운드) 여행사 및 관광관련 기관 담당자 대상 여행 설명회(팸투어, 9월), (요일별 특화된 상설공연 운영) 다담(1~11월, 11회), 수요춤전(2~9월, 12회), 목요풍류(4~10월, 12회), 금요공감(5~11월, 15회), (절기공연) 명절 기획공연(설 · 추석 각 2회, 칠석 1회), (기획공연) 작은창극 '꿈인 듯, 취한 듯'(6월 3회, 10월 초청 2회)를 운영하였다. 특히, 고품격 국악콘텐츠를 활용한 국악의 세계화 사업으로 대표공연 '꼭두'를 장편영화로 제작한 필름콘서트로 베를린국제영화(2월), 뉴욕링컨센터 · 캐나다 오타와 · 토론토 공연*(6월, 3회 2,400명)으로 해외 순방을 통한 한국고유 문화홍보를 하였고, 해외국가 수교 기념 공연으로 한-스웨덴, 한-노르웨이 수교 60주년 기념 해외 공연 종묘제례악을 비롯한 전통음악 공연(스웨덴 Konserthuset, 11월), 풍속화와 음악을 연계한 강연음악회 '풍류를 만난 뭉크'(노르웨이, 12월) 공연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하였다. 양방향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전통예술 단체 및 예술가 초청 및 교류공연 개최하여 대만 국립전통예술중심 소속 국악단 초청 대만 전통음악-창작악단 협연(5월, 2회)과 전주세계소리축제와 연계한 월드뮤직시리즈 개최(9~10월, 4회) 하였다. 미래 국악 인재 양성을 위한 무대 지원 사업으로 미래 국악예인들의 교류의 장 '대학국악축제'(10월, 12회)와 신진 지휘자를 발굴하여 창작악단과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청춘, 청어람'(3월, 2회)으로 차대세 예술인 발굴에 이바지 하고자 했다. 또한, 적극적인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국내 개최 국제 관광 관련 '코리아마이스엑스포'(8월), 서울국제관광박람회(9월), '럭셔리 트래블 마켓'(11월)에 참가하였고, 한국관광공와 연계하여 현지 공연 홍보를 위해 방콕, 하노이 지역 방문, 현지 관광업계 관계자 대상 홍보(7월)를 진행하였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작품성과 대중성을 보다 극대화한 창극 〈지리산〉을 개최(5회, 2,684명)하였고 정기, 기획, 절기, 대외 협력공연 등으로 총 129회 공연을 펼쳤으며 28,819명이 관람하였다. 국립남도국악원은 42회의 금요국악공감을 7,494명의 관객이 관람하였고, 명절공연, 브랜드공연, 정기연주회, 송년공연 등 7회의 공연을 2,005명이 관람하였다. 또한 국립부산국악원은 대표적으로 〈2019 영남춤축제-영남춤100인전 등〉(17회, 5,028명), 한류 확산을 위한 상설공연 〈천생연분Ⅱ-붉은 머리 학 이야기〉(45회, 9,998명)를 공연하는 등 각종 정기, 기획, 상설, 대외협력, 대관공연 등을 포함해 총 175회(53,155명)의 공연 개최를 통한 전통음악의 전승과 창조적 계승으로 동시대인과 폭넓게 소통하여 국악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3) 연구

국악연구실에서는 국악학 학술연구와 국악기 연구, 국악아카이브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악박물관을 통해 국악유물전시와 대상별 맞춤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국악학 연구 기반 확대를 위해 기초연구자료와 정책연구 분야의 다양한 서적을 발간하고 있다. 국내 · 외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인접학문이나 아시아음악 간의 교류를 추진하며, 전통예술 및 인접분야의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한 학술상을 진행한다. 또한 북한을 비롯한 한민족음악 연구와 이를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들 자료를 취급하는 특수자료실을 운영 중이다.

악기연구소는 국악기 음향 및 재료, 국악기 개선, 고악기 복원, 국악기 제작아카데미 운영을 주요 과제로 이에 따른 각종 연구보고서 발간, 디지털 음원 개발, 교육용 악기 개발 등을 통한 국악기 대중화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악 관련 영상 · 음향 · 이미지 · 텍스트 · 복합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국악아카이브에서는 국립국악원이 생산한 기록물 자료를 중심으로 국내외 민 · 관 소장의 국악 자료 약 39만점을 수집, 보존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국악아카이브 누리집(http://archive.gugak.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3만점의 자료정보와 5,800여점의 동영상 · 음향 콘텐츠의 스트리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악자료실에서는 국악 등 관련 도서자료 약 24,000점의 서적과 국립국악원 공연관련 포스터, 팸플릿, DVD, CD, 사진 등 비도서 51,000여점을 소장하고 내원하는 방문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15년 1종 박물관으로 등록된 국악박물관은 2019년 8월 20일에 재개관을 했으며, 고품질 음악 감상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고, 국악기의 소리 나는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공간을 확대하는 등 '듣는' 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음악박물관으로서 특화했다.

(4) 주요성과

국립국악원은 전통문화예술과 다양한 장르의 결합을 통한 작품 개발로 영화와 국악의 만남을 시도한 〈꼭두〉(3회, 1,732명) 공연을 개최하였고, 〈꼭두〉를 필름콘서트로 제작한 〈꼭두이야기〉를 국내 뿐아니라 베를린국제영화(2월) 참가, 뉴욕링컨센터 · 캐나다 오타와 · 토론토에서(6월, 3회, 2400명) 공연함으로써 해외 순방을 통한 한국고유 문화를 홍보함과 동시에 국악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작은 창극 〈꿈인 듯, 취한 듯〉(3회, 390명), 〈신화와 국악의 만남 붉은선비〉(5회, 2,269명), 〈종묘제례악〉(5회, 2,084명) 및 〈절기공연〉(4회, 2,656명), 〈정기공연〉(13회, 4,994명)을 진행하여 전통의 올바른 계승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고. 청년국악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국악축제〉(12회, 5,815명)를 개최하였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창극 〈지리산〉(5회, 2,684명)을, 국립남도국악원은 〈금요국악공감〉(42회, 7,494)을, 국립부산국악원은 3 · 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임시정부가 위치했던 중국 '항저우(임시정부기념관)'와 '상하이(한국문화원)'에서 특별공연을 개최(3월

1일/2회)하고, '2019 영남춤축제-영남춤100인전 등'(17회, 5,028명), 한류 상설 공연 〈천생연분Ⅱ-붉은 머리 학 이야기〉(45회, 9,998명)를 제작 · 공연하는 등 전통공연예술의 원형을 보존 · 보급할 뿐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통한 고품격 국악공연 제작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악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 · 청소년 · 외국인 · 가족 등 계층별 눈높이에 맞춘 국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651회, 14,973명)하였고, 2007년에 개발하여 국악 교육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국악교육 사이트 'e-국악아카데미(http://academy.gugak.go.kr)'는 2019년 초 · 중등 음악교과서 수록 국악 감상곡 영상(소개영상 4편, 연주영상 9편, 클립영상 4편) 17편을 제작하여 학생,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온나라 국악 경연대회(11개 부문)와 온 나라 전통춤 경연대회(2개 부문), 국악동요 작품 공모전,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 등을 개최하여 국악 감수성을 지닌 인재를 발굴 · 육성하였고, 해외국악문화학교(13개 국가, 13개 기관, 499명), 국제국악연수(2주 과정 17명), 외국인국악체험(58회, 2,102명) 등을 통하여 국악한류의 토대를 마련하는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였다.

국악연구실의 학술정책 및 발간사업은 『국악원 논문집 제39~40집』, 『국악연감 2018』, 『한민족음악총서7: 북한의 민족가극』, 『한민족음악총서8: 재외동초 원로 예술가 구술채록, 일본편』, 『재외동포 원로예술가 구술채록』, 『창작을 위한 국악기 이해와 활용 2』, 『Korean Musicology Series 10: Performing Arts of North Korea』 『영문 국악 용어집-PDF』, 『한 · 중 교류논문집』등 13종 13권의 연구결과물을 제작 · 발간하였으며, 국제학술회의로 한 · 중인문 교류사업 『한 · 중문물 국제학술회의』(50명)와 국내학술회의 〈2019 국악정책세미나: 국악정책 조망과 모색〉(60명), 〈2019 제5회 북한의 민족음악 이론〉(239명)을 개최하였다.

악기연구소는 화왕산성 출토 북 재현악기 제작과 『악학궤범』 부 등의 고악기 복원 보유특허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악기 기증과 창작악단 대피리 개선을 진행하였다. 또한 어린이 국악기 제작아카데미(2회), 오사카 건국학교 어린이제작아카데미(1회), 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네트워크 [초등국악 모이소], 교실 국악기 시범학교 운영 및 성과발표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2017 · 2018 국악기연구보고서』 발간 및 산업재산권 디자인 등록(3건)을 완료하였다.

국악아카이브는 국립국악원 자체 생산 및 외부 수집자료 6천여 점을 수집하였고, 1,500여점의 보유 영상 · 음향기록을 디지털화 하였다.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국문화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으며 『국악아카이브 소장자료 연구시리즈 Ⅱ: 로버트 가피아스 소장자료 연구(사진집, 연구집)』, 『2019 국립국악원 구술총서 제21집: 로버트 가피아스』를 발간하여 소장 자료의 가치를 재조명하였다. 또한 공연예술아카이브의 역할을 주제로 〈2019 아카이브 연구기획 학술세미나: 공유, 연계, 활용〉(71명)을 개최하였다.

국악박물관은 2019년 8월 20일(화) 새 단장을 마치고 '더 가까운 음악, 더 깊은 이해, 더 즐거운 놀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재개관하여 12월 28일까지 40,715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1995년 문을 연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국악 전문 박물관으로, 우리 음악의 산 교육장 역할을 해

왔다. 상설전의 내용은 음악을 이루는 요소들(악기樂器, 악보樂譜, 악인樂人)을 중심으로 '국악뜰', '소리품', '악기실', '문헌실', '아카이브실', '명인실', '체험실'의 7개 전시실로 구성했으며, 악기, 문헌, 음반, 의상 등 347점을 전시했다.

궁궐의 뜰인 전정(殿庭)에서 착안한 1층 중앙홀(제1전시실) '국악뜰'에는 궁중의례 편성악기 중 가장 큰 규모의 악기들을 전시했다.

제2전시실 '소리품'은 어디서나 들을 법하지만 유일한, 이 땅의 음악 재료들을 만나는 공간으로 자연의 소리, 일상의 소리 등 '음악'으로의 형태를 갖추기 이전 단계의 소리를 소개했다. 제3전시실 '악기실'에서는 현전하는 다양한 국악기를 살펴보면서 그 소리를 함께 들어볼 수 있다. 이번 전시를 위해, 국립국악원 연주단의 연주로 52종의 국악기 연주를 녹음 · 촬영하였고, 이를 악기실에서 감상할 수 있게 준비했다. 제4전시실 '문헌실'에서 악보(樂譜), 무보(舞譜), 악서(樂書), 도병(圖屛) 등 음악과 관련된 역사적 서지류를 전시했다. 가장 오래된 관찬(官撰)악보인 『세종실록악보』, 국립국악원 소장 보물 1291호 『대악후보』, 그리고 조선후기의 역동적 음악 변모 양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민찬(民撰)악보들을 볼 수 있다.

제5전시실인 '아카이브실'은 2007년에 설립한 국악아카이브 소장 자료 중 주목할 만한 진귀한 자료를 소개하는 전시실이다.

'명인실'로 꾸며진 제6전시실에서는 전통예술의 명맥을 지켜낸 예인들의 유품과 활동에 대해 소개한다. 1940년대 이전 출생자이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명인 중 국립국악원에 유품을 기증 · 기탁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명했다.

제7전시실은 국악기의 소리 나는 원리를 알아보고, 내 맘대로 악기를 편성해 보는 등 국악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체험실'을 조성했다.

그림 4-4-2 국립국악원 전경

2) 국립국악학교 · 국립국악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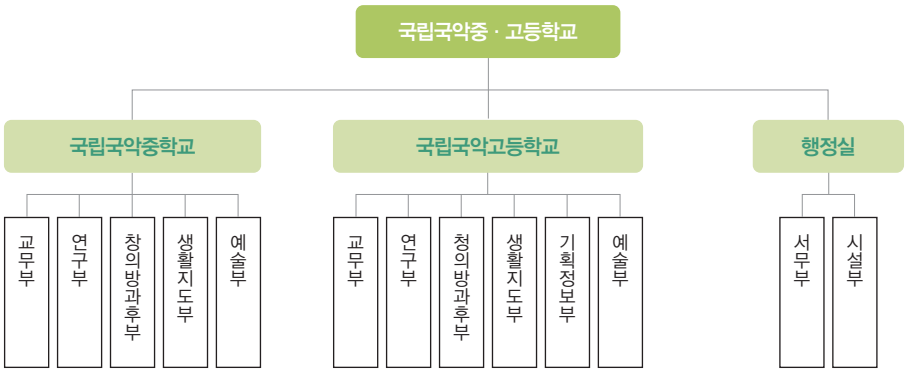
(1) 조직현황

국립국악중학교와 국립국악고등학교는 선조들이 이룩한 찬란한 전통 음악과 무용을 계승 발전시키며, 나아가 21세기 세계화 · 정보화 시대에 우리 문화 창달의 주역이 될 창조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국가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중등학교이다. 1954년 10월 1일 문교부령 제38호에 의거,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 규정이 공포되어 문교부 직속학교가 되었고, 1955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에 중 · 고등학교 6년 과정의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로 개소하였다. 이후 1991년 12월 16일에 지금의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22길 65로 학교를 이전하였다. 2002년 3월 7일에는 중학교 교사동을 신축하여 중 · 고등학교가 건물을 분리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며, 2014년 12월 23일 합주실 4개, 전공지도실 23개, 연습실 59개 등을 갖춘 종합예술관동을 준공, 예술계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공별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을 갖추었다. 2001년 9월 27일 중학교는 학년 당 3학급(학급인원 35명), 고등학교는 학년 당 5학급(학급인원 30명)으로 인가 후, 2004년도부터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15학급으로 운영하던 중, 갈수록 증가되는 국악교육의 수요를 반영하여 2014년 중학교 1개 학급을 증설하여 중학교 10학급, 고등학교 15학급으로 확대 운영실시하였고, 2016년 중학교 12학급, 고등학교 15학급으로 학급편성이 완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2019년 현재 국립국악고등학교와 국립국악중학교의 2개 학교가 겸임 교장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실이 교육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국립국악고등학교는 교무부, 연구부, 생활지도부, 창의방과후부, 기획정보부, 예술부의 6개 부서로 구성되고, 국립국악중학교는 교무부, 연구부, 창의방과후부, 예술부, 생활지도부의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실은 서무부와 시설부의 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은 교장 1명, 교감 2명, 중학교 교원 29명, 고등학교 교원 43명, 행정실 직원 18명으로 정규직 총 93명과 기숙사 5명, 사무보조 5명, 조리원 7명 등 교육공무직 37명으로 총 130명이며, 국립국악중학교에 360명, 고등학교에 45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2019년도 총예산은 108억 76백만 원으로, 사업비 38억 83백만 원, 인건비 58억 90백만 원, 기본경비 11억 3백만 원이다.

그림 4-4-3 국립국악중학교 · 국립국악고등학교 조직도



※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2길 65
※ 홈페이지: 중학교 www.gugak.ms.kr / 고등학교 www.gugak.hs.kr

(2) 기본업무

국립국악고등학교와 국립국악중학교에서는 우리민족의 찬란한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창의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통예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전공별 학생별 실기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는 매년 4월에 전년도 우수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선배를 초청하여 공연하는 〈수상자 초청공연〉, 5월 말에 정규 교육 활동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무대에 올리는 〈목멱예술제 우리가락〉과 〈목멱예술제 우리춤〉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0월 말에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축제의 장인 〈개포골 어울림 국악한마당〉, 11월 말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악가무(樂歌舞) 일체로 공연하는 〈목멱한마당〉, 6월과 10월에는 전통예술교류의 질적 향상 및 다양한 국내외 공연을 통한 국악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소리누리예술단 해외공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국악중학교에서는 3월 초에 〈신입생 환영 연주회〉, 12월 초 종합 예술제인 〈소리샘 예술제〉, 매년 5월 중순에는 인근 초등학생들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악기를 소개하고 전통음악과 무용을 함께 나누는 〈전통음악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교내외 공연활동을 통한 학교 홍보 및 대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소리샘 예술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립국악고등학교와 국립국악중학교 전문교과 교사들의 정보공유와 기량 발전을 위해 1986년에 창단한 〈목멱악회〉의 정기 연주회가 매년 12월에 있으며, 우리의 전통 예술과 문화를 세계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청소년과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3) 주요성과

국립국악고등학교와 국립국악중학교는 전공별 개인별 실기 중심의 전공교육활동을 강화하고 문화소외계층 대상 공연을 통한 건강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며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창의성과 실력을 겸비한 예술인을 육성하고 있다.

교내 중요 행사로 〈제24회 국악경연대회 수상자 초청공연(4월 4일)〉을 비롯하여 〈제49회 목멱예술제 '우리가락'(5월 31일), 목멱예술제 '우리춤'(6월 1일)〉 공연, 〈제22회 전국 초 · 중학생 무용경연대회(7월 6일~7일)〉, 〈제27회 소리샘예술제(12월 11일~12일)〉, 〈제20회 목멱한마당(11월 28일)〉, 〈제9회 교내실기경연대회(12월 24일~30일)〉을 성황리에 추진하였다.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는 〈공부자탄강 2570년(2019) 춘기석전 봉행(3월 11일, 성균관 대성전)〉, 〈KBS국악한마당'신입생 특집 우리의 첫 출발'(3월 19일, KBS)〉, 〈2019 궁중문화축전과 함께하는 고궁음악회(5월5일, 국립고궁박물관 야외마당)〉, 〈2019 제18회 대한민국 서당문화한마당 공연(5월5일, 광화문 북측광장)〉, 〈화음시리즈 '등용'(5월 9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 〈2019 춤추는 도시 인천-동아시아 문화도시(5월 22일, 인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019 다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오프닝 국악공연(5월 23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015개정 교육과정 학부모연수 식전공연(6월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우면관)〉, 〈강남구청 주최 '365일 Fun & Pan 강남'(6월 28일, 코엑스 밀레니엄광장)〉, 〈2019 하계 전국교육장협의회 정기총회 및 연수 공연(7월 11일, 더케이호텔 서울)〉, 〈캐나다 토론토 대학생 및 고등학생 방문공연(7월 12일, 국립국악고등학교 우륵당)〉, 〈전공이습회(7월 15일~18일, 양평 미리내캠프)〉, 〈2019 LG컵 국제여자야구대회 개막식 축하공연(8월 22일, LG챔피언스파크)〉, 〈2019 LG컵 국제여자야구 폐막식 축하공연(8월 26일, 곤지암리조트)〉, 〈제1회 서울국악축제 '국악토크콘서트'(9월 23일, 돈화문국악당)〉, 〈제7회 개포골 어울림 국악한마당 공연(9월 26일, 국립국악고등학교 앞 삼거리)〉, 〈공부자탄강 2570년(2019년) 추기석전 봉행(9월 28일, 성균관 대성전)〉, 〈2019 수업평가나눔 교사단 출범 1주년 축하공연(12월 9일, 더케이호텔 서울)〉, 〈국악방송 TV개국 특집 공개음악회 (12월 27일, 국립국악원 예악당)〉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재능교육기부를 실천하며 예술영재로서의 기량을 선보였다. 또한, 〈소리누리예술단 호주 공연(6월 27일~7월 6일, 린필드한국학교, Marsden Road Public School, Gold Creek School, Emmaus Catholic College, Kemps Creek School)〉, 〈소리누리예술단 미국, 캐나다공연(9월 30일~10월 10일, 미국 High Tech High School, 주UN 대한민국 대표부, 캐나다 Toronto Meridian Arts Centre, 온타리오 주의사당, Cardinal Carter Academy for the Arts, College Marianopolis)〉 등을 통해 해외 현지 교육기관 및 문화예술기관과의 지속적인 관계형성과 국악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국립국악중학교에서는 전공실기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능기부 차원에서 〈전통음악교실(5월 21일~5월 24일) 및 〈찾아가는 전통음악교실(상봉중 7월/경북 포항시 포스코 효자아트홀 공연, 12월)〉 등을 추진하여 기량을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소리샘예술단 태국 공연(6월 2일~6월 7일)을 실시하여 태국 현지인을 위한 문화한류를 전파하였다.

이밖에도, 전통예술영재 육성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악고등학교 국악영재교육원으로 지정되어 서울시 소재 중학교 1, 2학년(단, 예술계 중학교는 제외), 일반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중 교과 성적에 관계없이 재능과 잠재력이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악영재교육원은

매해 20명 이상의 국악 영재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수료식과 함께 발표회를 통해 주변에서의 인기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학생들을 조기 발굴하여 21세기를 이끌어갈 전통예술 영재 육성을 위한 '소리누리예술단'을 2012년 3월 창단, 약 60명으로 구성된 단원들은 총체적 예술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심화교육과 실기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연기회를 통해 전통예술의 질 향상과 예비 예술인으로서의 기량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4-4-15 국립국악중학교 · 국립국악고등학교 추진 성과(2019)

학교별	구분	내용	
국립국악 고등학교	공연활동	03.11.	공부자탄강 2570년(2019) 춘기석전 봉행(성균관 대성전)
		03.19.	KBS국악한마당 '신입생 특집 우리의 첫 출발'(KBS)
		04.04.	제24회 수상자초청공연(국립국악고등학교)
		05.05.	궁중문화축전과 함께하는 고궁음악회(고궁박물관마당)
		05.05.	제18회 대한민국 서당문화한마당 공연(광화문광장)
		05.09.	화음시리즈 '등용'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
		05.22.	춤추는 도시 인천/동아시아 문화도시(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05.23.	2019 다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공연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05.31.	목멱예술제 '우리가락'(국립국악원 예악당)
		06.01.	목멱예술제 '우리춤'(국립국악원 예악당)
		06.05.	2015개정 교육과정 학부모연수 공연(서울시교육연수원 우면관)
		07.11.	2019 하계 전국교육장협의회 정기총회 공연(더케이호텔 서울)
		09.23.	제1회 서울국악축제 '국악토크콘서트'(돈화문국악당)
		09.28.	공부자탄강 2570년(2019) 추기석전 봉행(성균관 대성전)
		11.28.	목멱한마당(국립국악원 예악당)
		12.09.	수업평가나눔 교사단 출범 1주년 축하공연(더케이호텔 서울)
		12.27.	국악방송 TV개국 특집 공개음악회(국립국악원 예악당)
	국제교류활동	06.27.~07.06.	소리누리예술단 호주공연(호주 Marsden Road Public School, Emmaus Catholic College 외)
		07.12.	캐나다 토론토 대학생 및 고등학생 방문공연(국립국악고등학교)
		08.22.	2019 LG컵 국제여자야구 개막식 공연(LG챔피언스파크)
		08.26.	2019 LG컵 국제여자야구 폐막식 공연(곤지암리조트)
		09.30.~10.10.	소리누리예술단 미국, 캐나다공연(미국 주UN대한민국 대표부 외, 캐나다Toronto Meridian Arts Centre, 온타리오 주의사당)
	지역사회 재능기부 활동	06.28.	강남구청 주최 '365일 Fun & Pan 강남'(코엑스 밀레니엄광장)
		09.26.	제7회 개포골 어울림 국악한마당(국립국악고 앞 삼거리)
	대회개최	07.06.~07.07.	전국 초 · 중학생 무용경연대회
		12.24.~12.30.	제9회 교내실기경연대회
	자기주도적 예술탐색	07.15.~07.18.	전공이습회(양평 미리내캠프)
	교사자기연찬	12.19.	제32회 목멱악회(국립국악고등학교)
	국악예능 영재교육원	04.06.	국악예능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
		04.20.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
		04.20.~07.13.	1학기 교육기간
		07.22.~07.25.	방학 집중교육기간
		07.25.	전공발표회
		08.24.~11.23.	2학기 교육기간
		11.23.	종합발표회 및 수료식

학교별	구분	내용	
국립국악 중학교	공연활동	05.02. 05.21.~5.24. 11.22. 12.11.~12.12. 12.03.	화음시리즈 '등용'(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 전통음악교실(국립국악중학교 우륵당) KBS국악한마당 '영재 국악회'(KBS) 제27회 소리샘예술제(국립국악원 예악당) 찾아가는 전통음악교실(경북 포항시 포스코 효자아트홀)
	국제교류활동	06.02~06.07	소리샘 예술단 태국 공연
	지역사회 재능기부 활동	04.13. 07.01. 07.12. 10.12.	2019 융합과학체험마당(우주항공 생태환경) 개막식 공연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마을결합형학교 '도란도란 마을여행' 공연(서울구룡초등학교) 찾아가는 전통음악교실(상봉중) 2019 융합과학체험마당(서울과학축전) 개막식 공연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자기주도적 예술탐색	07.16.~07.19.	전공이습회(여주중앙청소년수련원)
	교사자기연찬	12.19.	32회 목멱악회(국립국악중 · 고등학교)

그림 4-4-4 국립국악중학교 · 국립국악고등학교

3) 국립전통예술학교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1) 조직현황

국립전통예술중학교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는 한민족의 빛난 얼을 계승하여 민족예술의 창달과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민족예술 전문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2008년 2월 14일 대통령령 제20608호 국립학교설치령(일부개정령)에 의하여 국립학교로 전환된 중등학교이다.

1960년 5월 13일 종로구 관훈동에서 사립인 국악예술학교로 개교하여 1960년 6월 8일 국악예술학교 부설 '관광예술 요원 양성소'(학제 2년의 고등학교 과정)로 인가를 받았다. 그 후 1964년 남산 교사로 이전하였다가 1968년 종로구 운니동으로, 1970년 4월 7일 다시 석관동 교사로 신축 이전하였다. 1971년 2월 28일에는 중학교 과정의 국악예술학교를 중단하고, 1971년 9월 30일 고등학교 과정의 한국국악예술학교로 개편하였으며, 1973년 2월 28일 재단법인 국악학원 설립인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2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았다. 1983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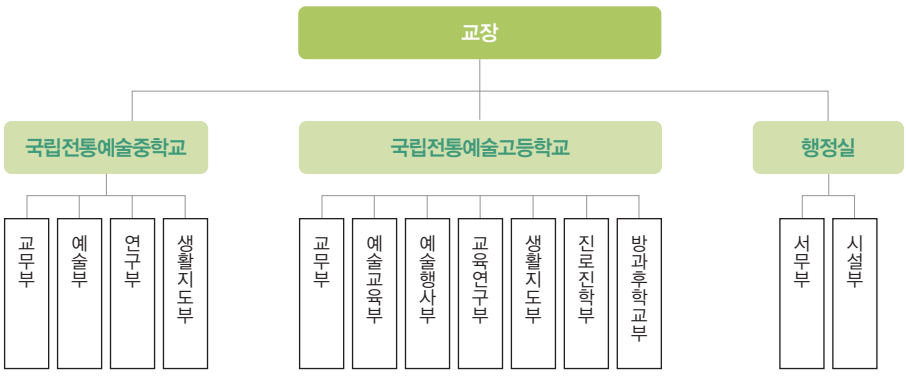
30일에는 학교 법인 국악학원으로 조직 변경하고 1984년 12월 17일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1992년 10월 29일 현재 위치하고 있는 시흥동 교사로 이전하였다.

중학교 과정인 서울국악예술학교는 2000년 4월 14일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8월 23일 중학교 과정의 학력 인정 학교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 3월 2일에는 서울국악예술학교로 다시 개교하였다. 그리고 2008년 3월 1일에는 서울국악예술학교 및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가 국립 학교인 국립전통예술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로 각각 전환되었으며, 국립국악 · 국립전통예술학교 설치령에 의거 2012년 5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부처 이관되었다. 현재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가 각 학년 3학급씩 전체 9학급,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가 각 학년 6학급씩 전체 18학급으로 편제되었으며, 입학 정원은 국립전통예술중학교가 75명,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180명 등 전체 255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중학교 과정인 국립전통예술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인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는 각각 별도의 교육기관으로 1명의 교장이 겸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에는 교무부, 예술교육부, 예술행사부, 교육연구부, 생활지도부, 진로진학부, 방과후학교부의 7개 부서로 중학교에는 교무부, 예술부, 연구부, 생활지도부,의 4개 부서로 운영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겸하여 교육지원을 하는 행정실이 있다. 본 학교에는 교장 1명, 교감 2명, 중학교 교원 23명, 고등학교 교원 49명, 행정실 직원 10명 등 정규직원 8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부족한 교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기간제 교사 8명과 기숙사를 포함한 행정실 소속 계약직 35명이 학교수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 수는 중학교 3개 학년 각 3학급씩 총 9학급에 225명과, 고등학교는 3개 학년 각 6학급씩 총 18학급에 540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일반회계 예산은 총 106억 52백만 원으로 인건비가 43억 61백만 원, 사업비가 62억 91백만 원이다.

그림 4-4-5 국립전통예술중학교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조직도



※ 위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8길 62번지

※ 홈페이지: www.kugak-am.hs.kr

(2) 기본업무

본교는 전통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21세기 글로벌 문화의 시대에 알맞은 전통예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주적이며 창의적인 민족예술 전문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3월 〈신입생 환영연주회〉를 시작으로 5월 10일 '한류예술축제', 5월 29일 '만세의 함성에서 통일의 합창으로'이란 제목으로 종합 예술제인 〈제58회 민족예술 대제전〉을 개최하였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자율성과 다양성, 개방성이 크게 확대된 맞춤형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전공 영역별로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질 높은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전통예술 행사를 4회 이상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전통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봉사와 나눔의 실천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또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문화 예술교류 활동을 추진하여 전통예술과 문화를 세계에 널리 홍보하는 문화사절단 역할과 문화지킴이로 세계 각국의 청소년과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3) 주요성과

국립전통예술중학교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는 전인적 예술인 육성을 위한 교육활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통하여 전공실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민족예술대제전, 음악연극발표회, 무용발표회, 작곡발표회, 졸업발표회, 국제교류, 정악합주경연대회 등을 통하여 전공 심화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서는 2019학년도 대외적 활동으로는 〈국가무형문화재 상설공연 화음시리즈 '등용'(5월 2일)〉, 〈기산국악당 토요상설 공연(5월 4일)〉, 〈덕수궁 중명전 역사콘서트 축하공연(5월 24일)〉, 〈필리핀 한국국제학교 교류(9월 6일~11일)〉, 〈향사 박귀희선생님 기념관 개막식 축하공연(10월 1일)〉, 〈민속악회 시나위 50주년 기념공연(10월 13일)〉등을 통해서 한국 전통예술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전통예술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본교에 대한 홍보 및 위상을 제고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통공연예술활동으로는 〈2019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개막식 공연(4월 5일)〉, 〈2019 금천 청소년어울림한마당 공연(8월 24일, 11월 16일)〉,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축하공연(10월 5일)〉, 〈제9회 아리랑예술단 정기연주회(11월 15일)〉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나눔 공연을 실천하여 사회적 이해의 폭을 증가시켰으며, 수업과 연계된 학교 주관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정규과정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제7회 한류예술축제(5월 10일)〉, 〈제5회 무용제 '능화'(5월 17일)〉, 〈제19회 전통예술제전 '청이 눈 속의 아버지'(8월 29일)〉, 〈2019 한국음악전공발표회(12월 16일~19일)〉, 〈2019 음악연극전공발표회(12월 23일)〉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학생들의 전공실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자유학기제의 일환으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9 서울진로직업박람회 개막공연(5월 9일)〉, 〈2019 진로교육한마당(12월

18일)〉, 〈아름중학교 축제 찬조출연(12월 19일)〉, 〈2019 가산중학교 목은제 공연마당 찬조출연(12월 19일)〉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통예술분야의 소양을 함양하도록 하였으며 전통예술 저변확대로 본교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2019년도에 추진한 실적 가운데 우선 학교 주관 행사를 살펴보면, 재학생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2019 신입생환영연주회(3월 19일)〉를 시작으로 모교 출신이 중심이 되어 전통예술인들의 큰 잔치로 기산극장에서 치러진 제7회 〈한류예술축제(5월 10일)〉 그리고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건학 이념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성대하게 치러진 〈제58회 민족예술대제전(국립국악원 예악당, 5월29일)〉을 통하여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키웠다. 아울러 〈교원대학교 초청 공연(8월 7일)〉, 〈관악발표회(10월18일)〉, 〈현악발표회(110월25일)〉, 〈작곡전공 학생들의 제21회 작곡과 정기발표회(11월 5일)〉, 〈제10회 무용과발표회(12월 6일)〉, 〈제19회 음악연극과 정기 공연(여명의 눈동자, 11월25일, 26일)〉 〈학생 실내악동아리 은가비 정기공연(제9회, 12월 26일)〉 등 다양한 행사추진을 통하여 학생들의 실기 능력 및 현장경험을 크게 향상시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한국음악과 전공실기능력 향상을 위한 〈향사예술경연대회(5월15일)〉, 〈정악합주경연대회(7월 17일)〉를 개최하여 전공소양향상에 힘썼다. 또한 〈제14회 금천하모니 벚꽃축제(4월 5일)〉, 〈금천경찰서 개관 공연(2월 12일)〉, 〈국악방송 개국 기념 공연(12월27일)〉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공연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봉사활동(9월11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지역과 학교행사를 연계하였다.

국제교류활동으로는 아리랑 예술단 중심의 미국 문화교류(9월11일~11일)와, 일본아이라시 교류활동이 대표적이다. 미국 교류활동에서 뉴욕센트럴파크 공연, 워싱턴DC 케네디센터 공연을 통하여 한미 양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메릴렌드 주지사의 공관방문에서 래리 호건여사와의 만남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학생 상호 문화교류에 이바지 하였으며, 일본 가고시마 아이라시 국제교류 방일(11월 15일~20일) 및 방한(8월1일~5일) 교류행사에서는 홈 스테이로 교류하여 상호간의 언어 및 문화를 이해하고, 한일 양국 학생들의 합동수업을 통하여 우리 전통예술을 보급하는 등 전통공연 예술의 사회적 · 국제적인 위상정립을 위하여 많은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으로 초 ·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음악영재 교육원은 한국 음악과 음악 연극의 영재를 선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전통음악과 연희극의 조기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며 전통예술의 저변 확대 및 예능영재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 4-4-16 국립전통예술중학교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추진 성과(2019)

학교별	구분	내용	
국립 전통예술 중학교	공연 · 문화예술 재능기부 · 교류활동	04.05.	2019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개막식 공연(금천구청 메인무대)
		05.02.	국가무형문화재 상설공연 화음시리즈 '등용'(민속극장 풍류)
		05.04.	기산국악당 토요상설 공연(기산국악당–산청)
		05.09.	2019 서울진로직업박람회 개막식 공연(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
		05.10.	제7회 한류예술축제(기산극장)
		05.17.	제5회 무용제 '능화'(국립국악원 예악당)
		05.24.	덕수궁 중명전 역사콘서트 축하공연(덕수궁 중명전 야외마당)
		05.28.	찾아오는 한국음악교실(향사기념관)
		08.24.	2019 금천청소년어울림마당 공연(안양천다목적광장)
		08.29.	제19회 전통예술제전 '청이 눈 속의 아버지'(국립국악원 예악당)
		09.06.~09.11.	필리핀 한국국제학교 교류(필리핀한국국제학교)
		10.05.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축하공연(금천구청 특설무대)
		10.12.	향사 박귀희선생님 기념관 개막식 축하공연(칠곡향사아트센터)
		10.13.	민속악회 시나위 50주년 기념공연(한국문화의 집 코우스)
		11.15.	제9회 아리랑예술단 정기연주회(금나래아트홀)
		11.16.	2019 금천청소년어울림마당 공연(금천구청 메인무대)
		12.16.~12.19.	2019 한국음악전공발표회(본교 향사기념관)
		12.18.	2019 진로교육한마당(정부세종컨벤션센터)
		12.19.	아름중학교 축제 찬조출연(아름중학교)
		12.19.	2019 가산중학교 목은제 공연마당 찬조출연(가산중학교)
		12.23.	2019 음악연극전공발표회(본교 5층 소극장)
국립전통 예술고등 학교	공연활동	04.05.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공연
		05.04.	경남 산청국악제 축제 공연
		05.10.	제7회 한류예술축제 공연(야외공연장)
		05.09.	국악 전승시리즈 "등용" 공연(코우스)
		05.29.	제58회 민족예술대제전 공연(국립국악원예악당)
		07.13.	거붕그룹 초청 국악공연
		08.07.	청주교원대학교 초청 공연(교원대 대극장)
		06.20.	타악과 만남 느닷 사물놀이 초청공연(향사기념관)
		10.18.	한국음악과 관악발표회(향사기념관)
		10.25.	한국음악과 현악발표회(향사기념관)
		11.01.	밀양시 초청 공연(야외공연장)
		11.05.	한국음악과 작곡과 발표회(향사기념관)
		11.25.~26.	음악연극과 '여명의 눈동자' 정기발표회 (향사기념관)
		12.06.	무용과 발표회(국립국악원 예악당)
		12.	27 국악방송 개국공연(국립국악원 예악당)
	국제교류	08.01.~05.	일본가고시마 아이라시 국제교류 방한(본교)
		09.01.~11.	미국 뉴욕, 워싱턴D.C 국제교류(케내디센타공연)
		11.15.~21.	일본가고시마 아이라시 국제교류 방일(가고시마)
	지역 봉사활동	02.12.	금천경찰서 개관공연(금천경찰서 강당)
		09.11.	봉사활동의 날(금천구 소외계층을 위한 예능재능기부)
	기타 (예능영재 교육원)	04.06.	음악영재교육원 학생선발전형
		04.20.	영재교육원 입학식
		07.22.~07.26.	하계 집중교육기간 운영
		07.27.	하계발표회
		11.04.~11.08.	후반기 집중교육기간 운영
		11.09.	산출물대회 및 수료식

그림 4-4-6 국립전통예술중학교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4)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1) 조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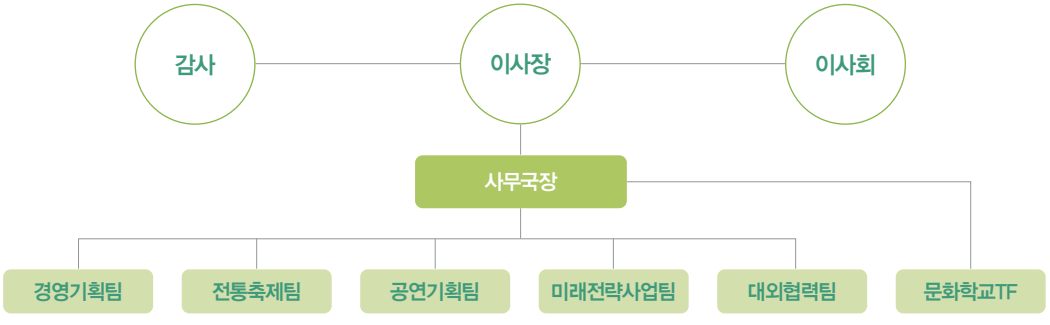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2007년 국악문화재단으로 출발하여 국악강습, 국립국악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민간경상보조) 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국립국악원 후원조직 성격이 강한 국악문화재단의 인적개편 및 사업 확대 등을 통해 2009년 5월 28일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으로 새롭게 확대 개편되었다.

개편이후 전통공연예술의 진흥과 활성화를 목표로 전통공연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전통공연예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전통공연예술 인력양성 관련 사업,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조직구성은 이사장(비상임) 1명, 사무국장(상임) 1명과 경영기획팀, 전통축제팀, 공연기획팀, 미래전략사업팀, 대외협력팀 총 5개 팀과 1개의 TF(문화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2019년 예산은 총 122억 원으로 전통공연예술 문화학교 운영사업비 6억9,000만원을 포함하여 국고보조사업비가 84억5,100만원, 기타보조금사업이 8억8,600만원, 자체자금 및 이월금 22억 4,100만원이다.

그림 4-4-7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조직도



(2) 기본업무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통공연예술의 보전, 전승, 진흥 및 국민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를 위해 설립되었다. 2019년도에는 민간 경쟁력 강화와 수요 발굴 · 확대 그리고 내부역량의 고도화를 정책목표로 다양한 전통공연예술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였다. 특별히 창립 10주년을 맞아 재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앰블럼 제작 등의 기관홍보를 적극적으로 한 해였으며, 소셜미디어나 웹진 등을 활용하여 전통공연예술 알리기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공연현장 및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전통공연예술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여 이를 각 사업에 반영하였다. 또한 미래인재육성, 사회적 가치 제고, 해외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전통공연예술문화학교를 통하여 잠재수요 발굴 및 수요확대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2019년 기준, 수강생 1,600명) 이 밖에 재단은 민간부문 활동거점 구축을 통하여 재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민간 예술가들을 위한 전통공연예술 시장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3) 주요성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민간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살려 공공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민간 차원의 다양한 전통예술분야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도에 추진한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민간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작거점 조성방안 연구 등을 통하여 전통공연예술의 창작지원을 할 수 있는 창작거점 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17개 신진예술단체를 발굴한 신진국악실험무대를 비롯해 전국 22개 전통예술고교생을 위한 워크숍을 추진함으로써 미래인재 육성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둘째, 잠재적 수요발굴과 확대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문화공간활용 전통공연 사업공모를 통해 신규 문화공간 3개처를 개발하였고, 메가박스 동화음악회, 창덕궁 공연 유료화를 통해 시장성과 대중성을 갖춘 콘텐츠 발굴을 하였으며, 국민의 전통예술 저변확대를위한 일반인 대상 강습을 연간 진행하여 1,500여명의 수료자를 배출하므로 수요자 확대에 기여하였다.

셋째, 전통공연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한 내부역량을 강화하였다.

창립10주년을 기념한 국회내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전통예술의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지속적이며 다방면 전문집단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민간예술인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사업의 전개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표 4-4-17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추진 성과(2019)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아리랑 대축제(1회 공연, 관람객 1,280명), 전통예술컨템퍼러리 시리즈 공연 3건 제작(3회 공연, 관람객 789명), 전통예술웹진발간(12회, 구독자 13,887명), 남북 전통예술 교류지원(학술대회 1회, 보고서 발간 1건)
문화공간 활용 전통공연사업		대상별 선호도에 맞는 공간 활용한 공연사업(총 44회 공연, 관객 20,707명)
세계무형문화유산활용 공연사업		국립중앙박물관 공연 19회, 관람객 28,318명,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연계 공연 2회, 관람객 263명, 우수공연 콘텐츠 공모 6건 선정 공연
전통공연계기성행사지원		총 26개 민간전통예술단체 공연 79회, 기타 행사 66회 지원, 참여예술인 총 298명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일제강점기 이후 사라진 전통예술 복원재현 총 10개 과제 선정 및 지원(지정 3, 자유 7)
전통연희 활성화		전통연희 페스티벌 1회 개최(2일간, 관객 25,035명). 창작연희 작품공모 선정지원(3개), 재공연 지원(3작품)
전국풍물상설공연지원		전국 8개 지역 대상, 8개 단체 상설공연 개최(56회) 및 풍물합동공연(1회) 관객 24,373명
신진국악실험무대		신진, 실험단체 연계 기획공연 공모 총 3개 과제 선정 및 지원(기악, 성악, 한국무용 / 195,000천원) 17개 신진예술단체 발굴 및 28회 공연, 음원/음반 및 홍보영상 제작
한국민속예술축제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26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개최(서울특별시)–총 30개팀 참가(일반부 21개팀, 청소년부 9개팀), 관람객 수 3일간 약 21,298명
전통예술기획자양성프로젝트		전통예술인/단체 대상 공연기획 능력을 강화를 위한 교육진행, 신진 전통예술인 대상 입문과정 1회 운영(27명 수료), 전통예술분야 종사자 대상 열린강좌 신규개발 및 1회 운영(133명 수강)
전통공연예술문화학교 운영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전통예술 강습실시 5개 과정 100여개반 1,600여명 수료 / 부대행사 5회 진행
지역전통예술 전공생 균형성장	워크숍	전국 22개 예술고 국악(무용포함) 전공생의 경쟁력 강화 및 동기부여를 위한 워크숍 실시(* 코로나19로 인해 총 9회 중 1회 추진 / 11명 참여)
	학습용 교재개발	지역전공생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용 교육교재(어플리케이션) 리뉴얼 및 음원 추가개발(합주 콘텐츠 19건, 반주 콘텐츠 14건, 국악이론 영상 콘텐츠 23건)
기타 지원금 사업 등		• 한국민속예술축제(지방비) 280백만원–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26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개최(서울특별시)–총 30개팀 참가(일반부 21개팀, 청소년부 9개팀), 관람객 수 3일간 약 21,298명 [대외협력공연 및 행사] 1. 국악콘서트 〈다담〉 25백 (공연 6회) 2. 제39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40백(수상자 32명) 3. 2018 청소년 연합 국악오케스트라 여름캠프 20백(캠프 1회)
통합홍보		일괄된 메시지 전달 등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재단 통합 홍보 추진 – (언론) 보도자료 41건 배포, 언론 노출 1,546회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 – (웹진) 14회 발간, 구독자 수 약 10,819명 – (소셜미디어) • 콘텐츠 298건 발행, 포털사이트 네이버 메인 노출 57회 • 팔로워 및 구독자 수 (전년 동기 대비 5개 채널 평균 130% 상승)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네이버tv
6,768	3,112	498	975	3,290	91

5) 국악방송

(1) 조직현황

2001년 3월 개국한 국악방송은, 한국 전통문화예술 중흥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국악인구의 저변 확대와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 일원에만 송신되던 국악 FM방송의 전국화 추진을 위하여 중계소 증설을 추진하여, 현재 서울 · 경기와 부산, 대구, 전주, 경주 · 포항, 강릉, 목포 · 진도, 남원, 제주, 서귀포, 충북 충주, 영동으로 청취 권역이 확대되었다. 특히 2014년에 최초의 지역방송국인 광주국악방송국을 개국한데 이어, 2017년에는 두 번째 지역방송국인 대전국악방송국을 개국하였으며, 2019년 12월에는 전통문화예술 전문채널인 국악방송TV를 개국하였다. 국고지원을 통해 2007년 2월에는 방송국이 최첨단 방송설비를 갖춘 서울 상암동 DMS(Digital Magic Space)로 이전하였다. 국악방송은 유일한 한국 전통문화예술 전문방송으로 국악과 관련된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개발, 방송함으로써 한국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대중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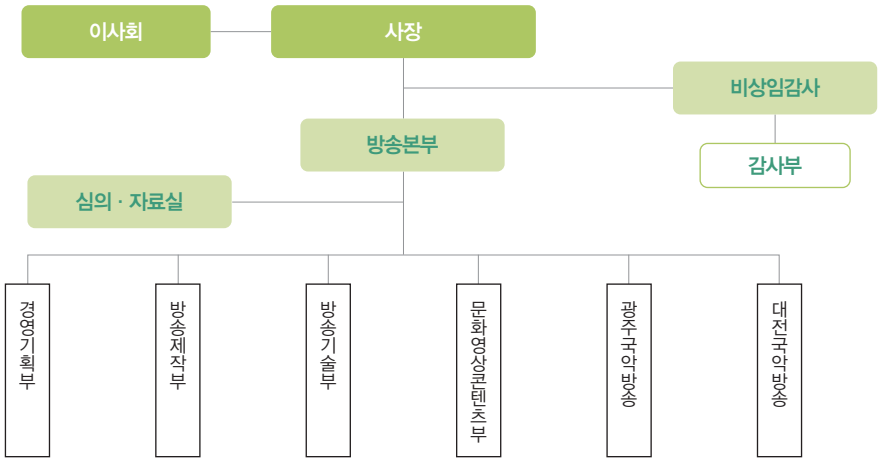
표 4-4-18 국악방송 운영 현황

명칭	방송구역	주파수(채널)	송신소	개국
국악FM방송국	서울, 경기 일원	99.1MHZ	남산서울타워	2001. 03. 02.
국악FM남원보조국	전북 남원 일원, 임실 순창 곡성 구례 일부	95.9MHZ	남원 교룡산	2001. 06. 01.
국악FM남도보조국	전남 진도, 해남, 신안, 강진 일부	94.7MHZ	해남 대둔산	2006. 07. 06.
국악FM경주보조국	경북 포항, 경주 일부	107.9MHZ	포항 도음산	2010. 04. 07.
국악FM전주보조국	전주, 익산 일원, 김제 군산 완주 일부	95.3MHZ	전주 미륵산	2011. 10. 27.
국악FM부산보조국	부산 일원	98.5MHZ	영도 봉래산	2011. 11. 08.
국악FM강릉보조국	강릉, 동해 일원	103.3MHZ	강릉 괘방산	2012. 12. 14.
국악FM대구보조국	대구 일원, 경산 영천 칠곡 성주 고령 일부	107.5MHZ	대구 앞산	2012. 12. 30.
국악광주FM방송국	광주 일원, 나주 담양 일부	99.3MHZ	광주KBC	2014. 03. 26.
국악제주FM보조국	제주시 일부	91.3MHZ	제주 한라산	2015. 12. 29.
국악서귀포FM보조국	서귀포시 일부	106.9MHZ	제주 삼매봉	2015. 12. 29.
국악대전FM방송국	대전 일원	90.5MHZ	대전방송	2017. 07. 14.
국악충주FM보조국	충주 일부	101.7MHZ	남산 문스톤	2019. 03. 13.
국악영동FM보조국	영동 일원	99.3MHZ	청주 KBS	2019. 03. 13.
국악방송TV	kt올레tv	ch.251	–	2019. 12. 27.

국악방송은 사장 1명, 방송본부장 1명, 심의자료실, 경영기획부, 방송제작부, 방송기술부, 문화영상콘텐츠부, 감사부 등 1본부 1실 5부 2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은 69명이며, 지역중계소 인력을 포함해 현원은 67명이다.

국악방송의 2019년도 예산은 154억 8백만 원으로, 사업비 110억 5백만 원, 인건비 35억 13백만 원, 경상운영비 8억 90백만 원이다.

그림 4-4-8 국악방송 조직도



※ 위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2 DMS 7, 10~12층 / 홈페이지: http://www.gugakfm.co.kr

(2) 기본업무

국악방송은 전문감상, 공연실황, 교양, 등 전통과 연계된 정규프로그램을 제작해 하루 24시간 라디오 및 TV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송권역 이외의 국민들을 위해 인터넷 방송(www.igbf.co.kr)을 통해 실시간 방송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2010년 9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스마트폰으로도 전국 어디에서나 국악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또한, 가청인구를 확대하고 국악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국악방송 지역 중계소를 설립하고 있다. 2001년 서울, 경기 및 남원 지역을 시작으로 2006년 남도, 2010년 경주, 2011년 전주, 부산, 2012년 강릉, 대구, 2014년 광주, 2015년 제주와 서귀포, 2017년 대전, 2019년 충북 충주 및 영동을 개국함으로써 현재 14개 지역에 FM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민의 70.3%에 해당하는 3,375만 명이 라디오를 통해 국악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광주국악방송과 대전국악방송은 지역방송국으로써 로컬프로그램(지역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역의 전통예술단체와 명인들이 재조명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9년 12월 전통문화전문의 국악방송TV를 개국하여 방송과 전통예술 관련 직 ·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및 한식 · 한복 · 관광 등과 연계된 전통문화 콘텐츠 제작과 더불어 유튜브

등 뉴미디어용 영상을 재제작 · 공급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국악방송은 전 국민의 보편적 문화향유를 위해 시 · 청취층을 넓히고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국악 대중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주요성과

국악방송은 유일한 한국 전통문화예술 전문방송으로 국악과 관련된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개발, 방송함으로써 한국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대중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통해 국민의 문화행복감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69명의 인력이 방송국 3곳, 보조국 11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방송권역 확장으로 전 국민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모바일 웹 등 뉴미디어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2011년 영상스튜디오, 2012년 HD 영상중계차를 도입하여 보이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실황중계, 공개방송, 특집다큐 등 국악 및 전통문화의 영상화를 추진하였으며, 2019년에는 국악방송TV를 개국하였다. 안정적이고 최상의 방송품질 제공을 위한 방송장비 관리 및 교체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으며, 제작된 영상 콘텐츠는 국악방송 매체 및 각종 케이블TV 등 다양한 매체에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악콘텐츠 영상화에 대한 요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미 LA 한인방송 라디오코리아 등 해외 방송사에 국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해외 교포 및 현지인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있다. 또한, 전통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는 우수한 국악 창작곡을 발굴하고 역량 있는 음악가를 양성함으로써 국악의 미래를 선도하고 21세기 한국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간문화소식을 통하여 국내 · 외 국악현장을 방송함으로써 전통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으로 전문감상, 국악교육, 대중화, 현대화 및 세계화, 문학프로그램 등 전통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작해 24시간 방송하고 있다. 2019년은 정규프로그램 7,837편(광주로컬 1,598편, 대전로컬 1,471편 포함)과 특집 194편을 제작, 방송하였다. 또한 국악음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DB화(2019년 누적 7만 9천곡)와 음반 산업화와 민족음악의 체계적 자료수집과 보존을 위해 전통음악을 녹음(2019년 누적 478개 CD분량)하였다.

표 4-4-19 국악방송 주간 편성표(2019년 11월)

<table>
<tr><th colspan="2">시간</th><th colspan="4">프로그램</th></tr>
<tr><th>시</th><th>분</th><th colspan="2">월요일 – 금요일</th><th>토요일</th><th>일요일</th></tr>
<tr><td>5</td><td></td><td colspan="4" rowspan="2">솔바람 물소리(대전로컬)</td></tr>
<tr><td>6</td><td></td></tr>
<tr><td>7</td><td></td><td colspan="4" rowspan="2">창호에 드린 햇살

08:55★국악방송에서 전하는 문화소식입니다(월~금)</td></tr>
<tr><td>8</td><td></td></tr>
<tr><td>9</td><td></td><td colspan="4" rowspan="2">국악산책

10:55★국악방송에서 전하는 문화소식입니다(월~금)</td></tr>
<tr><td>10</td><td></td></tr>
<tr><td>11</td><td></td><td colspan="4">문화시대</td></tr>
<tr><td>12</td><td></td><td colspan="4" rowspan="2">정오의 음악풍경</td></tr>
<tr><td>1</td><td></td></tr>
<tr><td>2</td><td rowspan="2"></td><td colspan="2" rowspan="2">바투의 상사디야

15:55★국악방송에서 전하는
문화소식입니다(월~금)</td><td colspan="2" rowspan="2">온고을 상사디야(전주로컬)</td></tr>
<tr><td>3</td></tr>
<tr><td>4</td><td></td><td colspan="4">노래가 좋다</td></tr>
<tr><td>5</td><td>40</td><td colspan="4">오정해가 전하는 엄마의 국악 '달강 달강'</td></tr>
<tr><td>6</td><td></td><td colspan="4">맛있는 라디오</td></tr>
<tr><td>7</td><td>30</td><td rowspan="2">FM국악당</td><td rowspan="2">FM국악당
(광주로컬)</td><td rowspan="2">FM국악당
(대전로컬)</td><td rowspan="2">연구의 현장</td></tr>
<tr><td>8</td><td></td></tr>
<tr><td>9</td><td></td><td colspan="2">예술가의 Back Stage</td><td colspan="2">이금희와 함께 음악의 숲을...</td></tr>
<tr><td>10</td><td></td><td colspan="2" rowspan="2">음악의 교차로</td><td colspan="2">원일의 여시아문</td></tr>
<tr><td>11</td><td></td><td>세계음악여행</td><td>세계의 전통음악</td></tr>
<tr><td>12</td><td></td><td colspan="4" rowspan="2">국악산책(재)
01:55★국악방송에서 전하는 문화소식입니다(월~금)(재)</td></tr>
<tr><td>1</td><td></td></tr>
<tr><td>2</td><td></td><td colspan="4" rowspan="3">흐르는 음악처럼(광주로컬)</td></tr>
<tr><td>3</td><td></td></tr>
<tr><td>4</td><td></td></tr>
</table>

표 4-4-20 광주국악방송 주간 편성표(2019년 11월)

<table>
<tr><th colspan="2">시간</th><th colspan="4">프로그램</th></tr>
<tr><th>시</th><th>분</th><th colspan="2">월요일 – 금요일</th><th>토요일</th><th>일요일</th></tr>
<tr><td>5</td><td></td><td colspan="4" rowspan="2">솔바람 물소리</td></tr>
<tr><td>6</td><td></td></tr>
<tr><td>7</td><td></td><td colspan="4">창호에 드린 햇살</td></tr>
<tr><td>8</td><td></td><td colspan="4">08:55★국악방송에서 전하는 문화소식입니다(월~금)</td></tr>
<tr><td>9</td><td></td><td colspan="2" rowspan="2">남도마실 (로컬)

10:55★남도 문화유산을 찾아서
(로컬/월~금)</td><td colspan="2" rowspan="2">국악산책</td></tr>
<tr><td>10</td><td></td></tr>
<tr><td>11</td><td></td><td colspan="4">문화 시대</td></tr>
<tr><td>12</td><td></td><td colspan="2" rowspan="2">음악이 흐르는 마루(로컬)

13:55★남도 문화유산을 찾아서
(로컬/월~금)</td><td colspan="2" rowspan="2">정오의 음악풍경</td></tr>
<tr><td>1</td><td></td></tr>
<tr><td>2</td><td rowspan="2"></td><td colspan="2" rowspan="2">바투의 상사디야

15:55★국악방송에서 전하는
문화소식입니다(월~금)</td><td colspan="2" rowspan="2">온고을 상사디야(로컬)</td></tr>
<tr><td>3</td></tr>
<tr><td>4</td><td></td><td colspan="4" rowspan="2">노래가 좋다</td></tr>
<tr><td>5</td><td>40</td></tr>
<tr><td>6</td><td rowspan="2"></td><td colspan="2" rowspan="2">무돌길 산책 (로컬)</td><td colspan="2" rowspan="2">맛있는 라디오</td></tr>
<tr><td>7</td></tr>
<tr><td>8</td><td></td><td>FM국악당
전국</td><td>FM국악당(로컬)
전남/전북</td><td>FM국악당
대전/영남</td><td>연구의 현장</td></tr>
<tr><td>9</td><td></td><td colspan="2">예술가의 BACK STAGE</td><td colspan="2">이금희와 함께 음악의 숲을...</td></tr>
<tr><td>10</td><td></td><td colspan="2" rowspan="2">음악의 교차로</td><td colspan="2">원일의 여시아문</td></tr>
<tr><td>11</td><td></td><td>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td><td>세계의 전통음악</td></tr>
<tr><td>12</td><td></td><td colspan="4" rowspan="2">국악산책(재)</td></tr>
<tr><td>1</td><td></td></tr>
<tr><td>2</td><td></td><td colspan="4" rowspan="3">흐르는 음악처럼 (로컬)</td></tr>
<tr><td>3</td><td></td></tr>
<tr><td>4</td><td></td></tr>
<tr><td colspan="2">일 2회</td><td colspan="4">남도 문화유산을 찾아서</td></tr>
</table>

표 4-4-21 대전국악방송 주간 편성표(2019년 11월)

<table>
<tr><th colspan="2">시간</th><th colspan="7">프로그램</th></tr>
<tr><th>시</th><th>분</th><th colspan="5">월요일 – 금요일</th><th>토요일</th><th>일요일</th></tr>
<tr><td>5</td><td></td><td colspan="7" rowspan="2">솔바람 물소리(전국)</td></tr>
<tr><td>6</td><td></td></tr>
<tr><td>7</td><td></td><td colspan="7" rowspan="2">창호에 드린 햇살
08:55★국악방송에서 전하는 문화소식입니다(월~금)</td></tr>
<tr><td>8</td><td></td></tr>
<tr><td>9</td><td></td><td>국악산책
(이승재)</td><td>국악산책
(박승희</td><td>국악산책
(배양현)</td><td>국악산책
(최헌)</td><td>국악산책
(최혜진)</td><td rowspan="2">국악산책(본사)</td><td rowspan="2">국악산책(본사)</td></tr>
<tr><td>10</td><td></td><td colspan="5">10:55★충청문화소식</td></tr>
<tr><td>11</td><td></td><td colspan="7">문화시대</td></tr>
<tr><td>12</td><td></td><td colspan="4">충청 풍류 다이어리</td><td colspan="2" rowspan="2">정오의 음악풍경</td></tr>
<tr><td>1</td><td></td><td colspan="4">13:55★충청문화소식</td></tr>
<tr><td>2</td><td rowspan="2"></td><td colspan="4" rowspan="2">바투의 상사디야
15:55★국악방송에서 전하는 문화소식입니다(월~금)</td><td colspan="2" rowspan="2">온고을 상사디야</td></tr>
<tr><td>3</td></tr>
<tr><td>4</td><td></td><td colspan="4" rowspan="2">금강길 굽이굽이
월 1회 “지화자” 편성</td><td colspan="2">노래가 좋다</td></tr>
<tr><td>5</td><td>40</td><td colspan="6">오정해가 전하는 엄마의 국악 ‘달강 달강’</td></tr>
<tr><td>6</td><td></td><td colspan="7" rowspan="2">김필원의 맛있는 라디오</td></tr>
<tr><td>7</td><td></td></tr>
<tr><td>8</td><td></td><td colspan="3">FM국악당(전국)</td><td>FM국악당
(호남)</td><td>FM국악당
(대전/영남)</td><td>연구의 현장</td></tr>
<tr><td>9</td><td></td><td colspan="4">예술가의 백스테이지</td><td colspan="2">이금희와 함께 음악의 숲을...</td></tr>
<tr><td>10</td><td></td><td colspan="4" rowspan="2">음악의 교차로</td><td colspan="2">원일의 여시아문</td></tr>
<tr><td>11</td><td></td><td>세계음악여행</td><td>세계의전통음악</td></tr>
<tr><td>12</td><td></td><td colspan="7" rowspan="2">국악산책(재방)(본사 방송 수중계)</td></tr>
<tr><td>1</td><td></td></tr>
<tr><td>2</td><td></td><td colspan="7" rowspan="3">흐르는 음악처럼(전국)</td></tr>
<tr><td>3</td><td></td></tr>
<tr><td>4</td><td></td></tr>
<tr><td colspan="2">일 2회</td><td colspan="7">국악방송에서 전하는 문화소식입니다 (08:55, 15:55)</td></tr>
<tr><td colspan="2">일 2회</td><td colspan="7">충청문화소식 (10:55, 13:55)</td></tr>
</table>

표 4-4-22 방송프로그램 외부기관 수상실적

일자	수상 내역	연출	구성
2010.01.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 수상(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집 다큐멘터리 '국민별감 박춘재')	김성욱	남화정
2010.12.	국악방송 홈페이지 웹어워드 코리아 2010 방송미디어 분야 우수상 수상	국악방송	
2010.12.	제18회 불교 언론 문화상(라디오부문 최우수상) (특집 부처님 오신날 '건달바의 노래')	김은하	남화정
2011.02.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 수상(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집 다큐멘터리 '가곡, 태평을 노래하다')	전성희 김혜경	박근희 유찬숙
2011.09.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방송통신심의위원회) (꿈꾸는 아리랑 특집 '아리랑의 생태학')	김정은	
2011.12.	제19회 불교 언론 문화상(라디오부문 최우수상) (2011 부처님 오신날 특집 '영산재, 그 향기 누리 가득히')	전성희	
2012.02.	이달의PD상(한국PD연합회) (2012설특집 다큐멘터리 3부작 '경계에 선 사람들')	김연주	박길숙
2012.03.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한국방송통신위원회) (국악은 내 친구 2012 설특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뿅')	김혜경	오선화
2012.09.	제39회 한국방송대상 다큐멘터리 라디오 작품상(한국방송협회) (2012 설특집 다큐멘터리 3부작 '경계에 선 사람들')	김연주	박길숙
2012.12.	제20회 불교 언론 문화상(조계종 총무원) (2012 석가탄신일 특집방송 음향다큐멘터리 '천년소리 풍경')	김우성	남화정
2012.12.	2012 한국방송 비평상((사)한국방송 비평회) (행복한문학)	한지희 박건삼	남애리 유하나
2013.03.	이달의 PD상(한국PD연합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기념 특집)	김우성	유찬숙
2015.10.	이달의 PD상(한국PD연합회) (해방공간의 국악)	고효상 김정은	박길숙
2015.11.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세기의 멋, 판소리의 맛과 멋)	푸드TV 공동기획 다큐	
2016.12.	정책 홍보 장관상(국민안전처) (라디오 재난방지캠페인)	국악방송	
2017.02.	이달의 PD상(한국PD연합회) (호남의 사계–'남도풍물기행')	김재영	박강의 김은영
2017.07.	이달의 PD상(한국PD연합회) (꿈꾸는 아리랑–아리랑 만들기 '어는 슈퍼맨의 아리랑')	고효상	정현경
2018.02.	이달의 PD상(한국PD연합회) (Interview–Sic 다큐멘터리 '들려오는 것들')	김연주	
2018.02.	제30회 한국PD대상 실험정신상(한국PD연합회) (Interview–Sic 다큐멘터리 '들려오는 것들')	김연주	
2018.09.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초집중조명, 북한전승산조)	임종민	정현경
2018.11.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최우수상(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세종대왕 즉위 600돌 특집 '작곡자 세종을 만나다')	정확히	기정
2018.12.	이달의 PD상(한국PD연합회) (세종대왕 즉위 600돌 특집 '작곡자 세종을 만나다')	정확히	기정

일자	수상 내역	연출	구성
2019.03.	광주 · 전남 PD연합회 RADIO 실험정신상 (남도마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고미란	박강의 이향미
2019.04.	제31회 한국PD대상 실험정신상 (세종대왕 즉위 600돌 특집 '작곡자 세종을 만나다')	정확히	기정
2019.05.	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우수상 (세종대왕 즉위 600돌 특집 '작곡자 세종을 만나다')	정확히	기정

제5절 시각예술디자인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시각예술디자인정책은 회화 · 조각 · 사진 · 서예 · 공예 · 건축 · 디자인 · 서체 등 시각예술 · 디자인분야의 창작과 유통, 향유를 위한 토대의 발전과 진흥을 목표로 예술가, 공예작가, 건축가와 디자이너 등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화랑, 큐레이터, 미술품 감정, 공공디자인, 공예 등 전문인력의 육성, 미술문화의 가치 확산과 시각예술의 향유 지원 등을 주요 정책내용으로 삼고 있다.

창작권 보장과 창작여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미술은행 작품 구입을 통한 창작지원 뿐만 아니라 신진 · 무명작가의 미술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으로 전국 27개소에서 미술장터가 운영되었고, 총 1,003명의 작가가 참여, 약 6억8천만 원 상당의 미술품이 판매되었다.

시각예술 매개 부분 육성에 대한 정책도 시행되었다. 경매가격 데이터를 제공하는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www.k-artmarket.kr)과 미술자원 공유시스템(www.k-artsharing.kr) 운영, 시각예술 매개인력 및 감정인력 양성 사업, 비평지원 및 세미나 등 개최로 한국미술에 대한 담론 창출,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등으로 감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였다.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프로그램을 지역으로 확산하여 지역 유휴 전시공간의 가동률을 높이고, 지역민의 전시관람 기회를 높이는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사업 등으로 시각예술분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5회째를 맞는 미술주간(9. 25. ~ 10. 9.)은 258개 기관이 참여하고 64만 명이 관람하는 뜨거운 성원으로 미술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즐기는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또한 해외기관 초청전시와 해외 아트페어 참가 등을 지원하였으며, 한국미술 관련 서적의 해외출판을 지원하고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 제작 사업 추진으로 한국미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였다.

공간 디자인 분야를 살펴보면, 일상적인 삶을 담아내는 장소이자 공동체 문화를 이루는 광장인 '공간'을 대상으로 해 건축 정책과 공공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준 높은 공공환경, 더 나은 공간을 만들려는 노력의 중심에 건축과 공공디자인이 자리하고 있다. '공간과 건축'이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서 건축에 문화를 접목하고 건축 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역량 있는 젊은 건축가를 발굴하여 건축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젊은 건축가상, 우리나라 건축문화와 건축가를 해외에 소개 하는 국제 건축문화 교류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일상속의 생활공간을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좋은 문화공간으로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간을 보다 아름답고 유용하게 바꾸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실천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19년에는 2018년에 발표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7개 시도와 228개 시 · 군 · 구의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방향을 제시했다.

동 계획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을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비전을 중심으로 ▲ 범죄, 사고 예방을 위해서 통합협력체계를 구성하는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 고령자, 장애인, 일반국민 등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 안내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하여 16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공공디자인 진흥을 통한 국민들의 일상적 삶의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시범프로젝트를 발굴 · 지원함으로써 지역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해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을 5개 전략으로 나누어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는 경기 시흥시, 울산 울주군, 제주 서귀포시 등 7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에 이어 선정릉을 대상지로 문화재 시설 범용 디자인 모델 개발 및 가이드라인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에는 2021년 전국체전을 앞둔 구미시의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범용 디자인 사업도 신규로 실시하였다.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및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경력관리를 지원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수행한 공공디자인 연구 및 용역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관련 공무원, 업체, 일반인 등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을 2018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운영을 개시하였다.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에는 2019년까지 총 4,500건의 자료가 등재되었으며, 총 278명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 경력 인증을 받았다.

2018년에 제정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이력에게 요구되는 실무경력(1년 이상) 제공을 통해 정부 차원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을 지원하고자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사업을 2019년 신규 추진하여, 총 95개 업체, 200명의 인턴이 인건비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받았다. 또한 법에 근거하여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2008년부터 시행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은 공공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공디자인의 심미성과 공공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찾아 시상하는 공모전이다. '공공디자인 대상' 11년을 맞이하여 2016년 학술부문 추가에 이어 2017년부터 세계적 석학인 빅터 마골린(Victor Margolin)이 후원하는 상을 신설, 공공디자인의 실천적 방법을 모색하고 미래사회에 대한 디자인의 역할을 제시하는 논문을 선정, 시상하였다. 2018년에는 시상의 훈격이 국무총리상으로 승격되어,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의 품격도 높아지고, 우리 사회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에는 일반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 어려운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비공모 부문을 신설하여 지자체의 휘장 · 상징표시(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등의

개발과 활용 이력, 관련 제도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현행 상징디자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3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한글의 우수한 조형성과 문자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타이포잔치 2019: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의 본행사를 열려 전 세계 22개국, 127개 팀 작가가 참여하였다.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을 주제로 127개 팀의 작가들이 여섯 가지 관점, 즉 만화경, 다면체, 시계, 모서리, 잡동사니, 식물들 등을 통해 글자와 사물의 관계를 집중 조명하였고, 5만 1천여명이 관람 및 참여하였다.

2019년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인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18~'22)'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해로, 공예문화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 · 창작 · 제작 · 유통 · 전시 · 소비 ·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 한해였다. 2018년 첫 개최에 이어 2년째 개최된 '2019 공예주간'은 일상 속 공예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적 가치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전시, 장터, 체험, 교육 등 다채로운 공예 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총 359개 체험처에서 약 34만 명의 참가자 수를 기록하였으며 전년도 첫 행사의 성공에 힘입어 규모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개최하였다.

공예문화 확산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2019 공예트렌드페어'는 공예작가와 소비자와의 접점이자 공예기반의 리빙트렌드를 제안하는 비즈니스의 장으로 역할하고 있다. 14회째 개최된 이번 페어에는 320개 사 참여, 관람객 73,500명, 현장판매 1,342백만원 등 2018년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공예 · 디자인 전문 정기간행물, 우리공예디자인 리소스북(금박, 화폐)을 발간하였으며 한국공예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공예 전 분야를 대상으로 우수공예품을 공모하여 총 49종의 우수공예품을 2019년 신규로 지정하였다. 현대적인 감각과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신진 공예디자인 작가들을 발굴 지원하여, 공모 선정된 작가 20명을 대상으로 공예디자인 상품 총 189개를 개발하였으며, 이 중 4명의 우수 작가를 대상으로 브랜드화를 위한 후속 지원을 하였다. 2016년부터 한국문화재재단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상품개발 기능을 이관받아 전통문화유산 활용 상품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에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콘텐츠를 활용한 브랜드 문화상품 15품목 54종, 캐릭터 등 특화상품 28품목 77종을 개발 및 공급하였다.

지역별 공예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공예 · 문화상품 공모전을 선정 · 지원(원주, 남원, 나주 등 6곳)하였고, 지역으로 찾아가는 공예 교육 컨설팅(청주, 강릉, 세종) 등을 개최하여 지역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했다.

또한 2019년은 한국 공예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활성화하여 국제사회에 한국공예 고유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한 해였다. 해외 박람회(영국 콜렉트 Collect, 프랑스 메종&오브제 Maison&Objet, 미국 시카고 소파 SOFA) 참가 및 한-필리핀 수교 70주년 계기 한국공예전을 개최하여, 한국 공예의 인지도 제고 및 해외시장 확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전통공예의 현대화 및 세계화를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디자인위크 기간('19. 4.)동안 '한국공예의 법고창신' 전을 개최하여 전통소재 및 기술과 현대적 디자인이 접목된 공예 작가 23인이 만들어낸 공예 작품 75점을 집중 소개하였고, 동경한국문화원에서 후속전시를 개최하였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시각예술 정책

(1) 〈2019 미술주간〉 개최

'2019 미술주간'은 미술 문화의 일상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가 주관하는 행사이다. 2019년 9월 25일(수)부터 10월 9일(수)까지 총 15일간 '미술은 삶과 함께(Art in Everyday Life)'라는 주제 아래 '미술로 좋은 날(Arts Day)'이라는 슬로건으로 일상 속 미술을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시행하였다.

미술주간은 전국 최대 규모의 미술 행사로 미술문화 확산, 미술의 국민 참여 여건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미술주간 기간 동안, 미술을 어렵게 느끼는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고 미술 감상 및 미술시장의 친숙함 제고를 위해 '미술관 가자', '미술품 사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미술관 가자'는 미술관과 전시공간의 무료 및 할인 입장, 미술관의 밤, 미술여행 등의 행사로 이루어졌다. 또한 전국 1일 미술문화 생활권 달성을 위한 미로랑 발권(한국철도공사 협력), 비엔날레 및 아트페어 관람을 위한 통합패스 발권(광주디자인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 한국국제아트페어 협력)을 통해 시각예술 행사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미술품 사자'는 미술시장 및 작품 구매 경험을 위한 통로를 제공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한국국제아트페어 및 전국 6개 작가미술장터와 협력하여 관람객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제공하였다.

2019년도 미술주간에는 전국 국 · 공 · 사립미술관, 화랑, 비영리전시공간 등 258개의 미술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수치이다. 기간 중 미술주간 참여자는 646,018명으로 전년대비 32% 상승하였다. 또한 지자체 및 공공 · 민간기관들과 협력을 확장하고 전국 8개 도시로 확대 운영하는 등 미술 향유의 전국적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표 4-5-1 미술주간 프로그램 구성 현황

<table>
<tr><th>프로그램명</th><th>주요내용</th></tr>
<tr><td>미술여행</td><td>
• 목적 및 내용: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여 숨겨진 전시공간 및 신생 문화예술 밀집 지역을 버스투어와 도보투어로 둘러보는 색다른 미술여행 코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작품 감상 및 이해를 돕고자 함
• 운영횟수: 코스 15개, 총 70회 운영
• 전시공간: 73개
• 참가자수: 1,147명
• 운영현황
<table>
<tr><th>구분</th><th>횟수</th><th>코스 및 전시공간</th></tr>
<tr><td rowspan="6">도보
투어</td><td rowspan="6">18회</td><td>코스명: 예술 놀이터
지 역: 서울 마포
공 간: 5개(탈영역우정국, 서울예술 실험센터, 아라리오갤러리 라이즈호텔, A BUNKER, 온수공간)</td></tr>
<tr><td>코스명: 예술가 동네 한바퀴
지 역: 서울 망원
공 간: 4개(아트스페이스 소, 예술공간 의식주, 알떼에고, WWW SPACE)</td></tr>
<tr><td>코스명: 일상 속 영감투어
지 역: 서울 성수
공 간: 6개(프리다 갤러리, 유니온아트페어, 아트경기, 바이산코리아, 아트업 서울, 우란문화재단)</td></tr>
<tr><td>코스명: 예술路 데이트
지 역: 서울 한남
공 간: 5개(용산공예관, 페이스갤러리, 아마도 예술공간, 갤러리 비케이, 갤러리 원포)</td></tr>
<tr><td>코스명: 봉산문화거리 갤러리 투어
지 역: 대구
공 간: 13개 (키다리 갤러리, 우손갤러리, 갤러리제이원, 예송 갤러리, 중앙202, 혜원갤러리, 동원갤러리, 수화랑, 신미갤러리, 소헌갤러리, 중앙갤러리, 갤러리 모란동백, 갤러리 오늘)</td></tr>
<tr><td>코스명: 달맞이 갤러리 투어
지 역: 부산
공 간: 6개 (해운대 아트센터, 갤러리 이듬, 갤러리 조이, 아트스페이스, 조현화랑, 맥화랑)</td></tr>
<tr><td rowspan="5">버스
투어</td><td rowspan="5">52회</td><td>코스명: 강남페스티벌 미니버스투어
지 역: 서울 강남
공 간: 14개(쥴리아나 갤러리, 주영 갤러리, 갤러리 플래닛, 갤러리 훈, 크라운구스 갤러리, 순수 갤러리, 위 갤러리, 갤러리 1707, 갤러리 LVS, 2GIL29갤러리, 갤러리JJ, 아트 셀시, 다온 갤러리 , 갤러리 COZY)</td></tr>
<tr><td>코스명: 자연 속의 미술관 투어
지 역: 서울 종로, 경기 양주
공 간: 3개(환기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SEMA창고,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td></tr>
<tr><td>코스명: 숨겨진 미술관 투어
지 역: 경기 광주, 여주
공 간: 3개(영은미술관, 닻미술관, 여주미술관)</td></tr>
<tr><td>코스명: 대전아트시티투어
공 간: 3개(대전창작센터, 테미오래, 대전시립미술관)</td></tr>
<tr><td>코스명: 광주아트시티투어
공 간: 3개(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시립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프로그램명</th><th>주요내용</th></tr>
<tr><td></td><td>
<table>
<tr><td rowspan="4">버스
투어</td><td rowspan="4">52회</td><td>코스명: 수성가창 예술코스
지 역: 대구
공 간: 2개(가창창작스튜디오, 대구미술관)</td></tr>
<tr><td>코스명: 미술관투어(체험테마코스)
지 역: 대구
공 간: 3개(범어아트스트리트, 수창청춘맨숀, 대구예술발전소)</td></tr>
<tr><td>코스명: 대구 중구 Art Zone투어, 청라버스(순환버스)
공 간: 14개(수창청춘맨숀, 봉산문화거리 내 갤러리)</td></tr>
<tr><td>코스명: 청주아트시티투어
공 간: 4개(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청주시립미술관,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대청호미술관)</td></tr>
</table>
</td></tr>
<tr><td>미술관의 밤</td><td>
• 목적 및 내용: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공연, 야외 영화상영, 등산 등)을 운영하고자 공모를 통해 6개의 사립미술관 선정, 지역 미술관을 알리고 신규 관람객 개발 및 일반 시민의 미술관 접근성을 제고함
• 참여기관: 6개
• 운영갯수: 7개
• 참여자수: 547명
• 운영현황
<table>
<tr><th></th><th>지역</th><th>장소</th><th>행사명</th></tr>
<tr><td>1</td><td>경북 예천</td><td>신풍미술관</td><td>신풍미술관 신풍야행</td></tr>
<tr><td>2</td><td>전북 남원</td><td>수지미술관</td><td>별이 빛나는 밤에</td></tr>
<tr><td>3</td><td>충북 천안</td><td>아트센터 화이트블럭 천안분점</td><td>꿈꾸는 밤</td></tr>
<tr><td>4</td><td>경기 광주</td><td>영은미술관</td><td>음악과 함께 빛의 세계를 그리다</td></tr>
<tr><td>5</td><td>서울</td><td>자하미술관</td><td>인왕에 살어리랏다</td></tr>
<tr><td>6</td><td>서울</td><td>토탈미술관</td><td>세 마리 개구리 식당</td></tr>
</table>
</td></tr>
<tr><td>연계 기획
교육프로그램
공모</td><td>
• 선정단체: 5개
• 참가자수: 670명
• 행사수 및 운영횟수: 20개, 41회
• 프로그램 개요
<table>
<tr><th></th><th>단체명</th><th>프로그램명</th><th>행사</th><th>참여대상</th></tr>
<tr><td>1</td><td>스페이스 엑스엑스</td><td>ART+ART LAB</td><td>6개</td><td>초등학생, 발달장애어린이, 미술전공 대학생, 서울시립미술관 소방방재학과 소방공무원</td></tr>
<tr><td>2</td><td>문화와 사람들</td><td>산골학교 미술행동</td><td>6개</td><td>양동초, 하호초 학생 및 행정교사, 지역민</td></tr>
<tr><td>3</td><td>상상이즘</td><td>보고 또 보고</td><td>2개</td><td>초등학생, 대학생</td></tr>
<tr><td>4</td><td>팩토리</td><td>공감각 운동회</td><td>3개</td><td>종로장애인복지과, 노들장애인야학 학생들</td></tr>
<tr><td>5</td><td>한국사립미술관협회</td><td>청소년을 위한 미술관 진로탐색, 너의 미래를 잡(JOB)아라!</td><td>3개</td><td>은평구 중학생</td></tr>
</table>
</td></tr>
</table>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미술주간 통합패스	• 목적 및 내용: 비엔날레 및 아트페어를 1개 티켓으로 관람할 수 있는 통합패스를 발권하여 전국에서 열리는 미술행사를 편리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도록 함 • 판매권종: 2종 • 판매수량: 183개 • 운영현황 – 비엔날레 통합형: 총 2개 비엔날레(광주디자인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를 각 1회입장 가능 – 비엔날레 아트페어 통합형: 한국국제아트페어와 2개 비엔날레 각 1회 입장가능
드로잉 페스티벌	• 목적 및 내용: 미술을 일상 속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그리기 대국민 참여 행사를 마련하고 미술주간 사전 행사로 개최함. 손쉬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으로 운영, 개막행사와 연계하여 선정작 시상 및 전시를 진행함 • 기간: 2019.8.22.~9.23. • 참여인원 및 제출작품: 301명, 349점 • 선정인원: 40명(유년부, 청소년부, 일반부, 시니어부 각 10명씩) • 운영매체: 인스타그램 @koreaartweek_drawingfestival (팔로워1,110명, 좋아요 17,500회)
개막행사 미술로 좋은 밤	• 일시: 2019.10.2.(화) 16:00~20:00 • 장소: 소마미술관 제2전시장 • 참여인원: 150여명 • 진행내용: 사전행사(드로잉 체험존, 참여기관 네트워킹) 운영, 미술계 관계자들의 축하영상 상영 및 작가 퍼포먼스, 드로잉 페스티벌 시상 등을 통해 미술주간을 알리고 시민과 미술계 사람들의 소통의 장 마련

(2)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2015년부터 추진된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은 미술품 판매 기회가 없는 대다수의 예술가들(전체 예술가의 약 96%)에게 직거래 미술장터 개설을 지원함으로써 작가들의 창작 환경을 증진하고 미술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에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장터를 비수도권으로 확대하여 지역 미술시장의 저변 확대와 신규 컬렉터를 개발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공모를 거쳐 16개의 단체(서울 · 부산 6개 단체, 서울 · 부산외 10개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27개소의 미술장터가 개설되었다. 총 1,003명의 작가가 참여하였고 약 6억 8천만 원의 판매 성과를 거두었다. 본 장터는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직접 작품을 전시 ·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요 화랑 및 아트페어에 참가하지 못하는 신진 및 중견작가가 국민과 소통하고 미술계 관계자들에게 직접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통로로 역할하고 있다. 또한 청년 작가들이 주도하는 신생 미술장터와 미디어 · 퍼포먼스 등 특화 장르 중심의 장터 개설 지원으로 미술시장 생태계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중저가 위주의 작품 판매로 일반 국민의 미술품 소장 기회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7천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였으며 총 97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표 4-5-2 2019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현황

유형	사업명	지원 단체명	주요내용
서울 · 부산 미술장터	2019 그림도시	㈜예술고래상회	• 국토청(참여 작가 정보 전달), 법원(작품 계약 시 체크리스트 제공), 문화재청(작품 소개 및 판매), 출입국관리소(티켓 판매), 교육청(강연 및 워크숍 진행)으로 구성된 가상 도시국가 컨셉의 장터
	2019 연희동 아트페어 : Becoming a Collector	35 workroom	• 연희동 지역 주민과 연희동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기획한, '연희동 스러움'이 돋보이는 지역 축제형 장터
	Busan Lab Art Fair	모노	• 부산 청년 작가들의 자생력 확보와 자구책 강구를 위해 개설된 청년 작가 주도의 아트페어로, 유통시장 관계자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젊은 작가들에게 미술시장 진입 기회 제공
	PACK2019 : 모험! 더블크로스	리사익	• 천장형 구조물을 활용한 전시 연출, 뮤지션들과 협업을 통한 전시 음악, 전시장에 마련된 참여작가 아카이브 등을 통해 관객들과 감각적으로 교감 시도
	아트업 마켓	㈜위누	• 작가들의 공동 작업실에서 열린 장터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반인의 예술가와 작업실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고 작가와 대중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ART369	㈜아트플레이스	• 전시기획자, 평론가, 갤러리스트 등 11명의 추천위원이 추천한 가능성 있는 젊은 작가 26명의 회화, 조각, 도예, 공예 등 다양한 장르 작품을 선보인 장터
서울 · 부산 외 미술장터	Art at Home Ⅲ '리얼 – 예술가의 방'	㈜대림산업	• 작가 작업실의 좌표가 찍힌 지도를 활용한 포스터, 전시를 둘러보고 관심이 생긴 작가의 작업실 방문 프로그램, 생활공간에 어울리는 작품을 제안 해주는 홈 아트 컨설팅 등 친관객형 기획이 돋보이는 장터
	더스트 사우스 아트 페스티벌	더스트 277	• 공장으로 활용하던 건물의 특징을 살려 스캐폴딩으로 장터공간을 구성, 시각적으로 독특한 풍경 연출해 보는 즐거움 제공
	퍼폼2019	퍼폼	•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하듯 관람객이 작품을 주문하면 테이블에서 작품을 서빙 받아 관람하는 새로운 관람 방식을 시도하여 비물질 예술에 대한 호기심을 이끌어낸 장터
	예술하라–예술편의점	㈜미하라	• 예술작품 판매 형식에 필요한 물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 장점을 차용한 예술 편의점 컨셉의 장터 • 서울, 충주에서 교차로 장터를 개설하여 작가들의 네트워크 확장 기회 제공
	아트팝업스토어 인 전주	휘목아트카페	• 전주에 남아 있는 근현대 공간에서 지역의 상권과 전북지역 신진 · 중견작가가 협력한 미술장터 • '작품 추급권'(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보상청구권) 도입으로 작가들의 지속적인 예술 활동 지원방안 모색
	블라인드 포스터전 2019	㈜세븐픽쳐스	• 문학 자판기 영수증이라는 흥미로운 관람 방법, 적극적 SNS 홍보, 이전 방문객의 재방문 유도 등 관람객을 위한 성공적 마케팅이 돋보인 장터
	미디어아트X페어	㈜아우라팩토리	• 인터랙티브 작품, 사진, 영상 등 친숙한 형식의 작품등 다양한 작품 구성과 미디어아트 작품의 콘셉트를 담은 소형 작품 제작, 복제본 제작 등 판매 방식의 다양화로 미디어아트 향유에 대한 인식 전환 가능성 제시

유형	사업명	지원 단체명	주요내용
서울 · 부산 외 미술장터	아트 바자르 청주	㈜오뉴월 가람신작	• 지역의 대표 문화 행사, 청주 문화재 야행과 결합하여 길의 일부 경관을 아트페어로 바꿔 관람객에게 길 위에서 현대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유니온아트페어 – 2019 아트페스타	극동예술연합	• 작가미술장터 외에도 지자체 문화기관 및 회랑과의 협업, 판매액의 수수료 수취를 위한 자체 페어 개최 등 자생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자구책 모색하는 4년째 운영 중인 장터
	예술 산책 : 길에서 만난 예술	와사비	• 참여 작가 50인의 SNS 개별적 홍보와 매주 생산하는 동영상 콘텐츠 게재 등 다각화된 홍보와 전략적인 판매 계획으로 참여작품 중 절반 이상 판매 성과를 이룬 작가 주도형 장터

(3)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은 「미술진흥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프로그램을 지역으로 확산하여 지역 유휴 전시공간의 가동률을 높이고, 지역민의 전시관람 기회를 통해 시각예술분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시공간과 전시프로그램 제공자를 매칭하고 전시 기획 · 설치 ·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70%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전시공유플랫폼(www.k-artspace.or.kr)을 통해 전시공간 제공자와 전시프로그램 제공자의 정보를 등록하고, 전시공간과 전시프로그램 정보를 상호간 확인한 후 서로 알맞은 공간과 전시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매칭의 만족도를 높였다.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역 문예회관, 생활문화센터, 유휴전시공간 등 88개의 전시공간에 수준 높은 전시를 개최했으며, 지역 문화예술 수준 제고 및 지역민의 시각예술분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전시 해설 프로그램, 전시연계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민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콘텐츠를 제공하여 지역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하였다.

2019년도에는 전국 문예회관, 유휴공간 등 59개의 전시공간 제공자가 참여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배 증가한 수치이다. 관람객은 295,732명으로 전년대비 3.7배 상승하였다.

표 4-5-3 지역별 전시공간 지원 현황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2018	5	5	3	2	2	1	–	–	1	1	2	2	1	3	1	29
2019	5	15	5	6	2	2	–	2	1	6	5	3	2	4	1	59
합계	10	20	8	8	4	3	–	2	2	7	7	5	3	7	2	88

천안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된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슨展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진행된
Science in Art 미술 속 과학展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된
명화 속 과학체험展

(4) 한국미술 해외출판 지원(구. 시각예술 도록 · 자료 번역지원)

한국미술 해외출판 지원사업은 해외 미술시장과 학계의 한국미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시키고 해외 연구자들의 한국미술 연구를 위한 외국어 자료 제작 및 보급을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사업은 한국미술 해외 출판지원, 한국미술 도서 해외 배포지원,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 제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미술 해외출판 지원은 도서의 집필부터 출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출판 계약이 체결된 도서를 대상으로 하여 공모로 운영된다. 집필, 번역, 감수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집필지원과 번역, 에디팅, 인쇄비 등의 출판 실비를 지원하는 출판지원으로 나누어진다. 2019년 집필지원은 총 3건이 선정되었으며(최두은 외 4명, 『최우람 작업에 대한 비평(5 critiques of Choe URam's artworks)』/고동연, 『한국 전쟁과 후기억 세대: 한국의 미술과 영화(Postmemory Generation and the Korean War: The Arts and Films in South Korea)』/윤세영, 『X세대 – 한국미술과 디아스포라(Generation X – Contemporary Art of Korean Diaspora)』), 출판지원은 2건이 선정되었다(변경희 · 우정아, 『유동성과 단편성: 한국미술 및 디자인 연구에서 모더니즘의 문제(Fluidity and Fragmentation: Interpreting Modernism in Korean Art and Design)』/연규석, 『1971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 미술무대에 진출한 한국 동시대미술 작가들에 대한 연구: 일본, 중국 작가들과의 비교 · 분석을 중심으로(Artistes coreens dans l'art contemporain sur la scene international de 1971 a 2010: etudes comparatives et analytiques avec les artiste japonais et chinois』).

한국미술 도서 해외 배포지원은 외국어로 제작된 한국미술 도서를 해외에 유통하는 공모 사업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6종의 도서, 총 553권을 해외 국공립 도서관, 대학도서관, 미술관 내 도서관, 미술 아카이브 센터, 재외 한국문화원 등에 배포하였다. 선정도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자료교환 프로그램과 연계 발송되며, 점차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발송 기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은 미술 번역에서 발생하는 용어와 정보의 혼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다국어(영/중/일) 용어사전 제작을 통해 외국어 표기지침 및 번역 용어 가이드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최종적으로 2022년 약 1,800개 단어에 대한 다국어 해제를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2019년에는 신규용어 300개를 선정 및 개념정리하여 다국어(영/중/일) 번역권고안을 공개했으며, 사전 내용 검토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추진위원회의를

진행하였다. 사업의 결과물은 온 · 오프라인에서 활용되며 해외 전문가 및 미술 애호가들에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영문 자료들은 한국미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여 한국 미술사 담론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4-5-4 한국미술 해외출판 지원사업 성과

구분	2016~2017	2018	2019	누적	2019 제작내용
자료 번역 지원	9건	–	–	9건	
번역 · 출판 지원	7건	3건	5건	15건	출판지원 2건 집필지원 3건
도서 해외 배포지원	–	17건	6건	23건	한국미술 도서 해외 배포지원 6건
한국미술 특집호 발간	3건	–	–	3건	
한국미술 해외소개 자료집	1건	–	–	1건	
20세기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	–	526단어	300단어	826단어	신규용어 선정 300개 용어 해제 한 다국어(영 · 중 · 일) 번역 300개

(5) 한국미술담론창출 사업(구. 新미술한류창출 사업)

한국미술담론창출 사업은 한국미술에 관한 실효성 있는 국내외 담론창출의 장을 마련하고 미술 한류를 만들어갈 한국미술 콘텐츠의 전략적 육성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외 주요 미술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력으로 한국미술 조명 및 한국미술 담론 활성화를 위한 국내 세미나 및 워크숍, 미술비평 및 비평매체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한다. 2019년에는 한국미술 담론 활성화 전문가 워크숍/편집회의 27회, 공개 세미나 6회를 진행하였으며 미술비평 및 비평매체 지원 사업 12건을 지원하였다.

한국미술 담론 활성화 사업은 국내에서 한국미술에 대한 담론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사업으로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전문가 워크숍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미술을 전후부터 현재까지 총 3개 시기(전후–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로 나누어 미술이론가, 미술사학자, 평론가, 기획자 등으로 연구팀를 구성하고 해당 시기의 미술 전시, 작품, 담론, 사회적 사건 등 문헌 자료를 검토하는 27회의 전문가 워크숍 및 편집회의를 통해 한국미술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이슈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담론들은 공개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와 국민들에게 공유되었다.

〈다시, 바로, 함께, 한국미술〉 공개 세미나는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연구의 결과물들을 외부 전문가와 함께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운영되며, 담론 확장과 유통의 장으로 기여한다. 지역미술을 조망하고 균형감 있는 미술사 검토를 위해 지역 미술관과 연계한 "지역미술 다시보기 세미나"를 운영하며, 2019년에는 대구미술관과 협력, 〈다시, 바로, 함께, 한국미술–대구미술 다시보기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20년에는 부산, 광주, 제주 역시 각각 지역미술 다시보기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전과정의 결과물은 다시, 바로, 함께, 한국미술 홈페이지를 통해 중간 결과물을 공유하고 있으며 앤솔로지 시리즈로 정리되어 2020년 국문 3종(전후-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이후), 2021년 영문1종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시작한 미술비평 및 비평매체 지원은 양질의 미술 연재 기획 비평문 양산과 유통하고 신진 비평인력을 양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총 12건의 비평가-매체 매칭이 되었으며, 총35편의 원고가 온/오프라인 미술 비평 매체에 게재되어 유통되었다.

또한 초 · 중 · 고 미술 교과서 및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교과서별 특성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동시대 미술, 지역사회 연계 미술(공공미술), 미술 감상 · 미술관교육 관련 학교급(초 · 중 · 고)별 학습 내용이 구성되어 추후 교육정책 반영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제작되었다.

표 4-5-5 한국미술담론창출 2019 성과

구분	참여 및 지원 규모	
	진행 건수	참여인원
한국미술 담론 활성화 전문가워크숍/편집회의	27회	13명
다시, 바로, 함께, 한국미술 세미나	6건	800명
미술비평 및 비평매체 지원	12건 매칭, 35편 평론 게재	매체 12개, 비평가 13명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1건	5인

표 4-5-6 한국미술 담론 활성화 공개 세미나 〈다시, 바로, 함께, 한국미술〉 세미나 운영 현황

구분	참여 및 지원 규모			
	일시	주제	참여 전문가수	관객수
연구팀 공개세미나	2019.7.25.	현대에의 욕망Ⅱ : 전후-1970년대 동양화단	6명	123명
연구팀 공개세미나	2019.7.26.	1980년대 미술: 리얼리티&모더니티	7명	114명
연구팀 공개세미나	2019.7.27.	2000년대: 미술현장으로서의 세계	8명	149명
주제 세미나	2019.6.21.	한국 페미니즘 미술의 확장성과 역할	10명	156명
주제 세미나	2019.12.5.	현대 한국화의 새로운 모색	9명	146명
지역미술 다시보기	2019.11.16.	대구미술 다시보기 (대구미술관 협력)	11명	76명

(6) 공공미술 사업 추진

가.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

최근 공공미술,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예술정책의 측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공공미술은 예술의 대중화 및 예술향유의 증대, 도시의 시각 환경 개선을 통한 관광객 유치, 미술가

등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장르인 공공미술은 법과 제도 등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몇 가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첫째, 지역생활공간과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생활공간예술을 창조하여 공원이나 거리에 예술적 감수성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 지역 전체에 창조적 상상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지역에 활기를 가져다주며, 국민문화 · 예술 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공공미술,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문화 환경개선 성공모델 창출을 위하여 2005년도 9차례에 걸쳐 TF 회의와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개최한 바 있다.

2006년에 12억 2,500만 원(복권기금)으로 수행한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사업(Art in City 2006)'은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최초 사업으로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하게 문화적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공공미술의 조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욕구를 담아내고 미술가의 창의성이 결합된 문화적인 공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06년 처음 실시한 공공미술 사업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으며 다른 사업들(2007년 서울시의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의 '새로운 장르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경북 문경시의 공공미술위원회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

2007년도에 실시한 공공미술 사업은 전반적으로 2006년도와 동일한 성격으로 추진되었으며, 2006년도와 달라진 부분은 미술전문위원 중심에서 공간, 건축 분야 전문위원이 위촉되었고 보다 효율적이고 많은 예산이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사무국도 부분 위원회로 축소 · 개편되었다. 사업구성은 2006년도와 동일하나 그 명칭을 일반 공모사업, 기획공모사업, 지속사업, 홍보사업으로 하였으며, 2006년도와 같이 복지관들과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참여를 유도하고 매체홍보도 함께 한 결과, 서울을 포함하여 115건의 공모가 접수되었고 15개 지역의 마을, 복지관, 노숙자 · 노동자를 위한 장소를 선정하였다.

2009년에는 예술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획된 '2009 예술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미술 사업이 시행되었다.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2009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지역미술 작가들에게 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소외지역 주민들에게는 생활 속에서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과 생활공간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자 추진되었다. 사업은 공모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작가들이 직접 장소를 선정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응모하였다. 약 10:1의 경쟁률로 전국 21개 지역이 당선되었으며, 서울을 포함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고른 지역 선정이 이루어졌다. '2009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전국 21개 지역에 분포되어 진행되고 지역작가를 활용함으로써, 공공미술에 대한 작가 · 주민 · 지자체의 인식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특히 200여건 이상의 응모안을 신청 받는 단계부터 장소 사용 등과 관련 지자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는데.

당선된 21곳 중 자발적으로 지방비를 매칭하거나 지속사업으로 연장한 사례들이 6곳(완주, 철원, 양평, 공주, 안동, 부산)이나 되는 등 그 관심이 뜨거웠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사업 평가 결과 완성된 작품과 환경개선에 대한 만족도는 작가 66%, 주민 62%로 양측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가들의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그 수는 213명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지원 금액에 대한 작가들의 만족도는 52%에 그쳐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마을미술프로젝트는 2009년도 사업효과를 기반으로 한 홍보를 바탕으로, 지방비 매칭을 의무사항으로 하여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작가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작가가 장소를 직접 정하고 지자체와 주민의 협력을 끌어내도록 하였으나, 2010년도는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소를 먼저 공모하고 선정된 장소에 작가가 작품공모를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아울러 2009년 국고(적립금)만으로 추진했던 것을 2010년에는 국고 지원금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지방비를 매칭 지원토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2009년, 2010년 2년에 거친 '마을미술프로젝트'는 공공미술 사업의 모델처럼 자리 잡으며 많은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

2009년과 2010년 마을미술프로젝트가 문화적 수혜의 전국적 확산, 2011년, 2012년도는 '선택과 집중'을 기조로 지역 활성화에 보다 직접적, 가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2013년부터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성과를 기반으로 공공미술의 확산을 통해 대중화시킬 수 있는 아트투어프로그램 추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공공미술 대표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는 기존의 정형화된 공공미술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미술을 통한 마을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자유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유지 · 보수 및 기 조성된 공공미술 수혜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도모하는 기쁨 두 배 프로젝트의 강화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고 있다. 2015년 사업은 지역공동체 회복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방식의 공공미술 작품 설치 및 관련된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특정 지역의 환경적 문제나 단절된 커뮤니티 관계 등을 문화예술적인 접근으로 유쾌하게 재조명하여 지역 공동체 회복에 및 다양한 방식의 임시적 공공미술 작품 제작을 통해 지역의 커뮤니티 및 공공성 확장과 미술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 새로운 공공미술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어 2016년의 새로운 뉴 모뉴먼트 프로젝트를 통해 정보기술(IT), 문화기술(CT) 네트워크 및 융 · 복합형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공공미술의 전통방식에서 벗어나 테크놀로지와 문화의 결합으로 새로운 공공미술의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였다.

2017년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총 3개 공모유형에 7개 지역이 선정되어 지원되었고, 참여 작가는 총 141명, 제작 작품은 총 86점, 직 · 간접적 참여 주민은 약 3,019명으로 추산된다. 단년도 자유제안 사업(자유제안 프로젝트) 등의 경우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독창적인 자유주제로 다양성을 확보하고, 3년 연속 지원 시범사업(행복프로젝트)은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 및 제작함에 있어 대상지에 대한

사전연구 및 지역과의 커뮤니티 형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2018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총 2개 공모 유형에 5개 지역(대전광역시, 경북의성, 경남하동, 강원삼척, 충남서천)이 선정되어 지원되었고, 참여 작가는 총 131명, 제작 작품은 총61점, 참여프로그램 125회, 직 · 간접적 주민참여는 4,710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대전사업지는 '청소년금지구역'에서 해제(2018. 9.)되고 '마을 커뮤니티 조성' 등을 통해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등 쇠락한 마을을 예술로 재생하고 지역 주민 예술 향유를 증대하는데 기여하였다.

2019년에는 공공공간 개선사업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기관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총 2개 공모 유형에 1~3년 연속사업으로 대전광역시, 경북 의성, 제주 추자도를, 단년도 사업으로 강원 정선, 경남 김해를 지원하였다.

표 4-5-7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현황(2019)

공모 구분	대상지	사업명	사업내용
공모1. 행복프로젝트	대전 광역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대전관문인 정동, 원동의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참여로 마을재생 프로젝트
	경북 의성	발화(發話)–남겨진 기억의 풍경	우리나라 근대산업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의성 성냥공장'과 '공장종사자 주민'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기록하여 문화예술의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
	제주 추자	잠시 멈추자, 바람과 춤을 추자	다년간 급격한 인구감소와 수산업 침체 등의 요인으로 위기상황에 봉착한 제주도의 섬 속의 섬 추자도에 새로운 활력 제공
공모2. 자유제안	강원 정선	평화	지역주민들과 학생, 군인이 함께 평화의 염원을 담아 함께 만드는 프로젝트
	경남 김해	가야를 찾아주세요	조명되지 못한 가야 역사에 관심을 촉구하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추진되는 프로젝트

(7) 미술품 감정 및 유통 기반 구축사업

본 사업은 미술 생태계 투명화를 위한 미술품 감정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으로 2015년에 시작되었다.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감정인력 양성과 미술품 유통 · 감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구축 및 연구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연구지원에는 미술품 과학적 분석을 통한 감정 체계 마련과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작가의 디지털 아카이빙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연구결과물을 통한 신뢰성 있는 자료의 구축과 작가 해외 프로모션에 기여한다.

미술품 감정가는 문화예술 희소인력으로 미술사와 작가 등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2~30년 이상의 업무경력과 전문성이 필요한 직군이다. 2018년부터는 신규유입인력의 확장을 위하여 유통 영역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차세대 감정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국내외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19년에는 '미술품 감정 · 유통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3개 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했다. 예비인력 및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미술품 감정 및 유통 인력을 위한 법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61명 수강)했으며 시가감정 및 유관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소더비 인스티튜트(Sotheby's Institute of Art)와 협력, '미술품 가치와 시가감정' 프로그램을 운영(23명 수강)하고 공개세미나(120명 참석)를 운영했다. 또한 17년부터 협력해온 미국감정가협회(AAA)와의 공동기획으로, 시가감정 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0명 참여)을 운영했다.

미술품 감정 및 유통 연구지원 사업에서는 2018년부터 진행된 미술품 과학적 분석을 통한 감정 연계 연구지원 공모를 통해 미술품 광학 특성 분석 기반 진위감정 시스템, 디지털 이미징과 과학적 분석을 연계한 미술품 감정, 캔버스 시대적 변화를 기반으로 한 과학감정 방법론 제안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였다. 또한 2018년 진행된 연구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비파괴 분석을 통한 시판 유화물감 과학감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 외에도 미술품 감정 및 유통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가별 미술정책 및 감정관련 제도연구, 과학적 분석 활용 미술품 진위감정 교육과정 개발연구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 연구지원 사업은 원로작가의 전 생애 화업을 정리하고, 연구물을 국내 · 외 한국 근현대미술 연구를 위한 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골자로 한다. 원로작가는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2019년 공모형으로 성능경, 윤광조, 안창홍 작가, 기획형으로 박대성 작가를 선정해 연구하였다. 각 연구팀은 11개월의 연구기간동안 작가의 화업을 정리하고 영상제작 등을 진행한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연구과정을 평가, 모니터링하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

'디지털 아카이빙'을 주제로 국내 전문가를 초청한 컨퍼런스 〈디지털 아카이빙, 기록과 연결〉을 통해 국내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각예술 디지털 아카이빙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나누고,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 지원사업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표 4-5-8 미술품 감정 및 유통 기반 구축사업 성과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누적
미술품 감정인력 양성	5개 과정, 90여명	1개 과정, 10여명	3개 과정, 40여명	3개 과정 40여명	3개 과정 94명	15개 과정, 274명
미술품 과학적 분석 및 감정시스템 개발 ((전)미술품 감정 기초자료)	3건	9건	7건	11건	8건	38건
작고작가 전작도록 발간지원	2건	2건 (지속지원)	2건 (지속지원)	사업종료	사업종료	2건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전))원로작가 디지털 자료집 발간지원)	3건	4건	4건	5건	4건	20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누적
국제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1건 (컨퍼런스 1회, 심화세미나 2회)	9건 (국제세미나 및 심화워크숍 1건,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간담회 8회)	1건 (국제세미나 1건)	1건 (국제컨퍼런스 1건, 심화워크숍 3건)	1건 (컨퍼런스 1회)	13건

(8)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누구에게나 국내 미술품 거래정보를 제공하여 일반 국민의 합리적, 지속적인 미술품 구입 근거로 활용케 함으로써 미술시장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K-ARTMARKET)'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전문기관인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16년 구축한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www.k-artmarket.kr)'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거래된 약 13만여 점의 미술작품 가격 정보와 데이터 기반 월간, 반기, 연간 경매시장 분석 보고서 및 다양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국민의 미술시장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표 4-5-9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 미술작품 거래 데이터 보유 현황 및 시장 분석 리포트

구분	2016	2017	2018	2019	계
미술작품 거래 데이터	87,168	5,675	22,949	20,538	136,330
K-ARTMARKET 경매시장 분석 리포트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은 미술작가, 작품, 거래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고유식별체계를 통해 미술작품의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기간별, 작가별, 거래처별 등 세분화된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 미술시장 정보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아트부산', '아트아시아' 등 국내 대표 아트페어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며 홍보부스 운영과 미술시장 강연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등 웹사이트 인지도와 이용률을 증대시키며 미술정보 및 데이터 활용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4-5-1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 통계 자료 및 미술시장 분석 강연회

이와 같이 다양한 미술시장 정보 제공과 대외 홍보 활동을 추진한 결과, 2019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의 웹사이트 방문자 수는 전년 대비 573% 증가한 약 20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페이지뷰 역시 221% 증가한 777만여 회를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 국내를 대표하는 미술시장 정보 제공 웹사이트로 자리매김 하였다.

표 4-5-10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계	증감률 ('18년 대비)
방문자 수(명)	82,213	161,973	302,086	2,033,303	2,579,575	573%
페이지뷰 수(회)	307,347	883,131	2,421,515	7,779,166	11,391,159	221%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은 미술시장 전문가와 함께 데이터와 이슈를 접목시킨 분석 리포트와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자료 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국 화랑, 아트페어의 전시 정보 채널을 확대하여 미술시장 정보 제공 통합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9)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가.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999년부터 국내 화랑 대상 해외 주요 아트페어 참가에 필요한 부스비 및 작품 운송비 등 일부 경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2019년도에는 16개 아트페어 35개 화랑이 참여하였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미술시장 위축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 화랑은 해외 미술시장에 국내작가를 소개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하고자 활발히 해외 아트페어에 참가하였다.

2019년에는 Art Basel(홍콩), Frieze Sculpture(런던), FIAC(파리), West Bund Art&Design (상하이), Art Jakarta(자카르타), Art Taipei(대만)등 더욱 다양한 아트페어에 참가하여 국내 작품을 소개하였다.

최근 들어 국내 화랑들의 아시아권 아트페어 참여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권 시장이 충분히 글로벌화 되어 다양한 구매층을 접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경비가 저렴한 이점이 있어 미주권 아트페어보다 더 실속 있는 성과를 거두는 '대안시장'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는 진출 시장의 다원화 및 이로 인한 신규 시장의 개척이라는 점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 본 사업을 통해 다양한 한국작가와 신생화랑이 해외 현지 시장에 진출하여 꾸준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해외 아트페어라는 플랫폼을 통해 한국 미술의 우수성을 폭넓게 홍보하고 국제적 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나. 해외기관 초청 · 협력 전시 지원(Fund for Korean Art Abroad, FKAA)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다 많은 유망한 한국작가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고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해외 미술기관을 통해 기획 · 개최되는 한국작가의 전시를 지원하고 있다. 시각예술 분야 전시를 기획, 개최하는 해외 영리 · 비영리 미술기관으로부터 직접 지원 신청을 받는 해외공모 사업으로, 한국 작가를 초청 혹은 한국 미술기관과 협력하여 전시를 기획하거나 한국작가의 커미션 작품을 제작 · 전시하는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이다. 해외 미술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2~3년 전에 기획전시를 계획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지원 대상 사업기간이 2년이다.

지원 사업 첫 해에 약 100여건의 해외 미술기관이 기금 지원을 신청하여 한국작가(미술)에 대한 해외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였다. 2019년도에는 총 9건이 선정('19년도 8건 개최, '20년도 1건 개최)되었으며, 대표적으로 프랑스 리옹비엔날레, 이탈리아 도나레지나 현대미술재단, 필리핀 마닐라 현대미술 · 디자인 미술관 등 저명한 국제 행사 및 해외 주요 미술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전시에 참여한 한국 작가들이 추후 세계 톱 아트페어에 참여하거나 다른 해외기관 전시에 초청받는 등의 활발한 후속 활동 역시 유의미한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2019년도부터는 한국미술을 해외에 프로모션 하는 펀딩 프로그램으로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 미술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해외 미술기관에게 직접 지원금을 사후 교부한다. 이에 본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미술기관이 한국작가를 초청하는 기획전시 수를 전략적으로 촉진시켜 현지 컬렉터에게 지속적으로 한국미술이 소개 및 거래될 수 있는 장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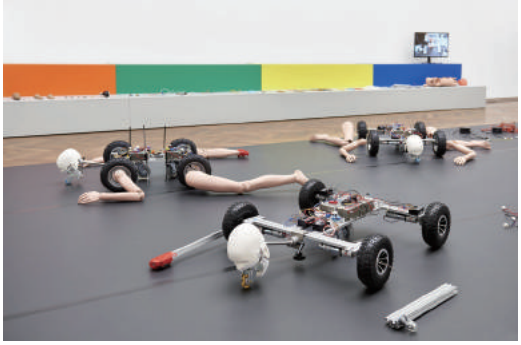
표 4-5-11 해외기관 초청 · 협력 전시 지원 현황(2018~2021)

권역	국가	기간	전시 장소(해외 협력기관)	지원한국작가 수
아시아	일본	'18. 6. 30. ~ 8. 24.	Kana Kawanishi Gallery	3
	중국	'19. 7. 20. ~ 9. 6.	Beijing Commune	6
	중국	'18. 10. 5. ~ '19. 1. 6.	Kuandu Museum	1
	중국	'18. 11. 8. ~ '19. 3. 2.	Powerlong Museum	7
	중국	'18. 11. 23. ~ 11. 25.	Christie's HK (Victoria Miro HK)	11
아시아	중국	'18. 11. 23. ~ '19. 1. 2.	Jimei x Arles Photo Festival	11
	싱가포르	'19. 8. 22. ~ 9. 15.	Taksu	3
	필리핀	'20. 10. 15. ~ '21. 2. 28.	Museum of Contemporary Art and Design, Manila	1
	태국	'20. 10. 29. ~ '21. 1. 31.	Bangkok Art Biennale	3
	중국	'20. 12. 28. ~ '21. 3. 21.	OCT Contemporary Art Terminal (OCAT) Shanghai	4
	중국	'20. 12. 26. ~ '21. 2. 06.	VT Artsalon	8
유럽	영국	'18. 5. 17. ~ 5. 20.	Photo London	3
	모나코	'18. 6. 14. ~ 9. 17.	Meta Monaco	6
	영국	'18. 7. 14. ~ 10. 28.	Liverpool Biennial	1
	오스트리아	'18. 9. 6. ~ 9. 10.	Ars Electronica (ArtJaws)	2
	벨기에	'18. 9. 15. ~ 10. 6.	ÉTÉ 78 (Galerie Dohyang Lee)	1
	영국	'18. 11. 14. ~ 12. 16.	The Approach	1
	프랑스	'18. 11. 16. ~ 11. 25.	OVNi, Video Art Festival	18
	프랑스	'18. 12. 1. ~ '19. 1. 10.	Galerie RX	2
	프랑스	'18. 12. 11. ~ 12. 14.	Unesco	1
	영국	'19. 1. 26. ~ 3. 16.	Delfina Foundation	5
	스위스	'19. 5. 2. ~ 8. 11.	Kunsthalle Basel	1
	독일	'19. 6. 15. ~ 8. 18.	Ludwig Museum	1
	스페인	'19. 6. 20. ~ 6. 30.	Asia Film Association in Spain & Latin America	4
	스웨덴	'19. 8. 29. ~ 11. 10.	Bonniers Konsthall	1
	프랑스	'19. 9. 16. ~ '20. 1. 5.	La Biennale de Lyon Association	3
	이탈리아	'19. 10. 10. ~ '20. 1. 6.	Fondazione Donnaregina	3
	프랑스	'19. 10. 12. ~ 11. 9.	High Art	1
	영국	'20. 10. 6. ~ 11. 27.	Massimo De Carlo	1
	영국	'20. 10. 27. ~ '21. 1. 23.	Locus+	1
	프랑스	'20. 9. 18. ~ 11. 7.	Vazieux Gallery	1
	프랑스	'20. 9. 24. ~ 10. 31.	Lily Robert	1

권역	국가	기간	전시 장소(해외 협력기관)	지원한국작가 수
유럽	프랑스	'20.12. 15. ~ 12. 30.	Galerie Bertrand Grimont	3
	러시아	'20. 12. 15. ~ '21. 2. 14.	The State Russian Museum and Exhibition Centre ROSPHOTO	11
	독일	'20. 7. 10. ~ 8. 30.	Choi and Lager Gallery	3
	스웨덴	'20. 6. 13. ~ 8. 23.	Lunds Konsthall	1
미주	캐나다	'18. 6. 29. ~ 9. 23.	International Digital Art Biennale	4
	미국	'18. 11. 17. ~ 12. 29.	Commonwealth and Council	1
	미국	'19. 8. 16. ~ 9. 14.	Filter Photo	1
	미국	'19. 10. 4. ~ 11. 10.	RedLine	15
	미국	'20. 12. 10. ~ '21. 1. 24.	Cindy Rucker Gallery	5
	아르헨티나	'21. 7. ~ 11.	BIENALSUR	1
오세아니아	호주	'19. 8. 23. ~ 10. 20.	Ballarat Int'l Foto Biennale	1

그림 4-5-2 해외기관 초청 · 협력 전시 지원 사업

'Là où les eaux se mêlent
Where water comes together with another water'
리옹 비엔날레, 리옹, 프랑스



정금형 개인전 'Homemade RC Toy'
쿤스트할레 바젤, 바젤, 스위스

단체전 'counterART:Aesthetics of south Korean Activism'
레드라인, 덴버, 미국

이수경 개인전 ' Whisper only to you'
도나레지나 현대미술재단, 나폴리, 이탈리아

다. 시각예술 매개인력 양성

시각예술 매개인력 양성사업은 한국 현대미술의 해외진출을 위한 매개인력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2013년에 시작된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으로 운영되며 2019년 현재, 총 251명의 매개인력 지원, 10건의 후속 프로젝트 지원, 해외 기관과 총 15건의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 등 국내외 매개인력과 전문기관들을 연결하는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시각예술 매개인력 양성사업은 시각예술 분야(Visual Art) 기획자들의 역량증진과 네트워크 확대에 유용한 채널(via)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프로젝트 비아(Project ViA)'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하며 해외 프로그램 참가지원과 기획형 리서치로 구분된다. 해외 프로그램 참가지원은 미술시장 종사자의 해외 아트페어 참가를 위한 사전 리서치 및 매개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워크숍 및 연수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한다. 기획형 리서치는 센터가 해외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를 지원한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해외 협력기관은 다음과 같다; 영국 테이트 리서치 센터(Tate Research Center: Asia-Pacific), 네덜란드 몬드리안재단(Modeiaan Fonds), 미국 국제독립큐레이터협회(I.C.I), 퍼포마(Performa), 핀란드 프레임재단(Frame Visual Art Finland), 덴마크 문화청(Denmark, Denish Agency for Cultue), 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 인도네시아 족자비엔날레재단(Indonesia, Yogjakarta Biennale Foundation), 휘트니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 피악(FIAC), 화이트채플갤러리(Whitechapel Gallery), 상하이 아트021(Shanghai Art021), 프리즈(Frieze), 휘트니 비엔날레 (Whitney Biennial), 서튼피알(SuttonPR) 등 기획형 리서치를 매개로 프로젝트 비아는 다수의 해외 협력기관들과 쌍방향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미술시장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다수 해외 기획자들의 국내 리서치를 유치했으며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한 주요 이벤트 및 아트페어, 갤러리, 미술관, 레지던시 등 한국 현대미술 현장을 소개하고 국내 기획자들과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작가의 해외전 초청 및 기획자들의 해외 초청 등의 성과를 냈다.

2019년 기획형 리서치는 시각예술 국제행사의 기획과 운영을 주제로 아트페어 및 비엔날레 평가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국내 10개 기관(키아프, 아트 부산, 대구아트페어, 광주아트페어, 화랑미술제,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강원비엔날레, 대전비엔날레, 창원조각비엔날레, 금강자연비엔날레)과 해외 기관(프리즈(Frieze), 테파프(TEFAF), 디아더아트페어(The Other Art Fair), 스코프 뉴욕(Scope New York), 휘트니 비엔날레(Whitney Biennial), 위트 미디어(WIT Media), 서튼피알(SuttonPR), 퀜터센셜리(Quintesentially))가 참여하여 아트페어와 비엔날레의 계획과 운영 실무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워크숍을 진행했다.

프로젝트 비아는 선정자들의 리서치 결과를 일반에 공유하기 위해 결과보고 자료집(프로젝트 비아 파이널 리포트)을 제작 · 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 아카이브(http://www.gokams.or.kr/projectvia/)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아카이브는 해외 시각예술 기관들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현장 탐방을 통해 습득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선정자들의 리서치 결과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생생한 현장 정보 공유의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리서치 결과 공유 세미나(비아 살롱)를 통해 권역별, 주제별 리서치 결과 및 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담론형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 4-5-12 시각예술 매개인력 양성 지원성과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누적
해외 리서치 및 워크숍 참가	44명	38명	44명	54명	20명	27명	24명	251명
리서치 후속 프로젝트 개발	–	3건	4건	2건	1건	–	–	10건
해외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개발	3건	4건	3건	2건	2건	1건	–	15건

(10)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신진작가의 미술시장 진출을 활성화 하고 미술품 향유 및 소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지원사업은 작가와 화랑 · 대여업체의 온라인 홍보 및 매칭 플랫폼인 「미술공유서비스」 누리집(www.k-artsharing.kr)에 등록된 신진작가의 국내 아트페어 특별전을 지원하는 '아트페어 신진작가 특별전 지원' 공모와, 학교 · 병원 등 공공시설에 미술품 대여 · 전시를 지원하는 '미술품 대여 · 전시 지원' 공모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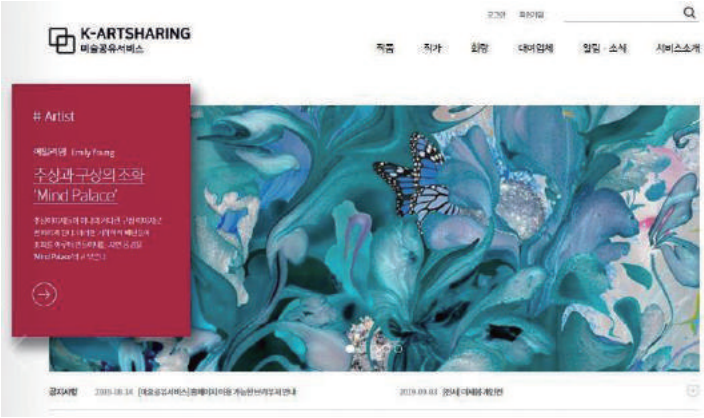
「미술공유서비스」 누리집은 작가 스스로 작품을 홍보하고, 화랑 · 대여업체의 작가 발굴을 용이하게 하도록 돕기 위해 2017년 10월 오픈한 온라인 B2B 플랫폼이다. 누리집에서는 미술작가 프로필 및 작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술 유통업체가 작가에게 직접 전시 · 전속을 제안하거나 작품 대여를 요청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2019년까지 「미술공유서비스」를 활용하여 작품을 홍보하는 작가는 3,234명이며 등록 작품수는 16,731점에 달한다. 237개의 화랑 · 대여업체가 본 누리집을 통해 작가를 발굴하고 전시 · 대여를 진행하고 있다.

표 4-5-13 미술공유서비스 등록 정보

구분	작가 수(명)	작품 수(점)	업체 수(개)
2019년 12월(누적)	3,234	16,731	237

2019년에 「미술공유서비스」는 웹사이트의 이용률 확대 및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웹페이지의 속도 및 작가와 업체 간 전시, 전속, 대여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본 누리집 메인페이지 전면에서 이달의 작가 및 전시를 선정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작가 및 작품의 상세페이지는 이용자들이 작품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또한, 신진작가 대상 지원사업들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예비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의 참여작가 모집 메뉴를 개설함에 따라 「미술공유서비스」의 사용자 수가 전년 대비 78% 증가하였다.



「미술공유서비스」는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작가와 화랑 · 대여업체 회원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아트페어, 미술관 기업 등 다양한 미술 관련 기관들로 사용자 범위를 확장하는 등 다양성, 전문성을 갖춘 매칭 플랫폼으로 입지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트페어 신진작가 특별전 지원' 공모는 신진작가의 본격적인 미술시장 진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미술공유서비스」에 등록된 신진작가의 국내 아트페어 특별전을 개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3개의 주요 아트페어에 32명의 신진작가가 출품하여 총 20점, 약 1.4천만원의 작품 판매가 이루어졌다.

표 4-5-14 아트페어 신진작가 특별전 지원 현황

구분	참여단체수(개)	참여작가수(명)	참여작품수(점)	판매작품수(점)	작품판매액(원)
2019년	3	32	133	20	14,200,000

'미술품 대여 · 전시 지원' 사업은 대여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미술품 향유 문화 확산, 작가 대여 수수료 지원 등을 통한 작가의 실질적 수익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되었다. 3년간 20개의 화랑 및 대여업체가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현재까지 60개의 공공시설에 259명의 작가, 1,391점의 작품이 대여 · 전시된바있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시 이외 지역의 대여 · 전시 진행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수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총 31개 공공기관에서 신진작가 전시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문화소외 지역의 미술품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2019년 미술 관련 보험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하여 미술 시장 현황 파악 및 미술계 수요를 반영한 보험상품 개발 연구를 통해 미술 유통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미술향유 대중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1) 아트페어 활성화 지원

가. 아트페어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1999년부터 국내 아트페어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내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국제아트페어(이하 KIAF) 및 아트부산(Art Busan)등 국내 대표적 아트페어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국내 아트페어 평가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어 평가 결과에 따른 차기년도 정부지원 페어가 결정됨으로써 국내 지원 대상 아트페어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질적 성장의 선순환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19년은 2018년 아트페어 평가 결과 1~2위와 국내 미술시장의 투명성 제고 지표인 '작품정보 공개'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아트페어의 지원이 결정되었다. 이를 통해 아트부산, 아트아시아, 아트광주, KIAF, 안산국제아트페어, 부산국제아트페어, 서울아트쇼는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대행사를 개최하였고, 총 143,307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다.

표 4-5-15 2019 아트페어 활성화 지원 현황

아트페어명	개최시기	행사 유형	행사명	참여자수(명)
아트부산	5.30.~6.2.	네트워킹 파티	아트부산2019 개막 네트워킹 파티	284
아트아시아	8.8.~8.11.	강연	아트아시아 2019 컨버세이션&렉처	164
아트광주	9.19.~9.22.	강연	아트광주2019 렉처프로그램	211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9.25.~9.29.	특별전	한국근대회화특별전 '역사가 된 낭만'	82,000
안산국제아트페어	10.4.~10.16.	특별전	청년작가 특별초대전 'Dream Youth Art'	646
부산국제아트페어	12.5.~12.9.	특별전	20세기 소련의 마지막 명화	16,096
서울아트쇼	12.21.~12.25.	강연, 특별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예술 생태계	43,906

나. 아트페어 · 비엔날레 평가

지역 미술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 행사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신생 아트페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지역 행사의 전문성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국내 아트페어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2017년 첫 평가를 실시하고, 기존에 실시하였던 비엔날레 평가 체계를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행사별 강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대상사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평가대상 전체 현황 및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인 정책 환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미술 행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9년 총 11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평가 대상을 21개로 확정하여 정량 및 정성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시행하였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차기년도 아트페어 관련 정부지원 사항을 차등 구분하였다.

표 4-5-16 2019 비엔날레 평가대상 개요

비엔날레명	주최/주관단체	행사시기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조직위원회	10.5.~11.3.
바다미술제	주최: 부산광역시, (사)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주관: (사)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	9.28.~10.27.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주최: 전라북도 주관: (사)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	10.12.~11.10.
청주공예비엔날레	주최: 청주시 주관: 청주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	10.8.~11.17.

표 4-5-17 2019 아트페어 평가대상 개요

아트페어명	주최/주관단체	행사시기	평가결과에 따른 정부지원	
			예산	기타
아트부산	주최/주관: (사)아트쇼부산	5.30.~6.2.	○	• (정부)미술은행 작품 구입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리서치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명칭
한국국제아트페어 (KIAF)	주최: (사)한국화랑협회, (주)코엑스, (주)SBS 주관: KIAF 2019 ART SEOUL 운영위원회	9.25.~9.29.	○	• (정부)미술은행 작품 구입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리서치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명칭
대구아트페어	주최/주관: 대구화랑협회,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	11.13.~11.17.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리서치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명칭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BAMA)	주최/주관: (사)부산화랑협회, 2019 BAMA 운영위원회	4.25.~4.29.	○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리서치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명칭
아트광주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사)한국예총 광주광역시연합회	9.19.~9.22.	○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리서치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명칭
화랑미술제	주최: (사)한국화랑협회, ㈜코엑스 주관: 화랑미술제 운영위원회	2.20.~2.24.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리서치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명칭

아트페어명	주최/주관단체	행사시기	평가결과에 따른 정부지원	
			예산	기타
경남국제아트페어	주최: 경상남도, 창원시 주관: GIAF 2019 운영위원회	7.11.~7.14.		•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명칭
마니프 서울국제아트페어	주최: ART CHOSUN, TV CHOSUN, 마니프 조직위원회 주관: 마니프 조직위원회	10.2.~10.13.		
부산국제아트페어	주최/주관: (사)케이아트국제교류협회	12. 5.~12. 9.		
서울국제조각페스타	주최: (사)한국조각가협회 주관: 국제조각페스타 운영위원회	10.26.~11.3		
서울아트쇼	주최/주관: 서울아트쇼	12.21.~12.25.		
아시아프&히든아티스트	주최: 조선일보사, 서울디자인재단 주관: 조선일보 문화사업단, LVS Project	7.23.~8.18.		
아시아호텔아트페어	주최: 아시아아트넷 주관: 아시아호텔아트페어 운영위원회	(부산) 2.28.~3.3. (서울) 8.8.~8.11.		
아트아시아	주최: 아트아시아, MBC 주관: 아트아시아 운영위원회	8.8.~8.11.		
아트에디션	주최/주관: (사)한국판화진흥협회	8.8.~8.11.		
안산국제아트페어	주최: 안산국제아트페어 AIAF 주관: 안산국제아트페어 운영위원회	10.4.~10.16.		
조형아트서울	주최: 청작아트 주관: 조형아트서울 운영위원회	6.12.~6.16.		

(12)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은 신진작가의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조성하고 화랑의 작가 발굴 · 육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에 신설되었으며 문체부 주최, 예경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진작가와 전속계약을 맺고 창작활동비를 지급하는 중소규모 화랑을 지원하고 작가에게 안정적 창작환경을 제공하여 우수한 작품이 전속화랑의 매출로 연결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2019년 미술공유서비스(k-artsharing.kr)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 작가 모집에 1,000여명의 작가가 지원하였으며, 이 중 총 80명의 작가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42개의 화랑 · 비영리전시공간이 공모에 선정되었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10개월 동안 매달 창작활동비가 지급되었으며 화랑에게는 1회의 작가홍보비가 지원되었다. 이외에도 전속화랑에게 법무, 홍보 등 실무 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화랑의 작가 육성 역량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개발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법률 지원이 시급한 예술인의 서면 계약 체결률을 제고시키는데 일조하였다.

특히, 전속작가 발굴 활성화 및 유통성과 결과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미술계 전문가 8명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우수 전속화랑'을 선정하는 평가체계를 구축, 사업 취지에 부합한 성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2019년에 선정된 11개의 우수 전속화랑(전속작가 25명)에게는 차기년도 전속작가 창작활동비 연속 지원 및 국내 대규모 기획전 개최 등 추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표 4-5-18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성과 (2019년 기준)

연번	단체명	전속작가명	전속작가 수(명)	지역
1	갤러리도스	구나영, 백효훈, 정석우	3	서울
2	갤러리도올	노현우	1	서울
3	갤러리룩스	사타, 추미림, 함혜경	3	서울
4	갤러리마레	에밀리영	1	부산
5	갤러리미고	김대홍	1	부산
6	갤러리서린스페이스	김재홍	1	부산
7	갤러리소소	김윤수, 이해민선, 송민규	3	경기
8	갤러리아트플라자	오건용, 유지환	2	서울
9	갤러리이배	김은미, 윤연두, 하정인	3	부산
10	갤러리자작나무	염찬희, 하행은	2	서울
11	갤러리작	김세한	1	서울
12	갤러리조선	구명선, 안상훈, 정정주	3	서울
13	갤러리조이	조덕래	1	부산
14	갤러리지오	박재영, 유화수	2	인천
15	디스위켄드룸	장은의	1	서울
16	라흰갤러리	진광영	1	서울
17	리서울갤러리	권경엽, 박준수	2	서울
18	미광화랑	이지훈, 하미화	2	부산
19	박여숙화랑	이택수	1	서울
20	상업화랑	박승예, 송수영, 옥정호	3	서울
21	소아르	김화영, 문창환	2	전남
22	스페이스나인	김윤아, 홍준호	2	서울
23	스페이스1326	강혜지, 김용현, 노은희	3	경남
24	아터테인	양경열, 유용선, 전희경	3	서울
25	아트스페이스 루	박제경	1	서울
26	아트스페이스 휴	김창영, 박필교, 윤상윤	3	경기
27	아트스페이스3	임동승	1	서울
28	아트웍스파리서울	이유(이은화)	1	서울
29	윌링앤딜링	로와정, 장성은	2	서울
30	이목화랑	사박, 윤세열, 이미주	3	서울
31	이화익갤러리	안두진, 차영석	2	서울
32	인영아트센터	오흥배, 이경훈	2	서울
33	자윤갤러리 & 교육센터	장원석, 이철	2	광주

연번	단체명	전속작가명	전속작가 수(명)	지역
34	지니청(g.gallery)	이정민	1	서울
35	지앤갤러리	윤은숙	1	울산
36	키다리갤러리	김민혜, 신대준, 양종용	3	대구
37	피앤코(스페이스 소)	금민정, 임선이	2	서울
38	해운대아트센터	김기영, 임상훈	2	부산
39	A Lounge(에이라운지)	임소진, 최대진	2	서울
40	Art JB	김정미, 고은주, 정일진	3	서울
41	FM갤러리	서수영	1	서울
42	Gallery TY	이새봄	1	경남
42개 화랑 · 비영리전시공간 및 80명 전속작가 지원				

표 4-5-19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선정단체 대상 강의 프로그램 현황

구분	강의 주제 및 참석자 규모		
	세션	주제	참석인원
맞춤형 강의	1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및 가이드라인	70
	2부	전속작가 프로모션 전략 및 국내외 화랑의 전속작가 운영 사례	
결과공유 워크숍	1부	우수 전속화랑 및 전속작가 운영 성과 공유	120
	2-1부	국내 미술시장 트렌드 진단	
		굿즈 개발에서 기업과의 협업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미술 콘텐츠 홍보 전략	
		화랑 신(新) 유형과 전속작가제 운영 방식의 변화	
	2-2부	(라운드테이블) 화랑-전속작가의 상호 발전방향 논의	

(13) 전시해설 인력 지원

전시해설 인력 지원 사업은 미술관련 일자리 제공을 통해 예술인의 자생적 생활기반을 마련하여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일반관람객의 미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미술전시 접근성 및 관람률 향상의 목적으로 2019년에 시작한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며 미술관, 문예회관, 비영리전시공간, 비엔날레재단 등의 전시공간에서 전시해설사를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한다.

전시해설 인력 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 62개의 문예회관, 미술관 등을 선정하였으며, 선정기관이 개별적으로 전시해설사를 채용하였다. 또한 전시해설사를 대상으로 전시해설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해당인력의 역량을 강화시켜 전문인력을 육성하였으며, 모둠활동 등을 통해 기관별 상호교류를 통한 성장을 도모하였다.

문화예술 저변화에 맞춰가는 본 사업은 부족했던 인건비를 지원하여 전시운영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람객 대상 서비스를 개선시키고 미술전시와 관람객 사이의 소통 매개를

통해 미술전시 접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시해설 관련 직무의 사회적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전시해설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기대한다.

표 4-5-20 전시해설 인력 지원 2019년 성과

구분	참여 및 지원 규모	
	기관	전시해설사
2019년 전시해설 인력 지원	62개	75명

표 4-5-21 지역별 지원 현황(2019년 기준)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남	경북	광주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참여 기관	7	2	11	5	4	3	5	1	10	3	1	6	4	62

표 4-5-22 2019년 전시해설 인력 지원 전문교육

구분	장소(지역)	교육기간	교육시간
기초교육 1차	광주	2019.4.1.~4.4.	32시간
기초교육 2차	경기 화성	2019.5.27.~5.30.	32시간
기초교육 3차	광주	2019.8.19.~8.22.	32시간
심화교육 1차	대전	2019.9.17.	8시간
심화교육 2차	서울	2019.9.19.	8시간
심화교육 3차	광주	2019.9.24.	8시간

(14)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서면 계약 경험 비율이 낮고 개별적 계약이 많은 미술 분야 특성상,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미술 현장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다. 특히 화랑 · 경매, 미술관 · 비영리전시공간, 창작 · 모델, 건출물미술품 등 분야별로 구성된 미술계 현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및 공개 토론회를 통해 업계의 실상 및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미술창작대가기준,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허락, 성폭력 · 성희롱 방지 조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미술계 현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전속관계, 전시, 매매 등 다양한 계약 유형을 반영한 총 11종의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복지법 제5조 '표준계약서의 보급' 조항에 근거, 본 표준계약서를 고시('19.3.12./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11호)로 제정하여 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미술관 관계자 등 미술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표준계약서의 해설서인『알기 쉬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발간하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함께 제공하고 있다.

표 4-5-23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

연번	유형	주요내용
1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판매수수료 · 저작권 · 성폭력 방지
2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전속지원 · 판매수수료 · 저작권 · 성폭력 방지
3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판매수수료 · 저작권 · 성폭력 방지
4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판매수수료 · 성폭력 방지
5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판매대금 · 소유권 · 진위보증확인
6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판매대금 · 소유권 · 진위보증확인 · 성폭력 방지
7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미술창작 대가지급 · 저작권 · 성폭력 방지
8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미술창작 대가지급 · 저작권 · 성폭력 방지
9	대관계약서	대관조건 · 공간상태 유지 · 성폭력 방지
10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모델료 지급 · 성폭력 방지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건축계약 대가 지급 · 제작조건 · 성폭력 방지

2) 디자인공간문화 정책

디자인, 건축, 공예로 구성된 디자인공간 문화정책은 문화적 공간 환경 조성 및 디자인 문화 확산, 건축문화 진흥을 통한 일상 속 문화향유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한국 공예의 대중화, 세계화, 산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공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정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공간을 둘러싼 자연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채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공간이 계획되고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공간은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전제이며, 나아가 도시 및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간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년 8월 문화정책국 내에 공간문화팀을 신설하였으며, 2008년 8월 공공디자인 정책을 통해

인간 중심의 문화적 공간을 창출하고 건축문화와 공예산업을 진흥을 위해 디자인공간문화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3년 9월 예술정책과의 미술업무를 디자인공간문화과로 이관하고, 디자인공간문화과를 시각예술디자인과로 개편하여 체계적인 시각예술 분야 진흥에 힘쓰고 있다. 2016년 2월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문화가 시민의 삶에 보다 밀착될 수 있도록 일상의 공간을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구(舊) 서울역사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년여 간의 복원공사를 마치고 새로운 이름인 '문화역서울284'로 2011년 8월 개관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양한 전시, 공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문화예술의 창조와 향유 공간으로서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공예의 경우 단지 보존 · 복원의 대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예는 국가 및 민족의 정체성과 전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고유한 미적 가치 그리고 실생활의 기능적 가치를 고루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 문화예술이자 산업적 가치를 띄고 있는 분야다. 이와 같은 공예의 특성에 주목한 세계 문화 선진국들의 경우 자국 문화 정체성의 중추를 이루는 공예와 관련한 문화와 산업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도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문화예술부문의 하나로 공예를 주목하여, 2000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공예전담기관인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을 설립 · 운영하였고, 공예와 디자인의 효율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한국디자인문화재단과 통합하여 (재)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을 설립하고 공예문화 진흥, 공예산업 기반 구축,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고부가가치 공예상품 개발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공예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나서고 있다.

(1) 일상 공간의 문화적 재창조

가. 구(舊)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284' 운영 지원

2011년 4월부터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위탁운영 중인 구 서울역사(문화역서울284)는 대한민국 근 · 현대사의 상징적 공간이자 교통과 교류의 관문이였던 서울역의 원형을 복원, 국가문화재(사적 제284호)이며 대표적인 근대건축물로 2011년 8월 개관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문화예술이 창작되고 교류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 서울역사복합문화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문화역서울284는 건물의 역사성 · 장소성에 기반한 콘텐츠(근현대 생활문화, 건축, 철도, 지역문화 등)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생산 거점을 지향하며, 근현대 생활문화와 예술콘텐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생활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운영 중이다.

문화역서울284는 국가문화재이며 대표적 근대건축물로 사적으로의 가치와 그 모습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장소적 가치를 발산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첫 시행한 상설프로그램 공간투어는 사적으로서의 건축적 특징과 함께 구 서울역사의 역사성, 장소적 상징성과 문화적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 전문해설사가 경성역(1925)에서 구 서울역, 현 문화역서울284 까지 각 시대의 이야기(역사 일화, 대중문화, 문학작품 등)와 대표 근대건축물로의 가치(건축 양식, 주요요소, 실별 특징 등)를 통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상징인 문화역서울284의 장소적 가치를 담아내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근현대 생활문화 등 장소성에 기반한 주제와 예술콘텐츠를 통해 동시대의 생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문화역서울284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기획전시는 년 2~3회 운영되고 있다. 2019년 첫 번째 기획전 커피사회(Winter Coffee Club, 2018.12.20.~2019.3.3.)는 근현대 생활문화에 녹아든 커피문화의 변천사를 조명하고 커피와 그 속에 담긴 일상성과 사회문화적 의미를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의 작품과 구 서울역사의 장소 특정적 전시구성이 더해져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전시이다. 2019년 두 번째 기획전 DMZ(2019.3.21.~2019.5.6. / 2019.6.4.~2019.7.7.)은 한국 전쟁 이후, 무장을 가속해 온 역설적인 공간인 비무장지대가 진정한 의미의 비무장지대로 변화하는 과정을 조명한 전시이다. 전시는 DMZ 접경 지역에서 생활하는 군인 및 마을 주민들의 삶, DMZ의 생명 환경, DMZ의 역사와 풍경 등 5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세 번째 기획전 전기우주(Electric Universe, 2019.11.18.~12.13.)은 대표적인 근대 산업유산, 구 서울역의 공간에서 근대산업의 산물인 전기의 의미와 가치를 동시대 예술 작가들의 작품과 생활 문화예술 콘텐츠에 담아 전달한 전시이다.

문화역서울284 알티오(RTO)는 공간의 특성을 살려 알티오(RTO) 365 프로그램을 운영, 영화 · 음악 · 토크 · 공연 등 다양한 장르와 방식을 뛰어넘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시대의 예술가와 소통하는 플랫폼으로서 정체성을 담아가고 있다. 그 외에도 문화역서울284의 상설 콘텐츠 구축사업(아카이브 출판, 상품제작 등) 과 관람객의 편의까지 연계할 수 있는 상설 공간(선물의 집, 284라이브러리 등) 및 연계사업 등을 운영하였다.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의 한발 다가서는 플랫폼 284를 통해 분야와 장르 경계 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하는 장을 마련하였고 티엠오 숍 (TMO Shop)을 통해 문화예술 창작유통 플랫폼으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2019년 문화역서울284는 연 48만 6천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2019 문화역서울284 기획전 〈커피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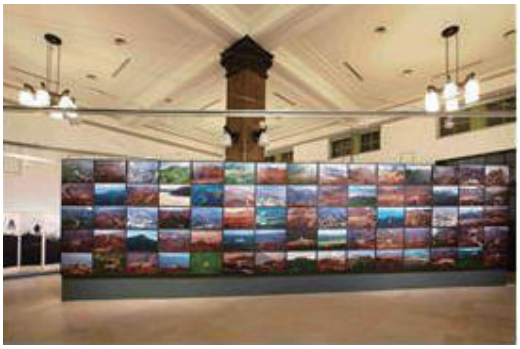
2019 문화역서울284 기획전 〈커피사회〉

2019 문화역서울284 기획전 〈커피사회〉

2019 문화역서울284 기획전 〈커피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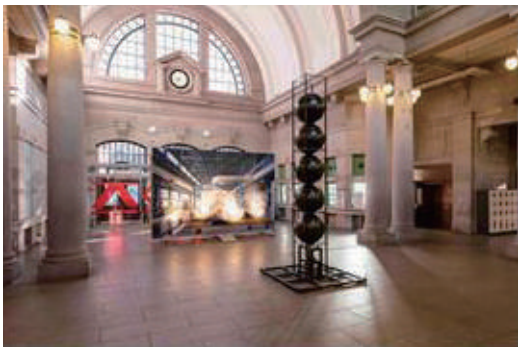
2019 문화역서울284 기획전 〈DMZ〉

2019 문화역서울284 기획전 〈DMZ〉



2019 문화역서울284 기획전 〈DMZ〉

2019 문화역서울284 기획전 〈DMZ〉



2019 문화역서울284 기획전 〈전기우주〉

2019 문화역서울284 기획전 〈전기우주〉

2019 문화역서울284 기획전 〈전기우주〉

2019 문화역서울284 기획전 〈전기우주〉

문화역서울284 상설 프로그램 〈공간투어〉

문화역서울284 상설 프로그램 〈공간투어〉

알티오(RTO) 365 프로그램

문화예술 창작유통 플랫폼: 티엠오 숍(TMO 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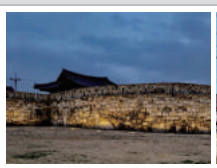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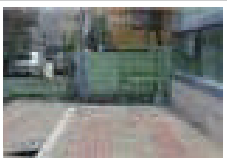
(2) 디자인의 문화예술적 가치 확산

가.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시행 및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지자체 등의 공공디자인 시범 프로젝트를 발굴 · 지원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이해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공모를 통해 총 7개 지역이 공공디자인 시범 적용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시급한 요구를 해결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사업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선진사례를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4-5-24 2019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지역	사업명	사업내용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성	• 언양 도심지의 범죄예방 협력체계 구축 및 통합디자인 조성 기본,실시설계 * 색채, 방범시설물 위치, 순찰경로 및 주민방범활동 경로, 자연감시기능 강화 등 개선 전 / 개선 후  언양읍성 중심의 야간 가로환경 미흡 / 가로환경 디자인 및 조명, CCTV등의 안전시설물 설치 구도심 범죄사각지대 존재 / 언양읍 범죄유형별 조사를 통한 범죄CPTED 마스터플랜 구축
경기도 시흥시	어르신 생활건강 증진 디자인	• 보건소 · 사회복지관 전면 공지에 인지건강(치매예방) 활동광장 구축 및 대상지까지의 주요 이동구간 고령자 교통안전 보조사인체계 구축 등 기본 · 실시설계 개선 전 / 개선 후  활용도가 없는 외부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 부족 / 광장을 고령자를 위한 운동, 휴게공간으로 리모델링 및 직관적 안내사인물 설치

<table>
<tr><th>지역</th><th>사업명</th><th>사업내용</th></tr>
<tr><td></td><td></td><td>
<table>
<tr><td> </td><td> </td><td> </td></tr>
<tr><td>합목적성 없는 조경과
시설물의
무작위 배치 및 혼재</td><td colspan="2">가꿈농장, 나눔상회 등의 고령자 활동 강화 프로그램 운용</td></tr>
</table>
</td></tr>
<tr><td>경기도
안양시</td><td>재미있게
찾아가는
안양예술공원
공감사인</td><td>
• 안양예술공원 종합사인시스템 개발 및 적용, 관악역 → 안양예술공원 유도사인 체계 구축, 공원입구 디자인 기본 · 실시설계
<table>
<tr><th>개선 전</th><th>개선 후</th></tr>
<tr><td rowspan="2"> </td><td>
예술공원 입구 상징물, 외부안내 사인체계 구축</td></tr>
<tr><td> </td></tr>
<tr><td>예술공원 내외부 안내체계에서
디자인적 형태와
정보체계 통일성 미흡</td><td>예술공원 내 · 외부에 위계에 따른 안내 사인체계 구축 및
디자인적 통일성, 연결성 부여</td></tr>
</table>
</td></tr>
<tr><td>제주자치도
서귀포시</td><td>사람중심 1호광장
조성사업</td><td>
• 1호광장 공간환경, 리노베이션 계획수립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개발등 1호광장 회복을 위한 로드맵 제시
<table>
<tr><th>개선 전</th><th>개선 후</th></tr>
<tr><td> </td><td> </td></tr>
<tr><td>분절된 공간 및 녹지공간 부족</td><td>녹지확장 및 버스쉘터와 연계</td></tr>
<tr><td> </td><td> </td></tr>
<tr><td>그늘부족 및
야간보행자 편의성 결여</td><td>그늘목 식재와 펜스, 교차로 광장주변 조명설치</td></tr>
</table>
</td></tr>
</table>

지역	사업명	사업내용
전라남도 완도군	웃을을 새기는 안전한 비석마을	• 비석거리의 독창성을 고려한 색채정비 및 안심펜스등의 안전디자인을 활용한 공간 조성 개선 전 / 개선 후 주민들의 휴식쉼터 부족 / 데크펠터 및 사랑방 신축 보차혼용의 사고위험성 / 미끄럼방지 및 보차도 분리, 마을지붕 색채정비
경기도 하남시	덕풍으로 퍼지는 안심미소 통학길	•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체계 개선 개선 전 / 개선 후 주민들의 휴식쉼터 부족 / 데크펠터 및 사랑방 신축 보차혼용의 사고위험성 / 미끄럼방지 및 보차도 분리, 마을지붕 색채정비
전라북도 익산시	문화가 머무는 안전주차장 '라운드어바웃 @익산'	•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의 새로운 모델, 브랜드 개발 및 시설개선 개선 전 / 개선 후 주민들의 휴식쉼터 부족 / 데크펠터 및 사랑방 신축 보차혼용의 사고위험성 / 미끄럼방지 및 보차도 분리, 마을지붕 색채정비

나. 2019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문화적 가치를 지향하는 공공디자인 우수 사례를 발굴, 시상하여 공공디자인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의 디자인 개선사례 발굴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역량을 배양하고 인식을 확산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제12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2018년에 이어 사업부문과 학술연구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일반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 어려운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비공모 부문도 신설했다.

사업 부문에서는 생활안전을 위한 디자인,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생활편의를 위한 디자인, 생활품격을 위한 디자인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국무총리상 1점, 문체부 장관상 1점, 진흥원장상 3점 등, 총 5점을 선정했다.

국무총리상(대상)을 수상한 서울시의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은 지하철 이용자들이 공공미술작품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하역사의 구조에 맞게 예술작품을 설치했다. 또한 시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찰구를 이전하는 등 동선과 안내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선정됐다.

사업 부문의 문체부 장관상(최우수상)은 수원시 도시디자인과와 디자인다다어소시에이츠가 추진한 '보행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수원시 공공시설물(안내시설) 표준디자인 개발'이 받았다. 진흥원장상(우수상)은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설공단, 사이픽스가 추진한 '고척돔에 안전과 안심을 입히다', 지오아키텍처의 '남대문광장', 서울산업진흥원, 코안스튜디오의 '남산 애니타운 파워콘텐츠 구축'이 선정되었다.

학술연구 부문에서는 문체부 장관상, 진흥원장상, 빅터마골린상[6] 각 1점을 선정했다. 문체부 장관상(최우수상)에 선정된 양정순(배재대 교수)의 '야간 도시공간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에 있어 조명환경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야간조명 지침(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고 조명계획 요소를 도출한 것으로서,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유용성과 후속연구에 대한 기여가 높을 것으로 평가받았다.

진흥원장상(우수상)은 임혜빈(광운대 교수/정지나, 박정은, 이병관 공동연구)의 '공공기관 로고 디자인에 나타난 귀여움 속성이 공공기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빅터마골린상(특별상)은 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연구센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 연구'가 선정되었다.

올해 신설된 비공모 부문에서는 지자체의 휘장 · 상징표시(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등의 개발과 활용 이력, 관련 제도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현행 상징디자인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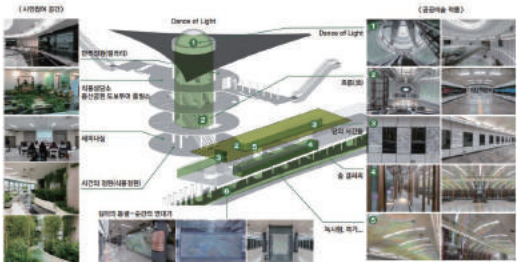
6] (후원인상, '17년~)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교 명예교수로서 '15년 국제디자인총회의 기조연사로 한국 방문 시, 한국디자인의 발전과 연구 증진을 위해 후원금 기부

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문체부 장관상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부천시가 진흥원장상을 수상하였다.

'2019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시상식은 10월 25일(금),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RTO)에서 열렸으며, 선정된 작품들은 시상식 당일부터 11월 3일(일)까지 10일 간 전시되었다.

그림 4-5-3 2019년 공공디자인대상 수상작-사업 부문 대상: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 공간 구성도

역사에 설치된 공공미술작품

시민 참여 예술프로그램 운영

다.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문자디자인 비엔날레인 '타이포잔치'는 우리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타이포그래피의 창의성과 실험가능성을 통해 디자인문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격년제 행사이다.

2019년에 제6회를 맞은 '타이포잔치 2019: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이하 타이포잔치)'는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을 주제로 예술감독 '진달래&박우혁'이 행사의 총괄 기획을 맡았다. 행사는 크게 전시와 토크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과 네덜란드, 이란,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등 22개국 작가 127개 팀이 참여했다. 전시는 '만화경', '다면체', '시계', '모서리', '잡동사니', '식물들'의 6개 세부 주제로 타이포그래피와 사물간의 관계를 해석하였으며, 토크프로그램은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이 만나는 방법', '한글디자인 그리고 배리어블 폰트', '일상 사물에 적용된 타이포그래피'를 주제로 디자이너와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타이포잔치의 대표 성과로는 '전자 센서(sensor)',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웹 크롤링(web crawling)', '파싱(parsing)' 등 혁신기술이 전시에 활용되었던 것과 배리어블 폰트(Variable Font)를 국내에 처음 선보인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4-5-4 타이포잔치 2019

라. 공공디자인 토론회 및 교육

공공디자인 토론회 및 교육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책 및 국내외 이슈 및 동향 정보를 제시하고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인식 기반 확대 및 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과 한국 공공디자인의 토대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교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9 공공디자인 토론회'는 11월 7일(목)과 8일(금) 양일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별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서는 지역 공공디자인 기반 현황을 공유하고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을 위한 실천에 관해 토론하였다. 2019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기반 현황과 공공디자인 행정 가이드 및 통합형 조례(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공공디자인 기반의 현황과 문제점의 사례를 공유하였다. 또한 현장 탐사 프로그램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소개와 공공디자인 안내를 주제로 현장 탐방을 진행하였다.

공공디자인 교육은 공공디자인 전반적인 개념의 이해 ·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주요 지식 습득, 통합적 관점의 표준화 된 공공디자인 교육 수준 제공 및 확산을 통해 교육 기회를 확대 · 함양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며 주요 기관의 온라인 교육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림 4-5-5 2019 공공디자인 토론회

그림 4-5-6 공공디자인 교육

(3) 건축문화 진흥 및 인식제고

가. 건축문화 교류 및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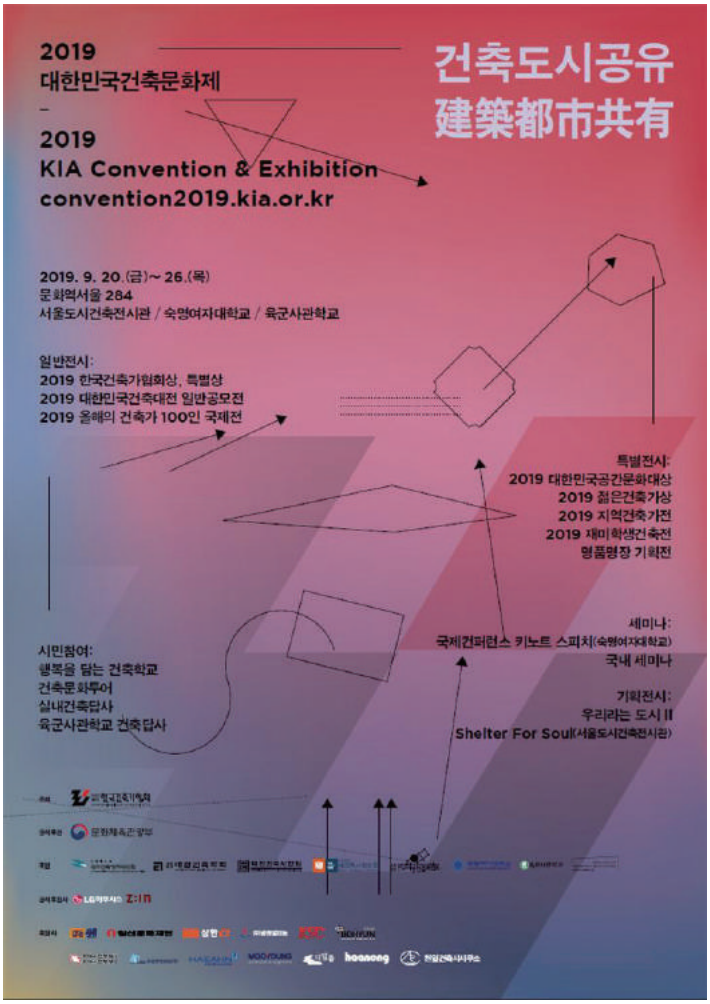
① 대한민국건축문화제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문화적 감수성 고양,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제고에 기여하는데 취지가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되어 2007년까지 서울에서 개최해 오다가 2008년부터는 지역건축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서울과 지방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2019 대한민국건축문화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 (사)한국건축가협회 주최로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문화역서울284를 비롯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숙명여자대학교, 육군사관학교 총 4곳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건축, 도시, 공유'라는 주제로 건축, 도시, 사람 간의 관계를 공유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과 도시의 참모습을 살펴보고 사람 중심에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건축과 도시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행사는 건축 전시와 국제 학술회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4-5-7 2019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포스터, 일정표, 행사사진



날짜 시간	9월 19일 (목)	9월20일 (금)	9월21일 (토)		9월22일 (일)		9월23일 (월)	9월24일 (화)	9월25일 (수)	9월26일 (목)
	사전행사	개막일								폐막일
AM 10		전시 오픈	꿈다락 건축 학교	실내 건축 답사	건축 문화 투어					
11		인터네셔널 프레지덴셜 리셉션								
12										
PM 1			건축 문화 투어							
2					건축 문화 투어 (육사)	명품명장 세미나			건축 문화 투어 (육사)	목조건축 세미나
3		서울도시 건축전시관 관람					LG 하우시스 트렌드 세미나			
4			국제건축 컨퍼런스 2					기술실무 세미나		
5	웰컴리셉션	개막식 (16:30					섬문화 건축간담회			도시재생 세미나 (16:30)
6		100인 국제전 리셉션						수상작 설명회	수상작 설명회	폐막식 시상식 (18:30)
7	국제건축 컨퍼런스 1						국제건축 컨퍼런스 3			
8										

문화역서울284 숙명여자대학교 서울도시건축전시관 투어

② 2019 젊은 건축가상

젊은 건축가 지원 사업은 2008년 '젊은 건축가상'을 제정하고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젊은 건축가들을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제도는 프랑스 정부가 2002년에 시작한 Les Nouveaux Albums des jeunes Architectes et des Paysagistes(새롭게 선정되는 젊은 건축가, 조경설계자 앨범)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45세 이하의 국내 · 외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건축가를 대상으로 작품에 드러난 잠재적 역량, 작품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공개심사를 거쳐, 최종 3팀 내외의 건축가를 선정, 시상한다. 그리고 작품 전시회 개최와 작품집 발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외 홍보를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9 젊은 건축가상'은 12회째를 맞이하였고, 올해는 건축공방(박수정, 심희준), ㈜아이디알건축사사무소(이승환, 전보림), 푸하하하건축사사무소(윤한진, 한승재, 한양규) 3팀, 7명이 1차 서류심사, 2차 공개 시청각발표(프레젠테이션)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젊은 건축가'로 선정된 건축가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작품 전시회 개최와 작품집 발간, 국내외의 건축 행사 참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수상자들은 9월 서울에서 개최한 '2019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작품 전시회와 '젊은 건축가상 2019' 작품집을 국 · 영문으로 작품집을 제작하여 기관 · 단체에 배포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한국 건축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예년에 비해 공모에 참여한 건축가들의 작품은 양과 질에서 보다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언론계에도 상당히 많이 소개되어 권위 있는 상으로 정착되었다. 매년 상을 통해 좋은 건축가들이 등장하고 세계적인 건축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젊은 건축가들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공론의 장이자 동시에 이를 건축과 도시에 대한 담론으로 확장하고, 또한 동시대의 건축 문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기록이자 가능성의 플랫폼 역할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그림 4-5-8 2019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 및 수상작

1. 건축공방 (박수정, 심희준)

연희동 글램핑 파빌리온 (경기 양평)

바다바람 (여의도 한강공원)

2. (주)아이디알건축사사무소(이승환, 전보림)

언북중학교 다목적강당 (서울 강남구)

3. 푸하하하건축사사무소(윤한진, 한승재, 한양규)

성수연방 (서울 성동구)

③ 2019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일상생활 속의 공공공간을 '사람과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공간문화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다. 이 상은 일상생활 속의 공간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아름답고 쾌적하며 편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한 단체 및 지자체에게 수여된다.

올해는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민간 등으로부터 작품 19개를 추천받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천의영)를 통해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공간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의 문화적 창의성, 지역 주민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정도, 지역적 특성 반영 및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6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올해 대상(대통령상)으로 선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문화정원'은 지난 1935년부터 정수장으로 사용되다가 2013년 폐쇄된 시설과, 담장으로 분리된 근린공원을 통합하여 시민들이

전시, 관람, 체험 등의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재생한 공간이다. 이를 통해 정수장의 역사적 가치에 도시 정원이라는 새로운 장소적 가능성을 더해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과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그 외 수상작은 ▲ 최우수상(국무총리상) – 강용상 '봄날의책방'과 ▲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공간문화를 조성한 장소에 수여하는 '두레나눔상(장관상) – 재단법인 포스코1퍼센트나눔재단 '청림별관', ▲ 좋은 거리 · 광장에 수여되는 거리마당상(장관상)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해동문화예술촌', ▲ 자연친화적 쉼터에 수여되는 누리쉼터상(장관상) – 원태연 '산속등대',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잘 활용한 장소에 수여되는 우리사랑상(장관상) – 1913송정역시장 상인회 및 광주송정연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의 '1913송정역시장'이 선정되었다.

ㅁ 대상(대통령상): 조치원문화정원

- 수상자: 세종특별자치시
- 위 치: 세종특별시 조치원읍 평리 12-1 일원

조치원문화정원은 1935년부터 78년 동안 정수장으로 사용된 후 폐쇄된 시설과 담장으로 분리된 근린공원을 통합하여 시민들이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재생한 프로젝트이다. 본래의 기능을 잃은 정수장의 역사적 가치를 발견하고 도시 정원이라는 새로운 장소적 가능성을 더하여 문화적 토양이 부족한 구도심의 활기를 되찾고자 전시, 관람, 체험이 가능한 장소로 재생시켰다.

ㅁ 최우수상(국무총리상): 봄날의책방

• 수상자: 강용상

• 위 치: 경상남도 통영시 봉수1길 6-1

통영의 노후된 주거지인 봉수골에 통영 지역의 공예장인, 예술가, 문인들의 예술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봄날의정원 책방이 자리를 잡았다. 책방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관광객들과 방문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봉수골을 드나들게 되면서 통영 지역의 예술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주위에 가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며 통영의 문화예술의 중심공간으로 성장하였다.

ㅁ 우수상(두레나눔): 청림별관

• 수상자: 재단법인 포스코1퍼센트 나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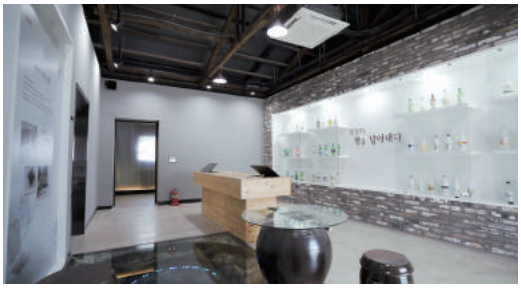
• 위 치: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517-1

청림별관은 제철소 인근의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무료급식소)로써 포스코에서 건립하여 지자체에 기부한 건축물로 주민, 포스코,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수많은 과정을 거쳤다. 이 공간은 자연의 변화를 감상하고, 시간의 흐름을 감각적으로 느끼며, 품격있는 식사가 가능한 공간으로, 기부의 의미와 무료급식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다.

ㅁ 우수상(거리마당):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 수상자: 전라남도 담양군

•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138-5



1960년대 전통 주조방식으로 막걸리를 생산하던 해동주조장이 2010년 폐업하여 방치된 공간을 문화예술, 체험교육 등이 가능한 원도심 내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또한 향후 주위 건축물과 연계한 개발이 완료될 때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장으로써 주요역할을 할 계획이다.

ㅁ 우수상(누리쉼터): 산속등대

• 수상자: 원태연

• 위 치: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원암로 82

산속등대는 옛 제지공간의 굴뚝을 바다의 등대로 형상화하여 옛 건물의 일부를 활용하고 주위 자연을 최대한 끌어들여 전시, 체험, 연구, 소비가 가능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지역의 젊은 인재 등용의 공간으로 지역주민과 공존,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는 등 가족 중심의 공간으로 아이들과 어른 모두가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이다.

ㅁ 우수상(우리사랑): 1913송정역시장

• 수상자: 1913송정역시장 상인회 및 광주송정연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 8번길 13

송정역시장은 전형적인 재래시장 형태로, 시장기능이 상실되고, 대형마트 등과의 경쟁에서 밀려 55개 점포 중 30% 이상이 폐점포로 전락한 공간이었다. 이러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 시장이 가지고 있던 역사성과 장소성을 모티브로 점포의 개성을 특화하고, 스토리를 반영하여 죽어가던 공간을 단순 시장을 넘어 다양한 행사 등 커뮤니티와 접목시켜 새로운 시장공간으로 재창조시켰다.

(4) 생활 속의 공예를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중장기 진흥계획인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18~'22)'을 마련하고, 2018년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 속의 공예 목표를 위해 수립한 5대 전략인 공예산업 공급기반 강화, 공예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공예유통 활성화 및 시장 창출, 공예 문화의 확산, 공예문화산업 정책 추진체계 정비에 따라 지역공예 기반조성 지원 및 공예 전문인력 양성, 공예주간 등 25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공예문화산업 진흥 시행계획 추진 2년차인 2019년도에는 공예 문화 확산 및 공예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작 · 개발 · 전시 · 유통 · 소비 ·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2019년 실시한 '공예 주간'('19.5.17.~26.)은 일상 속 공예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전시, 장터, 체험, 교육 등 다채로운 공예 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전국 359개 체험처에서 341,538명이 참가하는 기록을 세웠다.

표 4-5-25 2019 공예주간

<table>
<tr><th>구분</th><th colspan="4">주요내용</th></tr>
<tr><td>행사개요</td><td colspan="4">• 명칭: 2019 공예주간
• 기간: 2019.5.17. ~ 5.26.
• 장소: KCDF갤러리, 문화역서울284 외 전국 주요 권역 동시 개최
• 구성: 마켓/판매 (47), 전시 (65), 체험 (244), 토크 (3)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td></tr>
<tr><td rowspan="7">주요
프로그램</td><td colspan="2">구분</td><td>직접운영(자체기획)</td><td>간접운영 (연계&발굴)</td></tr>
<tr><td colspan="2" rowspan="2">공식행사</td><td>개막식 (19.5.17. / 문화역서울284)</td><td>–</td></tr>
<tr><td>폐막식 (19.5.26. / 부산 F1963 스퀘어)</td><td>–</td></tr>
<tr><td rowspan="4">프로그램</td><td rowspan="3">전시</td><td>공예주간 기획전시
〈공예x컬렉션 : 아름답거나+쓸모있거나〉</td><td rowspan="4">1) 민관협력 지원 공모 프로그램 선정 운영
– 전국 25개처(지역공예 연계 9개, 기획프로그램 16개)

2) 유관행사 및 기관, 기업 협력 프로그램</td></tr>
<tr><td>KCDF기획전시
〈공예실천, 工藝實踐, the praxis〉</td></tr>
<tr><td>한국공예가협회 특별전
〈한국 현대공예 시선전〉</td></tr>
<tr><td>마켓</td><td>선물가게, 마켓유랑, 팝업숍 등</td></tr>
<tr><td>토크</td><td>공예살롱, 공예토크,
지역으로 찾아가는 공예컨설팅</td><td></td></tr>
</table>

또한 공예 소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2019 공예트렌드페어'는 공예작가와 소비자와의 접점이자 공예기반의 리빙트렌드를 제안하는 비즈니스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코엑스에서 14회째 개최된 이번 페어는 320개 사가 참여하고, 관람객 73,091명이 방문, 현장판매 약 15억원 매출(전년 대비 21% 증가) 등 2018년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표 4-5-26 2019 공예트렌드페어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주요내용</th></tr>
<tr><td>행사개요</td><td colspan="2">• 명칭: 2019 공예트렌드페어
• 기간: 2019.12.12. ~ 12.15.
• 장소: 코엑스 A홀
• 구성: 주제관, 쇼케이스관, 창작공방관, 브랜드관, 갤러리관, 해외관, 대학관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td></tr>
<tr><td rowspan="8">주요
프로그램</td><td>주제관</td><td>행사의 주제를 아우르는 공예 트렌드 제시</td></tr>
<tr><td>창작공방관</td><td>78명의 신진작가 작품 전시</td></tr>
<tr><td>갤러리관</td><td>14개 국내 주요 갤러리 참가</td></tr>
<tr><td>해외관</td><td>3개국(홍콩, 태국, 일본)</td></tr>
<tr><td>대학관</td><td>대학생들의 창의적 공예 작품 전시(35개)</td></tr>
<tr><td>사업관</td><td>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요사업 소개 및 결과물 전시(6개)</td></tr>
<tr><td>브랜드관</td><td>대중적 공예 상품 전시 및 판매(180개사)</td></tr>
<tr><td colspan="2">– 연계 및 부대행사: 국제공예포럼, 개막식, 강연 및 워크숍, 작가의 밤
– 지원서비스: 바이어 매칭, 도슨트 투어, 현장 이벤트 등</td></tr>
</table>

공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시, 유통, 교육 분야 매개 인력을 57명을 양성하였으며, 전통공예 기술의 이전을 기반으로 한 장인과 대학을 연계한 대학생 실습 교육을 5개 대학 137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예비창업자 및 전문가, 학생 등 712명을 대상으로 공예 · 디자인 트렌드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한국공예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공예 전 분야를 대상으로 우수공예품을 공모하여 총 49종의 우수공예품을 2019년 신규로 지정하였으며.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담은 우수문화상품 공예를 포함한 5개 분야(공예, 한복, 식품, 문화 콘텐츠, 디자인 상품) 71점을 지정하고 유통, 홍보 등을 지원하였다.

표 4-5-27 2019 우수문화상품 지정 현황

– 분야: 한복, 식품, 문화콘텐츠, 디자인상품, 공예 등 총 5개 분야
– 지원: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수여, 홍보, 전시, 유통 등 선정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연도	공예 (우수공예품)	한복	식품	문화콘텐츠	디자인상품	합계
2019	49	6	5	1	10	71

현대적인 감각과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신진 공예디자인 작가들을 발굴 지원하여, 공모 선정된 작가 20명을 대상으로 공예디자인 상품 총 189개를 개발하였으며, 이 중 4명의 우수 작가를 대상으로 브랜드화를 위한 후속 지원을 하였다. 2016년부터 한국문화재재단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상품개발 기능을 이관 받아 전통문화유산 활용 상품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에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콘텐츠를 활용한 브랜드 문화상품, 특화상품 등 총 42품목 129종을 개발 및 공급하였다.

지역별 공예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공예공모전 선정 · 지원(원주, 남원, 나주 등 6곳), 지역으로 찾아가는 공예 교육 컨설팅(충청, 강원, 세종) 등을 개최하여 지역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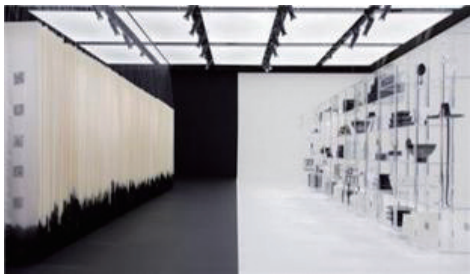
표 4-5-28 2019 지역공예 기반조성 사업

구분	주요내용	
지역공예 공모전 활성화	• 지원 대상 공모전 선정 및 상금 지원	
	공예 공모전 (3곳)	원주 한국옻칠공예대전
		남원 전국옻칠목공예대전
		광주 수공예 상품 공모대전
	지역특화형 문화상품 공모전(3곳)	나주 대한민국 천연염색문화상품대전
		부산 공예문화상품공모전
		아산 공예문화상품대전

한국 공예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업계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원 방식의 변화를 꾀한 한 해였다. 해외 박람회(영국 콜렉트 Collect, 프랑스 메종&오브제 Maison&Objet, 미국

시카고 소파 SOFA, 뉴욕 나우 NOW) 참가 및 한국-필리핀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공예전, 제2회 국제공예포럼을 개최하여, 한국 공예의 인지도 제고 및 해외시장 확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전통공예의 현대화 및 세계화를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디자인위크 기간(2019년 4월)동안 '한국공예의 법고창신' 전을 개최하여 전통소재 및 기술과 현대적 디자인이 접목된 공예 작품 75점을 집중 소개하였다.

표 4-5-29 2019 전통공예의 세계화

구분	주요내용
전시개요	• 명칭: 2019 한국공예의 법고창신展 개최 • 기간: 2019.4.9. ~ 4.14. • 장소: 이탈리아 밀라노 슈퍼스튜디오 센터포인트 • 주제: 수묵의 독백 - monochrome monologue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현장사진	

특히 2019년에는 경기도 여주시에 처음으로 공예창작지원센터(공예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시범 운영하여 공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2020년에는 조성 대상지를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해외 한국문화원에 한국적 생활문화공간(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을 시범 조성하여 한국전통문화를 알리고, 공예 · 디자인 전문 정기간행물, 우리공예디자인 리소스북(금박, 화혜)를 발간하여 한국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3. 주요 기관

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1) 조직현황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은 2000년 4월 공예산업의 육성 · 진흥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06년 우수공예품의 유통 ·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예종합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09년 공예 관련 전문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공예정보센터'를 설립 · 운영하였다. 2010년 4월 공예와 디자인을 통한 공예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두 분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설립된 '한국디자인문화재단'과 통합, 현재의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KCDF)'의 체제를 갖추고 같은 해 10월 'KCDF갤러리'를 리뉴얼 개관하였다. 2011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6조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1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구 서울역사(사적 제284호)를 관리위탁을 받아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284'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12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2019년 4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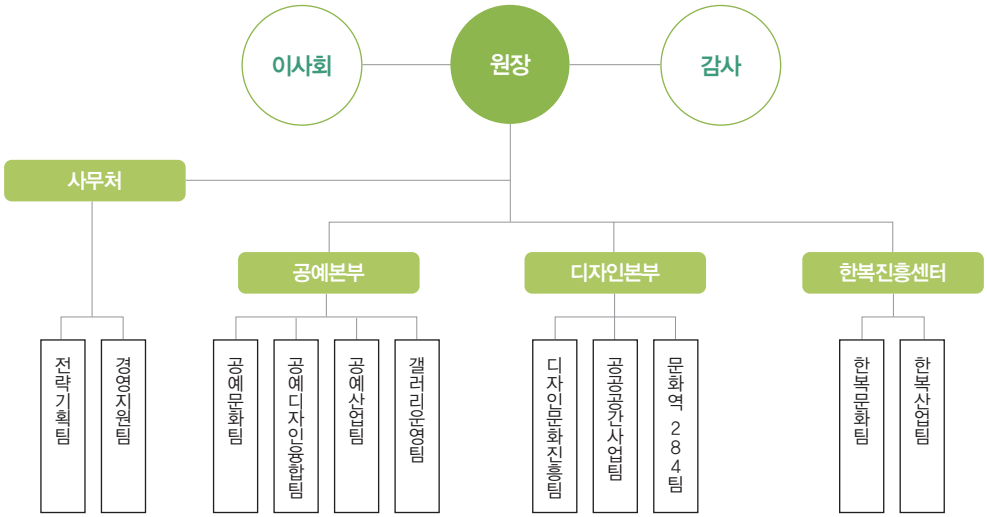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예 및 디자인 문화발전과 진흥 · 육성을 위하여 2019년말 기준 1처 2본부 1센터 11개팀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사무처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 집행, 조직, 대외업무 등을 총괄하고, 공예본부, 디자인본부는 각 사업분야와 관련된 교류협력, 개발 ·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위탁운영 업무는 디자인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한복진흥센터를 두어 한복문화와 한복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도 총 예산은 297억 43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9% 증가하였다. 공예산업 육성 · 진흥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수익 5억 97백만 원, 공예디자인 문화의 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수익 8억 40백만 원, 구 서울역사 운영 수입 4억 81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은 2015년 11월 시행된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으로서 공예문화산업 발전 및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7년 6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우수문화상품 지정 총괄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의 위탁운영 등 공예 · 디자인분야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4-5-9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미션 및 비전

그림 4-5-10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조직도



(2) 주요성과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예와 디자인, 한복 문화의 진흥과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상 속 공예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적 가치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공예주간('19. 5. 17.~26.)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전시, 장터, 체험, 교육 등 다채로운 공예 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전국 359개 체험처에서 341,538명이 참가하는 기록을 세웠다. 한국공예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공예 전 분야를 대상으로 우수공예품을 공모하여 총 49종의 우수공예품을 2019년 신규로 지정하였으며.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담은 우수문화상품 공예를 포함한 5개분야(공예, 한복, 식품, 문화 콘텐츠, 디자인 상품) 71점을 지정하고 유통, 홍보 등을 지원하였다. 공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시, 유통, 교육 분야 매개 인력을 57명 양성하였으며, 전통공예 기술의 이전을 기반으로 한 장인과 대학을 연계한 대학생 실습 교육을 5개 대학 137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학생, 예비창업자 및 업계 관계자 등 712명을 대상으로 공예 · 디자인 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현대적인 감각과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신진 공예디자인 작가들을 발굴 지원하여, 공모 선정된 작가 20명을 대상으로 공예디자인 상품 총 189개를 개발하였으며, 이 중 4명의 우수작가를 대상으로 브랜드화를 위한 후속 지원을 하였다. 2016년부터 한국문화재재단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상품개발 기능을 이관 받아 전통문화유산 활용 상품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에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콘텐츠를 활용한 브랜드 문화상품, 특화상품 등 총 42품목 129종을 개발 및 공급하였다.

그림 4-5-11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주요업무 및 추진 성과

공예사료리소스북(금박, 화혜)

공예주간 (2019)

공예창작지원센터(여주)

2019 공예 · 디자인상품 개발

한국-필리핀 수교 70주년 기념 한국공예전
(필리핀 마닐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2019 공예트렌드페어

또한 공예작가와 소비자와의 접점이자 공예 · 디자인 정보교류 및 비즈니스 창출의 장인 공예전문박람회인 공예트렌드페어('19. 12. 12.~15.)를 개최하여 공예 소비 및 유통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해외 박람회(영국 콜렉트 Collect, 프랑스 메종&오브제 Maison&Objet, 미국 시카고 소파 SOFA, 뉴욕 나우 NOW) 참가와 한국-필리핀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공예전, 제2회 국제공예포럼을 개최하여, 한국 공예의 인지도 제고 및 해외시장 확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공예 및 디자인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매개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지역공예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 공예공모전 선정 · 지원 (원주, 남원, 나주 등 6곳), 지역으로 찾아가는 공예 교육 컨설팅(충청, 강원, 세종) 등을 개최하여 지역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했다. 특히 2019년에는 경기도 여주시에 처음으로 공예창작지원센터(공예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시범 운영하여 공예산업 지속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해외 한국문화원에 한국적 생활문화공간(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을 시범 조성하여 한국전통문화를 알리고, 공예 · 디자인 전문 정기간행물, 우리공예디자인 리소스북(금박, 화혜)을 발간하여 한국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제6절 문화예술교육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목표

문화예술교육정책은 공급자, 즉 예술창작자 지원 중심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수요자 지원 비중을 높인 대표적인 정책이다.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교육 부문 정책사업의 영역을 구체화하여 확장해 왔다. 2007년에는 정책사업 실행초기 3년의 경험과 시행착오, 정책현장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년~2011년)'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중장기 전략의 실행에 중점을 두었다. 2009년에는 그동안 이루어진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 대표적인 성과로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사업 강화를 꼽을 수 있다. 2014년에는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지역화,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14년 2월)'을 수립하였고 2018년에는 수요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교육 다각화, 기반 고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년 1월)'을 발표하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2008년 10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문화예술 · 체육교육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부처 간 긴밀하게 협력해오고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6-1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공동 T/F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

- 전문 예술인을 학교에 지원하는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기회를 제공
  -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2009년부터 강사규모와 대상 분야를 확대(디자인, 미디어, 사진 등 추가)하고 강사 활용에 있어서도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재량 · 특별활동, 동아리 활동, 학교 축제 등 학교의 자율적 판단 하에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 예술 강사 지원 규모: 2,200명(2008) → 3,500명(2009) → 5,000명(2012)
  - 동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도 단위사업별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교육청, 지자체가 분담

이와 같은 양 부처의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결과, 사업규모와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2018년은 269만 명, 2019년은 272만 명이 문화예술교육을 수혜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소재의 문화 및 복지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향수 기회가 적었던 빈곤 등 소외계층 아동 · 청소년 및 '방과 후 나홀로 아동'들이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의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실질적인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수요와 특히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창의성 교육과 더불어 인성교육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10년 7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 · 중등 예술교육활성화 기본방안'을 발표하여 각급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강화하며 예술강사지원사업, 교과교실의 현대화 등 정책 사업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본 방안은 ① 교과 활동에서의 예술교육 강화, ② 예술체육중점학교 활성화 및 확대, ③ 각 급 교육기관의 예술심화교육 지원 확대, ④ 과학과 예술의 통합 교육 실시, ⑤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예술교육 강화, ⑥ 예술교육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6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창의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문화 분야의 창의교육 거점기관으로 운영하였다. 본 방안은 2010년 5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2회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최와 동 대회의 가장 중요한 성과인 '서울어젠다' 도출 등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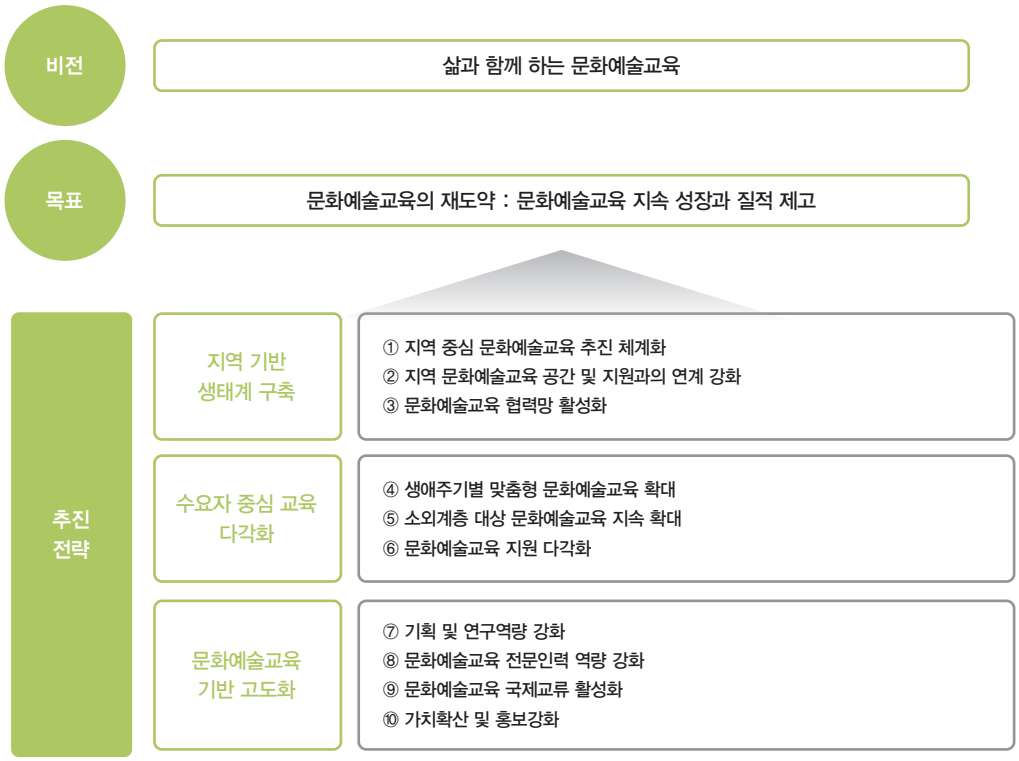
이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대회의 성과와 한국 정부의 세계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성과와 기여, 리더십의 결과로서 2011년 11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제36차 총회에서 '서울어젠다'가 정식 의제로 상정 및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매년 5월 넷째 주가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으로 선포되는 등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쾌거를 올렸다. 그리고 이에 따라 매년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되고 있다.

한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학교 및 사회 각 기반시설 등에서 점차 교육 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교육인력의 질적 수준의 관리가 필요해짐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2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전국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의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예술단체 등이 참여하여 매주 주말 아동 · 청소년 및 가족이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 · 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2017년에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수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다.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토론회'(3회)를 시작으로 17개 시 · 도 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교육청, 지역문화재단,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 총 162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개선 방향과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018년에는 수요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교육 다각화, 기반 고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년 1월)'을 발표하였다

그림 4-6-1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



2019년에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구체적 실행 계획 및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현장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총괄분과 및 문화예술교육 정책 이슈별 4개 분과(학교분과, 사회분과, 기반분과, 창의 · 융합분과)로 구성하고, 문화예술교육 정책 분야별 핵심 이슈를 도출하며, 공론화 기획 · 추진,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1) 예술강사 지원 사업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추진 총괄을 맡고 교육부가 지원하여 두 부처 간 협력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사업운영 총괄을 맡아 17개 시 · 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 재원을 조성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국악운영단체 및 공모 선정단체 등 28개의 지역운영기관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예술 강사를

지원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제공하고 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수혜 학생들은 비수혜학생 대비 문화예술 감수성, 자아존중감, 행복감, 진로성숙도 등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 학생들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자신을 조금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국악 분야에서 시작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8년까지 국악,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총 5개 분야 예술 강사를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에 파견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2008년에는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의 33.6%에 해당하는 총 3,689개 학교가 예술 강사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예술 강사를 통한 학생들의 예술적 경험을 증대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2009년에는 기존 5개 분야 지원에서 공예, 사진, 디자인의 3개 장르가 추가적으로 시범 운영되었으며, 3,483명의 예술 강사가 전국 4,799개 학교로 파견되었다. 2010년에는 총 8개 분야, 4,156명의 예술 강사가 5,436개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학교예술 강사 지원사업의 각 지역별 운영을 위한 협력과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역 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6개 지역에 구축되던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2011년에 10개 지역, 2017년에는 1개 지역(세종)에 추가로 확대하여 총 17개 시도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는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예술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먼저 2017년에는 시수 당 강사비를 40,000원에서 43,000원으로 약 7.5% 인상하였고 2018년에는 강사 당 최대 배치시수를 374시수에서 476시수로 약 27% 확대하였다. 2019년에는 총 5,159명의 강사가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의 약 70%인 8,481개교에서 활동하였다.

또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제도개선 추진과 연계하여 다양한 참여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도개선 협의체' 및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였고, 이에 따른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운영, 예술강사 노조와의 단체교섭 추진 및 협약 체결 등의 성과가 있었다.

표 4-6-2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연도별 주요현황(~2019)

연도	사업명
2000~2004년	• 국악, 연극, 영화 강사풀제 실시
2005년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강사풀제 실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강사풀제 총괄 주관 실시(국악은 각 시 · 도 주관) • 분야별 교육위원회 구성 및 교 · 보재 연구개발 • 분야별 강사연수 개최 • 연구학교 운영지원 • 상하반기 학교 방문평가 실시
2006년	• 사업명칭 변경(강사풀제 →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연도	사업명
2007년	• 강사 자율연구모임 지원 • 예술 강사 및 학교 평가 진행 •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온라인 운영시스템 개발
2008년	• 문화예술 체육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 협력 체결 • 지역운영기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6개소 지정
2009년	• 운영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 지역문화예술교육 파트너 교류(국악운영단체 및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신규분야 개발 및 시범사업 진행(디자인, 사진, 공예, 문학, 뮤지컬)
2010년	• 3개 분야(디자인, 사진, 공예) 신설로 인한 8개 분야 지원 시작 • 강사 근로계약 체결 • 16개 시 · 도교육청과 협력,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2개소 지정
2011년	• 신규분야 시범사업(뮤지컬, 문학) 운영 • 학교 문화예술교육 감동수기 공모 • 예술 강사 우수교안 공모
2012년	• 신규분야 시범사업(미술, 음악, 문학) 운영
2013년	• 신규분야 시범사업(관현악, 미디어아트, 미술) 운영 • 관계기관 협력 워크숍 진행(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기관)
2014년	• 신규분야 시범사업(문학창작, 서예, 관현악, 미디어아트) 운영 • 운영기관 컨설팅 연구 • 지원 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예술 강사 컨퍼런스 개최
2015년	•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모(21건) 및 공모집 발간 • 신규분야 시범사업(미디어 아트, 서예, 문학 등) 운영 • 예술강사 선발 배치 제도개선 연구 • 예술강사 건강진단 실시
2016년	• 자유학기제 연계 '오늘은 예술학교'(아트데이) 시범운영(서울, 경기, 경남 35개 중학교) • 예술강사 지원사업 2차사업 실시(콘텐츠 중심으로 예술강사 풀 구성, 학교 수요반영지원) • 예술강사 출강전 학교 사전방문 실시 • 예술강사 활동현황 조사 실시 •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2017년	• 강사비 인상에 따른 강사 처우개선 노력 및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있는 강사 선발 과정 운영 • 사업 안정화를 위한 지역운영기관 공모 추진 • 지역운영기관 대상 실무교육, 권역별 컨설팅 추진 • 지역별 학교 현장 수요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획사업 프로그램 기획 · 운영 • 사업 관계자 대상 워크숍 및 상시 협의회의 추진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 협의체 추진
2018년	• 강사 당 최대 배치시수를 476시수로 변경하여, 최대 배치 시수를 약 27% 확대 • 사업 참여 연차에 따른 지역운영기관 실무교육, 권역별 컨설팅 등 사업 운영 지원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 협의체 및 소위원회 추진에 따른 '19년 사업 개선 사항 도출 •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운영 및 예술강사 노조와의 단체교섭 추진 통한 협약 체결
2019년	•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기구 운영 및 고용주체 중앙일원화 결정('21년~)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제외 결정('20년~) • 학교 예술강사 제도개선 협의체 2기 운영 • 예술강사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의무연수 신설, 연수수당, 급식비 지원 • 학교 교사–강사 협력수업 실행방안 가이드북 제작

표 4-6-3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추진실적(2005~2019)

구분	학교 수 (개교)	지원시수 (시수)	강사수 (명)	수혜자 수 (만명)
2005	3,214	156,048	1,628	71
2006	2,445	169,889	1,431	78
2007	3,157	300,000	1,764	101
2008	3,689	395,277	2,243	118
2009	4,799	1,050,150	3,483	154
2010	5,436	1,130,451	4,156	174
2011	5,772	1,134,390	4,164	185
2012	6,531	1,161,081	4,263	190
2013	7,254	1,325,404	4,485	220
2014	7,809	1,454,483	4,735	255
2015	8,216	1,455,206	4,916	266
2016	9,027	1,572,232	5,357	291
2017	8,628	1,428,959	5,237	246
2018	8,344	1,429,549	5,282	246
2019	8,481	1,418,884	5,159	256

표 4-6-4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현황–교육과정 수(2003~2019)

구분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계
2003	3,128	101	–	–	–	–	–	–	3,229
2004	3,982	275	100	–	–	–	–	–	4,357
2005	2,503	386	148	100	77	–	–	–	3,214
2006	1,812	274	109	150	100	–	–	–	2,445
2007	1,951	413	202	327	264	–	–	–	3,157
2008	2,275	452	243	392	264	–	–	–	3,626
2009	3,642	1,448	566	1,131	911	–	–	–	7,698
2010	4,147	1,560	633	1,436	1,157	115	55	86	9,189
2011	3,685	1,459	499	1,555	1,020	180	88	126	8,612
2012	4,071	1,486	467	1,636	1,061	297	155	184	9,357
2013	4,090	1,541	445	1,678	1,083	378	208	246	9,669
2014	4,312	1,759	472	1,907	1,097	441	243	299	10,530
2015	4,463	1,732	448	1,971	1,035	496	265	321	10,731
2016	5,350	2,246	518	2,340	1,167	827	434	572	13,454

구분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계
2017	4,633	2,088	420	2,131	903	626	313	424	11,538
2018	4,513	2,073	417	2,066	816	642	277	389	11,193
2019	4,674	1,990	416	2,195	799	621	287	369	11,351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부터 문화예술 혜택이 적은 지역의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전교생이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4년 동안 집중 지원하는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감성이 풍부한 초등학교시절부터 학생들이 평생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창의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교육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 확산될 수 있는 우수 모델로 자리 잡았다.

표 4-6-5 **예술꽃 씨앗학교 주요성과**

- 수요자의 높은 만족도
  '예술꽃 씨앗학교'는 이제 각 학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 ·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경제적 효과
  농어촌 등 소외지역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 되면서 폐교위기 학교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등 지역사회의 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1기(2008년~2011년) 10개교를 시작으로 2011년 2기(2011년~2014년) 16개교, 2012년 3기(2012년~2015년) 10개교, 2013년 4기(2013년~2016년) 4개교, 2014년 5기(2014년~2017년) 13개교, 2015년 6기(2015년~2018년) 20개교, 2016년 7기(2016년~2019년) 14개교, 2017년 8기(2017년~2020년) 8개교, 2018년 9기(2018년~2021년) 8개교, 2019년 10기(2019년~2022년) 15개교까지 총 118개교를 지원하였다. 2011년은 1기(2008년~2011년) 예술꽃 씨앗학교 10개교 지원 마지막 해로서, 예술꽃 씨앗학교 성과발표회 '어울림 뜨락'를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를 알리고 예술꽃 씨앗학교가 갖는 의미에 대해 공유하였다. 2012년에는 연구학교로 지정되었던 9개 학교의 연구성과를 나누는 '예술꽃 씨앗학교 주제발표 학술포럼'을 개최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확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4년은 2기 16개교를 대상으로 '꿈을 먹는 하루', 2015년은 3기 10개교를 대상으로 성과공유회 '예술이 꽃피는 숲'을 개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본 사업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2016년도에는 2013년에 선정한 4기 초등학교와 2014년에 선정한 5기 중 · 고등학교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과 교급을 넘어 예술적 교류를 통한 공감의 장을 형성하였다.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도 2014년에 선정한 5기 초등학교와 6기 중학교가 함께 제 5회 예술꽃 씨앗학교 성과공유회 '예술이 꽃피는 숲'을 개최하였다.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예술꽃 씨앗학교(6기, 7기)의 축적된 성과를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거점학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각 학교에서 직접 기획 · 운영하여 마을축제형 성과공유회 '예술이 꽃피는 마을'을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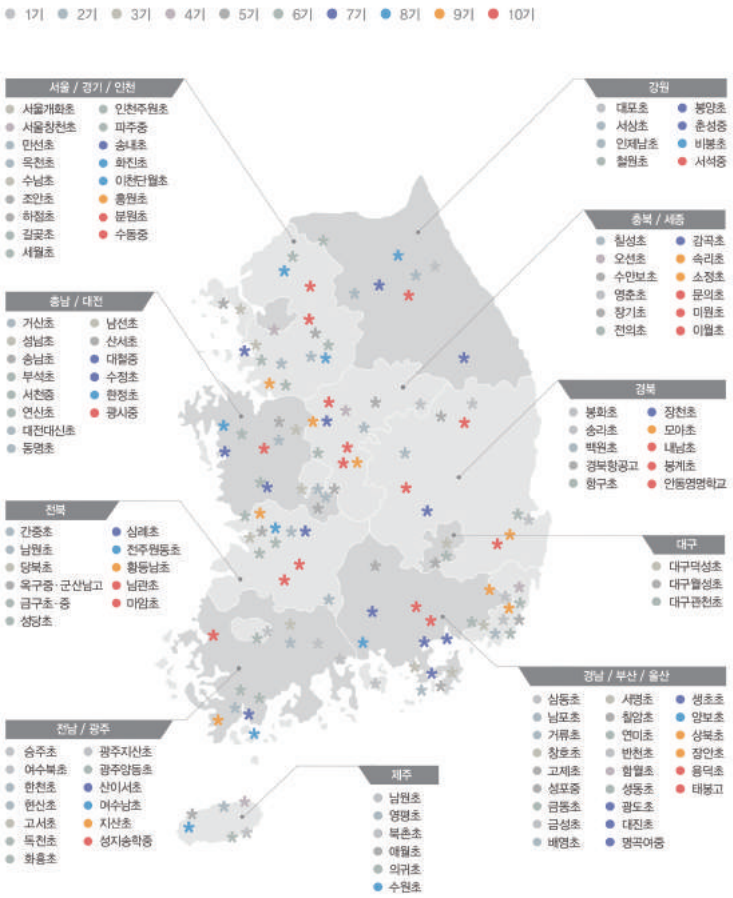
한편, 보다 내실 있는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을 위해 선정초기부터 운영기간 동안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학교가 현장 중심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컨설팅 및 평가단'을 운영함으로써 매년 사업현장 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학교의 사업 운영역량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역량강화 및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성과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2012년에는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2013년에는 종료된 1기 10개교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종료 이후 2013년까지 학교별로 예술꽃 씨앗학교를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효과를 파악하였다. 2015년에는 예술기반 학교 운영모델로서 예술꽃 씨앗학교를 분석 · 진단하는 연구를 통해 예술꽃 씨앗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연구를 실시해왔다. 2018년은 본 사업이 10주년인 해로 그 간에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예술꽃 씨앗학교의 가능성과 미래를 논의하는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10주년 기념 콘퍼런스' 를 개최하였다. 또한, 10년간 축적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업 참여자들의 인식조사,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차별화된 사업 전략, 개선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2019년에는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와 더불어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예술가박스' 시범운영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4-6-6 **예술꽃 씨앗학교 지도, 수혜자수, 지원현황표**

(단위: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혜자 수	1,718	1,630	1,555	3,528	3,634	4,115	6,022	7,408	7,637	7,827	6,585	5,079



구분	지정연도	학교명	지역	운영분야
1기	2008년 (10개교)	광주지산초등학교	광주 북구	음악예술교육(국악)
		금성초등학교	부산광역시	통합예술교육(프로젝트형)
		남원초등학교	제주 서귀포시	시각예술교육(영화)
		대포초등학교	강원 속초시	음악예술교육(국악)
		반천초등학교	울산광역시	음악예술교육(서양악)
		봉화초등학교	경북 봉화군	시각예술교육(영화)
		삼동초등학교	경남 남해군	음악예술교육(서양악)
		송라초등학교	경북 포항시	음악예술교육(서양악)
		승주초등학교	전남 순천시	음악예술교육(서양악)
		여수북초등학교	전남 여수시	음악예술교육(서양악)
2기	2011년 (16개교)	간중초등학교	전북 완주군	음악예술교육(국악)
		거산초등학교	충남 아산시	통합예술교육(프로젝트형)
		남원초등학교	전북 남원시	음악예술교육(국악)
		남포초등학교	경남 통영시	음악예술교육(서양악)

구분	지정연도	학교명	지역	운영분야
2기	2011년 (16개교)	대전대신초등학교	대전광역시	음악예술교육(국악)
		동명초등학교	대전광역시	공연예술교육(디지털뮤지컬)
		만선초등학교	경기 광주시	음악예술교육(국악)
		배영초등학교	부산광역시	음악예술교육(전통:농악)
		백원초등학교	경북 상주시	시각예술교육(도 · 공예)
		서상초등학교	강원 춘천시	시각예술교육(디자인)
		영평초등학교	제주 제주시	음악예술교육(서양악)
		옥천초등학교	경기 양평군	음악예술교육(퓨전합주)
		인제남초등학교	강원 인제군	음악예술교육(음악극)
		칠성초등학교	충북 괴산군	음악예술교육(서양악)
		한천초등학교	전남 화순군	공연예술교육(연극 · 영화)
		현산초등학교	전남 해남군	음악예술교육(국악)
3기	2012년 (10개교)	거류초등학교	경남 고성군	통합예술교육(전통:고성오광대)
		고서초등학교	전남 담양군	공연예술교육(연극)
		남선초등학교	대전광역시	음악예술교육(국악)
		당북초등학교	전북 군산시	음악예술교육(국악)
		대구덕성초등학교	대구광역시	음악예술교육(관악합주)
		서명초등학교	부산광역시	통합예술교육(오케스트라)
		서울개화초등학교	서울특별시	통합예술교육(음악극)
		성남초등학교	충남 천안시	공연예술교육(뮤페라)
		수남초등학교	경기 김포시	통합예술교육(전통 · 디자인)
		창호초등학교	경남 거제시	음악예술교육(관악3중주)
4기	2013년 (4개교)	북촌초등학교	제주 제주시	공연예술교육(뮤지컬)
		서울창천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공연예술교육(뮤지컬)
		오선초등학교	충북 음성군	음악예술교육(합창)
		함월초등학교	울산 중구	음악예술교육(오케스트라)
5기	2014년 (13개교)	경북항공고등학교	경북 영주시	음악예술교육(오케스트라, 합창)
		고제초등학교	경남 거창군	시각예술교육(공예)
		군산남고등학교 · 옥구중학교 (통합형농어촌학교)	전북 군산시	공연예술교육(뮤지컬)
		대구월성초등학교	대구 달서구	음악예술교육(플룻오케스트라)
		산서초등학교	대전 중구	시각예술교육(환경디자인)
		성포중학교	경남 거제시	음악예술교육(관악합주)
		송남초등학교	충남 아산시	시각예술교육(영화)
		수안보초등학교	충북 충주시	음악예술교육(퓨전국악관현악)

구분	지정연도	학교명	지역	운영분야
5기	2014년 (13개교)	애월초등학교	제주 제주시	통합예술교육(제주전통문화)
		장기초등학교	세종 장군면	음악예술교육(오케스트라)
		조안초등학교	경기 남양주시	통합예술교육(프로젝트형)
		칠암초등학교	부산 기장군	시각예술교육(영화)
		하점초등학교	인천 강화군	시각예술교육(디자인)
6기	2015년 (20개교)	갈곶초등학교	경기 평택시	공연예술교육(연극)
		광주양동초등학교	광주 서구	통합예술교육(연극)
		금구초 · 중학교	전북 김제시	시각예술교육(사진)
		금동초등학교	경남 김해시	시각예술교육(영화)
		대구관천초등학교	대구 북구	음악예술교육(서양악)
		독천초등학교	전남 영암군	음악예술교육(서양악)
		부석초등학교	충남 서산시	시각예술교육(영상 · 애니메이션)
		서천중학교	충남 서천군	통합예술교육(전통)
		성당초등학교	전북 익산시	통합예술교육(관현악밴드)
		성동초등학교	울산 울주군	시각예술교육(공예)
		세월초등학교	경기 양평군	통합예술교육(커뮤니티 아트)
		연미초등학교	부산 연제구	시각예술교육(뉴미디어 아트)
		연산초등학교	충남 논산시	공연예술교육(뮤지컬)
		의귀초등학교	제주 서귀포시	시각예술교육(공예)
		인천주원초등학교	인천 남동구	음악예술교육(서양악)
		전의초등학교	세종 전의면	통합예술교육(연극 · 미술)
		철원초등학교	강원 철원군	시각예술교육(디자인)
		파주중학교	경기 파주시	음악예술교육(서양악)
		항구초등학교	경북 포항시	시각예술교육(현대미술)
		화흥초등학교	전남 완도군	공연예술교육(뮤지컬)
7기	2016년 (14개교)	감곡초등학교	충북 음성군	음악예술교육(서양악)
		광도초등학교	경남 통영시	통합예술교육(서양악)
		대진초등학교	경남 김해시	공연예술교육(뮤지컬)
		대철중학교	충남 서산시	시각예술교육(디자인)
		명곡여자중학교	경남 창원시	시각예술교육(만화 · 애니메이션)
		봉양초등학교	강원 정선군	시각예술교육(만화 · 애니메이션)
		산이서초등학교	전남 해남군	시각예술교육(공예)
		삼례초등학교	전북 완주군	통합예술교육(전통문화)
		생초초등학교	경남 산청군	공연예술교육(뮤지컬)
		송내초등학교	경기 부천시	통합예술교육(음악 · 연극)

구분	지정연도	학교명	지역	운영분야
7기	2016년 (14개교)	수정초등학교	충남 청양군	음악예술교육(국악)
		영춘초등학교	충북 단양군	공연예술교육(연극)
		장천초등학교	경북 구미시	음악예술교육(국악)
		춘성중학교	강원 춘천시	음악예술교육(오케스트라)
8기	2017년 (8개교)	비봉초등학교	강원 양구군	음악예술교육(서양악)
		수원초등학교	제주 제주시	시각예술교육(디자인)
		양보초등학교	경남 하동군	음악예술교육(서양악)
		여수남초등학교	전남 여수시	공연예술교육(연극)
		이천단월초등학교	경기 이천시	공연예술교육(뮤지컬)
		전주원동초등학교	전북 전주시	공연예술교육(무용)
		한정초등학교	충남 당진시	통합예술교육(연극 · 뮤지컬)
		화진초등학교	경기 연천군	공연예술교육(뮤지컬)
9기	2018년 (8개교)	모아초등학교	경북 경주시	시각예술교육(영화)
		상북초등학교	경남 양산시	통합예술교육(프로젝트형)
		소정초등학교	세종 소정면	음악예술교육(인문학 연계)
		속리초등학교	충북 보은군	공연예술교육(뮤지컬)
		장안초등학교	부산 기장군	공연예술교육(뮤지컬)
		지산초등학교	전남 진도군	음악예술교육(국악)
		홍원초등학교	경기 평택시	시각예술교육(디자인)
		황등남초등학교	전북 익산시	음악예술교육(오케스트라)
10기	2019년 (15개교)	광시중학교	충남 예산군	음악예술교육(퓨전오케스트라)
		남관초등학교	전북 완주군	음악예술교육(밴드, 합창)
		내남초등학교	경북 경주시	공연예술교육(뮤지컬)
		마암초등학교	전북 임실군	음악예술교육(오케스트라)
		문의초등학교	충북 청주시	통합예술교육(생태미술)
		미원초등학교	충북 청주시	음악예술교육(합창)
		봉계초등학교	경북 김천시	공연예술교육(연극, 뮤지컬)
		분원초등학교	경기 광주시	시각예술교육(공예)
		서석중학교	강원 홍천군	음악예술교육(오케스트라)
		성지송학중학교	전남 영광군	통합예술교육(프로젝트형)
		수동중학교	경기 남양주시	통합예술교육(관악, 농악)
		안동영명학교	경북 안동시	통합예술교육(미술, 음악, 국악, 댄스, 사진)
		용덕초등학교	경남 의령군	음악예술교육(밴드, 감상)
		이월초등학교	충북 진천군	통합예술교육(국악창작극, 국악관현악)
		태봉고등학교	경남 창원시	통합예술교육(프로젝트형)

(2)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0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유아의 발달 특성과 현장 수요를 고려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아의 문화예술 향유능력 및 사회성, 예술성, 창의성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14년부터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역량을 갖춘 운영기관을 매년 공모선정하고 있으며 해마다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6년도부터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정규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보다 본격적으로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을 강화하였다. 2017년도부터는 문화기반시설을 통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여, 전국 9개 문화기반시설을 통해 유아대상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유아교사 대상 프로그램 연수를 통해 프로그램의 확산을 도모하였다. 2018년에는 전국 10개 문화기반시설을 선정하였으며, 각 기반시설별 특징에 따라 움직임, 사진, 건축, 판소리 등을 주제로 한 유아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유아전문가와 예술전문가의 다면컨설팅을 통해 내용적 우수성을 도모하였으며 연말 성과공유 워크숍을 통해 참여 문화시설의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2018년까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 민간 대상 직접 지원방식으로 운영하던 본 사업을 2019년부터는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편성, 17개 시 · 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문화시설 자원을 활용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였다.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여 총 58개 문화시설 대상 컨설팅으로 프로그램을 정교화하였으며, 918개 영유아교육기관과 수혜자 총 20,521명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총 1,944명의 유아교사가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강화하였다. 한편, 관계자 및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관계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의 정성적 성과 집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결과공유회를 추진하였다.

표 4-6-7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실적(2014~2019)

구분	운영방식	운영기관 수 (개)	프로그램 수 (개)	참여기관 수 (개)	참여유아 수 (명)	수업시수 (시수)
2014	강사파견	1	1	50	1,838	1,600
2015	강사파견	2	2	100	1,652	3,600
2016	강사파견	3	3	255	4,516	12,240
2017	프로그램 지원	9	9	218	4,255	1,477
2018	프로그램 지원	10	10	243	4,880	1,920
2019	프로그램 지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협력 운영)	58	58	918	20,521	7,522

2)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체험 · 학습 · 창작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5년부터 추진해온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아동 · 청소년, 노인, 장애인, 소년원생 및 교도소 수감자, 군인, 산업단지 근로자 등으로 수혜대상을 세분하여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이 문화예술 기능전수 및 일회적 체험 차원에서 창의성, 사회성, 문화공동체 등을 위한 통합적 차원으로 확대 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예술강사와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을 새롭게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넷째, 예술강사 및 교육수행단체의 평가 · 컨설팅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하고 있다. 다섯째, 문화예술교육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문화예술교육정책과 교육정책, 평생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다문화정책, 교정행정, 노인 정책, 여성정책, 여가정책 등과의 협력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1)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예술 분야별 전문 예술 강사들이 아동복지시설 아동 ·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현장에서 원활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04년 아동복지시설 중심으로 추진된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2006년에 이르러 노인 복지관 연극분야, 장애인복지관 무용분야로 확대되었으며, 2008년에는 노인 · 장애인 대상 신규분야 교육 확대를 위한 연구 사업을 실시, 2010년에는 아동 대상 6개 분야, 노인 대상 3개 분야, 장애인 대상 2개 분야의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복지관 이용 노인 및 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 · 장애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협력 · 운영하였다. 2012년에는 기존 분야 외 노인미술, 노인사진, 장애인미술, 장애인영화 총 4개 분야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장애 아동에서 성인까지 참여자 대상을 확대(장애인영화분야)하였다. 2013년에는 아동 문화예술교육 시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장애인 분야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과 형제, 자매,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과 예술가와 연계한 예술활동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는 장애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국악과 연극분야가 신규 확대되었다. 2015년에는 현장 수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접근성을 증대하고자 아동 및 장애인 복지시설 유형을 확대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축제 〈예울림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시작하여 그 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8년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예술강사가 참여하는 〈지식공유 컨퍼런스〉를 최초로 개최하였고, 2019년에는 예술강사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단위의 소규모 워크숍 및 〈지식공유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다양한 교육 사례와 노하우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4-6-8 사회분야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현황(2005~2019)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 수				참여자 수			
	아동	노인	장애인	합계	아동	노인	장애인	합계
2005	201	–	–	201	7,694	–	–	7,694
2006	213	48	23	284	837	916	285	2,038
2007	201	59	20	280	7,263	1,095	184	8,542
2008	178	67	32	277	6,572	1,297	343	8,212
2009	235	62	30	327	7,695	1,240	310	9,245
2010	143	84	47	274	4,542	2,853	628	8,023
2011	144	132	58	334	4,610	3,410	650	8,670
2012	147	206	89	442	4,243	4,890	1,060	10,193
2013	160	169	96	425	4,423	6,396	1,457	12,276
2014	145	190	124	459	4,545	5,353	2,202	12,100
2015	150	200	182	532	3,690	6,050	2,854	12,594
2016	145	213	250	608	3,246	5,709	3,611	12,566
2017	143	226	237	606	2,993	6,234	3,685	12,912
2018	132	235	208	575	2,910	6,276	3,643	12,829
2019	127	252	209	588	2,654	6,199	3,670	12,523

표 4-6-9 분야별 예술 강사 현황 (2019)

(단위: 명)

분야	아동							노인						장애인							합계
	국악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미술	합계	연극	음악	무용	미술	사진	합계	국악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미술	합계	
강사 수	13	35	16	11	21	47	143	20	42	23	35	35	155	44	16	27	16	37	53	193	491

(2)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제도 · 환경적 여건으로 소외된 특수계층(군 장병, 교정시설, 소년원학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도 2005년부터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대상 및 시설이 특수하므로 관계부처 및 협력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4-6-10 군 · 교정시설 ·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현황(2011~2019)

(단위: 개소, 명)

구분	군부대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11	'12	'13	'14	'15	'16	'17	'18	'19	'11	'12	'13	'14	'15	'16	'17	'18	'19	'11	'12	'13	'14	'15	'16	'17	'18	'19
지원 프로그램수	91	140	180	234	201	230	225	225	225	30	49	45	45	51	54	54	52	53	9	16	10	16	19	22	22	11	21
수혜 시설 수	91	140	180	234	201	230	225	225	225	30	44	42	44	48	51	52	52	52	9	10	10	9	11	11	11	11	11
수혜 인원	8,165	6,882	3,939	4,942	3,828	4,844	4,799	4,472	4,194	673	1,018	573	790	734	814	1,069	905	821	594	608	215	365	297	360	400	192	321
지원 예산 (백만 원)	601	1,073	1,800	2,497	2,613	2,990	2,925	3,037.5	3,038	270	585	560	585	663	702	702	702	715.5	120	156	140	408	247	286	286	148.5	297

2005년부터 시작된 군부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공동체 의식 함양 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병들의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군대생활 적응을 돕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소통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 단체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갈등조절 능력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수행단체를 공모 · 선정한 단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육 · 해 · 공군 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연간 30회 교육을 진행한다. 2019년에는 국방부 예산 1,484백만 원이 매칭되었다.

또한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예술적 작업을 통한 재소자 및 소년원학생들의 성취동기 유발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교정교육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고 업무의 긴밀한 협력과 제도화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던 특수 분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2008년에는 교정시설과 소년원학교를 특수 분야로 묶고 프로그램 공모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9년에는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치료감호소를 지원하였다.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11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가출, 탈학교, 미혼모 청소년 등 학교 밖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각 기관별 산하 시설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통일부 및 국가보훈처와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 및 상이군경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협력하여 방과후청소년을 대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3)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학교폭력, 성 · 가정폭력 등의 피해 소외계층 자살률과 우울증 환자 급증으로 인한 사회 ·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심리적 상처를 가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 예술치유 프로그램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5년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7개 각 부처(경찰청,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사행위, 여가부, 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예술치유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였다. 또한 역량 있는 운영단체 및 참여인력(슈퍼바이저, 예술치료사 등)을 선정하여 대상 특수성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등을 통해 전문적인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2016년부터는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문화재단과 협력하여 게임 과몰입 대상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부처 협력 대상 외 지원 사각지대 대상을 지원하고자 운영단체가 직접 대상을 발굴하는 방식을 일부 도입하였으며 2019년도까지 감정노동자, 사별경험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난치병환자 및 가족, 미혼모자, 가정 밖 아동, 과거 여성노숙자 등 신규 대상자 발굴에 힘써왔다. 2018년부터는 치매 국가책임제」발표(2017년 10월)에 따라 치매위험이 있는 어르신 또는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대상까지 확장하여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표 4-6-11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원현황(2015~2019)

(단위: 개소, 명)

구분	부처협력형					기획형					치매예방형				
	'15	'16	'17	'18	'19	'15	'16	'17	'18	'19	'15	'16	'17	'18	'19
프로그램	77	84	88	85	74	–	–	11	7	22	–	–	–	6	24
수혜시설	58	77	77	77	68	–	–	6	7	22	–	–	–	5	24
수혜인원	661	853	919	1,328	802	–	–	91	76	282	–	–	–	63	236

(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이 함께 주관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2012년부터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매주 주말 아동 · 청소년 및 가족이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 · 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6개 국공립기관과 협력 · 운영한 국공립기관 연계사업과 16개 시 · 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별로 진행된 광역센터 연계사업으로 구성되었다.

광역센터연계사업의 경우,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기초 이해에 중점을 둔 아우름 프로그램과 음악, 미술, 사진 등 주제별 · 장르별 특성화 교육을 위한 차오름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총 151개 프로그램이 기획 · 운영되었으며 총 9,886명의 어린이 · 청소년 및 가족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13년에는 기존 지역 연계 사업 및 국공립기관 연계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내 가족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탐색 프로그램,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신설하여 더 많은 참여자들이 토요일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619개 프로그램이 기획 · 운영되었으며 총 51,122명의 어린이 · 청소년 및 가족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13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 · 청소년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후, 비생산 여가활동의 비중이 감소하고 문화예술 관련 여가 활동 비중이 증가(비생산여가활동 36.5% → 20.9%, 문화여가활동 28.1% → 38.1%)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 자녀 간의 대화 시간이 증가하는 등 가족 간의 소통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 전 6.9시간 → 참여 후 8.7시간/주).

2014년에는 미술 감상 프로그램, 통합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박물관연계 프로그램, 아리랑프로그램 등 신규 사업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총 908개 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 79,68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14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참여자 대상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98.1%)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가장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휴대폰 보는 시간이 줄었다', 'TV, 게임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응답이 나타났으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토요일의 여가활동이 문화예술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국공립기관연계 프로그램, 미술관 · 박물관 · 도서관연계프로그램, 가족오케스트라 · 합창 프로그램, 꼬마작곡가, 미디어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등 총 800개 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 약 66,746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15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참여자 대상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 · 청소년 참여자의 경우, '여가문화조성'과 '정서함양',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등을 주요한 사업 참여를 통한 성과로 답변하였고, 가족 참여자의 경우 '공동체의식 함양 및 소통'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이를 토대로 아동 · 청소년 및 그 가족이 함께 학교 밖 토요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사업방향과 성과가 확인될 수 있었다.

2016년에는 사업시행기관별로 17개 시 · 도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역연계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국공립기관연계 프로그램, 미술관 · 박물관 · 도서관연계프로그램, 가족오케스트라 · 합창 프로그램, 꼬마작곡가 등의 프로그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예술감상교육 등 총 1,044개 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 약 79,631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16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참여자들은 강사에 대한 만족도(92.9) 및 프로그램 유익성에 대한 만족도(92.9)를 가장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비참여자 대상 설문조사와 FGI를 실시해 본 결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및 가족 간 유대감에 대한 참여자의 응답이 비참여자 대비 10%이상 높게 나타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이 주말의 가족 여가 활동으로서 효과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7년에는 17개 시 · 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연계사업 및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국공립기관연계 프로그램, 미술관 · 박물관 ·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가족오케스트라 · 합창 프로그램, 꼬마작곡가, 건축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 또한 가족 중심의 문학 창작 프로그램 일상의 작가, 미술관 내 다양한 기반시설을 활용해보는 레지던시 연계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청소년 · 예술가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수혜자 수요 중심의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등 총 1,035개 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 약 75,652명이 참여하였다.

2017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참여자 만족도의 경우, 가족의 만족도(93.5)가 청소년(89.7)이나 아동(85.6)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가족 간 소통 증진'에 대해 특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018년에는 문화예술 분야의 국 · 공립 기관 및 지역 문화예술기관 · 단체와 연계하여 17개 시 · 도 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신규 사업 드림아트랩 4.0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전년도 시범사업에서 정규사업으로 운영된 일상의 작가 프로그램을 비롯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예술감상교육 등 총 933개 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 약 66,069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18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89.1점으로 사업에 대한 신뢰감 90.8점, 타인에게 프로그램 추천 의향 90.1점 등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감과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2019년에는 다변화하는 사회문화 환경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전년도 개발 된 드림아트랩 4.0 프로그램이 신규 사업으로 운영하였고, 가족유형의 다변화와 여가문화 환경변화를 반영한 가족여가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시범운영을 추진하였다. 드림아트랩 4.0 프로그램, 국 · 공립기관 연계 프로그램, 건축문화, 가족오케스트라 · 합창, 꼬마작곡가,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주말예술캠퍼스, 일상의 작가 프로그램과 지역연계 사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예술감상교육 등 총 602개 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 약 50,59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19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17년: 36.7% → 18년: 49.1% → 19년: 52.5%)가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사교육비 절감효과도 증가(18년: 30.8% 절감 → 19년: 42.1%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1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현황(2013~2019)

(단위: 개소, 개)

세부사업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참여 기관	프로그램	참여 기관	프로그램	참여 기관	프로그램	참여 기관	프로그램	참여 기관	프로그램	참여 기관	프로그램	참여 기관	프로그램
지역 연계 사업	311	311	415	430	432	432	700	732	684	750	644	666	447	450
국공립기관 연계 사업	8	24	11	19	12	18	11	22	12	20	11	19	7	11
주말문화여행 프로그램	1	20	1	8	1	12	1	6	1	6	1	6	–	–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104	104	58	58	55	55	42	42	23	23	–	–	–	–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탐색 프로그램	12	46	28	58	28	37	19	19	–	–	–	–	–	–
청소년X예술가 프로그램	–	–	–	–	–	–	–	–	16	16	22	22	–	–
주말예술캠퍼스 프로그램	–	–	–	–	–	–	–	–	11	11	11	11	11	11
일상의 작가 프로그램	–	–	–	–	–	–	–	–	1	8	1	16	1	13
가족오케스트라/ 합창 프로그램	19	19	20	20	25	25	10	10	13	13	13	13	6	6
꼬마작곡가 프로그램	4	4	9	15	8	8	9	9	9	9	10	10	9	9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프로그램	1	5	1	12	1	6	1	5	1	5	1	6	3	3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	–	53	72	46	46	31	31	31	31	21	21	–	–
미술관 연계 프로그램	–	–	25	25	22	22	24	24	21	21	21	21	–	–
아리랑 프로그램	–	–	15	15	9	9	10	10	–	–	–	–	–	–
통합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	–	1	20	–	–	–	–	–	–	–	–	–	–
안산지역 프로그램	–	–	1	8	–	–	–	–	–	–	–	–	–	–
건축문화 프로그램	1	3	1	6	1	38	1	29	1	21	1	23	1	17
드림아트랩 4.0 프로그램	–	–	–	–	–	–	–	–	–	–	–	–	4	11
미디어문화 프로그램	22	40	22	57	22	50	–	–	–	–	–	–	–	–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43	43	85	85	89	92	95	105	88	101	83	99	66	71
총 계	526	619	746	908	751	850	954	1,044	912	1,035	840	933	555	602

(5) 문화예술교육 기획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기획 프로그램은 전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프로그램과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농산어촌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치안센터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문화파출소 조성 및 운영사업, 문화예술계 저명인사와 예술인들이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이 추진되었다.

가.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은 문화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이 지역 예술가와 함께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술가들이 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2019년에는 중앙에서 이동수단을 보내는 기존의 사업 방식에서, 지역의 예술가가 지역의 주민을 직접 발굴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2018년까지 농산어촌의 노인과 아동이 주로 참여하였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이주노동자, 옛 기지촌 주민, 경력단절 여성, 정신장애인 모임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화소외계층이 참여하였다. 2018년에는 8개 프로그램을 총 150회 진행하여 2,329명이 참여하였고, 2019년에는 8개 프로그램을 총 150회 진행하여 2,461명이 참여하였다.

나. 문화파출소 운영 사업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전국 치안센터 중 9곳을 선정, 노후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예술활동, 자치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문화예술공간인 문화파출소를 조성하였다. 문화보안관이라고 불리는 문화파출소 상주인력이 현장에서 프로그램 기획, 교육, 홍보, 시설관리 등 전반적인 문화파출소 관리를 한다.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이웃공동체에 기여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문화를 통해 범죄폭력 예방, 동네치안, 교통안전 등 사회적문제를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문화안전망 프로그램'과 장르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자체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수요와 제안에 맞춰 주민 동호회 활동과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점차 문화파출소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지자체, 관할서, 공공기관, 기업 등) 및 문화기반시설 연계 네트워크모임, 지역행사, 워크숍 등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열린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서울 강북(수유6치안센터), 전북 덕진(금암치안센터), 전남 여수(안산치안센터), 경기 군포(산본치안센터), 강원 춘천(동면치안센터), 대구 달서(도원치안센터), 제주 서부(서문치안센터), 울산 남부(신선치안센터), 충북 청원(사천치안센터) 등 9개 치안센터가 문화파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문화파출소별로 운영단체가 선정되어 단체별로 특징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문화파출소 사업의 단계적 지역이관(2020년~) 준비를 위해 이관 체계 구성, 사업이해도 제고를 위한 운영 자료 제공 등 관계자 간 업무협의를 활발하게 진행하였으며 지자체 등 사업 참여주체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그간의 시행착오와 운영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운영가이드 및 사례집을 제작하였다. 2019년 12월에는 지역별 문화파출소 프로그램 운영 활동 및 사례, 전시물 수집,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 등 성과공유 콘퍼런스를 운영하여 9개 운영단체 및 경찰 · 사업관계자 등 42명이 참여하였다.

표 4-6-13 '문화파출소 운영사업' 현황(2016~2019)

구분	2016	2017	2018	2019
참가자수(명)	1,838	5,093	6,378	5,702
프로그램(개)	157	349	316	270
언론보도(건)	67	151	78	69

다.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은 문화예술계 저명인사를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재능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2009년에 소프라노 조수미, 발레리나 강수진, 사물놀이 김덕수, 소설가 김훈 등 각 예술 장르를 대표하는 저명인사 17명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2010년에는 총 100명의 명예교사를 위촉하고 참여기회를 넓혀 어린이, 청소년에서 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였다. 2011년부터는 '특별한 하루'로 브랜드화 하여 대중문화를 포함하여 일반 시민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각 분야 문화예술인 100명을 명예교사로 재위촉 및 신규위촉 하고, 사업의 참여 대상도 더욱 세분화하여 문화예술교육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10대 후반과 20대를 위한 명예교사 토크 콘서트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요리, 웹툰 등 트렌드를 반영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명예교사를 추가로 위촉하고, 명예교사의 창작 작업과 연계하여 여러 회차에 걸쳐 심도 깊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의 해당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욕구를 고양시켰다. 2014년에는 명예교사의 창작 작업 및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일상의 삶에 밀착된 프로그램 125회를 기획 · 운영하여 5,901명이 참여하였다. 2015년에는 명예교사의 창작 작업 경험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외에도 2명 이상의 명예교사가 협업하여 장르 및 형식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더욱 깊이 있는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발굴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6년에는 지역별 문화예술 거점공간 및 예술가의 창작공간 기반의 '문화거점 및 창작공간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직장인 동호회 등과 연계한 '대상특화 프로그램' 그리고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전통특화 프로그램' 등 총 3개 유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대상에게 다채로운 문화예술교육의 접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2017년에는 명예교사와 함께 창작활동을

하며 예술 작업에 직접 참여해보는 '창작형', 예술가의 퍼포먼스와 토크콘서트가 결합된 '강연형',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을 연계하여 진로탐색을 해보는 '자유학기제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또한 순수 예술분야와 더불어 마임, 랩, 캘리그라피 등 대중예술 분야의 예술가를 명예교사로 위촉해 인지도와 관심도를 높이는 동시에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2018년에는 총 3개 유관기관(국립국악원, 국립현대무용단,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명예교사를 위촉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고하였으며, 9개 프로그램에서 SNS를 활용한 실시간 생중계를 진행함으로써 시간적 ·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의 간접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EBS와 협력, 예술교육 매개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기획 · 제작하여, 유아 예술교육의 긍정적 영향력을 조명하는 예술가 인터뷰 다큐멘터리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확산을 시도하였다.

2019년에는 내외부 유사사업이 많아짐에 따라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로 지난 10년간(2009~2018) 진행된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을 되돌아보고, 명예교사 콘텐츠를 아카이빙하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국내 저명 예술인들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옹호 활동 및 성과를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홍보를 추진하였다. 10년간의 사업자료를 한 곳에 모은 웹사이트, 지난 10년간 사업에 참여한 기획자와 행정가, 명예교사, 참여자가 소회를 나누는 팟캐스트 〈다시 특별한 하루〉, 10년간 성과를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한 소책자 〈다시 특별한 하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난 10년을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EBS와 공동기획으로 명예교사를 포함한 예술가 10인에 대한 각 예술가의 철학과 문화예술교육적 경험을 토대로 한 깊이 있는 관점을 담은 〈예술가의 물건〉 영상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였다. 또한, 이와 연계한 오프라인 전시(19.12.19.~25./인덱스서점)까지 추진하여 일반인 대상 콘텐츠 확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표 4-6-14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현황(2009~2018)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명예 교사 수	17명	100명	100명	120여명	125명	125명	140명	101명	18명	22명
프로 그램 회차	35회	484회	347회	180회	100회	125회	100회	200회	55회	20회
주 참여 대상	초 · 중 · 고등학생	초 · 중 · 고등학생 및 일반시민	초 · 중 · 고등학생 및 일반시민	초 · 중 · 고등학생 및 일반시민, 직장인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 등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 등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 등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 등	청소년, 일반시민 등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 예술교육 매개자 등
참여자수	17,178명	23,131명	34,566명	23,062명	4,099명	5,901명	4,735명	17,915명	1,482명	3,274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유형	• 대규모 공연 관람/강연 (35회)	• 대규모 공연 관람/강연 (53회) • 지역 공모 프로그램 (431회)	• 대규모 공연 관람/강연/ 토크콘서트 (58회) • 지역 공모 프로그램 (245회) • 기획체험 프로그램 (44회)	• 대규모 토크콘서트 (22회) • 소규모 북 콘서트 (19회) • 지역 공모 프로그램 (46회) • 직장인 마스터 클래스 (23회) • 기획체험 프로그램 (70회)	• 소규모 책이야기 프로그램 (30회) • 기획체험 프로그램 (70회)	• 공연 · 전시 감상 40회 • 기획체험 프로그램 85회	• 체험형 46회 • 이야기형 40회 • 융합형 14회	• 문화거점 창작공간 65회 • 전통특화 35회 • 대상특화 100회	• 창작형 25회 • 강연형 5회 • 자유학기 제형 25회	• 강연형 8회 • 공연형 5회 • 체험형 2회 • 온라인강연 형 5회 (EBS협력)

표 4-6-15 문화예술 명예교사 아카이브 콘텐츠 제작 목록(2019)

제작물	주요 내용	링크
웹사이트	지난 10년간 진행한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의 성과를 주제별 큐레이팅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다수 플랫폼(블로그(794건), 유튜브(211건) 등)에 산재되어 있는 기 명예교사 사업 콘텐츠를 장르별/연도별/명예교사별로 아카이빙하는 웹사이트 제작	http://arteday.arte.or.kr/
팟캐스트 〈다시, 특별한 하루〉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에 참여하였던 명예교사 및 기획자, 행정가, 참여자가 명예교사 사업을 되돌아보고, 나아가 문화예술교육 철학 및 경험을 나누는 대담을 온라인 서비스 콘텐츠로 제작	(유튜브) https//www.youtube.com/playlist%F?list=PLOLd9SWehluPfjylGKkVhUzuOvO59QOMu"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OLd9SWehluPfjylGKkVhUzuOvO59QOMu (팟빵) http//www.podbbang.com/ch/1774262"http://www.podbbang.com/ch/1774262
소책자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10개년 정리 인포그래픽 및 팟캐스트에서 도출된 주요 내용, 기보유 현장 사진 및 명예교사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명예교사 사업의 10년사를 소개하는 소책자 제작	–
예술가의 물건	손으로 쓰는 삶(캘리그래퍼 강병인), 생각을 만드는 재료(가구디자이너 이광호), 세상에 없던 질문(화가 엄정순), 랩을 잘하는 법(래퍼 MC메타), 우리 동네 예술관(소프라노 이진희), 아버지의 푸른 손톱(염색장인 정관채), 춤, 일상의 재발견(한국무용가 김삼진), 어디서 무엇이 되어(목공명장 유석근), 삶을 짓다, 놀이를 짓다(건축가 지정우, 서민우), 소통을 디자인하다(그래픽디자이너 슬기와 민)	https//www.youtube.com/playlist%F?list=PLOLd9SWehluNgVYzLzXfs2oxRddlDXdw1"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OLd9SWehluNgVYzLzXfs2oxRddlDXdw1

라. 노인 영상미디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노인 영상미디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노인 계층의 미디어활동 증진 및 주도적인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목적으로, 노인이 직접 자신의 일상과 이야기가 담긴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함으로써 노인의 긍정적 자기인식 및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궁극적으로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뉴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교육 및 제작 지원 체계 확립하고, 지역미디어센터 연계 노인영상문화동호회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문화예술활동, 콘텐츠 생산 및 상호교류 기반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2018년까지는 기존의 일반적인 영상제작 교육이 주를 이룬 교육이었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중 · 장기적 발전 및 노인 미디어활동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교육–제작–공유'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기본형'과 뉴미디어를 접목 · 활용하는 '복합형'). 2018년에는 12개 지역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한 18개 프로그램을 245명이 참여하였고, 2019년에는 12개 지역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한 16개 프로그램에 227명이 참여하였다.

(6) 소외 아동 ·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사업

'소외 아동 ·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사업 – 꿈의 오케스트라'는 한국형 엘시스테마 모델의 확산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며 2010년 8개소로 '지역사회형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다. 2012년 전국 19개소 아동 · 청소년 979명을 지원 확대 추진하였으며, 베네슈엘라 시몬볼리바르 음악재단과 업무협약(MOU) 체결하여 한국형 엘시스테마 음악교육으로 정립하였다. 2014년에는 전국 35개 거점기관에서 1,920여명의 아동 · 청소년들의 교육을 지원하였다. 참여단원들이 상호학습과 협력을 통해 건강한 다면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규 음악교육 프로그램과 거점기관 간 교류를 위한 이음캠프 및 합동공연을 개최하였다. 또한 거점기관 관계자 및 교육 강사 워크숍, 해외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하여 참여인력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였으며, 효과 연구 및 레퍼토리 개발, 평가컨설팅을 통해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 철학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전국 39개 거점기관에서 2,076여명의 아동 · 청소년들이 음악교육사업에 참여하였다. 참여단원을 대상으로 이음캠프(횡성 숲체원), 관계자 워크숍(5회), 5월 '문화가 있는 날' 합동공연(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페스티벌(평창) 등을 통하여 참여단원들의 공동체 형성 및 자긍심을 높여주었으며 중앙과 지역의 네트워킹을 확대하였다.

2016년에는 전국 42개 거점기관에서 2,421여명의 아동 ·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특히, 본 사업이 6년차에 접어들면서 사업종료 거점기관의 자립과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협력기획사업 확대(10개 사업, 24개소 참여), 관계자 워크숍(4회), 신규강사워크숍(1회), 학습공동체, 엘 시스테마 스웨덴 해외전문가 초청 워크숍(2회차/서울, 대구), 1~3기 거점기관 대상으로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전라' 시범운영 등을 통해 자발적인 역량 강화 유도 및 교육의 질적 향상, 자립을 위한 운영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사업의 대외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사업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YTN), 아동변화연구(3년 종단연구 중 1년차)를 진행하여 합주교육과 포괄적 음악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확산하였다.

2017년에는 전국 43개 거점기관에서 2,206여명의 아동 · 청소년 참여하였다. 협력기획사업 확대 운영(11개 사업, 30개소 참여), 관계자 워크숍(2회), 예비 거점기관 워크숍(3회), 찾아가는

교육인력 연수(3회),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확대 운영(전라, 강원)을 통해 주체적인 사업기획 및 운영 역량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을 위한 '강원권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공연'을 개최(강릉아트센터)하였고, 사업의 성과 확산 및 소개를 위해 음악예술교육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접근한 다큐멘터리 방영과 아동변화연구(3년 종단연구 중 2년차) 진행을 통해 2016년 대비 음악적 성장의 모든 변인에서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018년에는 전국 43개 거점기관에서 2,439명의 아동 ·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협력기획사업 운영(3개 사업, 16개소 참여), 관계자 워크숍(2회), 찾아가는 교육인력 연수(2회), 지식공유포럼, 합동공연 등을 통해 거점기관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확대 운영(전라, 강원, 경상)을 통해 권역별 협력 오케스트라 운영 모델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공통레퍼토리, 바이올린 초급교재 개발, 평가지표 정립 연구 등을 통해 거점기관의 체계적 교육 지원 및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동변화연구(3년 종단연구 중 3년차) 결과 2016년 대비 2017년에 성장 및 향상된 변화들이 내재화되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9년에는 전국 46개 거점기관에서 2,489명의 아동 ·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자립거점 기획사업(16개소 참여), 권역별 합동캠프 및 공연(3개 권역 참여), 동계캠프(7개소), 관계자 워크숍(4회) 및 교육인력 연수(2회), 예비거점 워크숍(3회), 지식공유포럼 등을 통해 거점기관 간 협력과 교류를 위한 기획사업과 역량강화를 위한 간접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LA 필하모닉 산하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계 국제 음악 캠프를 개최하여 엘 시스테마 국제 네트워크 및 협력을 견고히 하고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창작동요 공모, 초급 레퍼토리 편곡을 통해 전국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화합하여 노래하고 연주할 수 있는 공통 레퍼토리 발굴하여 단원으로서의 자부심 고취 및 거점기관 간 교류 · 협력 활성화 계기 마련하였고, 변화이론 기반 거점 사업 평가 및 컨설팅, 만족도조사 등 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개선 방향 도출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였다. 현장에서의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한 출판물(단행본) 발간, 국 · 영문 리플릿 및 거점별 홍보영상 등 사업의 1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 그 간의 성과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였다. 아동변화연구는 1단계(2016~2018년)를 마치고 2단계(2019~2021년) 연구의 첫해로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4년간 연속성을 갖고 종단연구가 진행된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사업의 목표와 의의를 기반으로 참여단원의 장기적 효과 검증을 위해 양적/질적 연구방법론을 혼용하여 참여자의 음악적 성장과 인적 상호작용 등 다양한 범주에서 효과를 확인하였다.

표 4-6-16 지역거점형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 현황(2011~2019)

구분	참여기관 수	참여아동 수	참여강사 수
2011	9개소	426명	98명
2012	19개소	979명	191명
2013	30개소	1,521명	325명
2014	35개소	1,920명	365명
2015	39개소	2,076명	375명
2016	42개소	2,421명	428명
2017	43개소	2,206명	525명
2018	43개소	2,439명	544명
2019	46개소	2,489명	500명

표 4-6-17 지역거점형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분포도(2019)

지역	거점기관수	거점기관명
서울	5개소	성동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마포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
부산	1개소	부산동구문화원
대구	1개소	수성문화재단
광주	2개소	광주남구문예회관, 광주소촌아트팩토리
세종	1개소	세종문화원
경기	11개소	안산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부천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평택문화원, 오산문화재단,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용인문화재단, 남양주도시공사, 하남문화재단
강원	7개소	인제군문화재단, 평창문화원, 강릉문화원,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춘천시문화재단, 원주문화재단, 영월문화재단
충북	2개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충주중원문화재단
충남	3개소	홍성군청소년수련관, 아산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전북	4개소	익산문화관광재단, 장수문화원, 고창문화원,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단
전남	2개소	목포문화재단, 무안희망의오케스트라단
경북	3개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영주지회, 안동문화예술의전당, 포항문화재단
경남	4개소	창녕군청소년수련관, 창원문화재단, 통영국제음악재단, 김해문화재단

※ 인천, 대전, 울산, 제주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거점기관 없음

소외아동 · 청소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하모니를 만들어야 하는 특성을 매개로 음악교육을 통한 올바른 인성함양과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참여아동들의 개인은 물론 가족, 학교, 지역사회내의 긍정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7)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

2018년부터는 일반 국민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아마추어 예술동아리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이 운영되었다.

전문 예술강사를 통한 동아리의 역량강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코디네이터 활용을 통해 지역 내 동아리 간 네트워킹 강화가 이루어지는 성과를 가질 수 있었다. 2018년에는 전국 8개 지역(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전북)의 980개 동아리, 11,883명이 참여하였으며, 2019년에는 전국 10개 지역(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충남, 경남)의 1,128개 동아리, 10,448명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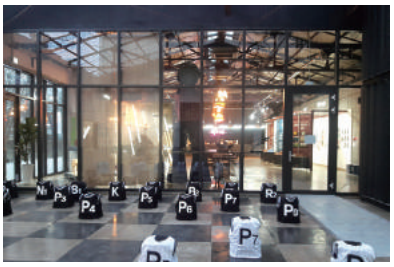
3)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1)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를 위한 논의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고, 이에 따라 2019년에는 개별 사업별로 교부 · 정산되던 지자체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 예산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사업 예산을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으로 통합 개편하였다. 이는 각 지역별 예산운용의 재량권 확대, 지역별 특성 반영한 지원체계 구축 등 지역 자율권 확대의 발판이 되었으며, 지역주민의 문화예술교육 지속 참여기반 확보 및 자체 기획역량 강화 등 지역별 정책 기반기능 강화의 계기가 되었다. 2019년에는 전국 848개 프로그램을 통해, 45,908명이 수혜를 받았다.

(2)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 제11조(영 제2조의3), 제26조, 국정과제 및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과 2019년 생활SOC 3개년 계획 내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이하 '꿈꾸는 예술터') 조성이 포함됨에 따라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향후 2022년까지 총 10개소의 꿈꾸는 예술터를 조성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해 기존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문화예술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중심의 창의 ·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019년 11월, 전주 팔복예술공장이 꿈꾸는 예술터 1호로 첫 개관함에 따라 전주시는 문화예술교육 도시를 선포하였다. 전주 꿈꾸는 예술터 〈팔복예술야호놀이터〉의 개관 이후 이용자 만족도 4.45점과 재방문 의사 등으로 문화예술교육 전용 시설의 효과성을 입증했다. 이에 본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2020년에는 사업 예산 총 52억원을 확보하여 향후 사업을 더욱 확장해나갈 예정이며, 2020년 12월 성남 꿈꾸는 예술터 개관을 앞두고 있다.

전주 꿈꾸는예술터 조성 공간		
유아 대상 프로그램		
초등 대상 프로그램		
중등 대상 프로그램		

4) 문화예술교육의 글로벌 확대

(1) 2019년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최

모든 이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그 중요성과 가치를 공유하고 강화하기 위해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의 공동 주최로 〈2010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대한민국(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를 발판으로 '서울어젠다: 예술교육 발전 목표'를 발의하였고, 2011년 11월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면서 2010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개최되었던 5월 넷째 주를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선포했다. 2012년 제 1회를 시작으로 2019년 제8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는 〈처음의 시간, 끝없는 시작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라는 슬로건 하에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전국 문화기반시설에서 진행되었다. 국내외 전문가 및 관계자가 모여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국제심포지엄 및 포럼, 해외전문가워크숍, 유관학회 세미나 등 다채로운 교류, 학습 경험의 장을 펼쳤다. 2019년 5월 20일~25일 행사기간 동안 약 13,845명의 문화예술교육 주체 및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강화' 정책 목표에 발맞춰 문화예술교육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영유아 ·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설정하고, 국내외 현장에서 활동하는 영유아 ·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들의 교육관과 현장 사례를 심포지엄, 워크숍, 전문인력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현장에 실질적인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영유아 ·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나누는 국제심포지엄Ⅰ,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실천을 다루는 국제심포지엄Ⅱ 등 전문가 · 매개자의 지식공유에 중점을 두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더불어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등 당해년도 주제와의 연계성 및 특정 프로그램 기획 · 운영에 특화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박람회, 포럼, 워크숍 참여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홍보를 진행하였다.

표 4-6-18 2019년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 프로그램 및 일정

유형	프로그램	기간
사전프로그램	박물관주간 교육박람회 (국립중앙박물관 연계)	5.18.(토)~19.(일)
	카네기홀 자장가 프로젝트 〈엄마의 작은 노래〉	3~5월
국제 심포지엄, 포럼	국제심포지엄 I 〈처음의 시간 : 아주 어린 사람들에 대하여〉	5.22.(수)
	국제심포지엄 II 〈끝없는 시작 : 예술로 만나는 탐험가들의 이야기〉	5.23.(목)
	문화예술교육 포럼	5.24.(금)
해외전문가 워크숍	[가족워크숍] 땅으로! 바다로! 예술의 즐거움	5.20.(월)~23.(목)
	[부모워크숍] 어린이를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예술,상상력 그리고 몸	
	[어린이워크숍] 호기심과 상상의 세계여행	
유관학회 세미나	13개 학회별 세미나 : '영유아 ·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5.21.(화)~25.(토)
해외전문가 워크숍	뮤지엄, 문화예술교육으로 다가가기(서울)	5.23.(목)~25.(토)
	유아기 예술교육의 마중물(울산)	
	아이들의 예술 경험을 위한 시각예술 창작 워크숍(부산)	
	눈으로 말해요! 아동극과 영유아(인천)	
지역별 프로그램	인천평생교육x문화예술교육토론회 〈전환의시간,미래를위한교육〉	5.22.(수)~26.(일)
	인천 문화예술교육 축제〈꿀벌의 모험〉	
	세종 문화예술교육 축제 〈오감소풍〉	
	제주 문화예술교육 축제 〈노는게 예술이네!〉	
	경기 문화예술교육 축제 〈뭐든지 예술놀이터〉	
	울산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국제세미나	

그림 4-6-2 2019년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현장 사진

국제심포지엄 I

국제심포지엄 II

문화예술교육 포럼

유관학회 세미나

문화예술교육 워크숍(가족)

문화예술교육 워크숍(어린이)

전문인력 연수(울산)

지역별 프로그램(인천)

지역별 프로그램(제주)

(2) 문화예술교육 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2011년부터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실효성 있는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특별 기획 프로그램 소개, 참여자 소감이 담긴 다양한 사례 노출 등 심층 취재가 가능한 소재를 발굴하여 공신력 있는 언론매체(주요일간지 및 방송사)를 통한 보도율을 향상시켰다. 2009년 지역 언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국내외 현장탐방 프로그램을 통한 연재기사와 3부작 다큐멘터리, 2010년 해외 문화예술교육의 우수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다룬 '예술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기획시리즈 및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시기의 특별 기획기사, 2011년~2012년 문화예술 명예교사, 예술꽃 씨앗학교 등 다양한 사업 현장을 담은 심층취재기사, '소프트 파워 강국'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가다 해외 기획시리즈, 2013년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한 서울신문 8회 연속 기획보도, 꿈의 오케스트라 기획 다큐멘터리 〈SBS 스페셜〉 방영,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정보교양 프로그램 다수 방영 등 주요 매체를 중심으로 전개된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대중 인지도를 높였다. 2014년에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스스로 꿈찾기-예술꽃 학교가다' 기획시리즈, 공중파 정보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생생한 현장을 전하는 등 사회적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회적 이슈와 긴밀히 연결된 기획 프로그램을 집중 소개하였다. 2015년에는 '문화예술교육 10주년' 계기 언론사 공동기획 2회 시리즈 기사,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함께하는 '아이들과 제대로 놀기'를 주제로 5회 시리즈 기사, 기관장 정기기고(9회),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현지 방문 해외취재 등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의미와 가치를 대외적으로 확산하였다. 2016년에는 '삶에 스며든 문화예술교육' 동아일보 3회 시리즈 기획기사, 신사업인 문화파출소 런칭 기획보도,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유아 컨퍼런스 연계 인터뷰 기사, 세계일보 포토 기획보도로 네이버 메인 노출을 진행하였다. 2017년에는 기관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성을 알리는데 초점을 맞춰 주요일간지 활용 기획보도를 진행하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평창아트드림캠프 등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기획 홍보를 추진하여 사업의 인지도 및 성과를 홍보하는데 집중하였다.

2018년도에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이슈 및 주요 정책 키워드와 접목하여 주요일간지를 활용한 기획 보도를 다수 추진한 바 있으며, EBS 3부작 다큐멘터리 제작 협조 등 기관 주요사업의 현장과 긍정적 사례들을 홍보하였다. 또한 신문, 뉴스뿐만 아니라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언론홍보를 적극 진행함으로써 대국민과의 접점을 높이는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2018년 언론보도 건수는 1,771건을 기록하였다. 더불어 '주 52시간 근무제', '사회적 여가' 키워드를 기반으로 홍보캠페인 영상 2건을 제작,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확산하여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였으며, 일반 대중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2019년에는 주요 이슈 및 시기별 집중 홍보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언론홍보 계획을 수립하였다.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계기로 초청한 해외기관의 소개, 유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담론을 공유하는 3회차 시리즈 기사,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워라밸' 관련 정책사업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기획보도,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사례를 발굴한 기획보도를 추진하였으며, 2019년 언론보도 건수는 2,484건으로 각종 언론매체에 정책사업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웹진 '아르떼365'를 운영, 문화예술교육 전문자료와 정책사업 안팎 소식을 보다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2004년부터 운영된 웹진은 회원 수가 매년 증가하여 2007년 23,740명에서 2018년에는 120,919명에 이르렀다. 2019년에는 128,7730명을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발송하였으며, 웹진 기사별 페이지뷰는 월 평균 46,268회에 달한다. 언론매체 지면 등의 한계로 미처 접할 수 없었던 국내 · 외 문화예술교육 정책 소식, 연구자료, 현장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취재하여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 '아르떼365'를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www.arte365.kr)으로 개편, SNS 채널과의 연동이 쉽도록 개선함으로써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고 2013년부터는 디지털 다매체 환경에 대응해 모바일에도 최적화된 웹-모바일 반응형 플랫폼을 개발하여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문화예술교육 정보에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일반 콘텐츠와 정책사업 관련 콘텐츠가 병렬적으로 구성되었던 요일별 섹션에서 정책사업 및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를 담아낼 수 있는 구성으로 재편하여 주 1회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전문 필진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전문 매체로서의 정체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2016년에는 문화예술교육 분야 관계자를

핵심 타깃으로 설정하여 주제별 기획을 강화하였으며 정기 코너를 안착시켜 다각적 사례 발굴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2017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와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냄으로써 성장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관점과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정보관과 연계한 '저자와의 만남' 행사를 마련하여, 아르떼365 신규 독자 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소통의 장을 형성하였다. 2018년에는 대내외 이슈 및 정책동향을 반영한 월별 주제를 설정하고, 해당 이슈 및 트렌드와 관련한 전문가 기획회의를 통해 교육진흥원 입장과 관점을 넘어 보다 넓은 시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흐름과 경향을 살피고자 노력했다. 특히,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중심에 수요자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토대로 기획한 수요자 좌담 시리즈는(총 3편) 문화예술교육 공급자 입장에게도 유의미한 새로운 콘텐츠를 시도, 대내외 좋은 반응을 수급하며 향후 웹진 콘텐츠의 기획방향성 모색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2019년부터 문화예술교육 각 계의 전문가들로 편집위원을 구성하여 월별 편집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였다. 편집회의를 통해 주제 및 아이템을 발굴하고 다양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면서 보다 폭넓은 문화예술교육을 탐구하고 담론 형성을 위한 질적 제고와 기사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코너명 개편 및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새롭게 독자에게 다가가는 아르떼365의 모습으로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더 나아가 정책수혜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SNS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소통형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페이스북 및 트위터, 2012년부터는 비메오, 플리커, 이슈 등 소셜 미디어 전용채널 개설, 2013년에는 교육진흥원 발간물(정책사업별 결과자료집, 사례집, 연구보고서, 홍보물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라이브러리 앱(아르떼북) 개발, 2014년에는 오픈소스 기반의 아르떼 아카이브(www.artearchive.kr)를 운영하는 등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담은 발간물 · 사진 ·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2015년에는 페이스북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소식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여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현장 소식을 대중과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2016년에는 페이스북 라이브방송, 360도 VR 등 채널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생산을 시도, 일반 대중과의 소통을 이끌어 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를 증대시켰으며, 2017년에는 기관 직원이 직접 사업을 소개하는 기획 카드뉴스, 단위사업 참여 예술가, 기획자 등의 인터뷰 영상 기획, 기관 홍보영상을 제작 · 확산하여 기관 홍보채널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2018년에는 영상 콘텐츠 기획을 강화하고자 유튜브 채널을 신규 개설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을 주제로 유관기관 및 시설 관계자 인터뷰 영상을 다수 제작, 온라인 채널을 기반으로 확산하여 높은 반응을 유도하였다. 2019년에는 온라인 매체 홍보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별 성격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을 위한 내용 구성, 정책사업 홍보를 넘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획영상 제작, EBS와의 협력으로 방송 콘텐츠를 기획 · 제작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전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

2019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학교 · 사회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초 · 중등 교원, 행정인력 등 총 5,465명을 대상으로 총 122회, 1,691시수 의 연수를 제공하였다. 특히 대상별 핵심역량을 도출하여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및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집체연수(대상별 연수, 주제특화 연수), 온 · 오프라인 연계연수 등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 지원하여 우수 프로그램 발굴과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의 중앙 기관으로서 지역센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그 밖에도 시애틀 TAT LAB, 콜롬비아 몸의학교 등 국외 예술교육 기관과의 협력연수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였다.

표 4-6-19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주요 대상 구조

구분		대상
핵심전문 인력	교육실행자	학교예술강사, 사회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및 단체 종사자
	직접매개자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및 단체 종사자
		문화예술 공공기관 교육담당자: 광역 문화재단, 기초 문화재단 담당자
		문화기반시설 교육담당자: 도서관 사서, 박물관/미술관 에듀케이터, 문예회관 교육담당자, 지방문화원 교육담당자, 문화의집 교육담당자, 생활문화센터 교육담당자 등
교육 협력자	간접매개자	교원 – 경영자(교장, 교감, 연구부장) – 교사(일반교원, 예체능교사)
		기타 교육/복지시설 교육담당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노인복지관,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평생학습관
		군/교정시설 교육담당자: 군, 교정시설/치료감호소, 소년원학교, 보호관찰소
교육 협력자	공무원	중앙정부 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타 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지방교육청 공무원

(1) 문화예술교육 대상별 역량강화 연수 운영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핵심 전문인력(학교 · 사회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행정인력), 협력인력(교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술 전문성, 일반 교수역량, 직무실행, 기본소양 및 기획전문성, 예술행정 전문성 등 대상별 문화예술교육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가치를 확산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하였다.

표 4-6-20 문화예술교육 대상별 역량강화 연수(2019)

연번	시기	과정구분		과정수 (개)	교육시간 (H)	인원 (명)	만족도 (점)
1	2.14.(목)~8.10.(토)	학교 · 사회 예술강사, 단체 기획자		47	796	1133	4.3
2	8.12.(월)~10.21.(월)	교원	학교 경영자	5	11	192	4.6
3	8.1.(목)~11.2.(토)		교원	5	79	163	4.8
4	6.13.(목)~10.25.(금)	행정인력		13	112	262	4.2
5	9.20.(금)	공무원		1	6	19	4.3
소 계				71	1,004	1,769	4.3

(2) 문화예술교육 주제특화 연수 운영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 실행자(학교 · 사회 예술강사, 기획자)를 대상으로 예술분야별 심화연수 및 기술융합 문화예술교육 연수, 교사–예술가 협력연수 등 주제 특화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육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표 4-6-21 문화예술교육 주제특화 연수(2019)

연번	시기	과정구분	과정수 (개)	교육시간 (H)	인원 (명)	만족도 (점)
1	5.12.(일)~9.24.(화)	창의적 예술교육 프로젝트	10	180	238	4.6
2	8.5.(월)~8.9.(금)	교사–예술가 협력	2	33	42	4.2
3	2.25.(월)~8.8.(목)	기술융합	2	60	36	4.5
소계			14	273	316	4.43

(3) 지역센터 및 유관기관 협력 연수

전국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원을 위해 지역센터 및 국내 · 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별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하였다. 특히 한국문화의집협회, 한국박물관협회, 콜롬비아 몸의학교, 미국 TAT Lab 예술교육 기관과 협력하는 등 지역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였다.

표 4-6-22 지역센터 및 유관기관 협력 연수(2019)

연번	시기	과정구분		과정수 (개)	교육시간 (H)	인원 (명)	만족도 (점)
1	4.17.(수)~8.30.(금)	문화기반시설 교육담당자 연수		3	37.5	121	4.1
2	2.11.(월)~10.26.(토)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협력 연수		13	166	317	4.6
3	3.14.(목)~8.10.(토)	해외전문가 연계 연수	TAT Lab	6	78	65	4.4
4	2.15.(금)~2.16.(토)		몸의학교	1	12	30	4.6
합계				23	293.5	533	4.43

(4) 온라인 및 온 · 오프라인 연계 연수

전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교육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고 스스로 역량 개발할 수 있도록 시공간을 탈피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연수콘텐츠를 개발, 온라인연수와 온 · 오프라인 연계 연수를 기획 · 운영하였다. 문화예술 정책 이해, 예술전문성, 자기정체성 및 사명감, 지역사회 특성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필요성 및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표 4-6-23 온라인 및 온 · 오프 연계 연수(2019)

연번	시기	과정구분	과정수 (개)	교육시간 (H)	인원 (명)	만족도 (점)
1	1.28.(월)~10.15.(화)	온라인 연수	10	80	2797	4.4
2	2.25.(월)~8.3.(토)	온 · 오프라인 연계 연수	4	40	50	4.6
합계			14	120	2,847	4.50

(5)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수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문화예술 전문성을 기반으로 우수한 인성과 자질을 갖춘 교육자를 배출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에 따라 도입 되었다. 2013년 3,469명, 2014년 2,117명, 2015년 2,196명, 2016년 3,023명, 2017년 2,567명, 2018년 2,316명, 2019년 2,778명으로 총 18,466명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출되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표 4-6-2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교부 현황(2019)

▶ 대상별 교부 현황

예술전공졸업자	비전공자	학교예술강사	사회예술강사	중요무형문화재	합계(명)
2,625	7	–	–	146	2,778

▶ 분야별 교부 현황

자격 분야	공예	국악	디자인	만화 애니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	중요 무형 문화재	합계 (명)
인원	152	330	147	26	218	498	39	319	47	856	146	2,778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2014년 12월 23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자격취득 부담을 줄였다.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등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의 전공학력을 인정하였으며, 기존 19과목(720시간/48학점)이었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15과목(600시간/40학점)으로 축소조정 하였으며, 교육과정 개설 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을 의무화 하였다.

2019년 교육과정 적합여부 심의(정규신청 및 이의신청 각 1회)를 통해 총 56개 대학 213개 교과목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을 진행하였다.

표 4-6-25 2019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적합여부 심의

구분	신청내역		심사내역	
	접수대학 수	신청교과목 수	인정	불인정
정규신청	40	166	44	122
이의신청	16	47	23	24
합 계	56	213	67	146

2018년에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총 8개의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을 지정(지정 기간: '18. 3. 1.~'20. 2. 29. /2년) 하여 자격취득 희망자의 원활한 교육이수를 도모하였다.

표 4-6-26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기관 지정 현황

지정번호	기관명	교육 분야
제2018-1호	대구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음악, 미술, 무용
제2018-2호	대진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음악, 미술, 디자인, 연극, 영화

지정번호	기관명	교육 분야
제2018-3호	부산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국악, 음악, 미술, 공예, 디자인, 무용,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제2018-4호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국악, 음악, 미술, 공예, 디자인, 무용
제2018-5호	인하대학교문화예술교육원	미술, 디자인,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제2018-6호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국악, 음악, 미술, 공예
제2018-7호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음악, 사진,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제2018-8호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미술, 공예, 디자인, 무용, 연극, 영화

2019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교육과정 적합여부 심의 신청 및 심사 기능 구축, 경력심사 시스템 정비, DB를 반영한 실시간 통계차트 그래프 제공, 웹 취약점 보완 등을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자격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의 프로그램 기획력과 현장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모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총 25개 팀을 선정하였다. 선정팀 대상 오리엔테이션,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 개발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 팀별 성과집을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예비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취득 후 현장진입을 지원하였다.

(6)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현장 경험을 제공하여 전문인력으로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편 전국 문화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국비와 지방비를 5:5로 매칭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 문화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기반 시설의 안정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여 시설의 사업범위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문화예술교육교육사의 현장 실무 경험을 통해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표 4-6-27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실적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시설(수)	7	7	6	6	5	6	4	4	3	6	7	8	6	6	8	3	92
교육사(명)	7	7	6	6	5	6	4	6	3	6	7	8	6	6	8	3	94

사업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온 ·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참여기관 및 문화예술교육사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이해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 및 역량 강화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또한 사업 종료 후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결과공유회를 추진하여 사업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 확산하였다.

(7)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협력 사업

2000년대부터 유네스코 등 국제기관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는 국내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보함에 있어 국제 사회와 공조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의 사례와 성과를 세계적 흐름과 이슈에 맞춰 지속적으로 공유하게 된 것에서 기인한다. 특히,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여기서 도출된 '서울어젠다:문화예술교육 발전목표'가 2011년 유네스코에서 정식으로 채택되면서 5월 넷째 주를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으로 공식 선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 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점도 크게 작용했다. 모든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자 관련법('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 전담 공공기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국가차원의 지원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점은 타 국가에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2010년 세계대회 준비단계에서부터 해외 각국 주요기관 방문 및 행사 참가를 통해 이러한 한국의 정책적인 사례와 성과를 널리 알리고 상호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2015년에는 아시아권역 내 교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문화예술교육, 지역성의 재발견, 아시아 · 전통 · 삶'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에는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가 참여하였다. 베트남 문화예술교육 ODA사업은 3년차에 접어들었고, '7월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지난 교육에 참여했던 베트남(사파지역) 청소년들이 국내 학생 및 예술가와 공동작업 후 전시회를 개최한 '한-베 문화예술교육 청소년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유네스코 옵저버토리 카자흐스탄 지역회의에 참석하며 아시아권역 내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정책, 현황,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호주, 노르웨이, 영국, 미국에서 초청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리즈 지역순회 워크숍 개최와 새롭게 시행된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해외탐방조사 사업으로 국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2016년에는 문화예술교육 주체 및 수요의 다양화, 예술의 일상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보다 발전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 · 사업현장을 이끌어가기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접근법과 실천사례를 선도적으로 탐색하고 공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전문가 국제교류 활동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시 웹진 아르떼365 콘텐츠 기획, 교육용 영상콘텐츠 제작, 정책사업별 연계를 통해 국제교류 자원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였다.

2017년에는 향후 문화예술교육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장인 국제심포지엄을 상 · 하반기에 각 개최하였다. 주제별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은 수요에 따라

서울과 지역에서 순회 개최하였으며, 매개자 해외탐방조사 지원은 탐방유형을 달리하여 보다 양질의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존 해외동향조사 외 국제사회 애드보커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갔으며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미래세대의 교류와 올림픽 정신 확산 도모를 위한 문화올림픽 사업 '1학교 1국가 문화교류'와 '아트드림캠프'가 새롭게 추진되었다. 베트남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의 경우, 5년의 성과를 마무리하며 라오까이 지역에서의 1기 프로젝트를 성료하였고, 현지 매개자를 위한 매뉴얼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뿐만 아니라 예술가, 연구자, 예술강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창조적 협업을 통한 콘텐츠 다양성 · 혁신성 확보를 위한 해외기관 협력형 예술교육 모델 개발 랩(Lab)을 운영하여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의 기반 조성에 힘썼다.

2018년에는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고 현장의 발전과 성장을 논의하는 국제심포지엄을 상 · 하반기에 각 개최하였다. 주제별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은 수요에 따라 서울과 지역에서 순회 개최하였으며, 매개자 해외탐방조사 지원은 기술 융복합, 유아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등 현장과 관련된 탐방주제 제시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존 해외동향조사 외 국제사회 애드보커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갔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아트드림캠프'는 올림픽 종료 후 유산화 사업으로 지속 운영되어 각국의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화합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베트남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의 경우, 기존 협력국인 베트남과 더불어 인도네시아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고, 현지 교육성과를 공유하는 전시 · 워크숍을 재외공관 협력으로 개최하는 등 새로운 사업 유형을 시도하여 수원국의 문화예술교육 분야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예술가, 연구자, 예술강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창조적 협업을 통한 콘텐츠 다양성 · 혁신성 확보를 위한 해외기관 협력형 예술교육 모델 개발 랩(Lab)을 운영하여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의 기반 조성에 힘썼다.

2019년에는 국내외 시의성 있는 화두를 중심으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성과 및 도전과제에 대해 적극 공유하였다. 해외전문가초청 워크숍은 50차수 운영결과 및 성과 정리를 진행하였고, 매개자 해외탐방조사 지원은 시니어 복지, 생태 등 사회이슈와 연계한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기존 추진해오던 동향조사, 영문뉴스레터, 애드보커시 활동 등을 안정적으로 진행해 나갔으며, 아시아 리서치프로젝트에서는 공통 키워드 발굴 및 리서치를 통해 아시아적 가치 탐색을 새롭게 시작해 보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 문화예술교육 ODA에서는 각 국의 인프라 연계(베트남), 현지정부기관 협력(인도네시아)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가. 해외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초청 워크숍

해외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사례 공유를 통해 국내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제시하는 '해외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초청 워크숍'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2005년부터 꾸준히 기획 · 운영해 온 전문가 네트워크 및 콘텐츠 기반의 국제협력 사업으로 볼 수 있다. 2012년부터 정례기획 프로그램으로 도입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서울 워크숍과 함께 광역

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순회 워크숍을 개최, 지역 참가자의 접근성 및 참여 기회를 높였다.

2017년에는 콜롬비아, 미국, 스코틀랜드, 영국에서 3개 단체, 12인의 전문가를 초청해 총 5회차(43차~47차)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2018년에는 호주, 스페인, 브라질, 네덜란드, 이스라엘에서 2개 단체, 15명의 전문가를 초청해 총 3회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19년에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와 연계하여 영유아 키워드 가족 워크숍(4회) 추진하였으며, 2018년까지 진행된 50차수의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운영결과 및 성과를 정리한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표 4-6-28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2019)

일시		장소	대상	프로그램명	초청전문가
5.20.(월)	10:30–12:30 14:00–16:00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가족	땅으로! 바다로! 예술의 즐거움	울프트랩
5.21.(화)	10:30–12:30 14:00–16:00	일산 EBS 사옥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소책자 사진

나. 유네스코 네트워크 프로그램(아시아–태평양 지역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 & 유니트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 예술교육관련 기관 네트워크인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의 회원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진흥원과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예술교육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옵저버토리 웹사이트 시범운영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2차 개발을 완료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1월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 주최 옵저버토리 오프라인 네트워크 회의(방콕) 및 '아시아 · 태평양 6개 국가(한국,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홍콩) 예술교육 정책 '및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분석 연구에 참여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회원기관 간 다각적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6년에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기념하여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아태 옵저버토리 회원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이슈를 공유하고 공동협력사업 추진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또한 아태 옵저버토리 웹사이트를 개편하고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와 회원기관 간 MOU를 공동 갱신하였다.

2017년에는 예술교육의 보다 심도 깊은 국제 연구추진을 위해 유네스코 연구 협력 사업 '유니트윈: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UNITWIN: Arts Education Research for Cultural Diversity)'에 동참,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 13개국 예술교육 관련 대학 및 기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식적 착수 이후 2018년에는 두 번째 연례회의와 국제컨퍼런스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개최되었다. 향후 회원기관 관계자 간 공동 연구프로젝트 추진과 유니트윈의 체계적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2019년 캐나다 예술교육 네트워크(CNAL: Canadian Network for Arts and Learning)와 연계하여 이루어진 세 번째 유니트윈 연례회의와 국제컨퍼런스는 캐나다에서 개최되었다. 국제사회 주요행사의 공식적 자리를 통해 한국의 우수 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및 행보를 알렸는데, 특히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한국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시도와 성과를 공유할 기회가 되었다. 또한 서울어젠다 10주년 기념 20년 개최 국제행사 홍보 추진을 진행하였다.

다.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정책 · 사례 및 국제교류 사업 분석 연구

국내외 문화예술교육의 현 시점을 파악하여 향후 국내 정책사업 및 국제 교류 사업에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삼고자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한국 등 총 5개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된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자료집(2012)〉 후속으로, 2014년에는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례연구(2014)〉를 진행하였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한국 외 호주, 일본이 추가된 총 7개국 대상 국가별 사회 문화예술교육 정책 현황 및 특징을 비교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연구보고서와 자료집이 제작되었다. 기존의 해외 문화예술교육 자료들이 사례 중심이었던 것에 비해, 다 국가 간 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를 위한 분석틀을 토대로 정책의 차이점에 대한 전반적 맥락 및 근거를 살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15년에는 지난 10년 동안 추진된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정책에 대한 실태와 성과를 진단, 향후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는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사업 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2015)〉를 추진하였다. 2016년에는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확대에 발판이 되어줄 성과평가 연구를 추진하였고, 2017년에는 국가별/주제별 자료 수집 · 재가공과 국제사회 담론 및 어젠다를 분석, 정리하여 국내 현장에 정보 소개하는데 주력했다. 2018년에는 국내 문화정책 이슈와 연계된 해외 사례를 조사해 대외 서비스하고, 그간 소외되었던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기관, 사례 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해외 동향조사 및 자료 번안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외 정보 교류 플랫폼 역할로써 기여하였다. 2019년에는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동향 관련 담론, 정책, 사례 등을 분석한 콘텐츠(동향조사, 영문뉴스레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관계자 대상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더불어, 2020년 주요 국제행사 개최를 대비, 아시아 리서치프로젝트를 진행, 공통 키워드 발굴 및 키워드 연계 리서치 진행(3명), 결과물 기반 아시아 문화예술교육 시리즈 포럼을

기획 · 운영함으로써 아시아의 가치 확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4-6-29 아시아 문화예술교육 시리즈 포럼(2019)

행사명	아시아포럼 시리즈(1) 과천축제 국제포럼	아시아포럼 시리즈(2) 2019 팜스살롱	아시아포럼 시리즈(3) 아시아 라운드테이블
일시/ 장소	2019. 9. 27. (금), 과천시민회관	2019. 10. 10. (목), 이음아트홀	2019. 11. 12. (화), 공공그라운드
주제	아시아 공동체/참여예술의 현황과 가능성	사회적 실천으로서 예술과 교육적 가치	동시대의 아시아 · 예술의 사회적 실천과 교육적 가치
주요 내용	아시아 예술가, 커뮤니티들이 예술참여 작업을 통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방식, 사례 공유	공연/다원예술 영역 내 사회 실천으로의 동시대 예술 개념 및 사례 공유	아시아의 예술을 통한 사회적 실천 사례 및 교육적 가치의 가능성 논의
협력기관 및 행사	2019 과천축제, (재)과천축제	팜스살롱, 예술경영지원센터	교육진흥원 기획 · 운영

라. 문화예술교육 ODA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3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본 목적인 인도주의적,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원조 수혜국 문화존중 및 쌍방향적 소통이 강화된 문화예술교육 ODA 실행을 통한 융복합 ODA 협력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국제사회 내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의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2013년 베트남 라오까이성에서 초 · 중등학생 대상 문화예술교육과 예비교사 및 사범대교수 대상 매개자 교육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다. 2014년에는 수원국인 베트남 현지 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운영되었다. 매개자 양성 교육을 사파현 초 · 중학교 교사까지 확대하였고 초 ·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베트남 현지 교과목과 연계 가능토록 구성하였다. 나아가 전년도 프로그램 참여자가 계속해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동아리 교육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참여자가 직접적이고 주체적인 체험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 2015년에는 몸의 움직임(무용)이라는 새로운 장르 시행 뿐 아니라 신규 지역으로의 확장을 포함, 베트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의 수업기획실습 심화 과정 및 공개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현지 문화를 접목한 보급형 문화예술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피교육자 간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현지로부터의 자발적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2017년에는 지난 5년간의 베트남 지역 사업 실행 1기의 마지막 진행연도로, 아동 ·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및 매개자 워크숍과 더불어 5개년 사업의 성과를 담은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3~2017년 매개자 교육 운영 사례 및 자료(교육일지, 수업 가이드 등)를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자를 위한 교육 매뉴얼〉을 제작, 현지 관계자를 대상으로 배포하여 문화예술교육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18년 신규 추진된 인도네시아 사업은 전통공예 바틱 활용 마을 커뮤니티 연계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구축해 취약계층(여성, 아동 등)의 사회진출 기반을 모색했다. 또한 베트남 사업은 라오까이성 지역 기숙학교 학생 및 매개자 대상 문학(교육연극)과 미디어아트 교육을 시행하고 재외공관 협력 결과

전시 · 워크숍을 운영하였다. 2019년에는 베트남의 경우, 라오까이성 인프라(KOICA 건립 기숙사 등) 연계 사업 운영 및 현지 사업관계자 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 미디어아트 아동 · 청소년 교육 관련 전년 대비 회차는 두 배(30→62회), 참여자 수는 세 배(30→90명)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 년 추진했던 사업을 현지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결과물을 활용한 시정부 기념품을 제작하고, 지방정부 관계자 현장 견학을 추진하는 등 사업의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표 4-6-30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2019)

교육유형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동청소년 교육	90명 대상 미디어아트, 100명 대상 문학(독서) 교육 총 122회	50명 대상 전통공예(바틱) 활용 문화예술교육 총 55회
매개자 교육	현지교사, 정부기관 관계자 등 60명 대상 총 24회	지역 리더, 코디네이터 등 20명 대상 관리자 교육 총 10회
성과공유회	교육 참여자, 정부 관계자, 현지 언론, 지역주민 등 400여명 참석 총 3회	교육 참여자, 정부 관계자, 현지 언론, 지역주민 등 300여명 참여 총 2회

마.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5년에는 '문화예술교육, 지역성의 재발견, 아시아 · 전통 · 삶'이라는 주제로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지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및 방향성을 탐구하고 아시아권역 내 예술교육의 공통 이슈, 목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한 · 중 · 일 3국의 문화예술교육 실무자(정부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7년에는 국내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국제심포지엄 상 · 하반기 개최를 정례화 하였다. 5월 세계 예술교육주간의 상징적인 프로그램으로써 개최한 국제심포지엄 "문화예술교육 신념과 상상, 기쁨을 말하다(The Purpose, Inspiration and Joy of Arts Education)"에서는 예술가의 작업과 예술적 창의성에 대한 화두를 던짐으로써 예술가가 대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예술교육과 긍정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생한 현장감과 내용을 전달하고자 EBS 특집 프로그램으로 편성, 중계하였다. 12월에는 한-영 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창의적 나이듦(Creative Ageing)'을 주제로 한영컨퍼런스를 영국문화원과 공동주최하였다.

2018년에는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고 현장의 발전과 성장을 논의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국제사회의 이슈와 흐름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본질과 의미를 성찰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과 기대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4차 산업혁명,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기술-예술 융합 등 주제별 · 분야별 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기획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정보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국제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였다. 2019년에도 국내외 주요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지식과 정보의 교류, 담론형성을 하고,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 현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영유아 ·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실천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을 통해 한-중-일 국가별 정책, 현장 사례 공유를 통해 현장중심의 내용적 국제교류 기반 구축을 추진하였다. 특히,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국제포럼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해비치아트페스티발과 연계 추진하였는데,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내용적 정보를 국내외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관계자와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4-6-31 문화예술교육 국제 심포지엄(2019)

구분	행사명	일시/장소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국제심포지엄 I	처음의 시간: 아주 어린 사람들에 대하여	5.22. /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국제심포지엄 II	끝없는 시작: 예술로 만나는 탐구자들의 이야기	5.23. / 국립현대미술관

표 4-6-32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국제포럼(2019)

구분	내용	일시/장소
사전회의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내용 및 3국 협력방안 논의	6.10. /해비치호텔
포럼	'문화기반시설의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한중일 초청단 8인 발제 및 토론)	6.11. /해비치호텔
워크숍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체험 워크숍 '수집된 물질들 (collected material)'	6.11. /휘닉스파크
필드트립	문화기반시설 탐방(빛의벙커, 유민미술관 등)	6.12. /제주일대

바. 해외 온 · 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 애드보커시 활동 및 동향 조사

해외 주요 문화예술교육 기관, 단체, 전문가와 온 ·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 확대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해외협력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고자 다양한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국제회의 참석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정보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국제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였다. 국가별 자료를 수집 · 재가공하고 국제사회 담론을 분석하여 국내외 현장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제안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표 4-6-3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제행사 및 애드보커시 활동 전개(2019)

연번	국가	시기	주요내용
1	남아프리카	2019.9.	남아프리카 문화 옵저버토리SACO) MOU 체결

2	캐나다	2019.10.	유네스코 유니트윈-캐나다 예술교육네트워크 컨퍼런스 발제, 연례회의 참석 및 2020 서울개최 계획 공유
3	독일	2019.10.	2019 세계예술교육연맹 국제 컨퍼런스 참석, 서울어젠다 이행관련 한국의 행보 발제 및 10주년 기념 2020 국제행사 계획 공유
4	프랑스	2019.11.	제40차 유네스코 총회 한국 발의 예술교육 및 문화예술교육주간 가시성 제고 결의안 채택

이 밖에도 해외 내방객 관리(미국, 영국, 아일랜드, 호주, 콜롬비아 등 총 13개국, 52명), 해외 문화예술교육 자료조사 및 관리(100여 건), 영문 뉴스레터 발행 2건(7, 12월) 및 영문홈페이지 개편 운영(eng.arte.or.kr), 유네스코 유니트윈 연감 집필 참여, 서울어젠다(Seoul Agenda) 국제사회 이행 독려 등 국제교류 지평을 확장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사.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해외탐방조사 사업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국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기획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매개자들의 국외 현장 탐방조사(5개국, 매개자 11명)를 지원하였다. 현지 활동 종료 후 참여자 및 동 분야 국내 관계자들과 함께 탐방 주제별 보완 ·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시연하는 워크숍과 결과발표 및 사업계획안을 공유하는 토론회 형식의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표 4-6-34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해외탐방조사 사업(2019)

유형	주제	탐방국	인원	주요내용
사업 기획형	사회참여적 문화예술교육	독일	3명	지역 기반의 사회참여적 문화예술교육 연구를 위한 인터랙티브 플랫폼 개발
	50+	일본	2명	초고령화 사회의 시니어 복지와 웰-엔딩
	공간	인도네시아	3명	생태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인도네시아의 대안적 문화예술교육 조사
콘텐츠 개발형	유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3명	영유아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 - 영유아를 대하는 예술가의 태도를 중심으로

6)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1) 정책연구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방향과 전략의 수립을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9년에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통계연구 및 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기초/정책 연구 등 총 7건의 연구가 진행되어 정책 방향 설정의 기틀을 제공하였다.

평가/통계연구로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국민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통계기능 강화방안 연구, 문화예술교육 전용 시설 지원사업(꿈꾸는 예술터) 평가 연구,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를 추진하였다.

2014년부터 추진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17개 시 · 도교육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협력하여 전국의 초 · 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조사의 체계는 크게 '교육과정 내의 문화예술교육(예술교과 운영 현황, 창의적체험활동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현황,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현황), '교육과정 이외의 문화예술교육(동아리 관련 문화예술교육 현황, 방과 후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현황)', 교육환경(시설 및 예산,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필요사항 등)으로 구분되며, 2019년에는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의 11,657개교 중 총 8,960개교가 참여(응답율 77%)하였다. 또한 학생, 학부모 대상 학교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온라인 패널 3,925명 참여)하여 향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개선 등 양질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연구는 국민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과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현장과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발굴 및 수립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의 대표지표(경험률 · 인지율 · 참여율 · 의향률)를 개발하여 전 국민을 대상(6,000명)으로 조사하였고, 향후 문화예술교육 정책 환경 제도 개선 및 정책 실행의 추진 근거가 될 수 있는 주요 요인과 결과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계 수집 및 제공 필요성이 대두된 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통계기능 강화방안 연구도 진행되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생산되는 통계의 생산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별로 조사되고 있는 지표에 대한 통합 관리 방안 및 통계 수집, 서비스 방법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통계정보에 대한 수집 · 생산 · 가공 · 분석 · 활용 · 관리방안을 검토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전용 시설 지원사업(꿈꾸는 예술터) 평가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전문, 전용 특화 공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자치 단체 · 운영기관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및 운영 전반의 중점방향에 부합하고, 문화예술교육에 적합한 공간 시설 기능 및 콘텐츠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과 향후 전략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다.

2017년에 시작된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는 2019년에도 생애주기별,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효과지표(핵심지표 · 특수지표)를 활용하여 진흥원 정책사업 참여자(생애주기별 10개 사업군 총 1,962명 조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생애주기별로 종합적 · 체계적으로 조사 및 데이터 축적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실증적 가치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기초/정책연구로는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기초연구와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활성화방안 연구가 추진되었다. 서울어젠다(Seoul Agenda)에 기초한 국제점검지표인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를 개발 및 활용하여 국내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이행실적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울어젠다의 국제적 선언을 주도한 국가로서 서울어젠다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국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해외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각 국가의 문화예술교육 발전 정도와 현장에 대한 국가별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였다.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기반시설 확충 정책 추진과 문화기반시설 증설 예정 및 지역 거점으로써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해짐에 따라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도 추진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과 현황, 활성화 및 인적 역량강화 요소, 지역 공동체성의 연계성을 파악하였으며, 지역공동체성으로 요인을 구분하고 이를 강화하는 형식의 모델을 구축하였다.

표 4-6-35 2019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한 정책 및 조사 연구

구분	분야	연구명	연구내용
1	평가/통계연구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11,657개교 중 총 8,960교(77%) 참여)의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분석을 실시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초 통계자료 확보 및 정책수립의 근거 마련
2	평가/통계연구	국민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국민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과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현장과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발굴 및 수립
3	평가/통계연구	교육진흥원 통계기능 강화방안 연구	교육진흥원에서 생산되는 통계의 생산 및 관리 방안 마련, 사업별로 조사되고 있는 지표에 대한 통합 관리 방안 및 통계 수집, 서비스 방법 모색 등 연도별, 단계별 중장기 실행방안 마련
4	평가/통계연구	문화예술교육 전용 시설 지원사업 꿈꾸는 예술터 평가 연구	문화예술교육 전용 시설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 운영기관의 추진역량 강화
5	평가/통계연구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2017년 개발한 생애주기별,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효과지표(핵심지표 · 특수지표)를 활용하여 진흥원 정책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2측정(2년차)
6	기초/정책연구	서울어젠다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어젠다 목표 실천 관련,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를 활용하여 국내외 이행 실적을 점검
7	기초/정책연구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관점에서 문화기반시설의 인적 역량 개발 방안 도출

(2) 사업모델 및 콘텐츠 개발

가.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새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가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중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 부족 등으로 새롭게 추진하게 되었다. 생애전환기를 맞은 50~64세 중년 대상으로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전환의 기회를 마련하고 주체적으로 문화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을 시도하였다. 해당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의 추진방향과 주요 개념, 핵심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기획 및 시범운영하였다. 2019년에는 지역 확산 모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5개 지역센터 사업 지원), 생애전환기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1개 사업 운영), 프로그램 연구개발(2건)하였다.

5개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경남, 대전, 세종, 인천, 충남)에서 시범사업을 펼쳤으며, 지역센터들은 각 지역의 특징과 중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다. 중앙–

지역 심사 · 선정 공모방식에서 중앙-지역 협력방식으로 사업운영을 시도하였고, 협의를 통한 사업 선정 및 운영 · 결정하여 지역 이 사업을 만들어가는 당사자로 주체적 입장을 가지고 자율적 사업계획 운영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각 지역의 실정 및 상황 고려한 생애전환 세대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어, 총 347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교육진흥원 직접 운영한 생애전환 대상 모델 개발 〈자연과 함께 한 달 살아보기〉, 〈품격있는 고난으로 한 달 살아보기〉의 경우,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수직관계, 일방적 교육이 아닌 배움의 본질에 보다 다가서 참여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총 60명이 참여하였다.

표 4-6-36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현황(2019)

구분	센터명	사업명	세부 프로그램 수(개)	참여자(명)
지역센터	경남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쓸만한교(敎) 시즌2	5	100
	세종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2	35
	대전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꽃보다 작가	2	23
	충남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이짝워떠	3	37
	인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8	15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자연과 함께 한달 살아보기 품격있는 고난으로 한달 살아보기	1	60
총 계			21	407

생애전환기 대상 모델 개발 및 연구는 2개의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였고 〈자연과 함께 한달 살아보기 & 품격있는 고난으로 한달 살아보기〉 2개의 프로그램은 직접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생애전환기 세대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연구 · 개발하였다.

표 4-6-37 생애전환기 대상 모델개발 및 연구(2019)

구분	프로그램명	
운영	〈자연과 함께 한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품격있는 고난으로 한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연구 · 개발	〈신중년 관계재형성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신중년 디지털에이징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나.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에는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 내 문화시설, 대학, 문화예술단체 등 다양한 자원들을 발굴하여 결합하는 협업 연구의 구조를 지역 스스로 설계하고 지역에 특화된 융 · 복합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 기획 역량을 높이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2019년에는 총 5개 지역(부산, 대구, 대전, 강원, 제주)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62개 프로그램 개발, 1,182명이 수혜를 받았다.

표 4-6-38 지역별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추진 현황(2019)

구분	지역명	주요 키워드	협력기관	연구진(그룹)	프로그램 수	수혜자수
1	부산광역시	해양기술, 과학	1	45(22)	22	215
2	대구광역시	근대 문화유산, 섬유 패션	2	42(9)	9	465
3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과학	1	10(11)	11	180
4	강원도	강원 산림 자원	2	33(16)	16	240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생태, 인문, 과학	0	21(4)	4	82
총 계			6	151(62)	62	1,182

다.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교육에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화된 지원정책이 부재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에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경제 지원'이 포함되었고, 성장단계 맞춤형 · 종합적 지원정책으로서 5개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18년에는 사업 준비단계로 문화예술교육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를 추진하여 정책 로드맵 수립 및 지원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환경이 새로운 활력을 찾고 질적 성장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였다.

2019년에는 단계별 · 주제별 · 연차별 실행과정을 마련하고, 관련된 지원정책 · 사업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그 첫 단계인 기초역량 교육단계(R&DEducation)를 운영하였다. 문화예술교육분야 사회적경제 조직(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상 · 하반기 교육과정 및 연구계획서 보완워크숍(2회)을 운영하였고, 총 41명이 참여하였다.

표 4-6-39 사회적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실행과제

로드맵	1단계(1년차)	2단계(2년차)	3단계(3~5년차)
주제영역	사회이슈 · 문제 정의/소셜 미션 수립,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비즈니스 역량 향상		
실행단계	기초역량 교육단계 (R&DEducation)	파일럿 테스트 단계 (R&DBusiness)	자생적 성장확보단계 (주치의 컨설팅)
실행과정	교육과정–실험과정	모델화과정–사업화과정	기업(창업)화 과정

(3) 문화예술교육 정책방향 수립 및 현장 의견 수렴의 장 마련

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이후 시 · 도 관계자 회의 및 지역협력위원회 운영

문화예술교육 현장 및 지역의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환경변화와 전망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의 5개년 중장기 플랜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 수립('18. 1. 11.)되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8년도에 이어 2019년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 제4항에 근거하여 종합계획에 기반한 17개 광역 단위의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이 추진되었다. 특히, 중앙-지역 간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지역협력위원회가 발족됨에 따라(2018년 1월) 이러한 논의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간 계획 수립의 방향성과 내용, 추진경과 등을 논의하였다. 이렇게 논의된 내용은 17개 시 · 도의 문화예술교육 관계자(지자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연구기관, 교육청 등)와 문체부가 참여하는 시 · 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회의를 통해 논의의 범주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단계별 논의 구조를 통해 중앙과 지역이 종합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별 환경과 특성에 맞는 지역 계획의 수립을 독려하고 추진상황을 공유할 수 있었다.

중앙의 법정계획에 따라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수립했다는 의미성이 있는 만큼, 2019년에는 지역별 계획의 전체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종합계획과 지역계획 간의 연계성, 광역도 · 광역시 간 지역 상황에 따른 내용 특성, 향후 개선점 등을 도출하였다.

표 4-6-40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발표 및 후속 추진 현황(2018~2019)

추진사항	내용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발표 ('18.1.11.)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에 따라 향후 5년(2018-2022)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18년 시행계획 수립 ('18.2.~3.)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 · 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회의 개최 ('18.2.~11., 총 3회)	• 17개 시 · 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교육청, 지역연구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계획의 공유,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안내 및 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회의 개최 - 1차: 2.28.(수) 국립중앙박물관(서울), 59명 참석, 종합계획 소개 및 지역별 계획 수립 안내 - 2차: 9.5.(수) 국립중앙박물관(서울), 62명 참석, 계획 수립 추진현황 공유 및 사례 발표 - 3차: 11.16.(금) 국립중앙박물관(서울), 63명 참석, 계획 수립 추진현황 공유 및 독려
지역협력위원회를 통한 지역계획 수립 독려 ('18.1.~10., 총 6회)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거점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광역 시 · 도의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과정에 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협력위원회를 통한 의견교류 및 추진 독려 - 1차: 1.9.(화) / 2차: 2.7.(수) / 3차: 4.25.(수) / 4차: 7.11.(수) / 5차: 9.5.(수) / 6차: 10.31.(수) ※ 지역협력위원회: 지역화 기조에 따라 중앙-지역 간 문화예술교육 정책 협의 · 조정을 위해 구성('18.1.9.) - (구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및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대표를 공동 위원장으로, 문체부 담당 사무관, 교육진흥원 본부장, 17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을 위원으로 구성

추진사항	내용
17개 시 · 도 지역문화예술 교육계획 수립 추진 ('18.3.~'19.4.)	• '19년 4월, 17개 시 · 도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완료 • 지역문화예술교육 계획 분석 연구 실시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항목과의 비교 분석,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과의 비교 분석, 광역도–광역시 간 비교 분석 등
'19년 시행계획 수립 ('19.2.~4.)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 · 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회의 개최 ('19.3.~11., 총 3회)	• 17개 시 · 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교육청, 지역연구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계획의 공유,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안내 및 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회의 개최 – 1차 : 3.29.(금) 국립중앙박물관(서울), 60여명 참석, 계획수립 후속조치 및 사업 계획 논의 – 2차 : 5.31.(금), 국립중앙박물관(서울), 64명 참석, 지역계획 분석 결과 공유,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문화파출소 사업 등 논의 – 3차 : 11.22.(금) 국립중앙박물관(서울), 80여명 참석,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현황 공유, '20년도 사업계획 논의 등
지역협력위원회 추진 ('19.1.~11., 총 5회)	• 17개 시 · 도문화예술교육 계획 관련 공유,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지원사업' 추진경과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 정보공유 및 논의 – 1차 : 1.31.(목) / 2차 : 3.29.(금) / 3차 : 6.20.(목)~21.(금) / 4차 : 9.20.(금) / 5차 : 11.22.(금)

나.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공유 · 확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현장 전문가 · 학계 등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론화 과정을 운영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영역별 총 5개 분과(총괄/담론, 학교, 사회, 기반, 창의성 · 융합)에 총 30인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분과별 회의, 통합워크숍, 분과별 공론화 원탁회의 등 약 45회 논의의 장을 펼쳤다. 이를 통해 미래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정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논의하였다.

표 4-6-41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 구성 · 운영 현황(2019)

분과명	논의 내용	추진횟수 (분과/원탁회의 등)
총괄 · 담론 분과	• 문화예술교육 담론(현재적 의미, 필요성, 사회적 가치 등) 논의 등 • 분과 논의 종합 및 실행기획 총괄	11회
학교분과	•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차원의 전체 포트폴리오 마련 및 추진체계 개편 • 학교교육 정책과 지역 문화정책 연계 협업 기반의 학교예술교육 추진 방향, 지속적 · 장기적 실행계획 수립	8회
사회분과	•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 실행구조 설계, 사업계획 구체화 •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다양한 대상 지원 기획 설계, 확대 방안(일반, 특수 · 소외계층 등)	10회
기반분과	• 전문인력 양성 · 연수 · 지원관리, 연구 · 통계 등 기반 정책 실행 방안 중앙기관 역할 구체화 · 확장	7회
창의성 · 융합분과	• 학교 · 사회 문화예술교육 통합 관점의 미래지향적 융 · 복합 및 창의예술 콘텐츠 개발 등	9회

다.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세미나(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연계)

문화예술교육 분야 유관 학회의 세미나 개최 및 학회 간 교류를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학문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영유아 ·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혹은 자율주제를 세미나 주제로 제시하였고, 총 13개 학회에서 각 학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술 세미나를 기획하고 추진하였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기 등 다양한 예술분야를 대표하는 학회에서 참여하여 각 학계에서 영유아 · 어린이와 현 사회를 바라보는 고유한 관점을 보여줌으로서, 예술교육에 대한 보다 넓고 전문적인 시각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회원, 학회 관계자, 문화예술교육자, 예술단체, 예술가, 대학(원)생 및 일반인 등 총 749명이 다양하게 참석하였다.

* 참여학회 :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사)한국영화교육학회,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 한국무용과학회, 한국연기예술학회,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한국예술교육학회, 한국교육연극학회, 한국음악교육공학회, 한국음악교육학회, 한국문화교육학회

표 4-6-42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세미나 지원현황(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연계)

구분	일시	장소	학회명	세미나 주제
1	5.21.(화) 10:30–14:30	성수동 COW&DOG	대한무용/ 동작심리치료학회	무용/동작 신체 중심 예술교육이 영유아의 인지 · 정서 ·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발표 및 토론
2	5.21.(화) 17:00–20:10	중앙대학교 법학관 대강당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영유아 · 아동 대상 피아노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효과적인 피아노 교육을 위한 심리학적 접근에 대한 논문발표 및 토론
3	5.23.(목) 14:00–17:20	수원대 미래혁신관 세미나실	(사)한국영화교육학회	어린이 대상 영화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문발표 및 토론
4	5.24.(금) 19:00–21:00	연세대 음악대학 오페라실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	연주와 이야기 분석을 통한 음악교육의 대중화에 대한 발표: 연주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5	5.25.(토) 10:20–12:20	대학로 예술가의 집	한국무용과학회	영유아, 어린이 대상 무용학 연구의 영역 및 지평 확대와 연구확산을 위한 논문발표 및 토론
6	5.25.(토) 11:00–14:00	서울연극센터 아카데미홀	한국연기예술학회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예술의 새로운 역할을 탐색하기 위한 관련 논문 발표 및 토론
7	5.25.(토) 10:00–14:00	동국대 문화관 2층 PBL실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현황 점검, 개념 탐구, 정책 제안과 관련된 논문발표 및 토론
8	5.25.(토) 11:00–14:00	동국대 사회과학관 L501	한국예술교육학회	유아 및 어린이 예술교육의 현황에 대한 고찰, 음악 · 미술교육의 다양한 접근 방법 및 방향 모색과 관련된 논문발표 및 토론
9	5.25.(토) 13:00–17:00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연습실 다목적실	한국교육연극학회	발달론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영유아 교육현장의 실태와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논문발표 및 토론

구분	일시	장소	학회명	세미나 주제
10	5.25.(토) 14:00–18:00	중앙대 공연예술원 401호	한국연극교육학회	예술현장의 실제작업과 실기교육의 다양한 방법론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MFA논문 현식 개발에 대한 논문발표 및 토론
11	5.25.(토) 13:30–18:00	서울교대 인문관 203호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공학의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고, 가치와 지향에 대해 상고하기 위한 논문발표 및 토론
12	5.25.(토) 14:00–17:00	동국대 사회과학관 L501	한국음악교육학회	영유아 · 어린이에게 적합한 음악교육 연구에 대한 고찰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논문발표 및 토론
13	5.25.(토) 13:30–17:40	한예종 대학로캠퍼스 강당	한국문화교육학회	학교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지역사회 연계 현황에 대한 사례연구 및 학교 ·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가능성과 방향 탐색에 대한 논문발표 및 토론

라. 문화예술교육 콜로퀴엄

문화예술교육 콜로퀴엄은 총 4회 걸쳐 진행되었으며, 우리사회의 주요이슈를 문화예술에 접목하여 문화예술교육 핵심의제(Core agenda)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미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단순 정보전달에서 벗어난 심도 깊은 쟁점 도출, 장기적 관점에서 담론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소규모 열린 형태와 집중 토론 방식의 콜로퀴엄을 운영하였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 · 단체 종사자, 예술단체, 예술강사, 예술가, 대학(원)생 및 일반인 등 총 496명이 참석하였다.

표 4-6-43 문화예술교육 콜로퀴엄 개최 현황(2019)

구분	주제	논의내용	일자	장소	홍보물
1	성인(5060) 문화예술교육	5060 세대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5.28. (화)	포레스트 구구	
2	주52시간 근무제와 문화예술교육	소비 중심 여가활동이 아닌 삶의 시간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7.30. (화)	삼청동 블루웍스	
3	문화예술교육 공간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 운영 과정의 철학과 가치	10.25. (금)	광주 청소년삶 디자인센터	
4	문화예술교육 효과	문화예술교육 효과 연구 관련 양적, 질적 연구방법의 합리적 접근방향	12.6. (금)	공공그라운드 001 테라스	

마. 문화예술교육 포럼

생애전환기를 맞은 신중년(50~64세)이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전환의 기회를 맞이하여 주체적인 문화적 삶을 살아가도록,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으로 시도된 신중년을 위한 지원사업 결과(지역센터 5개(경남, 인천, 대전, 세종, 전남), 진흥원 기획사업 1개) 전시 및 결과공유와 생애전환 방향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생애전환의 시기에 왜 문화예술을 만나야 하는지 문화예술의 본질이 신중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문화예술행위의 가치를 논의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아상을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어떠해야하는지, 성인으로서 자기 주도성과 결정권을 중시하는 신중년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논의하였다. 생애전환 사업 및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일반인 등 총 102명이 참석하였다.

문화예술교육 포럼은 '서울어젠다 10년, 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서울어젠다(Seoul Agenda)의 이행 점검 연구 결과와 서울어젠다 3대 예술교육 발전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서울어젠다에 대한 인식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서울어젠다의 3대 발전목표인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질적 향상성, 사회적 가치 확산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통하여 미래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구체적 담론을 형성하였다.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일반인 총 162명이 참석하였고, 국내 문화예술교육 현장 및 학계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서울어젠다에 대한 화두를 던짐으로써 서울어젠다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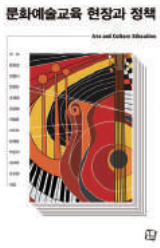
표 4-6-44 문화예술교육 포럼(2019)

내용	
• 주제: 서울어젠다 10년, 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 목적: 서울어젠다에 담겨있는 목표, 전략, 방안 등과 연계된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연구 결과공유를 통하여 미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 • 일시: 12. 17.(화) 14:00~18:00 • 장소: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 • 참석: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일반인 총 162명	

(4) 문화예술교육 총서 발간

2006년부터 발간해 온 문화예술교육 총서(아르떼 라이브러리) 사업은 일반 국민 및 관계자에게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추진해오고 있다. 2019년에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미출판된 연구물에 대해 출판지원을 통해 현장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분야,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서적들을 발간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기획하여 총 3종을 출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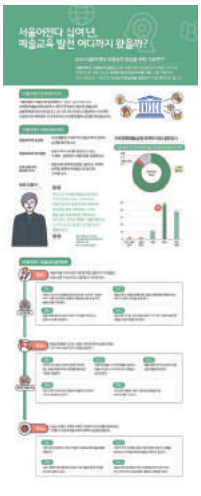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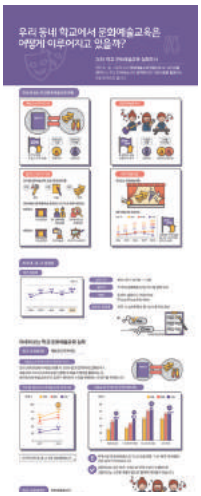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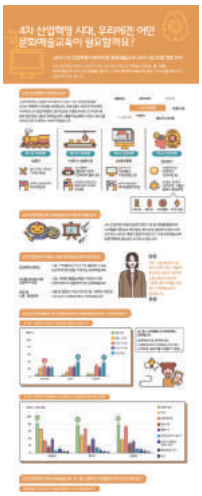
표 4-6-45 문화예술교육 총서 발간 현황(2019)

구분	도서명 / 사진		도서내용
1	문화예술교육 자원과 협력		• 추진방법 : 기 발간된 진흥원 연구결과물 재구성 및 출판 • 주요내용 :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상황에서 실천적으로 자원과 협력활동,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론과 사례를 들어 소개함 • 주요성과 :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관리자들의 지역사회 맥락 기반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관리 역량 강화에 대한 기반 마련
2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정책		• 추진방법 : 기 발간된 진흥원 연구결과물 재구성 및 출판 • 주요내용 :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현장가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철학과 이론, 정책의 변화, 현장에 대하여 소개함 • 주요성과 : 문화예술교육 입문자, 현장가, 정책 관계자 모두의 문화예술교육 문해력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한 기반 마련
3	디지털 시대의 메이커 교육		• 추진방법 : 외부 연구물 공모 및 선정, 출판 • 주요내용 : 우리사회에서의 메이커 문화의 의의를 되짚어보고, 문화예술 창작사의 시점에서 다양한 메이커 운동의 양상을 소개함 • 주요성과 : 국내 예술 및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메이커 운동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의 메이커 교육에 대하여 재고해보는 기회를 제공함

(5) 문화예술교육 연구 인포그래픽 제작

문화예술교육 연구 인포그래픽은 2018년 연구물의 인포그래픽화를 통해 전문적인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용의하게 하고 나아가 연구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2018년에 진행된 연구 5건을 기반으로 인포그래픽 10건이 제작(책자형 5건, 카드뉴스형 5건)되었고, 진흥원 웹진(아르떼 365)을 통하여 카드뉴스형의 인포그래픽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4-6-46 문화예술교육 연구 인포그래픽(2019)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서울어젠다 10년, 예술교육 발전 어디까지 왔을까?	우리 동네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에게 어떤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할까요?	신중년을 위한 디지털에이징 프로그램, 왜 필요할까요?
				

3. 주요 기관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 조직현황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은 2004년 11월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거쳐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2005년 2월에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종합 규정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6년 8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연구를 총괄 ·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지위와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받았다.

2005년 설립 이후 매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증가하고 정책사업의 성과가 높아지면서 사업의 양적 · 질적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 현재 2실(기획협력실, 법무지원실), 4본부(경영지원본부, 교육기반본부, 청소년교육본부, 시민교육본부), 8팀(경영관리팀, 총무회계팀, 교육R&D팀, 국제협력팀, 학교교육팀, 아동청소년교육팀, 시민교육팀, 교육나눔팀), 2센터(지식정보센터, 교육연수센터)의 조직 체계 하에서 효율적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 예산총액은 1,276억 원이며, 학교 문화예술교육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추진,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역 및 관계시설 · 기관 간 협력망 구축,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예술강사 · 문화행정인력 연수 및 아르떼 아카데미 운영,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등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조성,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연구 및 조사,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교육 통합정보 서비스 제공, 문화예술교육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표 4-6-4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혁**

2005. 02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 제1대 김주호 원장 취임
2005. 1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 공포
2006. 08	특수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법 10조)
2006. 1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교육기관」 지정(법제28조)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아카데미' 시범운영 실시
2008. 07	제2대 이대영 원장 취임 /구로구 신청사 이전
2008. 12	본부 체제 조직 확장(1본부 6팀)
2010. 05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공동주관
2011. 07	제3대 박재은 원장 취임
2011. 10	조직 확대 개편(2본부 1실 7팀 1센터)
2012. 05	제1회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개최
2012. 08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업무 위탁(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1조)
2013. 05	제2회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행사개최
2013. 08	청사 확대 이전(마포구) 및 조직 개편(3본부 1실 11팀)
2014. 05	2014 제3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개최
2014. 08	제4대 주성혜 원장 취임
2015. 05	2015 제4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개최
2016. 02	조직 재정비(1처 3본부 1사업단 1센터 10팀)
2016. 04	청사 확대 이전(마포구 상암동)
2016. 05	2016 제5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개최
2017. 05	2017 제6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개최
2017. 11	제5대 양현미 원장 취임
2018. 02	조직 재정비(2실 2센터 8팀)
2018. 05	2018 제7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개최
2018. 09	기관 전략계획('18~'22) 수립 및 지역협력위원회 발족
2019. 03	제6대 이규석 원장 취임
2019. 05	2019 제8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개최
2019. 12	교원 대상 문화예술교육 전문연수기관 지정(교육부 종합교육연수원 인가)

(2) 주요성과

표 4-6-4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추진 성과(2019)

구분	내용
1. 학교문화 예술교육 지원	▶ 초 · 중 · 고등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확대 • 국악 등 8개 분야 전국 8,481개교 예술강사 5,159명 지원, 142만 시수 교육 지원 ▶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 지원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환경 조성 및 집중지원으로 지역 거점학교 육성 – 44개교를 '예술꽃 씨앗학교'로 지정, 운영지원 ※ '16년 선정 13개교 4년차 지원('16~'19), '17년 선정 8개교 3년차 지원('17~'20), '18년 선정 8개교 2년차 지원('18~'21), '19년 선정 15개교 1년차 지원('19~'22) 총 44개교(5,079명 참여) ▶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 생애초기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로 유아의 문화예술 향유능력 및 사회성 · 창의성 발달을 위해 지역별 문화시설 및 자원을 토대로 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간 유아 대상 문화예술 수혜격차 해소 및 경험 확대 (총 58개 문화시설 프로그램, 918개 영유아교육기관, 수혜자 20,521명 참여) ▶ 학교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 고3 · 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진학 · 사회진출 등 진로 고민으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 및 문화예술을 통한 소양 함양 기회 제공(총 60회 프로그램 운영, 5,705명 참여)
2. 사회문화 예술교육 사업	▶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아동 · 노인 · 장애인 복지기관 17개 분야 588개시설 지원 • 노인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운영 및 노인분야 청춘제, 장애인 분야 예울림 페스티벌 개최 ▶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 육 · 해 · 공군 225개 부대, 교정시설 · 소년원학교, 치료감호소 대상 82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산업단지 30개, 청소년수련시설 21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각종 범죄 피해자, 치매 위험이 있는 노인, 난치병환자, 감정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 심리적 활동 기반에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 예술적 기법을 적용한 소규모 그룹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총 114개 시설, 120개 프로그램, 1,320명 참여)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 2012년도부터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라 학교 밖 토요일 아동 · 청소년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7개 시 · 도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은 물론, 국 · 공립기관, 미술관 등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전국 602개 프로그램 운영, 총 50,592명참여) ▶ 문화예술교육 기획 프로그램 • 경찰청 협력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예술향유 저변확대를 위해 전국 치안센터 활용, 지역주민 대상 자율 문화예술 활동, 예술치유 프로그램 등 문화파출소 지원사업 운영(전국 9개 시설, 270개 프로그램 운영, 총 5,702명 참여) • 문화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이 지역 예술가와 함께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운영(8개 프로그램, 150회차 운영, 총 2,461명 참여) •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및 콘텐츠 제작 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영상미디어 지원사업 운영(12개 시설, 16개 프로그램 운영, 227명 참여)

구분	내용
	▶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관리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사업 및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통합에 따라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운영단체 공모 · 선정 과정 지원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사업 : 447개 단체, 27,919명 참여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598개 단체, 15,798명 참여 • 자체 기획 프로그램 : 47개 시설, 2,191명 참여 ※ 2019년부터는 17개 시 · 도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하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사업' 및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으로 통합 개편되어 추진됨 ▶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사업 운영 지원 • 10개 지역 동아리 1,128개, 강사 1,038명, 매개자(코디네이터) 101명 지원 • 사업 관계자(동아리 구성원 · 강사 · 코디네이터) 및 담당자 대상 컨설팅 운영(10개 운영기관, 총 23회) • 사업 관계자 대상 사업 만족도 조사 및 FGI 조사 수행 지원 • 지역 운영기관 실무자 및 지자체 관계자 대상 워크숍 운영(4회) ▶ 소외 아동 ·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지원 • 46개 지역거점기관(문화재단 및 문화예술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 아동 · 청소년 2,489여명 참여 • 자립거점 기획사업(16개소), 권역별 합동캠프 및 공연(3개 권역), 동계캠프(7개소) 추진 • 국제협력사업(LA 필하모닉 산하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계 국제 음악 캠프) 및 지식공유포럼 개최, 공통 레퍼토리 개발, 아동변화연구, 출판물 발간 등 추진
3. 2019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개최	▶ 제 8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개최 •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 개최(5.20.~25.,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전국 문화기반 시설 등 / 13,845명 참여, 언론보도 120건) ※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5월 넷째 주를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선포
4. 문화예술 교육전문인력 양성 · 연수	▶ 문화예술교육 대상별 연수 •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강사, 기획자 대상 주제별 연수 추진(총 47회, 796시간, 1,133명 교육) • 행정인력 대상 연수 추진(총 13회, 112시간, 262명 교육) • 교원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 추진(총 10회, 90시간, 355명 교육) • 공무원 대상 연수 추진(총 1회, 6시간, 19명 교육) ▶ 문화예술교육 주제특화 연수 • 창의적 예술교육 프로젝트 연수 추진(총 10회, 180시간, 238명 교육) • 기술융합 문화예술교육 연수 추진(총 2회, 60시간, 36명 교육) • 교사–예술가 협력 연수 추진(총 2회, 33시간, 42명 교육) ▶ 지역센터 및 유관기관 협력 연수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협력 연수 추진(총 13회, 166시간, 317명 교육) • 문화기반시설교육담당자 대상 연수 추진(총 3회, 37.5시간, 121명 교육) • 해외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연계 연수 추진(총 7회, 90시간, 95명 교육) ▶ 온라인 및 온 · 오프라인 연계 연수 • 온라인 연수 추진(총 10회, 80시간, 2,797명 교육) • 온 · 오프라인 연계 연수 추진(총 4회, 40시간, 50명 교육)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 운영(총 4회 추진), 자격요건 심사 · 자격증발급업무(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2,778건 발급), 교육기관별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56개 학교 213개 교과목) 등 업무 추진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운영기반 마련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시스템 개선을 통한 교육과정 적합여부 신청 및 심의 기능 탑재, 경력심사 기능 정비 등 • 예비문화예술교육사 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공모 추진(총 25개팀 선정) ▶ 문화예술교육 인턴십 지원사업 • 지역별 총 92개소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교육사 94명 사업 참여 • 사업 참여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총 7회, 113명 참여) • 결과분석 연구 및 결과공유회 개최 추진(12.20. / 59명 참여)

구분	내용
5. 문화예술교육 기반조성	▶ 문화예술교육 웹진 '아르떼 365' 운영 • 지식공유 및 소통 확대를 위해 웹진 '아르떼 365'(연간 콘텐츠 192건, 뉴스레터 발송자 128,730명, 페이지뷰 521,003회) 모바일 페이지, SNS, 뉴스레터 운영 ▶ '아르떼 라이브러리' 운영 • 종합정보서비스 'arte 라이브러리' 구축 및 운영('19.3.~, 월 평균 이용자 약 2~3만 명) ▶ 해외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확대 및 교류 강화 • 해외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초청 워크숍 기획 · 운영(4회) 및 결과 정리(50차수) • 매개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 예술강사 해외 5개국 탐방조사 지원 (11인/4개팀) • 국제행사 참석 및 발제(총 2회) 및 국제심포지엄(5월, 총 2 회),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국제포럼 개최(6월) • 아시아 공동리서치 프로젝트 운영 및 아시아 문화예술교육 포럼시리즈(3회) 운영 • 우리원–남아프리카 문화 옵저버토리(SACO) 업무협약 체결(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만델라대학/9월) • 유네스코 연구 협력체 유니트윈 회원기관 연례회의 참석(9월) 및 기관 영문 뉴스레터 제작 및 발행(2회), 해외 문화예술교육 자료 조사 및 관리(100여건), 해외 내방객 면담(13개국/52명) ▶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 베트남 라오까이성 아동 · 청소년 및 매개자 대상 문학(독서), 미디어아트 2개 장르 문화예술교육 실시 (4개 프로그램, 250명) • 인도네시아 치르본시 취약계층(아동 · 청소년, 여성 등) 및 매개자 대상 바틱(공예) 문화예술교육 실시 (2개 프로그램, 70명) • 성과공유회 (베트남 3회/인도네시아 2회, 총 700여명 참여) 운영
6. 문화예술 교육 연구개발	▶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 추진(총 7건)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기초 및 정책 연구(총 2건) • 문화예술교육 평가/통계 연구(총 5건) ▶ 사업모델 및 콘텐츠 개발 •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사업지원 및 운영 22건/연구개발 2건) •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총 5개 지역/62개 프로그램 개발) •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상 · 하반기 운영, 41명 참여) ▶ 연구 서비스화 및 의견 교류 •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 유관학회 세미나(총 13개 학회, 749명 참여) • 문화예술교육 콜로퀴엄(총 4회, 총 496명 참여) • 문화예술교육 포럼 개최(총 1회, 총 162명 참여) • 문화예술교육 총서 발간(총 3종) • 문화예술교육 연구 인포그래픽 제작(총 5건)
7.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구축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협력 · 소통체계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광역센터)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시 · 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회의 개최(총 3회) • 중앙–지역 간 문화예술교육 정책 협의를 위한 지역협력위원회 운영(총 5회) • 문화예술교육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인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 운영 (총 5개분과, 총괄담론/학교/사회/기반/창의성 · 융합분과 총 45회) • 정책 분야 · 대상 · 시설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문화예술/시민분과/문화시설분과 유관기관 24개 기관 참여, 총 3회 정기협의회 운영)

5 장

지역문화정책

제1절 지역문화정책 일반
제2절 도서관정책
제3절 박물관 · 미술관 정책
제4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정책

05 지역문화정책

제1절 지역문화정책 일반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중소도시 중심으로 지방의 쇠퇴 우려가 높아지고 최근 주 52시간 근로제 본격 도입에 따른 개인 삶의 질을 우선하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어, 지역의 활력 증진 및 일상 속 문화여가 확대를 위한 지역문화정책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간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발굴 · 육성하는 한편, 지역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제반 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2014년 1월 28일)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 및 균형발전을 위한 법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법 시행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2015년 수립하였다. 동 기본계획은 지역문화 균형발전 및 특성화, 생활문화 활성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문화도시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각 시 · 도에서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19년에는 제1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제2차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지역현장의 폭넓은 의견청취와 공론화를 통한 상향식 계획 수립의 전형을 창출하기 위해 10회의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지역문화 전문가와 유관기관 연구원 등 24명이 참여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기획단을 운영하여, 계획의 비전과 주요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은 2020년 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문화 균형발전과 지역문화 자생력 제고 등을 위해 추진한 대표적인 주요정책 성과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적인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과 함께 지역 현황파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 정책 수립을 위한 현황파악 및 지역별 문화수준 진단을 위해 '지역문화 실태조사'를 실시(2014년, 2016년)후, 지역간 문화여건을 비교 · 분석할 수 있는 지역문화지수를 발표하였다. 2018년에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총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문화 발전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2017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를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문화 실태조사 및 종합지수'를 2019년 3월 발표하였다.

둘째, 문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환경과 문화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모델 개발을 목표로 지역거점별로 특성 있고 다양한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하였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도시형 33곳, 마을형 17곳)과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전주, 경주, 공주 · 부여)을 추진하여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브랜드 구축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한편 그동안 문화특화지역 사업 및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 등 중앙 ·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한 도시문화 관련 사업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문화도시 7곳(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 부산 영도구, 제주 서귀포시)을 지정하였으며, 제2차 문화도시 예비사업(12곳)을 추진 중에 있다.

셋째, 각 지역이 간직한 역사를 기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적 관점의 지역 재생을 지원하였다. 18년 신규로 추진한 '문화적 도시재생'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18년 4곳에서 2019년 19곳으로 확대 지원하였으며,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간 상승효과 창출은 물론 문화를 통한 쇠퇴지역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였다.

넷째, 전국 230개의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진흥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신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생활 공감 문화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민의 일상적 ·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공간을 탈바꿈하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이 그 대표적 정책이다.

다섯째,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지역문화 행정가와 민간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전문적 교육프로그램 진행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지역문화시설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역문화 관계자 간의 정책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문화의 진흥을 도모하였다.

1) 지역문화 자생력 제고 및 역량 강화

(1) 지역문화진흥 기반 구축

가. 지역문화진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제공

①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은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문화기본권을 신장시키고자 2003년부터

발간되고 있다. 총람에 수록된 문화기반시설별 운영현황은 문화기반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 법인 · 개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은 시설 개소수와 더불어 아래와 같이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록된 통계의 기준 시점은 2019.1.1.기준이다.

표 5-1-1 **전국 문화기반시설 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시 · 도별	총계	국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집
지역1	서울	399	2	173	128	45	21	25	5
	부산	107	–	43	30	8	11	15	–
	대구	80	–	41	16	4	11	8	–
	인천	104	–	50	28	5	10	10	1
	광주	63	–	23	12	12	7	5	4
	대전	55	–	24	14	5	4	5	3
	울산	43	–	19	10	–	5	5	4
	세종	19	–	10	7	–	1	1	–
	경기	537	1	264	136	52	44	31	9
	강원	215	–	57	95	18	21	18	6
	충북	130	–	45	44	11	12	11	7
	충남	166	–	62	55	9	18	16	6
	전북	158	–	58	41	16	17	14	12
	전남	206	–	69	58	32	21	22	4
	경북	201	–	65	69	11	27	23	6
	경남	207	–	71	70	9	22	20	15
	제주	135	–	22	68	21	3	2	19
	총계	2,825	3	1,096	881	258	255	231	101
지역2	수도권	1,040(36.8%)	3	487	292	102	75	66	15
	지방	1,785(63.2%)	–	609	589	156	180	165	86
	계	2,825(100%)	3	1,096	881	258	255	231	101

- 도서관: 시설규모, 소장자료, 직원현황, 운영예산, 이용현황 등
- 박물관: 시설현황, 소장자료, 프로그램, 인력현황 등
- 미술관: 인력현황, 시설현황, 자료현황, 프로그램 등
- 문예회관: 공연장 및 전시장 규모, 관람자 수 포함 운영실적 등
- 지방문화원: 시설현황, 프로그램, 참여자 수 등

- 문화의 집: 운영시설 현황, 프로그램, 동아리 현황, 운영예산 등
- 참고자료: 지역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개관 현황
- 문화시설의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도권 3개 시 · 도에 문화시설의 36.8%가 분포

② 지역문화실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 발전 현황 및 실태 파악을 통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문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2012년도 '지역문화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를 시작으로 2013년도에는 '지역문화 지표 지수화를 통한 비교분석' 연구를 실시하였다.

2014년에는 선행연구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문화지표의 범위와 내용을 재설정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표 조사를 위해 DB 구축방안을 연구하였으며 2015년에는 재설정된 지역문화지표를 토대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문화 실태조사를 실시, 2016년도 6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2014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는 문화 정책, 문화 자원, 문화 활동, 문화 향유 등 4대 대분류 이하 총 27개의 지역문화지표를 적용하여,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시 등 총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지표별 자료로는 정부 유관기관에서 발행한 '통계자료'와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였다.

2018년에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총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분야 공공서비스 공급 현황 파악 등을 위해 '2017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를 착수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문화 종합지수'를 2019년 3월 발표하였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해 추진된 이번 조사는 산개되어 있는 지역문화 관련 통계와 행정자료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정리했고, 각 지역의 문화환경 수준을 분야별로 지수화해 도시와 농촌 지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표 5-1-2 '2017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 주요 지표 내용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문화 정책	정책 사업	1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기획 발주 문화관련 사업 선정 건 수(2017년 당해)*
		2	전체 문화 · 예술사업 중 기초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비율(2017년 당해)*
	정책 환경	3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개수(2017년 현재)*
		4	문화관련 조례 제정 건 수(2017년 현재)*
	문화 예산	5	기준연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2017년 당해)
		6	인구 1명당 문화관련 예산액(2017년 당해)
		7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여부(2017년 현재)*
문화 자원	문화 유산	8	문화유산 보존 관련 조례 제정 유무(2017년 현재)*
		9	전체 문화 관련 예산 대비 문화유산보존 · 관리 예산 비율(2017년 당해)*
	기반 시설	10	인구 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2017년 현재)*
		11	인구 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2017년 현재)
		12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비율(2017년 현재)
		13	공연장 · 전시장 · 공공도서관 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율(2017년 현재)*
	자원 활용	14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일 수(2017년 당해)*
		15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2017년 당해)
		16	기초자치단체 지원 마을축제 건 수(2017년 당해)*
문화 활동	활동 조직	17	지역문화예술법인 · 단체 수(2017년 현재)
		18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수(2017년 현재)
	활동 인력	19	인구 만 명당 등록예술인 수(2017년 현재)
		20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2017년 현재)*
		21	인구 만 명당 문화예술교육사 수(2017년 현재)*
		22	문화관광해설사 수(2017년 현재)*
		23	법정사서직원 확보율(2017년 당해)
문화 향유	지역 주민	24	인구 만 명당 자체 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 수(2017년 당해)*
		25	'문화가 있는 날' 기초자치단체 기획사업 건 수(2017년 당해)*
	소외 계층	26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및 카드 발급률(2017년 당해)
		27	장애인 · 노인 · 저소득자 · 위기청소년 · 교정시설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2017년 당해)*
		28	다문화 · 새터민 · 성소수자 · 이주노동자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2017년 당해)*

*표기가 되어있는 지표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문화 DB 입력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지표임

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진흥의 핵심기반으로 인력육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지역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의 열악한 활동여건과 재교육 기회 부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문화이모작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지역문화 진흥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문화전문인력(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양성기관 지정 · 지원(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 및 교육과 일자리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문화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처음 실시하여, 2년 주기로 7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지역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2019~2020 지역주관기관으로 강원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세종시문화재단, 울산문화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지정하였다. 지정된 지역기관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5천만 원 내외의 국고를 지원하였다. 교육과정은 지역기관에서 실시하는 총 5개월간의 일정으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강좌형 이론교육, 실무 워크숍, 현장 사례연구 등 지역특색에 맞는 '심화교육과정'과 심화교육과정의 우수 교육생 중 20여명을 선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으로 우수한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출을 목표로 '문화리더 양성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94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교육생 만족도 점수도 86.2점(2019 기준)으로 높게 나오는 등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문화이모작 사업은 농어촌 마을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문화를 기획하는 사람들을 양성하여 농어촌마을에 문화의 씨앗을 뿌리고자 2010년부터 운영한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마을 단위 예비 문화리더를 발굴 · 모집하여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실습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성과공유회를 통해 사업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561명의 수료생 배출과 158개의 현장실습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문화이모작 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생력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문화인력 양성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 5-1-3 연도별 지역문화 양성 및 배치 지원현황(2015~2019)

(단위: 백만원, 명, %)

연도	예산액(일반회계)			교육 인원	수료 인원	수료 비율	만족도 점수	배치기관 및 인원 (기관별 1인)	수료인원 중 배치인원
	양성	배치	계						
2015	480	–	480	229	157	69	85.00	–	–
2016	480	–	480	193	156	81	88.50	–	–
2017	480	1,000	1,480	231	203	88	84.09	35	12
2018	528	1,000	1,528	260	214	82	86.00	40	12
2019	528	1,000	1,528	269	217	81	86.21	46	5
계	2,496	3,000	5,496	1,182	947	–	–	121	29

표 5-1-4 연도별 문화이모작 지원현황(2010~2019)

(단위: 명, 개, 백만원)

연도	예산액	수료인원	현장실습 프로젝트* 수	교육기관 등 지원 (A)		교육생 현장활동비 지원 (A지원액에 포함)	주관기관
				교육기관 수	지원액		
2010	400	320	–	–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400	202	10	–	–	142	
2012	200	135	13	–	–	76	
2013	400	148	18	–	–	87	
2014	400	142	18	–	–	84	
2015	350	143	18	4	160	90	
2016	245	140	18	4	160	85	한국문화원연합회
2017	245	99	22	–	160	68	지역문화진흥원
2018	245	104	20	4	147	88	지역문화진흥원
2019	221	128	21	4	136	–	지역문화진흥원
계	3,106	1,561	158	16	763	720	

* (현장실습 프로젝트 내용) 마을문화자원 조사,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마을축제 개최, 주민공동체 모임 운영, 마을지도 제작, 우수사례 견학 등

다.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 운영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문화 분야 현안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문제해결능력 배양으로 지역문화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사업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화재단 또는 대학, 문화예술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문화 현안과제에 대한 실제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를 지역문화 발전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고, 사업내용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 문화예술 정책 비전,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운영 개선,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 의제에 대한 종합 컨설팅 및 평가툴 개발 등을 컨설팅 과제로 선정, 지원하였다.

특히 지역의 사업계획 수립 · 신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선정 · 평가라는 상향식(Bottom-up) 사업절차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자생력과 자율성을 진흥하고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2005년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2019년까지 220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2007년부터 당해연도 컨설팅 사업을 평가, 우수 컨설팅 사업 2개를 선정하여 다음연도 컨설팅 예산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는 등 민간 주도의 선진형 지역문화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2019년에는 9개 시 · 도 11개의 과제를 수행하였고, 평가를 통해 충남 홍성군(청운대학교)의 '홍성 역사인물 콘텐츠를 활용한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이 최우수 과제로, 경기 동두천시(동양대학교)의 '소요산 문화벨트 대표축제 모델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이 우수

과제로 선정되었다.

표 5-1-5 연도별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지원현황(2005~2019)

연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규모(개)	220	14	16	20	16	17	15	14	13	13	15	13	13	15	15	11
예산(백만원)	6,136	500	500	481	433	470	448	430	429	393	401	358	340	323	323	307

라. 지방문화원: 지역거점의 역할

정부에서는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향토문화와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니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문화 사업을 지방문화원이 구심체가 되어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1965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온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개발 · 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의 발굴 · 수집 · 조사 · 연구, 지역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다문화가족 문화 활동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문화원 원장, 사무국장 등 지방문화원 임직원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지방문화원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고 지역문화진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9년 말 기준 230개의 문화원이 설립 ·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 설립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1-6 지방문화원 설립현황

지역	문화원명
서울(25)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부산(15)	서구, 동구, 영도, 부산진, 동래, 남구, 북구낙동, 해운대, 사하, 금정, 강서, 연제, 수영, 사상, 기장
대구(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 달서, 달성
인천(10)	중구, 화도진,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광주(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
대전(5)	동구, 중구, 서구, 유성, 대덕
울산(5)	중구, 남구, 동구, 울주, 북구
경기(31)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파주, 광명, 김포, 군포, 광주, 이천, 양주, 오산, 구리, 안성, 포천, 의왕, 하남, 여주,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강원(18)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충북(11)	충주, 청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증평
충남(15)	공주, 보령, 온양, 서산,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천안 동남구, 천안 서북구
전북(14)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지역	문화원명
전남(22)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경북(23)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경남(20)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제주(2)	제주, 서귀포
세종(1)	세종
계(230)	

표 5-1-7 지방문화원 시설 지원 현황(2008~2019)

(단위: 천 원)

연도	구분	지원 대상	지원액	비고
2008 (국고)	시설비	문화원 12	4,109,000	12개원(대전 중구 · 유성, 삼척, 보은, 광양, 담양, 보성, 곡성, 영천, 울릉, 거창, 양산, 창원)
	계		4,109,000	
2009 (국고)	시설비	문화원 12	4,298,000	12개원(대구 달서, 대전 서구, 군포, 하남, 고양, 춘천, 대천, 보성, 경산, 창원, 양산, 거창)
	계		4,298,000	
2010 (국고)	시설비	문화원 10	5,056,000	10개원(대전 서구, 군포, 고양, 의정부, 삼척, 보령, 영양, 영덕, 사천, 합천)
	계		5,056,000	
2011 (국고)	시설비	문화원 13	6,661,000	13개원(고양, 의정부, 양평, 동해, 영월, 옥천, 영동, 증평, 군산, 영양, 창원, 통영, 합천)
	계		6,661,000	
2012 (국고)	시설비	문화원 10	5,190,000	10개원(동두천, 포천, 동해, 양구, 홍천, 부여, 고창, 완도, 고령, 통영)
	계		5,190,000	
2013 (국고)	시설비	문화원 7	3,515,000	7개원(부천, 홍천, 완도, 고령, 칠곡, 통영, 김해)
	계		3,515,000	
2014 (국고)	시설비	문화원 8	3,959,000	8개원(부천, 인제, 동해, 태안, 논산, 김천, 진주, 창녕)
	계		3,959,000	
2015 (국고)	시설비	문화원 9	8,183,000	9개원(부천, 인제, 보은, 논산, 예산, 태안, 임실, 김천, 진주)
	계		8,183,000	
2016 (국고)	시설비	문화원 14	8,290,000	14개원(연수, 연제, 금정, 인제, 평창, 횡성, 철원, 영월, 괴산, 예산, 태안, 임실, 문경, 산청)
	계		8,290,000	
2017 (국고)	시설비	문화원 9	7,682,000	9개원(연수, 인제, 평창, 횡성, 철원, 영동, 문경, 산청, 창원)
	계		7,682,000	

연도	구분	지원 대상	지원액	비고
2018 (국고)	시설비	문화원 7	5,389,000	7개원(이천, 인제, 횡성, 영광, 문경, 함양, 마산)
	계		5,389,000	
2019 (국고)	시설비	문화원 24	13,704,000	24개원(양천, 달성, 광주 광산 · 북구, 인천 동구, 가평, 인제, 화천, 천안 서북구, 정읍, 전주, 익산, 신안, 담양, 완도, 영광, 울진, 경산, 성주, 밀양, 의령, 함양, 고성, 김해)
	계		13,704,000	

전국 지방문화원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 정치적 · 문화적 환경 속에서 지역문화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지방문화원 아카데미'를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장과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강의를 통해 사고의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각 단계별 교육목표 및 대상이 명확하여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문화원 평가에도 적용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문화원 간 정보공유 및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지역문화를 교류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직급별(원장, 국장, 직원) 세미나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 정보 공유, 노하우 전수 등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도부터는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활용,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발굴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방문화원의 자료와 지역을 대표할 설화, 향토사, 인물사 등 향토자료 및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역에 산재한 지역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다양한 유형과 내용으로 개발 · 제작함으로써, 지역문화콘텐츠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방문화원 소장자료 전수조사로 부실한 관리체계와 관리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손 · 망실될 위기의 지역문화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지방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비전자자료의 전자화(디지털화)를 통해 물리적 노화 및 부패손실에 대비하고, 디지털 관리기반을 마련하여 소장자료를 보다 쉽게 보존 ·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콘텐츠 결과물은 '지역N문화'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였고, 유관기관에서 융합 · 활용 가능하도록 오픈 API 개발을 추진하였다.

2019년까지 지역별콘텐츠 247건, 기획콘텐츠 21개 주제, 4,517건을 개발하였고, 지방문화원 소장자료 53,197건의 DB 구축을 완료하였다.

마.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소외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적 · 가치 지향적 문화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어르신들의 개인적 · 사회적 성취를 돕기 위해 2005년 시범사업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3,4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9년에는 어르신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어르신문화예술교육 지원', 어르신의 동아리 활동을 통한 사회 소속감 및 역할 확대를 위한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지역 어르신과

청년 · 어린이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어르신& 협력프로젝트', 어르신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여 공연자와 관람자 모두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총 3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표 5-1-8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2005~2019)

연도	기간	사업 수행기관 수	운영 프로그램 수	참여인원
2005	2005. 10 ~ 2006. 2	10개 문화원	10개 시범 프로그램	364명
2006	2006. 5 ~ 2007. 1	50개 문화원	51개 프로그램	1,723명
2007	2007. 4 ~ 2007. 12	76개 문화원	76개 프로그램	2,593명
2008	2008. 4 ~ 2008. 12	100개 문화원	100개 프로그램	3,522명
2009	2009. 4 ~ 2009. 12	137개 문화원	137개 프로그램	4,740명
2010	2010. 5 ~ 2010. 12	134개 문화원	170개 프로그램	5,841명
2011	2011. 3 ~ 2011. 12	149개 문화원	202개 프로그램	7,037명
2012	2012. 3 ~ 2012. 12	198개 문화원	341개 프로그램	11,804명
2013	2013. 3 ~ 2013. 12	193개 문화원, 70개 농어촌 마을	449개 프로그램	13,872명
2014	2014. 3 ~ 2014. 12	238개 문화시설 · 단체, 75개 농어촌 마을	443개 프로그램	13,366명
2015	2015. 3 ~ 2015. 12	262개 문화시설 · 단체	435개 프로그램	14,042명
2016	2016. 3 ~ 2016. 12	268개 문화시설 · 단체	391개 프로그램	12,111명
2017	2017. 3 ~ 2017. 12	310개 문화시설 · 단체	332개 프로그램	9,152명
2018	2018. 3 ~ 2017. 12	265개 문화시설 · 단체	297개 프로그램	11,909명
2019	2019. 3 ~ 2019. 12	258개 문화시설 · 단체	311개 프로그램	10,039명

표 5-1-9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분류(2019)

구분	어르신 문화예술 교육 지원	어르신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어르신&청년 협력프로젝트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총계
프로그램 수(개)	164	89	24	34	311
어르신 참여자 수(명)	4,459	2,589	398	2,593	10,039

그림 5-1-1 2019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어르신문화예술 교육)
나도 화가 행복교실

(어르신문화예술 동아리)
중구문화 Ph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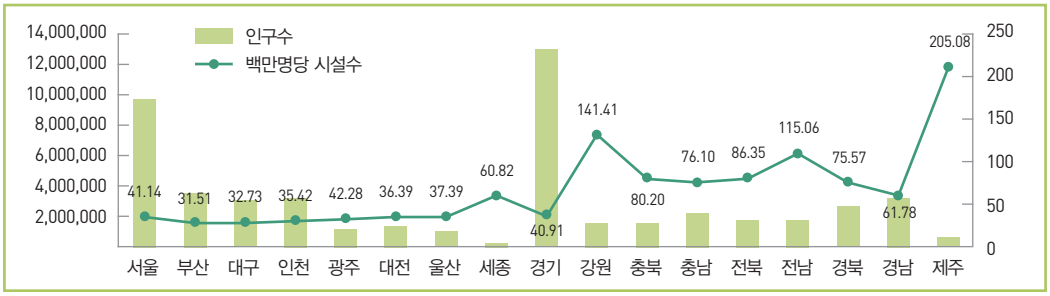
(어르신&청년 협력프로젝트)
발산할매 청춘음악다방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한다우리 희망 콘서트

바. 지역 문화기반 시설 확충 지원

지역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서관(123개, 82,153백만원), 박물관(13개, 13,345백만원), 미술관(6개, 15,991백만원), 문예회관(17개, 20,613백만원), 생활문화센터(50개, 18,609백만원) 등 2019년 문화시설 확충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다. 2019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문화기반시설 수는 총 2,825개로 인구 100만 명 당 평균 54.68개의 문화시설이 있었다. 지역별 인구 100만 명 당 시설 수를 살펴보면 제주 205개소, 강원 141개소, 전남 11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도권 44개소, 지방 64개소 등으로, 지역별 인구 대비 문화시설은 지방에 더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2 인구 100만 명 당 공공문화시설 수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표 5-1-10 인구 100만 명 당 문화시설 수

구분	지역	인구 수	문화시설 계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지역 1	서울	9,673,936	41.14	17.88	13.23	4.65	2.17	2.58	0.52
	부산	3,395,278	31.51	12.66	8.84	2.36	3.24	4.42	–
	대구	2,444,412	32.73	16.77	6.55	1.64	4.50	3.27	–
	인천	2,936,117	35.42	17.03	9.54	1.70	3.41	3.41	0.34

구분	지역	인구 수	문화시설 계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지역 1	광주	1,490,092	42.28	15.44	8.05	8.05	4.70	3.36	2.68
	대전	1,511,214	36.39	15.88	9.26	3.31	2.65	3.31	1.99
	울산	1,150,116	37.39	16.52	8.69	0.00	4.35	4.35	3.48
	세종	312,374	60.82	32.01	22.41	0.00	3.20	3.20	–
	경기	13,103,188	40.91	20.15	10.38	3.97	3.36	2.37	0.69
	강원	1,520,391	141.41	37.49	62.48	11.84	13.81	11.84	3.95
	충북	1,620,935	80.20	27.76	27.14	6.79	7.40	6.79	4.32
	충남	2,181,416	76.10	28.42	25.21	4.13	8.25	7.33	2.75
	전북	1,818,157	86.35	31.90	22.55	8.80	9.35	7.70	6.60
	전남	1,790,352	115.06	38.54	32.40	17.87	11.73	12.29	2.23
	경북	2,672,902	75.57	24.32	25.81	4.12	10.10	8.60	2.24
	경남	3,350,350	61.78	21.19	20.89	2.69	6.57	5.97	4.48
	제주	658,282	205.08	33.42	103.30	31.90	4.56	3.04	28.86
	총계	51,629,512	54.68	21.23	17.06	5.00	4.94	4.47	1.96
지역 2	수도권	25,713,241	44.69	19.21	13.96	4.47	3.34	2.88	0.78
	지방	25,916,271	64.59	23.23	20.14	5.52	6.52	6.06	3.13
	총계	51,629,512	54.68	21.23	17.06	5.00	4.94	4.47	1.96

출처: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또한, 2014년부터 국민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 확대를 위해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 일상적 문화예술 활동공간인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생활문화센터는 개인, 동호회 등을 위한 연습 · 발표 공간,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커뮤니티 공간 및 북카페, 공연장 등 지역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문화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공간이다. 2019년 49개 시설을 대상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생활SOC 복합시설 형태의 생활문화센터를 중점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표 5-1-11 2019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내역

보조 사업자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수	49	4	6	2	2	1	5	9	3	3	3	2	3	5	1
예산 (억원)	182.1	12.5	25.2	7.8	6.1	6.2	15.6	34	11.4	13	10.7	4.9	14	18.6	2.1

사. 창의적 문화 공간 조성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문화 분야 BTL사업을 개선 추진하였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6]은 민간의 자본과 전문분야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민간은 적정수익률이 반영된 임대료를 통해 민간 투자비를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 우수한 공공서비스 기회를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부터 도입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2019년까지 문예회관,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문화복합시설 및 학교복합시설 등 30개 사업(6,839억 원)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5-1-12 BTL 방식에 의한 문화기반시설 추진 결과(2005~2019)

(단위: 억 원)

연도	사업명	투자액/고시액/한도액	고시완료	협약완료	착공	준공
2005	부평문예회관	393	●	●	●	●
	대구시립미술관	557	●	●	●	●
	제주도립미술관	182	●	●	●	●
	인천시립도서관 (미추홀도서관)	215	●	●	●	●
	파주교하도서관	112	●	●	●	●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490	●	●	●	●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196	●	●	●	●
	경주문화예술회관	686	●	●	●	●
	안동문화예술회관	496	●	●	●	●
	제주종합문화센터(설문대여성문화센터)	159	●	●	●	●
2006	울산시립박물관	473	●	●	●	●
	해운대신시가지도서관	148	●	●	●	●
	천안북부도서관(두정도서관)	136	●	●	●	●
	천안생활체육공원	120	●	●	●	●
	계룡복합문예회관	208	●	●	●	●
	익산시립모현도서관	110	●	●	●	●
	완도맞춤형복합문화센터	168	●	●	●	●
	신도림고등학교 복합화	30	●	●	●	●
	중리초등학교 복합화	51	●	●	●	●

6] BTL: 민간이 자금을 들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완공 이후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 이전하되, 국가 또는 지자체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공공사업 진행방식을 말함.

연도	사업명	투자액/ 고시액/한도액	고시완료	협약완료	착공	준공
2007	부산화명/다대도서관(2개소)	115	●	●	●	●
	아산실내생활체육관	259	●	●	●	●
	천안종합문예회관	674	●	●	●	●
	개봉초등학교 복합화	15	●	●	●	●
2008	부산영화체험박물관	331	●	●	●	●
	익산복합문화센터	336	●	●	●	●
	엄궁초등학교 복합화	17	●	●	●	●
	신전중학교 복합화	43	●	●	●	●
	사남초등학교 복합화	19	●	●	●	●
2011	정관도서관	100	●	●	●	●
계	30개소	6,839				

* 2019년 12월 말 기준(2011년 이후 추진사업 없음)

(2) 지역문화브랜드 육성

가. 문화의 달 행사 개최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 후 그 시행령에 따라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그 기간 중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왔다.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에 대한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동 조항이 이관되었다. 당초에는 문화예술에 기여한 분들의 노고를 기리는 기념식 중심으로 치러져 왔으나, 1999년 민간행사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문화예술의 흥과 정취를 느끼고 모든 국민이 함께 나누는 종합문화예술제로 발전하였다.

또한 지역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2003년 대구를 시작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였다. 2019년 문화의 달 기념행사는 제주 제주시에서 '느영나영(너하고 나하고), 문화의 달'을 주제로 개최하였다.

문화의 달 행사는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문화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함은 물론, 지역의 대표적이고 특색 있는 문화적 면모를 보여 주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표 5-1-13 연도별 문화의 달 행사 개최현황(2003~2019)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개최지	대구	광주	전북 (전주)	제주	부산	충북 (청주)	인천	전남 (목포)	강원 (강릉)	충남 (서천)	문체부 (서울)	광주	경북 (영천)	세종	울산	전남 (순천)	제주 (제주)
예산 (억원)	3.0	3.0	3.2	3.2	3.2	3.2	3.2	3.2	3.2	5.0	4.5	4.0	3.0	3.0	3.0	3.0	3.0

나.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역문화행사 지원 사업은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행사 개최 지원을 통해 지역의 특화된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치단체보조(지방비 60% 매칭, 단 종교문화행사는 정액 지원) 형태로 지원되었다.

2019년 지역문화행사 지원규모는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에 17개 사업 8,250백만 원, 비엔날레 지원에 6개 사업 2,300백만 원, 종교문화행사 지원에 6개 사업 1,370백만 원, 문화콘텐츠행사 지원에 13개 사업 4,623백만 원 등 총 42개 사업 16,543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표 5-1-14 연도별 지역문화행사 지원현황(2017~2019)

(단위: 개, 백만원)

연도	지역특화문화행사		비엔날레		종교문화행사		문화콘텐츠행사		계	
	규모	예산액	규모	예산액	규모	예산액	규모	예산액	규모	예산액
2017	17	1,040	8	2,730	8	1,650	13	6,080	46	11,500
2018	16	4,620	9	5,590	8	1,485	14	5,778	47	17,473
2019	17	8,250	6	2,300	6	1,370	13	4,623	42	16,543

다.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발굴 및 확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특화된 문화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 문화발전모델을 발굴 · 확산시키고자 2012년부터 지역의 문화브랜드 사업 중 우수 사업을 대표브랜드로 선정해 왔다.

지역의 중장기 문화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지역 및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중심의 문화브랜드 사업을 대상으로 소재의 고유성, 지역 대표성, 주민과의 관계성, 브랜드의 창의성 및 상품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선정된 대표브랜드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한다.

2012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2019년까지 총 22개 대표브랜드를 선정, 지원하였다. 2019년에는 대상에 경남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통제영 12공방(체험)', 최우수상에 전남 담양군 '해동문화예술촌 조성', 우수상에 강원 강릉시 '바람과 하늘의 땅, 예맥아트센터'가 선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브랜드 선정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 및 전통문화브랜드 사업을 문화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표 5-1-15 연도별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사업 지원현황(2012~2019)

연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규모 (개)	22	2	2	3	3	3	3	3	3
예산 (백만원)	740	50	90	100	100	100	100	100	100

라. 지역의 문화자원의 특성화, 차별화 및 지역재생 지원

우리사회에서 지역 불균형 현상은 경제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도시와 비교하여 뒤떨어진 지역의 문화 환경, 이로 인한 문화적 체험 기회 부족 등 지역 간 문화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자 기반으로서 지역의 가치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도시 및 마을 관련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으며, 2000년대 이후 문화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및 마을관련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문화특화지역조성(문화도시 ·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있으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문화가 가지는 정체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과 자원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창조적 ·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는 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공주 · 부여 역사문화도시 등 지역의 특성에 맞고 국가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점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단, 2020년도부터는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및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경우 지방이양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①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천년고도 경주의 문화유산을 복원 · 활용하여 세계적인 역사도시로서 가치를 창출하고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관광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문화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T를 구성 · 운영하여 추진 계획 등 사업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사업의 전체 사업기간은 30년(2006~2035)으로,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2006~2010)에는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라왕궁 복원, 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종교 유적지 조성, 신라 탐방길 조성 등 선도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2단계(2011~2020)에는 1단계 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역사 · 문화 ·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고, 3단계(2021~2030)에는 10년간 다양한 역사체험, 문화 및 관광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각종 인프라와 연계 개발하여 역사 · 문화 · 관광도시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2031~2035)에는 5년 간 세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로서 경주가 새롭게 완성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 〈경주 역사문화도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 '신라탐방길 조성' 등 〈4개 선도 사업 실행계획〉 수립 연구를 2007년 12월 완료하였다. 동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06년 20억 원, 2007년 40억 원, 2008년 40억 원, 2009년 40억 원, 2010년 62억 원, 2011년 50억

원, 2012년 46억 원, 2013년 38억 원, 2014년 33억 원, 2015년 58억 원, 2016년 60억, 2017년 48억 원, 2018년 26억 원, 2019년 16억 원의 국고가 투입되었으며, 도시경관 개선, 안압지 정비 및 활용, 영지설화공원조성, 한옥지구 보존정비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 5-1-3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그림 5-1-4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월정교 복원

교촌한옥마을 조성

②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과거로부터 '예향(藝鄕)'으로 불리고 있는 전주는 판소리, 한옥, 한지, 한식 등이 발달하였고 타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아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이 매우 높은 도시이다. 이러한 전주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전주 전통문화도시는 문화재의 복원이나 개발보다는 정신문화와 한국적인 생활문화의 토대가 되는 무형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활성화, 이를 통한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은 한옥마을 등 지역 차원의 자발적인 혁신정책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기본계획(2005년 3월~2006년 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수립하여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전주 전통문화도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6년 9월~2007년 11월, 국토연구원)〉를 수행하였다. 동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선도사업 중 중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위주로 200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6년 30억 원, 2007년 30억 원, 2008년 30억 원, 2009년 50억 원 2010년 50억 원, 2011년 50억 원, 2012년 50억 원, 2013년 59억 원, 2014년 25억 원, 2015년 15억 원, 2016년 15억 원, 2017년 18억 원, 2018년 22억 원, 2019년 24.5억 원의 국고가 투입되었으며,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 전통문화보존 계승 및 육성, 유네스코 창의도시 및 국제 슬로시티 기반구축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 5-1-5 전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③ 공주 · 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공주 · 부여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백제의 고도(古都)인 공주와 부여가 간직하고 있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백제의 고도로서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고도경관 형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2007년도에는 충청남도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당위성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였다. 2008년도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하여 「공주 · 부여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되었다.

이러한 용역을 바탕으로 역사문화도시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2008년도부터 국토연구원에서 역사문화도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2009년도 말에 완료된 이 용역에는 역사문화도시로서 공주 · 부여의 발전방향을 담은 정책기본계획,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장 · 단기 사업추진계획, 역사문화 도시 조성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포함하는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의 내용이 연구되었다.

연구용역사업과는 별도로 2009년도에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선도사업으로서 공주의 「무령왕릉 길 조성」 사업과 부여의 「주작대로 정비」 사업에 각각 국고 20억 원, 2010년도에는 공주 「황새바위 및 송산리 고분군 정비」 사업과 부여 「성왕로 경관정비」에 각각 20억 원이 투입되었다. 2011년 36억 원, 2012년 32억 원, 2013년 29억 원, 2014년 20억 원, 2015년 21억 원(국비), 2016년 21억, 2017년 4.7억 원, 2018년 11억 원, 2019년 9.9억 원의 국고가 투입되었으며, 진입부(시가지) 경관 개선, 체험프로그램 운영, 야간경관 특화, 성왕로 2단계 정비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다.

그림 5-1-6 공주 · 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④ 문화특화지역 조성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지역 역사 · 문화 · 관광 등 특색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시 및 마을 자체가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을 육성 ·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업 위주의 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지역문화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하고 있다.

본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2014년 남원 문화도시 조성, 공주 상신리 문화마을 조성, 부여 규암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전국 50개소(문화도시 33개소, 문화마을 17개소)로 확대되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1개 도시 당 국비 연 3억 원 내외(지방비 60% 매칭) 5년간, 문화마을 사업은 1개 마을당 국비 연 0.8억 원 내외(지방비 60% 매칭) 3년간 지원하고 있다.

표 5-1-16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주요내용**

구분	문화도시	문화마을
지원대상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고 중장기 문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 · 창조도시 사업을 추진 중인 시 · 군	주민협의체를 통한 문화적 사회활동이 활발하거나 잠재적 문화역량이 높은 마을
지원예산	1개 도시당 7.5억원 * 국비 3억, 지방비 4.5억	1개 마을당 2억원 * 국비 0.8억, 지방비 1.2억
지원기간	5년	3년
사업내용 (예시)	• 시민제안 및 공모형 문화활동 사업 및 전문가 문화기획 프로그램 • 도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휴먼웨어 네트워크, 문화기관 네트워크) • 도시 문화허브 활성화 사업(문화거점) • 지역문화 창의인재 육성사업 • 도시재생 및 유휴공간 활성화 사업 • 도시 문화브랜드 사업	• 마을단위 문화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기획 운영 • 마을 축제 운영 및 관리 • 마을 가치자산 활성화 프로그램 (역사 ·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 유휴공간 활성화 사업 • 지역문화 창의인재 육성 사업 • 지역단위 마을문화 교류활동

⑤ 법정 문화도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문화특화지역 사업 및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 등 중앙 ·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한 도시문화 관련 사업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2018년 5월에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통해 지역이 고유의 문화를 활용하여 쇠퇴한 장소와 공동체를 문화를 통해 활성화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2월에는 제1차 문화도시 7곳(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부산 영도구, 제주 서귀포시)을 지정하였다.

그림 5-1-7 문화도시 정책 비전과 목표

비전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

목표

①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②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③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④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

그림 5-1-8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절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문화도시 지정 신청	▶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	예비사업 추진(1년간)
지자체		문체부 장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		지자체 (문체부 컨설팅 및 평가)

문화도시 지정 섭회	▶	문화도시 지정	▶	본사업 추진(5년간)
문화도시심의위원회		문체부 장관		지자체 (문체부 행 · 재정적 지원)

표 5-1-17 제1차 문화도시 지정 현황

지자체	사업명
경기 부천시	생활문화도시 부천 –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 듣는 도시
강원 원주시	시민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도시 원주
충북 청주시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충남 천안시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
경북 포항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철학문화도시 포항
제주 서귀포시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
부산 영도구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⑥ 문화적 도시재생

도시의 경제성과 효율성 중심의 양적개발에 따른 지역정체성 및 공동체 파괴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적 · 사회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8년도부터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였다.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이 아닌 쇠퇴지역 내 공공이용이 가능한 장소나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2018년도에는 4개 지자체(경북 포항, 부산 영도, 전북 군산, 충남 천안)를 선정하여 국비 각 8천만 원(지방비 동일규모 매칭)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9개 지자체에 국비 각 2.5억에서 3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5-1-18 2019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현황

연번	지자체	위치	사업명
1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구도심	맷돌모루
2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604 일대	동두천 문화터미널
3	경기 하남시	신장 1동 일대	다시 찾은 문화路 신장 777
4	강원 강릉시	중앙동 서부시장 일대	강릉 문화적 도시재생
5	강원 춘천시	약사동 25-4번지 일대	도시를 잇는 터무니
6	강원 태백시	철암동 366-46 철암역일대	태백 역사 · 문화 장터 만들기
7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및 사직동 일대	세대-장르 간 문화 연결
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일대	사람이 심고 꽃이 답하다
9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일대	금오시장로, 문화로 리-디자인하다
10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여천동 일대	포항 문화적 도시재생
11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853 일대	진장(陣場)거리, 문화예술의 진(陳)을 치다
12	대구 달성군	화원읍 인흥길 33-4 일대	화원청춘 옥상실험실
13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역 및 경인로 일대	문화생산도시 리빙랩
14	부산 중구	40계단 주변 및 동광동 일대	시민주도형 예술교육도시 플랫폼
15	부산 영도구※	영도구 전체	예술과 도시의 섬
16	인천 서구	원적로 및 장고개로 일대	문화더하기+
17	광주 남구	월산동 323번지 일대	달뫼 달팽이 문화마을
18	광주 동구	예술의 거리 일대	궁동예술마당
19	대전 대덕구	한남로 88번길 일대	In 88Street

2)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1) 문화가 있는 날

가.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29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시행되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정해진 '문화가 있는 날'에는 국민의 문화 참여 비율이 높은 영화를 비롯하여 박물관 · 미술관 · 고궁 · 문화재 등 국 · 공립 문화시설, 연극 · 뮤지컬 등 공연프로그램 및 프로스포츠까지 대폭 할인된 가격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공립 박물관 · 미술관은 전시 · 강연 · 공연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운영과 더불어 야간개방을 실시하고 도서관은 대출권수를 두 배로 늘리는 등 혜택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평일에 실시함에 따라 직장인과 학생 등의 참여가 어렵고, 중앙 정부에서 해당 일에만 행사를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일방적 사업 운영이라는 불만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행사 주관기관의 사정에 맞게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다양한 날에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장르		주요 혜택
	영화	저녁 5시~9시, 일괄 5천원 관람 (CGV · 롯데시네마 · 메가박스 등 매달 전국 360여개 영화관 참여)
	공연	예술의전당 · 국립극장 등 할인 및 특별 프로그램 운영
	전시	국립현대미술관 등 주요 전시시설 무료 · 할인, 연장 개관
	문화재	경복궁 · 창덕궁 · 창경궁 · 덕수궁 · 종묘 · 조선왕릉 등 무료 개방
	도서관	야간 연장개방, 특별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대출 2배 확대 등
	기타	프로스포츠 할인(야구, 축구, 농구, 배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다양한 특별 기획프로그램 운영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특정시기를 정해 예측 가능한 문화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나아가 이를 통해 국민이 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문화를 일상화 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 시발점 사업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민 · 관의 협력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성공적 문화정책으로 자리 잡은 '문화가 있는 날'이 향후 보다 다양한 문화 분야로 확대되고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문화를 쉽고 친숙하게 여길 수 있는 '일상 속 문화 쉼터'로서 자연스럽게 문화 · 예술 시장과 수요 · 공급이 선 순환하여 발전하는 건강한 문화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2019년도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프로그램

공공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더하여 문체부는 2019년에 총 17,622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간, 공간, 경제적 사정 등으로 문화 활동이 어려운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기획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지자체가 지역의 문화적 ·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이 전국 26개 장소에서 130회 열려 10만 명 이상이 참여였으며, 지역주민이 문화적 주체로서 문화예술 단체들과 협력하여 직접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은 전국 33개 단체가 208회 운영하여 15만 명 가까운 관객들과 소통하였다. 이 사업의 2016~2019년 4개년 간 누적 성과로는 총 1,504팀이 공모에 응모하여 138팀이 선정되어 평균 경쟁률은 10.8대1이었으며 총 826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78만여 명의 관람객들과 함께 하였다. 특히,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은 지역별 인구비례가 아닌 문화기반시설 비율을 근거로 공모 시 지역 할당제를 실시함으로써 수도권 편중현상을 줄이고자 지역균등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표 5-1-19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주요 성과

구분	2016	2017	2018	2019	소계
사업비	31.3억 원	53억 원	20억 원	22억 원	126.3억 원
신청단체	336팀	561팀	314팀	293팀	1,504팀
선정단체	24팀	54팀	27팀	33팀	138팀
경쟁률	평균 14:1	평균 12:1	평균 12:1	평균 9:1	평균 10.8:1
공연횟수	160회	306회	152회	208회	826회
참여인원	234,262명	305,222명	127,971명	114,000명	781,455명

대국민 문화예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 일상 공간으로 찾아가는 청년 예술가 버스킹 공연인 '청춘마이크'는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공연기회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효과와 더불어 매년 응모하는 청년 예술가들의 경쟁률과 실력은 한껏 높아지고 있어 자체적인 브랜드 효과까지 더해지고 있다. '청춘마이크'는 2019년 총 276팀, 1,038명의 예술인이 425개 장소에서 1,545회에 걸쳐 거리 · 시장 · 교통거점 등 일상의 공간에서 음악 · 연극 · 춤 · 마술 · 복합장르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여 이를 17만 6천여 명의 국민들이 관람하였다. 청춘마이크의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4년 간 누적 성과는 총 857팀, 3,215명의 청년 예술인들이 4,622회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관람객수 약 59만여 명이 참여하였다.

표 5-1-20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주요 성과

구분	2016	2017	2018	2019	소계
사업비	33.5억 원	28억 원	36.5억 원	42.3억 원	140.3억 원
신청단체	(시즌1) 288팀 (시즌2) 341팀	887팀	1,170팀	(본예산)1,359팀 (추경)416팀	4,461팀
선정단체	235팀, 927명	152팀, 510명	194팀, 740명	276팀, 1,038명	857팀, 3,215명
경쟁률	(시즌1) 약 3.3:1 (시즌2) 약 5.1:1	약 6.5:1	약 6.3:1	(본예산) 약 7.1:1 (추경) 약 5.5:1	평균 5.6:1
공연횟수	995회	887회	1,195회	1,545회	4,622회
참여인원	157,608명	126,900명	133,586명	176,384명	594,478명

이외에도 각 지역의 50개 문예회관에서 개최된 '작은 음악회' 및 '예술여행 더하기', 생활 속 문화 활동 모임을 지원하는 '생활문화동호회', 업무에 바쁜 직장인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직장 문화배달', 유아원 및 어린이집 등에 직접 찾아가서 미래의 문화예술주체들인 유아 및 어린이들이 문화예술향유 경험을 하게하는 '동동동 문화놀이터', 동네책방을 지역주민의 문화사랑방으로 활용,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공간 및 교류의 장을 지원하는 '동네책방 문화사랑방', 독서문화 활성화와 도서 출판 · 유통업계 지원을 위한 '도깨비 책방',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의 문화가 있는 날 특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동절기 청소년 및 유아동 대상 빙상스포츠 참여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대상 맞춤형 기획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더욱 많은 국민이 '문화가 있는 날'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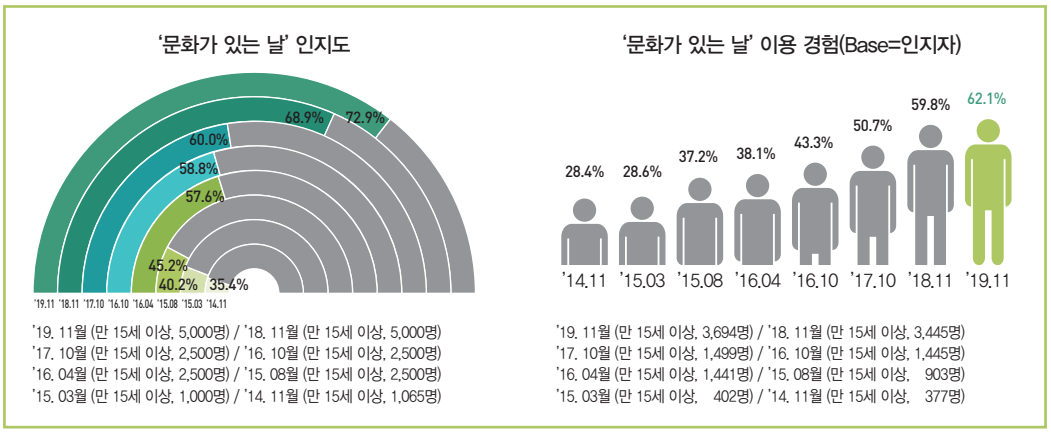
다. 2019년도 '문화가 있는 날' 성과

2019년 '문화가 있는 날'에는 연 30,726개의 프로그램이 참여하여 월 평균 2,560 여 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열렸으며 특히 10월에는 총 3,117개 프로그램이 참여하여 2014년 1월 첫 시행(883개 프로그램) 대비 약 3.5배 이상 프로그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적 선호도가 높은 영화의 경우 2019년 '문화가 있는 날' 평균 영화 관람객 수는 819,722명으로 다른 수요일 476,246명 대비 41.9% 많고 해당주간의 평일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화가 있는 날'이 국민들에게 문화를 즐기는 날로서 확실히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 주간 확대, 민간 문화시설 및 공공분야의 참여 확대 등으로 국민 인지도와 참여율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반응이 확산되었다. 2019년 '문화가 있는 날'의 인지도는 73.9%(2019년 11월)로 정책 초기인 2014년 1월(19.0%)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으며, 참여율도 62.1%(2019년 11월)로 2014년 11월의 28.4%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참여 만족도도 89.5%에 달하였다.

그림 5-1-9 '2019년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및 참여율



(2)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은 생활문화를 매개로 한 주민 문화공동체 활동의 확산을 통해 생활권 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발적 · 자생적 · 능동적 문화 참여 활동을 통해 활력 있는 마을을 만들고, 문화적 · 사회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개인 고립 등 사회적 관계 약화가 심화되며, 사회갈등지수가 OECD 국가 중 하위 2위(2015년 세계가치조사)로 상호 신뢰 회복과 협력구조 마련을 위한 공동체 회복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증대됨에 따라, 본 사업의 대상을 기초생활권 문화적 소외지역(임대아파트 단지,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에서 2018년부터 전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다.

2019년, 본 사업은 사업대상지역의 주민조직이나, 활동이 가능한 문화예술단체 · 기관을 선발하여 ▲사업비(총 924백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바른 공동체 형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컨설팅(49회) 및 교육(7회)을 실시하고, ▲생활문화공동체 마을 자원 발굴을 위한 아카이빙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주민과 지역에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문화 활동과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주민 자생력 강화를 위해 공동체 스스로 커뮤니티 공간 마련 및 주민 공동체 법인화 등 지속적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내며 전반적인 사업효과가 향상 되고 있다. 2019년 공동체 활동은 3.784건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하였으며, 사업 참여자도 89.974명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였다. 참여자 만족도는 85점으로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단합(55.2%), 이웃이나 지역/마을공동체 대한 관심/참여(11.9%)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5-1-21 2019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현황

구분	지원기간	단체명	지역	사업명
1	3년차	무지개 도서관	경기 파주	한울사랑(愛) 행복마을
2	2년차	(사)광주시민방송	광주 북구	영화로 만나고 라디오로 소통하는 간뎃골 마을살이
3		온새미로	경기 안산	삶을 위한 학교, 마을
4		더불어숲 페어라이프 센터	경기 화성	대야미공감마을
5		산화랑	경기 군포	동진골 공유마을 프로젝트
6		수상한공동체	전북 완주	도시와 농촌, 아파트와 마을을 잇는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7		함창달빛창작소	경북 상주	활기찬 마을 공동체 만들기
8		예술마을사람들	경북 경산	경산 예술마을만들기 프로젝트
9	1년차	아야어여	서울 관악	꾸러기 수비대
10		봄꿈교육사회적협동조합	서울 관악	배우고 만들고 나누고, 모두 함께 신나GO!
11		벗들이 있는 뜰	서울 동작	우리동네 상도4동 문.어.발
12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서울 성북	돌곶이마을에서 만나다 안녕 프로젝트
13		여민	서울 중구	다산성곽마을 동네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14		프랜리	광주 서구	발산마을 이웃캠프
15		(주) 윙윙	대전 유성	어은동 문화활동 아카데미
16		온새미로 숲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 동구	마을에서 벗을 만나 공동체가 움트다
17		반월사랑	경기 안산	우리는 반월에 삽니다
18		한솔아띠	강원 강릉	우리는 왁자지껄, 마을에서 논다
19		영월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연합회	강원 영월	덕포리 “할망–할아방의 새마을운동”
20		지역문화활력소 고래실	충북 옥천	옥천읍 금구리 마을 돋보기 프로젝트
21		삼가리 주민회	충남 금산	아름다운 마을의 아름다운 소통하기
22		아트통품마을학교	충남 논산	예술이 마을을 품다
23		부여마을문화학교협동조합	충남 부여	부여로운 마을살이 구라4리 마을공동체
24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전남 광양	오지go! 본쟁이 마을
25		길꾼	전남 완도	작은 삶들의 역사
26		예천문화예술진흥원	경북 예천	말(言)무덤 마을의 예술 이야기
27		소문날 마을학교	경남 진주	웃음가득 이웃가득 충무공동 소문날 마을사랑방
28		쌀롱드피랑	경남 통영	테마가 있는 예술시장 쌀롱드피랑 프로젝트
29		문화예술원 길	경남 함양	꽃과 문화도 놀고가는 어른이놀이터 마을이야기
30		예술연구소 놀이하는마음	대구 동구	만남은 달다
31		공간샘밑	대구 수성	행복한 마을이야기
32		사단법인 인문지행	광주 동구	문화가 있는, 작은 공원 속 프리 마켓

구분	지원기간	단체명	지역	사업명
33		광전줌마	강원 영월	농촌아낙의 꿈
34		다온	전북 김제	도란도란 우리동네이야기
35		벨라시니어뮤지컬단	경남 김해	은빛청춘예찬
36		이호발전협의회	제주 제주	건강한 이호동 문화만들기
37	지역협력 네트워크	부영새마을작은도서관	경북 칠곡	마카가치
38		그림애문화마을	경북 안동	세대공감 온 마을 놀이터
39		내마음은콩밭협동조합	대구 북구	청년과 주민들의 커뮤니티 문화로 만들어 가는 마을이 대학이다
40		섬자리	경기 안산	물때를 만드는 섬

그림 5-1-10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홍보 리플릿

표 5-1-22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성과(최근 2년간)

연도	지원수(개)	활동수(건)	수혜자 수(명)	만족도(점)
2018	49	3,674	88,621	87.2
2019	40	3,784	89,974	85.0

표 5-1-23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지역별 지원현황 및 수혜자수(2019)

지역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지원수	3	3	2	6	3	1	3
수혜자수	1,061	4,185	5,757	17,384	3,296	793	4,404
지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서울	제주	계
지원수	2	2	5	4	5	1	40
수혜자수	5,699	1,066	29,850	11,041	4,561	877	89,974

3) 문화도시 지정

(1) 사업개요

가.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문화특화지역 사업 및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 등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한 도시문화 관련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 5월에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 전반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에 따라, 지역이 고유의 문화를 활용하여 쇠퇴한 장소와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5-1-24 사업개요

- (개념)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 (법 제2조, 15조)
- (지정대상) 광역(시, 도) 및 기초 지자체(시, 군, 자치구)
- (지정분야)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총 5개)
- (사업기간/규모) 5년간 행정적 · 재정적 지원 *2020년 국비 총100억원(7개 지자체)
- (지정목표) '19년부터 연 5~10개 문화도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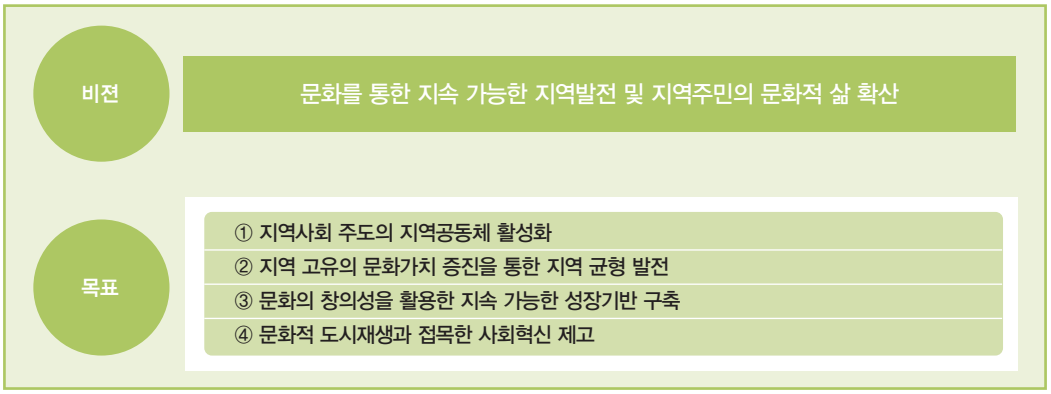
표 5-1-25 문화도시 조성계획 법정 필수 포함사항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해당도시의 문화 환경 및 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비전 및 목표

문화도시 추진의 기본바탕이 되는 정책 비전은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이며,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사회혁신 제고'의 4대 목표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5-1-11 정책비전 및 목표



다. 추진방향

장기적으로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 하에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살리고자, 지역 스스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대규모 시설 조성 및 일회성 행사 등은 지양하고, 문화인력 및 콘텐츠가 지역사회 발전과 연결되어 지속가능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시문화 생태계 조성을 지원(장소-콘텐츠-인력 통합지원)한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기존의 중앙 및 관 주도의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중심 · 시민주도형 거버넌스로의 변화를 중시하며, 지역사회 각 분야의 리더와 시민, 행정이 함께 참여하여 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업추진에 있어 컨설팅 및 모니터링, 협력체계 구축 등 행 · 재정적 지원을 통해 문화도시 조성과정 자체가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지정절차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정 신청을 하여야하며, 이후 서면 · 현장 · 최종발표회 등을 거쳐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는 이후 1년간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하여야하며, 문화도시심의위원회에서 추진실적을 평가(서면 · 현장 · 최종발표회)하여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심의 · 의결을 거친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그림 5-1-12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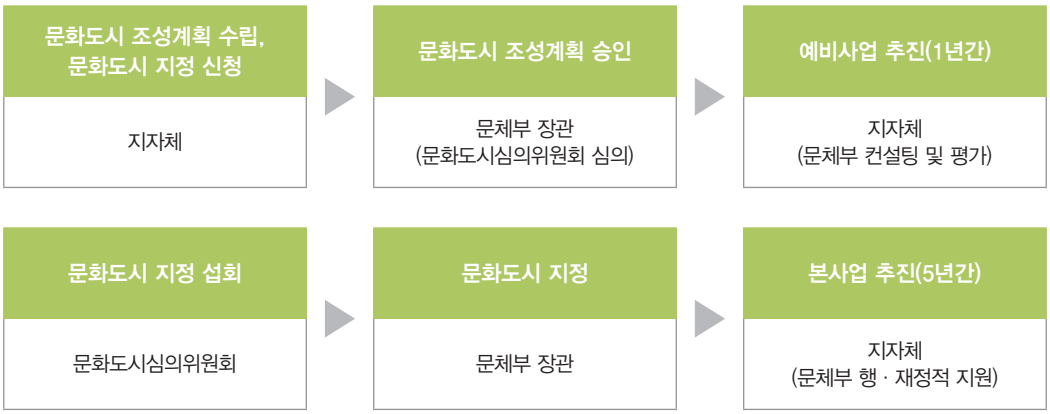


표 5-1-26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심의기준(안)

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20점)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 도시 일반현황 조사 · 분석 • 도시 문화자원 및 유 · 무형자산 조사 · 분석 (역사 · 문화자원, 인적자원, 문화인프라, 문화행사 등) • 도시 환경 및 현황의 분석 및 진단결과 제시
	문화도시 추진 방향의 적정성	• 비전 및 목표설정의 적절성 • 지역의 고유 · 핵심가치 제시 및 반영 • 문화도시정책 가치 부합 여부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50점)	특성화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지정분야별 특성화 계획의 적절성 • 지역의 정체성 및 고유성 확보 여부 • 지역특성에 적합한 추진과정 및 방법론 제시 여부
	지역 활성화 기대효과	• 문화 기반의 지역 문화 · 사회 · 경제 활성화 및 효과 • 도시의 브랜드 및 지역의 문화경쟁력 확보 • 기타 공동체 활성화 방안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50점)	사회참여 및 소통 방안	• 도시민의 문화 참여 및 접근성 보장여부 • 다양한 주체의 참여기회 보장 및 활동지원 • 문화소외지역 및 취약계층의 문화접근성 확보

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문화도시 실현가능성 (30점)	추진체계 구축	• 추진체계의 규모, 조직, 역할의 적절성 • 추진조직의 독립성, 인력의 전문성, 운영의 안정성 • 시민 · 공공 · 전문가 등의 거버넌스 구축계획 및 적절성
	정책지원 및 재원계획의 합리성	• 지자체의 정책 및 사업계획에의 반영 여부 •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확보계획 • 예산확보 및 재정투입계획의 적절성, 합리성
	문화도시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 자체 모니터링 · 환류시스템 구축여부 및 적절성 • 중 · 장기 발전계획 수립 여부 및 합리성 • 국비지원 이후, 기타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제시 (재원확보 및 투입계획, 인력 · 조직 등)
연계 및 협업 가능성 (최대 +5점)	정책 및 사업 연계 · 협력 가능성	• 지자체간, 광역–기초 간 협력방안 제시 여부 • 관련 타 사업 및 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방안 • 예산, 조직(인력), 정책적 협력방안 구축 여부 (예산 지원, 협의체 구성, MOU 체결 계획 등) • 협업 · 연계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기준은 현재의 기본(안)을 바탕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심의기준을 활용하며, 향후 세부내용 및 배점 등은 변동가능성 있음

표 5-1-27 문화도시 지정 심의 기준(안)

항목	세부 평가항목
예비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	문화도시 비전에 따른 예비사업 설계 및 실행
	예비사업계획에서 제시된 성과목표 실현 및 달성 정도
	예비사업 실행결과에서 도시의 문화기획 · 추진 역량의 확인
문화도시 추진기반 확보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의 확보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의 확보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문 추진조직 구성 및 운용
문화도시 추진효과 및 가능성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참여 확대 및 촉진 가능성
	문화인들이 활동 또는 정주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문화기획자, 예술인, 청년 등)
	문화도시의 가치를 통한 도시브랜드 생성 및 경영관리 능력
	문화를 통한 도시의 성장동력 생성 및 사회 · 경제적 효과 파급

* 문화도시 지정심의 기준은 현재의 기본(안)을 바탕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심의기준을 사용하며, 향후 세부항목 및 내용은 변동 가능

(3) 지정 현황

2019년 12월에는 제1차 문화도시 7곳(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부산 영도구, 제주 서귀포시)을 지정하여 2020년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며, 제2차 문화도시는 2020년 12월에 지정할 계획이다.

표 5-1-28 제1차 문화도시 지정 현황

지자체	사업명
경기 부천시	생활문화도시 부천 –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 듣는 도시
강원 원주시	시민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도시 원주
충북 청주시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충남 천안시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
경북 포항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철학문화도시 포항
제주 서귀포시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
부산 영도구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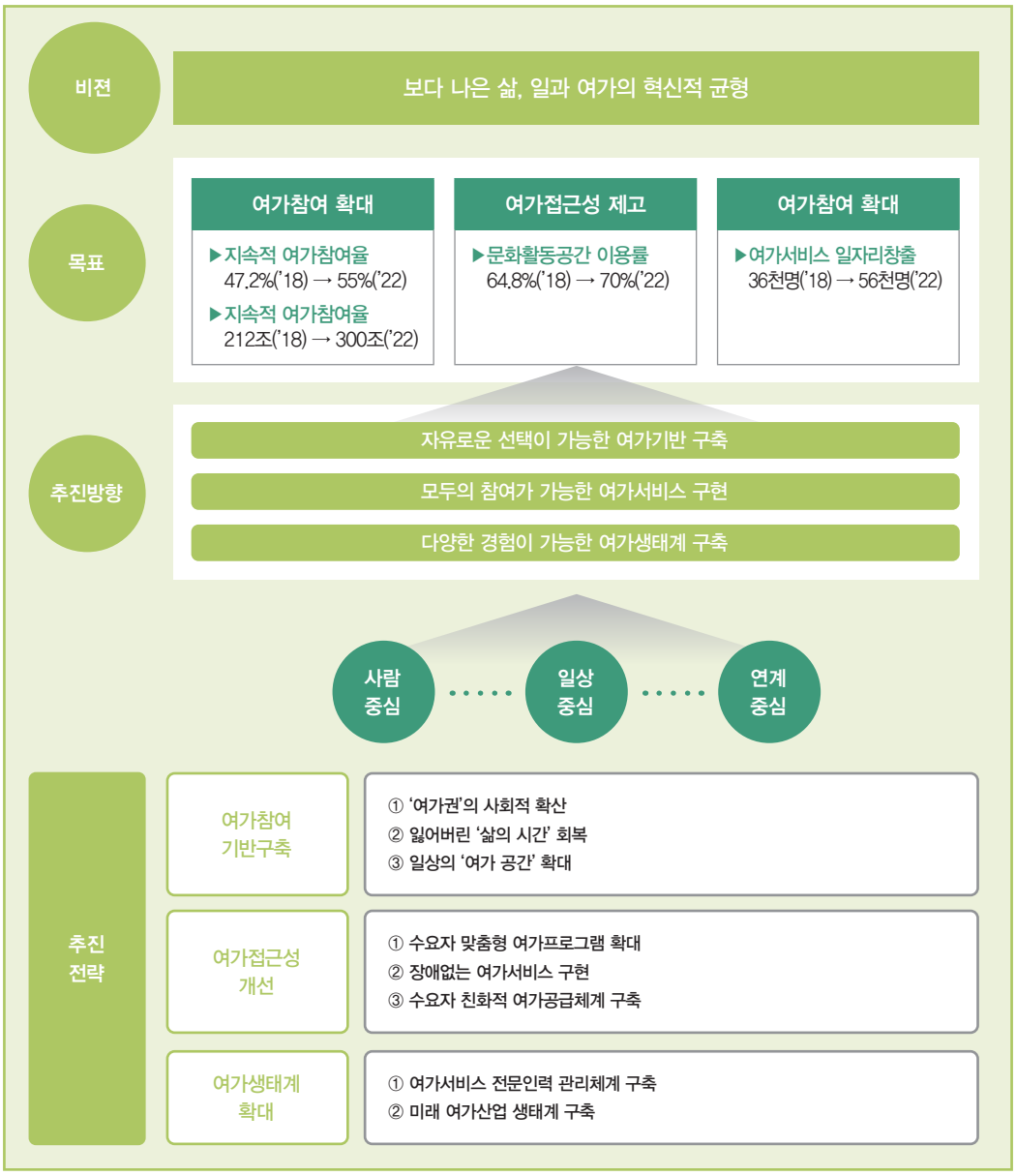
4) 여가문화 활성화

(1) 국민여가활성화 기반 구축

가.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주 52시간 근로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적 전환기에 '일과 생활'의 균형이 중요시됨에 따라 '여가'의 가치가 부각되고, 활력 잃은 사회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가정책의 중요성이 증가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자유롭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15.11월)에 따른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은 '보다 나은 삶, 일과 여가의 혁신적 균형'이라는 비전 하에 '여가참여 확대', '여가접근성 제고', '여가서비스 혁신'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8년 6월에 발표하였다.

그림 5-1-13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전략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추진전략 1: 여가 참여 기반 구축

여가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 삶의 활력과 국가의 생동감을 회복하고 여가 시간, 여가 공간, 여가 인식을 개선해 여가 활성화 기반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민들이 여가를 통한 '휴식 있는 삶'을 기본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여가 인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일과 여가의 균형'

캠페인을 실시, 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 법정인증제로 전환해 기업인증을 확대하는 등 여가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가의 핵심적 요건인 여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초과근무 저축연가제와 휴식 성과제 도입, 대체공휴일 확대, 장기휴가 활성화 등 여가 참여의 토대를 마련한다. 주민 여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 체육 등 지역의 생활밀착형 여가 공간 확대, 국 · 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등 지역 여가 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여가 공간 최소기준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② 추진전략 2: 여가 접근성 개선

공급자 중심의 여가 공급 체계에서 대국민 서비스 중심의 수요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 여가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무장애 여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요창출형 여가프로그램 개발 지원, 순수예술의 대중화와 예술 체험 확대 등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공공여가 서비스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임산부, 고령층, 육아계층 등 여가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의 여가 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 · 청소년 · 여성 · 직장인 등 모두가 여가를 향유할 수 있도록 여가 환경을 조성한다. 여가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위치 기반 및 맞춤형 여가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서비스의 통합 제휴, 지자체 간 교차서비스, 여가패스카드 도입 등을 지원해 수요자 친화적 공급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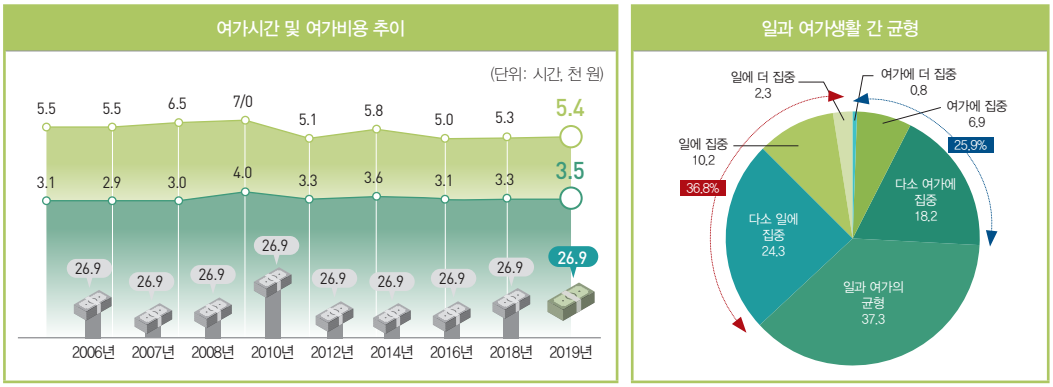
③ 추진전략 3: 여가생태계 다양성 확대

여가서비스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서비스 품질 제고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하고 건강한 여가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여가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가산업분류체계 구축, 여가백서 발간 등, 여가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여가산업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가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가전문인력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여가서비스 일자리 창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산업 종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아날로그 여가, 마니아 여가, 자연친화형 여가 등을 지원하고, 사업화 영역 발굴, 여가 체험과 정보 교류, 미래 여가 수요 발굴을 위한 체험형 여가산업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나.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 발표

다양하고 변화되는 국내 여가환경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활동 참여 실태와 여가만족도 분석을 통한 국민여가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19년 국민여가활동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2019 국민여가활동 조사'의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10,060명이었으며, 조사 기간은 2019년 9월 9일부터 11월 14일로 1:1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림 5-1-14 2019년 국민여가활동 조사 주요 결과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은 각각 3.5시간, 5.4시간으로 2018년에 비해 모두 소폭 증가하였고, 월평균 여가비용 역시 15만 6천 원으로 2018년에 비해 5천 원 상승하였으며, 평균 휴가일수는 6.4일로 2018년 5.4일에 비해 1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유형으로는 휴식활동(산책 및 걷기 · 낮잠 · TV시청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16년 86.9% → '18년 86.0%), 올해 다시 92%로 상승한 점과, '18년에는 취미 · 오락활동(요리 · 생활공예 · 등산 · 낚시 · 인터넷 검색 등)이 90.5%를 기록하며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으로 나타났으나, 올해는 '16년과 비슷한 수준인 85.9%로 하락한 점이 특징적이었다('16년 86.5% → '19년 85.9%).

또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1순위 기준)은 여전히 TV시청이었으나, 그 비중은 감소('16년 46.4% → '18년 45.7% → '19년 43.9%)한 반면, 모바일 콘텐츠 · 동영상 · VOD시청이 차지한 비중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8년 0.2% → '19년 3.9%)

지난 1년간 국민들이 한 번 이상 참여한 개별 여가활동은 1인 평균 18.3개로서, 우리 국민들은 2018년에(19개) 비해 0.7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구소득에 따라 여가활동의 개수, 지속적 · 반복적 여가활동, 휴가 경험 등에 차이가 있어 여가활동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 규모별 여가만족도 분석 결과 대도시가 여가활동에 대한 필수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반면, 읍면지역은 여가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가 만족도는 높게 나타난 점 또한 특징적이었다(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 대도시 4.55<중소도시 4.56<읍면지역4.75, 여가활동이 삶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 대도시 5.65>중소도시 5.63>읍면지역 5.39).

2019년 현재 자신의 삶에서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0%('18년 37.3%)였고, 일에 더 집중한다는 응답은 32.6%('18년 36.8%), 여가에 더 집중한다는 응답은 31.3%('18년 25.9%)로 나타나 전년 대비 여가 집중 경향이 심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은 국민여가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여가활동에 할애하는 시간과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또한 증가('18년 47.5% → '19년 56.5%)하고 있으나, 가구소득에 따른 여가활동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2018년 6월 발표)'에 따라 국민들이 여가로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여가시설 확충 ·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 여가문화 프로그램 및 시설 확충

문화주체로서 노년층의 문화 체험 · 참여 확대와 건전한 여가활동 및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어르신문화예술교육 지원',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어르신&협력 프로젝트',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등 등 어르신 문화프로그램(258개 문화시설 및 단체, 311개 프로그램, 10,039명 참여)을 지원하였고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확대(('18) 28,564개 → ('19) 30,726개)하였다.

더불어 지역문화거점인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을 조성(박물관 · 미술관 ·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2,749개소('18) → 2,825개소('19)하여 다양한 체험 · 교육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

(2) 여가친화기업 사업 추진

2012년부터 시작된 여가친화기업 인증 사업은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추구하는 직장인들이 여가활동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여가친화기업 인증' 사업은 기업의 친여가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 여가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9년 현재 총 154개사가 여가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 해당 기업들은 기업 홍보와 소속 임직원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고 있다.

올해는 '여가친화기업 선정 · 지원' 사업에 신청한 52개 기업 중 44개사를 여가친화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주 40시간 재량 근무제', '자율 연차 사용', '여가친화 업무 담당 전담조직 운영', 매주 금요일 일찍 퇴근하는 '홈데이' 등 다양한 여가활성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5-1-29 '여가친화기업 선정' 현황

연도	여가친화기업 선정 현황
2012년	KT, 여행박사, 아모레퍼시픽, KTB투자증권, 다음커뮤니케이션, 휴비츠, 마미로봇, 안랩, 대상, 한국애보트
2013년	벽산엔지니어링, 엠엘씨월드카고, 코리아드라이브, 핸드스튜디오
2014년	SK하이닉스, ㈜넥슨, ㈜에이스탁, 올림푸스한국(주), ㈜내일투어, ㈜사람인에이치알, ㈜사이버다임, ㈜세아제강, 신한생명, 씨제이헬로비전주식회사, ㈜유컴패니온, ㈜웹케시, 한국애브비, ㈜현대HCN
2015년	한국관광공사, 한국남부발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 ㈜골프존유원홀딩스, ㈜네오플, ㈜하나투어, ㈜데브구루, ㈜이노레드, 이지웰페어(주), 지니네트웍스(주), ㈜지에스인스트루먼트, ㈜칩스앤미디어, ㈜파수닷컴, ㈜한글과컴퓨터
2016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공사, 인천항만공사, KT&G, 롯데마트, 무림피앤피, 골프존네트웍스, 델리팜, 넷맨, 오케이몰, 펜타브리드,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영진철강, 필즈엔지니어링, 성도지엘, 유비벨룩스, 눔코리아
2017년	경상북도개발공사, 그랜드레저코리아, 김해도시개발공사, 대구시설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시설관리공단, 충북개발공사, 한국중부발전, 롯데쇼핑, 케이티하이텔㈜, ㈜젠큐릭스,예쁜미소바른이치과, 하지공업(주),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재)아름다운 가게, ㈜쏠리드, ㈜휴넷, ㈜엠서클, ㈜위드에스엠
2018년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도봉구시설관리공단, 해양환경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롯데리조트, 롯데물산㈜, 롯데케미칼 ㈜, 롯데캐피탈㈜, 롯데슈퍼, ㈜1현대홈쇼핑, 롯데첨단소재, 롯데렌탈㈜, 롯데비피화학㈜, 롯데칠성음료㈜, 한전산업개발㈜, 한국후지필름㈜,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GC녹십자, 롯데컬처웍스㈜, E&L INTERNATIONAL CO, 브레인즈스퀘어㈜, 풍림무약㈜, 스튜디오씨드코리아㈜, ㈜한국인증협회, ㈜하이트론씨스템즈, ㈜엘이테크, ㈜슈피겐코리아
2019년	김병준 레다스 흉부외과, 웹와치㈜, 이스트소프트, 이스트시큐리티,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마이크로필터, ㈜미쓰윤, ㈜부뜰정보시스템, ㈜샤픈고트, ㈜셀메이트, ㈜아이템베이, ㈜오셔닉, ㈜오픈놀, ㈜유브레인커뮤니케이션즈, 코아드, 대한조선㈜, 동국제약㈜, 동일고무벨트㈜, 롯데알미늄㈜,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디알비동일, ㈜유베이스, 롯데건설㈜, 롯데손해보험㈜, 롯데쇼핑㈜e커머스사업본부, 롯데정밀화학㈜, 서비스탑㈜, ㈜호텔롯데, ㈜대홍기획, ㈜부산은행, ㈜한국인삼공사, ㈜호텔롯데롯데월드, 한국에자이㈜,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부산도시공사,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천시시설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케이티앤지

제2절 도서관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도서관은 지식기반사회의 국가 지식 인프라의 원천으로서 국가 창조역량 강화의 토대확립 및 국민 행복 제고를 위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도서관 정책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활에 다가가는 도서관서비스 강화, 급변하는 사회 · 문화 · 정치 · 경제에 대한 시민의 참여적 적응력 강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서관 모색 등 도서관 활동에 대한 정책적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년~2023년)을 수립 · 발표(2019년 1월)하였고, 이를 기초로 2019년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정책 기반을 마련하였다.

선진국 수준의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 및 작은 도서관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가는 한편,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조사의 내실화, 도서관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 지정 · 설립 등 지역별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 보급 및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지역특화도서관 육성 지원, 오픈액세스 등 디지털서비스 기반 구축, 다문화와 취약지역 대상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등 도서관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다.

정부수립과 함께 도서관정책은 문교부에서 주관하여 오다가 1990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문화부가 신설되고 이와 함께 도서관진흥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원하는 도서관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1991년 4월 8일 도서관정책 업무가 문화부로 이관되었으며, 1991년 12월 17일에는 어문출판국에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본격적으로 국가차원의 도서관정책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2003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는 '지식문화강국'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기관 각 부분의 업무 및 기능 혁신을 꾀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11월 11일 문화관광부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 정책 수립 및 집행기능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대폭 이관하였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정책 기능을 문화관광부로부터 이관 받은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2006년 2월에 '공공도서관 정책현황과 발전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2006년 4월에 작은 도서관 진흥팀을 신설하는 등 도서관이 국가 지식정보센터의 중추로서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반조성에 역점을 둔 다양한 도서관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강화하였다.

2007년 4월 5일「도서관법」전면개정과 함께 문화관광부의 조직을 일부개편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정책과를 폐지하는 한편, 5월 22일 문화관광부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을, 6월 12일에는 대통령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도서관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 추진 및 주요사항의 부처 간 조정과 통합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정책 추진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019년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하여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제도 · 정책 · 연구기능을 강화하였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도서관법」제12조에 의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도서관관련 제도의 개선,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도서관 설립 및 육성 지원, 도서관 운영평가, 도서관 정보화 정책 추진 등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 · 심의 · 조정하여 전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7년 6월 12일에 발족하였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제1기(임기: 2007년 6월 12일~2009년 6월 11일)에 한상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 13명과 당연위원 9명 등 22명으로 구성 · 운영하였으며, 제2기(임기: 2009년 6월 12일~2011년 6월 11일)는 김봉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 17명과 당연위원 10명 등 27명을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2011년 6월 11일에 제2기 위원회의 운영을 종료하였다.

제3기 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이 차기위원장을 위촉한 후, 위원장이 차기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개정「도서관법(2011년 4월 5일 공포)」의 시행시점인 2011년 7월 6일 이후로 위원회 구성일자를 변경하였다. 제3기 위원회(임기: 2011년 8월 1일~2013년 7월 31일)는 제2기의 김봉희 위원장이 연임하고, 위촉위원 14명과 당연위원 10명 등 24명을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제4기 위원회(임기: 2013년 12월 3일~2015년 12월 2일)는 최은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 15명과 당연위원 11명 등 26명으로 구성하였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 '도서관법 · 제도소위원회', '지식정보문화경쟁력강화소위원회',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등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서관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의견 수렴 및 사전 심의하는 등 2015년 12회의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와 아울러 도서관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련 수렴을 통해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고자 도서관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제5기 위원회(임기: 2016년 3월 1일~2018년 2월 28일)는 신숙원 위원장과 위촉위원 15명 및 당연위원 11명 등 2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4개의 소위원회(도서관정책기획, 도서관법 · 제도 개선, 지식정보문화경쟁력 강화, 지식정보경차 해소)를 두어 각 사안별 포럼과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도서관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제고를 도모하였다. 2017년 동 위원회는 총 10회 회의(본회의 2회, 소위원장회의 8회)를 통해 도서관정책 현안 논의와 의견수렴, 정책제안,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발전 기조에 발맞추어 도서관 정책방향 수립과 신규모델 창출 및 협력적 추진을 위한 외부 네트워킹 강화를 위하여 '2017 도서관정책기획포럼'을 운영하였다. 공간, 사람, 콘텐츠 및 서비스의 3개 분과로 구성하여 17회에 걸쳐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하였으며, 이의 결과로「도서관정책기획포럼」자료를 발간하고, 12월에 '미래도서관정보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제6기 위원회(임기: 2018년 4월 9일~2020년 4월 8일)는 신기남 위원장과 위촉위원 19명 및 당연위원 11명을 포함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5개의 소위원회(도서관 정책기획, 도서관법 · 제도개선, 지식정보격차 해소, 4차 산업혁명 적용, 남북교류)를 두어 각 사안별 분과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제고를 도모하였다. 2018년 동 위원회는 총 19회 회의(본회의 5회, 분과회의 14회)를 통해 도서관정책 현안 논의와 의견수렴, 정책제안,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와 학계,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도서관정책포럼 분과(서비스, 정보불평등, 거버넌스, 인력분과)를 운영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관계부처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확정('18.12.21)후 발표('19.1.23.)하였다.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의비전을 제시하여 ▲ 사람에 대한 포용성 ▲ 공간의 혁신성 ▲ 정보의 민주성을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4대 전략목표, 13개 핵심과제, 36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또한 제6기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2018년 6월부터 국립중앙도서관 7층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지원팀을 운영하였고, 관계부처 협의 및「도서관법 시행령」개정 등을 거쳐 2019년 10월 효율적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공식 사무기구를 설치하였다(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의 2(사무기구) 신설, 총 9명, 4급 1, 5급 5, 6급 1, 전문임기제 2). 2019년에는 총 17회의 회의(전체회의 3회, 소위원회 11회, 소위원장 회의 3회)를 개최하여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사무국 설치,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개선 등 다양한 도서관 현안 및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도서관 정책수립 및 도서관운영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19년 4월에는 제6기 출범 1주년에 맞춰 '우리의 삶을 바꾸는 도서관'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하였고, 2019년 10월에는 전국도서관대회 행사기간 중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도서관현장 전문가, 전문학자 등과 함께 미래도서관의 역할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그리고 2019년 8월 그리스에서 열린 '2019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에 신기남 위원장이 참석하여 '2023 세계도서관정보대회 한국(부산)유치 활동' 등 국제교류 협력활동을 강화하였다. 2019년 10월에는 '도서관 협치전략 연구모임' 을 구성하여 제6기 위원회가 제안한 '10대 과제 및 4대 긴급사안' 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제7기 위원회 정책의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략 및 실행과제'를 작성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제6기 위원회 정책활동 평가 및 제7기 정책 과제, 도서관계 주요현안 및 대정부 도서관정책제안' 등 향후 위원회가 도서관계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선도하기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표 5-2-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구성

구분	제5기 위원회	제6기 위원회
설치근거	「도서관법」 제12조	「도서관법」 제12조
설치목적	도서관정책의 수립 · 심의 · 조정	도서관정책의 수립 · 심의 · 조정

구분	제5기 위원회	제6기 위원회
위원구성	26명(당연직 11명, 위촉직 15명)	30명(당연직 11명, 위촉직 19명)
임기	2년(2016. 3. 1. ~ 2018. 2. 28.)	2년(2018. 4. 9. ~ 2020. 4. 8.)
위원장	신숙원	신기남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무국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 수행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별도 운영(9명)

2. 일반현황

1) 주요 국가별 도서관수, 1관 당 인구수 및 장서(인쇄) 수

표 5-2-2 주요 국가별 도서관 수 · 1관 당 인구 및 장서(인쇄)수

(단위: 개관/명)

국가	연도	도서관수	1관당 인구수 인구	1인당 장서수
한국	2019	1,134	45,723	2.2
미국	2018	9,261	35,331	2.3
호주	2018–2019	1,683	14,963	1.6
독일	2019	7,148	11,614	1.3
일본	2019	3,303	38,664	3.6

* 장서 수 : 인쇄자료(도서)
* 자료출처 – 한 국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 2019
– 미 국 : IMLS(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 2018
– 호 주 : NSLA((National and State Libraries Australia) / 2018–2019
– 일 본 : 日本図書館協会(Japan Library Association) / 2019
– 독 일 : DBS(Deutsche Bibliotheksstatistik) / 2019

2) 전국 도서관 수

표 5-2-3 전국 도서관 수

(단위: 개관)

지역	계	국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	작은 도서관	대학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전문 도서관	교도소 도서관
서울	2,842	2	180	1,005	88	1,302	261	3
부산	1,105		44	396	26	609	28	2
대구	745		43	216	17	443	24	2
인천	874		53	268	12	524	16	1
광주	753		23	394	18	306	11	1

지역	계	국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	작은 도서관	대학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전문 도서관	교도소 도서관
대전	630		26	233	20	301	49	1
울산	442		19	168	6	241	9	1
세종	180		11	57	5	93	14	–
경기	4,492	1	277	1,634	83	2,400	14	7
강원	929		58	207	25	625	12	4
충북	813		48	253	20	468	21	3
충남	1,187		63	366	31	714	7	6
전북	1,175		59	318	22	761	12	3
전남	1,235		70	299	20	833	9	4
경북	1,313		66	265	39	915	19	9
경남	1,517		72	438	24	956	23	4
제주	378		22	155	5	189	6	1
계	20,610	3	1,134	6,672	459	11,678	612	52
총계	22,512	병영도서관 1,855개관, 장애인도서관 47개관						

※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 2019년 12월 기준

*국립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포함),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장애인도서관 : 2018. 12월 기준(격년조사)

*공공, 국립, 작은, 전문, 교도소 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2019년 12월 말 기준)

*학교, 대학도서관: 교육부(2020년 4월 기준)

*병영도서관: 국방부(2019년 12월 말 기준)

3) 공공도서관 일반현황

표 5-2-4 공공도서관 현황

(단위: 개관/명/책/백만 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공공도서관 수	930	978	1,010	1,042	1,096	1,134
1관당 인구수(명)	55,191	52,688	51,184	49,692	47,287	45,723
1인당 책수(책)	1.75	1.82	1.91	2.0	2.15	2.22
도서(인쇄)수(천책)	89,616	93,838	98,824	104,965	111,360	115,074
직원수(명)	7,845	7,885	8,136	8,248	9,139	9,503
사서직원수(명)	3,821	4,073	4,277	4,461	4,792	5,090
운영예산(백만 원)	732,512	825,093	908,448	995,584	1,065,849	1,147,030
이용자수(천명)	290,608	281,672	282,040	272,068	278,235	284,411
대출책수(천권)	137,976	127,891	124,121	126,632	127,230	133,769

※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문화체육관광부 / '19.12.기준

* 직원수 및 사서직원수는 정규직원에 한함

* 운영예산은 인건비, 자료구입비, 운영비를 포함하며, 결산액 기준임

표 5-2-5 시도별 공공도서관 수

(2019.12.31. 기준)

시 · 도	도서관수				1관당 인구수
	공립		사립	계	
	지자체	교육청			
서울	153	22	5	180	54050.6
부산	28	14	2	44	77587.3
대구	26	9	8	43	56698.4
인천	44	9		53	55792.9
광주	17	6		23	63324.7
대전	24	2		26	56725.8
울산	15	4		19	60422.1
세종	10	1		11	30961.4
경기	262	11	4	277	47796.6
강원	35	22	1	58	26577.6
충북	32	15	1	48	33333.5
충남	44	19		63	33709.7
전북	40	18	1	59	30829.1
전남	47	22	1	70	26696.4
경북	38	28		66	40391.5
경남	45	26	1	72	46702.1
제주	16	6		22	30499.5
계	876	234	24	1,134	45723.0

3.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도서관 법제도 정비

(1) 법령 개정 개요

주승용 의원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속 변경/'16년 7월 6일) 및 신동근 의원(사서자격증 취소/'19년 3월 29일)의 도서관법 일부법률 개정안이 2019년 12월 3일에 공포되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변경하여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제도 · 정책 ·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서 자격을 취득하거나 사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5-2-6 2019년 도서관법 개정 추진 현황

연번	법안명	대표발의	주요 내용
1	도서관법 (일부)	'16.7.6 주승용(바른미래당)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
2	도서관법 (일부)	'19.3.29 신동근(더불어민주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서 자격을 취득하거나 사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도서관법」 제14조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09년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을 시작으로 2014년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년~2018년), 2019년에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년~2023년)을 수립하였다.

제3차 발전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을 정책비전으로 제시하였고, ①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②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③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④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을 4대 전략방향으로 설정하고 각 전략방향에 따른 13대 핵심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수립 · 제시하였다.

또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36개 세부추진과제에 대해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 · 도는 「도서관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제출된 계획(안)에 대한 심의 · 조정을 거쳐 2019년(제1차년도)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확정 ·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도서관이 지향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도서관 활동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개인 · 공동체 · 사회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서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5-2-7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주요 정책과제

전략방향	핵심과제
1.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이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 확대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2.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공동체 기억의 보존 · 공유 · 확산
	교류협력의 플랫폼 기능 강화
3.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
	공간의 개방성 확대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전략방향	핵심과제
4.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
	도서관 협력체계의 강화
	도서관 자원의 공유기반 구축
	도서관 인프라 확대

2)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지식정보사회에서 도서관 확충을 통한 문화 향유권 신장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및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OECD수준의 공공도서관 확충

정부는 도서관법에 의한 법정계획인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년~2023년)에 근거하여 OECD국가 등 선진국 수준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3년까지 공공도서관 1,468개관을 조성하여 인구 약 3.6만 명당 도서관 1개관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은 지역의 교육 · 문화 중심지이며 복합문화정보공간인 공공도서관을 확충하여 전 국민의 정보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고 도농 간 문화 및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수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건립비의 40% 범위 내에서, 농어촌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총 건립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6억 원까지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1991년부터 2018년도까지 1,061개관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했으며, 2019년도에는 123개관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였다.

공공도서관의 건립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 연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거나, 노후화된 공공도서관의 리모델링 및 공간 재구성을 통해 평생 학습, 복합문화공간, 지역민의 소통(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양적인 확충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8년부터 공공도서관 건립의 내실을 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도서관의 건립 ·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건립 및 리모델링 예정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설계 · 시공 ·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표 5-2-8 공공도서관 연도별 지원실적 및 예산액

사업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지원실적 (개관)	532	56	53	50	53	47	49	43	58	66	54	123	1,184
예산액 (억 원)	2,473	342	481	519	419	388	592	460	507	729	701	821	8,432

(2)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2004년부터 시작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문화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노후한 소규모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거나 공공건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소규모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9년까지 총 964개관의 조성을 지원하였다.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은 지역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공간(서고, 열람공간, 모임공간 등) 조성비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물자(컴퓨터, 자료구입비 등) 구입경비 일부에 대해 국고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표 5-2-9 작은도서관 연도별 지원실적 및 예산액

사업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조성실적 (개관)	224	61	68	60	55	52	36	32	31	18	16	311	964
예산액 (억 원)	160	35	33.8	34.2	28.5	28.5	20	20	17.2	10.8	10.2	232	630.2

(3)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지원 사업은 직장인 · 학생 등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야간에 자료실을 개방하여 도서관자료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6년 11월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및 16개 지역별 대표도서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다가 2007년에는 80개 도서관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2019년에는 참여 공공도서관이 525개로 증가하면서 1,313개의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표 5-2-10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도서관 수	80	117	253	257	300	357	364	425	427	483	512	525	525
일자리 수	435	400	879	706	832	1,006	1,046	1,234	1,227	1,152	1,258	1,309	1,313
예산(억 원)	57	43	68	64	64	80	90	103	105	123	123	146	167

(4)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2000년대 이후 작은도서관은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의 중심시설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2012년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어 전국에서 작은도서관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질적 성장을 담보하지 못한 무분별한 설립으로 부실운영 작은도서관 또한 늘어났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 집행하였다. 국가 및 지자체가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법」 특별전담반(TF)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를 파견하여 체계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했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 '작은도서관 책친구',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1관1단' 등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작은도서관 역할을 강화했다. '작은도서관 정책 운영 컨설팅',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 '독서프로그램 기획 · 운영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했다.

(5)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운영 및 협력 체계 구축

2006년 10월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도서관정책 및 서비스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다. 그동안 중앙 집중적인 도서관정책 체계 속에서 관 종별로 분산 발전해 온 도서관서비스가 지역중심으로 전환되어, 광역시 · 도가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 운영하는 등 지자체 단위로 조정 · 통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의 수립 지원, 시 · 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 및 제공, 지역의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 연구, 지역의 자료수집 지원 및 자료의 공동보존' 등 광역지자체의 도서관정책을 집행하는 실질적 행정기구로서, 해당지역의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시 · 도에서는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여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한다.

2019년 기준 총 16개 지역대표도서관이 지정 · 설립, 운영 중이다.

표 5-2-11 지역대표도서관 현황

(2019.12.31.기준)

지역	도서관 명	지정 및 설립
서울	서울도서관	'12.9.28. 설립
부산	(기존)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08.4.29 지정(교육청)
	(신규)부산대표도서관	건립 중, ~'20
대구	(기존)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11.3.1 지정(교육청)
	(신규)대구대표도서관	건립 중, ~'21
인천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08.4.1 지정 설립

지역	도서관 명	지정 및 설립
광주	광주광역시립도서관	'10.12.21 지정
대전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07.9.20 지정
울산	울산도서관	'18.04.26. 설립
세종	세종시립도서관	(건립 중, ~'21)
경기	(기존)수원시선경도서관	'15.1.2. 지정
	(신규)경기대표도서관	건립 추진(~ '23)
강원	춘천시립도서관	'18.11. 지정
충북	–	'20.1월 지정 예정
충남	충남도서관	'18.04.25. 설립
전북	전북도청도서관	'10.11.22. 지정
전남	전라남도립도서관	'11.10.20. 설립
경북	경북도서관	'19. 11.13. 설립
경남	경남대표도서관	'18.02.12. 설립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08.11.13. 설립

(6) 지역특화도서관 육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화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특화도서관 육성' 시범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8개 도서관(서울도서관 · 파주가람도서관은 '18년부터 자체 운영)을 지원, 2019년에는 10개 도서관을 지원하였다.

표 5-2-12 '특화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19) 현황

광역시 · 도	도서관명	특화주제	광역시 · 도	도서관명	특화주제
서울	강동구립천호도서관	공동육아	경기	인창도서관	문학
	마포평생학습관	미술 · 디자인		고양아람누리도서관	예술
부산	부산시립시민도서관	일제강점기	충남	아산시립송곡도서관	건강 (독서치유)
광주	광산구이야기꽃도서관	그림책		아산탕정온샘도서관	웹툰
전북	완주군립콩쥐팥쥐도서관	여행 · 과학	전남	순천조례호수도서관	생태환경

(7) U-도서관서비스 확대 지원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도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주민 생활밀착형 24시간 무인 대출반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에 직접 방문할 시간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 이용자들이 일상생활 반경 안에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이나 주민센터 등에 무인대출반납기를 설치하여 도서이용 환경을 다각화하고 있다.

표 5-2-13 2019년 U-도서관 서비스 운영 현황

광역시도	설치위치	광역시도	설치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스포츠센터(2개소)	충청북도	단양군(수변로)
부산광역시	연산역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역		당진(롯데마트)
광주광역시	광주상무역	경상북도	매전복합체육센터
	서문대로(전통시장)	경상남도	거창군(스포트파크, 승강기산업단지)
강원도	원주시장	제주도	애월읍(하나로마트)

3)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강화

(1)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강화

2011년 12월 29일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지식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의 책무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사회 계층 간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였다.

가.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확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의 공공도서관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다문화자료실을 설치하였다. 또 이를 계기로 다문화 도서관 문화 ·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다문화 가족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고 독서교육 · 치료를 통한 문화차이 해소와 타 문화 존중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표 5-2-14 다문화 자료실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현황

연도	지원 분야		지원기관		소요예산 (백만 원)
2009	2개관	김해다문화도서관, 성환읍다문화 도서관	12개관	강동구립성내, 달서다문화가족, 광주시립산수도서관 등	182
2010	6개관	부산시민, 인천중앙, 한밭도서관 등	16개관	동대문, 안산중앙, 김해다문화도서관 등	346
2011	11개관	은평구립, 영통, 목포공공도서관 등	30개관	고척, 사상, 인천중앙, 김해다문화도서관 등	570
2012	11개관	서울 조원도서관, 정독도서관 등	40개관	은평구립, 부산시민, 김해다문화도서관 등	600
2013	9개관	부산 남구도서관, 대구서부도서관 등	89개관	은평구립, 부산시민, 김해다문화도서관 등	700
2014	7개관	이진아기념도서관, 인천 학나래도서관 등	110개관	성북다문화도서관, 달서다문화도서관 등	700

연도	지원 분야		지원기관		소요예산 (백만 원)
2015	3개관	암사도서관, 소래도서관, 문경시립도서관	125개관	성북정보도서관, 부산 금정도서관 등	610
2016	4개관	마포평생학습관, 부산 다대도서관 등	127개관	노원평생학습관, 대구시립동부도서관 등	614
2017	–	–	146개관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부산 금정도서관 등	557
2018	–	–	157개관	성북정보도서관, 부산 정관도서관 등	520
2019	–	–	155개관	성북정보도서관, 부산 동구도서관 등	420

(2)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5조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등 교육 · 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적개발원조(ODA)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어린이, 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과 문화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개국에 작은도서관 132개관을 조성 지원하였다.

또한, 기조성 도서관에 도서, 멀티미디어 등의 추가 지원을 통한 지속적 사후관리와 현지사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내 도서관 정책, 우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사례 등 도서관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의 우호관계 확립과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표 5-2-15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현황

연도	조성지역	조성개수	사업비(억원)
2007	가나(2)	2개관	0.3
2008	모잠비크(5)	5개관	1.5
2009	가나(4), 탄자니아(4)	8개관	3
2010	가나(2)	2개관	0.7
2011	가나(4), 나미비아(1), 남아공(4), 에티오피아(5), 탄자니아(1)	15개관	5
2012	가나(5), 몽골(3), 에티오피아(2), 탄자니아(3)	13개관	8.6
2013	가나(3), 에티오피아(3), 잠비아(3), 케냐(1), 탄자니아(3)	13개관	8.6
2014	가나(5), 르완다(3), 몰도바(2), 에티오피아(4), 캄보디아(5)	19개관	9.3
2015	가나(3), 르완다(3), 에티오피아(6), 캄보디아(3)	15개관	9
2016	가나(3), 몽골(3), 베트남(4)	10개관	7.2
2017	몽골(3), 베트남(3), 탄자니아(4)	10개관	5.5

연도	조성지역	조성개수	사업비(억원)
2018	몽골(3), 베트남(4), 탄자니아(4)	11개관	6.3
2019	몽골(3), 베트남(3), 탄자니아(3)	9개관	5.6
합 계		132개관	70.6

4) 도서관 운영 평가 및 통계조사 내실화

(1) 운영평가

문화체육관광부는 1998~2003년까지 '전국 문화기반시설 평가'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간의 경쟁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유도하여, 문화기반 시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도서관정책기획단은 국가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정보서비스 환경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2008년부터 본격 실시되는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4호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에 따라 2007년 공공 · 대학 · 학교 · 병영 · 교도소전문도서관 등 6개 관종 56개관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보완된 평가지표로 2008년 처음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하였다.

2019년에는 총 2,315개관(공공도서관 1,038, 학교도서관 804, 병영도서관 378, 교도소도서관 52, 전문도서관 43)이 도서관 운영평가에 참여하였으며, 평가기준은 전년도 도서관 운영 실적이며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해 우수기관이 확정된다. 평가포상은 2008년부터 정부 및 장관 표창이 도서관 단체상으로 배정되어 현재까지 우수 도서관에 대한 표창이 수여되고 있다. 또한 단체상과 더불어 도서관 운영평가 추진 유공자에 대한 장관 표창도 함께 수여되었다. 우수도서관 시상식은 2009년부터 전국 도서관대회 개막식에서 실시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더욱 높였다.

표 5-2-16 2019년도 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 선정결과

정부표창 (9)		
대통령상 (2)	공공도서관	동대문구 답십리 도서관(서울)
	학교도서관	민족사관고등학교(강원)
국무총리상 (7)	공공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송파도서관(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서울)
		송파글마루도서관(서울)
		마포구립서강도서관(서울)
	학교도서관	성남수정초등학교(경기)
		대흥중학교(경기)
	병영도서관	해군 진해기지사령부(경남)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3)	
학교도서관	대전송강초등학교(대전)
	대전봉명중학교(대전)
	홍익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서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33)				
공공 도서관	1	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서울)	8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대구)
	2	부천시립꿈빛도서관(경기)	9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서울)
	3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부설 산성도서관(대전)	10	서울특별시교육청강동도서관(서울)
	4	서울특별시교육청마포평생학습관(서울)	11	서울특별시교육청종로도서관(서울)
	5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부산)	12	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서울)
	6	인천광역시립수봉도서관(인천)	13	해남군립도서관(전남)
	7	부산광역시립사하도서관(부산)	14	순천시립조례호수도서관(전남)
학교 도서관	1	상탑초등학교(경기)	6	대구진천초등학교(대구)
	2	대구동도초등학교(대구)	7	대전오류초등학교(대전)
	3	백마중학교(경기)	8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전남)
	4	지세포중학교(경남)	9	여수여자고등학교(전남)
	5	이포초등학교(경기)	10	하안북중학교(경기)
병영 도서관	1	육군	2작사 사령부(대구)	
	2	육군	5군단 5포병여단 752대대(경기)	
	3	공군	교육사령부(경남)	
	4	해군	포항병원(경북)	
	5	육군	2작사 35사단 기동대대(전북)	
교도소도서관	1	공주교도소(충남)		
전문도서관	1	통계청 나라셈도서관(서울)		
광역지자체	1	전라남도		
광역교육청	1	강원교육청(강원)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특별상(6)	
기초지자체	서울특별시 중구
	전라남도 순천시
전문도서관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전문도서관(서울)
학교도서관	송죽초등학교(경기)
병영도서관	육군 수방사 56사단 정보통신대대(경기)
교도소도서관	경북북부제2교도소(경북)

(2) 도서관 통계조사

도서관정책기획단은 ① 도서관 전체 관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통계 작성, ② 도서관 정책 추진 및 연구 지원을 위한 신뢰성 있는 도서관 통계정보 제공, ③ 통계조사 결과공유를 통한 부처간 중복조사 방지 및 통계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2008년부터 "전국 도서관 통계조사"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추진경과로는 2008년 8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개발' 및 '전국 도서관 통계'의 국가통계로 승인, 2008년(1차년도) '전국도서관통계조사' 실시 및 2009년 2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개통'을 추진하였으며, 매년 조사 · 수집된 도서관 통계 정보를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도서관통계"의 조사대상은 국립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법 제2조에서 정의한 도서관으로, 조사범위는 도서관 기본정보를 포함한 8개 영역(소장자료, 시설 · 설비, 인적자원, 예 · 결산, 이용자 현황, 서비스 현황 등)이다. 통계작성은 관종별 도서관 통계담당자가 웹 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통계 설문에 응답하는 '보고통계' 형태로 추진되며, 통계작성 주기는 1년이다.

또한 통계작성의 중복 방지 및 관종별 단위도서관의 업무 부담 해소 등을 위해 타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도서관 통계 협력체계' 구축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도서관 통계담당자 권역별 워크숍'을 실시하여 도서관 통계의 품질 제고 및 신뢰도 있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국민 통계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5-2-17 '전국도서관통계' 조사대상 및 협력기관(2019)

조사 대상	대상기관 수	조사 방법	통계 협력기관
1. 국립도서관	3	웹 설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2. 공공도서관	1,134		17개 시 · 도 및 시 · 군 · 구 (시 · 도 교육청 포함)
작은도서관	6,672	데이터 요청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업로드)	문체부(작은도서관 담당)
장애인도서관	44		국립장애인도서관
교도소도서관	52	웹 설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법무부
병영도서관	1,855	데이터 요청	국방부
3. 대학도서관	459	데이터 요청	교육부
4. 학교도서관	11,678	데이터 요청	교육부
5. 전문도서관	612	웹 설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한국도서관협회 등
계	22,465		

*장애인 도서관은 격년으로 조사하며, 2019년 조사대상이 아님

4. 주요 기관

1) 국립중앙도서관

(1) 조직현황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의 지적 문화유산을 총체적 · 체계적으로 수집 · 보존하여 이를 후세에 전승시키는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문헌정보의 총보고'이다. 1945년 10월 15일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조선총독부도서관 건물과 장서를 인수하여 '국립도서관'으로 개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토대를 마련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19년 12월 3부 3관 19과(팀) 1연구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총정원은 331명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2019년 세입예산은 재산수입(토지 · 건물대여) 641백만 원, 경상이전수입 7백만 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744백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징수 금액은 1,151백만 원으로 예산액과 대비하여 82.7%가 징수되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01,341백만 원, 세출예산현액은 100,683백만 원으로 세출예산 집행률은 92.2%(92,814백만 원)이고, 이월액은 1,126백만 원, 불용액은 6,743백만 원이다.

(2) 주요성과

가. 국내외 자료의 수집 · 정리 · 보존관리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의거, 국내에서 발행(제작)되는 자료를 포괄적으로 납본 수집하여 후대전승을 위한 영구보존 및 대국민 이용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외 발행 한국학 관련 자료와 서양서 등 다양한 언어의 자료를 구입 및 수집하고 있으며, 국제교환으로 국제기구 자료, 각국의 출판정보 및 학술자료 역시 수집하고 있다. 더불어 대국민 도서기증사업 '책다모아'를 통해 납본제도 시행(1965년) 이전에 발행된 미 소장 국가문헌을 확충하고 있다.

납본대상 자료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CD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이며 2016년 2월 도서관법 개정으로 오프라인 자료뿐만 아니라 온라인 자료의 납본이 시행('16.8.4)되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공공간행물의 경우에도 디지털파일 납본을 의무화하고 납본부수를 2부에서 3부로 확대하였다. 학위논문은 자료 이용이 인쇄 매체에서 디지털 파일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2019년 발행 석 · 박사 학위논문부터 인쇄본을 2부에서 1부로 조정하여 수집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연계하여 디지털 파일 수집을 강화하고, 학위논문 서지데이터를 제공 받아 등록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국가지식자원 수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수집 규정」을 개정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수집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체계적 장서개발 및 자료확충을 위해 「2020년 장서확충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내발행 일반도서는 법정 납본 기일인 30일 이내 수집을 위해 실시간 도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자료종합목록,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 정보, 외부 출판도서유통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국가지식정보자원이 빠짐없이 수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공공간행물의 경우에도 국내 비엔날레 및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 관련 발간자료를 적극 발굴 · 수집하였다.

또한 절판 등으로 수집이 어려운 국내발행 연속간행물 결호에 대해 인쇄본 원본 파일로 대체 수집하여 자료의 완결성 유지에 노력을 기울였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집을 위해 출판사 방문 접수,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수집 · 등록 처리 기간 단축 등「신간 자료 우선 수집 · 정리」체계를 강화하여 교양 · 학술 분야 신간 도서의 서지데이터 실시간 제공 기간을 전년 대비 11일 단축하였다.

국가문헌 납본수집 활성화를 위해 출판사 및 유통사 현장을 방문(194개처)하여 납본 내용 및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출판계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현장 납본 수집(8,628책)을 강화하였다. 또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2,800개 처에 「납본 안내서」를 배포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우정공무원교육원과의 협력을 통한 신규 공무원대상 공공간행물 납본 교육(7회) 및 공공기관 방문 홍보를 통해 공공간행물 납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납본율 향상에 힘썼다. 더불어 연속간행물 또한 적시에 결호 없이 수집되도록 잡지사, 학회, 신문사 등 489개 처에 납본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였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의 3에 의거 2009년부터 도서관자료의 선정 · 종류 · 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일반자료, 온라인자료, 디지털파일자료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일반자료분과 1회 2건 및 온라인자료분과 2회 4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다.

납본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신속하게 납본하는 출판(제작)사에 납본유공자 표창(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매년 수여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일반도서와 연속간행물 부문 각 1개 처를 선정 · 시상하였다.

2019년도에 납본, 구입, 기증, 교환으로 52만여 책(점)을 수집, 2019년 12월 말 현재 12,307,623책(점)에 달하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고문헌 수집으로 『황화집(皇華集)』 등 고서 88종 387책(점)을 구입하였다. 공공기관 고문헌 정리 및 관리 지원 사업을 처음 실시하여 고하문학관 등 9개 처 4,501책을 정리하였다. 국외 소장된 고문헌 중 대만국가도서관 소장 『비요보해(備要補解)』 등 47종 224책을 영인 수집하였으며, 본관 국외자료는 한국 관련자료 1,560책을 포함한 학술서 11,553책을 구입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수집 · 보존하고 있는 미 행정부 생산 공문서와 NARA컬렉션 중 한국관련 기록자료를 디지털 영인 수집하여 근 · 현대기의 한반도 정세와

주변국과의 관계 연구를 위한 1차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미 부관참모실 문서군(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등 NARA 소장 한국 관련 기록물 116,850면을 수집하여 현재 총 37,905건의 서지목록데이터 및 2,987,880면의 원문 데이터를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2019년에 수집된 자료들은 분류 · 목록 등 자료정리를 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과 국가전자도서관 등을 통해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주요 실적은 국내서 · 중국서 · 일본서 418,814책, 서양서 64,745책, 고문헌 2,164책, 비도서자료 33,303점 등 총 519,026책(점)이다.

표 5-2-18 국립중앙도서관 장서 현황(2019. 12.)

구분	한국서	일본서	중국서	서양서	고서	비도서	계
수량(책 · 점)	8,779,564	322,423	103,738	1,075,087	282,681	1,744,130	12,307,623
점유율(%)	71.3	2.6	0.9	8.7	2.3	14.2	100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지적문화유산의 전승과 보존을 위하여 2019년도에 다음과 같은 보존 · 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 귀중자료 보존 · 복원처리, 시청각 매체 등 비도서자료 보존 · 복원처리, 첨단 보존 · 복원 시설 및 장비운영, 장서점검 등 보존용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IFLA PAC 한국센터 운영,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등을 추진하여 국가문헌 보존에 기여하였다.

소장 개인문고인 영해문고 컬렉션의 훼손이 심각하여 상태점검 후 열화 · 훼손자료에 대해 보존 · 복원처리를 실시하였다. 『(재일)영친왕비의 수기』, 『백범일지(1947년)』 등 훼손자료의 해철, 건식클리닝, 본문지 결손 부분배접 및 책등, 표지 훼손부의 복원, 재제본 등의 복원처리를 실시하였다. 이외에 청나라 외교문서 등 총 204책(점)의 보존 · 복원처리를 완료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모도가 봄이다: 방정환과 한국 어린이운동』 전시자료인 『나비의 꿈』 등 4책을 보존처리하고 인계하였다. 신규 지정된 귀중본 연속간행물 『鑛業時代』 등 85책의 중성 보존상자 및 폴더를 제작하여 보관하였으며 소장 문화재 『십칠사찬고금통요(十七史纂古今通要)』 등 20종 69점에 대한 보존상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보존관리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계식 보존 · 복원 처리(리프캐스팅)방식을 활용하여 훼손된 『동아일보, 1951년』 등 신문자료의 복원처리를 실시하였다(11권 1,731장).

위와 같은 전문 복원처리 외에도 장서의 효율적 보존을 위한 훼손예방 대량보존처리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곰팡이 · 미생물들에 의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90,202책을 소독처리하고 먼지로 인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1980년~1990년 사이에 출판된 원본자료 중 오염된 『문학교육론』 등 10,058책의 건식세척을 집중 실시하였다. 대량 탈산처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종이가 갈색으로 변색되고 바스러지는 등 자료의 산성화로 인한 훼손을 예방하였다. 탈산처리는 산성화된 자료에 알칼리성 약품을 투여하여 산성도 가늠 수치(pH)를 중성인 pH 7 이상으로 높여줌으로써 종이자료의 수명을 연장한다. 2019년에는 소장자료 중 탈산처리가 시급한 1984년 이전 출판 원본자료인

『스포츠조선』 등 88,564점을 탈산처리 하였다.

또한 음반,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등 아날로그 시청각 매체의 보존처리 및 디지털화를 진행하여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 원본 테이프의 내용수록 여부, 오류 발생률, 음원복원 등 상태점검과 되감기, 세척, 약품보호처리를 진행하였으며, 카세트테이프 『뉴패러다임(2010년)』 등 3,279점을 보존처리하였다.

전자매체자료인 CD, DVD 매체는 기록상태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오류체크 및 표면스크래치, 이물질 제거, 파손된 상자 교체 등 CD『파스텔(2001년)』 2,712점을 보존처리 하였다.

IFLA PAC 한국센터는 IFLA와 국내 자료보존 활동을 연계하는 창구로서 국내 자료보존 활동을 IFLA에 알리고 IFLA의 자료보존 협력활동에 국내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에 꾸준히 동참하고 있다. 2019년에는 PAC 한국센터의 교육, 홍보 등 다양한 활동내용이 담긴 연간활동보고서(annual report)를 제출하고 IFLA가 추진하는 국제협력의 '보존분야 FAQ' 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주제선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협력하였다.

2019년에는 최신 도서관계 동향을 공유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 자료 보존 · 복원 세미나를 「디지털 보존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2019년 10월 17일(목)에 개최하였다. 디지털 보존의 목적과 이론적 내용을 실제 업무사례와 함께 소개하여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전국 도서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13년부터 국가문헌의 활용성 및 보존성 확보를 위하여 소장자료 장서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일반 단행본 329,037책, 조선문 5,005책, 구양서 863책을 점검하였다. 장서점검은 물리적 보존상태와 서지데이터, 배가상태 점검이 주요 내용으로 중장기적 보존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반이 되고, 검색의 정확성을 추구하여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서고(디지털도서관, 자료보존관 포함)의 수장능력은 약 1,500만 권으로 2019년 12월 말 기준 1,276만 권을 수장하여 보존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7년 '국립중앙도서관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기본 연구'를 통해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의 필요성, 건립 후보지 검토 · 분석을 하였고, 2018년에는 '국가문헌보존관건립추진TF팀'을 구성하여 '2018 동계평창동계올림픽'의 유휴시설인 '국제방송센터'를 활용하여 국가문헌보존관을 건립하는 사업 계획을 구상하였다.

2019년 3월에는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을 위해 관계기관(도서관, 강원도, 조직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 보존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4월에는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고, 8월에는 총사업비 산출을 위해 '국제방송센터 시설 분석 및 리모델링비 산출' 용역을 진행하였다. 10월에는 2건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사업'을 기획재정부의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12월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추진의 시급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나. 디지털 지식정보콘텐츠 확충 및 서비스

① 디지털 지식정보 콘텐츠 확충

2016년 도서관법이 개정 · 시행됨에 따라 2016년 8월 4일 이후 발행 · 제작된 온라인 자료 중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받은 전자책과 전자저널 등을 납본 수집하고 있다. 온라인자료 납본 시행('16.8.4) 이전에 발행 · 제작된 전자책, 오디오북과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동영상 등의 온라인자료에 대해서는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하고 있다. 2019년에는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 34,318건을 납본 수집하였으며, 공공간행물 디지털파일 36,635건 및 학위논문 디지털파일 40,149건을 납본 수집하였다. 그밖에 구입, 자체수집, 기증을 포함하여 2019년 1년간 수집한 온라인자료는 284,459건이었다. 수집된 온라인자료는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 Ⅱ)에 체계적으로 등록, 보존하고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표 5-2-19 온라인자료 수집 현황(2019. 12)

자료유형		파일건수(건)
납본	전자책	17,001
	전자저널	11,174
	오디오북	6,143
	공공간행물	36,635
	학위논문	40,149
구입	동영상	6,093
	기타	20,537
자체수집	단행	3,006
	연속	72,308
기증	학술지	49,832
	음원	17,770
	공공간행물	3,504
	기타(회색문헌 등)	307
계		284,459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1995년부터 국가문헌의 보존과 지식정보자원의 온라인서비스를 위하여 소장자료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도서관 소장 고전적, 고신문, 현대간행물 및 연속간행물 자료 등 256,403책 53,877,704면을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콘텐츠 1,551,533건을 구축하였다. 이 중에는 문화예술기관 소장 주요 자료의 관리기반 조성 및 보존, 활용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주비엔날레 등 4개 기관 문화예술자료 10,970건과 2018년에 이어 15개

공공 · 대학도서관 소장 고문헌, 향토자료, 희귀자료 및 지역 공공간행물 등 중요자료 1,292책이 포함되어 있다. 2019년 현재 디지털화로 구축된 지식정보콘텐츠 8,115,030건(1,330,873책 318,986,090면)을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자료검색,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http://www.nl.go.kr/newspaper)와 「조선총독부관보활용시스템」, 디지털컬렉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소재 2,260개 이용협약도서관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 공개된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보존 가치가 있는 웹자원을 국제표준 웹수집기(Web Crawler)를 사용하여 아카이빙하는 오아시스(OASIS)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웹 사이트 120,058건을 수집하였으며 2019년 12월 기준으로 624,296건을 오아시스(OASIS) 및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 유통과 활용을 위해 개별 디지털 콘텐츠에 식별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를 운영, 2019년 1,496,179건을 발급하였다.

또한 국가지식정보자원의 장기적 접근성을 확보하고, 유사시 자료제공기관에 원본 파일을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전자저널 및 출판사 디지털파일에 대한 비공개 아카이브(Dark Archive)를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19년 12월 기준으로 총 4,655,152건을 수집하였다.

표 5-2-20 온라인자료 서비스 현황(2019. 12)

구분	전자책	전자저널	음성 · 음향	영상	이미지
수량(건)	957,574	3,684,284	475,982	24,913	208,340
점유율(%)	5.2	20.1	2.6	0.1	1.1
구분	웹자원	디지털화자료	해외기록물	장애인대체자료	기타
수량	1,770,928	8,115,030	2,991,832	49,568	15,962
점유율(%)	9.7	44.4	16.4	0.3	0.1

② 디지털컬렉션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컬렉션을 통해 고품질의 디지털 콘텐츠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디지털컬렉션에서 서비스하는 콘텐츠는 다음과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소장원문을 중심으로 이용자들에게 가치 있는 콘텐츠의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는 '디지털 서고', 최근 이용자의 관심을 반영한 시의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책 · 사람 · 세상', 세계 각국의 도서관 현황 및 각 도서관의 주요 정책 및 특징을 소개하는 '세계의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컬렉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온라인상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19년에는 '한국의 아동문학상 수상작', '미국문서로 보는 독립운동', '이민정책 연구자료', '수출진흥과 한국경제' 등 415종을 구축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열린 전시 '독락당의 보물, 서울나들이', '모도가 봄이다', '꿈과 희망을 하늘로 우주로' 등 5건을 가상현실(VR) 및 3D 파노라마 촬영기법을 사용하여 전시컬렉션으로 구축, 온라인상에서 생동감 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이 밖에도 이집트 국립중앙도서관, 암스테르담 공립도서관, 타이베이대학 도서관 등 세계의 도서관에 대한 콘텐츠 50건을 신규 구축하였다.

아울러 온라인 이용자와의 소통 채널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블로그(http://blog.naver. com/dibrary1004) 및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다.

③ 정보광장(IC: Information Commons) 운영

정보광장(Information Commons)은 디지털 콘텐츠를 창작 · 공유 · 체험 · 열람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복합문화 공간으로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도서관의 핵심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하 2층은 미디어자료이용석, 디지털열람석 등 개별 이용공간과 스튜디오, 세미나실, 복합상영관 등 그룹 이용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용자들이 미디어 창작 및 각종 영상, 음원, 이미지 편집뿐만 아니라 디지털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여 각종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하 1층은 정보광장과 본관을 연결하는 통로로 도서관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사진 · 영상 콘텐츠를 상설 전시하고 있으며, 3D Book으로 제작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귀중서 및 희귀서 54종의 원문을 열람할 수 있는 인텔리보드와 도서관 행사 및 디지털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U터치테이블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도서관의 메인 로비인 지하 3층은 기록매체박물관으로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각 시대의 다양하고 역사적인 기록매체들이 전시되어 있다.

정보광장의 이용시간은 09:00~18:00이며, 휴관일은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휴일이다. 2019년 개관일수는 287일이며, 총 방문자 수는 284,646명으로 일평균 895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였다.

아울러, 디지털도서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노후화된 기기 및 장비를 교체하고, 새로운 정보미디어 생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광장 이용공간 재 · 개편 공사를 2019년 11월부터 실시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디지털 환경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디지털 사회에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능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총 16강좌 46회를 운영하였고, 총 수강인원은 1,986명에 이른다.

④ 디지털 콘텐츠 공유 확산

우리 사회는 정보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정보기술이 발달하고 데이터가 폭증하여 빅데이터로 진화하면서 도서관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통한 도서관 경영 및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 시대 도서관 이용자의 높아진 기대치에 부합하기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지능화, 개인화 등에 빅데이터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빅데이터 활용 수준이 도서관의 미래 경쟁력과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 분야의 빅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선진화된 정보 환경 구성을 지원하고, 도서관이 향후 지식 확산을 이끄는 지식서비스 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도서관 빅데이터를 수집, 처리, 저장하고 분석 및 활용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2016년 말 동 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되었으며 2019년까지 총 1,038개 협력도서관에서 약 15억6천만 건의 도서관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도서관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웹 기반의 사서 의사결정지원 서비스(Solomon)를 구축 ·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손쉽게 무료로 직접 다운받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GUI 기반 R 통계 분석 프로그램(Rada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작가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키워드', '요즘 20대의 생각이 궁금하다면, 읽는 책을 보자', '초 · 중 · 고등학생 인기대출도서', '2019년 공공도서관 대출현황 분석' 등 수집된 도서관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사적이고 흥미로운 테마를 선정하고, 그 분석결과를 시각화한 이미지와 소스데이터를 함께 제공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정보나루에 게시하고 있다. 한편 매년 도서관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우수 운영기관 및 개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선진화된 서비스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2019년 도서관 빅데이터 공모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강남구립도서관 등 총 7편을 수상작으로 선정 · 시상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보다 다양한 데이터 수집과 개인정보 보안 강화, 도서관 데이터의 생산, 관리, 분석, 활용 전반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연구자, 개발자, 도서관을 위해 다양한 도서관 데이터를 개방 및 공유하여 새로운 서비스,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빅데이터 공유센터인 "도서관 정보나루(www.data4library.kr)"도 구축 ·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독서 활동을 진흥하고, 공공 및 민간분야에 오픈소스 기반으로 제작한 도서관 빅데이터 모듈을 제공하여 각 관종별로 적합한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및 시스템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나 자유롭게 공유하고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웹에서 서로 편리하게 연결하여 웹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형식으로 발행한 데이터를 링크드 오픈 데이터(Linked Open Data: LOD)라고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11년 링크드 데이터 연구 개발을 시작으로 2012년에 LOD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후 단행본 서지데이터를 LOD로 발행하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LOD 발행 및 응용서비스 개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2019년부터는 누리집을 영문으로도 제공하는 등 해외 LOD 제공 기관과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테마별로 필요한 정보만 추려 그 목록을 보여주는 '데이터 컬렉션'의 신규 컬렉션 2종을 추가 개발하는 등 응용서비스를 확대하였다. 그밖에 사서추천도서 정보를 활용한 응용서비스를 신설하여 워드클라우드 및 목록다운로드 등 다양한 기능을 제시하기도 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LOD로 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는 약 23,933천 건이며, 국내외 LOD 제공기관과의 데이터 연계(Interlinking)를 확대하여 영국국립도서관 등 총 29개관 39개 데이터세트 7,456천 건을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와 상호 연결하였다.

오픈 액세스(Open Access)는 학술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라는 개념으로 시작된 학술정보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어디서든지 각종 연구성과물을 출판과 동시에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인 운동으로, 법적, 경제적, 기술적 장벽 없이 연구성과물의 생산자와 이용자가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R&D 사업으로 시작한 '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도서관 R&D, '09~'13)' 사업을 2014년 3월에 이관받아, 'Open Access Korea 국가지식정보 구축 및 확산' 사업(이하 OAK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19년 12월 기준 총 50개의 리포지터리를 보급하였다. 그리고 오픈액세스 학술정보 통합 검색을 제공하는 OAK 포털(oak.go.kr)과 오픈액세스 XML 학술지 아카이빙과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OAK 센트럴(central.oak.go.kr)을 통합하여 2019년 말부터 OAK 국가리포지터리(oak.go.kr)로 운영하고 있다. 새롭게 리뉴얼된 OAK 국가리포지터리에서는 50개 리포지터리 77만 건의 오픈액세스 학술정보와 XML 전자원문(88종, 11,189편)을 서비스 할 뿐만 아니라 OAK 리포지터리 오픈소스 패키지 배포 및 해외 오픈액세스에 대한 동향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XML 전자원문이란 기존 PDF와 달리 본문 텍스트, 이미지, 표, 참고문헌 등 데이터 중심의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검색과 상호교환이 용이한 학술정보 서비스이다. 또한 학술지저작권안내시스템(Korea Journal Copyright Information: KJCI, copyright.oak.go.kr) 운영을 통해 국내 학술지저작권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도서관서비스 선진화 및 다양화

① 도서관 발전을 위한 선진화 연구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 · 연구 사업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타당성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등 9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을 통해서 원문을 공개하고 있다.

1946년 『관보』로 창간되어 『국립도서관보』를 거쳐 1965년 1월부터 『도서관』으로 표제를 변경한 도서관 관련 전문지 『도서관』 제393호를 발간하였다. 제393호는 '전자책, 시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서비스'를 주제로 8개의 논고와 기획대담을 수록하였으며, 전국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 배포하고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도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도서관 현장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우수 운영사례 및 논문을 심사하여 포상하는 '제13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논문 및 우수현장 사례 공모'를 실시하여 총 8편을 수상작으로 선정 · 시상하였다.

②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운영

2009년 10월에 구축된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Studies Librarians, INKSLIB)'는 2019년 12월 현재 42개국 228명의 해외한국학사서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누리집(inkslib.nl.go.kr)을 통하여 해외 한국학사서들 간 정보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를 연1회 발행하고 있다.

③ 도서관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대국민 지식정보서비스를 위하여 본관에 도서자료실과 연속간행물실, 연구정보실, 문학실, 고문헌실, 장애인정보누리터 등 총 6개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대상자는 16세 이상(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이며, 16세 미만인 자라도 조사 · 연구를 목적으로 본관 소장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계획을 포함한 청소년자료이용신청서 제출 후 자료실 이용이 가능하다. 도서관 이용시간은 09:00~18:00이며, 2019년 본관 개관 일수는 327일, 디지털도서관 개관일수는 2019년 디지털도서관 공간 재구성 공사로 임시휴관을 실시하여 287일이며, 방문이용자는 845,895명(1일 평균 2,587명), 온라인이용자(사이버 이용자)는 6,955,649명(1일 평균 19,057명)이었다. 또, 주중 운영하는 야간도서관은 2019년 10월 1일부터 18:00~22:00에서 18:00~21:00로 1시간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도서관 이용자는 40,838명, 이용책수는 104,663책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가 장서를 활용한 학술연구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연구정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연구과제, 학술지논문, 박사학위논문 등 구체적인 연구결과물 도출을 목표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에는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등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연구결과 공유 및 학술DB 활용 교육을 위해 총 2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구자 간 교류를 도모하였다. 2019년에는 총 157명의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진행하였으며, 29,612책이 연구자들의 학술연구목적으로 활용되었다.

온라인을 통한 정보서비스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내 도서관간 협력을 통하여 국민들의 지식 · 학술정보 질의에 대해 사서가 소장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협력형 온라인지식정보서비스(CDRS: Collaborative Digital Reference Service)인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633개 참여도서관이 1,872건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라. 전국 도서관 사서 교육 훈련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유일의 사서직 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 전국의 각종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사서교육훈련은 총 98개 과정 144회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전국의 공공 · 대학 · 학교 · 작은 · 병영 · 교도소도서관 직원 등 23,373명이 수료하였다. 그 중에 사이버교육은 45개 과정 81회를 운영하여 20,486명이 수료하였다.

직무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전문

교육을 운영하였다. 관리역량 교육으로 리더십과정(최고경영자, 중간관리자)을 운영하였으며, 직무전문 교육으로 KDC 자료분류 과정, 메이커스페이스와 도서관서비스 과정 등을 운영하였다.

이러닝 · 집합교육 혼합형 교육으로 독서지도심화 · 고급과정 등 7개 과정을 운영하고, 참여형 교육으로 사서한마당 워크숍 과정, 도서관문화프로그램심화 과정, 디자인싱킹과도서관문제해결 과정 등을 운영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하였다.

표 5-2-21 2019년 사서교육훈련 운영실적

구 분		실적		
		과정수(과정)	횟수(회)	인원(명)
계		98	144	23,373
집합교육	기본교육	1	1	30
	전문교육	43	48	1,986
	기타교육	9	14	871
	소계	53	63	2,887
사이버교육		45	81	20,486

※ 수료자 현황: 공무원 8,355명(35.7%), 민간인 15,018명(64.3%)

교육훈련 전문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강사 인력풀 DB를 구축하여 활용하였으며, 교육훈련기관 간 교육시설 공동 활용 및 정보교류도 실시하였다. 또한 도서관 관종별로 찾아가는 사서교육을 6개 과정 11회 706명 실시하는 등 소외된 관종을 대상으로 교육생 맞춤형 열린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책함께읽기' 과정 등 8개 콘텐츠를 최신 트렌드와 교육 수요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신규 개발하였으며, 플래시(Adobe Flash) 기반의 기존 제작 콘텐츠('빅데이터와도서관' 등 35개 과정)를 HTML5표준으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한 '(사이버)도서관자료보존및복원' 과정 등 8개 과정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하여 이러닝 콘텐츠의 공동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18년에 이어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종합진단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사혁신처장상을 2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공공HRD 콘테스트」 교육과정개발 분야(메이커스페이스와 도서관서비스과정)에도 참가하여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3년 연속 수상)함으로써 전국 유일의 사서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대내외 위상을 강화하였다.

마.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 · 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식정보자료의 공유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한 도서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각종 도서관과의 교류 · 협력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도서관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협력망의 기능수행'을 위해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의 개발 · 보급, 지식정보 표준화 도구개발 및 국가전자도서관 연계 · 확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시작한 국가상호대차서비스 '책바다'에는 2019년까지 전국 대학 · 전문 · 공공도서관 등 1,096개관이 참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영국국립도서관을 포함하여 러시아, 이집트, 베트남 등 세계 16개국 19개 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꾸준히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9년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이 주관한 제27차 아시아 · 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회의(CDNLAO)에 참석했으며,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85차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및 제46차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에 참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도서관의 액션플랜 등 도서관계 도전과제들을 공유하며 국제 도서관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였다. 또한 '온라인 납본' 등 5개의 포스터세션 운영을 통해 우리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세계 도서관 사서 및 관계자들과 정보를 교류하였다.

한편 1963년 외국 국립도서관과의 교류를 시작으로 현재 각국 주요 국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86개국 247개관과 자료교류를 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주요 교류처와 자료교환을 통해 단행본 5,525책(점), 연속간행물 853책(점)을 수집하였고 OECD, WIPO등 국제기구로부터 399책(점)을 기탁 받았다. 또한 온 · 오프라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자료 수요조사를 거쳐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및 국제관계 등 다양한 주제의 한국 관련 자료 18,874책을 발송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해외 국립 · 공공 · 대학 도서관에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을 설치하고 한국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해외 한국자료실 설치사업은 한국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국가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자료 활용도 및 계속적 교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개관 정도를 선정 · 추진하며, 제공된 자료는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별도 서가에 배치된다.

2019년에는 러시아국립도서관, 헝가리 ELTE대학교를 새로 선정하여 설비비용 지원 및 자료 5,174 책(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기존에 한국자료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20개관에 3,816책(점)의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 설치하여 5년의 자료지원기간이 종료된 베트남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학과 지원 연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바. 전시문화행사 개최 및 홍보

① '인문열차, 삶을 달리다' 인문학 진흥 프로그램 운영

국립중앙도서관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선일보 · 교보문고와 함께 시작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2015년부터

조선일보 · 코레일과 함께 '인문열차, 삶을 달리다'로 프로그램을 재편하여 운영하였고, 2018년부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코레일과 공동으로 인문학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문열차, 삶을 달리다'는 책속에서 인문학을 구하기보다는 현장의 인문학, 쉬운 인문학, 생활 속의 인문학을 주제로 한 사전 강연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인문학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문저서의 배경이 되거나 선현들의 자취가 깃들어 있는 현장을 저자 및 인문학자와 함께 탐방함으로써 삶의 여유와 혜안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전강연 8회, 현장탐방 9회를 진행하였다.

표 5-2-22 2019년 인문열차, 삶을 달리다 일정표

회차	사전강연	탐방 일자	주제	지역
1회	2.27.	3.16.~17.(1박2일)	임진왜란과 남도	목포, 진도, 해남, 강진(전남)
2회	3.27.	4.13.	강화도, 외세 방어의 거점이 되다	강화도(인천)
3회	4.24.	5.11.~12.(1박2일)	의병, 반격이 물꼬를 트다	의령, 진주, 산청, 함양(경남)
4회	5.29.	6.15.	탄금대를 지켜라	충주(충북)
특별	6.29.		한양도성이야기와 서울나들이	서울
5회	6.26.	7.13.	다시 보는 정유재란	울산
6회	8.28.	9.21.~22.(1박2일)	백마강 역사 기행	부여, 공주, 익산(충남, 전북)
7회	9.25.	10.12.	남한산성의 슬픔이 수원화성의 환호로	광주, 수원(경기)
8회	10.30.	11.16.	녹두장군의 깃발아래 모였던 사람들	정읍, 고창(전북)

※ '길 위의 인문학'은 전 국민 대상 사업으로 확대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되며, 2015년부터 '인문열차 삶을 달리다'로 개편 운영함.

② 전시회 및 기타 문화행사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 확대, 대외적 홍보활동 강화 및 폭넓은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시를 개최하였으며, 일부 전시는 전시콘텐츠로도 구축하여 도서관 누리집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표 5-2-23 2019년 국립중앙도서관 전시 및 문화행사 개최 현황

구분	행사명	시기	주관부서
전시	주한조지아대사관과의 공동전시 (호랑이 가죽을 두른 용사)	9.4.~9.28	기획총괄과
	(대관)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우리땅 독도 사진전시회	6.4.~7.31.	기획총괄과
	「사계로 만나다–국립중앙도서관」 사진전	4.15.~5.31.	자료운영과

구분	행사명	시기	주관부서
전시	시대를 기억하다展	5.16.~8.31.	자료운영과
	故 김성환 화백 회고전 「고바우 영감, 하늘의 별이 되다」	9.10.~10.31.	자료운영과
	회재 이언적, 독락당의 보물 서울나들이	10.15.~12.15.	고문헌과
	고문헌과 주제별 상설전	1~12월	고문헌과
	2019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공동전시 및 순회전시	4.30.~6.9. (순회전시 8~10월)	디지털기획과
강연 등 문화행사	「인문열차, 삶을 달리다」 강연, 탐방	2~11월	사서교육문화과
	저자와의 만남	4,6,9,10월	자료운영과
	이야기로 풀어가는 고문헌강좌	2,5,8,11월	고문헌과
	청각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손책누리' 운영	3~6월, 9~11월	지원협력과
	장애인정보누리터 수어교육 운영	3~5월, 8~11월	지원협력과
	장애인정보누리터 독서문화기행	4, 9월	지원협력과
	제12회 장애 아동 · 청소년 대상 독후감대회	9.27.	지원협력과

③ 홍보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한편, 누리집(http://www.nl.go.kr)을 통해 '영상으로 보는 사서추천도서'와 같은 홍보 영상물 제작 및 각종 소식, 보도자료, 월간『오늘의 도서관』·『월드 라이브러리』 등을 게재하여 도서관 사서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온라인 홍보 활동에 힘써 '시간의 기록을 잇다'展 과 '천자문, 종류가 이렇게나 많아요!' 展 등 도서관 뉴스 · 행사 · 전시 등을 카드뉴스 80건으로 제작하여 SNS를 통해 배포했다. 또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강연회', 휴가철 추천도서 100선, 국립중앙도서관 빅데이터 결과 분석 등 시의적절한 183건의 보도자료, 136건의 사진보도를 주요 일간지 및 관련 언론매체에 배포하여 언론의 큰 반향을 얻었다. 이 보도자료는 각종 언론매체에 총 1,619건이 게재되었으며, 도서관의 여러 사업과 행사,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관심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 기능과 서비스를 알리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견학 참가자는 총 3,470명이며, 이 중 356명은 외국인이었다.

사.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도서관법」개정안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 2012년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고, 2012년 9월 24일 개관식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장애인 도서관의 대표기관으로서 새로운 출범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03년부터 추진한 대체자료 제작 사업으로 장애인의 지식정보 격차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9년도에는 데이지자료 1,441책, 전자점자자료 70책, 전자점자악보 30책/18편, 장애인 접근성 전자책 1,961책, 한국수어영상도서자료 175책/97편 등 총 3,677책/186편을 제작하였으며,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 36,004책/2,038편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장애인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2009년 4월 13일 개실한 장애인정보누리터에서는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1:1 개별 맞춤서비스로 대면낭독, 영상대필, 문서작성 지원 등 다양한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로 맞춤형 상담안내를 위해 문자 · 영상 전화 안내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2019년에는 78명의 자원봉사자가 1,185회에 걸쳐 장애인 이용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4년부터 청각장애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1:1 수어대면낭독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에는 224명의 이용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기회 확대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대상 국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 지원과 장애인 대상 무료 우편서비스인 '책나래'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을 높이고, 독서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용자 참여형 독서프로그램인 '손책누리'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48회에 걸쳐 455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청각장애인과 원활한 소통 및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자, 자원봉사자, 직원 들을 대상으로 참여하는 '수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총 24회 83명이 참가하였다. 9월 독서의 달에는 성장기 장애 아동 · 청소년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정서 함양을 지원하고자 '제12회 장애 아동 · 청소년 독후감 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며, 장애 학생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독서능력 향상을 위하여 '책 · 친구 이야기 나누기'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실제 운영사례를 발굴, 적극적 홍보 및 현실적인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제12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하였다.

또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및 관종별 도서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협력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상반기는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이슈 및 전략, 공유', 하반기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일선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앞으로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대상 독서프로그램 확산을 위하여 전국 50개 공공도서관 및 장애인도서관과 협력 사업으로 시각, 청각, 발달, 지체장애인 대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청각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운영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어통역사 등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독서지도강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06년 6월 개관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국내 어린이청소년 독서진흥, 어린이 · 청소년 담당 사서의 역량 강화,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협력,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서비스 모델 창출 등

어린이청소년 연구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수집은 납본자료 16,269책(점), 구입자료 14,230책(점)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적합한 도서관의 환경 변화를 내 · 외부적으로 검토하고 도서관의 역할을 재정의하기 위하여 최신 기술을 접목한 도서관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독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활용 기반 연구』를 진행하였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 ·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책 읽기 습관 확립을 위해 디지털 독서 지원 플랫폼 구축 전략 수립과 서비스 모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존재 의미를 인식시키고 지속적으로 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홍보 전략 수립을 위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인식조사를 위한 홍보전략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독서진흥을 위하여 전국 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1971년부터 매년 여름, 겨울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는 전국 도서관 독서교실에 2019년에는 1,120개 도서관 27,272명의 어린이 · 청소년이 참가하였다. '2012 독서의 해'를 계기로 시작한 '책 읽어 주세요' 사업은 도서관에서 "노란색 앞치마 = 책 읽어 주는 사람"으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전국 도서관에 전용 노란 앞치마를 제공하고 책 읽어주기 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전국적인 확산을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읽어 주세요 체험 프로그램'을 40개관에서 운영하였고, 사라 맥고원(Sarah McGowan) 서호주 수상 부인 등 명사와 함께하는 책 읽어 주세요 응원 릴레이를 6회 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정보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을 전국 110개 공공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과 함께 추진하여, 독서문화프로그램을 2,772회 운영하고, 37,939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어린이를 대상으로 쉽고 편하게 책을 읽어 줄 수 있도록 트윈링 형태의 큰 책을 제작하여 전국 도서관에 배포하였다.

초등학교 코딩교육 의무화에 따라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및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그림책 연계 코딩 교육프로그램 '이야기가 있는 코딩' 4차시를 개발하고 공공도서관 20개관에서 운영하였다.

청소년 독서진흥을 위해 2007년부터 중 · 고등학교와 함께 운영하는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는 2019년 100개교를 공모 · 선정하여, 독서문화프로그램을 3,486회 운영하고 161,102명이 참여하였다.

2006년에 구성한 전국어린이청소년도서관서비스협의회는 2019년 기관 · 회원 665개처, 개인회원 523명, 4개 실무분과로 구성 · 운영하였다. 또한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육아방송,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엠씨엔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국내 어린이 · 청소년 담당 사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 '아동문학의 연구' 등 4개 과정의 워크숍을 총 6회 운영하여 378명이 참여하였다.

한-아세안 어린이 · 청소년 독서문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아세안 9개국 국립도서관 대표단을 초청, 「한-아세안 어린이 · 청소년서비스 대표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대표단은 '한-아세안 독서문화 공동사업 합의문'을 체결하고, 2020년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는 '노란앞치마 해시태그챌린지'를 진행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제5회 한-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 업무교류, 제6회 한-러시아 국립청소년도서관 업무교류, 제5차 한-독일 국제청소년도서관 자료교환 등 국외도서관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진행하였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연차보고서 2018(국 · 영문)』, 『도서관이야기』 등의 간행물을 발간 · 배포하였다.

유아 · 어린이 · 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9년에는 유아 ·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으로 '체험형 동화구연', '겨울 · 여름 독서교실', '어린이날 큰 잔치' 등 총 800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7,422명이 참여하였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중학생 대상 작가와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청소년 독서동아리', 중 · 고등학생이 직접 작성한 취재 기사와 서평 등을 '부커 부커' 블로그에 게재하는 '청소년 블로그기자단', 진로와 꿈을 탐색하도록 돕는 '청소년! 도서관에서 미래를 찾다' 등에 총 184회, 1,863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부모 · 가족 대상 프로그램으로 '부모를 위한 독서문화강좌', 문화주간 토요일에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공연' 등에 총 170회, 4,796명이 참여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의 ·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하여 2019년 9월 20일 도서관형 창작 공간인 미 · 꿈 · 소(미래꿈희망 창작소)를 개실하였다. 미 · 꿈 · 소는 120만 책의 도서를 갖춘 어린이 · 청소년 국가대표도서관의 콘텐츠를 독서와 연계하여 정보기술을 접목한 도서관형 창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55점의 3D프린터, 레이저커터기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미 · 꿈 · 소만의 차별화된 공간과 주제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9년 어린이 대상 '꿈창작실'과 청소년 대상 '희망창작실'에서 461회의 다양한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 14,545명이 참여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이용자수가 약 62%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나의 탄생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3D펜)' 등 10개의 창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0개 공공도서관에 보급하였다.

국립한글박물관과 공동 주최하는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편지 공모전'은 어린이의 손글씨 독후활동 체험 기회 제공 및 독서진흥 도모를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46개 도서관, 3,753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2009년에 '체험형 동화구연' 콘텐츠를 개발하여 2019년까지 54개 기관에 총 39편을 보급하였다. 또한 외국아동자료의 접근성 확대 및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소재의 공공도서관, 초 · 중 · 고 학교도서관 등 48개 기관에 4,158책의 기관대출을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방문하는 이용자의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진인화로봇'과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봇 '큐아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획전시 및 대사관들과 함께 공동전시 등 다양한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간자료인 「도서관이야기」의 2018년도 표지 그림을 주제로 '행복이 머무는 자리' 전시를 1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개최하여 총 2,318명이 관람하였다. 3 · 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아동문학가 방정환 생애를 조명하는 '모도가 봄이다: 방정환과 한국 어린이운동' 전시를 3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개최하였고 총 3,401명이 관람하였다. 제6회 한 · 러 국립청소년도서관 업무 교류의 일환으로 러시아 문화 역사를 소개하는 '만화소설과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는 러시아: RING NOVA' 전시를 5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개최하여 총 5,560명이 관람하였다. 대한민국 · 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스웨덴대사관과 공동으로 '책으로 자라는 곳, 스웨덴' 전시를 9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개최, 총 6,539명이 관람하였다.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개최한 '한글날 예쁜 엽서 공모전 수상작&우수작' 전시는 한글날을 기념하여 한글이 주는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한겨레신문과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3,855명이 관람하였다.

2019년에는 도서관의 다양한 활동을 인스타그램에 222건, 페이스북에 186건, 유튜브에 10건 게재하였으며, 언론사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취재 · 촬영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매체에 총 287건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자. 국립세종도서관

2013년 12월 12일에 개관한 국립세종도서관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 · 정책 분야 전문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연구기관 종사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정책정보서비스 개발 및 정보원 구축, 정책정보종합목록 구축 및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정책정보 전문기관과의 교류협력,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세종도서관은 국내외에서 출판되는 다양한 자료와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정책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2019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전 주제 분야의 일반 · 정책 · 아동도서 588,024책, 비도서 20,130점, 연속간행물 19,106책(부) 등 총 627,260책(점)을 장서로 등록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책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고 일반 국민이 정부의 정책관련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기관 소속 자료실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가 생산하는 지식자원을 공유하고 상호 지원 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를 구축 · 제공하고 있다.

① 정책정보서비스

공직자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참여기관 직원의 정책과정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학술지목차메일링서비스 가입회원(14,000여 명)의 개인별 관심주제에 따라 신청한 저널의 최신 목차와 원문(full-text) 링크를 푸시 메일링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독하는 국내외 전자학술지(Web Journal) 15,000여 종을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적용하여 분류하고 기관별 학술지 추천목록, 주제어 색인검색, 원문복사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도구를 마련하였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높여 보다 활발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방문 현장홍보(15회)와 이용자 참여 이벤트(연 1회)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서비스 체제를 정비하는 등 정책정보서비스 품질을 강화하였다.

또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온 · 오프라인 협력체인 '국가정책정보협의회'를 기반으로 협력기관들과의 정책자료 종합목록 구축을 위한 정책정보종합목록시스템을 개발하여 2019년 기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30개 기관 소장 자료 목록 1,054,600건을 구축하였으며,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참여기관의 지식정보자원 공동 활용을 위해 정책정보 상호대차시스템을 개발(2015.12.)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호대차서비스는 '캄보디아 폐기물 위생매립장 건립 타당성조사사업 최종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등 총 283건을 제공하였으며, 2016년부터 우송료, 원문 복사비 등을 지원해 신청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활성화하였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간의 서비스 운영 활성화와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정책기관 순회대출 서비스'와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를 운영하였다. '정책기관 순회대출 서비스'는 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구성원들에게 창의적인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 2019년도에는 국립국악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20개 기관에 분기별로 300권씩 총 80회를 제공하였다.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는 정책 및 인문 · 문화예술 분야의 강의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 국립생태원 등 20개 회원기관에 제공하였다.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은 정책정보서비스의 일환으로 중앙부처 공직자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자의 인문소양, 역량강화 및 부처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본 과정은 2014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큰 호응에 힘입어 총 513회 운영하였으며 23,225명이 참여하였다.

한편 정책정보포털 POINT(http://policy.nl.go.kr)는 정부 및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으로 정책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고, 일반 국민이 정부 정책 관련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정보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6년 정책정보서비스 누리집으로 시작하여 2014년 정책정보포털로 확대 · 개편되었고 2017년 5월에는 반응형 웹 구현, POINT 큐레이션 제공 등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재개편되었다. 2019년에는 같은 주제 분야 인기 콘텐츠를 자동 추천하는 '이 분야 인기 콘텐츠' 서비스와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세부 내용을 제공하는 '국정과제'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여 정책정보 전문포털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2019년 12월 기준, 정책정보포털에서는 최신 정책동향, 정부간행물 온라인자료, 정책정보종합목록, 웹DB 등 총 2억 7,000여 건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지존(G-Zone, Government Zone)은 정책정보포털 POINT의 마이크로 사이트로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정부간행물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를 원문으로 제공하며, 2018년 7월부터는 행정안전부 '정부24(www.gov.kr)'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국내외 350여 개 주요 정책기관의 원문콘텐츠 19만여 건을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② 자료실 운영

국립세종도서관은 이용자의 연령과 자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자료실, 인문예술자료실,

일반자료실, 정책자료실 등 총 4개의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2019년 개관일수는 327일이며, 방문이용자는 823,908명(1일 평균 2,520명), 대출 책 수는 946,467책(1일 평균 2,894책)이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어린이자료실은 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국내자료, 외국아동도서 등의 간행물을 개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책나라'와 '이야기방'에는 영유아 그림책 자료를 비치하여 친근한 분위기에서 독서를 할 수 있으며, '체험형동화구연실'은 3차원 가상공간과 모션인식 등 가상현실 기술을 동화구연에 접목하여 어린이들이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새로운 어린이 동화 프로그램 체험 공간이다.

1층 인문예술자료실에서는 철학 · 종교 · 예술 · 문학 · 역사 분야의 일반자료와 국내에서 발간된 청소년대상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인문 · 문화예술 전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 서가를 마련하고 상설 전시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인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보조공학기 11종과 촉각 도서 등 1,814책을 비치 · 운영하고 있다.

2층 일반자료실은 일반자료실, 신문 · 연속간행물코너, 멀티미디어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과학 · 자연과학 · 기술과학 · 총류 · 어학 분야의 일반자료와 국내외에서 발행된 주간지 · 잡지 · 신문자료를 비치하여 개가제 및 폐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 코너는 디지털 자료의 검색 · 열람 · 인쇄 및 문서작성 등을 할 수 있는 디지털열람석과 국립세종도서관 소장 비도서 자료를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열람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좌석예약시스템을 통해 좌석을 예약한 후 이용 가능하다. 비도서자료는 폐가제로 운영해 자료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정책자료실은 정부 정책과정에서 생산하거나 필요한 정부 및 공공기관 발간자료를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를 위한 원활한 조사 · 연구 공간으로서 정책연구실 18석을 갖추고 있으며, 국립세종도서관 누리집 및 모바일 웹, 좌석예약 키오스크에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정책전문 도서관으로서 행정기관공무원을 위한 서비스의 하나로 청사 대출 · 반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희망도서를 예약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도서를 수령하거나 도서를 반납할 수 있도록 세종청사 종합매장(6-2동), 공정거래위원회(2-1동) 로비에 무인도서예약대출반납기를 각 1대씩 총 2대를 설치 · 운영 중이다.

③ 문화행사 및 전시

국립세종도서관은 세종시와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문화예술서비스 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위탁사업(총 81개 강좌 328회 5,598명 참여)을 통해 독서문화프로그램 정기강좌, 특별강좌, 독서동아리, 시기별 테마행사를 기획 ·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방학 중 어린이 독서활동을 장려하는 '겨울 · 여름 독서교실'(18회 466명 참여), 다양한 주제를 통해 부모가 알아야 할 올바른 자녀교육 가이드를 제시하는 '마중물 부모강좌'(8회 655명 참여) 등 도서관 이용자들의 생활 속 독서 확대 및 문화 · 예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상별 · 시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및 여러 기관과 연계 · 협력하여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하였다. 3차원 가상공간과 모션인식 등 가상현실 기술을 동화구연에 접목하여 어린이들이 동화속의 주인공이 되어 체험해보는 '체험형 동화구연'(166회 3,014명 참여)을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24회 336명 참여)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성인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책 읽어주세요' 와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영어그림책 함께 읽어요' 등 재능기부 독서문화프로그램(33회 808명 참여)을 진행하였다. 한편 국내 최고 과학자를 초청하여 과학자와 참여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 '도서관 속 과학강의'(6회 420명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서의 역할에 대해 체험해보는 '도서관에서 전문가 만나기'(12회 287명 참여) 프로그램을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해설이 있는 인문학'(10회 757명 참여), 방학기간에 가족단위 이용자가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한 '도서관 속 작은 영화관'(총 16회 581명 참여) 등 인문 · 문화예술 분야 특화 독서문화프로그램도 기획 · 운영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인문 · 문화예술 전문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국립세종도서관은 독서 흥미를 유발하고,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다채로운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2월 26일부터 3월 24일까지 '행복이 머무는 자리' 전시를 개최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의 '민속음악 연구의 개척자, 이보형 기증자료전'을 이전하여 6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시하였다. 10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사람의 한 평생과 연관 지어 그림책을 소개하는 '그림책, 당신의 시간' 전시를 선보였다.

④ 정보화

국립세종도서관 누리집(http://sejong.nl.go.kr)에서 이용자는 소장자료를 검색하여 도서 대출 신청을 하거나 예약할 수 있으며, 비치희망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누리집에서 멀티미디어 좌석, 세미나실 및 정책연구실 좌석을 예약하고 도서관에서 열리는 각종 교육 · 행사 정보를 보고 참여할 수도 있다. PC와 모바일 웹으로 제공 중인 국립세종도서관 누리집을 2019년 12월 말 기준 일평균 4,220여 명이 방문하고 있다.

한편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누리집 및 모바일 웹에서 전자책, 오디오북, 동영상, 전자잡지 등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립세종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장자료(도서, 비도서 및 디지털자료 포함)를 통합적으로 관리 · 운영하는 웹 인터페이스 기반 통합정보시스템(Selis)을 구축 ·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관외 대출 · 반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에 자가대출반납기, 독서통장정리기 등 RFID 기반 자동화기기를 운영하고 있고, 실물 대출증이 없어도 스마트 기기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대출증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도서관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제3절 박물관정책

1. 기본 방향 및 박물관 현황

1) 기본 방향

최근 인구 구성의 변화와 고령화 사회 도래,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및 가족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등 박물관 · 미술관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박물관 · 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박물관 · 미술관 종합적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존의 '박물관정책과'를 '문화기반과'로 개편(2017년 9월)하여 운영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는 박물관 ·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시행,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국립박물관 · 미술관 설립 협의, 공 ·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 · 지원, 학예사 등 전문인력 육성 등 박물관 · 미술관 분야 전반에 걸쳐 박물관 · 미술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국립 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공 · 사립박물관 지원 현황 등 주요 박물관 · 미술관 정책을 살펴본다.

2) 박물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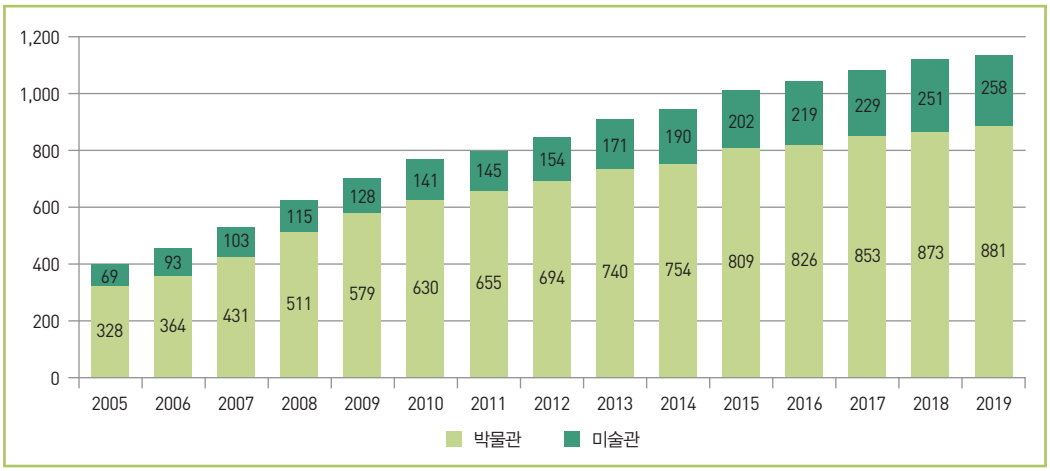
박물관 · 미술관은 역사 · 고고(考古) · 인류 및 예술 등 광]범위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 · 보존하고, 전시 · 교육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 운영되는 비영리 · 항구적 기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꾸준한 문화 인프라 확충 정책을 통해 2019년 말 현재 총 1,139관(국립 51관, 공립 437관, 사립 535관 및 대학 116관)의 박물관 ·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박물관 · 미술관 증가추이는 다음과 같다.

한편, 일과 삶의 균형에 따른 여가 문화수요 증가, 고령사회 가속화 등으로 지역의 박물관 · 미술관 서비스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박물관 · 미술관 자료의 소장, 보존, 전시, 조사, 연구 등 고유 기능과 함께 대중을 위한 체험 · 교육 및 공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박물관 · 미술관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그림 5-3-1 박물관 · 미술관 2005~2019 증가추이

(단위: 개관)



2. 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1) 국립 박물관 · 미술관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야간개장을 운영 중이며, 2019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야간개장을 이용한 관람객은 426,302명이다.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주말을 활용한 초 · 중 · 고등학생 대상 문화 체험활동 수요 및 가족단위 주말활동의 증대로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소속 지방박물관에서 2019년은 13개 박물관의 프로그램에 225,516명이 참여하였다.

2) 공립 박물관 · 미술관 건립 지원 및 운영 내실화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 전시 및 문화향유 증대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공립박물관 · 미술관에 대하여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건립비의 40%를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시설 확충 중심의 정책에 따른 건립 후 운영 부진, 공립박물관 · 미술관 이용률 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립박물관 · 미술관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공립박물관 건립사업 사전평가제'를 도입하여 설립단계에서부터 인력 운용 및 소장품 수집 계획, 건립 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2016년 공립박물관 · 미술관 사전평가를 법제화하여(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 건립 · 운영과정의 부실화 문제를 예방하고 있다.

표 5-3-1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내역(2017~2019)

(단위: 개소, 백만원)

지역	지원관수 ('17~'19)	국고 지원액			
		계	2017	2018	2019
서울	2	1,500		500	1,000
부산	3	1,798	818	980	
인천	1	1,237	1,237		
광주	2	3,693		1,900	1,793
경기	3	3,900	1000		2,900
강원	4	3,864		2,200	1,664
충북	1	2,350	2,350		
충남	5	4,050	1,516	1,784	750
전남	1	272	272		
경북	9	9,703	4,280	2,068	3,355
경남	4	1,480	580	400	500
합계	35	33,847	12,053	9,832	11,962

표 5-3-2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내역(2017~2019)

(단위: 개소, 백만원)

지역	지원관수 ('17~'19)	국고 지원액			
		계	2017	2018	2019
대구	1	3,000			3,000
울산	2	8,417		3,000	5,417
경기	1	600		600	
전북	1	1,000	1,000		
전남	5	16,205	4,600	6,500	5,105
제주	3	2,653	1,120	636	897
합계	10	31,875	6,720	10,736	14,419

3) 사립 · 대학 박물관 · 미술관 운영활성화 지원

현재 전체 박물관 · 미술관 중 사립박물관 · 미술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8%에 해당한다. 열악한 재정 · 인력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립박물관 · 미술관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문화예술계 현장 예술인력 육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9년 동 사업추진을 통해

사립 · 사립대학박물관에 263명, 사립 · 사립대학미술관에는 88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하였다.

표 5-3-3 등록사립박물관 · 미술관 전문인력 지원 추진 실적(2017~2019)

(단위: 백만원, 명)

		2017	2018	2019
박물관	지원예산	3,491	3,357	3,357
	지원인원	297	270	263
미술관	지원예산	1,412	1,200	1,200
	지원인원	105	93	88

청소년들의 인문학 의식을 고취하고 역사의식을 함양하며 인문 · 정신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현장 속의 인문학, 생활 속의 인문학 캠페인을 통해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박물관별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유물과 현장, 역사와 사람이 만나는 새로운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표 5-3-4 길 위의 인문학 추진 실적(2017~2019)

(단위: 백만원, 관, 명)

	2017	2018	2019
지원예산	30,000	30,000	30,000
참여관 및 인원	120개관 179,018명	120개관 176,783명	122개관 173,900명

또한,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5.5억 원)을 통해 대학박물관의 물적 · 인적 자원을 활용한 전시 ·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2019년 20개관 159,889명이 참여하였다.

4)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시각예술 소외지역의 유휴공간과 기존 전시시설을 작은미술관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전국 곳곳에 미술문화가 도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시각예술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 동 사업추진을 통해 신규조성 1개소(유리나래주식회사(강원 삼척), 지속운영 4개소(세종시문화재단, 널티(강원 태백), 평창군문화예술재단, 김포문화재단), 전시활성화 4개소(인천문화재단, 대안공간 마루(경남 남해), 금정문화재단, 북구예술창작소(울산 북구))를 지원하였다.

표 5-3-5 작은미술관 운영지원 현황(2016~2019)

(단위: 개소,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지원예산	700	700	700	630
지원관 수(합계)	6	7	9	9
신규조성	3	2	3	1
지속운영	3	5	3	4
전시활성화	–	–	3	4

3. 주요 기관

1) 국립중앙박물관

(1) 조직현황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공·사립박물관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문화재의 수집·보존·전시, 조사연구 및 평가, 국가소유 매장문화재와 동산문화재의 보관·관리를 총괄하며, 전통문화의 교육·홍보·국제교류 및 문화상품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산하에 13개 소속박물관이 있으며 외국 박물관과의 교류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박물관의 역사는 창경궁에 설치된 제실박물관이 1909년 11월 1일 일반인들에게 소장품을 공개하면서 부터이다. 당시 박물관은 별도의 건물을 짓지 않고 기존의 창경궁 안에 있는 환경전, 명정전과 양화당을 비롯하여 부속 전각 등을 일부 개조하여 전시실로 활용하였다. 1910년,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이 강제 병합이 되자 제실박물관은 그 이듬해에 〈이왕가박물관〉으로 격하되었다. 이것이 1938년에 창경궁에서 덕수궁으로 이전하면서 〈이왕가미술관〉으로 명칭이 바뀌고, 해방이후에는 〈덕수궁미술관〉이 되었다.

한편 일제는 1915년에 조선총독부의 시정(施政) 5년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려는 의도에서 물산공진회를 경복궁에서 개최하였는데, 이때 사용되었던 건물을 활용하여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열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박물관의 분관으로 소속에 경주분관과 부여분관을 두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12월 3일 국립박물관이 개관하게 된다. 정부가 수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립박물관이 개관된 것은 근대사회에서 정통성은 박물관에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국립박물관은 지방에 경주분관, 부여분관, 공주분관, 개성분관을 토대로 하여 중앙과 소속박물관 체제로 시작하였다. 국립박물관의 주요 활동으로 광복과 더불어 우리 문화유산을 재해석하고 체제를 정비하였다.

자리를 잡아가던 이러한 시기에 한국전쟁(1950년)이 일어나 국립박물관은 큰 시련을 겪었으나, 박물관 직원들의 노력으로 유물들을 부산으로 피난시켜 보존할 수 있었다.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국립민족박물관이 국립박물관에 흡수 통합되어 남산분관이 되었다. 1953년 휴전 후 국립박물관은 서울 남산분관 자리로 옮겨졌으며 1955년 덕수궁 석조전으로 이전되었다가, 1969년 덕수궁미술관과 통합되었다. 이것은 제실박물관에서 출발한 한국의 최초 박물관이 하나의 국립박물관으로 흡수되었음을 의미한다.

덕수궁에서 하나로 통합된 국립박물관은 1972년에 다시 경복궁 안에 있는 새 건물(현 국립민속박물관)로 이전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1986년에는 중앙청(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개수하여 새롭게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일제 잔재를 청산하려는 취지에서 1996년 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서울 용산에 새로운 국립중앙박물관을 건립하여 2005년 10월 28일 새 국립중앙박물관을 웅장하게 개관하였다.

1909년 창경궁에서 제실박물관을 일반인들에게 처음으로 개관한 이후 100년, 그리고 1945년 경복궁에서 개관한 이후 6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6차례나 이전하였던 국립중앙박물관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산하에는 국립경주박물관을 비롯하여 13개의 소속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박물관이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종합문화공간이자 휴식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박물관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19년도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직은 2단 · 1실 · 1담당관 · 7과 · 5부 · 2팀, 13개 소속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행정운영단 106명, 학예연구실 58명, 교육문화교류단 52명, 미래전략담당관 10명, 소속박물관 361명으로 총 587명의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1,719억 원, 관광기금이 25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총 1,74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0.3% 증가하였다.

2019년도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은 총 3,354천명으로 집계되었다. 총 관람객 수는 2018년 대비 1.5% 증가하였다. 내국인 관람객은 2019년 3,216천명으로 2018년 대비 1.2% 증가하였고, 외국인 관람객은 138천명으로 9.7% 증가하였다. 총 관람객 대비 외국인 관람객은 4.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소속박물관 관람객은 총 6,626천명으로, 내국인 6,485천명, 외국인 141천명이 관람하였다.

표 5-3-6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현황(2019)

연도별	관람인원		
	내국인	외국인	계
2007	2,188,072	93,628	2,281,700
2008	2,188,659	94,766	2,283,425
2009	2,634,255	119,399	2,753,654

연도별	관람인원		
	내국인	외국인	계
2010	2,900,053	145,300	3,045,353
2011	3,106,828	132,721	3,239,549
2012	2,954,008	174,542	3,128,550
2013	2,905,776	147,047	3,052,823
2014	3,414,996	121,681	3,536,677
2015	2,996,118	133,562	3,129,680
2016	3,212,410	183,849	3,396,259
2017	3,365,004	111,602	3,476,606
2018	3,178,236	126,217	3,304,453
2019	3,215,697	138,464	3,354,161

※ 2008.5.1.부터 무료관람 실시

표 5-3-7 소속박물관 관람객 현황(2019)

(단위: 명)

기관별	관람인원		
	내국인	외국인	계
합계	6,485,407	141,269	6,626,676
경주	1,153,220	97,976	1,251,196
광주	562,166	4,881	567,047
전주	445,271	2,699	447,970
대구	544,726	4,082	548,808
부여	666,376	5,586	671,962
공주	688,594	7,292	695,886
진주	439,355	5,283	444,638
청주	443,421	770	444,191
김해	415,825	3,836	419,661
제주	358,118	5,401	363,519
춘천	275,098	589	275,687
나주	251,715	1,097	252,812
익산	241,522	1,777	243,299

(2) 주요성과

가. 유물관리 및 조사연구

① 소장품 수집과 등록

국립중앙박물관은 2019년에 총 231건 582점의 문화재를 구입하였다.

그림 5-3-2 신규 구입 문화재(2019)

〈청자상감매죽학문매병(보물제903호)〉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은 2018년에 이어 박물관 소장품의 내실화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국가지정문화재급 문화재의 지속적인 확보를 우선에 두었다. 이와 함께 박물관의 상설전시와 특별 · 기획전시 활용 및 전국 소속 박물관 브랜드화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소장품 확충을 목표로 소장품 구입 업무를 진행하였다. 특히 국립전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등 소속 박물관의 브랜드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전시품을 확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소속 박물관으로 이관하였다.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이 구입한 대표적인 소장품은 보물 제903호 〈청자상감매죽학문매병〉이다. 이는 고려 12세기~13세기에 전라지역 도요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미세한 유빙렬이 전면에 고르게 분포된 맑은 담청록색 유색을 자랑하는 전형적인 고려 매병이다. 흑백상감기법으로 표현된 매화, 대나무, 학, 뇌문 등의 문양이 아름답게 새겨져 전시 효과 역시 매우 뛰어나다.

앞으로도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내 상설전시 활용 대상 명품 문화재 확보, 소속 박물관 브랜드화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소장품을 구입할 예정이다.

그림 5-3-3 신규 수증문화재(2019)

〈경포대도〉

〈총석정도〉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은 총 23건 39점을 새로이 수증하였다. 백사 이항복 종가 종손 이근형 님이 가문에서 관리하던 이항복 초상화와 국가지정문화재급 호성공신교서를 포함하여 15건 17점을 기증하였다. 이와 함께 윤광자 여사가 기증한 경포대도와 총석정도는 새로운 기증 방식이 최초로 도입된 사례이다. 일본에서 발견한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회가 윤광자 여사의 기부금으로 구입하여 기증한 것으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 소장품은 조선시대 실경산수화의 선구작으로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환수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등록의 주요 대상으로는 구입품, 기증품 그리고 국가귀속발굴매장문화재 등이 있다. 2019년에는 같은 해 구입한 청자상감매죽학문매병 등 총 337건 755점이 소장품으로 신규 등록되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은 2010년부터 '국립박물관 미정리 유물 등록 및 자료 정리' 사업을 진행하여 국가귀속발굴매장문화재 및 일제강점기 미등록품 등 장기 미등록유물을 지속적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약 180여 명의 인력을 소속기관에 투입하여 일제강점기 조사유물 167,940점, 국가귀속매장문화재 260,991점 등 총 428,931점의 장기 미등록유물을 등록하였다. '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 등록 및 자료정리' 사업은 일제강점기조사 미등록품을 2020년까지, 국가귀속발굴매장문화재 미등록품을 2022년까지 등록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소장품의 정확한 정보 등록 관리와 해당 소장품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② 과학적 보존처리

국립중앙박물관의 보존과학부는 1976년 2명의 학예원으로 구성된 '보존 기술실'에서 출발하여 2007년 보존과학팀을 거쳐 2013년 직제 개편에 따라 '보존과학부'로 승격되었다. 현재 총 13명의 각 재질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물관의 기본 역할인 소장품의 보존 및 조사 ·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존과학부에서는 보존처리를 포함하여 과학적 조사 · 분석연구에 의한 손상원인 규명, 재질 분석, 환경 측정과 예방 보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5,028점(소속 포함 총 38,686점)의 소장품과 발굴매장문화재를 보존처리하여 국내 · 외 상설전시 및 특별전에 필요한 전시품 확충에 기여하였다. 이 외에도 국 · 공사립 박물관 및 국내 · 외 관련기관 소장품의 보존처리를 비롯하여 전시 · 수장 환경 측정 및 보존 분야 종사자 전문 교육 등 보존과학 전반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5-3-4 〈유리제배〉의 보존처리 전 · 후

2019년에는 〈유리제배(국보 제193호)〉와 〈자수백수백복자도(미국 포틀랜드박물관 소장)〉 등을 포함하여 344건 905점(소속 포함 총 2,110건 5,618점)을 보존처리하였고, 166건 225점(소속 포함 총 636건 916점)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소장품의 보존 및 전시, 연구에 기여하였다. 또한 전시실과 수장고의 환경측정, 훈증, 생물학적 피해조사 등 보존 환경 유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그 밖에 국 · 공 · 사립박물관 및 국내 · 외 관련기관의 보존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국립한글박물관 서대〉 등 19건 169점(소속 포함 총 343건 1599점)의 보존처리를 완료하였고, 오이도박물관 등 7개 기관의 전시실과 수장고의 환경측정을 지원하였다.

그림 5-3-5 〈미국 포틀랜드박물관 소장 자수백수백복자도〉의 보존처리 전 · 후

표 5-3-8 보존처리 현황(2019)

구분	재질	내용	처리완료	비고
전시품	금속	은판장식금구(경주5085) 등	49건 52점	114건 214점
	목제/목칠기	나전상(덕수4076) 등	2건 2점	
	서화/지류	독립선언서(구2766) 등	38건 126점	
	토기/도자기	유리제배(황남3324/국보 제193호) 등	19건 20점	
	벽화/석제	석조여래입상(신수12080) 등	6건 14점	
소장품	금속	청동제 휴렴(본관10254) 등	101건 252점	211건 522점
	목제/목칠기	목활자(신수15595) 등	2건 51점	
	서화/지류	수성노인도(덕수4087) 등	11건 13점	
	토기/도자기	청자과형병(덕수4387) 등	71건 121점	
	벽화/석제	고려묘지명(M429) 등	17건 76점	
	직물	평양 오야리 출토품	9건 9점	
소속박물관 지원	서화/지류	국립대구박물관 곽영수 기증 출토 지류(미등록) 등	5건 45점	14건 144점
	토기/도자기	국립익산박물관 연화문수막새(증3055) 등	1건 1점	
	직물	국립익산박물관 직물(미등록) 등	8건 98점	
국 · 공 · 사립 지원	금속	국립한글박물관 부지깽이 등	2건 6점	3건 7점
	서화/지류	국립한글박물관 서대 등	1검 1점	
국외 지원	서화/지류	미국 포틀랜드박물관 자수백수백복자도 등	2건 18점	2건 18점
합계	344건 905점			

표 5-3-9 분석조사연구 현황(2019)

구분	재질	내용	처리완료	비고
소장품 성분분석	금속 등	수정절자옥(본관12361) 재질 분석 등	32건 69점	36건 87점
소속박물관 분석지원	금속 등	함평 신덕고분 출토 유리 등 재질 분석 등	4건 18점	
외부 지원	금속 등	해인사 대장경판 (국보 제32호) CT조사 등	10건 13점	10건 13점
X선 조사	금속 등	금동보살반가사유상(본관13947) 등	28건 28점	120건 125점
CT조사	금속 등	은제금도금표주박모양병(덕수3770) 등	92건 97점	
합계	166건 22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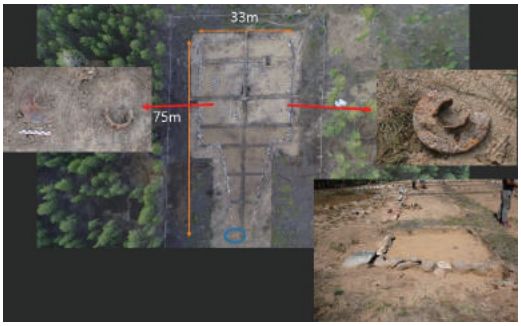
표 5-3-10 환경조사 현황(2019)

구분	기간	내용	처리완료
환경 측정	연중	전시 및 수장공간 온습도 및 유해가스 (SO2, NO2, HCHO, CO, CO2, O3) 측정	14회
훈증 소독	연중	특별전, 국가귀속, 대여, 구입품 훈증	8회
생물학적 조사	2~11월	수장고 생물피해 예방 조사	4회
공사립박물관 환경점검 지원	연중	충남역사박물관, 오이도박물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인천공항 한국문화 브랜드관 등	7회
합계	33회		

③ 유적 발굴 · 학술조사 및 학술심포지엄

2019년에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유적 발굴 및 학술 조사가 진행되었다. 먼저 국외에서는 한-몽 공동학술조사 제5차 협약에 따라 몽골 흉노 무덤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흉노 최상위 계층 무덤이 확인된 대규모 무덤군 중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헨티 아이막 도르릭 나르스 유적의 160호의 배장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에 앞서 지하물리탐사와 지표조사, 트렌치 조사를 통하여 초대형 무덤인 160호 무덤의 동 · 서 구역에서 각각 4기와 2기의 배장묘 존재를 확인하였다. 6기의 배장묘는 모두 지표에 원형으로 석렬을 돌린 원형무덤으로, 조사 결과 매장주체부 시설은 목관묘 또는 목곽묘로 확인되었다. 대체로 묘광의 깊이는 2m 가량이었으며, 매장주체부 북쪽에 부장칸을 따로 마련하였다. 160-E3의 부장칸에서는 청동방울과 철제재갈, 금제 해와 달 목관 장식, 칠기의 흔적이, 매장주체부에서는 피장자의 허리 위치에서 2점의 은제 사람얼굴모양 장신구(허리띠장식으로 추정)가 출토되었다. 이 외에 160-E4와 W1의 부장칸에서는 기존의 배장묘 조사 성과에서는 보기 드물게 다량의 동물유존체가 출토되었다. 2019년의 조사 성과는 배장묘 피장자의 성격이나 주무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림 5-3-6 국외 유적발굴(2019)



도르릭 나르스 유적 160호 무덤 모습

도르릭 나르스 유적 조사단 모습

또한 일본 오사카대학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아시아 불상 연구'의 일환으로 베트남 종교 조각에 대한 현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베트남 호치민 국립역사박물관 소장 6~7세기 종교 조각과 1~7세기에 번성했던 푸난(Funan)의 외항 유적인 옥에오(Oc Eo) 출토품, 베트남 참파 왕국(Champa Kingdom, 약 192년~15세기 무렵)의 도성인 짜끼에우(Tra Kieu) 유적과 종교 성지였던 미선(My-son) 유적, 다낭 참(Cham) 조각박물관 소장 동즈엉(Dong Duong) 출토 불상 등 불상과 힌두상 10여점에 대한 3D스캔조사 및 사진 촬영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향후 "3차원 화상으로 보는 아시아의 불상"(가제) 특별전 개최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종교 조각의 양식적 특징을 3차원 화상 기반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3-7 아시아불상 연구 베트남 조사(2019)

베트남 참 조각박물관 소장 조각 3D 스캔

베트남 참 조각박물관 소장 힌두 조각 실측

한 · 일 교류 자료 조사의 일환으로는 조선시대 한 · 일 교류의 결과로 제작된 미술품의 역할과 활용과정에 대한 현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오사카역사박물관, 교토국립박물관, 센뉴지, 규슈국립박물관 등 총 10개 기관이 소장한 한일 교류

관련 회화 자료에 대한 조사와 실측, 사진촬영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향후 한 · 일 교류 관련 특별전 개최와 우리 관 소장 한 · 일 교류 자료 보고서 출간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다.

그림 5-3-8 한일 교류 자료 조사(2019)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회화 자료 조사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소장 회화 자료 조사

아울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다양한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 간행 작업을 진행하여 관련 분야 연구 및 전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에 이어 이루어진 우리 관 소장 고려 묘지명 조사사업에서는 29건 35점에 대한 전수조사와 고화질 촬영을 하였으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묘지명의 판독 · 해석과 DB 구축을 담당하였다.

2019년 불교미술품 연구는 2017년 구입한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1621호)과 관련하여 1622년에 함께 조성된 서울 종로구 〈칠보사 목조석가불좌상〉(보물 제2004호) 조사를 진행하였다. 두 상 모두 왕실 사원인 자수사, 인수사에 봉안되었다가 1661년 절이 폐하자 광주군 법륜사(영창대군 원찰로 추정)에 이안 후 다시 지장암과 칠보사로 이안된 불상이다. 불상 계측 및 상태 점검 등 현장 조사와 아울러 관련 전공자를 초빙하여 내부포럼을 개최하고, 전시품 활용 방안 및 역사자료를 축적하였다.

조선시대 불교미술의 기원 및 도상 연구를 위해서는 중국 베이징과 산서성 중북부 일대 사관(寺觀) 불교조각과 회화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중국국가박물관과 고궁박물원, 수도박물관, 산서박물원 등 주요 박물관에 소장된 명 · 청대 불교미술품을 조사하여 한 · 중 불교미술간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중국 국립기관 불교미술 연구자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국 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미술의 세계사적 비교연구를 위한 국외 서화 조사연구도 실시하였다. 미국 소재 대표 조선전기 서화 및 관련 중국회화 조사를 통해 조선시대 서화 14건, 관련 중국 회화 17건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축적하였다. 국내에 현전작이 적은 조선 전기 서화와 송~원대 서화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관 대표 소장품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비교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조사를 통해 미국 시카고아트 인스티튜트,, 클리블랜드미술관 등 국외 소장기관의 협력을 끌어내고 전공자 네트워크를 충실히 하여 향후 공동 연구와 전시 개최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2019년 아시아 문화재 연구 및 문화교류 협력의 일환으로는 태국 문화부 예술국과 문화재 대여, 공동 연구, 학술 심포지엄, 출판물 발간 등 연구 성과 공유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로 인해 향후 한-태국 간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 조사 연구 및 인적 교류, 전시 등에 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전시와 연계된 다양한 학술행사도 개최하였다. 특별전 '가야본성-칼과 현'과 연계하여 국제학술대회 '가야가 만든 고대 동아시아 네트워크'를 개최하여 동아시아사에서 가야 정치체의 역할을 규명하였으며, 한국철문화연구회와 공동으로 '가야 철문화의 특성과 변천'이라는 주제로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가야의 철문화를 조명하는 등 가야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여러 기회를 마련하였다. 특별전 '대고려918 · 2018 그 찬란한 도전'과 연계해서는 한국중세사학회와 공동으로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 정리하는 학술대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8년에 이어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시 주제를 심도 있게 살펴본 학술 강연회도 3회 진행하였다. 특별전 '우리 강산을 그리다: 화가의 시선, 조선시대 실경산수화'는 연계 강연회를 4회 진행하여 실경산수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서화실 기증전 및 주제전과 연계한 전문가 초청 학술 강연회도 실시하였다. '손세기 · 손창근 기증 명품 서화전' 연계 특별 강연회를 통해 기증의 의의와 손창근 컬렉션의 가치를 널리 알렸으며, '자하 신위 탄생 250주년 기념 서화전: 자줏빛 노을에 물들다' 연계 특별 강연회를 기회로 조선 후기 시 · 서 · 화 삼절인 신위의 삶과 문예관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2019년 개관한 세계문화관 전시와 연계하여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세계문화관 이집트실 신설 및 개편과 연계한 '세계문화관 연계 국제 학술대회'(11.5.)를 개최하여 마누엘 라밧 루브르 아부다비 박물관장 등 전 세계 전문가를 초청, 세계문화 전시의 최신 경향과 문화적 다양성의 전시 방안을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국 · 내외 여러 기관과 함께 발굴 및 학술조사, 심포지엄 등을 행하여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이를 학계와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표 5-3-11 유적 발굴 · 학술조사 현황(2019)

내용	대상	기간
2019 한-몽 공동 학술발굴 조사	도르릭 나르스 160호 흉노 무덤 배장묘 조사	7~9월
2019년도 한일교류자료 조사	도쿄국립박물관 등 10개 기관 소장 한일교류 관련 자료 조사	8월
한국미술 기원 조사(1차)	중국 베이징 · 산서성 중북부 일대 사관(寺觀) 불교미술 조사	11월
한국미술 기원 조사(2차)	미국 소재 대표 조선전기 서화 및 관련 중국회화 조사	12월
2019년도 아시아불상 공동연구	베트남 종교조각(힌두 및 불교조각)의 기초 자료 조사	12월

표 5-3-12 학술심포지엄 및 강연회 개최 현황(2019)

내용	대상	기간	비고
특별전 "가야본성-칼과 현" 전시 연계 국제학술대회	특별전 "가야본성-칼과 현" 전시 연계 국제학술대회 개최, "가야가 만든 고대 동아시아 네트워크" 라는 주제로 8편의 논문 발표(국외 발표자 4인, 국내 발표자 4인)	8.29.	국제 학술대회
특별전 "가야본성-칼과 현" 전시 연계 국내학술대회	특별전 "가야본성-칼과 현" 전시 연계 국내학술대회를 한국철문화연구회와 공동개최, '가야 철문화의 특성과 변천'이라는 주제로 5편의 논문 발표	12.6.	공동개최 학술대회
특별전 '대고려918 · 2018 그 찬란한 도전' 연계 전문가 초청 학술 강연회	특별전 '대고려918 · 2018 그 찬란한 도전' 전시에 맞춰 기획한 전문가 초청 학술 강연회. 고려 불교회화와 공예, 직물, 교류관계, 특별전 기획과 연출에 대해 일본과 한국 연구자가 강연(3회, 6명 발표)	1.10./ 1.24./ 2.14.	학술 강연회
특별전 '대고려918 · 2018 그 찬란한 도전' 연계 학술대회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과와 과제"	특별전 '대고려918 · 2018 그 찬란한 도전'과 연계하여 한국중세사학회와 공동주최한 학술대회.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 국공립 박물관과 도서관, 학술기관 및 연구재단, 지자체 등에서 개최한 각종 기념행사의 성과와 과제 종합 정리	2.19.	공동학술 대회
'손세기 · 손창근 기증 명품 서화전' 연계 특별 강연회	서화실 기증전 '손세기 · 손창근 기증 명품 서화전'과 연계하여 기획한 전문가 초청 학술 강연회. 손창근 기증 컬렉션의 특징과 의의 등 정리(1회, 2명 발표)	6.5.	학술 강연회
특별전 "우리 강산을 그리다: 화가의 시선, 조선시대 실경산수화" 연계 강연회	특별전 "우리 강산을 그리다: 화가의 시선, 조선시대 실경산수화"과 연계하여 실경산수화의 전통과 흐름을 살펴보고, 당대의 유람문화 및 창작과정을 조명한 경연(4회, 7명 발표)	7.31./ 8.28./ 9.4./ 9.5.	학술 강연회
"다양한 문화, 확장된 시선" 세계문화관 개관 기념 국제학술대회	2019년 12월 16일에 개관한 세계문화관과 연계하여 '한국에서 보는 세계 문화'를 주제로 전 세계 전문가를 초청해 세계문화 전시의 최신 경향과 문화적 다양성의 전시 방안을 고찰한 국제 학술대회.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임현묵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장 등 국내 전문가 3인과 마누엘 라바테 루브르아부다비 관장 등 국외전문가 4인이 각자의 연구, 활동영역과 경험을 토대로 발표	11.5.	국제 학술대회
'자하 신위 탄생 250주년 기념 서화전: 자줏빛 노을에 물들다' 연계 특별 강연회	서화실 주제전 '자하 신위 탄생 250주년 기념 서화전: 자줏빛 노을에 물들다'와 연계하여 기획한 학술 강연회. 자하 신위의 삶과 문예관, 우리 관 신위 관련 소장품 재조명한 학술 강연회(1회, 2명 발표)	12.18.	학술 강연회

나. 전시활동

① 상설전시실 개편

상설전시실 전시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상설전시관 3층 아시아관이 2019년 12월 16일 세계문화관으로 새롭게 개관하였다.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뒤 15년 만의 전면 개편이다. 세계문화관은 상설전시실 3층에 위치한 기존의 아시아관 전시실을 조정하여 조성하였다. 먼저 첫번째 세계문화 전시실로 미국 브루클린박물관과 공동으로 이집트실을 열었다. 기존에 있던 중앙아시아실, 인도동남아실, 중국실은 새롭게 전시공간을 구성하고 관람동선, 전시시설을 개선하였다. 이 개편사업은 2005년 개관 이후 낡은 전시 환경을 일신하여 관람객들이 전시실 안에서 더욱 편안한

관람이 가능하도록 진열장에 저반사 유리를 대폭 적용하였으며 전시조명 또한 대부분 LED로 교체하였다. 또한 관람객의 전시실 동선을 개선하였는데 기존 아시아관에서는 지역별 전시실의 동선 진행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각 전시실 간 동선 구별이 되지 않아 관람객들이 각 전시실의 전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편에서는 각 전시실 간의 내부 이동통로를 막고 관람객들이 실내에서 계획된 동선을 따라 전시실을 관람한 뒤 복도로 나와 다른 전시실로 진입하게 함으로써 각 실별 전시 내용의 명확한 이해를 도모했다.

이번에 신설된 이집트실은 상설전시실로서는 국내 최초이다. 세계적인 이집트 유물 소장기관인 미국 브루클린박물관으로부터 대여한 94건의 이집트 유물을 2년간 전시한다. 1부 도입부에서 맵핑 영상으로 이집트의 역사를 한 눈에 소개하고 이집트의 자연 환경과 일상생활을 다양한 토기, 장신구, 조각 등으로 소개했다. 2부에서는 미이라를 비롯해 '사자의 서' 파피루스, 샵티 등 사후 세계와 관련한 유물을 중심으로 고대 이집트의 신화 영상과 함께 사후세계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세계관을 소개했다. 특히 관람객의 관심도가 높은 미이라는 별도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사자의 서'와 미이라 내부의 X선 분석결과를 함께 전시하여 사후세계에 대한 이집트인의 세계관을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꾸몄다. 전시품 이외에 주목되는 것은 이집트 상형문자로 자신의 이름을 만들어보도록한 인터랙티브 미디어이다. 상형문자로 자신의 이름을 만들어 개인 메일로 송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시에 대한 관람객들의 이해와 흥미를 한층 끌어올렸다.

중앙아시아실은 베제클리크 석굴사원 출토 벽화와 소형 화불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베제클리크 석굴사원 관련 고화질 영상을 제작해 함께 소개하였다. 또한 2017년 조사보고서가 발간된 로프노르 · 누란 전시품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으며 중앙아시아실을 대표하는 유물인 〈복희여와도〉를 독립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진품을 최초로 공개함으로써 중앙아시아실에 대한 관람객들의 흥미와 이해도 제고를 꾀했다.

인도동남아시아실은 조각품을 중심으로 전시 공간을 조성했다. 남아시아의 시기별 조각 양식의 변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간다라 보살상과 캄보디아 크메르 조각상, 팔라와 촐라시기 대표 불비상 등 주요 전시품을 노출 전시하였다. 특히 조명을 개선하여 노출 전시한 조각상들의 양식적 특징과 조각 기법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실은 고대문화를 보여주는 청동기, 옥기, 토기류 전시품을 보강하여 중국 문화의 원류를 보여주고자 구성했다. 고분 출토 인물과 동물 모양의 도용 등도 새롭게 전시되었다. 시대별, 가마별로 우수한 유물을 보유한 우리 관 중국도자 컬렉션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대형 벽부 진열장을 새롭게 만들고 가마별로 우수한 작품을 선별해 전시함으로써 중국 도자 발전의 흐름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화를 전시하는 벽부진열장의 대형 유리를 저반사 유리로 교체하여 회화 감상에 최적화된 전시환경을 조성했다. 더불어 중국실에 인접한 영상실을 '중국 학자의 서재'라는 주제 아래 노후화된 시설과 조명을 개선하고 김홍남 전 관장이 기증한 중국 유물과 중국 전통가구를 배치하여 감상과 휴식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개편했다.

이번 세계문화관 조성은 다양한 세계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박물관의 노력 중 하나이다.

그동안 아시아권 중심으로 소개했던 전시를 넘어 여러 나라의 문화를 실물로 접하며 인류 전체가 이룩한 다채로운 세계 문화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까지 세계 유수박물관과 맺어 온 폭넓은 네트워크에 기반하였다. 이번 세계문화관 조성을 계기로 세계문화관을 관람하는 관람객이 단순히 외국 유물을 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호기심과 포용력을 가지고 더욱 넓은 시각과 상상력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림 5-3-9 세계문화관 조성(이집트실 신설)

신규 조성 이집트실1

신규 조성 이집트실2

전면 개편 중앙아시아실

전면 개편 인도동남아시아실

전면 개편 중국실

신규 조성 영상실

② 특별전 개최

고려(918-1392)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해서 2018년 12월 4일부터 개최된 특별전 '대고려918 · 2018 그 찬란한 도전'은 2019년 3월 3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의 11개 기관과 국내 34개 기관 출품 고려시대 문화재가 전시된 이번 대규모 특별전은 한국문화재를 주제로 한 전시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남겼다. 개막일 포함 89일 동안 17만 2천여 명의 관람객이 박물관을 찾아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중세 왕조, 고려를 만났다. 뛰어난 고려의 미술품으로 국제적이고 다원적인 고려 문화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었던 뜻깊은 전시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8년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문화교류로 우호 관계 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27일부터 2019년 2월 24일까지 '황금인간의 땅, 카자흐스탄'을 개최하였다. 내륙아시아를 관통하는 동서교통로 "초원의 길"이 갖는 의미와 한국과의 연관성을 모색한 이번 전시에서는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유물인 〈황금인간〉 등 총 319건 459점의 유물이 선보였다. 카자흐스탄의 대초원 문화와 동서문명 교류에 대한 이해를 모색한 이번 전시는 2009년 '동서문명의 십자로-우즈베키스탄의 고대 문화' 이후 9년 만에 개최된 중앙아시아 관련 전시로, 최신 연구 성과를 기초로 기원전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카자흐스탄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일목요연한 이해와 학술적 관심의 제고를 꾀하였다.

2019년 4월 16일부터 6월2일까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20세기 전환기의 한국 근대 서화를 조명하는 특별전 '근대 서화, 봄 새벽을 깨우다'를 개최하였다. 근대 서화의 거장 심전 안중식의 서거 100주기를 기념하기도 한 이 전시는 대표작 〈백악춘효〉, 〈영광풍경〉을 비롯해 근대 서화가들의 그림과 글씨, 사진 삽화 등 100건의 작품을 전시하여 동양과 서양, 옛 것과 새 것, 전통과 모던이 공존하던 혼돈의 시대에 근대 서화가들이 걸어갔던 길들과 이들이 남긴 유산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부처님 오신 날 기념으로는 '꽃으로 전하는 가르침-공주 마곡사 괘불'을 2019년 4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사찰 소장 괘불을 대중에게 선보였다. 괘불 이외에 마곡사의 연혁과 사찰 소장 불상, 불화를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통해 오감으로 괘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2019년 4월 29일부터 6월 16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와 현대미술의 최초 협업 전시인 특별전 '영월 창령사터 오백나한'을 개최하여 문화재의 현대적인 해석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또한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천년 가까이 이탈리아 반도 중북부 고대 지중해 문명의 한 축이었던 에트루리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전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를 2019년 7월 9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개최하였다. 2008년 이후 개최된 이집트 문화, 그리스 문화, 로마문화전 등 세계 고대문명전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 전시는 신전 페디먼트, 석관, 금제 장신구 등 300여점을 소개하여 그리스 문명의 영향과 로마 문화의 성장 등 지중해의 대표 문명을 한 자리에서 비교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세계 문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2019년 7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개최된 '우리 강산을 그리다: 화가의 시선, 조선시대

실경산수화'는 그림의 창작자인 화가에 초점을 맞추어 실경산수화의 제작 과정을 소개하는 전시였다. 옛 화가들이 그린 다양한 실경산수화를 선보이며 화가의 시점에 따라 실제 경치가 화면에 그려지는 방식들을 살펴보고, 주관적 시선(해석)으로 재구성되는 양상을 조명했다. 잘 알려진 정선, 김홍도를 비롯하여 한시각, 조세걸, 김윤겸, 정수영, 김하종 등의 작품을 감상하고, 영상과 연계 강연회, 상설관의 연계 주제전시 등으로 실경산수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특별전 '가야본성-칼과 현'은 2019년 12월 3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국립김해박물관과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1991년 특별전 '신비의 고대 왕국 가야' 이후 진전된 가야사 연구 성과를 전시로 구현하여 가야사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번 전시에는 말 탄 무사모양 뿔잔(국보 제275호) 등 873건 2,604점의 전시품이 선보였다. 지역기관 및 사회와 연계한 가야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학술도록 · 전시도록 · 대중도서 등 다양한 관련 서적을 발간하여 가야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고자 했으며, 전시와 연계한 국제학술대회, 콜로키움, 박물관 역사문화교실 등을 개최하여 가야사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9년 12월 21일부터 2020년 5월 10일까지는 핀란드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국내 최초의 전시로, '인간, 물질 그리고 변형-핀란드 디자인 10 000년' 전시가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는 고고학, 민속학, 현대 산업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의 핀란드 문화유산을 연대기적이 아닌 형태, 기능, 관계 속에서 새롭게 분류함으로써, 핀란드 물질문화의 발전과정을 다각적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아울러 북유럽 디자인과 감성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이해를 고취시키고, 다양한 기호와 수요를 반영하여 관람객 확장에 기여하였다.

표 5-3-13 특별전 개최현황(2019)

전시기간	전시명칭	내용
'18.11.27.~ '19.2.24.	황금인간의 땅, 카자흐스탄	• 황금인간으로 대표되는 카자흐스탄의 대초원 문명과 유라시아에서 정착 · 이동을 반복한 민족 문화유산 조명 • 〈황금인간〉 등 319건 459점 전시 • 총 84,463명 관람(2018.11.27.~2019.2.24.)
'18.12.4.~ '19.3.3.	대고려918 · 2018 그 찬란한 도전	•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개방적인 자세로 독창적인 문화를 이룩한 고려 미술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전시 • 희랑대사좌상, 은제 금도금 주자와 받침, 나전 국화넝쿨무늬 경함, 아미타여래도, 수월관음도 등 349건 452점 전시(국보 18건, 보물 34건) • 총 172,101명 관람(2019년 131,873명 관람)
4.16.~6.2.	근대 서화, 봄 새벽을 깨우다	• 3 · 1 운동 100주년과 근대 거장 심전 안중식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1919년을 전후로 급변했던 근대 서화의 흐름을 조명한 전시 • 안중식 〈백악춘효〉 등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림과 글씨, 사진, 출판물 등 100건 전시 • 총 41,049명 관람
4.24.~10.20.	꽃으로 전하는 가르침 -공주 마곡사 괘불	•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공주 마곡사 소장 괘불을 특별 공개 • 〈공주 마곡사 괘불〉(보물 제1260호) 1건 1점 전시
4.29.~ '6.13.	창령사 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 2001년 강원도 영월 창령사 터에서 발굴된 오백나한 전시로 설치작가 김승영과 협업 • 창령사 터 출토 나한 석조상 90여 점

전시기간	전시명칭	내용
7.9.~10.27.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 그리스 문명에서 로마 문명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양상인 에트루리아 문명을 소개함으로써 거대한 서양 문명과 문화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한 전시 • 신전 페디먼트, 석관, 청동상 등 300점 전시 • 총 관람객: 114,515명
7.23~9.22. (연장전시: 9.30~10.20.)	우리 강산을 그리다: 화가의 시선, 조선시대 실경산수화	• 실경산수화의 창작자인 화가의 시선에서 그림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고, 실경산수화의 흐름을 조명한 전시 • 16세기 〈경포대도〉, 정선의 《신묘년풍악도첩》, 김홍도의 《병진년화첩》 등 46건 360여 점 전시 • 총 67,176명 관람
'19.12.3.~ '20.3.1.	가야본성-칼과 현	• 가야 조사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 가야 문화의 성격과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한 전시 • 말 탄 무사모양 뿔잔(국보 제275호) 등 873건 2,604점이 전시 • 총57,693명 관람
'19.12.21.~ '20.5.10.	인간, 물질 그리고 변형 -핀란드 디자인 10 000년	• 1만년의 시간 동안 핀란드의 문화유산이 물질과 대상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오늘날의 디자인으로 변형되어 왔는지 탐구. 핀란드와 한국 유물의 비교를 통해,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조망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 확장 • 핀란드 문화유산 140여 건 및 한국 유물 26점 • 총 관람객: 7,854명(12.31. 기준)

③ 어린이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역사를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주는 교육 공간이자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체험과 학습, 여가활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체험 전시실을 중심으로 대기 공간, 휴게실, 유아방, 어린이 교실, 야외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은 2,538㎡, 전시실 면적은 1,086㎡이다. 전시실은 옛사람들의 생활과 삶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는 체험식 전시로 구현하여 어린이들이 과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2019년에는 가야를 주제로 하는 '뚱땅뚱땅, 가야 대장간' 특별전을 개최했다. 우수한 철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고대 가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체험형 어린이 전시이다. 전시 기간은 2019년 7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다. 현재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는 철의 특성을 알아보고, 철이 바꾼 세상의 변화를 찾아본다. 또한 과거 뛰어난 철기 제품을 만들었던 가야 대장장이들의 제련과정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자연스럽게 과거 가야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계 교육으로 가야 제련과정과 갑옷을 살펴볼 수 있는 '가야의 초콜릿 공장'과 '가야 갑옷과 내 이야기'가 9월부터 12월까지 총 18회 362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전국 어린이박물관을 소개하는 『한국 어린이박물관 백서』를 발간하였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 31개처 어린이박물관의 전시 · 교육 경험과 현황을 수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립박물관 어린이 교육 평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 교육 평가지표 개발 1차』를 연구 · 발간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의 보다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서 향후 박물관 어린이 교육의 발전적인 방향과 내용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동안 어린이박물관에서는 특별전과 연구자료집 외에도 연중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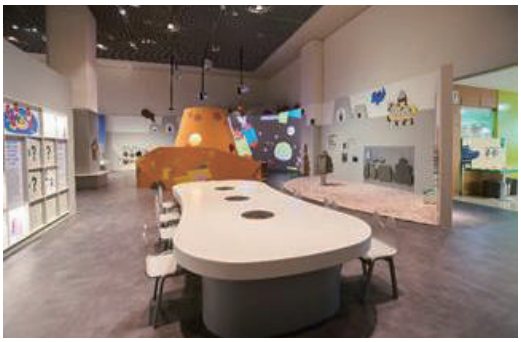
운영하였다. 초등연계 교육부터 어린이날 행사까지 총 52종의 어린이 대상 행사와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한 해 동안 333회, 40,568명이 참여하였다. 더불어 421,041명의 관람객이 어린이박물관을 방문하였다.

그림 5-3-10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입구 모습

어린이박물관 평면도

'뚱땅뚱땅, 가야 대장간' 특별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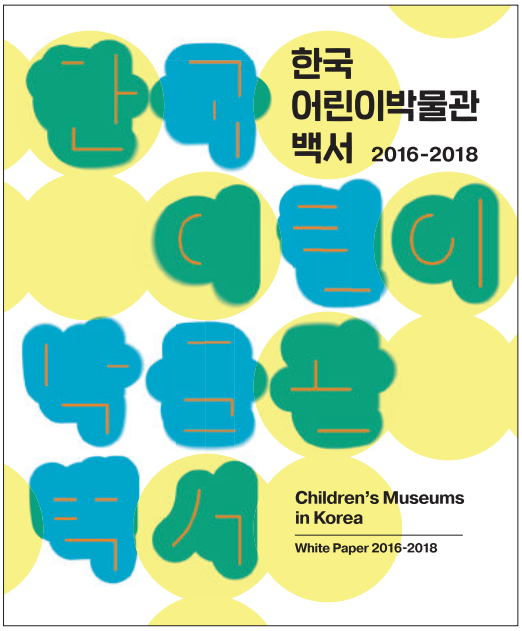


'뚱땅뚱땅, 가야 대장간' 특별전 모습

그림 5-3-11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및 자료집

박물관을 훔친 아이들

가야의 초콜릿 공장



한국 어린이박물관 백서(2016–2018)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교육 평가지표개발 1차

다. 교육, 문화행사 및 도서발간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소장품을 매개로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및 여가시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 성인, 가족, 외국인, 희망계층, 디지털, 기관협업 등 다양한 대상층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건강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교육 '박물관은 생방송 중', 디지털 게임형식의 '태블릿 PC로 떠나는 박물관 여행', 그리고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오감표현' 등 86종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34만여 명이 참가했다. 또한 상설전시를 포함해 기획 ·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과 전시품을 쉽게 이해하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지 및 교육자료 등을 개발해 소장품을 스스로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초 · 중등 교사를 위한 문화연수, 교사초청 전시설명회 등 매개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으며, 전국을 누비는 찾아가는 박물관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문화가 있는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표 5-3-14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2019)

구분	중앙	경주	광주	전주	부여	공주	진주	청주	대구	김해	제주	춘천	나주	미륵사지
총 실행 횟수	1,094	429	268	192	292	256	191	317	245	574	236	909	419	34
참여인원 (명)	339,403	32,384	22,257	5,773	14,612	19,044	9,596	16,831	16,670	23,840	17,582	96,159	19,743	910

그림 5-3-12 국립중앙박물관 교육프로그램(2019)

박물관은 생방송 중(디지털)

태블릿 PC로 떠나는 박물관 여행(디지털)

문화재 오감표현(소외계층)

찾아가는 박물관(소외계층)

초중등교사 박물관 문화연수(전문가)

전시품과 함께하는 힐링여행(야간개장)

한편 박물관의 본래 기능인 전시, 교육뿐만 아니라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박물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전시와 연계한 기념음악회 등의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 대외기관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문화공간 동화음악회', '특별전 연계 기획 공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시리즈' 등 18년부터 매년 다양한 형태의 공연 · 행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림 5-3-13 대외기관 간 협력사업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시리즈" (2019)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 '농악'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 '줄타기'

표 5-3-15 문화행사 현황(2019)

구분	중앙	경주	광주	전주	부여	공주	진주	청주	대구	김해	제주	춘천	나주	미륵사지
총 실행 횟수	85	38	197	30	104	125	55	262	241	168	1	149	35	0
참여인원 (명)	72,300	31,652	35,330	54,325	31,670	92,037	68,165	64,393	63,307	47,166	258	19,234	10,511	0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은 국내외 박물관과 고고학, 역사, 문화재, 보존과학, 예술, 인류학 등 박물관 관련 전문자료를 수집 · 정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 분야 연구자들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그동안 추진한 전시관련 도록과 연구 · 조사보고서 등 전문도서 149,100책, 비도서(CD-ROM, DVD 등) 4,441건을 포함 총 153,541책(건)을 소장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연간 60,843명이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을 이용하였다.

표 5-3-16 도서발간 현황(2019)

구분	도서명	주요내용
자료집	학예특별과제 연구보고 제1책 김재원 국립박물관 초대관장 영문편지	김재원 국립박물관 초대 관장이 국외 학계, 박물관계, 공익재단, 국제기구 등과 주고받은 영문편지의 원문이미지와 한글요약문을 수록한 자료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제11집: 유리건판으로 보는 개성 – 宮闕과 陵墓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집 11집으로 개성에 남은 고려 궁궐, 능묘 사진과 논고 수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제12집: 유리건판으로 보는 발해유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집 12집으로 발해유적의 사진과 논고 수록
	대고려918 · 2018 그 찬란한 도전 백서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특별전 "대고려918 · 2018 그 찬란한 도전"(2018.12.4.~2019.3.3.)의 준비와 진행 과정, 전시 기획, 학술 · 교육 · 행사 · 홍보 · 출판물을 비롯해 관람객 분석 등 특별전 성과와 과제 정리.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소속 국립박물관 특별전 관련 내용 부록으로 수록

구분	도서명	주요내용
자료집	한국서화도록 제27집 – 조선시대 실경산수화 2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서화도록 제27집으로 금강산 이외의 한양, 단양, 평양, 함흥 등 전국의 명승지를 그린 18~19세기 실경산수화 20건 소개, 고화질 도판과 작품해설 수록
	2018 국립중앙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자료집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 어린이박물관과, 고객지원팀에서 2018년에 운영한 교육프로그램을 정리한 자료집
	제44회 그리기잔치 입상작 모음	제44회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기 잔치 입상작 모음 – 내가 사랑한 문화재
	보존과 복원의 세계–나전칠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나전칠기의 보존과 복원의 기초적 이론과 실무에 필요한 자료 정리
도록	가야본성–칼과 현	특별전 '가야본성–칼과 현'(2019.12.3.~2020.3.1.)의 전시도록. 전시품 도판, 해설 수록
	가야, 동아시아 교류와 네트워크의 중심지들	특별전 '가야본성–칼과 현'(2019.12.3.~2020.3.1.)의 학술도록. 35명의 연구자 참여, 대논고 10편. 소논고 30편, 논쟁과 칼럼 19편 등 총 59편의 글과 주제별 관련 도판을 수록한 가야사 개설서
	Goryeo : The Glory of Korea	특별전 '대고려918 · 2018 그 찬란한 도전'(2018.12.4.~2019.3.3.)의 영문 전시도록. 대표 전시품 60점을 선정하여 주제별 영문 개요와 영문 도판해설을 수록
	꽃으로 전하는 가르침 – 공주 마곡사 괘불	괘불전 '꽃으로 전하는 가르침–공주 마곡사 괘불' (2019.4.24. ~10.20.) 전시도록. 유네스코 세계유산 마곡사의 연혁과 마곡사 괘불, 불교조각, 불교회화 관련 원고와 사적기 원문 및 번역문 수록
	우리 강산을 그리다: 화가의 시선, 조선시대 실경산수화	특별전 '우리 강산을 그리다: 화가의 시선, 조선시대 실경산수화'(2019.7.23.~9.20.)의 전시도록. 전시품의 도판과 해설, 전시 주제별 실경산수화의 전통과 특징 등에 대한 특별고찰, 특별전 연계 상설관의 주제전시 주요 전시품 수록
	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 이집트	세계문화관 이집트실 신설('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 이집트'/2019.12.16.~2021. 11.7.)을 위해 미국 브루클린박물관에서 대여한 전시품 94건에 대한 도판과 해설, 논고 수록
	근대서화 – 봄 새벽을 깨우다	기획전 '근대서화, 봄 새벽을 깨우다'(2019.4.16.~6.2.)의 전시도록. 각 섹션별 개요와 칼럼, 도판해설, 부록(주요 제발 해석, 도판목록, 주요 참고문헌, 영문초록)으로 구성. 대도록과 소도록 2종 발간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특별전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2019.7.9.~10.27.)의 전시 도록. 각 섹션별 개요와 칼럼, 도판해설, 특별논고, 부록(연표, 지도, 참고문헌, 초록)으로 구성. 대도록과 소도록 2종 발간
	인간, 물질 그리고 변형 – 핀란드 디자인 10 000년	특별전 '인간, 물질 그리고 변형 – 핀란드 디자인 10 000년'(2019.12.21.~2020.5.10.)의 전시도록. 각 주제별 개관과 칼럼, 전시품 및 참고품 도판 해설, 참고문헌 등 수록. 대도록과 소도록 2종 발간
정기 간행물	Journal of Korean Art and Archaeology(JKAA) 14호	국내 최신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외국에 소개하는 저널. 14호는 "고려 불교미술" 특집으로 관련 연구 논문 수록
	고고학지 25집	고고학 관련 연구 성과 소개. 연구논문 5편 수록
	미술자료 95, 96호	미술부가 매년 발간하는 미술사 관련 학술지. 2019년 2회 발간. 95호 논문 6편 · 자료 3편 수록. 96호 논문 6편 · 자료 3편 수록. 2018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
	박물관 보존과학 21, 22집	박물관의 문화재 보존처리 방법, 과학적 분석, 제작기법, 보존처리 재료에 관한 논문과 자료 수록
	박물관 교육 제3집	박물관 교육과 관련된 연구 논문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 논문 수록

표 5-3-17 국립중앙박물관도서관 소장 자료 현황(2019)

자료구분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	희귀본	특수자료	합계
수량	105,659책(건)	42,670책(건)	4,441책(건)	428책(건)	343책(건)	153,541책(건)

라.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등 국제교류

①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2019년은 한국 문화재를 소장한 외국박물관의 전시 환경 질적 향상과 한국 문화재 정보 온라인 서비스 강화를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신규로 미국 데이튼박물관과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새뮤얼한박물관의 전시 환경 개선 사업 등 총 15개 박물관 17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포틀랜드박물관 소장 한국 회화 작품 2점을 우리 관에서 직접 보존처리 후 대중에게 공개(2019.7.2. ~ 7.17.)하여, 외국 소재 한국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② 우리문화재 국외전시

2019년에는 “A Korean Buddhist Masterpiece(한국의 불상)” 특별전을 미국 스미소니언 프리어&새클러박물관에서 개최(9.21.~2020.5.31.)하였다. 이 특별전은 소장품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외전시로서, 우리 관『불교조각조사보고서』를 통해 조사와 분석이 완료된 고려시대 목조관음보살좌상과 상 내부에서 발견된 복장물 1건 72점을 집중 조명하였다. 한국의 불교조각과 더불어 발전해 온 복장물 문화에 대한 최초의 국외 소개 사례로서 주목되었다. 또한 “Splendor and Finesse: Spirit and Substance in Korean Art(한국미술: 삶과 영혼에 깃들다)” 특별전은 폴란드 바르샤바국립박물관에서 개최(10.11.~2020.1.12.)하였다. 한국과 폴란드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성사된 이번 전시는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권 국가 최초로 개최된 한국문화재 특별전으로 보물 제339호 〈서봉총 금관〉을 비롯한 총 244건 391점의 전시품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조망하였다. 한국 미술의 변천을 종합적으로 선보이는 전시품과 함께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양국의 교류관계를 문화계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9년에는 ‘Sunken Treasures (가라앉은 보물들)’ 특별전을 네덜란드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에서 개최(2019.9.7.~2020.6.28.)하였다. 이 특별전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도자박물관인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에서 개최되는 해저유물전으로, 신안선을 비롯한 7개의 난파선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전시하였다. 우리 관에서는 〈청동주방용기〉(신안2011) 등 신안해저유물 112건 112점을 출품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관 소장 신안해저문화재 컬렉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동아시아 해상도자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상을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③ 국제교류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및 문화유산 관련 국제 기구 · 협의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제34차 총회(2019.9월/일본 교토), 제25차 세계박물관대회(2019.9월/일본 교토),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아시아-태평양지역연합(ASPAC) 연차 총회(2019.9월/일본 교토), 아시아 · 유럽박물관네트워크(ASEMUS) 집행위원회 회의(2019.9월/일본 교토), 국제푸른방패(BSI, Blue Shield International) 집행위원회 회의(온라인 화상회의/분기별)에 참여하여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였다.

그림 5-3-14 국제 기구 · 협의체 참가(2019)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제34차 총회(2019)

ICOM 아시아_태평양지역연합(ASPAC) 연차 총회(2019)

국립중앙박물관은 2009년부터 '국외 전문가 초청사업'을 기획하여 국외 주요 박물관, 문화기관 및 유관기관의 부서장급 이상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학술문화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미술사, 고고학, 박물관 교육, 어린이박물관 프로그램 기획, 전시 디자인 및 조명, 국외 한국실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 개방형 수장고 운영사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5명을 초청하여 국외 박물관 전문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초청 프로그램은 전문 분야별 특별강연회 및 워크숍, 업무 자문, 현장 실사 및 학술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표 5-3-18 국외 전문가 초청사업(2019)

구분	기간	성명	소속 및 직함	내용
1차	6.25.~28 (4일간)	무라카미 야스유키 (村上恭通)	일본 에히메대학 고대 철문화 연구센터장/교수	• 특별전 '가야본성' 관련 학술 자문간담회 • 강연 "강원지역 철기문화의 성격"(춘박) • 춘천지역 철기문화 학술조사 및 자문
2차	8.27.~31. (5일간)	시프리언 브로드뱅크 (Cyprian Broodbank)	영국 캠브리지대학 고고학과 교수	• 특별전 '가야본성' 연계 국제학술대회 기조강연: "고대 지중해의 무역과 네트워크" •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특별강연 (우리 관 공동 개최) • 경주 지역 고고학 발굴현장 학술답사
3차	11.03.~05. (3일간)	[3차 초청] 마누엘 라바테 (Manuel Rabate)	UAE 루브르 아부다비 박물관장	• 세계문화관 개관기념 국제심포지엄 발표, 콜로키움(세계문화를 담은 새로운 박물관, 루브르 아부다비) ,주제발표, 전시 자문 등

그림 5-3-15 국외 전문가 초청사업(2019)

1차 초청: 춘천박물관 특별강연

2차 초청: 국제학술대회

2차 답사 : 경주 발굴현장 답사

3차 : 국제심포지엄 발표 등

국립중앙박물관은 2007년부터 아시아국립박물관협의회(ANMA)의 회원기관으로 매 2년마다 회원국들이 순환 개최하는 ANMA 집행위원회와 정기대회에 참석하여 아시아 지역 국립박물관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아시아 국립박물관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왔다. 현재 ANMA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일본,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싱가포르, 스리랑카,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오만, 동티모르, 아제르바이잔 등 총 1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19년도 회의는 말레이시아 박물관국이 주관하여 10.28.~11.1.까지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에서 개최하였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회원국(오만, 동티모르, 아제르바이잔) 승인, ANMA 회원 규정 제정 논의, ANMA Special Working Group 구성 논의 및 제8회 개최국(오만 국립박물관) 및 제9회 개최국(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선정 등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그림 5-3-16 제7회 아시아국립박물관협의회 집행위원회 및 정기대회(2019)

제7회 ANMA 집행위원회

제7회 ANMA 회원국 전체사진

말레이시아 박물관국 관계자 인사

말레이시아 로얄박물관 문화답사

2005년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국가박물관(National Museum of China)과 상호 학술문화교류협약을 체결하고, 2006년부터 매년 1개의 교류주제를 선정하여 2~4명의 박물관 전문 인력을 1~2주간 파견 및 초청하여 학술인적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대표 국립박물관의 운영관리전략, 전시, 학술연구, 소장품관리, 보존처리, 교육프로그램, 박물관 정보화(디지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노하우를 교류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내실화하고 있다. 2006년~2019년까지 총 76명의 전문 인력이 교류하였고, 주로 소장품 실사, 고고학 발굴지 및 역사유적지 학술조사, 교류주제별 주제발표회, 관계자 업무면담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한·중 국립박물관 스마트박물관 구축, 박물관 보안안전 관리방안, 『한중일 박물관 교육 국제심포지엄』참석 및 주제발표, 시설운영관리방안 등을 주제로 상호 연구교류를 실시하였다.

표 5-3-19 한 · 중 학술인적교류사업 교류내용(2019)

기간	교류 주제	수행 내용
5.13.~5.17. (중국 → 한국)	① 시설관리현황 업무면담, 시설견학 및 자료조사 • 우리 관 관리과 조직 및 인력, 업무현황 소개 • 우리 관 중앙감시실, 보안, 건축 및 시설관리, 배전 및 배수, 난방 및 냉방, 공조시설, 수장고 시설관리, 빅데이타 정보화, 설비시스템 자동화, 절전 및 배출감축 방안 등 관련 전반적인 업무면담 및 현장견학 ② 교육과 인사 및 업무현황 소개 • 우리 관 교육과 조직 및 인력, 업무현황 소개 • 우리 관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현황 브리핑(성인, 학생, 외국인, 다문화, 군인, 인문학, CEO과정, 원격교육 등) 및 자료공유 ③ 우리 관『박물관 신문』(6월호) 특별좌담 인터뷰 • 한중일 3국 국립박물관 교육담당자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소개 및 현재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미래 과제, 각국 대응방안 인터뷰 ④『2019 한중일 박물관 교육 국제 심포지엄』참석 및 주제발표 • (일시/장소/참석) 2019. 5. 16.(목) / 우리 관 소강당 / 약 200명 • (주제) "디지털 시대, 박물관 교육의 방향과 과제" • (발표) ㉮ 郭丽芬(Guo Lifen):「运用数字技术 博物馆教育让文物活起来(디지털 기술 운용으로 박물관 교육이 문화재를 숨쉬게 하다)」 ㉯ 王云鹏(Wang Yunpeng):「科研与教育有机融合充分发挥博物馆的教育导向作用(과학연구와 교육의 유기적 융합으로 박물관의 교육 선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	교류주제 관련 업무면담, 자료조사, 소장품 관리 및 운영 정보화 주제발표 등 교류주제 관련 업무면담, 자료조사, 소장품 관리 및 운영 정보화 주제발표 등
7.1.~7.5. (한국 → 중국)	① 스마트박물관 건설 관련 업무교류 및 자료조사 • 중국 '스마트박물관 건설' 추진전략 및 계획 조사, 관계자 면담 •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Hologram), 인터렉티브 미디어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운영현황조사, 관계자 면담 • 중국 박물관의 인공지능(로봇) 및 빅데이터(Big Data) 활용 현황조사 및 관계자 면담 ② 박물관 안전방호관리시스템 운영 관련 업무교류 및 자료조사 • 중국 박물관의 방범시스템 구성요소(CCTV 화질선명도와 저장기간) • 중국 박물관의 출입통제시스템(전시관 검색대 등) • 중국 박물관의 전시관 진열감시센터 확인 등 운영관리 • 중국 박물관의 화재 발생 시 대응매뉴얼과 소화기설비 등 현황조사	

그림 5-3-17 한 · 중 학술인적교류사업 사진자료(2019)

관장 접견

『2019 한중일 박물관 교육 국제심포지엄』 주제발표

『박물관 신문』인터뷰

시설운영관리 업무교류

한 · 일 학술인적교류는 양국 국립박물관 간의 정기적인 학술교류를 통해 협력 · 교류를 강화하고자 2002년 '학술 · 문화교류 및 협력 기타 활동에 관한 협정' 체결에 의해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일본 도쿄국립박물관과 매년 각 2명씩 2주간 내로 상호 초청 및 파견을 하고 있으며, 교류대상자의 각 분야별 학술연구 계획을 토대로 운영된다. 매년 학술발표회, 주제별 워크숍, 관계자 면담 등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대내외 유관기관의 소장품과 유적 조사에 한일 연구자가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표 5-3-20 한 · 일 학술인적교류사업(2019년)

기간	주제	내용
7.29.~8.11. / 9.24.~10.5. (한국 → 일본)	• (1차) 조선시대 한일 간 외교 사절 증답용 미술품 종류와 화제 연구 한일 간 교류 결과로 제작된 미술품의 역할과 활용과정 연구 • (2차) 홍보 · 마케팅을 위한 일본 박물관 · 미술관 조직 및 홍보 시스템 연구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박물관 홍보 전략 방안과 실제 사례 조사	학술발표회, 관계자 면담, 실무자 간 공동조사, 유물, 유적조사, 유관기관 시설 견학 등
11.19.~11.26./ 12.6.~12.13. (일본 → 한국)	• (1차) 중국 위계(魏系) 정, 한반도 신라계 가위, 일본 제사유적 출토 금동제 용두 연구 – 3국 간 출토 자료의 용도, 제작지역 등 비교 연구를 통해 3~7세기 동아시아 교류사 재조명 • (2차) 고려 다완을 중심으로 16~17세기 조선 백자 조사, 최신 발굴자료	

그림 5-3-18 한 · 일 학술인적교류(2019년)

(1차 초청) 국립경주박물관과 관계자 공동 조사

(1차 초청) 국립대구박물관 소장품 열람 조사

(2차 초청)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열람 조사

(2차 초청)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소장품 공동 조사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 사업은 국외 한국학 연구의 증진과 국외 박물관 · 미술관과의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7.7.(일)~7.20.(토) 14일 간, 우리 관 교류사업과 연계된 국외 유관기관 소속 큐레이터 외 한국학 · 동양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모두 12개국 17명을 선발하였다.

주요 커리큘럼은 한국학 중심의 회화 · 도자 · 공예 · 불교조각 · 고고 주제 강연과 연계 박물관 실무 중심의 워크숍, 국제학술대회 "콜로키움", 한국의 전통과 현대 미술의 공존(경북 경주)을 주제로 한 문화유적 답사, 관내 분야별 큐레이터와의 국내외 박물관 관련 사례 공유를 위한 전문가 회의 등으로 구성하여 전반적으로 한국학 이해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콜로키움" 개최를 계기로 참가자의 연구 성과물을 대내외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국내 연구자 및 학예연구사 간에 폭넓은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그림 5-3-19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 프로그램(2019년)

국제학술대회 "콜로키움" 개최

국제학술대회 "콜로키움" 종합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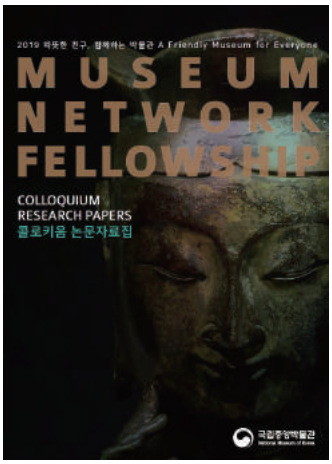
주제강연 연계 워크숍 "한국 회화의 보존처리"

문화유적 답사(국립경주박물관) '한국의 전통과 현대 미술의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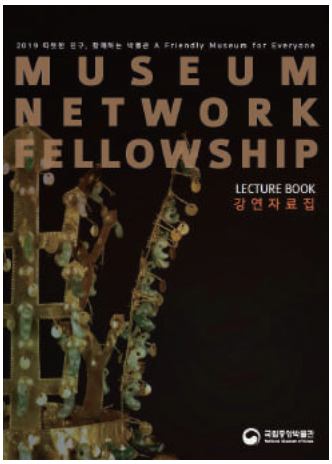
표 5-3-21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 초청자 명단(2019년)

연번	성명	소속 / 직급	연구분야
1	카이라 브야조브키나 Kira Vyazovikina	러시아 푸시킨미술관 큐레이터	동양 미술 (중국 미술)
2	헥토르 가르시아 Hector Garcia	콜롬비아 황금박물관 큐레이터	인류학 고고민족학
3	룩 유핑 Luk Yu-ping	영국 브리티시박물관 큐레이터	중국 미술 (회화)
4	유웬 웡 Yu-wen Weng	대만 고궁박물원 큐레이터	중국 미술 (도자)
5	신 왕 Xin Wang	중국 삼성퇴박물관 큐레이터	박물관 홍보
6	징웨이 차이 Jingwei Cai	중국 성도금사유적박물관 큐레이터	해외교류전 국제교류
7	미 혹 브엉 리 My Hoc Vuong Le	베트남 국립미술관 에듀케이터	박물관 교육
8	브라이스 헤더리 Bryce Heatherly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연구원	동아시아학
9	차논 프레이피파트몽콜 Chanon Praepipatmongkol	미국 시카고 현대미술관 학예연구원	현대 미술

연번	성명	소속 / 직급	연구분야
10	알 와디 모우자 Al-Wardi Mouza	오만 국립박물관 큐레이터	문화유산
11	춘와 첸 Chun Wa Chan	중국 홍콩대학교 미술학과 조교수	미술사학 (불교 미술)
12	유진 최 Yoojin Choi	영국 빅토리아 앤 알버트박물관 큐레이터	미술사학 (현대 미술)
13	지엔원 왕 Jianwen Wang	중국 상하이박물관 큐레이터	고고학
14	리디아 포토흐키나 Lidia V. Potochkina	러시아 예르미타시박물관 큐레이터	동아시아학 (도자)



"콜로키움" 논문자료집



주제강연 자료집

마. 박물관 협력망 및 인프라구축

① 박물관 협력망 구축 및 운영

박물관 협력망 사업은 전국 16개 지역대표관과 각 시도 박물관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개별 사업으로는 네트워크 구축 및 박물관 전반의 역량 강화,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박물관 공동 연합전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박물관 탐방, 박물관주간행사 개최, 공동 안내 책자 및 포스터 발간, 세미나, 강연, 문화행사 개최, 단위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 가족 박물관 탐방, 박물관 주간 행사를 추진하였다. 우리 가족 박물관 탐방은 4월부터 10월 사이에 전국에 소재한 박물관 · 미술관을 방문하여 웹사이트에 사진, 후기 등을 등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탐방 가족의 방문 횟수와 후기 등을 반영하여 우수운영기관 및 방문 가족을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그리고 세계박물관의 날(5월 18일)을 맞이한 박물관 주간(Museum Week) 중에는 학술대회, 박물관교육박람회 등을 진행하였다.

그림 5-3-20 박물관 협력망 사업

2019 박물관 미술관 주간

② 소속지원 및 건축시설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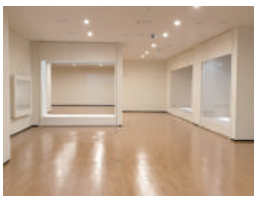
소속 지방 박물관 특성화 육성사업은 노후된 소속 박물관의 시설을 개선하고 고고 · 미술사 중심의 획일적인 상설전시를 각 지역의 역사 · 문화 특성에 맞게 전시실 등을 차별화하기 위한 환경 개선 사업으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주, 광주, 대구, 청주박물관에 47억 원을 투입하여 상설전시실 및 기획전시실 관람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3-22 지방 박물관 특성화 육성사업 실적(2019)

구분	대상	내용	사업비
전시개편	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이전 시설 공사	4,776
	전주박물관	상설전시실(선비문화실) 시설 공사	
	대구박물관	상설전시실(고대문화실, 복식문화실) 개편	
	청주박물관	기획전시실 개편 및 디지털 금속공예공방 신설	

그림 5-3-21 지방 박물관 특성화 육성사업 현장사진

광주박물관


전주박물관

대구박물관

청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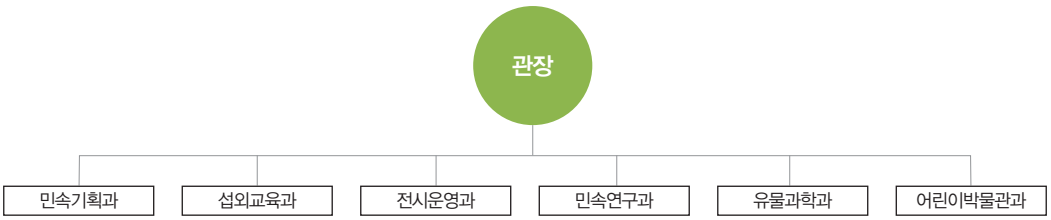
2) 국립민속박물관

(1) 조직현황

국립민속박물관은 1945년 11월 8일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양식 · 풍속 및 관습의 조사 · 연구, 민속자료의 수집 · 보존 및 전시, 민족전통문화의 보급 및 선양을 목적으로 창설되어, 1946년 4월 25일 개관(일제강점기 시정 기념관 건물)하였다. 1966년 10월 4일 문화재관리국 소속의 '한국민속관'(경복궁 내 수정전), 1975년 4월 11일 '한국민속박물관'(경복궁 내 구 현대미술관 건물)을 거쳐 1979년 4월 13일 직제 개편(대통령령 제9419호)으로 지금의 '국립민속박물관'의 명칭을 갖게 되었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소속이었다가 1992년 10월 30일 문화부 1차 소속기관으로 직제 개편(대통령령 제13752호)되었고, 1993년 2월 17일 현 건물(경복궁 내 선원전)로 이전 개관하였으며, 2003년 2월 17일 '어린이박물관'을 개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기획과, 섭외교육과, 전시운영과, 민속연구과, 유물과학과, 어린이박물관과의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96명(연구직 52명, 행정직 20명, 기타직 24명)이다.

그림 5-3-22 국립민속박물관 조직도



※ 위치: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 누리집(홈페이지): www.nfm.go.kr

2019년도 세출예산은 340억 22백만 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35억 원으로 인건비 62억 79백만 원, 기본경비 8억 19백만 원, '한국 민속문화 전시 및 운영' 등 6개 사업의 주요사업비가 264억 46백만 원이다. 관광기금은 4억 78백만 원으로 '민속관광자원화' 사업비이다.

2019년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은 총 2,286천명으로 집계되었다. 내국인 관람객수는 2018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지만 외국인 관람객수는 2019년 1,431천명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하였다.

표 5-3-23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 현황

(단위: 명)

연도별	내국인	외국인	계
2015	1,056,770	1,705,373	2,762,143
2016	873,828	1,840,443	2,714,271
2017	998,859	814,767	1,813,626

연도별	내국인	외국인	계
2018	915,962	1,138,757	2,054,719
2019	854,472	1,431,804	2,286,276

※ 2008.5.1.부터 무료관람 실시

(2) 주요성과

가. 유물관리

국립민속박물관은 2009년부터 새롭게 수립된 비전과 미션에 따라 자료수집 범위와 지역을 세계 민족학 자료에까지 확대하였으며, 수집시기 역시 근·현대로 그 폭을 넓혔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수집 노력에 힘입어 2019년 소장 자료는 100,025건 159,663점에 달하였다. 2011년에 근현대시기를 대표하는 등록문화재 1종(빅타 레코드 금속원반 577건 1,154점)을 추가하고, 2015년에는 보물 제1683-2호 정약용 필적 하피첩을 구입하여 총 8종의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표 5-3-24 2019년 지정문화재 소장 현황

지정번호	명칭 (소장품번호)	수량		지정연도
		건	점	
보물 제1318호	신·구법천문도(민속15666)	1	8	2001
보물 제1319호	경진년 대통력(민속22638)	1	1	2001
보물 제1478호	조씨 삼형제 초상(민속15295)	1	1	2006
보물 제1683-2호	정약용 필적 하피첩	1	3	2010
총계		4건	13점	

지정번호	명칭 (소장품번호)	수량		지정연도
		건	점	
국가민속문화재 제13호	정원용(1738-1873) 유품 적초의(민속4989) 등	31	31	1968
국가민속문화재 제230호	산청 전주 최씨 고령 댁 상여(민속15701)	1	1	1996
국가민속문화재 제241호	장영직(1861-1944) 유품 주머니(민속11152) 등	41	41	2001
국가민속문화재 제264호	변수묘 출토 유물(민속20937-20979, 43577)	44	44	2009
총계		117건	117점	

표 5-3-25 2019년 등록 문화재 소장 현황

지정번호	명칭 (소장품번호)	수량		지정연도
		건	점	
제477호	용탄어수(상)(민속64686) 등 빅타 레코드 금속원반	577	1,154	2011
총계		577	1,154	

국립민속박물관은 문화재급 민속자료와 급속히 소멸하는 근 · 현대 자료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를 연계하여 수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박물관의 향후 역할 극대화를 위해 2014년도부터 국내외 민속생활사 관련 유무형 문화재로 영역을 확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158건 696점을 구입하였으며, 65개 처로부터 총 1,230건 4,653점을 기증받았다. 이 가운데 기증자의 대표 자료들을 선별하여 상설전시 3관 내부의 기증전시실에서 전시하고 있으며, 전시관 출구 '기증자의 벽'에 기증자 명패를 설치하여 기증자를 예우하고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소장품 등록 작업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8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가등록 방식은 국가귀속 처리 속도 및 소장 자료의 전시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2019년에는 9,366건 11,583점을 국가자료로 등록하였고, 이중 9,179건(98%)에 해당하는 자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소장품 활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수장고에 격납된 민속자료의 실사 및 재포장 작업을 통해 소장 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민속자료는 대부분 실생활에서 사용되었던 것들로, 훼손되거나 오염 · 변색되어 원형 보존과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국립민속박물관은 2002년 보존과학실 설치 이후, 소장품의 보존처리, 박물관 보존환경 개선, 재질 분석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아울러 국내외 민속자료 보존기술 지원 및 보존처리 실무자 양성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민속자료 보존 분야의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서화, 목재, 금속, 섬유 재질로 이루어진 소장품을 대상으로 265건 285점 보존처리를 실시하였고, 구입 및 기증 자료에 대한 친환경적인 저산소 살충처리와 수장환경 내 IPM(종합유해생물관리) 운영으로 최적의 보존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힘쓰고 있다.

나. 전시

① 상설전시

국립민속박물관 상설전시관은 크게 3개 전시관으로 나누어진다.

제1전시관(한국인의 하루)은 1993년 이전 개관 이후 전시해온 '한민족생활사'에서 2018년 12월에 '한국인의 하루'라는 주제로 새롭게 개편하여, 조선 후기 이후 선조들의 계절별 '하루'를 표현하고, 의 · 식 · 주에 나타난 생활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제2전시관(한국인의 일상)은 일 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생업과 사계절 변화에 맞춰 살아온

조선시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제3전시관(한국인의 일생)은 조선시대 양반가 사대부들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의 일생 의례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9년에는 풍산김씨 허백당 김양진 문중의 가족이야기로 가족 주제를 개편하였다.

② 기획 및 특별전시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는 일정 기간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시를 의미한다. 전시공간으로는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를 위한 2개의 전시관(기획전시실 Ⅰ, 기획전시실 Ⅱ)을 갖추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4회의 기획 · 특별전시와 4회의 지역공동기획전시를 개최하는 한편, 프랑스 파리 코리아센터에서 "때깔, 한국인의 삶에 스민 색깔' 특별전을 개최하는 등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우리 문화의 다양한 모습들을 조망할 수 있게 했다.

표 5-3-26 2019년도 기획 및 특별전시 개최 현황

전시 명	기간	장소	내용	관람인원
〈특별전〉				
메이드Made 인人 인천	5.15.~8.18.	기획전시실 Ⅰ	2019 인천 민속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개항 이후 인천의 산업도시화 과정과 인천공단 노동자들의 삶 조명	518,086
인류학자 오스굿의 시선, 강화 선두포	5.15.~8.18.	기획전시실 Ⅱ	2019 인천민속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1947년과 2017년 강화도(선두포) 민속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살림살이 변화상 비교	518,086
미역과 콘부(다시마)-바다가 잇는 한일 일상	10.2.~ '20.2.2.	기획전시실 Ⅰ	2015~2018년 한일 공동 현지 연구를 바탕으로 한일 해양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근대기 한일 문화 변동 고찰	767,486
쥐구멍에 볕 든 날	12.24.~ '20.2.24.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폐막	기획전시실 Ⅱ	경자년 쥐띠 해를 맞이하여 쥐의 생태, 상징과 의미, 문화상과 변화상 등 쥐에 관한 민속을 소개	224,745
〈지역공동기획〉				
군주가 꿈꾸는 세상	5.22.~8.21.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조선시대 군주가 하늘과 땅을 대상으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였는지 소개	1,345
교육, 사람을 기르고 지역을 만들다	7.10.~9.1.	한밭교육박물관	1945년 이후 현대교육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고 시기마다 지닌 특징을 통해 미처 깨닫지 못했던 현대교육의 변화 소개	3,525
다신계, 사제간의 신의	8.22.~10.27.	다산박물관	다산 정약용의 제자들이 다산을 위해 맺은 다신계에 얽힌 이야기 소개	9,828
언론인 예용해, 민속문화를 일깨우다	9.3.~11.24.	청도박물관	언론인이자 민속문화 연구자인 예용해 선생의 발자취 소개	11,436
〈해외 전시〉				

전시 명	기간	장소	내용	관람인원
때깔, 한국인의 스민 색깔 해외 순회전	11.20.~ '20.2.14.	파리코리아센터	전통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인의 생활문화에 표현된 색을 소개하고, 한국인의 색에 대한 인식과 운영, 생활 · 문화사적 의미 조명	5,629

③ 야외전시

야외전시장은 전통마을과 1960~1970년대 추억의 거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외의 특성과 현장감을 살린 전시물로 조성되어 있다. 전통마을 전시장에는 경북 영덕의 전통가옥인 오촌댁, 전북 부안의 효자각, 경북 문경에서 옮겨 온 나락뒤주, 장승동산과 물레방앗간 등이 있다. 추억의 거리에는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다방, 만화방, 이발소, 전파상, 구멍가게, 사진관 등이 재현되어 있다. 이동식 목마를 설치하여 유아들의 체험 장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림 5-3-23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

박물관 앞마당에 자리한 '오촌댁'

1960~1970년대를 재현한 '추억의 거리'

④ 어린이박물관 전시

어린이박물관은 2개 상설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11월부터 개막한 아시아의 음식문화를 주제로 한 '맛있는 아시아, 밥 · 빵 · 국수'가 진행되었다. 아시아 보편적 주식인 쌀과 밀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음식문화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문화적 다양성과 보편성을 탐색함으로써 세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치관 형성을 마련하는 전시로, 전시실에 마련된 밥, 빵, 국수 공간 안에서 관련된 여러 체험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2018년 11월에 개막한 '개와 고양이와 구슬'은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 개와 고양이가 구슬을 찾아 나서는 옛이야기를 어린이 눈높이의 체험전시로 꾸몄다. 어부 할아버지의 집과 욕심쟁이 할머니의 안방 등 현실 세계와 용궁과 신묘한 구슬이라는 옛이야기 속 상상의 세계를 실제 민속 유물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조화롭게 구현하였다.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전시주제를 선정해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지혜, 삶의 다양한 모습을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형 전시 구현을 통해 월 평균 3만여 명의 어린이와 가족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림 5-3-24 어린이박물관

개와 고양이와 구슬

맛있는 아시아, 밥 · 빵 · 국수

다. 박물관 교육

1988년 할머니 · 손녀 공예교실로 시작한 박물관 교육은 양적 및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재외한국문화원과 연계해 전통문화체험 교육 등을 운영함으로써 재외동포 및 현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보급하는 데도 노력하였다. 2015년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경기도교육청 직무연수 등 교육청 지원 사업을 통해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박물관 교육 담당자들은 창의 · 인성 교육 프로그램 및 우리 관 전시를 연계한 교육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하게 생산된 교육 프로그램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급,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활성화하였다.

2019년 성인 대상교육은 다양한 민속주제의 인문학 강좌, 박물관 학예직의 전시 해설 프로그램, '대학생 예비큐레이터 과정' 등 직업체험 교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민속문화 기반, 정규교과 연계 창의적 교육을 통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특성화된 박물관 교육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함께 민속과 미술의 융복합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교류 · 소통 · 융합 교육의 기반을 구축, 확대하였다. 한편 2018년에 이어 한국문화의 세계 보급을 위해 '안녕', '사랑방', '안방', '한복' 등 4개 주제로 구성된 한국문화상자를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세계 4개국에 보급하였다. 또한, 다문화의 이해 증진을 위해 2019년은 베트남 및 몽골 꾸러미를 재개발하였고, 기개발된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인도 꾸러미 등 10개국 문화상자 교구재를

통해 전국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성인, 어린이 · 가족, 청소년, 외국인, 소외계층, 전문가 등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93,54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베트남 꾸러미

한국문화상자 '안방'

표 5-3-27 2019년도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분야	교육 명	내 용	교육 횟수	참여인원
성인	민속, 석학에게 듣다	원로 민속연구자에게서 듣는 학계 회고와 전망	3	47
	한복, 시대를 이야기하다	한국복식의 역사를 주제별, 시대별로 살펴보는 한복문화의 이해	12	493
	큐레이터 Pick! 유물 이야기	주제별 전공 학예사의 전시 유물을 통한 전시실 설명	8	146
	현장에서 찾은 보고	실감나는 현장 이야기를 통한 민속문화의 이해	6	129
	대학생 예비큐레이터 과정	대학생 대상 박물관 학예연구 직무 교육 기회 제공	5	139
	자원봉사자 심화교육	박물관 관련 민속 심화 강의 및 현장 답사 등	11	441
전문가 교육	공무원 대상 국제지역 전문가 과정	문화 분야 관련 타문화에 대한 지식 및 다양한 국제 문화 교육	6	215
	관광통역안내사 전시해설	주제별 한국 민속문화 심화 강의를 통해 관광통역안내사의 전문성 강화 교육	4	69
	초등교원 우리민속연수	초등교원 대상 민속문화 심화학습	5	121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역박물관 학예직의 역량강화 및 정보 공유 네트워크 강화	9	234
	중등교사/교육강사 워크숍	학교, 교사를 위한 박물관 활용 방안 및 박물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설명회	2	35
	문화나눔 교육강사 워크숍	장애이해교육, 문화나눔교육 개선방안 논의	1	15

분야	교육 명	내 용	교육 횟수	참여인원
청소년 교육	박물관에서 꿈꾸는 미래	자유학기제 연계 유물관리, 전시기획, 민속조사 체험을 통한 청소년 진로탐색	18	407
	씨줄과 날줄 이야기	의생활을 통한 한국인의 일상 이해, 직조 체험	4	121
	맛있는 아시아	향신료(후추) 이동에 따른 음식문화 이해, 향신료 체험	7	204
	공간으로 보는 삶	집, 마을 등 전통 주거공간 변화에 대한 이해, 가택신 만들기	5	82
	박물관 속 숨겨진 보물찾기	자기주도적 야외전시장 전시품 감상활동	3	89
	내 손 안의 박물관	상설전시관 연계 학교 단체 감상활동	26	3,270
	쉼표, 수험생 문화공방	수험생 대상 가죽, 도자기, 향을 주제로 한 공예과정 중심 체험	8	264
	나도 박물관 전시해설사	방학기간 전시해설 준비과정과 해설을 통한 사회 참여활동	20	332
문화 나눔	시각장애인 대상 교육 (사계절 감각)	사계절을 주제로 박물관 전시물 감상과 촉감 미술활동으로 이루어진 표현교육	5	55
	장애인 대상 체험 교육 (오감만족박물관나들이)	일상의례를 통한 동작 · 미술 치유 프로그램	13	266
	장애인의 달 특별 행사 등	장애인의 달과 연계한 박물관 체험 행사	1	2,733
	문화소외층 대상 교육 (찾아가는 우리 민속)	문화접근성이 낮은 장기 체류 주한 외국인 및 내국인에 기관 방문을 통한 전통문화 교육	50	995
	발달장애인(우리옛집)	감각자료를 활용한 한옥 전시연계 교육	5	92
외국인 교육	한국문화 알기	체험을 통한 한국의 전통문화 이해	23	474
	외국인과 함께 명절나기	설, 추석, 단오 등 세시풍속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	3	64
어린이 교육	유아 교육	미취학 어린이 대상 눈높이 민속 교육	33	597
	교과 연계 교육	교과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 연계 심화 학습 및 우리 민속놀이 체험 교육	39	954
	방과 후 교육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세시 명절의 나라별 이해 교육 및 의식주 생활문화와 과학을 접목한 융합 교육	12	243
	디지털 교육	AR 기술을 활용한 민속놀이 체험 교육	22	1,802
	주말 교육	가족을 대상으로 한 건전 여가 문화 체험 교육	32	904
	방학 교육	방학 기간 문화 다양성 및 전통 문화 체험 교육	49	1,775
	전시 연계 교육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장, 야외전시 연계 교육	1,080	25,816
	장애인 대상 교육	특수학급 학생 대상 전통문화체험 교육	16	322
	저소득층 대상 교육	차상위계층 어린이 대상 교육	21	439
	어린이병원학교 교육	장기입원 어린이 대상 교육	63	509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교육	문화소외지역 어린이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교육	54	5,434
	계기별 세시 교육	절기와 세시풍속 주제의 민속 문화 체험과 이해(삼짇날, 어린이날, 추석, 입동 등)	4	58,304
	문화다양성 교육	타 기관과의 교류를 통합 융복합 교육	691	82,266
	문화주간 교육	문화가 있는 날 연계 공연 및 교육	24	2,650
총계			2,403	193,547

라. 공연 및 민속행사

2019년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세시 체험 행사와 공연을 연중 운영하였다. 우리 민족의 다양한 세시풍속을 많은 내 · 외국인 관람객이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흥겨운 축제마당을 만들고자 절기별로 대표적인 민속놀이와 공연, 절식 나누기, 각종 풍습 체험하기 등 다양한 민속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과 한가위, 그리고 입춘, 대보름, 단오, 동지 등의 세시풍속 및 어린이날 행사에 48,696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여 명절과 절기별 세시풍속들이 지닌 뜻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 문화의 우수성과 특별함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표 5-3-28 2019년도 세시행사 운영 현황

행사명	내 용	행사기간	참여인원
설 행사	세시음식 나누기, 설 놀이체험, 복조리 만들기, 특별공연 등	2.6.~2.7.	16,836
입춘 행사	입춘첩 쓰기, 입춘첩 나누기 등	2.1./2.4.	2,440
대보름행사	부럼깨기, 세시음식 나누기, 부적 나누기 등	2.18.	2,339
단오행사	단오부채 나누기, 장명루 만들기, 단오 부적 찍기, 수리취떡 나누기	6.5.	1,818
추석행사	추석 세시체험, 민속놀이, 음식나눔, 전통공예 체험, 특별공연 등	9.14.~9.15	23,613
동지행사	동지고사, 팥죽나누기, 특별공연 등	12.19.	1,650
총계			48,696

아울러 1994년부터 계속되어 온 '우리민속한마당 주말상설공연'은 많은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우리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민속한마당 공연은 토요상설공연과 금요열린민속무대로 나누어진다. 이 외에도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계기별 특별공연 등도 진행하여 2019년에는 총 94회의 공연을 개최하여 약 25,642명의 관람객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표 5-3-29 2019년도 우리민속한마당 주요 현황

구분	횟수	관람인원	장르별			
			무용	성악	기악	연희 · 기타
토요상설공연	52	9,262	26	7	11	8
금요열린민속무대	20	8,480	–	–	–	20
문화가 있는 날 공연	12	2,480	4	2	2	4
계기별 특별공연	10	5,420	2	–	–	8
합계	94	25,642	32	9	13	40

마. 문화교류

국립민속박물관은 해외에 한국 민속 문화를 알리고 한국과 관련된 연구를 진척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일학술교류회 등 해외 유수의 문화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해외에 한국 민속 문화를 알리고 진흥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매년 해외 유수의 문화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9년에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세계박물관협회 총회에 참석하여 국립민속박물관 및 『국제저널 무형유산』을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하여 총회 기간 동안 약 800여 명이 방문하였다. 또한, 교토 세계박물관협회 총회 국가위원회에 참석하여『국제저널 무형유산』제14호 발간을 보고하였다. 이에 대한 성과로 세계박물관협회 남동유럽연합(ICOM SEE)(10.16.~21.)의 초청을 받았으며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민족학박물관에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과『국제저널 무형유산』을 소개 및 홍보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2016년부터 새롭게 진행한 외국박물관 전문가 초청 협력 사업의 하나로, 한일 바다와 해양문화의 비교민속학적 조사연구의 결실인 한일공동기획전 '미역과 콘부'를 위해 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마쓰다 무츠히코(9. 4.-10. 3.), 도쿠시마현립박물관의 이소모토 히로노(9. 5.-10. 4.)등 2명의 연구자를 초청, 전시 협업을 진행하였으며, 중국윈난민족박물관의 셰춘보(4. 1.-6. 30.) 연구자를 초청하여 민속연구과의 아시아부엌조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아울러, 2019년 6월 1일~10월 31일까지 5개월간 민속 관련 외국박물관간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문화협력 동반자 관계 형성을 위해 문화동반자사업-외국 박물관 전문가를 위한 큐레이터십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의 르 띠 라엔(Le Thi Lien) 교육사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경험하였다.

바.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운영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사업은 지역 박물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박물관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문화 진흥과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사업이다. 전국 공·사립박물관 360개(2019년 12월말 기준)기관이 협력망에 가입되어 있으며, 2019년에 진행된 내용은 크게 2개 분야로, 지역 박물관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교육개발지원 사업(9개 기관), 지역 박물관 자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교육운영지원사업(17개 기관)이 있다.

사. 학술활동

국립민속박물관은 시간적으로는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까지, 공간적으로는 국내에서 국외에 이르기까지 민속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학술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학술조사보고서 발간을 비롯하여 민속대백과사전과 학술지 등을 편찬하고 있다.

국내 조사의 경우 크게 '지역 민속문화의 해' 사업 관련 조사, 전통 및 근현대 생활문화조사 등으로 구분된다. 지역조사에서는 '2019년 인천 민속문화의 해' 사업 일환으로『강화의 직물, 소창』조사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2021 부산 민속문화의 해'와 연계하여 부산 영도 민속조사 및 주제별 조사를 진행하였다. 2020년에 부산 영도 도시민속지 2권, 구술사 2권, 해양민속지 1권,

주제별 조사 5권 등 총 10권의 부산 민속조사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전통 및 근현대 생활문화조사 및 보고서로서 『금강 수로와 식문화』 1권, 『우리 술문화의 발효공간, 양조장』·『양조장의 시간, 공간, 사람』 2권, 『목욕탕: 목욕에 대한 한국의 생활문화』 1권, 전통생활문화 자료집 4호 『서울 성북구 정릉동 공청관련 자료』·5호 『전라도 고부지역 함열 남궁씨 집안의 소송과 청원』 2권, 『한 그릇에 담긴 이야기, 국수와 밀면』 1권 등 총 7권을 발간하였다.

국외 조사의 경우 『중국 조선족 마을의 변화양상』 1권, 『한국의 부엌』·『중국과 일본의 부엌』2권을 발간하고 중앙아시아 한인동포 생활문화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2004년부터 시작된 사전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에는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 편)』 2권, 『한국민속놀이사전』 영문판 1권을 발간하였으며, 『한국민속놀이사전』의 중문·서문판은 전자사전으로 발간하였다. 모든 발간물은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되고 있다.

표 5-3-30 국립민속박물관 발간 도서 현황(2019)

연도	발간 개요	발간 도서명
2019년	조사 보고서	• 강화의 직물, 소창 • 한 그릇에 담긴 이야기, 국수와 밀면 • 근현대 생활문화 조사 양조장과 술문화 – 우리 술 문화의 발효 공간, 양조장 – 양조장의 시간, 공간, 사람 • 중국 조선족 마을의 변화 양상 • 동아시아 부엌생활문화 조사보고서 – 한국의 부엌 – 중국과 일본의 부엌 • 금강 수로와 식문화 • 목욕탕: 목욕에 대한 한국의 생활문화 • 전통생활문화 자료집 – 서울 성북구 정릉동 공청 관련 자료 – 전라도 고부 지역 함열 남궁씨 집안의 소송과 청원
	사전·웹북·웹진	• 한국의식주생활사전 Ⅲ(주생활 편) • 한국민속놀이사전 다국어판(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 국립민속박물관 웹진 12회 발간
	전시도록·사진집	• 메이드Made 인人 인천 • 인류학자 오스굿의 시선, 강화 선두포 • 미역과 콘부(다시마)–바다가 잇는 한일 일상 • 행복한 돼지 • 쥐구멍에 볕든날 • 군주가 꿈꾸는 세상 • 교육, 사람을 키우고 지역을 만들다 • 다신계, 사제간의 신의 • 언론인 예용해, 민속문화를 일깨우다 • 때깔, 한국인의 삶에 스민 색깔(Tekkal, Couleurs de Corée)

연도	발간 개요	발간 도서명
2019년	정기간행물 · 학술지	• 민속연보 2019 • 민속소식(계간) 제243호, 제244호, 제245호, 제246호 • 민속학연구 제44호, 45호 • 국제저널 무형유산 제14호 • 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제16호 • 생활문물 연구 35호(e-book)
	교재	• 국제지역전문가과정 • 2019년 대학생 예비큐레이터과정 • 초등교원 우리 민속 연수(1기, 2기) • 제42, 43, 44기 전문인력 양성교육 • 센베노 몽골, 씬짜오 베트남

민속학 등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근현대 동아시아 어민문화와 그 전개' 국제학술대회, '한국민속학자대회', '경자년 쥐띠 학술강연회' 등 학술대회를 총 3회 개최하였고, 학술지로 『민속학연구』 44호, 45호와 『국제저널 무형유산』 14호를 발간하였다. 『민속학연구』는 민속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논문을, 국제학술지인 『국제저널 무형유산』은 무형유산 분야 전 세계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게재하고 있다.

그밖에 민속학연구 기반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한 마을박물관 전시(인천 동구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를 개최하고, '제2회 세계민속영상콘텐츠 공모전'을 열었다.

이처럼 2019년 조사 · 연구활동을 통해 11권의 조사보고서와 사전 3권(주생활 2권, 한국민속놀이사전 영문판 1권) 및 전자사전 2건, 논문집 2권, 국제학술지 1권이 발간되었으며, 기록화 및 조사연구에 그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전시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전시와 연결하는 박물관형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아. 민속아카이브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는 국내외 생활문화 및 박물관 소장품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속학 전문도서 89,438권을 비롯하여 조사, 연구, 전시, 교육, 행사와 같은 관내 사업을 통하여 축적한 사진, 음원, 영상, 문서 등 총 1,077,691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오세화 민속 관련 사진 자료 등 1,287점 수증하였고, 관내 사업을 통하여 생산한 자료 28,407점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민속학 관련 도서 1,532권을 수집하였다. 등록된 아카이브 자료 중 110,450점이 대표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되고 있다.

표 5-3-31 2019년도 민속아카이브 소장자료 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종류	자료구분	수 량
도서/비도서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 등	89,438
아카이브	사진	955,321
	음원	7,197
	영상	11,136
	기타	14,599
총계		1,077,691

표 5-3-32 2019년도 민속아카이브 수증 현황

구분	기증자	자료내용	수량
아카이브	오세화	민속관련 사진자료	692
	寺門征男 · 박찬필	농촌 관련 사진자료	595
총 계			1,287

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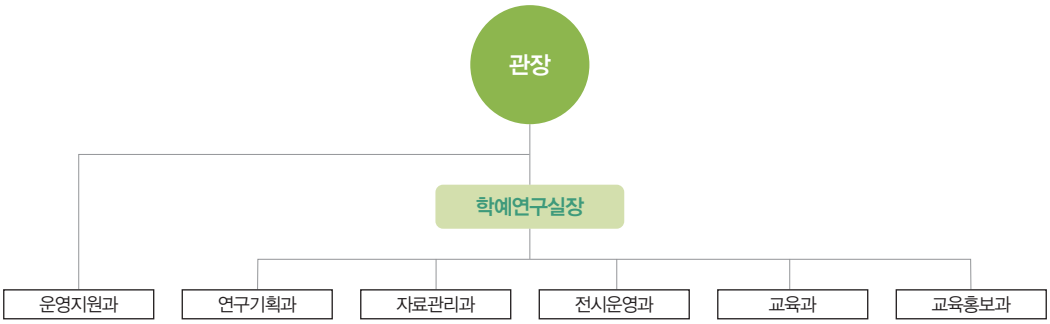
(1) 조직현황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08년 8월 15일 제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년 기념 8 · 15 대통령 경축사에서 건립이 공표된 후 2009년부터 건립을 추진, 서울의 국가 상징거리에 위치한 옛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를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2012년 12월 26일에 개관하였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설립목적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를 기록 · 전시하여 국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후세에 전승하며, 국민통합으로 국가 미래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을 한눈에 알게 하는 것이다.

2019년 말 현재 관장, 학예연구실장 및 운영지원과, 연구기획과, 자료관리과, 전시운영과, 교육과, 교류홍보과의 6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관장 및 실장을 포함하여 53명이다.

그림 5-3-2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조직도



2019년 세출예산은 148억원으로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제작 53억원, 자료 수집 · 관리 26억원, 근현대사 조사연구 14억원, 교육 및 교류 · 홍보 18억원, 박물관 운영 및 시설 관리 · 유지 예산이 36억원, 종합정보서비스 사업 4억원이다.

2019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은 총 106만 명으로, 2012년 12월 개관이래 총 704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방문하였다.

표 5-3-3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 현황

(단위: 명)

연도별	내국인	외국인	계
2015	782,033	28,926	810,959
2016	787,121	27,847	814,968
2017	1,035,072	30,835	1,065,907
2018	1,050,146	42,310	1,092,456
2019	1,009,629	49,257	1,058,886

※ 2012. 12월 말 개관

(2) 주요성과

가. 자료관리

① 자료수집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 대표 근현대사 국립박물관으로서 그 위상에 맞는 소장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관 이전인 2010년부터 근현대사 관련 주요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여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자료 수집은 주로 공개 · 경매 구입, 기증, 이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후대에 물려줄 문화유산으로서 박물관에 안전하게 영구 보존되는 동시에, 전시 · 교육 및 조사연구 등에 활용되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표 5-3-34 연도별 소장자료 수집 현황

구 분	기증(점)	이관(점)	구 입		합계(점)
			공개(점)	경매(점)	
2010년	3,017	–	8,267	–	11,284
2011년	7,091	26	15,631	17	22,765
2012년	2,636	257	4,996	28	7,917
2013년	2,269	248	9,776	2	12,295
2014년	22,617	–	4,999	33	27,649
2015년	22,185	8,426	6,335	31	36,977
2016년	780	–	2,006	5	2,791
2017년	2,483	46	2,939	25	5,493
2018년	6,970	–	3,808	800	11,578
2019년	2,594	8	3,688	71	6,361
합 계	72,642	9,011	62,445	1,012	145,110

2019년 박물관은 공개구입을 4회 진행하고 경매에 1회 참여하여 총 3,759점의 자료를 구입하였다. 공개구입으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주요기관의 대강을 담고 있는 제헌국회가 공포한 『정부조직법(초안)』, 정부수립 이후 반민족 행위자들을 소급 입법하여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인 『반민족행위처벌법(초안)』, 6 · 25전쟁을 소재로 하는 외국 영화 및 한국영화의 중대형 포스터, 대구지역의 4 · 19혁명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구매일신문』, 1991년에 창당된 신민주연합당 『신민주전선』 당보 등 총 3,688점을 구입하였다. 경매를 통해 구입한 자료로는 소록도갱생원의 구조시설과 주변지리를 그린 『소록도갱생원 조감도』, 제1회부터 4회까지 졸업생 명단과 현황을 수록한 『사립휘문의숙일람(1914)』, 1949년에 입교하여 1950년에 졸업한 육사생도 1기 졸업 앨범 등이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박물관, 국민과 소통하는 박물관이 되고자 기증(기탁)을 통한 자료 수집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2019년에는 총 39명의 기증자가 2,594점의 자료를 기증하였으며, 이 가운데 각종 영화 포스터 및 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이태범), 3 · 1운동 당시 만세시위로 투옥되었던 최정숙의 예심판결문(안홍찬), 일제강점기 인두로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낙화로 유명한 박병수 작품(김효숙) 등이 대표적인 기증 자료이다.

그림 5-3-26 2019년 주요 수집자료

반민족행위처벌법(초안)

6 · 25전쟁 관련 외화포스터

신민주연합당 당보(1991)

② 소장자료 등록 및 공개

박물관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들은 박물관의 정식 소장품으로 '등록'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등록된 자료의 정보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최종적으로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2016년 말부터 시작된 '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 등록' 사업이 4년차에 접어들면서 미등록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 말까지 등록률 75%를 목표로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등록된 자료는 총 16,930건 18,212점이며, 현재까지의 등록 누계는 총 100,267점으로 전체 소장자료(146,610점) 대비 약 68.4%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등록된 소장자료의 정보는 온라인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우리 관 홈페이지의 소장자료 검색 메뉴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2016년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전국박물관 소장품 통합검색 사이트인 'e뮤지엄'에서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자료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9년에는 총 9,672건 12,390점을 신규 공개하여 현재 총 44,856건 64,606점의 소장자료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e뮤지엄과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한 소장자료 정보의 대국민 공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표 5-3-35 연도별 소장자료 등록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등록수량(점)	5,777	5,904	4,857	10,560	25,055	29,902	18,212	100,267

표 5-3-36 소장자료 e뮤지엄 공개 현황

공개연도		2016	2018	2019	합계
공개 수량	건	6,347	28,837	9,672	44,856
	점	13,814	38,402	12,390	64,606

한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19년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소장자료 특별전 '1950년대 한국영화, 새로운 시대를 열다'(2019.10.31.~2020.2.24.)를 개최하여, 더 많은 소장품들을 대중에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전시에서는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950년대 한국영화 포스터 및 광고지 컬렉션 90여점을 소개하고, 당시의 주요 영화 12편의 편집영상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실물이 전시되지 못한 포스터와 광고지 100여점은 전시실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만나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3-27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소장자료 특별전 '1950년대 한국영화, 새로운 시대를 열다'

③ 보존처리와 수장고 운영관리

우리 관의 소장자료는 다양한 재질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원형 보존 및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다. 그 중 산성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취약한 상태의 신문 자료가 전체 소장품의 13.7%(20,000여점)로 보존처리와 안정적인 환경 관리가 시급히 요구된다. 개관 이래 2019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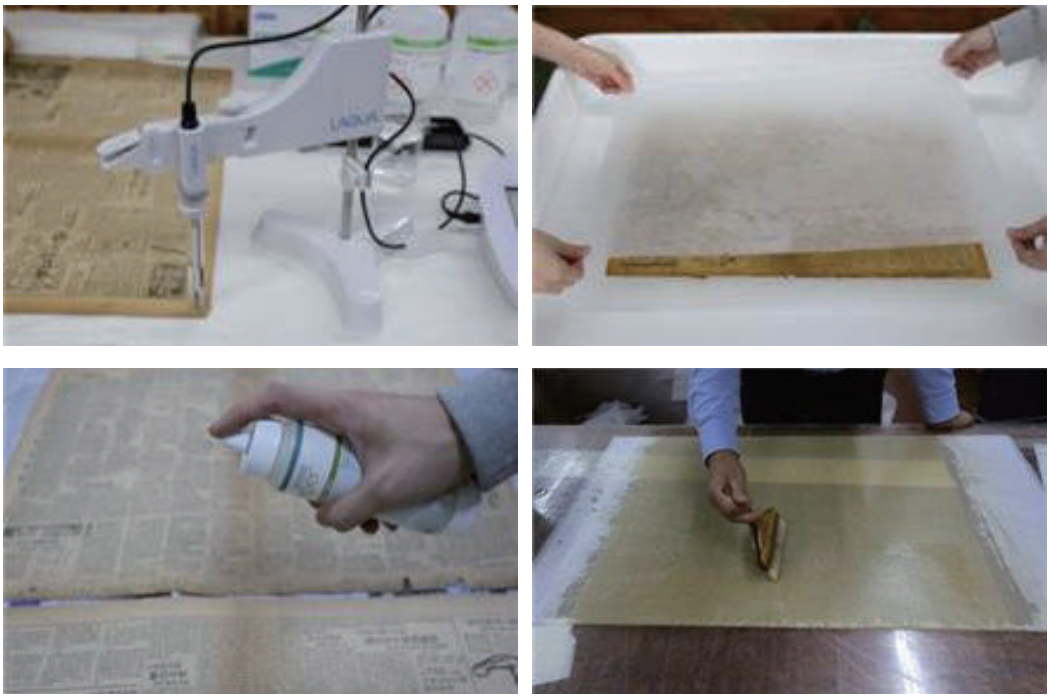
진행된 보존처리 및 복제 점수는 총 1,118점으로 2019년에는 보존처리가 필요한 신문 자료 중 일제가 민족 언론을 검열하고 탄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외일보 검열본에 대한 보존처리 91건을 완료하였다.

우리관 소장 중외일보 검열본은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DB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료 중 빠져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기존 자료를 보완해 줄 뿐 아니라 검열 전의 원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이에 대한 자료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산성도 및 색차 분석 → 건식 및 습식 클리닝 → 산성도를 낮추는 탈산처리 → 결실된 부분에 대한 접합 및 보강 → 건조'의 절차를 거쳐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

표 5-3-37 보존처리 및 복제 현황

연도	사 업 명	처리완료
2012년~2015년	개관 전시자료 및 중요자료	608점
2016년	등록문화재 김봉준 일가 자료 및 아사히신문체육상	223점
2017년	대한제국 애국가 악보 및 주니어미들급 세계챔피언 1차 방어전 트로피	70점
2018년	보병조전 초안 및 조선지질도	75점
2019년	중외일보 검열본 및 상설 전시 자료	142점
합계	1,118점(보존처리 1,050점+복제68점)	

그림 5-3-28 중외일보 보존처리



박물관 수장 영역은 434㎡으로 수장고 312㎡, 자료정리실 122㎡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물관 6층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박물관의 수장영역 규모는 146,000여점의 소장자료를 안정적으로 보존 · 관리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여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미술품 전문 수장시설 일부(462㎡)를 임차하여 활용하고 있다.

표 5-3-38 수장고 및 격납현황

구 분	면 적	격납 수량	비 고
관내 수장고	434㎡	92,976점	
외부 수장고(경기도 여주시)	462㎡	53,634점	
합계	896㎡	146,610	

우리 관에서는 부족한 수장공간 및 보존처리 시설 부재 등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수장보존시설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수장고에 보관된 자료는 등록번호 순서와 재질별 · 유형별로 분류되어 격납되어 있고,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사를 진행하여 소장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표 5-3-39 소장자료 실사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실사 점수	23,999점	26,256점	24,236점	74,491점

④ 현대사 디지털아카이브의 구축 및 운영

우리 관은 근현대사와 관련된 디지털 사진, 영상, 음원, 텍스트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수집 · 관리 · 활용하는 현대사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현대사 디지털 아카이브는 구입 · 생산 · 이관 그리고 복제 등의 방법을 통해 36,523점의 디지털 기록물을 수집하여 12월 기준 총 145,452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는 기록물의 저작권 보유자료 확대를 위하여

자체 생산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2014~2015년 서울 · 경기 지역 사적지 사진 기록에 이어 2016년에는 강원 · 경상 지역, 2017년에는 강원 · 경상 · 충북 지역, 2018년에는 충남 · 전라 · 제주 지역, 2019년에는 기존 촬영지역 중 관리기관 사정으로 미 촬영된 사적지와 추가 사적지 사진 기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2019년 현대사 관련 주요 사건 및 현장을 기록하여 연간 6,127점의 사진 자료를 생산하였다. 또한 현대사 디지털 아카이브는 연구 · 전시 · 교육 · 행사 등 2019년 박물관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 1,621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아카이브 사진자료를 온라인 공개뿐만 아니라 자료집으로 편찬하는데, 2015년 발간한 『현대사 현장기록Ⅰ-서울 · 인천 · 경기 편』에 이어 2018년에는 아카이브 사진자료집 『현대사 현장 기록Ⅱ-강원 · 경상편』, 2019년에는 『현대사 현장 기록Ⅲ- 충북 · 충남, 대전편』을 발간하였다.

표 5-3-40 2013~2019년 아카이브 자료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수집수량	7,300점	18,789점	18,512점	17,158점	14,113점	33,057점	36,523점	145,452점
DB구축	-	2,741점	2,630점	25,773점	15,677점	28,579점	29,909점	105,309점
공개수량	-	1,957점	1,557점	20,728점	9,291점	11,587점	11,465점	56,585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생산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기록물 복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관에 산재되어 있는 현대사 기록물을 수집하여 앞으로 현대사 디지털 아카이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대사 정보센터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9년에는 김영삼민주센터로부터 공동이용(활용)권을 확보하여 김영삼 前대통령 자료 필름, 사진, 음성 등 7,303점을 수집하였다.

그림 5-3-29 2019 현대사 디지털아카이브 기록 사진

[2019 현대사 사적지 기록]
마라도 성당 전경

[2019 현대사 행사 · 이슈 기록]
제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2019 현대사 사적지 기록]
완도 소안면 구 당사도 등대

[2019 현대사 행사 · 이슈 기록]
다이빙 여자 3m 스프링보드 준결승

현대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수집된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현대사 디지털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작성 매뉴얼〉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2019년에는 총 29,909점의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대국민 자료공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 3월에 현대사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2019년까지 등록된 자료 중 56,585점을 공개하고 있다. 현대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역사 기록 자원을 기반으로 한 근현대사 연구 및 문화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개된 자료 중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자료에 대해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나. 전시

① 상설전시

ㅇ 상설전시실 역사관 개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19년 상설전시 개편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번 개편사업의 특징은 기존에 세 개 층에 걸쳐 4개의 전시실로 구성된 상설전시를 3개의 다른 성격을 가진 전시관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다. 2019년에 시작해서 3년차인 2021년에 완성될 일정으로 진행되어 2019년에는 우선 5층 역사관 개편을 먼저 진행하였다.

상설전시 개편 사업을 위해서 박물관에서는 대내외 소통과 협력 체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였다. 학계 및 사회단체들과 개편과정을 개방하고 소통하며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대사의 여러 분야에 대해 세부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특화된 전시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전시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했다. 역사관 전시연출 용역이 2019년 5월말부터 진행됨에 따라 기존 전시 철거 및 재정비, 개편 전시장 실시설계 및 전시연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20년 6월 재개관이 계획되었다.

표 5-3-4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전시 개편 3개년 계획 (표)

위치	기존	개편 후	재개관 시기(예정)
5층 (1,632㎡)	제3, 4전시실 (1961–1987/1987년 이후)	역사관 (1894–현재)	2020년 6월
4층(667㎡)	제2전시실(1948–1961)	체험관	2020년 12월
3층(666㎡)	제1전시실(1876–1948)	주제관	2021년 12월

학계의 학술적 성과 반영과 전시연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 '전시기획자문단'을 운영하였다. 자문은 상임위원회와 분야별 소위원회를 따로 두고 운영하였다. 상임위원회는 근현대사 및 전시연출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2019년에 총 9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자문을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정치, 경제, 노동, 문화, 여성, 전시연출 등 분야에 대해 전문가 주제소위원회를 구성했고 5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또한 전시 개편과 관련하여 폭넓은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술 및 사회단체를 초청하여 집담회를 개최하여 상설전시 개편 방향과 전시체계를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한국사연구회, 경제사학회 등 13개 역사 관련 학술단체, 박물관 건립위원, 광복회, 한국노총 등 9개 사회단체, 근현대 분야 역사학자를 초청하여 다양한 제언을 받아 개편에 반영하였다.

이번 역사관의 개편 목표는 보통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온 대한민국 현대사의 여정을 파노라마로 보여주는 데 있었다. 역사관은 민의 의식이 성장하고 국민국가 제도 수립이 모색된 1894년부터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마다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층위로 구분하여 연대기와 주제 영역을 균형있게 다루었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연출 목표가 상이한 두 영역인 통사존과 역사 속 이야기 코너가 연대기의 흐름에 따라 함께 제시된다는 점이다. 통사존은 시간적 연대기와 주제 영역에 따라 주요 사건들을 사료를 통해 이해하는 곳이라면, 역사 속 이야기 코너는 역사의 구체적인 사건에 집중하여 다양한 연출형식을 시도하는 영역이다. 또 다른 특징은 디지털 아카이브와 구술영상이 새롭게 선보인다는 점이다. 상해판 독립신문, 일제강점기 도시, 일제강점기 대중음악, 해방공간부터 1970년대까지의 다양한 전단과 포스터, 1990년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관련 전단 등의 자료를 디지털아카이브로 만들어 해당 주제 코너에 키오스크로 설치한다. 또한 그동안 박물관이 수집한 구술 채록 영상도 전시장 곳곳에 전시된다.

표 5-3-42 역사관의 주제 구성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역사 속 이야기
1부(1894~1945)	5개	14개	3개
2부(1945~1987)	6개	16개	2개
3부(1987~현재)	5개	14개	3개
3개	16개	44개	8개

그림 5-3-30 5층 상설전시실 전시장 철거 모습

철거 진행

대형전시물 이전

철거 후 전시장

바닥 먹매김

○ 체험관 · 주제관 조성 기반 구축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상설전시실을 역사관, 체험관, 주제관으로 개편하는 3개년 계획 가운데 2~3년차에는 체험관 · 주제관 개편이 진행되며, 박물관 3 · 4층 공간에 전시실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2019년에는 체험관 · 주제관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 연구용역에서 3가지 연구 성과를 도출했다. 우선, 체험형 주제형 전시 개편을 위한 구축 방향 및 기본개념을 설정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 3, 4층 공간의 기본 조건을 파악하고, 국내외 박물관 사례 조사를 통한 전시 구축 방향을 설정했으며, 박물관 관람객층 분석을 통한 지향점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전시체계를 구성하고, 전시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시기, 주제 · 분야, 지역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요 시기 및 주제를 고려한 입체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전시체계를 구성했다. 전시체계 외에 스토리텔링 방식의 전시 시나리오 또한 작성했다.

마지막으로, 전시콘텐츠 조사 및 목록화, 전시 세부 구성안 작성을 진행했다. 실물자료, 모형, 사진 · 영상 등 전시콘텐츠 조사 및 목록화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체험형, 디지로그형 첨단

전시기법을 적극 도입했다. 아카이브형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자료의 선정 및 방향성도 설정했으며, 조사된 전시자료 · 콘텐츠를 전시 시나리오에 맞춰 배치하는 전시 세부 구성안을 작성했다.

이 연구용역의 결과는, 과거의 특정 시공간에서 역사를 체험하는 새로운 개념의 역사 전시관인 체험관, 근현대사의 특정 주요 주제를 전시하는 주제관을 개편하기 위한 전시체계의 본격적인 기획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② 기획 및 특별전시

2019년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개최한 여러 특별전들은 근현대사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상반기에는 3 · 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 특별전이 개최되었다. 이 전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요 역사적 계기인 3 · 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한 시도로서 높게 평가되었다. 하반기에 개최된 특별전들은 근현대사의 특정 주제를 집중적으로 주목한 전시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리, 역사를 담다〉 특별전은 소리를 통해 근현대사의 여러 국면들을 새롭게 조명하는 독창적인 시도로서 주목받았고, 〈1950년대 한국영화, 새로운 시대를 열다〉는 우리 영화사에서 중요한 시대인 1950년에 주목한 아카이브 전시로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표 5-3-43 주요 특별전 및 기획전(2019)

구분	전시명	전시장소	전시기간	전시 내용	관람인원
특별전	3 · 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전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	기획전시실1, 2 (1, 3층)	2019.2.22. ~2019.9.15.	• 3 · 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그 영향을 조명하기 위한 전시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계기 마련	255,285
	〈소리, 역사를 담다〉	기획전시실1 (3층)	2019.11.21. ~2020.3.1.	•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시각적으로만 전달해온 그간의 전시흐름에서 벗어나, 소리라는 청각 자료와 다양한 재생 매체로 현대사의 역사적 순간을 새롭게 재연 • 소리가 갖는 기록성, 현장성을 바탕으로 현대사를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개념의 전시	44,186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특별전〈1950년대 한국영화: 새로운 시대를 열다〉	기획전시실1 (3층)	2019.10.31. ~2020.2.24.	•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하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영화 관련 자료를 소개하는 특별전을 자료관리과 주관으로 개최 • 영화 포스터 · 광고지 컬렉션을 통해 한국영화의 성장기라 불리는 1950년대 중후반의 한국영화 지형도를 살펴봄	38,106

○ 3 · 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전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

2019년 2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3층 기획전시실에서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 특별전을 진행하였다. 이 전시는 '3 · 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국가기록원과 공동 주최로 100년을 맞은 3 · 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였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 '1919년을 가슴에 품다'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3 · 1운동 참여와 그 참여로 영향 받은 이후 삶을 조명함으로써 3.1운동의 의미를 개인의 차원에서 접근해 살펴보았다. 2부 '임시정부 사람들 조국을 그리다'에서는 상하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을 조명하고, 그들이 활동했던 공간적 환경과 삶의 생생한 모습을 조명하였다. 3부 '고향, 꿈을 꾸다'에서는 해외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쓴 한인들의 삶의 흔적, 후손들의 모습을 최근의 사진을 통해 보여주었다.

그림 5-3-31 3 · 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전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

1부 전시장 입구

1부 전시장 내부

2부 전시장 내부

2부 전시장 내부

○ 특별전 〈소리, 역사를 담다〉

2019년 11월21일부터 2020년 3월1일까지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소리, 역사를 담다〉 특별전을 진행하였다. 전시는 도처에 있지만 일순간 멀어지고, 끝내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마는

소리의 특성에 주목해 역사적 순간이나 사회적 변화를 포착한 소리들을 한 데 모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폭발하듯 터져 나온 광장의 외침부터, 긴박하고 처절했던 사건 사고의 순간들, 부를 수 없어 속으로 삼켜야 했던 노래, 계몽과 신념의 메시지, 익숙하고 친근한 일상의 소리기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리 기록들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에 담긴 이야기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온다.

전시실 입구부터 벽면을 타고 이어지는 '소리길'은 익숙한 현재부터 낯선 과거까지 시간 속에 각인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공간이다. 누구의 목소리인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때로는 환희와 기쁨의 소리가, 때로는 갈등과 대립의 팽팽함이 결국 역사의 부분임을 깨닫게 한다. '소리극장'에서는 특정사건, 기념일, 상징적인 날짜로만 기억되던 역사적 소리를 하나의 극으로 재해석한다. 극장에서 상영하는 〈그날의 우리〉는 20세기 초반부터 오늘까지 굴곡의 시간 속에 각인된 다양한 소리를 모아 들려준다. 순간의 편린들이 엮어내는 한 편의 소리극을 통해 우리 삶에 중요한 소리는 무엇인지 관람객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마지막 '소리창고'에서는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며 라디오 등을 통해 어렵게 접하던 나라 밖 소식부터 청취자들을 웃기고 울린 라디오 방송까지 다양한 소리를 전한 장비들을 한 데 모은 공간이다. 형체가 없이 무형으로 존재하며, 순간적으로 퍼지다 사라지는 소리를 기록, 저장, 재생, 전송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소리를 듣고, 전하고, 기록할 수 있게 된 기적의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그림 5-3-32 특별전 〈소리, 역사를 담다〉

전시장 입구

전시장 입구

2부 소리극장

3부 소리창고

다. 조사연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으로 설립되어,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 주제들을 발굴하여 연구 및 전시의 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9년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조사연구 활동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박물관 중점사업과 연계된 조사연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미션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학계 및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동시에 내부 직원들 자체적으로도 활발하게 상호 교류하고 있다. 2019년도에도 운영자문위원회와 (2018년에 신설한) 학술자문위원회를 각각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박물관의 전반적인 운영과 학술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2019년의 조사연구 사업은 전시, 소장자료, 교육 등 박물관의 사업에 직접 활용 가능한 연구를 추진하는데 역량을 기울였다. 전시 맞춤형 구술영상을 제작하여 새롭게 개편한 역사관에 게시하였고, 근현대사 전시 주제를 개발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9년도에는 기관 소장자료의 가치를 조명하는 박물관 주요자료 연구 사업을 새롭게 출범하였다.

○ 전시 맞춤형 구술영상 제작

박물관에서는 상설전시관에 제공할 구술영상을 제작할 목적으로 〈전시 맞춤형 구술영상 제작〉을 진행했다. 주제는 IMF를 겪은 평범한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로, IMF를 겪은 7명의 구술을 통해,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와 사회재편이 한국인의 실제 삶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작업은 전문 구술사가에 의한 구술채록과 구술 콘텐츠 제작이라는 두 작업을 병행한 국내 최초의 실험적 작업으로서, IMF를 주제로 한 구술생애사적 접근이라는 성과와 더불어 전시용 구술영상의 제작이라는 새로운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림 5-3-33 〈전시 맞춤형 구술영상 제작〉

구술채록과 구술영상 촬영 현장

○ 근현대사 전시주제 개발 및 기획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상설전시실의 역사관으로의 개편과 향후 개최될 특별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치, 경제, 국제관계, 문화, 사회 등과 같이 5개 분야에 걸친 전시주제를 개발하는 연구용역을 시행하였다(표 5-3-0 참조). 이들 전시주제는 각 분야에서 전시된 기존 내용을 검토한 이후 중요하지만 아직 주목받지 못한 주제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표 5-3-44 분야별 전시주제 목록

전시분야	전시키워드
정치	• 광장이 만든 우리, 우리가 만든 광장 • 잘려버린 시대정신: 검열과 단속의 문화정치 • 한국전쟁, '난민'을 만들다 • 학생, 평준화 시대를 살다
경제	•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 위기를 기회로 바꾼 3저 호황 • 성장의 동력, 자본축적 • 성장의 주역, 임금노동자 • 누가 중산층인가?
국제관계	• 시대를 바꾼 협상 • 세계 속의 한국 • 대결에서 대화로, 그리고 경제협력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도 •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문화	• 문화 강대국을 꿈꾸며 • 지식공유, 시민사회를 열다 • 신(新)가족의 탄생 •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시대의 변화, 휴식의 변화
사회	• 국제이주, 꿈을 좇아 국경을 넘다 • 성별은 하나다: 성평등의 세상을 향하여 • 역피라미드 세상에 살기: 인구구성 변화의 새로운 시대

○ 박물관 주요자료 연구

박물관에서는 박물관의 연구 인력들이 기관 소장자원의 역사 · 문화적 가치를 연구 하여 활용 · 보급 가능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박물관 주요자료 연구〉사업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연구사업은 박물관 대표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뿐만 아니라, 수장고에 보관 중인 수많은 자료들을 다양한 전공자들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하여 기관의 새로운 대표 자료들을 발굴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자료와 관련된 사람들과 이야기들을 기록하여 향후 전시, 교육 및 다양한 박물관 사업에 활용 될 수 있는 자산으로 축적해 나아갈 계획이다. 축적된 결과물들은 향후 도서, 영상 등의 다양한 콘텐츠로 가공하여 보급될 예정이다.

그림 5-3-34 사업 추진 프로세스

자료 선정 및 실물연구 → 디지털 자원 생산 → 현장 조사 →

연구자 정기 협의회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 결과물 공유

② 3 · 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2019년은 3 · 1운동과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서, 이를 기념하는 '독립운동가 스토리 영상' 제작 사업을 KBS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100편의 영상을 방영하였고, 영상 콘텐츠를 국 · 영문 소개책자와 함께 보급용으로 제작하여 국내의 교육기관 및 국외의 웹 접근이 어려운 기관에 배포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현대사 100년의 다양한 이야기를 대중과 친숙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독립운동가 스토리영상 〈나의 독립 영웅〉 제작 · 방송

2019년은 3 · 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계층의 다양한 독립운동가의 삶을 조명하는 3분정도의 짧고 수준 높은 영상콘텐츠 100편을 KBS와 공동으로 제작 · 방송(2019.1.1.~6.21, 주4회)하고 SNS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비스 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의미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100편의 영상 중 37편을 여성독립운동가를 조명함으로써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상을 수상했다. 또한 후속사업으로 '나의독립영웅 100(국 · 영문 소개 책자 및 USB포함)'을 국내 · 외 연구기관 · 교육기관에 배포하였다.

표 5-3-45 범주별 나의 독립 영웅 100편

연번	범주	인원	방송인물
1	3 · 1운동	10	해외만세운동(황병길), 배화여고생, 김낙, 어윤희, 부산진일신여학교, 박자혜, 최정숙, 백용성, 김향화, 이종일
2	대한민국임시정부	16	이상룡, 현순, 김순애, 정정화, 권기옥, 연미당, 홍진, 이혜련, 조마리아, 양우조 · 최선화, 김상덕, 황학수, 조소앙, 서영해, 황기환, 노백린

연번	범주	인원	방송인물
3	무장투쟁 (의병, 독립군, 광복군)	20	김경천, 홍범도가족(이씨부인) 윤세주, 정이형, 허은, 박차정, 신팔균, 이은숙, 오광심, 지복영, 한성수, 윤희순, 남자현, 서원준, 김동삼, 최재형, 박용만, 김알렉산드라, 안창남, 문창범
4	의열투쟁	11	김상옥, 김예진 · 한도신, 안경신, 류자명, 조명하, 나석주, 김지섭, 백정기, 박재혁, 이규창, 이수흥
5	교육 언론	9	최용신, 차미리사, 김란사, 장도빈 · 김숙자, 이길용, 최은희, 장덕준, 김병로, 계봉우
6	문화 예술	8	한유한, 김진우, 이육사, 심훈, 정세권, 윤봉춘, 한징, 송몽
7	독립자금 지원	10	김마리아, 최양옥, 최봉설, 안희제, 이정숙, 이태준, 한시대, 유일한, 문양목, 임천택
8	청년 · 학생 · 노동 · 농민 · 사회주의운동	9	박준채, 2 · 8독립선언, 강주룡, 서태석, 이효정, 이병희, 부춘화, 김산(장지락), 고려독립청년당
9	외국인	7	조지루이스 쇼, 후세 다츠지, 피치, 헐버트, 스코필드, 가네코 후미꼬, 저보성
계		100	

그림 5-3-35 나의 독립 영웅 영상 예시

권기옥

김란사

김알렉산드라

부산진일신진여학교학생들

문양목

지복영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토크콘서트 〈한국 현대사를 만나다〉 개최

박물관은 2018년에 이어 현대사 각 분야 인물들의 이야기를 대중들과 함께 듣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토크콘서트 〈한국 현대사를 만나다〉"를 개최하였다. 토크콘서트는 총 4회 추진되었다. 채현국 전 효암학원 이사장, 이규현 · 박시은 강원도 상동 탄광마을 주민, 김수용 원로 영화감독 등의 한국 현대사와 얽힌 인생 이야기와 더불어, 박찬승, 김정인 교수의 3 · 1운동 관련 연구성과와 100주년 기념활동을 회고를 토크콘서트에 담았다. 토크콘서트 영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페이스북에 게시되었으며, 구술자의 귀중한 이야기는 녹취록으로 남겨 향후 한국 현대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표 5-3-46 2019 토크콘서트 개최 현황

연번	개최일	주 제	구술자	구술내용
1	7.24.	채현국, 나의 청춘시대	채현국(前효암학원이사장)	8 · 15 광복을 맞았던 경험과 1950년대 학창시절, 전후 생존을 위한 삶을 구술
2	9.18.	내 인생 다시, 봄날	이규현, 박시은 (상동 탄광마을주민 대표)	1960~90년대 강원도 상동 탄광마을의 변화와 주민 생활사 구술
3	11.20.	김수용, 한국영화에 남긴 발자취	김수용(영화감독)	한국영화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행사. 1950~60년대 한국영화사 구술
4	12.11.	우리가 마주한 3 · 1운동 100년	박찬승(한양대), 김정인(춘천교대)	3 · 1운동 관련 학술적 성과 및 100주년 기념활동에 대한 회고

③ 현대사 아카이브 구축 및 연구사업

○ 6 · 25 참전국 소재 한국현대사 자료 수집: 콜롬비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2013년부터 6 · 25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견한 국가이면서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중견 국가를 대상으로 6 · 25전쟁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소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3년에는 터키, 2014년에는 태국과 필리핀, 2015년에는 그리스, 2017년에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2018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소장되어 있는 6 · 25전쟁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소개하였고, 2019년에는 콜롬비아 소재 6 · 25전쟁 관련 자료를 조사 · 수집하였다.

표 5-3-47 콜롬비아 소재 6.25전쟁 관련 자료조사 및 수집

주요 내용	건수
6.25전쟁 당시 콜롬비아 현지에서 발행된 일간지 기사	322
1950년대 말 ~ 60년대 초 콜롬비아와 유엔이 주고받은 외교문서	52
한국전 참전용사회 및 참전용사후손회 발간 잡지 및 사진 등	52
해군박물관 소장 사진, 해군 참전용사회 발간 자료 등	43

○ 6.25전쟁 관련 기수집 해외자료 정리 및 번역

또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6.25전쟁 관련 기수집 해외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2017년과 2018년에 수집한 자료 중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별하여 정리 및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표 5-3-48 6.25전쟁 관련 기수집 해외자료 정리 및 번역

국가	조사연도	주요 내용	건수
네덜란드	2017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6.25전쟁 관련 국방부 및 외교부 문서	65
룩셈부르크	2017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6.25전쟁 관련 문서	26
벨기에	2017	외무부 문서보관소, 전쟁 현대사회 역사연구 자료센터 소장 6.25전쟁 관련 문서	33
남아프리카공화국	2018	국방부 및 프리토리아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6.25전쟁 관련 문서	111

④ 한국 근현대사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

○ 국제학술대회 〈세계 역사박물관의 현대사 기점 논쟁〉 개최

역사박물관 건립은 전 세계적으로도 1990년대부터 시작된 최근의 현상이다. 이들 역사박물관의 설립 배경에는 국민국가의 정체성, 양차 세계대전과 냉전으로 집약되는 20세기 역사, 그리고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이 자리잡고 있다. 당연하게도 역사박물관의 설립될 때에는 어느 곳에서나 큰 사회적 논쟁이 일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유럽과 아시아의 7개국 역사박물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각 국에서 현대사 박물관을 둘러싸고 그것의 설립 여부와 전시 내용을 두고 벌어졌던 논쟁을 비교검토하는 〈세계 역사박물관의 현대사 기점 논쟁〉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표 5-3-49 〈세계 역사박물관의 현대사 기점 논쟁〉 프로그램 및 일정

일 시		내 용	
4.25. (목)	09:30–10:30	등록 및 개회식	
	[세션 1] 사회: 박단 (서강대학교 교수)		
	10:30–12:10	[발표 1] 국가를 넘어: 유럽의 역사를 전시하기	발표: Andrea MORK (유럽 역사의 집 수석 큐레이터) 토론: 신종훈 (경상대학교 교수)
		[발표 2] 독일연방공화국 역사의 집 설립 논쟁	발표: Monika RÖTHER (독일 역사의 집 역사학자) 토론: 윤용선 (한성대학교 교수)
	[세션 2] 사회: 육영수 (중앙대학교 교수)		
	14:00–17:10	[발표 1] 역사 논쟁: 과정으로서의 현대사 박물관	발표: Stefan BENEDIK (오스트리아 역사의 집 디지털 큐레이터) 토론: 김성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표 2] 역사 박물관과 살아있는 기념	발표: SCHMIDT Mária (헝가리 테러의 집 박물관 관장) 토론: 김지영 (숭실대학교 교수)
		[발표 3] 현대 러시아를 이해하고 보여주기	발표: Nikita ANIKIN (러시아 국립현대사박물관 학술담당책임자) 토론: Andrei LANKOV (국민대학교 교수)
		청중 질의응답	
4.26. (금)	[세션 3] 사회: 손준식 (중앙대학교 교수)		
	10:00–11:40	[발표 1] 현대사박물관 전시의 문화적 함축과 그것의 효과적 표현	발표: HU Wei (중국 신해혁명박물관 연구책임자) 토론: 하세봉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발표 2] 국립일본역사박물관에서 근현대사 전시실 만들기: 오키나와 논쟁	발표: HIURA Satoko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교수) 토론: 김인덕 (청암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좌장: 정재정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14:00–17:00	[토론자] 이신철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지원 (대림대학교 교수) 조석곤 (상지대학교 교수) 권지연 (홍익대학교 교수 / ICOM–ICTOP 운영위원)	

그림 5-3-36 국제학술대회 발표자

Andrea MORK(유럽 역사의 집 수석 큐레이터)

Stefan BENEDIK(오스트리아 역사의 집 디지털 큐레이터)

○ 현대사 박물관 포럼 개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근현대사박물관 종사자로서의 학예직들의 연구역량 강화와 학계의 최신 동향 파악 및 학계와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현대사 박물관 포럼을 개최하였다. 2019년에는 5회의 현대사 박물관 포럼을 개최하였는데, 현대사 및 박물관 관련 신간 소개 및 저자의 강의를 통해 학계의 최신동향을 파악하고 박물관 학예직이 토론자로 참가함으로써 학예직 역량강화 및 학계와의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표 5-3-50 2019년 현대사 박물관 포럼 개최 현황

회차	일 시	제 목	내용	강 사
1	2019.4.29.	암살 : 왜곡된 현대사의 서막	송진우, 여운형, 장덕수 김구 등 해방 정국의 여러 정치지도자암살 배후와 분단 원인을 규명하며, 이들의 암살로 우리사회에 합리적인 보수우파, 진보좌파 정치인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현실 정치의 비정상성의 기원이 됨.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2	2019.5.20.	법률가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일제 식민지 시대, 미군정기,대한민국정부 수립을 거치면서 법조계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다섯 그룹의 법률가군들을 추적함으로써 한국 사회 법조 권력의 보수화의 기원과 그 실체를 보여줌.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2019.7.22.	NL현대사 : 강철서신에서 뉴라이트까지	1980~90년대 한국사회의 변혁을 이끌었던 학생운동 NL(민족해방 노선)의 발자취와 NL의 공과, NL의 성쇠를 통해 한국현대사를 이야기 함	박찬수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
4	2019.8.26.	제국대학의 조센징	일본의 엘리트 코스이기도 한 도쿄 · 교토제국대학 조선인 유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그 실체를 파헤침. 이들은 상당수가 제국 일본의 관료로 복무하며 친일을 했거나, 제국의 첨단 지식과 관료 경험을 밑천으로 해방 후에도 남북한의 행정, 경제, 사법, 지식 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정종현 (인하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5	2019.9.30.	기념의 미래 : 기억의 정치 끝에서 기념문화를 이야기하다	기념문화에 대한 국내외의 사례를 검토함에 있어 기념문화의 시작, 기념시설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추적 정리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담음	최호근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

○ 해외 학자 특강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해외 저명학자나 해외 인사들의 한국 체류나 방한기간 중에 박물관에 초청해 특강을 마련함으로써 해외인사들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박물관 직원들의 역량 강화의 기회를 가졌다.

표 5-3-51 **2019년도 해외 학자 특강 개최 현황**

회차	일 시	제 목	내용	연 사
1	2019.5.31	Two Thousands Voices Clamoring to Get Out : The House of Memory and History in Rome (2천 개의 목소리가 나오려고 아우성을 친다 : 로마 기억과 역사의 집)	구술사와 정치운동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인터뷰 과정과 상황이 매우 중요함. 굿 인터뷰는 구술의 과정을 통해 서로가 얼마나 변화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	Alessandro Portelli 알렌산드로 포로텔리 (로마 라 사피엔자 대학교 교수)
2	2019.10.14	헝가리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본 한국전쟁	헝가리 신문과 외교 문서 등 한국전쟁 당시의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헝가리와 북한의 관계, 수교 이후 한국과의 관계 등 세 나라간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 특히 6.25당시 헝가리로 건너간 북한 고아와 유학생 얘기, 56년 헝가리에서의 반소혁명의 영향력이 한반도까지 미쳤음을 강조	Csoma Mózes 초머 모세 (주한 헝가리 대사, 한국학 학자)

⑤ 발간사업

○ 학술 정기간행물(국문, 영문) 발간

2019년에는 국문정기간행물 『현대사와 박물관』(연간) 제2권을 발간하였다. 기획특집은 '전쟁과 갈등, 해석과 표현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4편의 논문을 실었고, 전시리뷰에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전 비교 리뷰'를 역사학자, 역사교사, 전시기획자, 예술기획자, 전시디자이너의 시각에서 5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박물관동향에서는 '국내외 주요 현대사 박물관 동향'을 3편의 논문으로 소개하였다.

그림 5-3-37 2019년 국문 정기간행물 『현대사와 박물관』 제2권

영문 정기간행물 *Public History & Museum*은 국문 정기간행물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해외 한국 현대사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연구자, 해외 홍보기관 등에 배포하여 우리 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과 연구의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림 5-3-38 2019년 영문 정기간행물 *Public History & Museum Vol.2*

표 5-3-52 2019년 국문 정기간행물 『현대사와 박물관』 제2권 본문 구성

권수	섹션	저자/제목
2	기획특집: 전쟁과 갈등, 해석과 표현의 확장	• 강성현 · 최선영, 평화사와 공공역사의 관점으로 본 전쟁기념관 • 나일민, 포스트 메모리 세대 전쟁 기념관에서의 동시대 미술 전시 • 안자코 유카, 네덜란드의 전쟁박물관 • 여상희, 한국 근현대기 수용시설 전시 작업기

권수	섹션	저자/제목
2	전시리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전 비교 리뷰	• 황선익, 역사학자의 리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백주년' 전시기획의 박물관 구현 • 박상필, 역사교사의 리뷰: 3.1운동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 정명아, 전시기획자의 리뷰: 기획의도로 보는 몇 개의 3.1운동 전시 • 권지연, 예술기획자의 리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특별전'–전시방법과 매체 • 윤선영, 전시디자이너의 리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전시 디자인 비교
	박물관동향: 국내외 주요 현대사 박물관 동향 소개	• 박진호, 디지털박물관 시대의 박물관 디지털 트렌드 • 김현태, 오스트리아 역사의 집 • 김지영, 현대사 박물관: 역사 앞에 선 논쟁의 공간, 그 속에서 길을 찾기–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제학술대회 참관기

○ 교양총서 발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현대사의 주요 주제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학계의 연구성과를 일반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한국현대사 교양총서』를 발간한다. 2019년에는 2종의 교양총서를 발간하였고, 이와 함께 그동안 발간된 교양총서 18종의 e-book을 제작하여 누리집에서 공개 제공했다.

그림 5-3-39 2019년 한국현대사 교양총서

교양총서 17권『작곡으로 보는 한국 현대음악사』

교양총서 18권『세계와 한국전쟁』(라종일) (오희숙)

라. 박물관 교육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교육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성인, 외국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및 교사, 문화나눔 단체

등 다양한 교육대상별 맞춤 교육을 통해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박물관 전시와 유물 등과 연계된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의 관심사에 맞춰 근현대사 전시를 재구성한 '대한민국 역사꿈마을'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졌다.

어린이 ·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은 교과연계 교육, 주말 교육, 방학 교육으로 운영방식을 다양하게 나누어 진행되었다. 교육프로그램은 시청각 강의, 전시실 활동,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년별 수준에 맞추어 기획 · 운영되었다. 교과연계 교육은 교과에서 배우는 근현대사에 관한 자세하고 실제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한 학급을 대상으로 이론 강의부터 전시실 활동까지 함께 해 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근현대사를 스스로 찾아보며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주말과 방학에도 어린이와 동반가족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주제 뿐 아니라 대상별 수준에 맞춘 교육을 기획하여 운영하였다. 총 303회 운영하였으며, 6,012명이 참여하였다.

청소년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학생들의 신체 연령을 고려하여 기획하였으며, 특수학급 학생들이 쉽고 친근하게 근현대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운영되었다. 총 13회 운영하였으며, 267명의 특수학급 중 · 고등학생이 참여하였다.

그림 5-3-40 어린이 · 청소년 교육

교과연계 교육

청소년 특수학급 교육

〈대학생 근현대사 탐방경연대회-100년의 걸음을 따라가다〉로 진행된 2019 대학생 교육프로그램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기념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주체적으로 역사를 탐구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지난 100년간의 다양한 기억 중 하나를 탐방하여 오늘날의 의미를 성찰하고 미래 100년의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했던 이번 대회에서는 본선대회 입상팀을 대상으로 연해주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상해 임시정부에만 국한되지 않은 폭넓은 시대이해를 유도하고 100주년 기념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릴 수 있었다.

화요 · 수요역사강좌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강좌로 진행하였다. 상반기에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주제로 3.1운동의 성격과 실상을 재조명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활동,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는 10개의 강좌로 구성하였다. 하반기에는 〈재외 독립운동과 아시아의 반제국주의운동〉을 주제로 해외 독립운동의 각

지역별 특징과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했던 삶의 흔적을 살펴보는 강의와 비교사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반제국주의 운동을 소개하는 강의 7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상 · 하반기 강좌를 통해 한국독립운동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화요 · 수요역사강좌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한국 근현대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총 34회, 1,281명이 참여하였다.

교원연수는 〈박물관에서 보는 대한민국 100년〉을 주제로 상 ·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월에 진행된 상반기 연수는 '구술을 통해 본 대한민국임시정부 이야기' 등 12개 강좌 및 3.1운동 관련 서울지역 기념관 및 박물관 탐방 등 총 13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8월에 진행된 하반기 연수는 '3.1운동과 대한민국 헌법정신' 등 12개 강좌 및 3.1운동 관련 천안지역 유적지 탐방 등 총 13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총 10회, 285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수교육 교원연수는 〈박물관에서 문화감성 채우기〉를 주제로 상 ·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2월에 진행된 상반기 연수는 '임시정부에서의 육아기록, 제시의 일기' 등 근현대사 강의와 박물관 특수교육 프로그램 실습, 수업사례 공유, 역사탐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7월에 진행된 하반기 연수는 '수형기록으로 보는 3.1운동' 등 근현대사 강의와 박물관 특수교육 프로그램 소개, 현장체험학습 사례 공유, 역사탐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총 5회, 101명이 참여하였다.

그림 5-3-41 성인 교육

화요 · 수요 역사강좌

대학생 탐방 경연대회 〈100년의 걸음을 따라가다〉

교원연수 〈박물관에서 보는 대한민국 100년〉

특수교육 교원연수 〈박물관에서 문화감성 채우기〉

외국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전문가 교육은 유관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외국 교과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관심 주제에 대한 전시 해설,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 확대와 관심 제고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총 4개 국가 27명이 참여하였다.

그림 5-3-42 외국인 교육

재일교사 초청 한국현대사 연수

외국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전문가 교육

〈다함께! 대박〉은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가기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근현대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1일과 1박 2일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총 28회, 842명이 참여하였다.

〈청소년 역사체험교육〉은 벽지로 지정된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의 청소년들을 초청해 근현대사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원격지 청소년들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박물관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탐방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해 UCC 제작 및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총 5회, 142명이 참여하였다.

그림 5-3-43 문화나눔 프로그램

다함께! 대박

청소년 역사체험교육

표 5-3-53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2019)

구분	과정명	대상	프로그램명	횟수	연인원
어린이	학교연계	유치원(6~7세)	대한민국역사꿈마을 이야기	32	748
		초등3~4	우표 속 우리 역사	14	330
		초등4~6	근현대사 100년: 3.1운동	27	606
		초등5~6 초등5~6	광복 이후 3년의 이야기	21	463
			평화의 소녀상이 들려주는 이야기	14	316
	주말 가족	초등1~3, 학부모	캠페인으로 본 한국 현대사	6	122
			달라진 우리들의 학교 생활	13	261
			함께 타요! 대중교통	4	83
			역사 속 대한민국 상징	15	299
			퀴즈로 알아보는 홍범도	7	136
	주말 어린이	초등3~4	그림으로 보는 우리 현대사	5	88
			함께 타요! 대중교통	6	103
			광복 이후, 대한민국 이야기	4	72
		초등4~6	옛 신문으로 본 대한제국	4	92
			인물로 보는 독립운동	11	209
			지도로 본 광화문	11	135
		초등5~6	의병	11	233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인권 이야기	6	89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	13	232
			이심전심, 정동	9	107
			소리, 역사를 담다	2	42
	방학특집	초등3~4	우표 속 우리 현대사	4	88
			그림으로 보는 우리 현대사	4	86
			아리랑, 근현대사 고개를 넘다	3	53
		초등5~6	아리랑, 근현대사 고개를 넘다	4	76
			대한제국과 헤이그 특사	4	77
			생생역사(4기~7기)	12	228
			대한제국의 국권수호	3	60
			옛 신문으로 본 대한제국	3	51
			생생역사(8~10기)	9	174

구분	과정명	대상	프로그램명	횟수	연인원
청소년	자유학년제	중1~중3	서울 역사 올레길	4	115
			근현대사를 담은 직업이야기	4	112
	학교연계	중1~고3	대한독립을 외치다	9	216
			해방공간 3년	6	140
			역사의 현장을 걷다	5	109
			대한제국 속으로	7	143
	방학특집	중1~고3	우리가 몰랐던 해방 3년의 이야기	3	52
			민주화의 '그 날', 우리의 목소리	3	58
		중학생	근현대사를 담은 직업이야기	3	36
	근현대사교실	중학생	일상 속 나의 현대사	3	50
	주말청소년	중학생	100년을 돌아보다: 3.1운동	7	70
	특수학급	중 · 고등학생	박물관에서 만나는 근현대사	13	267
성인	성인	일반인	2019년 상반기 화요 · 수요역사강좌	20	791
			2019년 하반기 화요 · 수요역사강좌	14	490
		교원	2019 상반기 교원직무연수	5	109
			2019 하반기 교원직무연수	5	176
			2019 상반기 특수교육 교원연수	3	26
			2019 하반기 특수교육 교원연수	3	75
	대학생	대학생	3.1운동 100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년 기념 대학생 근현대사 탐방경연대회 "100년의 걸음을 따라가다"	7	180
	외국인 외국인	전문가	외국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전문가 교육	4	27
		현지교사	在日 학교 교사를 위한 한국현대사 교육 –재일 교사 초청 '한국현대사 연수'–	4	84
	역사문화 체험교육	문화나눔 단체	다함께! 대박	28	842
		문화나눔 단체	청소년 역사체험교육	5	142
총 계				446	9,969

어린이박물관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성한 체험 전시 공간이다. 현장과 인터넷 예약으로 매일 6회 운영하였고 2019년에는 2,058회, 37,647명이 방문하였다. 체험 공간은 총 5개의 주제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교복입고 찰칵찰칵' 이란 주제이며, 1950~80년대 여러 자료를 통해 어린이들이 할머니 · 할아버지, 엄마 · 아빠 세대의 생활상을 살펴보고 공감 하는 공간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상징물인 태극기와 애국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선거 및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소장 자료에 대한 특징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세 번째, '세계여행

이곳저곳'이란 주제로 구성한 체험 공간에서는 지구촌 여러 나라의 음식, 복식 등의 문화를 살펴보고 자석을 이용해 세계지도를 완성해 볼 수 있다. 세계 속의 우리나라와 나를 인식할 수 있다. 네 번째는 '그 때 그 시절 장난감' 이라는 주제로 엄마, 아빠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어린이들이 직접 가지고 놀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세대 간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꿈을 이룬 사람들'은 근현대사 속 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은 스스로 미래 나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으로 어린이박물관 연계 유아교육 프로그램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그림 5-3-44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개선

어린이박물관 유아교육

마. 문화행사

2019년 박물관 문화행사는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비롯한 수요 공연으로 구성되는 정기 문화공연 〈박물관! 춤추고 노래하다〉,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등 특별한 날에 이루어지는 역사기념일 공연,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특별행사 및 이벤트에 이르기까지 총 27회의 문화행사가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박물관 문화공연 〈박물관! 춤추고 노래하다〉는 관람객이 박물관과 근현대사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근현대사 관련 공연과 관람객의 눈길을 끄는 일반 공연으로 구성하였으며, 국악, 클래식, 대중음악 등 각 장르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연기획위원회를 마련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기획하고 유치하였다. 〈방학 특집〉, 〈생활의 발견〉, 〈역사, 여성에게 말을 걸다〉, 〈역사콘서트〉, 〈특별전 연계공연〉 등 시리즈 기획으로 짜임새 있게 진행하였다.

또한 2019년의 역사기념일은 더욱 풍성하게 구성된 행사들로 채워졌다.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기념 공연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클래식공연단이 역사적 의미를 담은 레퍼토리를 풍성한 실내악 연주로 선보였다. 각 공연마다 클래식계의 저명한 작곡자, 성악가와의 협업을 통해 수준 높은 공연을 개최했다.

다양한 역사 서적 관련 이벤트를 묶은 〈역사책방〉,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오디션 공연 〈지금은 광화문 가수시대〉, 골든벨 형식의 〈역사 퀴즈대회〉, 청소년과 성인 대상의 〈역사래퍼〉, 수능수험생 대상 이벤트 등은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표 5-3-54 정기 문화공연 개최 현황

행사명	기 간	주요 내용	횟수	참여인원(명)
수요 정기공연	상반기 '19.1.16.(수)~6.12.(수)	근현대사 관련 및 특별전 연계 공연 등	19	2,850
	하반기 '19.7.10.(수)~12.4.(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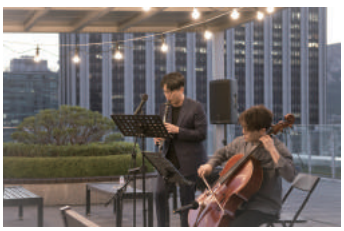
표 5-3-55 역사기념일 문화공연 개최 현황

구분	행사명	내용	기간(일수)	참여인원(명)
삼일절	3 · 1운동 100주년 기념 역사콘서트 〈100년의 아리랑〉	삼일절의 의미를 담은 클래식 콘서트	3. 1.(1)	573
어린이날	어린이날 기념 공연 〈신나는 놀이터〉	어린이날 기념 퓨전 국악 공연	5. 5.(1)	235
광복절	광복절 기념 클래식 콘서트 〈실내악 음향으로 일깨운 광복의 선율〉	광복절의 의미를 담은 클래식 콘서트	8.15.(1)	450
합계				1,258

표 5-3-56 특별행사 및 이벤트 개최 현황

행사명	일자	참여인원(명)
역사책방	2.26–28	1,285
지금은 광화문 가수시대	6.26	350
역사 퀴즈대회	9.7	188
역사래퍼	12.21	200
수능 수험생을 위한 전시 관람 및 기념품 증정 행사	11.28–12.15	791
합계	–	2,814

그림 5-3-45 정기 문화공연



박물관! 춤추고 노래하다

바. 국내외 교류협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개관 이래 국내외 근현대사 관련 박물관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9년에는 국립대만역사박물관을 비롯한 10개 기관과 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외국 박물관계 및 근현대사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국제박물관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s of Museums: ICOM) 총회나 워크숍, 미국아시아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AS)등의 참여로 다양한 국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였다.

2018년부터 개최한 '앰버서더 렉처(Ambassador Lecture)'를 통해 주한 외교가 내에서 박물관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였다. 이 외에도 왕립아시아학회한국지부 등 주한 외국인 단체와도 활발하게 교류를 추진중이다.

근현대사박물관협력망 사업은 2019년 현재 총 113개 기관으로 꾸준히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과는 달리 지원규모를 다변화하여 총 11개 기관의 사업을 선정해 기관들과의 상생을 추구하였다. 이 외에도 가입기관을 대상으로 한 10월 역량강화 세미나와 12월 워크숍으로 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꾀하였다.

표 5-3-57 2019년 근현대사 박물관 협력망 가입 현황

연번	국/공/사립	박물관명	구분
1	공립	DMZ박물관	기존
2	공립	DTC섬유박물관	기존
3	공립	강원도산림박물관	기존
4	국립	공군박물관	기존
5	사립	교과서박물관	기존
6	국립	국립경찰박물관	기존
7	국립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기존
8	국립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기존
9	공립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기존
10	공립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기존
11	사립	근현대디자인박물관	기존
12	사립	농협 농업박물관	기존
13	공립	대구근대역사관	기존
14	사립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신규
15	사립	대구보건대학교 인당뮤지엄	기존
16	국립	대한민국 국회 헌정기념관	기존
17	사립	덕포진교육박물관	기존
18	공립	독도박물관	기존
19	공립	둘리뮤지엄	기존
20	사립	록봉민속교육박물관	기존

연번	국/공/사립	박물관명	구분
21	사립	만해기념관	기존
22	사립	목아박물관	기존
23	공립	목포근대역사관	기존
24	공립	몽양여운형생가기념관	기존
25	공립	문경석탄박물관	기존
26	사립	배재학당역사박물관	기존
27	사립	백범김구기념관	기존
28	공립	보령석탄박물관	기존
29	공립	부산근대역사박물관	기존
30	공립	부산박물관	기존
31	공립	부천교육박물관	기존
32	공립	부천펄벅기념관	기존
33	공립	사상생활사박물관	기존
34	국립	산악박물관	기존
35	사립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역사박물관	기존
36	공립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기존
37	공립	서울교육박물관	기존
38	사립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기존
39	공립	서울약령시한의학박물관	기존
40	공립	서울올림픽기념관	기존
41	공립	소래역사관	기존
42	공립	손기정기념관	신규
43	공립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기존
44	공립	순천대학교박물관	기존
45	사립	신문박물관	기존
46	공립	안성맞춤박물관	기존
47	공립	안중근의사기념관	기존
48	사립	애니메이션박물관	기존
49	공립	양구근현대사박물관	기존
50	공립	양평친환경박물관	기존
51	사립	여명카메라박물관	기존
52	공립	여주시립폰박물관	기존
53	사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기존
54	사립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기존

연번	국/공/사립	박물관명	구분
55	사립	영인문학관	기존
56	공립	영인산산림박물관	기존
57	공립	예천박물관	기존
58	사립	우리은행은행사박물관	기존
59	공립	울산박물관	기존
60	사립	유엔평화기념관	기존
61	국립	육군박물관	기존
62	사립	이한열기념관	기존
63	사립	이화박물관	기존
64	사립	인도박물관	신규
65	공립	인천개항박물관	기존
66	공립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존
67	국립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기존
68	공립	임시수도기념관	기존
69	대학	전남대학교 의학박물관	기존
70	사립	전쟁기념관	기존
71	공립	제주4.3평화기념관	기존
72	사립	조명박물관	기존
73	사립	조선민화박물관	기존
74	공립	조선해양문화관	기존
75	국립	조세박물관	기존
76	사립	증권박물관	기존
77	대학	진주교육대학교 박물관	기존
78	사립	책과 인쇄박물관	신규
79	공립	천안박물관	기존
80	공립	철도박물관	기존
81	공립	최용신기념관	기존
82	사립	춘원당한방박물관	기존
83	공립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기존
84	공립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신규
85	사립	탄허기념박물관	기존
86	공립	태백석탄박물관	기존
87	사립	포로수용소유적박물관	기존
88	사립	피규어뮤지엄W	기존

연번	국/공/사립	박물관명	구분
89	사립	한국광고박물관	기존
90	대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기존
91	공립	한국근대문학관	기존
92	사립	한국금융사박물관	기존
93	사립	한국대중음악박물관	기존
94	사립	한국도량형박물관	기존
95	공립	한국만화박물관	기존
96	사립	한국색동박물관	기존
97	사립	한국선교역사기념관	기존
98	국립	한국영화박물관	기존
99	사립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기존
100	공립	한국이민사박물관	기존
101	사립	한국잡지박물관	기존
102	공립	한국족보박물관	기존
103	사립	한국카메라박물관	기존
104	사립	한독의약박물관	기존
105	사립	한무숙문학관	기존
106	공립	한밭교육박물관	기존
107	사립	합천한의학박물관	기존
108	국립	해군사관학교박물관	기존
109	사립	해금강테마박물관	기존
110	공립	해녀박물관	기존
111	사립	호야지리박물관	기존
112	사립	화폐박물관	기존
113	공립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기존

표 5-3-58 2019년 앰버서더 렉처 추진 현황

연번	초청국	일시	공관장(대사)
1	인도네시아	2019.1.24.	우마르 하디(Umar HADI)
2	벨기에	2019.4.10.	피터 레스쿠이에(Peter LESCOUHIER)
3	이집트	2019.7.10.	하짐 파미(Hazem Fahmy)
4	파키스탄	2019.11.13.	라힘 하얏 쿠레시(Rahim Hayat Qureshi)
5	폴란드	2019.12.16.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Piotr Ostaszewski)

그림 5-3-46 앰버서더 렉처 개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강연

주한 폴란드 대사 강연

표 5-3-59 2019년 MOU 체결 현황

연번	대상기관	일시	목적 및 내용
1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19.01.30.	자료 및 전시, 학술교류 등
2	서울시립교향악단, 세종문화회관	2019.02.22.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3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역사박물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2019.03.26.	서울 역사 올레길 공동 운영
4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2019.07.04.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상호협력
5	5 · 18 기념재단, 5 · 18 민주화운동기록관, 전남대학교 5 · 18 연구소	2019.10.16.	'5 · 18 40주년 특별전' 개최 상호협력
6	국립대만역사박물관	2019.12.04.	인적교류 및 상호공동협력 등

사. 박물관 홍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박물관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관람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언론의 취재 지원과 보도자료 배포, 특별전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를 통한 대언론 홍보,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와 SNS 광고, 대중교통 광고 등의 매체 광고,, 박물관 블로그와 SNS 홍보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 특별전 관련 홍보 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KBS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블로그 기자단인 '한걸음 기자단'을 운영, 박물관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홍보 마케팅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표 5-3-60 2019년 홍보 실적

구 분	내 용	비 고
언론 홍보	• 취재(촬영 및 인터뷰) 지원(총 69건) • 기관장 인터뷰(총 5건) • 보도자료 배포(총 33건) • 기자간담회 (총 2회) • 언론의 박물관 보도 현황(총 1,454건)	
온라인 홍보 및 기타 홍보 활동	• 누리소통망(SNS) 게시글 현황(총 673건) • 온라인 이벤트 개최(총 6회, 참여자 총 13,760명) • 블로그 기자단 운영(10명, 기사 총 161건) •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 광고(네이버), SNS 광고(인스타그램, 페이스북) • 관람 안내 리플렛 제작(국문, 영문, 중문, 일문) 및 배포 • 박물관 계간 소식지 『역사공감』 발간(총 4회)	

그림 5-3-47 초대 홍보대사 위촉식

그림 5-3-48 박물관 소식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역사공감』 통권 제23~26호

그림 5-3-49 2019 한걸음 기자단

아. 박물관 길라잡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해설은 전문해설사와 자원봉사자의 맞춤형 해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히 2018년부터 기존의 자원봉사자 체제를 '박물관 길라잡이'로 전면 개편하여 보다 심도 있고 다양한 주제별, 대상별 해설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길라잡이에는 총 3가지 분야가 운영되고 있다. 박물관 전시를 관통하는 다양한 주제를 따라 해설을 진행하는 10명의 '현대사 길라잡이'가 있다. 다음으로 박물관 자료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5명의 '온라인 길라잡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어 5가지 주제의 해설을 제공하는 27명의 '어린이 길라잡이'가 있다.

현대사 길라잡이는 평일 오후 1시 30분과 2시 30분에 정기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총 480회 전시해설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온라인은 8회, 어린이는 763회의 전시해설을 진행하였다.

그림 5-3-50 2019년 현대사 길라잡이

2019년 박물관 길라잡이 역사탐방

2019 어린이 길라잡이 수료식

자. 전시해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는 전문해설사에 의한 박물관 정기 해설과 외국인 객원 해설 프로그램이 있다.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설 역량을 보유한 전문해설사는 한국어 및 외국어 정기해설 프로그램

개발과 전시해설 전반의 운영을 맡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에 선발한 17명의 외국인 객원 해설사가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17개국어로 자국어 전시 해설을 제공하였다.

2019년에는 월, 화요일에는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총 2회,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 3시 하루 총 3회의 한국어 정기해설과 단체예약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총 1,325회 18,954명의 관람객에게 전시해설을 진행하였다.

표 5-3-61 2019년 전시해설 현황

구분	한국어		외국어(해설사)		외국어(객원)		총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누 계	1,127	16,167	58	1,012	169	1,746	1,354	18,925

그림 5-3-51 2019년 전시해설사 활동사진

전시해설사 해설사진

외국인 객원 해설사 활동

4) 국립현대미술관

(1) 조직현황

국립현대미술관은 우리나라의 근 · 현대미술과 국제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우수작품들을 소장, 전시함으로써 바람직한 미술문화의 위상 정립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1969년 8월 23일 직제가 제정 · 공포되었고 그 해 10월 20일 경복궁 건물 일부에 개관하여 한국 미술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1970년대 초 급속한 국가경제의 성장을 배경으로 미술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미술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미술관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기본적인 여건, 즉 상설 및 기획 전시장의 확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73년 7월 5일 덕수궁 내의 귀빈실인 석조전을 개조하여 이전 개관하였다. 이후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덕수궁 석조전이 건물구조나 시설 면에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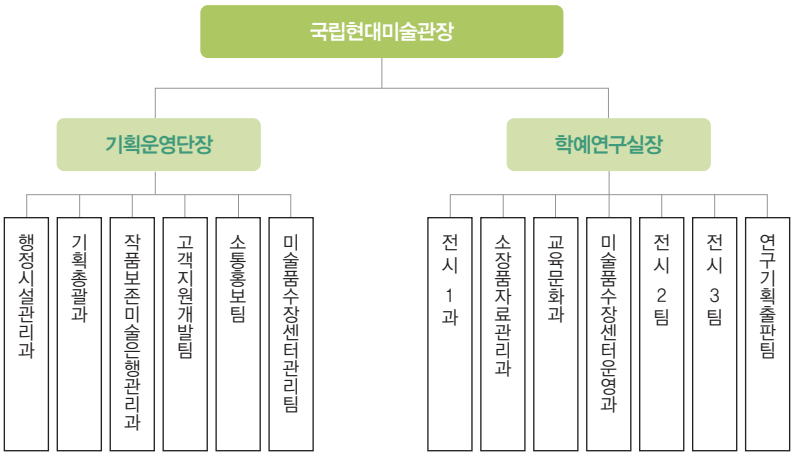
미술인구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한 미술관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작품 소장, 전시뿐만 아니라 미술문화의 보급 및 교육 기능도 미술관의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됨에 따라 충분한 시설과 공간의 확대가 시급해졌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으로 국제적 규모의 시설과 야외 조각장을 겸비한 국립현대미술관의 건립이 논의 되었으며 1984년 3월 29일 마침내 서울 근교 과천시 막계동 문화시설지역 내에 미술관을 착공하여 1986년 8월 25일에 준공, 개관함으로써 우리나라 미술문화의 새로운 장을 펼치게 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98년 12월 1일 덕수궁에 분관인 덕수궁미술관을 개관하였고, 2006년 1월 1일자로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이 강조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어 효율적인 성과관리와 양질의 고객서비스 제공 중심의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1월 15일 '기무사 부지 국립미술관으로 조성' 계획 발표 이후 4년여의 건립 기간을 거쳐 2013년 11월 12일 국민 · 문화예술계 숙원이었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개관하였다. 이어서 2018년 12월 27일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청주의 옛 연초제조창을 재건축한 국립미술품수장센터(청주)를 개관하여 미술품 수장 · 보존 기능과 전시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미술체험을 지역민에게 제공하는 지역 문화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4관(과천관, 서울관, 덕수궁관, 미술품수장센터) 체계를 맞게 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우리나라 대표미술관으로서 미술작품과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조사 및 연구, 미술활동의 보급과 교육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 국제교류를 통한 우리 미술문화의 발전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69년 10월 20일 경복궁에서 최초 개관 시 관장, 사무장, 서무 담당, 운영담당 등 총 8명이 미술관의 관리 · 운영 주체였고 역할도 '대한민국 미술전 관람회'(약칭 '국전')의 운영과 전시업무에 불과하였으나, 1986년 8월 과천청사로 신축이전 하면서 미술관 조직의 면모를 갖추어지기 시작하여 1국 3과 1실 체제로 운영되었다.

또한 서울 도심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관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1998년 12월 덕수궁 분관을 개관하였다. 이후 2006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 2013년 11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2018년 12월 국립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 개관에 따라 조직의 전문성 · 효율성 · 능률성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이 지속되어 왔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립미술품수장센터 개관으로 인한 조직개편을 2018년 12월 말 단행하여 1단, 1실, 7과 · 6팀 체제로 운영중이며 기획운영단에 3과 · 3팀, 학예연구실에 4과 · 3팀을 두고 있다.

그림 5-3-52 국립현대미술관 조직도(1단 · 1실 · 7과 · 6팀)



* 위치: (과천관)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서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0 (덕수궁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99(미술품수장센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 누리집(홈페이지): www.mmca.go.kr

2019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632억 2,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21억 5,400만 원으로, 사업비로 512억 4,700만 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109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세입예산은 22억 5,6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9억 8,500만 원으로 입장료수입 10억 3,900만 원, 건물 및 토지대여료 1억 600만 원, 기타 경상이전수입 5,700만 원, 기타관유물대여료 1,200만 원, 기타재산 수입 및 잡수입 17억 7,100만 원 등이다.

(2) 주요성과

국립현대미술관은 2019년 한해 총 193점(구입 153점, 기증 40점)의 작품을 수집하였으며, 한국화, 유화, 조각 · 공예 등 175점의 소장 작품에 대한 보존처리 및 재질분석을 진행하였다.

2019년 전시개최실적으로는 24회의 기획전과 3회의 해외전이 개최되었다. 소장품 연구기반 전시는 〈신소장품 2017-2018〉이 과천관에서 개최되었고, 청주관에서는 미술품수장센터의 특성을 보여주는 공예 소장품 개방수장고를 추가 개방하였으며 기증 작가에 대한 예우, 소장품 심화 연구 기반 제공을 위한 특별수장고를 개방하였다. 2019년도 국립현대미술관은 개관 50주년을 기념하여 3관 공동 기획전 및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작가 연구를 기반으로 국내외 거장을 조명하는 전시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과천관에서는 〈세상에 눈뜨다: 아시아 미술과 사회 1960S~1990S〉, 〈신소장품 2017-2018〉, 〈야외프로젝트: 숨 쉬는 풍경〉, 〈탄생 100주년 기념-곽인식〉, 〈젊은모색 2019: 액체 유리 바다〉, 〈광장:미술과사회 1900-2019〉 2부, 1950~2019,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 2부 다원예술프로젝트, 〈한국 비디오 아트 7090: 시간 이미지 장치〉, 〈MMCA 커미션 프로젝트 〈당신을 위하여: 제니홀저〉〉가 개최되었다.

한편 〈세상에 눈뜨다〉전은 한국국립현대미술관, 일본도쿄국립근대미술관, 싱가포르국립미술관, 일본국제교류기금 아시아센터 공동주최로 기획한 전시로서 일본도쿄 국립근대미술관에서 첫 번째 순회전을 시작으로 1월에는 국립현대미술관, 6월에 싱가포르 국립미술관에서 순회전을 개최하였다. 또한 1981년 〈청년작가〉전으로 출발한 '젊은모색'은 한국 신진작가들의 실험적이고 도적적인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젊은모색 2019: 액체 유리 바다〉를 개최하였으며, 관별 지리적 · 입지적 특성을 살린 장소특정적 프로젝트로 〈야외프로젝트: 숨 쉬는 풍경〉, 〈MMCA 커미션 프로젝트 〈당신을 위하여: 제니홀저〉(과천, 서울)전을 개최하였다. 아울러, 개관5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를 과천, 서울, 덕수궁에서 각각 〈광장: 미술과사회 1900-2019〉전을 개최하였다.

서울관에서는 한국 대표 작가 개인전인 〈박서보: 지칠 줄 모르는 수행자〉과 〈김순기: 게으른 구름〉, 해외미술 거장전으로 한국-덴마크 수교 기념전인 〈아스거 욘-대안적 언어〉, 융복합 국제미술 전시로서 〈불온한 데이터〉, 〈안톤 비도클-모두를 위한 불멸〉, 국내 작가 지원을 위한 〈올해의 작가상 2019〉,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시리즈: 2019 박찬경-모임〉등이 개최되었다. 또한 〈2019 MMCA 다원예술〉은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50주년 기념전인 〈광장〉전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 연극, 무용, 영상, 사운드 등의 장르를 횡단하는 국내외 작가들의 퍼포먼스를 소개했다. 2019 MMCA 필름앤비디오에서는 격년제 프로그램인 〈아시아필름앤비디오포럼〉을 비롯하여 〈위대한 잠:영화와 모더니즘〉, 〈디어 시네마: 오래된 이미지, 다른 언어〉, 〈디어 시네마: 차이와 반복〉 등을 개발 · 진행하였으며, 여름철 휴가 관람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텍스 에이버리의 이상한 세계〉도 기획하여, 관람객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덕수궁관에서는 한국 근대미술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다룬 전시를 개최하였다. 일제강점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술가로 성장한, 잊혀진 작가들을 재조명한 〈근대미술가의 재발견: 절필시대〉가 열렸고, 미술관 개관 50주년을 기념한 〈광장〉 1부를 통해 근대기 역사와 미술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8년 서울관에서 개최된 〈윤형근〉 회고전이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 중 베니스의 시립미술관인 포르투니 미술관에 순회 전시되어, 해외에 한국 작가를 널리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주관에서는 동시대 현대회화의 독창성을 조망하는 기획전 〈현대회화의 모험: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전을 개최하였다. 또한 청주관 내 · 외부 공간을 활용하여 관람객과의 접점과 소통을 확장하는 야외프로젝트 〈최정화: 민들레〉, 〈코디 최: 베네치아 랩소디-허세의 힘〉, 〈2019 로비프로젝트: 홍범〉을 개최하여 현대미술의 역동성과 독창성을 제시하였다.

전시 외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은 2002년도 창동레지던시와 2004년도 고양레지던시 설립을 통해 작가에게 안정된 작업 공간과 여건을 제공하고 작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문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연구 · 학술 · 출판사업 강화를 통해 한국미술의 위상을 높이고 현대미술에서의 담론을 생산하기 위해 '미술관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부제 아래 미래 미술관의 역할과 전망을 탐색하는 정례 국제심포지엄 및 그와 연계한 총서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도에는 정례 심포지엄을 포함하여 심포지엄 2회, 세미나 2회, 토크 3회, 미술관교육 관련

학회 발표 4회, 보존관련 학회 발표 4회, 미술관협력망 지역대표관 운영실무협의회 2회, 전국미술관관장회의 및 미술관협력 활성화 워크숍 및 2019 공립미술관 보존분야 지원 활성화 워크숍 개최 등 20회의 학술행사를 진행하고 『미술작품의 보존』을 발간하였다. 또한 비평 문화를 활성화하고 한국의 중견 작가를 국내외에 폭넓게 알리기 위한 작가 연구 총서 제2호를 발행하고 기존 『국립현대미술관 연구논문』을 재정비해 혁신호를 발간하였으며, 개관 50주년을 기념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 중 대표성과 대중성을 띤 300점을 소개하는 연구 출판물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300』 국문본을 펴내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소장품, 작가, 전시에 기반한 '열린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참여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미술관 방문객이 상시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생애주기와 연계한 단체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사회적 의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탈북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을 운영하였고,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포함하는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또한, 언제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기반 소장품 강좌' 운영, 미술문화를 접근성을 강화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및 미술관과 공교육 현장을 연결하는 '청소년 작품감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를 지향하는 국립현대미술관 교육 사업의 방향성을 확장하고자 했다. 2019년, 대상별 · 영역별 총 61종의 교육프로그램에 799,245명이 참여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의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차별성 있는 미술관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과천관은 어린이 · 가족 중심의 자연 속 미술관으로서, 어린이미술관, 야외조각공원 등 확장된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친화적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도심 속 서울관은 작가 · 기획자 토크, 강좌 등 성인교육, 상대적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접근성 향상교육, 전시와 연계한 융복합 교육을 운영하였다. 덕수궁관은 근대미술을 주제로 한 전시와 연계한 교육, 시니어 특화 교육 운영을 통해 '고궁 속 미술관' 특성을 강화하였다.

둘째, '열린 미술관, 열린교육'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미술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 · 오프라인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모두에게' 열려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어 작품감상 프로그램, 장애인 예술가 워크숍 등 장애인의 미술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과 치매를 주제로 한 세미나 등을 추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미술문화의 의미를 확장하고자 했다.

셋째, 타분야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전문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소년 교육은 학교현장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교 · 사대 학과장 자문회의와 연구교사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대한치매학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전문기관과 협력 · 연계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문화접근성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했다.

한편, 개관 50주년을 맞아 향후 미술관교육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미술관교육 국제 심포지엄 〈미래세대 성장의 공간: 참여와 확장의 미술관〉을 개최하였다. 국외

우수사례 공유 및 국내 벤치마킹 주제 발표로 구성한 심포지엄은 미술(관)계의 전문성 강화 및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했다. 그리고, 전시특화 문화프로그램, 'MMCA 페스티벌: 광장 · 숲' 등 참여형 프로그램은 예술가와 관람객이 소통하는 미술관 경험의 폭을 확장하고자 했다. 작가의 작업 방식과 연계한 놀이기반 프로그램, 미술관 현장 기반 참여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시로 운영하였으며, 총26,302명이 참여하였다. 앞으로도 국립현대미술관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를 지향하는 다양한 방식의 감상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열린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가. 미술은행 운영

① 목표 및 연혁

미술은행이란 공공기관이 미술품을 구입하여 공공건물에 전시하거나 일반에 임대하는 제도로서, 영국(GAC), 프랑스(FNAC), 독일(IFA) 및 호주(ArtBank), 캐나다(Canada Council Art Bank)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미술품을 구입하여 이를 공공기관의 문화공간화와 국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높이기 위해 대여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미술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작가에게는 작품 구입을 통한 창작여건 개선이라는 복합적인 정책 목표 아래 2005년 미술은행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업시행 초기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실무적인 기능만 수행하였으나 2009년부터 미술은행을 국립현대미술관 사업으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2010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조직 개편을 통해 미술은행 업무 전담 부서가 신설되었다. 미술은행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술계 인사들로 구성된 미술은행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작품 구입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작품가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고, 가격심의위원회에서 구입할 작품의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한 후, 작품구입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2년 10월에 정부미술은행을 발족하여 그동안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던 미술품의 취득 ·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작품을 구입 · 운영하고 있다.

미술은행의 작품구입은 기본적으로 공모형, 제안형, 현장구입형의 세 가지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한편, 2018년에는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수장센터가 설립되어, 기존 과천관과 외부 수장고를 임차해 보관해오던 미술은행 소장품을 청주관으로 이관하였다. 또한 미술은행 소장품 상설전시실 '보이는 수장고'를 조성하여 소장품을 대중에게 상시 개방,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5-3-62 연도별 미술은행 미술작품 구입 내역(2010~2019)

(단위: 천 원, %)

구분	계	공모형	제안형										
			소계	아트 에디션 (구 SIPA)	SOAF	아트 광주	KIAF	MANIF	대구 아트 페어	부산 국제 아트 페어	전시 주목 작품	위원 제안	미술관 제안
2010	1,585,760 (100)	940,500 (59.3)	645,260 (40.7)	–	125,650	–	364,410	155,200	–	–	–	–	–
2011	1,509,850 (100)	832,000 (55)	677,850 (45)	–	121,000	–	256,500	181,200	46,000	73,150	–	–	–
2012	1,508,100 (100)	652,600 (43)	855,500 (57)	87,000	115,800	48,600	275,700	55,900	58,000	27,000	187,500	–	–
2013	1,267,800 (100)	817,100 (64)	450,700 (36)	–	–	–	79,000	–	–	–	–	371,700	–
2014	1,431,000 (100)	760,000 (53)	671,000 (47)	–	–	–	244,000	–	–	–	–	427,000	–
2015	1,949,600 (100)	1,013,100 (52)	936,500 (48)	–	–	–	349,400	–	–	–	–	587,100	–
2016	1,947,700 (100)	970,400 (50)	977,300 (50)	–	–	–	458,800	–	–	–	–	518,500	–
2017	1,949,500 (100)	935,100 (48)	1,014,400 (52)	–	–	–	391,000	–	–	–	–	336,400	287,000
2018	1,950,000 (100)	799,800 (41)	1,150,200 (59)	–	–	–	464,500	–	–	–	–	287,000	398,700
2019	1,950,000 (100)	1,027,800 (53)	922,200 (47)	–	–	–	367,200	–	–	–	–	265,000	290,000

② 운영방식

미술작품 구입 대상작가의 연령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작가별 연간 작품 구입가격 한도 1억 원(정부미술품 제한없음) 규모로 작품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장르별 작품 구입 비율은 2005년 이래 매년 대여 수요자의 작품 선호도를 반영하여 결정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우수한 작품만을 선별하기 위해 평면, 입체, 매체 3개의 분야로 구분하되 장르별 예산 배정 없이 유연하게 구입하였다. 2015년부터는 우수한 작품을 구입하고자 장르 간 구입 예산을 인위적으로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2019년 현재까지 작품을 구입해오고 있다.

표 5-3-63 연도별 미술은행 장르별 작품 구입 및 구입액 내역(2010~2019)

(단위: 점, 천 원)

연도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조각	공예	판화	뉴미디어 및 설치	사진	계
2010	320,950 (47)	19,000 (3)	19,000 (3)	827,010 (120)	145,950 (22)	45,100 (10)	47,100 (12)	55,300 (8)	106,350 (22)	1,585,760 (247)
2011	310,800 (51)	0 (0)	8,200 (2)	803,150 (132)	177,900 (30)	27,400 (7)	44,000 (20)	50,000 (8)	88,400 (17)	1,509,850 (267)
2012	268,300 (58)	4,000 (1)	0 (0)	754,000 (137)	219,000 (33)	39,500 (6)	22,100 (7)	44,000 (8)	157,200 (31)	1,508,100 (281)
2013	213,100 (18)	12,000 (1)	6,500 (1)	807,500 (47)	87,500 (6)	36,000 (2)	10,000 (2)	10,000 (1)	85,200 (8)	1,267,800 (86)
2014	197,000 (24)	4,000 (1)	11,500 (3)	840,000 (71)	151,000 (13)	34,500 (6)	7,000 (2)	85,000 (8)	101,000 (9)	1,431,000 (137)
2015	266,300 (39)	0 (0)	8,000 (2)	1,166,750 (120)	153,500 (16)	25,000 (3)	29,500 (6)	89,750 (9)	210,800 (22)	1,949,600 (217)
2016	292,400 (41)	9,000 (1)	10,000 (2)	1,177,600 (130)	160,500 (17)	56,200 (9)	22,500 (5)	57,000 (7)	162,500 (22)	1,947,700 (234)
2017	182,500 (20)	19,000 (2)	5,000 (1)	931,800 (97)	296,200 (15)	42,000 (4)	49,500 (3)	106,500 (10)	317,000 (17)	1,949,500 (169)
2018	188,600 (26)	3,000 (1)	6,000 (1)	1,228,400 (114)	161,800 (17)	7,000 (2)	6,000 (1)	173,000 (10)	176,200 (19)	1,950,000 (191)
2019	211,000 (27)	2,500 (1)	9,000 (2)	1,167,200 (99)	123,000 (12)	20,500 (3)	17,300 (4)	159,000 (16)	240,500 (22)	1,950,000 (186)

* ( ) 작품 구입 수

표 5-3-64 연도별 정부미술품 장르별 작품 구입 및 구입액 내역(2012~2019)

(단위: 점, 천 원)

연도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조각	공예	판화	뉴미디어 및 설치	사진	계
2012	73,500 (9)	0	0	260,400 (28)	63,000 (5)	0	0	63,000 (5)	40,000 (2)	499,900 (49)
2013	82,000 (11)	0	7,000 (1)	179,000 (22)	43,000 (5)	4,000 (1)	21,100 (10)	26,000 (3)	44,500 (7)	406,600 (60)
2014	132,900 (21)	9,000 (1)	10,600 (3)	308,100 (51)	25,000 (4)	15,000 (2)	14,800 (5)	25,000 (4)	59,500 (13)	599,900 (104)
2015	175,900 (30)	5,000 (1)	9,500 (2)	410,300 (69)	46,100 (10)	19,500 (4)	25,300 (11)	40,800 (5)	67,600 (17)	800,000 (149)
2016	179,500 (29)	0	2,000 (1)	377,500 (61)	39,500 (6)	17,200 (5)	13,200 (4)	45,500 (6)	123,600 (21)	798,000 (133)
2017	110,000 (17)	3,000 (1)	4,000 (1)	416,500 (47)	56,100 (10)	20,100 (5)	15,300 (4)	111,000 (6)	64,000 (9)	800,000 (100)
2018	158,790 (26)	3,000 (1)	4,000 (1)	789,100 (78)	159,200 (16)	11,300 (4)	3,700 (3)	90,400 (11)	80,500 (13)	1,299,990 (153)
2019	196,550 (25)	0	14,000 (1)	776,750 (63)	95,700 (10)	48,000 (3)	5,000 (2)	63,900 (7)	97,100 (17)	1,297,000 (128)

* ( ) 작품 구입 수

미술은행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작품을 대여하여 쾌적한 공간 조성과 사무실 환경개선 및 미술문화 향유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 미술은행은 198개 기관에 총 2,799점(전체 소장품의 74%), 정부미술은행은 211개소에 2,213점(95.7%)을 대부하는 한편 '주키르기즈대사관', '국립생물자원관' 등 61개처에 신규대여를 추진하였다. '군산교도소', '한내초등학교' 등 무상대여사업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의 미술문화 향유에도 힘쓰고 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작품대여를 추진하여 국가적 행사에 기여하는 한편, 2019년 한 해 총 95개 재외공관 1,005점을 대여함으로써 한국미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밖에도 지방문화예술회관, 지방 미술관 등의 기획전에 작품을 대여하거나 공동주최를 통해 미술문화의 저변 확대를 지원하였다.

표 5-3-65 현행 미술은행 작품 대여 요율

구분	국내의 기관 등 환경조성		국내기관의 기획전시(비영리목적)	재외공관 등 한국미술의 홍보 (1~5년)
	1~6개월	7~12개월	1~6개월	
대여 요율	1.5%	1.0%	0.5%	0.5%

※ 대여료는 작품 총 가액(구입가격) x 대여 요율 x 개월 수

표 5-3-66 연도별 미술은행 작품 대여 실적(2010~2019)

연도	대여횟수 (회)	대여기관수 (개소)	대여 작품 수 (점)	대여 작품 총가 액 (천원)	대여 수익 (천원)
2010	99	68	1,048	6,000,070	380,388
2011	130	89	1,212	6,930,020	385,775
2012	145	99	1,362	8,003,940	440,875
2013	159	106	1,553	9,554,740	491,265
2014	152	100	1,370	8,572,440	466,262
2015	207	146	1,916	12,639,800	579,353
2016	266	188	2,548	16,925,150	778,838
2017	282	205	2,761	18,803,860	854,657
2018	315	200	2,889	20,667,460	1,003,304
2019	309	198	2,799	20,903,650	966,626

③ 성과 및 전망

국공립기관 및 미술문화 공간 등에 대한 대여실적은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대여료 수익 9억 6천만 원을 달성하고 미술 문화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술은행 소장품 구입도 매년 확대되어 미술인 복지와 미술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미술은행 사업은 우수한 작품 수집을 위해 다양한 경로의 작품구입과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입 심사기능 강화, 공정한 작품가를 산출하기 위한 가격 평가기능 강화, 제도 운영의 투명성 보장 등 제도개선에 힘써왔다. 미술은행은 향후 공공기관 보유 미술품 관리 체계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법인화 추진과 관련 법 제정에 예술계와 미술시장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제4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정책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지역에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적 문화 프로젝트이다. 시간적으로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공간적으로는 광주광역시 및 대한민국, 아시아와 전 세계를 포괄하여 진행되는 새로운 개념의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외적으로는 서구의 주변에만 머물던 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진흥의 장을 마련하고, 국내적으로는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도시인 광주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자연환경을 토대로 신개념의 문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문화와 창의력이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문화가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사회를 구현하고, 중앙과 지방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서구 중심주의를 극복하면서 아시아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문화가 도시나 국가의 성장에서 하위개념이 아니라 중심개념으로 기능하면서 문화생산과 유통, 소비, 창조가 이루어지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되 '아시아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범 아시아적 차원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분야나 지역별로 접근하는 기존 문화정책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가의 문화적 자원과 지역의 역량을 전 방위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 기업 등 다양한 단위의 협력 체제를 통해, 국가 전체의 문화적 역량을 결집하여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인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지향하는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2/3와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회의 대륙이다. 최근 서구 중심주의로 인해 저평가되고 소외되었던 아시아의 문화 자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아시아 문화'는 아시아 국가 간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내고 동반 성장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핵심가치로 부상하고 있다. '아시아 문화의 중심'은 다양성에 기초한 아시아 문화의 진수를 발굴하고 아시아 국가 간 문화협력과 연대를 평화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교류의 구심점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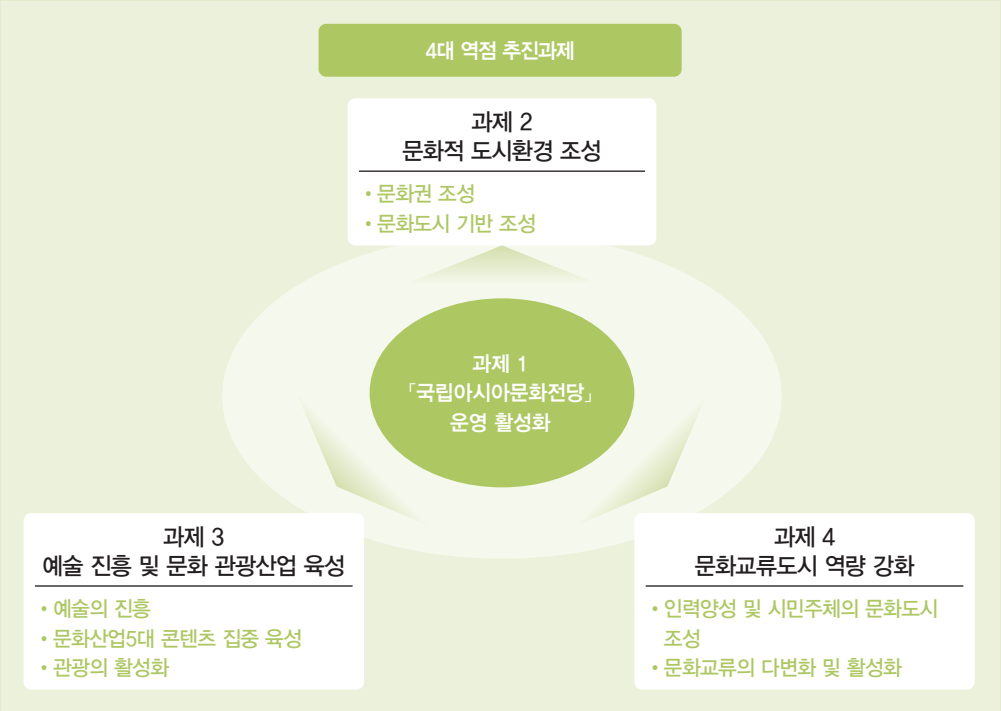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방향은 2007년 발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2007년 10월)에 제시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를 중심에 두는 미래형 도시발전의 비전과 전략이 담긴 종합계획 수립을 2003년부터 진행하였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쟁점을 해소하고, 지역 언론과 시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다양하고 폭넓은 여론 수렴 과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2007년

10월 법정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비전은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 – 문화로 아시아와 함께 세계로'이며 광주를 아시아 문화와 자원이 상호 교류하는 문화도시로 육성하여 아시아 각국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을 동 · 서 문화의 균형과 개방 · 소통의 장으로 조성하여 문화다양성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기본방향】
◈ 사업기본체계 및 투자규모(5.3조) 등은 기존계획 상의 기본 틀 유지
◈ 4대 역점과제별 적극적 개선책 통해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 운영' → '운영 활성화'에 초점
- ㅇ '7대 문화권' 실효적 개편(5대 문화권),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 정상화
- ㅇ 예술진흥 및 문화 · 관광산업 분야 특화사업 발굴, 적극 예산확보
- ㅇ 문화교류 활성화 등 도시 역량 및 위상 강화 체계적 추진

◈ 조성사업의 효율화 · 내실화 병행 추진
- ㅇ 종합계획 → 연차별 실시계획 → 예산반영 등 단계적 내실화 검토 · 추진
- ㅇ 기 조성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현황 점검 및 개선 관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목표는 '아시아 문화가 교류 · 집적되고 연구, 교육, 창조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도시'이며, 국제적 문화공동체 도시인 '아시아 문화교류의 도시', 아시아 예술가들의 창작 · 연구 · 교류를 통하여 세계 문화예술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문화예술을 매개로 자유 · 평화를 구현하여 사회 통합의 토대가 되는 '아시아 평화예술의 도시', 문화를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하여 고부가가치 감성경제를 구현하는 '미래형 문화경제의 도시'를 구현하는 것이다.

2. 일반현황 및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2007.3.28.시행)을 통해 조성사업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법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법 시행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종합계획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쟁점을 해소하고, 지역 언론과 시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하고 폭넓은 여론 수렴 과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2007년 10월 법정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종합계획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적인 원칙과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 아시아 각 국과 동반성장의 견인차가 되는 문화교류도시로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4대 역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교류 · 창조 · 연구 · 교육을 통해 아시아 문화허브를 조성하려는 국가적 전략 사업인 동시에 문화와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을 균형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화를 도시운영의 중심원리로 하는 새로운 도시모델 형성이라는 선례적 성격과 지방정부의 문화 시설 · 인력 · 재원 등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추진 체계가 필요하였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의거하여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조성사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을 살려 조성사업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 각 부처의 장관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성위원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방향, 종합계획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 ·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근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되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4대 핵심과제 중 제3과제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에서 투자활성화 기반 조성(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5-4-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주요 업무

부서명	추 진 업 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 · 조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 • 아시아문화원의 지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지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문화교육 및 시민참여 지원 •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복원추진단)은 옛 전남도청을 1980년 5 · 18민주화운동 당시로 복원하고 전시 · 기념 · 추모의 공간으로 재창출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9년 8월 27일「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2022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되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4대 핵심과제 중 제2과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사업 중 옛 전남도청(보존건물군)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복원추진단의 주요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5-4-2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주요업무

부서명	추 진 업 무
복원협력과	•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관계부처 · 지방자치단체 · 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 •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 전시관 운영 및 전시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 복원 관련 자료의 수집 · 분석 · 검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

부서명	추 진 업 무
복원시설과	•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옛 전남도청 건물의 복원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에 관한 사항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광주광역시에 설립 · 운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시아문화자원과 동시대 예술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향유 · 창제작 · 체험의 장과 전문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 7월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작발전소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 창작 · 마케팅하며, 국제적인 명소인 동시에 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민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브랜드의 가치 제고를 위한 문화외교의 핵심거점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표 5-4-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요 업무

부서명	추 진 업 무
기획운영과	1. 주요 업무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시행 2. 문화전당 정책 연구 및 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법령, 규정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5. 조직 · 정원 및 임용, 복무, 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6. 예산 편성 · 집행 · 결산에 관한 사항 7. 국회 · 감사에 관한 사항의 총괄 · 조정에 관한 사항 8. 계약체결 및 지출에 관한 사항 9. 물품 및 국유재산(민주평화교류원은 제외)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보안 및 당직 · 민방위 및 비상계획 업무 11. 직원의 연금 ·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2. 관인관수 및 문서의 수발 · 통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13. 아시아문화원에 관한 사항 14. 문화전당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15. 문화전당 통계총괄 분석 16. 중장기 정보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전산시스템 및 정보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재정자립도 제고 및 수익창출 전략 수립 · 시행 19. 문화전당 공간 및 시설 · 장비의 대관에 관한 사항 20. 문화전당 내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1. 문화전당 마케팅 계획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2. 문화전당 회원제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23. 문화전당 이용 고객에 대한 지원 서비스 및 민원에 관한 사항 24. 문화창조원 · 예술극장 · 어린이문화원 · 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파크 전시콘텐츠 및 야외축제의 단체관람 및 전시해설(도슨트)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명	추 진 업 무
기획운영과	25.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문화전당 콘텐츠 관련 매 · 수표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연구교류과	1. 아시아 문화 관련 연구계획 수립 및 추진 2. 아시아 문화 관련 자료수집 · 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3. 조사 · 연구자료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 4. 아시아 문화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기획 및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전당 기관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및 문화전당 수장고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7. 아시아문화자원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아시아문화연구소 · 문화자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문화전당 국내외 교류 · 협력 기본계획 수립 · 시행 10. 문화전당 운영 관련 국제기구 및 지자체 등 국내외 단체 ·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기획 • 운영에 관한 사항 12. 민주 · 인권 · 평화 관련 자료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3. 문화정보원 종합계획 수립 · 시행 및 콘텐츠 기획 · 운영에 관한 사항 14. 민주평화교류원 기본 콘텐츠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15. 기타 문화정보원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창조과	1. 문화전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전당 관련 방송 · 언론홍보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전당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관리 4. 문화전당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대학생기자단 관리 5 문화전당 공연 · 전시 · 교육 및 융복합 콘텐츠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6. 문화창조원 · 예술극장 · 어린이문화원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문화전당 융복합 콘텐츠 창 · 제작 및 연구 · 조사 · 개발에 관한 사항 8. 문화전당 창 · 제작 콘텐츠 저작권 총괄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9. 문화전당 통합 레지던시 사업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0. 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 11. 문화전당 문화상품 개발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2. 문화전당 융복합 콘텐츠 전시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문화전당 예술공연 ·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문화전당 야외축제 · 문화행사 등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문화예술 기술인력 양성과정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어린이문화원 체험콘텐츠 기획 ·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7.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과	1. 문화전당 시설물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문화전당 건물 및 시설물의 신 · 증축에 관한 사항(민주평화교류원은 제외) 3. 문화전당 건물 및 시설물의 개선(리모델링, 인테리어 등)에 관한 사항(민주평화교류원은 제외) 4. 문화전당 건축 · 토목 · 조경 시설물 유지 · 보수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전당 시설물 안전계획의 수립 및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6. 문화전당 냉난방 · 환기 · 급수 시스템의 유지 · 보수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7. 문화전당 실내 공기질 · 수질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문화전당 전열 · 조명 · 정보통신 시스템의 유지 · 보수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9. 문화전당 방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문화전당 소방안전 및 시설물 안전관리(재난관리 포함)에 관한 사항 11. 문화전당 내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중장기 개선방안 수립 및 시행 12. 문화전당 친환경 설비시스템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관한 사항 13. 문화전당 시설물 관리 위탁용역 운영에 관한 사항 14. 문화전당 시설 방호에 관한 사항 15. 문화환경개선(공공미술 포함) 및 공간디자인에 관한 사항 16. 문화전당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아시아문화원

아시아시아문화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근거해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관련 홍보 · 교육 · 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 ·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10월 1일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아시아문화원의 기관 미션은 '아시아 문화예술 연구를 통한 콘텐츠 창제작 및 유통'이며, '세계 최고의 아시아 문화 콘텐츠 창제작 PARTNER'를 비전으로 국내 · 외 문화예술가, 지역사회, 유관기관,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사 등과 협업 하고 있다.

표 5-4-4 아시아문화원 주요 업무

부 서		주요 업무 범위
법무감사팀		• 연간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일상, 정기, 특별감사) • 대외감사 수감 업무(감사원, 문체부 종합감사 등) • 법무관련 업무(소송, 계약 권리관계 검토) • 기관 청렴문화 개선 업무(기관 청렴도) • 윤리경영 업무 • 적극 행정 관련 업무
경영혁신본부	전략기획팀	• 기관운영계획 수립(연간, 중장기), 대외 업무보고 • 기획조정 • 대정부 업무 • 예산확보, 사업별 예산 편성, 결산업무, 집행통제, E나라도움 관리, ERP 예산 관리 • 기부금사업 관리 • 이사회, 조직, 직제, 제규정 관리, 제도개선 • 공공기관 관리 업무 • 공공저작물 관리운영, 정보공개청구 처리 • 인사 및 노무관리(인사, 평가, 채용, 교육) • 공무직 전환 업무 • 임금피크제 운영 • 보수체계 개편(직무급제 도입) • 기관장 의전, 대내행사 • 기관 MOU 체결검토 및 성과관리 • 청사관리(홍보관, 시설물 보안 포함) • 국유자산 관리(공간, 장비 포함), 물품, 차량, 자산관리 • 제증명, 인장, 기록물, 출입 및 사원증 관리 • 기타 총무업무(복무, 복리후생, 급여, 퇴직금, 연말정산) • 운영지원사업, 장비유지보수사업 • 소방 및 보건안전 관련 업무
	혁신평가팀	•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업무 •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 및 관리 • 기관 혁신평가 도입/관리 • 사회적 가치 평가 업무
	경영지원팀	• 계약관련 업무(구매, 용역, 임차, 공사, 조달, 공공구매 등) • 자금, 수입, 회계계정 · 장표 정리 및 관리 • 회계결산(분기, 연간) •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 • 세무(법인세, 부가세)신고 및 납부 • 법인계좌개설 · 법인카드 발급 및 관리 • ERP 및 그룹웨어 관리

부 서		주요 업무 범위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기획팀	• 콘텐츠 중장기 전략 수립 • 아시아 문화자원(전문) 연구 및 수집 • 오월 정신(민주 · 인권 · 평화) 콘텐츠 연구 개발 • 아시아 문화콘텐츠 개발 및 발간 • 학술 · 교류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 시네마테크 기획 및 운영 • 라이브러리파크 콘텐츠 기획 및 운영 • 문화원 연구사업 관리
	아카이브팀	• 아시아 문화자원(기초, 기증, 기관, 정보자원) 연구 및 수집 • 문화자원 등록 및 정리, 보존 및 서비스 • 라이브러리파크 공간 기획 및 운영 • 수장고 관리 • 자료심의위원회 운영 • 〈아시아문화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관련 업무 지원(문체부 등록) • 자원관리시스템(아카이브, 도서) 운영 및 정보화 전략 수집 지원 • 문화정보원 안전문화 관련 업무
민주평화교류센터	지역협력팀	• 지역상생협력 및 소통 총괄 • 민주 · 인권 · 평화 특별기획전 • 민주 · 인권 · 평화 네트워크 구축 • 민주평화기념관 전시연계 · 시민참여 프로그램
	국제교류팀	•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사업 총괄 • 국내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관리 •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 운영 • 아시아국가간 사회적 가치 증진 사업 • ODA사업 총괄 • 아시아 커뮤니티 사업 기획 및 운영 • ACC_R 프로그램(라익스아카데미, 전통음악, 스토리, 무용, 문학, 문화상품)운영
콘텐츠사업본부	ACT기획팀	• 융복합콘텐츠 기획 · 개발 · 제작 · 유통 업무 • 문화창조원 상설 쇼케이스 운영 • 크리에이터스인랩 사업운영 • 미디어월 콘텐츠 제작 및 운영 • 창제작스튜디오 운영, 관리 • 공연/전시/교육 등 융복합 창제작 관련 기술 지원 • 콘텐츠 IP 관리 • 창제작 안전문화 관련 업무 • ISEA 2019 후속조치
	공연기획팀	• 공연기획 · 제작 · 유통 업무 • 야외공연 기획 및 운영 • 월드뮤직페스티벌 기획 운영 • 이동식무대차량 콘텐츠운영 • 공연장 안전문화 관련 업무 • 공연장 하우스 운영 • ACC_R 프로그램(씨어터, 월페) 운영
	전시기획팀	• 전시기획 · 제작 · 유통 업무 • 전시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 • ACC 창작공간 네트워크 레지던시 업무 • 원내 전시업무 지원 • 전시장 안전문화 관련 업무
콘텐츠사업본부	무대기술팀	• 공연장 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 • 무대기술(무대, 조명, 음향) 운영 및 지원 • 야외공연 기술지원 • 대관업무 기술지원 • 이동식무대차량 관리

부 서		주요 업무 범위
교육사업본부	교육콘텐츠 개발팀	• 신규 교육콘텐츠 기획 • 예비전문인력(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운영 • 전문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전문인력양성_해외인턴쉽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ACC 문화예술 최고위과정 기획 • ACC 아카데미_시민아카데미, 인문강좌, 목요일의 문화시계 • 지역참여 문화예술 교육콘텐츠 개발 • 교육현장 안전문화 관련 업무 •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교육복지 사업
	교육사업팀	• 문화다양성 교구재 및 프로그램 기획, 운영 • 문화예술교육(정기형, 당일형, 특별프로그램) 기획 • 어린이체험관 전시(기획전, 상설전) 기획, 설치, 운영 • 어린이체험관 워크숍 프로그램 기획 • 어린이도서관 및 유아놀이터 운영, 관리 • 창작실험실 프로그램 및 공간 운영, 관리 • 어린이문화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홍보 마케팅 및 팸투어 • 하우펀(어린이가족문화축제) 기획, 운영 • 교육강사, 문화교육가 워크숍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체험관 안전문화 관련 업무 • 문화소외계층 어린이 교육복지 사업
문화사업본부	홍보마케팅팀	• 홍보/마케팅 전략기획 수립, 콘텐츠 홍보마케팅, 제휴마케팅 • 콘텐츠 및 상품가격심의위원회 운영 • 촬영 및 편집 지원(편집실 운영) • 디자인 가이드 관리 및 감수 • 후원회 운영 및 기부금 조성 • 문화상품 개발 및 유통, 출판물 유통 • 전당 공공미술 관련 업무 • 사회적 경제 주체 육성 · 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아시아컬처마켓 등) • 기관 SNS 운영 관리
	고객지원팀	• 시설별 현장 서비스인력 교육/관리 • 고객 안전 및 만족도 관리 • 공간 활성화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 시설대관, 기획대관 업무 • 재난 · 안전 관리 및 안전문화 총괄 • 고객헌장 서비스 이행관리 • 티켓 관리업무 • 전당 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 • 기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정보화 사업, 정보보안, 정보 인프라 운영 • 개인정보보호, 기관정보화 평가 업무

6)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5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 시민문화진흥,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업무추진을 위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과 명	추 진 업 무
문화도시정책관	• 문화관광체육실 소관업무 총괄 및 문화정책 종합기획 · 조정 • 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 시행 · 조정 • 5대 문화권 조성사업 및 아문도시 조성 지원포럼 운영 • 국제문화교류 및 아시아문화예술 활성화 거점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각종 공연예술행사의 기획, 운영 및 관리 • 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 문화예술회관 등 기관 지도감독 • 공공도서관 육성 · 지원 및 독서문화진흥정책 총괄기획 · 조정
문화기반조성과	• 문화예술벨트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 수립 및 시행 •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 문화재 정책 수립 및 관리 운영 • 4개 사우 및 향교지원에 관한 사항 • 시립민속박물관 지도 · 감독
문화산업과	• 문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 문화산업 시설지원 및 지도 · 감독(정보문화산업진흥원) •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개발 · 시행 및 지원 • 문화산업 5대 전략콘텐츠 육성 · 지원 및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영화 · 영상 · 음악 ·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 투자진흥지구 및 공예문화산업 육성 · 지원
관광진흥과	• 관광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국내외 관광홍보관 운영 및 관광자원 DB구축 • MICE산업 육성전략 수립 및 지원 • 관광상품 개발 및 국내외 관광객 마케팅 • 관광안내소 운영, 광주관광컨벤션뷰로, 김대중컨벤션센터 지도감독 •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단)지 지정 · 개발 · 관리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 종목단체, 선수 및 지도자, 전문체육 대회 등 육성 · 지원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광주FC 등 프로스포츠 육성 • 생활체육 육성계획 수립추진 및 생활체육단체 육성 지원 • 학교체육시설 개방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 • 공공 스포츠클럽 활성화 • 장애인 체육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 장애인체육 관련단체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 • 공공체육시설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공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 U대회 정산 및 소송 등 사후관리 업무

3. 주요 정책 및 성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의하면 4대 역점 과제별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도시 발전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조성사업의 4대 역점과제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실험적 문화발전소로 아시아문화자원과 동시대 예술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향유 · 창제작 · 체험의 장과 전문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 6월 착공 후 6년이 지난 2014년 10월 준공을 완료하였고, 마침내 2015년 11월 25일에 개관했다.

지역–한국–아시아사를 잇는 문화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문화외교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적인 문화예술기관 및 예술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아시아의 문화적 특성을 토대로 장르 · 테마별 네트워크의 전략적 구축을 통한 아시아문화콘텐츠의 공동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고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민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문화공간 제공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시민기획자 · 예술가 등의 문화예술 커뮤니티를 양성, 교육을 통한 대중친화적 문화향유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기본 구동원리는 교류–연구 · 조사 · 수집–창 · 제작–시연–교육–유통 등 5개원 기능이 상호 연계 · 순환되어 미래형 문화예술콘텐츠를 창 · 제작하고 유통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그림 5-4-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책목표 및 방향

미션	아시아 동시대 문화예술의 교류와 창조 플랫폼
비전슬로건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窓)
정책방향	중점 추진과제
실험적 문화발전소	① 콘텐츠 창 · 제작 활성화 및 기반 강화
지역–한국–아시아를 잇는 문화플랫폼	② 아시아 문화연구 및 국내외 교류 체계화
대중친화적 문화향유 공간	③ 대중적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지역협력 확대 ④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고도화
기관역량 강화	⑤ 고객서비스 개선 및 조직관리 혁신

(1) 아시아와 지역, 세계를 잇는 문화적 교량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 소개와 가치 확산 및 국제교류의 다각화 하고자 국내외, 지역사회, 문화예술관련 기관 등의 문화적 교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 · 교육 · 연구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아시아 동시대 문화예술의 교류와 창조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2019 아시아문화주간〉을 개최하면서 약 30여개에 달하는 포럼 · 회의 · 전시 · 공연 · 야외축제 등을 개최하였으며, 국립외교원과 협력하여 〈한-아세안 외교 30주년을 말하다〉 북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우리 국민이 아시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주한아시아국가대사관,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단체, 유학생, 이주여성단체, 고려인 등 다양한 아시아공동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아시아문화마당〉은 이름에 걸 맞는 문화교류 소통의 장이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아시아 각국과 호혜적 관점에서 교류를 추진하고, 아시아 예술인들이 공동으로 연구 및 창작할 수 있는 아시아예술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장르 및 아시아 권역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아시아전통음악커뮤니티(한-동남아 협력), 아시아무용커뮤니티(한-동남아 · 남아시아 협력), 아시아스토리커뮤니티(한-중앙아 협력)를 운영 중이며, 각각의 예술커뮤니티의 원활한 국제협력을 위해 정부간 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들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2019년 총 10건(국내9건, 국외1건)의 MOU를 체결했다. 대표적으로 대만 타이페이 도서전재단(문화자원 공동 활용 및 협력), 육군보병학교(월별 정기적으로 문화전당 투어), 주한 독일문화원(〈이주서사 Migration: Speaking Nearby〉 전시 개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문화전당 부설 주차장 이용 및 전당 콘텐츠 홍보, 지역발전 및 공동 번영) 등이 있다. 이들과의 다양한 물적 · 인적 교류의 확장을 통해 국내 및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협력하는 2019년 49건의 프로그램을 긴밀하게 진행했다.

5 · 18 민주화운동의 최후 격전지였던 옛 전남도청 등이 위치해 있는 민주평화교류원을 중심으로 5 · 18의 민주 · 인권 · 평화의 가치를 범아시아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9년에는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 일대) 시민개방 행사 및 5 · 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공동 기획전시 〈전남도청-시간, 장소, 사람 그리고 기억〉를 개최했다. 이 외에도 민주 · 인권 · 평화 가치 나눔을 위한 사진전 〈안녕! 민주주의〉, 전통예술공연 〈대동해원〉, 가치 나눔 콘서트 〈들풀처럼〉, 특별기획전 '그녀의 이름은(Her name is)'을 선보였다.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실무자회의를 개최해 캄보디아투올슬랭대학살기념관, 방글라데시독립전쟁박물관, 인도네시아인권박물관, 소촌아트팩토리 등과 아시아지역 교류협력 플랫폼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도 있었다.

그림 5-4-2 아시아예술커뮤니티 성과물(음악, 무용, 스토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를 기반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창의성, 감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연령 · 대상 · 수준별로 공연, 교육, 체험전시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전당의 현장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의 교육 및 재교육 과정인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기본교육과 함께 분야별 멘토를 지원해 콘텐츠를 창작하는 정규과정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창작된 어린이 문화콘텐츠와 융복합 문화기획의 결과물은 각각 어린이문화원과 문화창조원에서 관람객이 직접 접할 수 있게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과정은 문화예술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특강을 운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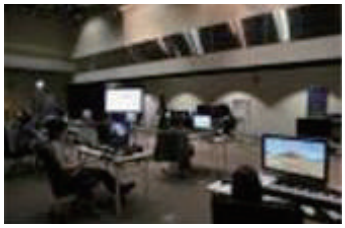
시민대상의 문화역량 강화 교육은 다회차 지속형 문화예술 교양강좌인 '시민아카데미'(21강, 440명), 지역의 문화예술기획자 및 단체들과 함께 하는 워크숍 '오픈아카데미'(4종, 205명), 다분야의 명사를 초청하는 '인문강좌'(8회, 1,479명), 콘텐츠의 창 · 제작에 참여한 유명 작가, 연구자를 직접 초청해 보다 심층적으로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초청강좌'(8회, 581명), 문화도시 기획 및 운영 전문 심화강좌 '문.전.성.시'(문화전문가로 성장하는 시간/6회, 320명)를 진행했다.

청소년교육은 진로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문화전당을 특색 있는 문화예술진로 체험처로 인식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진로직업체험의 경우, 전당의 공간 및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예술 관련 전문 직업군의 핵심 업무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일일형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동시대 문화예술분야를 선도하는 직업군의 전문가로부터 다회차 심화수강을 할 수 있는 심화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교육은 아시아 문화권을 바탕으로 주제중심 창작활동과 프로젝트 수행을 겸비해야 하는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과학기술과 예술적 상상력을 결합하여 재창조화는 과정을 경험하는 예술창작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소규모 어린이공연을 개발하기 위해 아시아 설화와 민담 등을 소재로 한 어린이 공연 작품도 창 · 제작하고 있다. 2019년까지 10편의 작품이 제작되었으며 지역 어린이공연 창 · 제작 환경을 지원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중 〈보이야르의 노래〉, 〈우산도둑〉이 각각 제12회 대한민국 연극대상 2019 공연 베스트 7(보이야르의 노래), 제28회 서울어린이연극상 3관왕(우산도둑/ 대상, 연출상, 관객인기상)을 수상하여 ACC어린이 창 · 제작 공연 사업의 결실로 자리매김했다. 〈우산도둑〉은 2018년부터 시행해 온 배리어 프리 서비스를 적용하여, 공연 제작팀과 함께 전문 수어 통역사가 작품 연습에 참여하여 배우처럼 함께 움직이며 수어통역과 함께 연극장면을 읽어주는 음성 해설을 진행하여 공연관람 문화에 변화를 시도했다.

그림 5-4-3 어린이교육, 시민아카데미 등

어린이창제작공연 보이야르의 노래


인큐베이팅 – 사운드엔지니어

시민아카데미

(2) 창제작을 위한 거점 공간 대표 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의 지식, 감성, 창조력을 바탕으로 하는 콘텐츠의 정체성 강화를 위하여 아시아 문화 연구를 지속하여 왔으며 주로 스토리, 조형 · 상징, 공연 · 의례, 의식주, 이주 · 정착 등 5대 영역을 중심으로 인문학적 가치 및 창작소재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선정해, 이에 조응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 · 연구 · 수집해왔다.

2019년에는 동남아 지역의 축제와 의례 · 공연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위대한 유산, 동남아시아〉(2016년부터 추진, ACC-EBS-UNESCO ICHICAP 3개 기관 컨소시엄 사업 '아시아의 전통지식 및 무형문화유산 영상기록')를 제작 방영, 연구성과 집적 · 공유 · 확산을 위해 아시아 문화예술관련 인문교양총서 시리즈『아시아플러스 (Asia+)』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부터 서아시아까지 아시아 문화 예술 전문가들이 기고한 칼럼을 모은『아시아컬처랩 (Asia Culture Lab)』발간, 사회적약자 및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오디오북을 제작 · 배포하였다. 아시아 문화예술 연구자와의 교류 및 연대제고를 위한 방문학자 프로그램 'ACC_ R Fellow'는 2019년 총 7명의 학자를 지원했다.

이렇게 연구 · 조사 · 수집된 아시아문화예술 자원은 콘텐츠 창 · 제작의 원천소재 및 전시, 공연, 학술, 교육, 이해자료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수집 자료는 총 13개 컬렉션 1만 6천여 건이며 이를 아카이브 홈페이지와 더불어 라이브러리파크를 통해 열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이브러리파크에서는 아카이브 자원을 활용한 전시 및 활용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특히 2015년 개관 이후부터 아시아문화예술 아카이브 13개 주제 전문관은 상성전시로 운영되고 있고 2017년부터는 기관의 연구와 아카이브 성과를 소개하는 〈수집과 연구〉를 매해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특별기획전 〈아시아의 표해록〉, 〈많은 섬들의 나라, 누산타라〉를 개최하였고, 상설전시인 〈아시아의 소리와 음악〉(말레이시아 대중음악 컬렉션 기획전 : 팝 누산타라 노래들), 〈아시아의 필름앤비디오〉 등을 부분 개편하였다. 또 라이브러리파크 내에 연속 간행물과 도서류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인 북라운지를 조성해 문화전당 운영시간 종료 후에도 야간운영(22:00, 단, 일요일~18:00)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론과 회의가 이뤄지는 협업 공간인 커뮤니티룸은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사전 예약을 받아 운영(~17:00)되고 있다.

2018년 시작된 시네마펀드의 경우 2019년에는 시네마펀드 공식시사회를 시작으로

〈국립현대미술관 필름앤비디오〉, 〈오버하우젠 국제단편영화제〉 교류프로그램과 방학특집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입문〉을 개최했고, 한국영화 100주년 기획전 〈한국 나쁜영화 100년〉등의 상영 프로그램 기획과 서비스를 통해 쉽게 접하기 힘든 아시아의 다양한 영상의 활용 기회 및 발전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그림 5-4-4 **연구 · 조사 · 아카이브 관련 결과물 및 라이브러리파크 운영**

위대한유산 동남아시아 EBS방영

아시아문화 아카이브
(http://archive.acc.go.kr)

북 라운지 조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ACC_R'은 창 · 제작자(미디어, 공학, 디자인, 공연 제작, 작가, 융복합 분야 등), 아시아문화 관련 연구자, 기타 예술가 등을 대상으로 국제공모, 기관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참여시키고 있다. 특히 교류를 기반으로 한 공동작업의 비중이 큰 편으로 내 · 외부 인력 간 협업, 국내 · 외의 인력 간 협업을 통한 콘텐츠 제작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일반적으로 개인작업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타기관의 레지던시 사업과는 현저히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2019년에는 3분야(연구, 창제작, 기관협력)로 운영되었으며, 총 30개국 168명이 참여하였다. 결과물로는 연구보고서 7종, 공연 13종, 제작다큐영상 2종, 디자인 등록 12건(예정), 전시 5종, 연구보고서 7종, 창제작품 20종, 퍼포먼스 60회, 아티스트 토크 13회, 그림책 텍스트 3종, 문화상품 시제품 약 30여종 등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융복합 콘텐츠 제작을 위한 창제작센터(ACT센터)는 콘텐츠 기반시설인 세 개의 스튜디오(디지털 AV, 기계조형, 복합)와 내외부 인적조직인 '랩(Lab)'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아시아에 대한 재해석을 기반으로 인문학, 건축, 무용, 시각예술, 조형예술 등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된 콘텐츠는 문화창조원 복합관에서 전시하며, 학자, 예술가, 기획자, 일반 시민이 참여하여 새로운 지식을 교환하고 창출하는 열린 마당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새로운 실험적 전시문화를 선도한다.

2019년에는 융복합 콘텐츠 쇼케이스 로보틱스 프로젝트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7건, 융복합 콘텐츠 기획전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ISEA2019) 계기 기획특별전 〈Lux Aeterna : 영원한 빛〉, 〈검은 강, 숨은 숲 6 senses〉 등 3건, 온라인 아카이브 전시 ACC-구글 아트프로젝트 〈ACT페스티벌 온라인 아카이브〉, 미디어월 쇼케이스 〈빛(Licht)〉 등 3건을 추진했다. 2019 ACT페스티벌은 ACT센터 주요 활동 결과물 8종을 한데 모아 퍼포먼스, 강연, 워크숍, 전시의 형태로 소개하며 국제적인 창제작자들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했다.

전시 콘텐츠는 전당 전시의 성격을 정립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ACC FOCUS, ACC CONTEXT), 국제교류 중심의 프로젝트(ACC PRISM), 지역과의 협력과 상생을 추구하기 위한 지역 연계 프로젝트로 크게 구분하여 추진된다. ACC FOCUS는 작가 및 프로젝트 특성 중심으로 신작 제작 커미션과 전시가 결합된 프로젝트이고 ACC CONTEXT는 시의성 있는 이슈 등을 다루어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는 담론을 생성할 수 있는 전시이다.

2019년에는 ACC CONTEXT는 특별순회전 〈커피사회(Spring Coffee Club)〉, ACC PRISM은 주한독일문화원 협력 전시인 〈이주서사 Migration: Speaking Nearby〉, 지역 연계 프로젝트로는 지역 · 아시아작가 매칭전 〈라이트 온 더 무브: Light On The Move〉을 개최하였다.

공연 콘텐츠는 공연예술의 아시아성 연구와 함께 융복합, 동시대성, 실험성 이라는 방향성에 가치를 두고 문화전당 정체성의 메시지가 드러나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변형 극장인 예술극장 극장1 최적화 공연개발을 위해 2019년에는 2018년도의 연구개발과 쇼케이스를 거친 작품들이 ACC레퍼토리로서 시범공연과 본 공연에 이르는 성과를 냈다.

애니메이션 음악극 〈드르곤킹〉이 본 공연을 했으며 핵심 융복합 공연콘텐츠인 〈렉스: 불멸의 힘〉은 레지던시를 통해 4월 기술 시연 쇼케이스를 진행했다. 쇼케이스의 평가를 토대로 관객에게 쉽게 다가가고자 12월 본 공연 제목을 〈무사 : 불멸의 영웅들〉로 변경하고 다듬어 12명의 아시아영웅캐릭터를 부각시켰다.

5 · 18광주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담은 작품 창작에도 박차를 가하여 〈시간을 칠하는 사람〉, 〈나는 광주에 없었다〉를 시범 공연했다. 아시아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인도의 정신을 세계에 알린 R.타고르의 동명희곡 〈붉은 협죽도〉를 2018년 〈레드 올랜더스〉 낭독공연을 한 뒤 2019년에는 감각적인 미장센의 몸의 연극으로 풀어냈다. 이 작품은 2019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국내초청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림 5-4-5 2019년 창제작 공연 대표 사진 등

〈무사 : 불멸의 영웅들〉 본 공연

〈나는 광주에 없었다〉

〈레드 올랜더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동시대 문화 예술의 교류와 창조의 플랫폼으로서 예술가, 창작자들을 서로 연결하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새로운 지식재산 가치를 창출하고 그 혜택을 서로 공유하고자 노력했다.

2019년에는 창 · 제작한 전시, 공연, 교육, 연구 콘텐츠 등을 전국적 뿐 아니라 해외로

확산시켰다. 문화전당을 방문해야만 누릴 수 있었던 콘텐츠를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등 공연 불모지에서 유통시켰다. 전국 문화예술회관과 공연축제 등에서도 콘텐츠를 선보임으로써 보다 많은 대중이 전당의 지식콘텐츠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의 인문학적 소재와 창의적인 기술력, 예술적 상상력과 결합한 융복합 전시 19종, 공연 17종 등을 창 · 제작해 국외에서 37회, 국내에서 159회 유통시켰다. 문화전당이 창 · 제작한 대표 대형공연 '무사:불명의 영웅들'은 성공적인 시험공연을 마치고 2020년 강릉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OSMU(One Source Multi Use)의 투자유치와 유통 활성화를 위한 준비도 마쳤다.

교류 및 협약, 타 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 되었던 지식재산권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저작권 관련 법제적 정비와, 유통을 염두 한 표준계약서 개발을 완료해 현장에 적용했다. 문화상품, 전시도록, 교구재, 캐릭터 개발 등 다양한 지식재산도 확보했다. 교구재(9건), 교육프로그램(14건), 전시도록(10건), 영상(4건), 문화상품(51건) 등을 상용화했다. 디자인랩 '셰프의 가위'가 특허를 받고 디자인등록을 완료했다. 한국어와 영어, 러시아로 발간된 아시아그림책 5종 가운데 '지금 바로 여기' '진정한 친구'는 제13회 투르크메니스탄 국제도서박람회에서 '올해의 어린이 책'을 수상했다.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된 교구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대내외로 활발하게 유통시켰다.

(3)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통한 국민행복 향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대표 축제는 월드뮤직으로 문화 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월드뮤직페스티벌〉과 어린이 · 가족문화축제인 〈하우펀(HowFun)〉, 세계의 문호들과 시민이 함께하는 아시아문학대전인 〈아시아문학페스티벌〉 등이 있다.

2019년은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이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남녀노소, 세대를 뛰어넘는 도심 속 음악축제로 브랜드를 높이고 있다. 그간 축제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축제 관련 사진과 포스터 등을 전시했으며 좀처럼 만나기 힘든 최고 월드뮤직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레지던시를 통한 국내외 뮤지션 간 콜라보레이션 쇼케이스 공연, 아티스트 토크 프로그램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맞이했다. 하우펀(HowFun)은 5회를 맞아 전시 · 공연 · 교육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 시민 프로그램 공모를 시도하여, 지역 유관기관 등 문화예술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공간구성 형광 색감을 주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미 요소를 부각시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참신하고 흥미로운 대중적 콘텐츠로 구성하여 계기별 시민에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사랑방과 같은 친숙한 공간이 되어왔다. 2019년도에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연계하여 ACC브런치콘서트, ACC슈퍼클래식을 운영했다. 〈ACC 브런치콘서트〉는 뮤지컬, 국악, 클래식, 현대무용, 재즈 등 다양한 공연 장르의 예술을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해 관객에게 친근감을 주어 매 회 객석 점유율 95% 이상을 유지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CC 슈퍼클래식〉은 클래식 공연문화에 대한 관람객의 수요를 반영하듯 관객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진행됐다. ACC가 생활 속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기획한 〈ACC시민오케스트라〉 역시 지역의 클래식 문화에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도심 야외 공간에서 즐기는 영화 상영 프로그램인 〈빅도어시네마〉는 뮤지컬 공연 실황 상영, 현대적 무성영화 변사극, 공연과 토크 콘서트 등 다채롭게 구성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ACC 무빙씨어터〉는 이동식 무대차량으로 국내 우수축제와 문화기획자 대회에 참여해 공연과 동시에 문화전당을 홍보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5회째 열린 제야음악회는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브라스밴드와 재즈, 색소폰니스트의 환상적인 협업공연은 관객들을 들썩이게 했다.

그림 5-4-6 2019년 문화전당 축제 프로그램 대표 사진 등

어린이 · 가족문화축제 HowFun5

ACC월드뮤직페스티벌

빅도어 시네마

문화전당은 고객 편의증진 및 개별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오고 있다. 본관 건물 내 주차장 2개소, 의무실 2개소, 수유실 3개소 운영, 부설주차장 통한 버스 등 중 · 대형 주차 공간 확보 및 승용차량 주차공간도 대폭 확보, 포토존 조성을 통해 옥외공간 활성화 및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해왔다. 2019년에는 실외 무인 안내기 10대를 설치하여 길안내와 콘텐츠 홍보를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개선 해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2019년에는 금남지하도상가와 지하철역사로 통하는 지하연결통로의 삭막한 공간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하여 문화예술 환경 개선으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실내에는 공간별 국립기관 최초로 향기인테리어를 적용시켜 오감으로 공간을 즐길 수 있게 했고 내부유리 안전필름 및 부설주차장 지상화장실 신축 등 관람객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시설개선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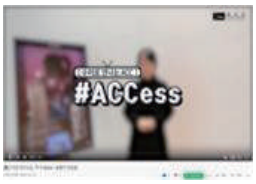
그림 5-4-7 고객 편의시설 사진 등

국제회의실 환경개선

수유실 공간개선

주차장B출입구 개선

문화전당역사 연결통로



수어로만나는 ACC

카카오톡 채널 개설

아리랑TV 연계 홍보

해시태크 이벤트, 모자이크 만들기

문화전당은 방문객활성화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콘텐츠를 선정하고 고객 참여 행사를 기획함으로써 콘텐츠 중심 통합마케팅을 추진했다. 주요 기업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해 외부 홍보 채널 확대, 신규 관람객 유치에 기여했다. 문화전당 거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시티투어 및 한국관광공사 프로그램 연계를 강화해 전국구 방문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2019년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하는 코리아 유니크베뉴 30선에 문화전당이 선정됨에 따라 국제행사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서 홍보도 강화 하였다.

문화전당은 지역 소재라는 환경 속에서 국내외 폭넓은 타겟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자 다수의 공공 캠페인과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해외기관과 연계한 2019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세계문화기관과 홍보정례협의회도 구축했다. 기관 홍보콘텐츠를 담은 웹진 발행, 미디어월 활용한 영상 및 프로그램을 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젊은 층 대상 대외 홍보를 위해 국내 거주 한국인 대학생과 유학생, 해외 거주 한국인 대학생으로 구성된 ACC 기자단을 운영하며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쌍방향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2)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사업은 '5대 문화권 조성' 사업과 '문화도시 기반 조성'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5대 문화권 조성' 사업은 '광주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도시 내 핵심 기능별로 문화권을 설정하는 사업이며, '문화도시 기반 조성' 사업은 문화도시 경관조성, 지역문화자산 리모델링 등을 통해 중소 문화거점과 5대 문화권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5대 문화권과 문화거점은 권역 특성과 기능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우선적으로 집중 육성하여 문화적 흐름이 도시 전체로 확산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쾌적하고 품격 있는 경관과 도시 내 생태문화축을 조성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녹색문화도시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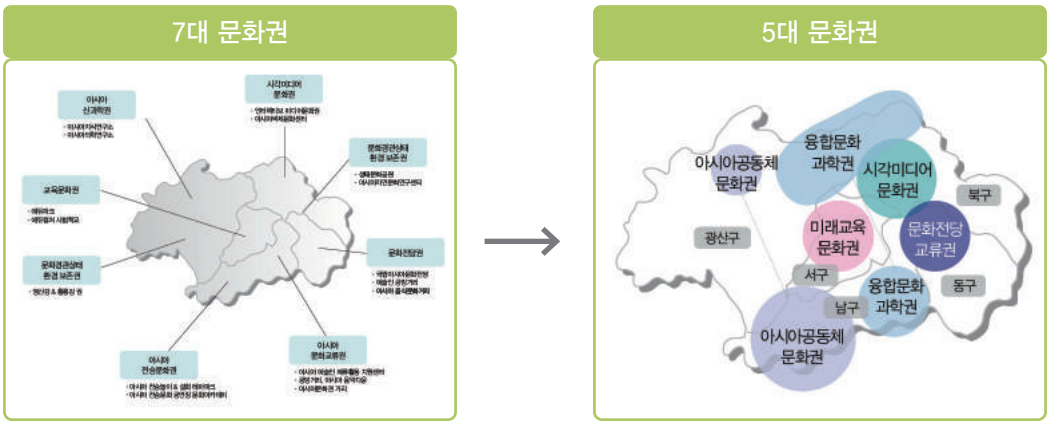
2007년 종합계획에 반영된 문화권 조성사업은 광주를 지역 특성과 역사성 · 발전성을 토대로 7대 문화권(① 문화전당권, ② 아시아문화교류권, ③ 아시아 신과학권, ④ 아시아전승문화권, ⑤ 문화경관 생태환경 보존권, ⑥ 교육문화권, ⑦ 시각미디어문화권)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 내 문화거점을 집중 육성해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뚜렷한 성과가 없어 계획의 현실성 · 타당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수정계획에서는 그동안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5대 문화권으로 개편하였다. 새로 개편된 5대 문화권은 ① 문화전당교류권, ② 융합문화과학권, ③ 아시아공동체문화권, ④ 미래교육문화권, ⑤ 시각미디어문화권이며, 권역별로 단위사업을 재구성 · 배치했다. 권역별 단위사업은 매년도 핵심사업 1~2개를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5대 문화권과 연계하고 이를 보완하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통해 도시 전체에 문화적 환경을 확산해 나가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5-4-8 7대 문화권 → 5대 문화권 개편



문화전당교류권역에는 전통시장에 문화예술을 접목한 대인예술시장 사업은 상인, 예술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의 지원이 함께 어우러져 일궈낸 문화적 도시재생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현재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래시장 문화재생 사업의 롤모델로 성장하였다. 예술의 거리는 스탬프투어 등 다양한 예술체험, 아트마켓 등을 운영하여 예술가 · 상인 · 시민 간 문화예술이 창작 · 유통 · 소비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은 문화전당 내 민주평화교류원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연계시설로 아시아음악타운 및 공방의 거리, 아시아문화원거리 등 복합시설 조성으로 문화예술인 체류활동 지원센터를 건립, 아시아문화의 집적지로 조성하여 국제적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사운드파크페스티벌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메인무대를 5 · 18민주광장으로 옮겨 광주시민들과 수영대회를 찾은 7천여 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한 공연과 부대행사를 무료로 제공했다.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120억 원과 시비 364억 원 등 총 48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하1층 지상10층, 연면적 1만9243㎡ 규모로 5 · 18 40주년인 2020년에 재개관될 예정이며 5 · 18당시 헬기기총소사 흔적을 원형 보존하고 5 · 18에 대한 왜곡, 증거, 진실을 만날 수 있는 5 · 18 기념공간 조성과 함께, 도심 속 디지털정보도서관과 다양한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일생활문화센터, 광주의 남도관광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남도관광센터, 광주의 자연 · 역사 · 예술

등을 보여주는 대형 미디어월 등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의 장 마련을 통해 현재의 광주와 광주시민을 만날 수 있는 시민문화공간, 광주 미래 먹거리인 문화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콘텐츠 기업과 창업센터를 집적한 광주콘텐츠허브가 들어선다.

그림 5-4-9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운영(문화전당교류권)

그림 5-4-10 전일빌딩 조감도

3)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 · 산업 육성

근현대 우리나라 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긴 허백련의 한국화(남종화)와 오지호로 대표되는 서양화라는 미술기반이 있는 '예향' 도시이며, 판소리 대가 임방울, 서정시인 박용철처럼 음악과 문학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뚜렷한 활동을 펼친 이들이 이 지역의 아시아공동체문화권 사업의 근거로 작용했다. '예향론'은 '국제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 등을 개최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점차 도시정체성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은 기반 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의 전국화 · 세계화를 통해 정체성 홍보와 도시 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한 · 중전통문화교류', '국제아트페어', '임방울국악제' 등을 개최하여 전통예술의 원형보존과 계승 뿐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고유한 문화콘텐츠 확보, 공연 문화상품 개발을 모색하고 국제규모의 미술시장을 통한 문화네트워크를 확장하였다. 또한 '2019

광주국제미술전람회(행사명 : 아트광주19)'는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선터에서 13개국 91개 갤러리(국내 73개, 국외 18개)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총 6,000여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약 18.5억 원의 판매가 이루어졌고, 26,000여명이 관람했다.

그림 5-4-11 2019년도 제27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 행사 모습 등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과 같이 인적 인프라를 육성하는 사업과 영상복합문화관, 광주CGI센터 건립,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와 같이 물적 인프라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CG활용 프로젝트 제작기반 사업, 문화콘텐츠 기획창작 스튜디오 운영 지원, 문화콘텐츠 글로벌마케팅지원, 웹 애니메이션(WAF) 페스티벌 개최 등의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문화산업 육성에 투입된 예산은 CGI 기반 콘텐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적, 물적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는데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제작 및 마케팅 지원, 시설 및 단지 조성, 투자기반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그림 5-4-12 2019년도 국제문화창의산업전 전시장 및 홍보관

개막식

전시장 내부

그림 5-4-13 광주실감콘텐츠큐브 단지 배치도 및 조감도

단지 배치도

조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투자되는 금액 중 민자의 규모는 32.8%인 1조 7천억 원이다. 현재 5대 전략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 공동이용장비 구축 및 투자조합을 통한 문화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의거, 문화기업들을 집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전당권역, CGI센터권역, KDB생명빌딩 등 3개 권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문화산업의 진흥과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촉진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다. 2012년에 제1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이 190억 원 규모로 결성되어 총 80건 약351억 투자하였다. 이중 영화 54건, 애니메이션 15건, 기타 프로젝트에 11건에 투자하였고, 현재 청산진행 중이다. 2017년 제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 펀드가 100억 원 규모로 결성되어 7건 64억 투자하며 운용 중으로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은 문화산업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투자진흥지구는 관광산업 등에는 기존과 같이 30억 원 이상 투자를 하여야하나, 문화산업 부분은 기준 투자금액을 당초 30억 원에서 5억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으로 완화였다. 기준금액 이상 투자하는 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과 지방세 면제, 국 ·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도 허용되며, 입지 · 투자 · 고용 · 훈련 · 컨설팅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조세감면은 당초 2018년 12월 31일에서 3년 일몰을 연장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에게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표 5-4-5 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

('19.12.31.)

구분	KDB생명빌딩	문화전당권역	CGI센터권역
신청자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지정일	2010. 12. 9.	2010. 12. 9.	2010. 12. 9.
대상지	• 서구 천변좌로268 유치 공간	• 동구 금남로, 충장로 궁 · 장 · 대의 · 황금동 • 아시아문화전당 등	• 남구 송암로 60 CGI센터 일원 • 정보문화산업진흥원 • 남구청 교통과 부지
면 적	83,489㎡(25,299평)	282,433㎡(85,435평)	15,536㎡(4,699평)
주요시설 및 내용	• 주요사업 분야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IT/SW • SW지원센터(기존)	• 광주스마트모바일 앱센터 • 1인창조비즈니스센터 • 시니어기술창업센터 • 문화전당 연관 산업 시및 연계 효과가 큰 전시 및 공연, 엔터테인먼트업체, 관광업체 등	• CGI센터(기존사업) • 첨단실감콘텐츠제작 클러스터(건립예정) • 첨단 영상 등 대형 업체 (애니, 게임, VFX, 3D 등)

4)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아시아 각국의 문화 다양성 존중과 문화예술의 창의성 증진을 위하여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 도시 간 문화교류 협력사업(인도, 러시아, 중국 등) 추진, 아시아 문화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운영, 한 · 중 전통문화교류 등 문화교류 기반조성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였다. 2014년에 중국 취안저우, 일본 요코하마와 함께 원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사업은 광주, 취안저우, 요코하마 3개 도시 간 신뢰(MOU)를 기반으로 교류 5년째를 맞아 정책포럼, 예술교육, 청소년교류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아시아문화포럼은 2019 아시아문화포럼 특별세션에 한중일 문화도시의 전문가, 문화기획자를 초청, '아시아의 골목이야기'를 테마로 3국 시민문화의 방향성과 담론을 제시하면서 지역 학생 및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일본 요코하마 음악제에 참여하여 진도북춤 등 예향 광주의 전통미를 알리고, 중국 취안저우 해상 실크로드 예술제에 참여하여 광주 현대무용의 예술성을 과시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사업도 전개하였다.

2019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은 2019년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되었다, '영원한 빛'을 주제로 학술회의, 전시,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였고, 59개국 1,100건 사전 공모접수가 신청되었고, 36개국 489명이 행사기간 심포지엄에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의 주제인 '영원한 빛'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발표 및 토론 그리고 작품이 전시되어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의 인지도를 확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행사였다. 국제적인 문화콘텐츠 연구와 창 · 제작의 문화발전소인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원과의 협업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술과 과학의 융합이 이루어낸 다양한 창작물을 통해 미래사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엿볼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

또한 문화전당교류권역의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 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숙박 · 음식 · 쇼핑, 관광 등 MICE 연관산업 간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지역 브랜드를 제고하는 사업이다. 이에 지역특성화사업 연계 등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2019 글로벌태양광컨퍼런스, 2019 국제첨단자동차기술컨퍼런스(ICAT), 2019 아시아문화포럼 등 42개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2020 국제태양광컨퍼런스(GPVC), 2020 동북아표준협력포럼, 2024 세계해부학회 등 28개 국제회의를 유치하였다. 또한 광주시 마이스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 · 진흥계획을 수립('17.11.)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받아('18.8.) 국제회의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마이스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2019
Culture & Arts Policy
White Paper

발행일 | 2020 년 12월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www.kcti.re.kr
제 작 | (주)계문사

© 2020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예술정책백서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발간자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